



No. 48298

LIBRARY OF  
UNIVERSITY OF WOOSTER



Gift of  
Pres. Chas. F. Wiskart

Four Quarterly Volumes  
bound together.

---

This Review is published by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Is financed by the Presbyterian Council  
of the four Presby. Missions in Korea.

---

Rev. Delston Engel is Editor-in-Chief.



See other title pages in the body of the book.

No. 4.

## CONTENTS

		Page
The Shepherd Psalm interpreted by Our Lord	Editor	3
God's Covenant	Rev. Eugene Bell, D. D.	6
The Nazirite Vows	Rev. W. C. Erdman	15
O. T. Types- Moses as Leader	tr. Rev. T. S. Soltau	22
The Date of the Birth of Our Lord	Rev. S. L. Roberts	39
Lectures on Revelation (3 & 4)	Rev. E. W. Thwing	48
From the Bible Herald and Pulpit	tr. Rev. Ch'a Sangjin	66
Preaching to Unbelievers	Rev. C. A. Clark, D. D.	74
The Intellectual Life of the Minister	Rev. W. C. Kerr	82
Sermon: Jesus receives Sinners	Rev. C. A. Clark, D. D.	94
Sermon Outlines		107
Illustrations	tr. Rev. C. A. Clark, D. D.	121
The Pastor's Mirror		130
Themes and Texts	Selected	137
Bible Work	Editor	143
Our Alumni	" "	147
Church Items	" "	149
Book Review	" "	151

## SUBSCRIPTIONS.

Subscription rates payable in advance

Annual 80 sen Postpaid

Single copy 25 sen "

In Europe and America, Annual ¥ 1.10 "

Send all subscriptions to the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Seoul; all manuscripts to Rev. G. Engel, Fusanchin; and all advertising copy and other business communications to Chas. Allen Clark, Seoul, Korea.

When writing our advertisers, please, mention the Review.

# THE SUSTENTATION FUN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

This Fund provides pensions for all Foreign Missiona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 S. A. under regular commission by the Foreign Board, whether men or women, ordained or lay. It is the simplest, cheapest, and best method whereby a Foreign Missionary can provide a Pension, payable at permanent disability or at the age of seventy.

The Fund is now paying 85 per cent of the maximum pension.

For rates and other particulars, apply to-

*The Office of the Theological Review,*

**SEOUL, KOREA.**

or

THE COMBINED BOARDS

of

MINISTERIAL RELIEF and SUSTENTATION FUN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

William Hiram Foulkes, General Secretary

William Sylvester Holt, Associate Secretary

William W. Heberton, Treasurer.

423-429 Witherspoon Building, Philadelphia, Pa.

耶穌敎書會에委託하여發行케하였는디히브리詩法과詩의特別名稱과篇頭에

말한詩人이나曲調를指하는特言과詩篇全部의蒐集方法和詛呪詩와메시아詩와悔

改詩와詩篇全部의各道理와詩를使用하는法을論述하고新約에引用한詩言과每詩

中最貴節을指示하였는니各牧師와助事와聖經敎師의게미우有益되는冊이오또本

指南의印刷方法과又다處諺漢文과諺文肩書로印刷한거시니라或誤字가잇스나此는

印刷時에잘못된거시니讀者諸氏는斟酌하여校正할수가잇을듯하나第六頁末行에

데빌님이란言은데힐님으로校正할거시오又廿六頁에는七十人經文이학미와세가

리야兩先知가合하여一百四十六、七、八篇을著述한事를證明하였다할거시오又八

條三項에삼上廿一〇十三代에삼下六〇十五로뭇칠거시라이대로校正하면誰某라

도잘使用할수잇는줄아옵는이다

(王吉志)

神學指南南

一 千 九 百 十 九 年 一 月 一 日 前 到 日 字 外 處 所 定 權 利 를 맞 기 고 또 彼 輩 로 하 여 公 宜 當 請 求 書 를 發 送 케 하 며 各 會 의 總 代 들 의 名 數 를 作 定 하 기 하 며 此 總 會 의 代 表 者 를 選 舉 케 하 며 議 會 의 개 드 린 系 統 的 聯 合 會 에 對 하 는 試 驗 的 方 針 을 計 圖 하 기 하 며 其 外 에 諸 般 準 備 事 件 을 處 理 케 하 기 로 決 定 하 였 다 더 라

京城神學校의 回祿

(정성신학교의 회록)

去 年 十 二 月 十 二 日 에 京 城 冷 洞 에 있 는 監 理 教 會 協 成 神 學 校 에 서 卒 業 禮 式 舉 行 하 기 로 準 備 하 던 中 에 校 舍 全 部 가 燒 火 되 고 煉 瓦 단 殘 在 하 였 다 는 所 聞 을 들 고 但 驚 歎 하 는 口 吻 으 로 教 授 會 에 對 하 야 同 情 을 表 示 하 는 이 다

書籍에 對 하 는 鑑定

(서적에 대한 감당)

詩篇總論

(定價廿五錢)

去 年 三 月 에 神 學 博 士 郭 安 連 牧 師 氏 著 此 問 題 七 十 四 頁 되 는 冊 을 著 述 하 야 朝 鮮

書籍에 對 하 는 鑑定



日에 判決書를 公布하야 曰聯合會 事는 憲法上에 到底히 宜當하며 財產은 聯合會 教會

의 所有가 되고 그의 管理下에 잇슬 거시라 하였는즉 此判決은 將來 他長老 教會와 聯合

하자는 意向에 重大호 뜻시 되느니라

合衆國 北方 教會의 總會가 昨年 五月에 여러 獻議를 接受호 中에 美國의 福音의 教會

(예수 교회) 諸教派의 系統的 聯合會 事에 對하야 運動하기를 請求호 獻議를 接受호

로 該總會에서 如左히 議決호 였느니라

一、오하요 州 콜럼버스 (Columbus) 都城에서 第一百三十回로 會集호 總會의 總代되

는 吾儕는 宣言호 노니 現時는 美國內 福音의 教會 諸教派의 系統的 聯合호 時機가 至호

줄 到底히 確信호 表明호 노라 호 였스며

二、此總會가 美國內 福音의 教會들의 各總代會의 代 獻議호 야 系統的 聯合 方針을 計

圖호 目的으로 吾儕의 代表者 諸氏와 會集호 기를 請求호 다 호 였스며

三、又此總會가 以上에 請求호 마 議會를 會集호 기爲호 야 協力及 聯合事件 委員部의

第十一回卒業生李在馨氏는京, 忠老會區域內楊平郡四處教會의 請聘함으로老

會의 按手함을밧아專任牧師로視務한다더라

第十一回卒業生申洪均氏는京, 忠老會區域內高陽郡四處教會의 請聘함으로老

會의 按手함을밧아專任牧師로視務한다더라

第十一回卒業生崔榮澤氏는京, 忠老會區域內清州邑教會의 請聘함으로老會의

按手함을밧아宣敎師桂根氏와委任同事師牧로視務한다더라

# 教會事况

(교회사항)

主後一九〇六年에美國北長老教會와검벌난드(Cumberland)教會란長老教會가聯

합함으로作定하였는디검벌난드教會中少數가反對하여言하기를此事는憲法上에

不當하고無効한거신故로我等教會의財産은北長老教會의財産이될수업다하고여

러州의裁判所에訴訟하여終乃北美合衆國高等法院이지控訴하였는디去年五月六

가다가去十二月十八日월 일에辭職소과함으로老會로회가許諾허락하되또특별특별작定작명으로幾月間몇 달 동안

宣教師를代身대신하여累處여러 곳의教會를巡察순찰케 되었다더라

第八回卒業生李汝漢氏는京忠老會區域內金浦郡四處教會의請聘청빙함을받아專任전임牧師로視務시무케 되었다더라

第九回卒業生李錫堧氏는京畿道廣州郡幾處教會의請聘청빙함을받고또本老會의

按手안수함을받음으로宣教師密義斗氏와同事牧師로視務시무케 되었다더라

第九回卒業生咸說氏는慶南老會區域內釜山鎮과東萊邑兩處教會에서一年間踰

時로視務시무하다가去十二月十九日월 일에該兩處教會의請聘청빙함을받아宣教師王吉志氏와

委任同事牧師로視務시무케 되었다더라

第十回卒業生朴屺愛氏는前에助事로視務하던晋州邑教會에서請聘청빙하기爲

去十二月十九日慶南老會에請願청원함으로老會가該氏의게按手안수後該教會에委任

同事牧師로視務시무케하기로作定작명하였다더라

同

# 卒業生任命과移動

(졸업생임명과이동)

第一回 졸업생 한석전씨 韓錫晉氏는 慶尙南道馬山府上南洞(舊馬山)教會에서 專任牧師로 視務하다가 去十二月十九日 該老會에 辭職請願書를 提呈함으로 該老會에서 審議

후 該老會에 그대로 許諾되 아직 來年三月末日까지 視務기로 作定하였다더라

第四回 卒業生 車亨駿氏는 支那安東縣六道溝教會에서 視務하다가 今年八月二

十二日 平北老會區域內 龍川龍巖浦와 薪島兩教會의 請聘함을 受함으로 去九

日 該教會에서 視務케 되었다라

第六回 卒業生 李在豐氏는 慶南居昌邑과 其外四處教會에서 委任同事牧師로 視

務하다가 去十二月十九日 辭職請願書를 本老會에 提呈하여 認許를 受함으로 幾日

後에는 故郷으로 歸還하였다더라

第七回 卒業生 朴永燁氏는 慶南統營邑과 固城邑教會에서 委任同事牧師로 視

務하다

卒業生任命과移動

無<sup>일</sup>함으로玉蜀黍粉一升을가지고宣<sup>선</sup>敎<sup>교</sup>師<sup>수</sup>妻<sup>처</sup>의게갓다주며言<sup>말</sup>하기를此物을新約全書<sup>신약전서</sup>를<sup>이</sup>문드신先生<sup>선생</sup>들의게傳與<sup>전히</sup>함을요셔하거늘該夫人이其女兒의게新約全書一卷을주었다더라

黑人들이聖經을思慕함 (흑인들이성경을사모함)

東<sup>동</sup>아프리가英國領地<sup>영국령지</sup>나이로비<sup>도성</sup>란都城에있는宣敎師一人이론돈에서새로히出版<sup>출판</sup>

된<sup>신</sup>되<sup>약</sup>힐니新約全書八百卷接受<sup>접수</sup>하기를브라<sup>빅</sup>라<sup>켄</sup>는디一百二十五卷<sup>권</sup>은첫櫃<sup>캐</sup>를受<sup>받</sup>호<sup>온</sup>지二時<sup>두시</sup>

間<sup>간</sup>만에盡賣<sup>다팔</sup>하고追後<sup>추후</sup>에또二櫃<sup>두캐</sup>에든二百五十卷을<sup>권</sup>받은後主日<sup>후주일</sup>에廣告<sup>광고</sup>하기를月曜日<sup>월요일</sup>

某<sup>아</sup>時<sup>모시</sup>에新約冊<sup>신약책</sup>을<sup>그</sup>팔<sup>잇</sup>것다<sup>흔</sup>하<sup>는</sup>였<sup>다</sup>니其翌日<sup>그잇흔날</sup>定<sup>시</sup>호<sup>는</sup>時間<sup>시간</sup>前<sup>전</sup>에四百名<sup>백명</sup>이一卷式<sup>호권식</sup>사러왔는디

或<sup>혹</sup>및<sup>그</sup>쳐<sup>선</sup>박<sup>교</sup>지<sup>수</sup>못<sup>화</sup>할<sup>원</sup>가念慮<sup>념려</sup>함으로宣敎師의花園<sup>화원</sup>에花草<sup>화초</sup>를踏傷<sup>밟아상</sup>하<sup>는</sup>였<sup>다</sup>서<sup>그</sup>도該宣敎師가彼<sup>신교수</sup>

等<sup>들</sup>의熱誠<sup>열성</sup>을보아容恕<sup>용서</sup>하<sup>는</sup>였<sup>다</sup>더라然<sup>그러</sup>호<sup>는</sup>디該新約全書의定價<sup>대가</sup>는六十錢式<sup>전식</sup>이러라

大英聖書公會의 活動 (대영성서공회의 활동)

一九一七年에 該會에 賣書人들이 各國에서 賣書한 卷數는 總合五百二十五萬卷이

다 又 昨年 五月에는 上海 聖書店에서 四十六萬二千卷을 發賣하였고 又 昨年 첫 六個

月間에 二百萬卷을 發賣하였더라

又 本公會가 歐洲 戰亂中에서 勉力하여 聯合國과 敵國의 陸海軍兵士中 病者와 負傷

者와 捕擄와 避亂民의 關懷中 新約全書와 福音과 詩篇冊을 分給하였는디 平均으로 每

日 七千卷式이나 되었으며 該各書는 七十五方言으로 翻譯된거시오 該公會에 每日 費

用額은 萬圓式이나 된다더라

支那西南方野民 (지나서남방야민)

支那雲南省(支那西南)에 있는 人民을 爲하여 花야오方言으로 新約全書를 翻譯하

야 出版하였는디 該人民이 此를 感格히 思하여 二十錢價額되는 該書를 買得하기를 切

慕함으로 發賣하지 未久에 一卷도 餘하지 不어 又 一女兒는 自己의 財分錢이

傳道狀況

도 결과 결과로 작년 昨年 삼삭 三朔에 신구약 新舊約 합부 合部 (聖經全書) 백 一百九十五卷과 신약전서 新約全書 백 二百一十九卷과 복음 福音과 소책 小冊二千四百三十一卷을 발매 發賣하였더라

赦罪 함음 受 함음 (사죄함을 받음)

남 남 남야 메리가, 브라실니아 (브라실) 어나곳 某處에 엇던 何許 간슈 看守 一人이 잇노 有 한디 該 감육서 監獄署

에 간슈 拘囚된 罪人들을 간슈 看守하야 어 爲하야 가셔 살인죄 本즉 殺人 罪로 인 囚하야 오리 정역 懲役 살피 죄슈 된 罪囚

一人이 호사름 잇노 디 이 此는 곳조기 卽 自己의 이전 以前 전구 親舊 中 一人이 호사름 러라 該人이 모양 깃본 貌樣으로 말 言하기를

내가 내사죄 赦罪 함을 말 엇었다 하거늘 그순수 該 巡查가 그저 曰 君이 말 赦罪 함을 엇지 엇스면 이곳 何如 하야 이곳 此處에 잇 잇

나하오니 그죄슈 該 罪囚의 말 言이 내 我가 감육서 監獄署에서 성경회 聖經冊一卷을 열람 엇어 그책 閱覽하교 말 該書에 말 言하에

수로 말미암아 由야 사죄 赦罪 함을 말 엇었다 하교 그친구 該 友人을 성경 勸勉하야 열람 聖經을 말 閱覽하게 하러 하되 그때 其時

에 허락 許諾지 아니하엿서 엇둔후 幾月後에 그순수 該 巡查가 이주 他處로 명령 移住함을 그친구 該 親友와 작별 作別

할 때 時에 그죄슈 該 罪囚가 성경회 聖經一卷을 그손 其手에 느낄을 持고 열린 流淚하며 열린 閱覽하기를 구 懇求하매 그책 該書를 말 받고

其後에 그후 閱讀함으로 그사람 其人이 중성 重生하엿다 디라

一、罪<sup>죄</sup>는逆敵<sup>역적</sup>이오(눅九〇廿六)

一、救主<sup>구주</sup>의必要<sup>필요</sup>함(엡二〇十二)

一、그리스도가하느님의愛<sup>사랑</sup>를나타내심

(一요四〇九)

一、그리스도는우리의祭物<sup>제물</sup>이라(히九

〇十三、四)

一、하느님의請帖<sup>청첩</sup>(사五十五〇特<sup>특</sup>六、七)

一、하느님의洗濯<sup>세탁</sup>하심(사一〇十八)

一、重生<sup>중생</sup>의必要<sup>필요</sup>함(요三〇三)

一、하느님의救援<sup>구원</sup>하시는權能<sup>권능</sup>(로一〇

十六)

一、하느님씩降伏<sup>항복</sup>함(벧전五〇六)

一、그리스도의生命<sup>생명</sup>은我<sup>나</sup>의生命<sup>생명</sup>이라

(갈二〇廿)

一、예수內<sup>안</sup>에平安<sup>평안</sup>함(一요二〇廿八)

### 傳道狀況

(전도상황)

### 聖書賣下

(성서물판)

南<sup>남</sup>아메리가, 우루과<sup>국</sup>國에가르시아란賣書人<sup>데서인</sup>은鐵道停車場과瀛車에서勤勉히傳



은 視 亨 노 라 亨 디 라 )

一、 存 在 亨 을 回 復 亨 ( 禮 十 八 〇 四 ) 泥 土 를

가 저 그 造 成 亨 는 其 器 가 土 器 匠 이 手 中 에 서 傷

하 매 彼 가 其 心 대 로 그 器 를 가 저 고 他 器 를 造 亨

는 지 라 )

一、 記 憶 에 要 點 ( 禮 後 二 〇 八 ) 예 수 그 리 스

도 가 死 中 에 서 復 活 亨 심 과 다 윗 의 子 孫 된 器 를

記 憶 亨 라 此 는 我 가 傳 亨 는 福 音 이 라 )

一、 하 느 님 의 子 女 의 本 分 ( 禮 二 〇 十 五 )

然 亨 여 야 爾 等 이 責 望 亨 거 서 업 고 純 全 亨 여 違

逆 亨 는 世 代 中 에 在 亨 야 하 느 님 의 欠 息 亨 는 子 女

가 되 여 世 上 에 서 人 의 光 榮 으 로 顯 亨 리 라 )

一、 祈 禱 亨 後 에 前 進 亨 거 시 라 ( 出 十 四

〇 十 五 ) 여 호 와 서 서 모 세 의 介 謂 亨 사 디 爾 는

엇 지 亨 야 我 의 介 呼 籲 亨 는 나 이 스 라 엘 子 孫 을

命 亨 야 前 으 로 進 亨 거 亨 라 )

復 興 會 講 道 本 文 及 題 目

假 令 二 週 日 間 을 每 日 講 道 亨 라 면 以 下 에

記 錄 亨 次 例 로 本 文 과 題 目 을 擇 亨 여 講 道

를 製 述 亨 는 거 시 도 亨 거 시 라

一、 罪 의 實 狀 形 便 ( 로 三 〇 廿 三 )

一、 罪 의 愆 過 ( 禮 十 三 〇 一 一 五 )

一、 罪 는 卽 拘 束 이 라 ( 禮 後 二 〇 十 九 )

一、 罪 는 慾 心 의 結 果 라 ( 약 一 〇 十 五 )

一、困難곤난生活생활의喜悅기쁨(뒤後二〇三)爾네

가그리스도예수의精兵정병과如又히我나와同함히苦難고난

을耐견함지니라

一、平安평안치못함을곳침(詩百十六〇七)

「我의靈魂아爾의平安處으로歸하라大蓋어

호와서恩惠를爾의게賜하섯도다」

一、亨福부을者(詩一〇三)此人은比비킨디溪水

邊에種植을樹木이其時節을從야結實하며

其葉이枯마치아니함又하니凡厥의行호는事

가皆亨通하리도다」

一、慾心욕심의結果(箴十五〇廿七)利를貪호

는者는其家를苦롭게하고賄物을厭호는者는

一、喜悅기쁨을得호리라」

「爾의慾心을忍호고飢者의게주며苦者의게心

을滿足케호면爾의光이暗호디發호고爾의暗

호거시變호야午正과又홀거시오」

一、不淨부정함을의復來복래함(눅十一〇廿四)汚

鬼가임의人의게서出호야水가無호地로行호

다가息호기를求호되得지못호고이에曰我가

出來호家로還去호리라호고」

一、視能보는힘이信能믿는힘이됨(요九〇廿五)答호디

그가罪人인지아닌지我가知치못호나一事을

知호는거슨我가以前에는眼瞽호였다가只今

○卅九「我的手와 足を 見고 我인 줄 노 知하  
나 또 나 我를 捫하 라 靈은 骨과 肉이 無하 되 爾等이  
나 我를 見호 족 잇느니라」

一、愚昧호 商賈라 (로 一〇廿五、六)「彼等이

하느 님의 眞理를 虛說호 거 스로 易하 야 創造호

을 受호 萬物을 萬物 創造호 신主 보 다 더 敬拜호

고 奉事호 는 고 나 主는 尙 永遠히 讚美호 이 서 로

다 아 然此를 因하 야 하느 님 쯤서 그 羞耻호 慾心

에 棄置호 시 매 其女人들 도 原理致대 로 用호 거

슬 變호 야 理致를 逆호 었느니라」

一、自己를 回復호 人 (눅十五〇十七)「覺호

고 卽日我父親의 雇軍이 多호 고 其糧食이 饒호

야 餘호 되 我는 飢死호 겠도 다」

一、合當호 虛費 (막十四〇六)「예수 曰 仍

置호 라 爾等이 었지 此女人을 苦롭게 호 나 彼

가 我의 게 善호 事를 行호 었느니라」

一、人前에 信仰을 廣告호 (出十二一〇七

「其血을 取호 야 羊을 宰食호 는 家門 櫛과 門楣에

塗호 거 시라」

一、流血호 으로 設立된 宗教 (레十七〇

十二)「大蓋肉體의 生命이 血에 在호 매 我가 이 거

슬 爾等의 게 주 어 祭壇에 灑호 야 爾等 生命을 爲

호 야 贖罪호 게 하 었스니 此血은 生命을 因하 야

贖罪호 는 거 시라」

저는 나 若我的게 報을 領我가 速々히 爾等の

개 報授을 야 更히 爾等の 머리에 歸케 하리 다 대

蓋爾等이 我的 銀과 金을 取하고 我的 喜호는 美

한 거슬 가 저 다 가 爾等の 廟에 獻호엿스며」

一、風을 種하야 狂風을 收함 (옴아 디야

十一 爾가 爾兄弟야 公의 行호 暴虐을 因하야

辱이 爾를 覆홀 거시 오 爾가 永遠히 滅호리 라」

一、籛하 여 도 救贖호심 (아 모 스 九〇 九

「見호 지 어 다 我가 命令을 施하야 이스라 엘 族屬

을 萬國中에 서 箕箒호리 니 맞치 人이 穀粟을 箕

질호과 如히 호나 一糜라 도 地에 墮치 아니 호리

라」

可 用 的 本 文 及 題 目

一、播種할 時의 收獲할 時 (갈 六〇 八) 自

己의 肉體에 種호는 者는 肉體로 由하야 朽敗호

거슬 收호고 聖神에 種호는 者는 聖神으로 由호

야 永生을 收호리 라」

一、試驗과 作定 (士 五〇 十五, 六) 잇사갈의

方伯들은 드 보라 와 호씨호고 이사갈이 마락과

호씨하야 其蹤을 從호야 其谷에 走下호도 다 르

우엔 溪邊에는 大定호 主意가 有호매 爾等은 잇

지하야 羊牢中에 坐호야 羊羣을 爲호야 吹笛

聲을 聽호나 르 우엔 溪邊에 크게 心을 察호는

事가 잇도 다」

一、肉身을 管轄호는 心의 權勢 (눅 廿四

一、개으 懶怠은병 病을醫못치는藥약 (살後三〇十

우리가전 너희중 「我等이前에爾等中에在할時에도爾等의게

명 누구 命을기를誰던지일하기厭슬혀하거던食지도말게

하라」

一、永遠히榮華스러은紀念기념 (막十四〇

九「我가實내진실노爾等의계諭넢하노니天下에何

덕 부음 전 때 處던지福音을傳할時에此女人의行한事도言

커이 하야記憶하게하리라하시더라」

一、鄙陋한財物저물 (마廿七〇六「祭司諸長이

그은 거두어들이어 피잡시 其銀을收하며曰此는血價라庫에留置함이合

당 當치안락하고」

一、二種捫摩事 (마八〇三「예수가手를伸

서문자 하야捫하시며曰我가하고저하노니潔세함을受

오 하라하신디즉시문동병 即時癩病이潔하여진지라」 또

눅八〇四十五「예수曰我를捫하者가誰냐하

다아지 시니皆知처못하다할時에베드로와 밋同在하

자 者가曰先生님이여衆들이擁衛하야推하노이

다하니라」

一、하느님의信實은人의鞏固한基礎라

후 (살後二〇三「主는信實하샤爾等을固케하

악 자 시고惡한者의게서爾等을保護하시리라」

一、맛흔物件을不義로用함이오 (요엘

三〇四、五「두로와시몬과블레셋四方人아爾

회가 等이我와무슨相關이나爾等이我의게報償코

# 可用的本文과題目

偶然之事와 하는 님의 主管하심 (뜻)  
우연 호일파 주판

一〇三 「即時田畝에 往하여 秋收하는 者의 後  
즉시 밭에 가서 추수

를 隨하여 遺穗를 拾히시 偶然히 열니 말년의 同  
따라이삭을 주을 우연 동

族보아스의 田에 至호요  
족 밭해나름

一、聖神의 矜恤하심 (엠편四〇卅) 하느님  
성신 긍휼

의 聖神을 憂케 하지 말나 此聖神으로 由하여 爾  
성신 근심하게 이성신 말리압아너

等이 印치심을 受하여 救贖하는 日까지 至하리  
회가인 밭 아구속 날 나르

라」

一、失호 教會에 寄付하바 遺失된 書信  
닐호 교회 기부 유실 서신

(골四〇十六) 「此札을 爾等 中에서 讀호 後에  
이편지를 너희 중 님은 후

可用的本文과題目

(쓸만한 본문과 제목)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翻譯

라오 되게 아인의 教會에서 도 讀호 재호 고 又라오  
인 교회 님

의 게아로 서來호는 片紙를 爾等도 讀호라」  
편지 너희 님은

一、人生의 死亡은 하는 님의 作定에 在호  
인생 죽는 거슨 작명 잇습

(申卅四〇五) 「이에 여호와 의 僕모세가 여호  
신 말습 죽으 못 마이

와 의 言대로 거기서 卒호니 卽모압地라」  
말습 죽은 처 밭산감

一、略少호 淸蜜의 高價 (삼上十四〇四十  
적은 청밀 빚산감

三) 「이에 요나단이 抽籤된지라 사울이 요나단  
뽑힌

라 謂曰 爾가 호는 거슬 余의 告호라 요나단이 告호  
닐호 데네 나 고

야曰 我의 持호는 杖端으로 果然 蜜을 少許 濡호야  
포호 더나 가진 것이 맞호 과연 말 조곰씩 어 맞고

호였소오니 死호는 수外에 업습노이다」  
맞 죽을 밭기

것도 할 거시오 其外에는 牧師가 誰某의 게던 지 못하고 答하 게 할 수 있스며 幾人으로 暫間

祈禱케 할 거시오 若又中止되면 牧師가 敎友의 思想을 鼓動식힐 만흔 讚頌이나 他聖經

節을 朗讀할 수도 있고 問答도 할 수 있느니라 引導者가 題目을 善擇하고 門을 善開하면

中止되는 弊가 別노 업슬 듯하니라

中止될 時에 牧師가 敎友의 게 「時間이 가니 言하시오」 말하지도 말거시오 敎友가 아니니

러날 時에 「他說明者가 업스니 我가 말하노라」 고 말하지 아니하느거시오 中지가 되고

祈禱할 者가 업스면 牧師가 會中에 言하기를 五分間만 靜坐하야 各々 默想하 자 할 거시오

其後에도 說明할 者가 一向 업스면 一時間이 未滿하엿슬 지라도 閉會하느거시오 中

니라 會中에 對하야 牧師가 責하 지 말고 天然한 像態와 喜樂한 顔面으로 諸般事를 할 거

시니라 眞正한 祈禱會가 있스면 敎會가 興旺하고 쓰거운 熱心이 發生할 거시오 牧師는

完全한 祈禱會 設立하기를 勉力할 거시오니라

六、何如엇더 강도講道강도던지그리스도를나타낼顯示나타낼할거시니라

七、敎友교우 중 유식 자 호 두 사람中에보통 교우 위有識강도者예비一二人이잇슬지라도그 사람 위該人만爲성과야思인지말고九十九人되

는普通敎友를爲강도야講道를預備할거시니라 (南大理敎師)

一、祈禱會에기도 회 폐습變習몇 사람되는거슨幾個人만늘祈禱하는거시라敎師가此變習을改革기회하도

獨用力힘 쓸할거시니該幾個人만늘祈禱하지말기爲위야敎師가他敎友의名을呼불너야祈

禱도하기로指定지명함이도할거시오又祈禱할時에一人이張皇장황히하는變習도改良기망하야

할터이니祈禱會時에出席출석敎友들이各々一題目式만들어서一二分間만簡短하게

하도록할거시니라

此外에又一種變習이잇스니此는長時間中止하고잇는거시라引導者가講說하던

지祈禱後에恒常敎友와引導者가長時間靜坐相待회 중 지함으로會가中止되니可惜가석하

고歎息탄식할만事이라敎師가此等變習을除祛제거하도록勉勵힘 쓸할거시니라此에對하야好方호방

針침 하나히一이잇스니眞實진실敎人의게預托하야中止되랴는境遇에는卽時起立說明케하는



四、講道는 貴강도 귀한 거시나 禮拜會에 祈禱와 聖經朗讀하는 일과 捐補는 皆是緊重한 節次

로 알거시니라

五、講道는 恒常其形便을 따라 할거시니 時機에 適合한 講道는 適合지 못하 講道보다

十십배나 有益유익하니라

(馬具禮牧師)

一、에스겔이나 默示錄又흔 여러冊은 만히 研究하야 善解하기 前에는 本文으로 擇하

지 말거시니라

二、淫行이나 該等事에 對하여는 講道하는 中에 길게 말하지 말거시니라

三、講道만히 預備치 못하엿스면 預備할 것만 말거시니 有益한 말 二十分만 하는 거

시 臨時로 모든 長言보다 나흐니라

四、講道는 言語와 行爲가 旣然 貌樣으로 되지 말거시니라

五、來主日 講道는 月曜日부터 始作하야 預備할거시오 主日 朝夕 遲滯하지 말거시

니라

하는 거시도 하니라

八、講道할 때에 聽者로 하여 公웃게 하라 고 講道에 相關업는 古談을 하지 말 거시니 講

道題目을 解釋할 만흔 古談은 可하거니와 不然할 것 못흐면 크게 웃게 할 만흔 言이라

도 勿用할 거시니라 設或合當흔 古談이라도 敎人들이 其古談의 意만 記憶하 고 古談

으로 解釋할 理致는 不思想하 기 쉬우니 古談을 不用하거시도 出듯하 니라

九、牧師가 讚美를 잘하 지 못하거든 自己보다 잘하 는 敎友를 擇하야 該善手로 讚美를

引導케 하거시도 하니라 (裴禮仕牧師)

一、主日마다 講道할 本文을 擇할 때에 聖經中늘 刪에서 單擇하 지 말 거시니 假令恒

常야 고보 書나 히브리 書에서 單擇하 지 말 거시니라

二、講道할 때에 聖經本文의 言을 抄라 서하 기를 잊지 말 거시니라

三、祈禱會時에 敎友들 노하 여 公祈禱를 引導케 할 거시나 然이나 恒茶飯하 는 者들만

하 게 하지 말 거시 오 又各人이 同一 題目으로 祈禱하 기를 許諾지 말 거시니라

繼續계속하야 敎友교우를 마르치는中가운데에서 進歩진보되게 할수 있는니라

三、聖經성경을 朗讀朗독하는디 數三句節두어구절만 불거시 아니니라 聖經성경은 吾儕靈魂우리명혼의 糧食양식이니져

四、朗독 朗讀朗독할지라도 二十節以上절이상을 보는거시 勿성경히 聖經성경 朗讀朗독하는 事일를 重중히 녀이느거

五、가 시可가하니라

四、聖經성경을 朗讀朗독할時때에 너 무말니 보지말고 徐徐천천히 明白명백하게 敎友교우가 다 잘알아듯

五、今年總會금년총회에서 禮拜時예배시 聖經성경은 純諺文순언문 聖經성경만 朗讀朗독하기로 作定작성하였느니 諺漢文언한문이

六、순한문 純漢文성경 聖經성경을 보는거슨 眩亂현란하게 되는故고로 이 又결정히 決定결정하거시니라

七、장도 講道예목의 題目제목을 지을時때에 其本文그본문 一句節한구절만 불거시 아니 오上下句節상하구절의 言말을 詳細자세히

八、장도 講道예목하면 聖經성경에 업는 뜻뜻을 마르치기 쉬우니라

九、장도 講道예목할時때마다 兒孩어린이를 勿성경히 講道성경中중에 더러라도 兒孩어린이들의 滋味자미있게

十、장도 講道예목할時때마다 兒孩어린이를 勿성경히 講道성경中중에 더러라도 兒孩어린이들의 滋味자미있게

十一、장도 講道예목할時때마다 兒孩어린이를 勿성경히 講道성경中중에 더러라도 兒孩어린이들의 滋味자미있게

四、聖經을朗讀할時에너무機械的貌樣으로하지말일이오

五、開會前에其節次를다預定하고窘拙케되지말게하시오特別히우승別禮拜會

던지完全히預備할後에야開會할거시오

六、主日工課工夫는미우重要할거신즉設或來賓牧師의講道會가有益할듯하여도

此로因하여彼를廢하지마는거시도호니라 (蘇悅道牧師)

一、解難한文字나新出語는解釋업시는使用하지말거시니此等事가人의高尚을知

識을現出하는지不知하니와本教會中無識한敎人의對하여서는通情되지못

하는니然함으로文字와新語를使用할지라도반다시解釋함이可하니라

二、牧師가恒常自己代身講道할人을求得하지말거시니라엇던牧師는一個月

에一二次外에는講道하지아니하니此는羞耻되는事이라講道하는것과敎人을敎

育식하는거슨牧師의責任과本分이니自己의本分을他人의게讓與코져함은可惜

한事이니라적게할지라도每主日에牧師가一次式講道하는거시合當하니如斯히

牧師體鏡

# 牧師體鏡

(목사례경)

一、祈禱할면서凡於人의게對言辭에尊待하는言을쓰지말면도 좋을지니라

(鞠裕致牧師)

一、敎會에서廣告할時에或錯亂케되기쉬운즉規則을定하야分明하게記錄할廣告

로하는거시도하니라

二、禮拜時에來賓牧師가多數히叅席할것슬지라도다講臺에升坐케할것슬도업고

該各人의게節次中一部分式囑託할것도아이오皆信者인즉平信徒처럼禮拜보는

거시도하니라

(그레인牧師)

一、講道後에는무슨廣告던지하지말거시오

二、講道와相關하는讚頌을擇하지말거시오

三、祈禱할時에異常한音聲으로나너무呼泣하는語聲을虛飾으로하지말거시니라

건디其<sup>그</sup>芻<sup>풀</sup>草<sup>은</sup>를束 <sup>묶</sup>호 <sup>것</sup>엿던鐵<sup>철</sup>絲<sup>은</sup>가乾<sup>마</sup>草<sup>른</sup>中<sup>가</sup>에雜<sup>섞</sup>入<sup>여</sup>호 <sup>든</sup>거슬嚙<sup>씹</sup>芻<sup>풀</sup>호 <sup>먹</sup>을時<sup>에</sup>에吞<sup>삼</sup>下<sup>켜</sup>되여其<sup>그</sup>臟<sup>심</sup>을貫<sup>통</sup>함으로死<sup>죽</sup>호 <sup>은</sup>거시더라大<sup>대</sup>蓋<sup>개</sup>人<sup>사</sup>의心<sup>마음</sup>裡<sup>속</sup>에罪<sup>죄</sup>가隱<sup>숨</sup>入<sup>어</sup>호 <sup>든</sup>면此<sup>이</sup>와同<sup>동</sup>一<sup>일</sup>호 <sup>는</sup>害<sup>해</sup>를被<sup>받</sup>호 <sup>는</sup>야靈<sup>영</sup>魂<sup>혼</sup>이死亡<sup>사망</sup>될수<sup>는</sup>뵈<sup>는</sup>거시니라

來世眼目 (장티 세계에 살 순)

何<sup>어</sup>許<sup>나</sup>博<sup>학</sup>士<sup>사</sup>가驚<sup>두</sup>雞<sup>슈</sup>二<sup>두</sup>首<sup>슈</sup>를生<sup>생</sup>擒<sup>잡</sup>호 <sup>는</sup>야飼<sup>먹</sup>養<sup>여</sup>호 <sup>는</sup>면其<sup>그</sup>動<sup>동</sup>靜<sup>정</sup>을觀<sup>관</sup>察<sup>찰</sup>호 <sup>는</sup>즉異<sup>이</sup>常<sup>상</sup>호 <sup>는</sup>것호 <sup>는</sup>나히  
보이<sup>보</sup>는디其<sup>그</sup>驚<sup>두</sup>雞<sup>슈</sup>의視<sup>물</sup>物<sup>건</sup>호 <sup>는</sup>眼<sup>안</sup>光<sup>광</sup>이近<sup>가</sup>在<sup>하</sup>호 <sup>는</sup>物<sup>물</sup>에在<sup>있</sup>호 <sup>는</sup>치안코恒<sup>항</sup>常<sup>상</sup>遠<sup>먼</sup>處<sup>곳</sup>에在<sup>있</sup>호 <sup>는</sup>物<sup>물</sup>件<sup>건</sup>을望<sup>바라</sup>  
見<sup>보</sup>호 <sup>는</sup>거시더라鳥<sup>도</sup>類<sup>류</sup>의小<sup>작</sup>雛<sup>기</sup>라도無<sup>가</sup>際<sup>업</sup>호 <sup>는</sup>空<sup>공</sup>中<sup>중</sup>에서生<sup>생</sup>活<sup>활</sup>호 <sup>는</sup>거신故<sup>고</sup>其<sup>그</sup>空<sup>공</sup>中<sup>중</sup>時<sup>시</sup>代<sup>대</sup>에서  
使用<sup>수용</sup>호 <sup>는</sup>眼<sup>안</sup>光<sup>광</sup>을準<sup>준</sup>備<sup>비</sup>호 <sup>는</sup>거시더라此<sup>이</sup>와如<sup>유</sup>히吾<sup>우</sup>儕<sup>리</sup>도現<sup>현</sup>世<sup>세</sup>보다將<sup>장</sup>來<sup>래</sup>世<sup>상</sup>上<sup>상</sup>을더注<sup>주</sup>目<sup>목</sup>호 <sup>는</sup>  
眼<sup>안</sup>光<sup>광</sup>을準<sup>준</sup>備<sup>비</sup>호 <sup>는</sup>야日<sup>일</sup>後<sup>후</sup>主<sup>주</sup>의日<sup>날</sup>에無<sup>무</sup>限<sup>한</sup>호 <sup>는</sup>榮<sup>영</sup>光<sup>광</sup>을見<sup>보</sup>호 <sup>는</sup>時<sup>때</sup>에障<sup>장</sup>碍<sup>의</sup>를免<sup>면</sup>호 <sup>는</sup>거시라萬<sup>만</sup>一<sup>일</sup>肉<sup>육</sup>  
身<sup>신</sup>世<sup>세</sup>上<sup>상</sup>만니무<sup>는</sup>볼것호 <sup>는</sup>호 <sup>는</sup>면將<sup>장</sup>來<sup>래</sup>를보<sup>는</sup>眼<sup>눈</sup>을得<sup>얻</sup>지못호 <sup>는</sup>지니라

講道에可用호譬辭

거시더라此와一例로吾儕가惡憾情을懷置호고主前에自服호야盡吐棄치아니호면  
某日某時던지不意에顯露되기쉬우니라  
나날어나네  
분의현로

心の陰影 (마음의그림자)

何許博士의言論이吾儕의身이日光中에陰을作호는것호치各人의心도陰影을作호는  
다호엇스니이거시譬喩호말이라도其中에好義意가包含되엇는니라吾儕의게서隣  
의게로感動의影響이恒常出호는거시나何人의게서出호는影響은人을善케호는거  
시오何人의게서出호는거슨人을惡호게호는거시라各人의게서陰影이나가듯感動  
이出호는니吾儕는此를知호고思호야할거시니라  
나가우려이알섯가

心裏罪 (마음속에죄)

西洋에서牛馬를牧養호는藜草를夏節에刈乾호야機械에다넛코鐵絲로堅固히束  
縛호야買賣호는디數年前에美國動物園內에飼象一首가忽然히死亡된지라其園長  
이原因을知코져호야解剖호야본즉鐵絲數條가其象心臟을刺傷호엇더라此를斟酌  
원인알고히부덜수두어게그코기의심장열녀상

대단히心慮하는거슨幼女의言語가狂言과又치橫說豎說야알아듯기어렵고自己

語도該兒가知聽치못하는貌樣이라其母가女息을携率하고醫士를訪問하고其兒

의聲帶를診察하여달나하였더니其醫士가其兒의言聲을聞은즉英語아니오皆露語

인디分明히精神있는말이오病身이아니더라其根因은非他라其保母되는女人이本

是露國人인디主母의게言할時에는英語로하였스나兒孩게는恒常露語만함으로其

女兒가其方言만學習한故라此와一例로凡人의父母된者一自己子女를養育하는

中에第一注意할거슨出外戲遊할時에惡한同俸를交遊치못하게야惡習에染치말

게할거시니라

隱憾情 (숨은감정)

五十五年前에美國南北間戰爭에戰場되었던處所에서近年에山火가大熾하는中

不意에該山中에서爆發彈의大拆聲이頻出하였는디山火가寢息된後에入見한즉五

十五年前戰亂時에山間에埋沒되었던大砲彈丸이尙餘되어있다가山火中에爆發된

講道에可用한警辭



像 想 的 苦 難 (상상력으로만 고난)

某處에서 一時는 狂狗가 周行하 며 數人을 咬害하 였는디 該洞里人中에 一人이 恐懼  
 하야 狗의 咬害를 免하 라고 逃避하 였스나 忽地에 空然히 狂狗의 被咬者又 刺痛苦  
 煩悶하 여 서 發狂하 다가 必竟 死亡하 였고 又 一人은 偶然히 冰庫에 入하 였다가 門이 白  
 閉되여 出치 못하 게 되엿는디 積氷을 因하 야 寒氣로 凍死하 였을 思하 고 이를 쓰다가 凍死  
 者와 又 顛亡하 였더라 誰가 來하 야 其門을 開視하 였즉 冰庫內는 空虛하 고 一塊의 氷도  
 無함으로 寒氣도 別無하 였즉 死하 였理由가 無하 디 必竟 該人이 空想의 憂愁로 孟浪히 自死  
 된거시러라 此와 一例로 世人의 憂愁 思慮로 苦痛을 自受하 는者가 居半이나 自己의 空  
 想뿐이오 實狀은 아니더라

伴 侶 (동모)

美國婦人하 나 히 多病하 였故로 其四歲된 女兒를 看守키 困難하 야 女人하 나 를 保母로  
 두어 幼女를 看守하 게 하 였더니 必竟 該兒가 長成하 여 갈스록 其母가 該兒의 對하 야

호사름 두려워

어나듯 호변은 몇천개 두루두루 두려우사름 물어허

개 물어허호는면 도망 혼디 공연 몇천개 물닌자 동고

번민 발광 필경 사망 호호사름 우연 빙고 드러갓 문 절노

맞겨서나오지 어문 인 한과 열사죽을 성자 열거죽은

자 업더져죽엇 와서 그문 열어본 빙고 안은공허 호명이 어름

업숨 찬괴운 빌노업순 죽을리유 업노 필경그사름 공상 거정으 명랑 자스

이 처세상사름 우슈스려 고동 스스로맛 차 거반 자괴 공

실상 실상

병만흔고 그네살 너은 간슈 곤난 너인 보모

이런것을간슈 필경그어허 장성 그모친이그어허 데

미국부인 네만흔고 그네살 너은 간슈 곤난 너인 보모

美國婦人하 나 히 多病하 였故로 其四歲된 女兒를 看守키 困難하 야 女人하 나 를 保母로

두어 幼女를 看守하 게 하 였더니 必竟 該兒가 長成하 여 갈스록 其母가 該兒의 對하 야

하는 것도 外貌로만 見<sup>외모</sup>는 事<sup>모</sup>여서는 잘알수업는 故<sup>고</sup>로 試用<sup>시험</sup>후에야 失<sup>실패</sup>敗<sup>취</sup>업시 取<sup>취</sup>할거시라

價劣<sup>價劣</sup>時計 (철호시계)

何<sup>엇</sup>許<sup>던</sup>信<sup>신</sup>者<sup>자</sup>는 價<sup>값</sup>少<sup>적</sup>호<sup>은</sup>時<sup>시</sup>計<sup>계</sup>와 如<sup>又</sup>히 日<sup>치</sup>復<sup>일</sup>日<sup>일</sup>幾<sup>몇</sup>次<sup>번</sup>式<sup>식</sup>감어 주어야 잘가는니 信<sup>신</sup>者<sup>자</sup>中<sup>중</sup>何<sup>어</sup>級<sup>급</sup>에  
在<sup>있</sup>은 在<sup>있</sup>은 幾<sup>몇</sup>朔<sup>달</sup>에 一<sup>첫</sup>次<sup>번</sup>式<sup>식</sup>復<sup>부</sup>興<sup>흥</sup>會<sup>회</sup>가 아나면 冷<sup>냉</sup>落<sup>락</sup>호<sup>은</sup>여 지는니 감아 주어야 잘가는니라

幼兒<sup>유아</sup>의 教訓 (유아의 교훈)

何<sup>어</sup>教<sup>나</sup>會<sup>교</sup>가 信<sup>믿</sup>仰<sup>음</sup>이 漸<sup>점</sup>次<sup>차</sup>退<sup>퇴</sup>步<sup>보</sup>되여 職<sup>직</sup>員<sup>원</sup>과 一<sup>일</sup>般<sup>반</sup>信<sup>신</sup>徒<sup>도</sup>들의 前<sup>전</sup>熱<sup>열</sup>心<sup>심</sup>이다 業<sup>가</sup>서 지코 家<sup>가</sup>屬<sup>속</sup>祈<sup>의</sup>  
禱<sup>도</sup>나 祈<sup>의</sup>禱<sup>도</sup>會<sup>회</sup>를 잘아나호<sup>은</sup>였다니 一<sup>하</sup>日<sup>로</sup>은 該<sup>그</sup>教<sup>교</sup>會<sup>회</sup>어는 長<sup>장</sup>老<sup>로</sup>의 五<sup>다</sup>歲<sup>소</sup>된 女<sup>녀</sup>息<sup>식</sup>이 在<sup>그</sup>其<sup>부</sup>父<sup>친</sup>의  
頸<sup>목</sup>을 抱<sup>안</sup>고 問<sup>물</sup>호<sup>는</sup>기를 「父<sup>아</sup>어 하<sup>바</sup>는<sup>지</sup> 님이 卒<sup>도</sup>逝<sup>라</sup>호<sup>는</sup>잇사」호<sup>는</sup>니 其<sup>그</sup>父<sup>부</sup>가 驚<sup>놀</sup>駭<sup>나</sup>호<sup>는</sup>여 言<sup>말</sup>호<sup>는</sup>기를 「否<sup>아</sup>니  
何<sup>엇</sup>以<sup>지</sup>問<sup>물</sup>고」호<sup>는</sup>즉 幼<sup>어</sup>女<sup>린</sup>의 言<sup>말</sup>이 「以<sup>어</sup>前<sup>전</sup>에 是<sup>아</sup>父<sup>바</sup>가 夕<sup>저</sup>時<sup>녁</sup>마다 恒<sup>항</sup>常<sup>상</sup>하<sup>는</sup> 님과 又<sup>나</sup>치 諺<sup>이야</sup>話<sup>기</sup>호<sup>는</sup>더니 只<sup>저</sup>是<sup>금</sup>은 아나호<sup>는</sup>緣<sup>緣</sup>  
故<sup>고</sup>라」호<sup>는</sup>였다 父<sup>아</sup>가 羞<sup>부</sup>愧<sup>끄</sup>호<sup>는</sup>여 當<sup>그</sup>日<sup>날</sup>브러 家<sup>가</sup>屬<sup>속</sup>祈<sup>의</sup>禱<sup>도</sup>를 復<sup>다</sup>始<sup>시</sup>호<sup>는</sup>고 他<sup>다</sup>長<sup>른</sup>老<sup>장</sup>와 教<sup>교</sup>友<sup>우</sup>의 該<sup>그</sup>  
事<sup>수</sup>緣<sup>연</sup>을 說<sup>설</sup>話<sup>화</sup>호<sup>는</sup>즉 全<sup>은</sup>教<sup>교</sup>會<sup>회</sup>가 新<sup>새</sup>信<sup>믿</sup>仰<sup>음</sup>을 得<sup>얻</sup>호<sup>는</sup>고 復<sup>부</sup>興<sup>흥</sup>되<sup>는</sup>었다더라

效則의失敗 (본맛음의실피)

一處에十七首羊群이一大牡羊을隨하야何方向으로往할時에合氷된江上으로渡  
 往하엿다가歸渡할時에江氷이融解된지라該先導者된羊이關念치아니하고登氷하  
 여前進타가溺死됨으로其後를從渡하는十六首羊群은前轍에戒하야莫渡하엿더면  
 生命을保存케되엿겟지마는引導者만模倣하야前進하故로皆沒死하엿더라大蓋僞  
 師를不知하고隨往하는거시罪가아니나萬一알고도從往하는거슨精神업는일이오  
 世人の迷愚하거슨아직如許하거슬分揀치못하고나가는거시라

表裏不同 (안과맞것다름)

何許人이留聲機一坐에其內用되는聲版幾個를買得하야排置하엿는디禮拜時所  
 用되는讚美歌도幾編이有하고酒家所用되는雜歌도잇섯더라然하나該歌板에標題  
 홀거시無함으로正音과雜歌를分揀치못하게되엿더라故로外貌를見하야서는속又  
 함으로알수업서서一次式다使用하야聽過하야本後에야善惡을알게된것又選擇人

정거장 정거장 이안 저류 자 편면 일온별 유익 업술 당신  
 지막停車場인즉此內에在遊하는者를勸勉하는事는別로有益이無할거시니當身  
 은寧히兒孩들이있는家로往하야該兒들을敎訓하여서이러한집으로來호를思想이나지  
 안도록하느거시尤極必要호거시라호였다더라大蓋罪를犯하기前에人을救贖케하  
 기는易하나罪網에罹호後에는拯出하기가實로難호거시라

種花得花 (심은대로거름)

험준 산현 금광 위업 자호사르 잇스 혼노산골 드리가몇돌몇주일  
 險峻호山峽에서金鑛으로爲業호는者一人이有하나獨이山谷에入하야幾朔幾週

동안시광업 종수 중그곳 화목 업습 그사론 저미업시벽인  
 間式鑛業에從事호는中該處에는花木이無호므로該人이미우無聊히知호거시외다

고 잇다금화초종자 사다가 주머니 너 허  
 故로往往히花草種子를買來하야囊橐에携帶하야가지고山路에往來호時마다路傍

에여기더그播置호고冬節이되매歸家호였다가翌年春에鑛山路에來見호를處處마  
 路邊에草花가爛開하야一境이別世界를成호였다라此와如히吾儕가悲觀時나樂

觀時에人을悅樂케하노라고여기더그고마온말을花種播置호듯하야두면吾儕로因  
 現存全世界가新世上이될수잇슬거시니라

講道에可用호를警辭

만홀場所가된지라幾年前에幾名兒童들이該場에積雪된時機를乘호야雪場轉球遊

戲를호는디合心호야雪球를左推右退호야轉回호스록融雪이隨轉添附호야漸々大

塊가된後에絶崖로推落케호매轉下호는대로附雪이增加되여岸底에到泊되여서는

該大塊雪이一輪船을撲破호엿다더라吾儕가惡호일을호면此와一例로愈去愈大호

야必竟은靈魂々지亡케되기易호거시라故로吾儕의注意호거슨惡호習慣을禁止호

時機는微微호罪의動作될初이라호노라

何件이勝호노 (어는거시나호노)

罪에서拯出호는거시나罪에陷치안케호거시나? 酒家靑樓와雜伎局이皆作罪

家人즉或이言호기를如許호處에서男女間拯出호면良好호줄知호여도一賣酒家主

人이此等事에對호야一次適當호演說이잇섯는니라一日은眞實히信仰호는婦人몇

분이不意에好機를得호야該酒家內에서祈禱會를開호고讚美호며祈禱호엿는디該

家主人이言호기를當身이엇지호야此에來호엿는노此家は地獄으로가는路程에

講道에可用할比辭

(강도에 쓸 만 한 비사)

神學博士 郭安連 牧師 翻譯

禽獸는十誠命을守함 (금슈는십계명을지킴)

美國<sup>미국</sup> 동손<sup>동물학자</sup> 시돈<sup>말</sup>이<sup>십계명중</sup>란<sup>첫계명으</sup>動物學者<sup>넷계명</sup>의<sup>말</sup>言<sup>이</sup>이<sup>십계명중</sup>十誠命<sup>중</sup>에<sup>첫계명으</sup>第一誠<sup>로</sup>로<sup>말</sup>第四誠<sup>로</sup>第四誠<sup>로</sup>々<sup>말</sup>지<sup>는</sup>는禽獸<sup>가</sup>知<sup>아</sup>

치<sup>지</sup>못<sup>하</sup>듯<sup>하</sup>나<sup>다</sup>第五誠<sup>로</sup>第十誠<sup>로</sup>々<sup>말</sup>지<sup>는</sup>若<sup>약</sup>干<sup>간</sup>이<sup>라</sup>도<sup>도</sup>知<sup>하</sup>는<sup>듯</sup>듯<sup>하</sup>다<sup>고</sup>고<sup>고</sup>흡<sup>흡</sup>니다<sup>다</sup>其<sup>그</sup>言<sup>말</sup>에<sup>에</sup>曰<sup>하</sup>

禽獸<sup>금슈</sup>가<sup>십계명중</sup>十誠<sup>중</sup>中<sup>에</sup>特別<sup>특별</sup>히<sup>에</sup>第五誠<sup>을</sup>第五誠<sup>을</sup>를<sup>잘</sup>善<sup>적</sup>守<sup>히</sup>하<sup>는</sup>는<sup>듯</sup>듯<sup>하</sup>나<sup>다</sup>六<sup>육</sup>七<sup>칠</sup>誠<sup>로</sup>도<sup>도</sup>或<sup>혹</sup>知<sup>아</sup>하<sup>는</sup>는<sup>거</sup>시<sup>시</sup>라<sup>모든</sup>諸<sup>금</sup>般<sup>금</sup>禽<sup>금</sup>

獸<sup>슈</sup>의<sup>종류중</sup>種<sup>중</sup>類<sup>중</sup>中<sup>에</sup>漸<sup>점</sup>々<sup>점</sup>絶<sup>점</sup>種<sup>점</sup>되<sup>는</sup>는<sup>류</sup>類<sup>도</sup>도<sup>잇</sup>스<sup>나</sup>其<sup>그</sup>中<sup>중</sup>에<sup>호</sup>一<sup>호</sup>雌<sup>암</sup>一<sup>암</sup>雄<sup>수</sup>式<sup>컷</sup>만<sup>컷</sup>合<sup>식</sup>하<sup>는</sup>는<sup>합</sup>야<sup>생</sup>生<sup>활</sup>하<sup>는</sup>는<sup>거</sup>시

맛<sup>맛</sup>치<sup>일남일녀</sup>一<sup>인류</sup>男<sup>원족</sup>一<sup>원족</sup>女<sup>원족</sup>가<sup>원족</sup>人<sup>원족</sup>類<sup>원족</sup>의<sup>원족</sup>原<sup>원족</sup>則<sup>원족</sup>되<sup>는</sup>는<sup>원족</sup>것<sup>원족</sup>又<sup>원족</sup>흔<sup>원족</sup>일<sup>원족</sup>이<sup>원족</sup>잇<sup>원족</sup>스<sup>나</sup>그<sup>원족</sup>런<sup>원족</sup>種<sup>원족</sup>類<sup>원족</sup>는<sup>원족</sup>漸<sup>점</sup>次<sup>점</sup>繁<sup>점</sup>盛<sup>점</sup>하<sup>는</sup>는<sup>점</sup>거<sup>점</sup>시

外<sup>다른</sup>他<sup>종류</sup>種<sup>종류</sup>類<sup>종류</sup>는<sup>종류</sup>다<sup>종류</sup>衰<sup>쇠</sup>弱<sup>약</sup>하<sup>고</sup>滅<sup>멸</sup>絶<sup>절</sup>되<sup>는</sup>는<sup>멸</sup>거<sup>멸</sup>다<sup>멸</sup>하<sup>는</sup>는<sup>멸</sup>니<sup>멸</sup>라<sup>멸</sup>然<sup>연</sup>則<sup>연</sup>男<sup>남</sup>子<sup>자</sup>가<sup>남</sup>妾<sup>첩</sup>을<sup>첩</sup>置<sup>두</sup>하<sup>는</sup>는<sup>두</sup>事<sup>일</sup>이<sup>일</sup>나<sup>일</sup>女<sup>녀</sup>子<sup>자</sup>가<sup>녀</sup>

多<sup>다</sup>數<sup>수</sup>한<sup>남</sup>男<sup>명</sup>丁<sup>명</sup>을<sup>명</sup>置<sup>두</sup>하<sup>는</sup>는<sup>두</sup>거<sup>두</sup>시<sup>두</sup>天<sup>천</sup>地<sup>지</sup>萬<sup>만</sup>物<sup>물</sup>의<sup>성</sup>性<sup>질</sup>質<sup>위</sup>을<sup>반</sup>違<sup>위</sup>反<sup>반</sup>하<sup>는</sup>는<sup>위</sup>거<sup>위</sup>시<sup>위</sup>니<sup>위</sup>라

罪의增加함 (죄의증가됨)

美<sup>미</sup>洲<sup>주</sup>何<sup>어</sup>處<sup>나</sup>에<sup>곳</sup>一<sup>호</sup>江<sup>강</sup>岸<sup>안</sup>이<sup>있</sup>有<sup>는</sup>하<sup>는</sup>디<sup>심</sup>甚<sup>심</sup>히<sup>심</sup>高<sup>높</sup>峻<sup>호</sup>하<sup>고</sup>險<sup>험</sup>斜<sup>사</sup>하<sup>고</sup>絶<sup>절</sup>壁<sup>벽</sup>이<sup>오</sup>其<sup>그</sup>上<sup>우</sup>에<sup>우</sup>兒<sup>어</sup>童<sup>회</sup>들<sup>회</sup>運<sup>운</sup>動<sup>동</sup>하<sup>는</sup>는

講道에可用할譬辭

2、十字架의道가我를救援할줄아는

智慧를얻음 (行四〇十二)

二、贖罪함을받는거시有益됨

1、血을흘림으로贖罪하는方法이됨

(히九〇十二)

2、信仰으로贖罪함을받음 (막二

〇五)

三、義를다함을얻는거시有益됨

1、信仰으로義를다함을얻음 (로五

〇一)

2、밋고行함으로義를다함을얻음

(약二〇廿四)

四、聖潔한여짐이有益함

1、聖神으로重生한여야聖潔한여짐

(요三〇六)

2、聖經敎訓으로淨潔케한야聖潔한

여짐 (엡五〇廿六)

結末 世上有益은銀金으로받을수잇스

되此四種有益은銀金으로買함업고但信

仰으로만얻을거시라

結末 결말 바울과 누치感謝하는習慣을세움 감사 습관

세다

感謝 hym 의 形便 감사 형편

本文 본문 詩百十六〇十二 시백

題目 예목 感謝 hym 의 形便 감사 형편

一、國家의 感謝 hym (詩百四十七〇廿) 국가 감사 시백

二、教會의 感謝 hym (二八〇十二) 교회 감사

三、家族의 感謝 hym (申十六〇十三、四) 가족 감사 신

四、個人의 感謝 hym (七〇卅八) 개인 감사

五、天地萬物의 感謝 hym (詩九十六〇) 천지 만물 감사 시

十二)

六、信者의 感謝 hym (고後九〇十五) 신자 감사 후

結末 결말 感謝 hym 거시多호나救主예수를받음으로感謝하는거슨諸般感謝하는것中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중

에第一貴重한感謝 hym 이니라 예일 귀중 감사 감사

信者의 有益 신자 유익

清津府浦項 姜斗松牧師

本文 본문 高견 一〇卅

題目 예목 그리스도人의 有益 신 유익

一、智慧를얻는거시有益됨 지혜 유익

1、하느님을아는智慧를얻음 (고견

二〇六)



覺모서할 수 잇슴 큰 상회 大商會에서 호히 몇 번의 一年幾次式自

己의財物을檢査하는것又신자 不信者도往往

自己의信仰을檢査하는거시도흐니라

三、感謝함을獻드리면내게喜樂이됨

結末 感謝함의有益이若此이또한하즉用力하

야習慣되게흐세다

### 感謝함의習慣

本文 詩三十四〇一

題目 感謝하는習慣

引導 바울은感謝하는習慣이잇는人이

니라

一、感謝하는心이人을平和하게하고諸

般困難形便에忍耐케하는거시라 (빌

四〇十一、二)

二、感謝하는거시하는님前에美妙한거

시라 (詩百四十七〇一)

三、感謝하는事는他人을感動식함、빌

니보監獄署에被囚된바울과실나의感謝

함을因하야獄司匠이가何如케하면救贖

함을받을수잇는나고問케되엿소

四、感謝하는事는他福을받게하는거시

라十癩病者中一人이歸來하야主의感謝

함으로神靈의福도받앗는니라

성경책 성경책이來<sup>와</sup>야我<sup>나</sup>를引<sup>인</sup>도<sup>도</sup>는니라

三、吾<sup>우리</sup>儕<sup>에</sup>의第一<sup>일</sup>不足<sup>부족</sup>點<sup>점</sup>을充<sup>충</sup>足<sup>족</sup>케<sup>하</sup>는디

聖經<sup>성경</sup>이吾<sup>우리</sup>儕<sup>에</sup>를尋<sup>차</sup>하<sup>자</sup>야導<sup>인도</sup>하<sup>는</sup>니라

하<sup>는</sup>님을得<sup>얻</sup>하<sup>는</sup>거슨吾<sup>우리</sup>儕<sup>에</sup>의第一<sup>일</sup>必要<sup>필요</sup>

흔거시니하<sup>는</sup>님의愛<sup>사랑</sup>와矜<sup>과</sup>恤<sup>공휼</sup>하<sup>는</sup>심과諸<sup>모</sup>

般<sup>은</sup>恩<sup>은</sup>惠<sup>혜</sup>를다聖<sup>성</sup>經<sup>경</sup>에敎<sup>교</sup>示<sup>시</sup>하<sup>는</sup>섯스니見<sup>보</sup>하<sup>는</sup>

기만<sup>다</sup>하<sup>는</sup>면感<sup>다</sup>受<sup>맞</sup>하<sup>는</sup>지라

結<sup>결</sup>末<sup>말</sup> 聖<sup>성</sup>經<sup>경</sup>을尋<sup>차</sup>得<sup>얻</sup>하<sup>는</sup>노라고吾<sup>우리</sup>儕<sup>가</sup>흔이

思<sup>성</sup>하<sup>는</sup>나實<sup>실</sup>狀<sup>상</sup>으로聖<sup>성</sup>經<sup>경</sup>과聖<sup>성</sup>經<sup>경</sup>에在<sup>잇</sup>는理<sup>리</sup>致<sup>치</sup>

가吾<sup>우리</sup>儕<sup>를</sup>를찾<sup>찾</sup>는거시라吾<sup>우리</sup>儕<sup>가</sup>其<sup>그</sup>眞<sup>진</sup>理<sup>리</sup>에對<sup>대</sup>

하야모로는데할<sup>함</sup>모음이잇셔도못<sup>못</sup>되<sup>되</sup>고避<sup>피</sup>

할수가無<sup>없</sup>는眞<sup>진</sup>正<sup>정</sup>하<sup>는</sup>거시니라

# 감사 감사의 有益 유익

본문 本文 詩九十二〇一

제목 感謝<sup>감사</sup>함의有益<sup>유익</sup>

引導<sup>인도</sup> 本文<sup>본문</sup>을본<sup>본</sup>주<sup>주</sup>奔<sup>상</sup>走<sup>민</sup>하<sup>는</sup>商<sup>상</sup>民<sup>민</sup>이나農<sup>농</sup>民<sup>민</sup>

이나治<sup>치</sup>産<sup>산</sup>하<sup>는</sup>女<sup>녀</sup>人<sup>인</sup>이하<sup>는</sup>님<sup>님</sup>의問<sup>물</sup>하<sup>는</sup>다

답<sup>답</sup>하<sup>는</sup>것<sup>것</sup>又<sup>또</sup>습<sup>습</sup>니다

一、感謝<sup>감사</sup>함을獻<sup>드</sup>릴<sup>릴</sup>時<sup>때</sup>에하<sup>는</sup>님<sup>님</sup>을思<sup>성</sup>하<sup>는</sup>機<sup>회</sup>

會<sup>회</sup>가잇<sup>잇</sup>슴 吾<sup>우리</sup>儕<sup>는</sup>奔<sup>분</sup>走<sup>주</sup>하<sup>는</sup>人<sup>인</sup>生<sup>생</sup>인<sup>인</sup>즉<sup>즉</sup>하<sup>는</sup>

님을忘<sup>니</sup>却<sup>저</sup>하<sup>는</sup>기쉬우니感<sup>감</sup>謝<sup>사</sup>하<sup>는</sup>習<sup>습</sup>慣<sup>관</sup>이잇

스면하<sup>는</sup>님의愛<sup>애</sup>情<sup>정</sup>을思<sup>성</sup>하<sup>는</sup>수잇<sup>는</sup>니라

二、感謝<sup>감사</sup>함을드<sup>드</sup>릴<sup>릴</sup>時<sup>때</sup>에吾<sup>우리</sup>儕<sup>의</sup>形<sup>형</sup>便<sup>편</sup>을自<sup>스</sup>

# 律法冊 (률법칙)

本文 본문 王下二十一〇八 왕하

題目 제목 吾儕를尋하느니라 우리

引導 인도 此本文의 言을 見하느니라 이 본문의 말을 보

律法冊을尋得하엿다 률법칙을 찾았 나實狀은 유대人 실상

이冊을尋得하엿을 책을 찾았을 만 아니라冊에在하理致 있는 리치

가 유대人을尋하야其心을折衝하엿느니라 인

此로見하건디其冊은하느님의주신冊 이

로知하느니故로聖經冊이吾儕를尋得하 아

느니라

一、吾儕의第一深遂한思想에서우리를 우리

찾느니라

하느님씨對하眞理와罪와救贖함과天 당 더 우

堂地獄이런諸般問題에對하야思度지 모든 문에

아니하人이無하나하느님씨서聖經에 사름

此諸般道理를敎訓하섯느니라吾儕는이 이 모든 도리

런思想으로其理致를研究하면聖經冊 소상

이我를尋하야其問題를明白케하여주 나

느니라

二、吾儕의第一深遂한意見內에서其冊 우리

이吾儕를찾느니라

하느님을奉事하느거시信者의第一되 봉수

는目的이니이런意見을實行하느中에 목적

四、하는님의 완전한 법은 吾儕衷心에 在

는 悖逆한 思想을 違反케 하는 거시니 尤

極對敵한 思想만 生케 하기에 易하니라

以前에 무디 先生이 誰家에 賓이 되어

夜를 宿泊할 時에 該寢房壁에 覆掛한

圖畫一本이 있고 該傍에 廣告한 말이 有

스 「明朝까지 此를 反置치 말나」 하였더라

先生의 思이 此廣告를 見함으로 不得不

불미움이 生하야 反置하였다고 또 德

國一鄉에 七十歲된 女人이 나히 生前에

自己生長한 洞里外에 旅行한 處이 無하

였더니 王이 聞하고 召對하야 稱讚하고

付託하기를 稀罕한 事인 즉 以後別世

는 日서 附近이라 또 旅行하지 마는 거

시 또 其함으로 其翌日에 其女人이 鄰里

로 遊覽하러 往케 되었다 또 律法에

지 말나 한 故로 吾儕性質이 期於히 違反

한기를 鈞요 화함니다

結末 律法이라 하는 거슨 元是弱하야 이

곳치 무어슬 成就케 못하나 하는 님씩서 自

己의 子를 罪잇슬 만흔 肉身의 形像으로 遣

하샤 우리 罪를 爲하야 定罪함을 받게 하섯

는 나라

엿다가 예수를 다시 맛남으로 새 희망을 엿

은 혼거시라

結末 새 세계 새 방언 새 친구 새 교회 새 희망

이 다 맛나 자 잇스 당신 나 가 有 當身 이 皆 예수 를 逢迎 하 는 者 의 게 有 하 는 니 當身

이 예수 를 遇 치 못 하 는 것 이 면 맛 났 되 시 기 를

希望 바람 하 는 니 다

# 律法の不能 (률법의불능)

本文 본문 로 八〇三

題目 제목 률법 의 能 치 못 함 이 라

引導 인도 하 는 님 의 률법 이 罪人 을 거 룩 케 하

지 못 하 는 것 이 면 맛 났 되 시 기 를 易 하

나라 (로七〇七,十)

一、하 는 님 의 률법 이 吾儕 로 하 여 吾 已 犯 罪 惡 을 覺 悟 케 하 는 것 이 면 落 心 케 하 는 것 이 니 라

罪惡 죄악 을 覺 悟 케 하 는 것 이 면 落 心 케 하 는 것 이 니 라

나라

二、하 는 님 의 률법 이 德義 의 完 全 한 標 準 을 立 置 하 고 우 리 로 하 는 것 이 면 吾 其 完 全 한 것 이 니 라

을 세 위 두 어 고 우 리 로 하 는 것 이 면 吾 其 完 全 한 것 이 니 라

를 인 정 케 하 는 것 이 면 吾 其 完 全 한 것 이 니 라

로 하 는 것 이 면 吾 其 完 全 한 것 이 니 라

뿐이라

三、하 는 님 의 률법 은 體 鏡 과 又 치 吾 儕 의 不 足 함 과 罪 惡 을 顯 出 하 는 것 이 면 吾 儕 가 律 法 에 照 見 하 는 것 이 면 落 心 단 더 성 기 는 것 이 니 라

不足 부족 함 과 罪 惡 을 顯 出 하 는 것 이 면 吾 儕 가 律 法 에 照 見 하 는 것 이 면 落 心 단 더 성 기 는 것 이 니 라

法 법 에 照 見 하 는 것 이 면 落 心 단 더 성 기 는 것 이 니 라

一、初遇<sup>처음</sup>하야<sup>맞나</sup>信<sup>믿음</sup>하<sup>며</sup>며<sup>못</sup>卽<sup>새</sup>新世界<sup>세계</sup>에入<sup>입</sup>錄<sup>록</sup>됨

이오

召<sup>부르</sup>하신<sup>바</sup>十二<sup>매</sup>弟子<sup>자</sup>가皆<sup>다</sup>名望<sup>명망</sup>이나人格<sup>인격</sup>

이無<sup>없</sup>하<sup>는</sup>者<sup>자</sup>요<sup>향</sup>鄉村<sup>촌</sup>農夫<sup>농부</sup>와漁夫<sup>어부</sup>들이오然<sup>그러</sup>

하<sup>나</sup>暫時<sup>잠시</sup>間<sup>동안</sup>에天國<sup>천국</sup>字<sup>자</sup>民<sup>민</sup>이<sup>되</sup>고萬國<sup>만국</sup>의

愛慕<sup>이모</sup>하<sup>는</sup>兄弟<sup>형제</sup>가<sup>되</sup>였<sup>스</sup>며信<sup>믿음</sup>仰<sup>음</sup>으로豐<sup>풍</sup>

足<sup>족</sup>하<sup>는</sup>人<sup>사람</sup>이<sup>되</sup>였<sup>소</sup>

二、新<sup>새</sup>聖國<sup>성국</sup>方言<sup>방언</sup>을<sup>배</sup>學<sup>움</sup>하<sup>이</sup>오

誰<sup>누구</sup>某<sup>다른</sup>던<sup>나라</sup>지他國<sup>방언</sup>方言<sup>방언</sup>을<sup>배</sup>學<sup>움</sup>하<sup>면</sup>該國<sup>그나라</sup>에寶<sup>보</sup>

貝<sup>비</sup>로<sup>손</sup>온<sup>자</sup>思想<sup>또한</sup>을<sup>이</sup>盡<sup>려</sup>得<sup>다</sup>하<sup>는</sup>니天國<sup>천국</sup>方言<sup>방언</sup>을

學<sup>배</sup>하<sup>는</sup>者<sup>자</sup>가亦<sup>또</sup>如<sup>하</sup>斯<sup>이</sup>하<sup>니</sup>라

三、新<sup>새</sup>友<sup>친구</sup>를<sup>얻</sup>음<sup>이</sup>오

世界<sup>세계</sup>言<sup>언어</sup>語<sup>중</sup>에親舊<sup>친구</sup>라<sup>는</sup>言<sup>말</sup>보다尤<sup>더</sup>貴<sup>귀</sup>

한<sup>거</sup>시無<sup>없</sup>하<sup>니</sup>眞<sup>진</sup>正<sup>정</sup>한<sup>친</sup>親舊<sup>구</sup>가多<sup>만</sup>하<sup>는</sup>人<sup>사람</sup>을

큰<sup>부</sup>富<sup>자</sup>者<sup>라</sup>한<sup>거</sup>시오主<sup>주</sup>예<sup>수</sup>씨<sup>의</sup>漁夫<sup>어부</sup>와

農夫<sup>농부</sup>와紳士<sup>신사</sup>와祭司<sup>제사장</sup>長<sup>장</sup>의親舊<sup>친구</sup>시오

四、新<sup>새</sup>機<sup>기</sup>會<sup>회</sup>를<sup>얻</sup>음<sup>이</sup>오

世<sup>세</sup>人<sup>상</sup>들이<sup>무</sup>슴<sup>실패</sup>失<sup>실</sup>敗<sup>패</sup>할<sup>때</sup>時<sup>때</sup>마다思<sup>생</sup>하<sup>는</sup>기<sup>를</sup>

新<sup>새</sup>得<sup>얻</sup>을<sup>기</sup>機<sup>회</sup>會<sup>만</sup>잇<sup>스</sup>면前<sup>전</sup>에失<sup>실</sup>手<sup>수</sup>대<sup>로</sup>아

니<sup>할</sup>거<sup>시</sup>라<sup>는</sup>거<sup>시</sup>오예<sup>수</sup>의福<sup>복</sup>音<sup>음</sup>은

或<sup>혹</sup>他<sup>다른</sup>名<sup>이름</sup>으로新<sup>새</sup>得<sup>얻</sup>을<sup>기</sup>機<sup>회</sup>會<sup>의</sup>福<sup>복</sup>音<sup>이라</sup>고

할<sup>수</sup>잇<sup>스</sup>음<sup>이라</sup>

五、新<sup>새</sup>希<sup>희</sup>望<sup>망</sup>을<sup>얻</sup>음<sup>이</sup>오

本<sup>본</sup>文<sup>문</sup>을<sup>본</sup>見<sup>본</sup>하<sup>는</sup>時<sup>때</sup>에弟<sup>매</sup>子<sup>자</sup>들이落<sup>락</sup>心<sup>심</sup>되

을尋訪<sup>심방</sup>하러왔다가不意<sup>불의</sup>에拔劍<sup>찬을</sup>하야아브

넬을斬殺<sup>참살</sup>하엿소當時<sup>당시</sup>다윗王<sup>왕</sup>이此言<sup>이말</sup>을聞<sup>듣</sup>

고悲憾<sup>슬허</sup>하여曰<sup>도다</sup>아브넬이愚者<sup>미련한자</sup>와又<sup>又</sup>치死<sup>죽</sup>

하엿다하더라

一、아브넬이요압의惡<sup>악</sup>性<sup>성질</sup>質<sup>질</sup>을知<sup>알</sup>고

도操心<sup>조심</sup>치아니하고自己<sup>자기</sup>生命<sup>생명</sup>을요압의

게放任<sup>내어맛것</sup>하엿스니愚昧<sup>우미</sup>한일이오

二、抗拒<sup>항거</sup>도하여보지안코逃避<sup>피우거</sup>도아니하

엿슨즉愚人<sup>미련한사람</sup>이라고하엿소

三、유대國<sup>국</sup>에逃避<sup>도피성</sup>城<sup>성</sup>이잇스나該城<sup>그성</sup>으로

逃避<sup>도피</sup>하지아니하즉愚者<sup>미련한자</sup>라할수밖고업

슴이오

結末<sup>결말</sup> 此人<sup>이사람</sup>이眞箇<sup>참미련한자</sup>愚者<sup>자</sup>로되此<sup>이</sup>보다尤<sup>더</sup>極<sup>미</sup>

愚者<sup>미련한자</sup>는魔手<sup>마귀손</sup>에陷<sup>빠</sup>하야서避<sup>피</sup>하여보지도안

코魔鬼<sup>마귀</sup>식히는대로하<sup>자</sup>는者<sup>자</sup>이나라

그리스도를逢着<sup>만남</sup>함

本文<sup>본문</sup> 마二十八〇九

題目<sup>제목</sup> 그리스도를逢着<sup>만남</sup>함

引導<sup>인도</sup> 全部<sup>전부</sup>福音<sup>복음</sup>을見<sup>본</sup>하즉諸人<sup>모든사람</sup>이富<sup>부</sup>한者<sup>자</sup>

나貧<sup>빈</sup>한者<sup>자</sup>나惡<sup>악</sup>한者<sup>자</sup>나溫良<sup>온량</sup>한者<sup>자</sup>나로마人<sup>인</sup>

이나유대人<sup>인</sup>이나友人<sup>친구</sup>이잇는者<sup>자</sup>나無依<sup>의지업는</sup>한者<sup>자</sup>

나皆<sup>다</sup>예수를遇<sup>만나</sup>하<sup>나</sup>는대로恩賜<sup>은사</sup>를받고밋음

으로福<sup>복</sup>을잇엇는나라

하<sup>덕</sup>는 罪<sup>죄</sup>와 是<sup>시</sup>非<sup>비</sup>하<sup>는</sup> 것 과 爭<sup>정</sup>鬪<sup>투</sup>하<sup>는</sup> 것

과 理<sup>리</sup>致<sup>치</sup>에 對<sup>대</sup>하<sup>야</sup> 昏<sup>혼</sup>暗<sup>암</sup>하<sup>는</sup> 者<sup>자</sup> 들 이 라

(4) 病<sup>병</sup>者<sup>자</sup> 와 悲<sup>슬</sup>者<sup>혼자</sup> 와 貧<sup>빈</sup>寒<sup>한</sup>하<sup>는</sup> 者<sup>자</sup> 와 無<sup>의</sup>依<sup>지</sup>하<sup>는</sup> 者<sup>자</sup>

들 이 라

二、何<sup>엇</sup>許<sup>더</sup>하<sup>는</sup> 人<sup>사람</sup> 이 此<sup>이</sup> 必<sup>필</sup>要<sup>요</sup>하<sup>는</sup> 言<sup>말</sup> 을 盈<sup>영</sup>滿<sup>만</sup>케 하<sup>는</sup> 수

잇는 노

(1) 所<sup>소</sup>望<sup>망</sup>이 多<sup>만</sup>하<sup>는</sup> 人<sup>사람</sup>

(2) 仁<sup>인</sup>愛<sup>애</sup>가 多<sup>만</sup>하<sup>는</sup> 人<sup>사람</sup>

(3) 信<sup>믿</sup>仰<sup>음</sup>이 多<sup>만</sup>하<sup>는</sup> 人<sup>사람</sup>

結<sup>결</sup>末<sup>말</sup> 吾<sup>우리</sup>儕<sup>리</sup>가 個<sup>개</sup>人<sup>인</sup>의 有<sup>유</sup>益<sup>익</sup>을 因<sup>인</sup>하<sup>야</sup> 救<sup>구</sup>贖<sup>후</sup>

을 受<sup>받</sup>은 事<sup>사</sup> 아 니 라 人<sup>사람</sup>을 活<sup>살</sup>하<sup>는</sup> 기 爲<sup>위</sup>하<sup>야</sup> 救<sup>구</sup>

贖<sup>속</sup>을 受<sup>받</sup>은 事<sup>사</sup> 니 出<sup>내</sup>視<sup>다</sup>하<sup>고</sup> 人<sup>남</sup>을 살<sup>살</sup>녀 주

講道圖型

어 必<sup>필</sup>세 다

古<sup>옛</sup>昔<sup>날</sup>愚<sup>미</sup>者<sup>련</sup> (넛적미련하<sup>는</sup> 자)

本<sup>본</sup>文<sup>문</sup> 三<sup>하</sup>下<sup>하</sup>三<sup>하</sup>〇<sup>하</sup>卅<sup>하</sup>三<sup>하</sup>

題<sup>테</sup>目<sup>목</sup> 古<sup>옛</sup>昔<sup>날</sup>愚<sup>미</sup>者<sup>의</sup>의 歷<sup>력</sup>史<sup>사</sup>

引<sup>인</sup>導<sup>도</sup> 요 啞<sup>야</sup>과 啞<sup>야</sup>브 넛의 事<sup>사</sup>實<sup>실</sup>은 小<sup>나</sup>說<sup>아가</sup>과 又

소 이 다 사 啞<sup>왕</sup>王<sup>도</sup>이 薨<sup>라</sup>去<sup>가</sup>하<sup>는</sup> 後<sup>후</sup>에 其<sup>그</sup>子<sup>아들</sup>이 스

보 셧 이 다 啞<sup>전</sup>과 戰<sup>전</sup>爭<sup>쟁</sup>하<sup>는</sup> 後<sup>후</sup>에 其<sup>그</sup>大<sup>대</sup>將<sup>장</sup>아 브 넛

이 接<sup>접</sup>戰<sup>전</sup>하<sup>는</sup> 中<sup>중</sup>에 요 啞<sup>아</sup>의 弟<sup>오</sup>아 사 軼<sup>피</sup>을 避<sup>피</sup>

여 보 다 가 必<sup>필</sup>竟<sup>경</sup>은 無<sup>할</sup>奈<sup>수</sup>何<sup>업</sup>히 其<sup>그</sup>少<sup>소년</sup>年<sup>년</sup>을 殺<sup>살</sup>害<sup>해</sup>

하 였 소 其<sup>그</sup>後<sup>후</sup>에 아 브 넛 이 다 啞<sup>항</sup>의 卽<sup>부</sup>降<sup>부</sup>服<sup>부</sup>하<sup>는</sup>

고 大<sup>대</sup>將<sup>장</sup>이 되 었 더 니 一<sup>하</sup>日<sup>로</sup>은 요 啞<sup>는</sup>이 아 브 넛



외다

結末 信者여當身도恩惠受호는者이니人

의게傳播호를本分이잇는거시오다

내다봄

本文 默三〇八

題目 내다보는거시오

引導 入호는門도잇고出호는門도잇스

나以前에信者들이예수는門으로思호를時

에恒常天堂으로入호는門으로만思호고

自己個人만救贖함을受호를거스로만思호

엇소此思想도도호나尤好호를거스예수가

信者의게言호를시기를外를向視호라임의

救贖함을受호를엇스니亦人을救援호야주

라호심이나니오닛가

一、내다보면무어슬見호라함이뇨

(1) 善함을得호를가渴急호며苦待호는世

上이오

(2) 道德을慕호고高尚호를表準을두는人

이自己는實行호지아니호나信者를

見호고善호를事를示호라고호는者이

오

(3) 罪惡에束縛된者들이오 酒에沉湎

호를罪와娼妓에沉惑호를罪와鴉片을吸

인도 이문동병자 남의 도움을 받지  
引導 此癩病者들이人助를受치못하야

자강성활 자  
自強生活하는者들이인디 意外에其敵陣에

드리가져식물 모든저물 얻으  
入하야食物과諸般財物을得하야매몬져自

신상유의 성과 후 성과  
身上有益만思하다가後에思하기를우리

알  
만知할뿐아니라此恩惠로운消息을人의

알았  
게도傳할수밭괴업는줄노知하엿는니라

스스로든 자  
一、自助하는者를하는님도助佑하심

이문동병자 성문 좌터  
此癩病者들이城門에서坐待하기만하

그덕전 가지  
고其敵營으로往치아니하엿더면다餓

려죽 말  
死하코已할뿐이엿시오

성문 안자잇섯  
사마리아城門에만坐하엿더면아모것

얻을 업섯  
도得할거시無하엿거니와起動하야自

코 도움  
己를助함으로하는님이助佑하신거시

외다  
二、無用의人衆이라도하는님이有益되

무용 인중  
用하신거시라 (如斯하癩病人이

쓰  
세상사름 사름 쓰고  
世人들은人을用코져하면試取하며分

라도)  
揀後에擇用하나하는님씩서는用하

간 후 뒤용  
시는役使者의資格과助人할方針과助

줄 가음을 아  
與할材料를知하시는者시니라

그문동병자 은혜  
三、該癩病者들이恩惠를受하엿스니自

베탈자  
然히負債하者가된줄知하코人의게通

알 사름  
知하여주지아니할수업는줄知하거시

안  
知하여주지아니할수업는줄知하거시

안  
知하여주지아니할수업는줄知하거시

二、人類인류를觀測관측하즉個人개인으로보던지史사

冊책에其行그행事사로보던지吾儕우리가人種인종을造지

出어하시고主주管관하시는하느님의音聲음성을

聞드할수잇는니라

人種인종에여러가지區別구별은잇스나다思想사상

과感覺감각과意志의지가잇고다又다흔하느님形형

像상으로組織조직되엿는니라

三、吾儕우리當당하經驗경험으로하느님의音聲음성을

聽드할수가잇는니라

四、吾儕우리心마음裡속에하느님씩서直接직접으로言말슴

도하시는니라

近者근자에씩만博士박사가個人개인傳道전도工課공과를敎교

授수하中중에言말하기를하느님씩늘乞賜달나

하느祈禱기도만할거시 아니라以外이밖에도信신

者자가日日날마다默想묵상하中중에하느님의語音어음

을聽聞청문하여보는거시良好도하거시라하

엿는니라

結末결말 하느님의音聲음성을聞드하야하느님

의意志뜻를知알을거시니聞드하시도록勉勵힘하

시기를希望희망하는거시외다

好消息 (도흔소식)

本文본문 王下왕하七〇九

題目제목 好消息을傳전할本分본분

○講道圖型 (강도도형)

神學博士 何許人 著述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翻譯

하느님의 음성

본문 本文 創八〇十五

제목 하느님의 음성

인도 引導 하느님이 그날 그의 음성으로

나라니셨는지 그심중 그 마음에 감응으로 알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미상불음성

으로 할 실 능력이 계시는 니라 우리始祖時

대에 하느님께서 往々 直接 交際의 음성으로

講道圖型

말씀 로言하셨스니 이때 은혜를 증受할時代

추측 로推測할 수도 있는 거시외 다然하나今日

도하느님께서 여러가지로言하시느줄압

니다

一、天地萬物노言하심

郊野에 周遊하면서 草木百穀이여 飛禽

走獸와 昆蟲微物까지라도 化育하여가

는 거슬有 意觀察하고 天地江山과 日月

星辰을 俯仰하여 본즉 事物々이 各其

種類마다 하느님存在하신 거슬 指示하

느니 概中에 하느님의 음성 나오

라

만하느니라 달녘소이다 엇더케 작명 如何히 作定하시겟소

노아가 방주 방주 舟를 造할 때 지을 때 日復日 傳道하시엿스니 당시 인민 當時 人民들이 誹笑하고 비소 汎過하다 예스르히 지나 가 舟

工을 畢후 후 에 入할 것만 咸入하고 다드리가 聖經 성경 말씀과 又치하는 님씩서 그문 其門을 閉鎖하시니 뜻아잠으 洪

水가 始作된지라 멀망 滅亡을 當하게 된 者들이 선창밖의 船窓外에서 아모리 두다리고브르지진 叩々 叫呼할들 무슴 가 可望

이잇섯스리 호일 無可奈何 된 것뿐 성가 이다 오날 思息세다 은혜날 今日은 恩日이오 죄인 예수씨 罪人을 接

待하시느 구원 救援의 日이오 터일 來日이 엇더케 如何히 될년지 오날 알수 업습니다 은혜날 今日이 구원의날 恩日이오 구원의날 救日이

을 세다 저데 遲滯하지 말고 평계 推諉하지 말고 수々 速々히 죄인 罪人을 接待하시느 접대 예수씨로 뛰어 踴躍來到하

야 서부복경비 俯伏 敬拜하고 죄의심 罪洗함과 영원 永遠한 희망 福뵈시기를 희망 希望하옵니다

類에 希望을 價値가 아니라 萬若 우리의 分別하는 自由의 良能을 與奪할 것 又하면 吾儕

가 하는 님의 形狀으로 된 거시 아니오 무슴 物件과 又치 됨니 다 然則 各人이 自己의 罪를

覺悟하고 眞實히 悔改하야 自己의 自由의 作定으로 예수를 밧아 自己 救主로 밧어야 됨

니 다 此理는 奧妙한 거시 지 마는 하는 님의 原則이 오이 又치 될 수 밧고 業는 일인 즉 以外

에 他道理는 絶對的 無한 거시 외 다

結末、 예수께서 罪人을 接待하심 니 다 할 날 누야 그 릇 습 니 다 예수 가 罪人을 接待하시

지 오 惡하고 陋麗하 여 도 關係업고 볼 수 업는 罪人이 라 도 예수 씨 서 接待하 십 니 다 當身과

我와 又 혼 者 라 도 예수 씨 서 밧아 接待하 십 니 다 然 이 나 우 리 가 할 거 손 悔 改 하 여 야 그 대

로 될 거 시 외 다 今日 예수 씨 서 하 는 님 의 右 便 에 계 서 서 吾 儕 를 爲 하 야 懇 求 하 십 니 다 예

수를 仰視하 세 다 其 荊 棘 의 冕 冠 을 보 시 오 其 傷 痕 몸 과 淚 痕 을 見 하 시 오 예수 가 吾 罪人

들을 苦待하 심 니 다 來하 라 고 召하 심 니 다 其 釘 痕 의 手 를 伸 하 사 吾 儕 迎 接 하 시 기 를 願

하 시 는 거 시 외 다 聖神 씨 서 吾 儕 衷 心 을 感 化 하 사 예 수 를 보 여 주 시 니 現 今 吾 儕 는 作 定

待<sup>다</sup>하지 못<sup>못</sup>하게 되<sup>되</sup>었<sup>었</sup>지 오<sup>오</sup>하는 님<sup>님</sup>께서惡<sup>악</sup>한者<sup>者</sup>의滅<sup>멸</sup>亡<sup>망</sup>하는 거<sup>거</sup>슬樂<sup>도</sup>觀<sup>개</sup>치 아<sup>아</sup>니 하<sup>하</sup>심<sup>심</sup>니다

(겔十八〇卅二)

誰<sup>누</sup>某<sup>구</sup>던 지地<sup>디</sup>獄<sup>옥</sup>으로墜<sup>나</sup>下<sup>러</sup>하<sup>하</sup>는 거<sup>거</sup>슨自<sup>자</sup>己<sup>기</sup>罪<sup>죄</sup>件<sup>건</sup>을因<sup>인</sup>하<sup>하</sup>야自<sup>자</sup>然<sup>연</sup>히往<sup>가</sup>케되<sup>되</sup>는 거<sup>거</sup>시외<sup>외</sup>다예수

께서來<sup>오</sup>하<sup>하</sup>신 거<sup>거</sup>슨罪<sup>죄</sup>人<sup>인</sup>을接<sup>접</sup>待<sup>대</sup>하<sup>하</sup>려來<sup>오</sup>하<sup>하</sup>셨지 오<sup>오</sup>는 거<sup>거</sup>스十九〇十에言<sup>말</sup>하<sup>하</sup>시기를「人<sup>인</sup>子<sup>자</sup>가失<sup>실</sup>호<sup>호</sup>

者<sup>자</sup>를尋<sup>차</sup>하<sup>하</sup>야救<sup>구</sup>援<sup>원</sup>하<sup>하</sup>려와<sup>와</sup>노라」하<sup>하</sup>셨습<sup>습</sup>니다但<sup>다</sup>罪<sup>죄</sup>人<sup>인</sup>의頑<sup>완</sup>惡<sup>악</sup>과悔<sup>회</sup>改<sup>개</sup>하<sup>하</sup>기厭<sup>厭</sup>하<sup>하</sup>므로만救<sup>구</sup>活<sup>활</sup>하<sup>하</sup>

여<sup>너</sup>쥬실 수 가업고不<sup>밋</sup>信<sup>지</sup>賴<sup>아</sup>함으로만接<sup>접</sup>待<sup>대</sup>하<sup>하</sup>시지 못<sup>못</sup>하<sup>하</sup>니다

或<sup>혹</sup>이思<sup>성</sup>하<sup>하</sup>기를 하<sup>하</sup>는 님의權<sup>권</sup>能<sup>능</sup>으로一<sup>일</sup>般<sup>반</sup>人<sup>인</sup>民<sup>민</sup>을臆<sup>억</sup>旨<sup>지</sup>로라도召<sup>불</sup>歸<sup>터</sup>케하<sup>하</sup>샤善<sup>선</sup>美<sup>미</sup>케하<sup>하</sup>여주

섯스면도갓다고하<sup>하</sup>나하<sup>하</sup>실意<sup>의</sup>向<sup>향</sup>이업<sup>업</sup>는줄압<sup>압</sup>니다하<sup>하</sup>는 님이人<sup>인</sup>生<sup>생</sup>을創<sup>창</sup>造<sup>조</sup>하<sup>하</sup>실時<sup>때</sup>에自<sup>자</sup>己<sup>기</sup>

形<sup>형</sup>狀<sup>상</sup>과又<sup>또</sup>치造<sup>조</sup>成<sup>성</sup>하<sup>하</sup>여주섯고各<sup>각</sup>人<sup>인</sup>의別<sup>분</sup>別<sup>별</sup>을만<sup>만</sup>하<sup>하</sup>自由<sup>자유</sup>의良<sup>량</sup>能<sup>능</sup>을稟<sup>품</sup>賦<sup>부</sup>하<sup>하</sup>여주섯스<sup>스</sup>쥬

到<sup>도</sup>底<sup>미</sup>히尋<sup>심</sup>常<sup>상</sup>한動<sup>동</sup>物<sup>물</sup>이나物<sup>물</sup>件<sup>건</sup>과는又<sup>또</sup>지안<sup>안</sup>습<sup>습</sup>니다하<sup>하</sup>는 님이萬<sup>만</sup>一<sup>일</sup>人<sup>인</sup>類<sup>류</sup>를改<sup>개</sup>造<sup>조</sup>하<sup>하</sup>여臆<sup>억</sup>旨<sup>지</sup>

로自<sup>자</sup>己<sup>기</sup>의意<sup>의</sup>대<sup>대</sup>로行<sup>행</sup>하<sup>하</sup>게하<sup>하</sup>셨더면其<sup>그</sup>結<sup>결</sup>果<sup>과</sup>는人<sup>자</sup>이아<sup>아</sup>니오人<sup>사</sup>의貌<sup>모</sup>樣<sup>양</sup>으로된物<sup>물</sup>件<sup>건</sup>뿐<sup>뿐</sup>이오

兒<sup>어</sup>孩<sup>히</sup>들의遊<sup>장</sup>戲<sup>난</sup>件<sup>가</sup>으로쓰는假<sup>가</sup>人<sup>인</sup>과如<sup>유</sup>하<sup>하</sup>거시오石<sup>돌</sup>造<sup>노</sup>彫<sup>조</sup>刻<sup>과</sup>物<sup>물</sup>에不<sup>지</sup>過<sup>나</sup>하<sup>하</sup>거시니吾<sup>우</sup>儕<sup>리</sup>人<sup>인</sup>

其後에 又言하시기를 天上과 地面에 諸權을 皆我의 賜하시다 하시옵시다 (마 廿八

〇十八) 羅馬敎神父들이 言하시기를 吾儕가 罪人을 迎接하고 其自服을 受하며 罪를 赦하

여 준다 하시나 此는 皆妄誕의 辭요 예수께서 言하시기를 父가 子를 愛하시 諸權을 皆其手

에 賜하셨다 하시옵소 (요 二〇卅五) 然則 吾儕가 尤極할 닐 야 讚頌할 수 밖과 업습니다

獨一無二하신 萬國敎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罪人을 迎接하시실 時에 待接하시실 만흔 權

勢가 足하시시고 洗權도 裕餘하시므로 諸般 罪人을 皆迎接하시느니라 我도 接待하시심을

받으 수가 있습시다

四、 然하시나 規則이 있스니 卽悔改하는 者만 接待하시심니다

바리새敎人과 사두기敎人도 다 罪人이지 마는 예수께서 獨히 接待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無他라 一理由뿐이니 信치 아니하고 悔改치 아니함이 라 萬一痛悔만하였더면 彼等도

다 接待하시었을 거시오 故로 哀痛하시면서 예루살렘 人民을 爲하야 懇曲히 祈禱하셨지

마는 接待는 못하시신 거시오 다 (마 廿三〇) 終是 強硬한 性質노 排斥하고 反抗하시니 接



神學指南

條의德行은 예수께서創述하신敎訓이라 할 수 밧고 업소이다 現代萬國에 信不信者를

勿論하고 皆同一하게 言하기를 此幾條德行의 主人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然故로 예수께서 惡하니 사罪人을 接待하신다는 言을 못 합니다 當時에 仇敵되던者

들과 現今에 反對者라도 예수를 罪人이라 稱言치 못하거시외다 예수는 全聖全善신故

로 罪人을 迎接할 실수잇섯습니다 罪人을 接待하시는데 예수께서 吾儕도 接待하시느거

시외다 우리가 할낼누야 讚頌하고 榮光을 歸할수外에 無함니다

三. 예수께서 罪人을 接待할 권勢도 잇스니 讚頌할 거시오

가베나움에서 예수께서 講道할 時에 四人이 半身不遂된 一友를 昇來하야 其居하

신 屋脊을 穿하야 穴을 作하고 病者를 縋下하엿더니 예수께서 其信仰을 見하시고 言하

샤디 「小子야 爾의 罪를 赦하엿다」 하섯소 其時에 書記官 幾人이 此言을 듯고 僭濫하다 하엿

스나 實狀은 眞談이 아니오니 十字架에 被釘하시기 前에 예수께서 言하시기를 只今

이라도 十二營더 되는 天使를 招來할수 잇다 하섯고 (마廿六〇五十三)

옛스나 예수께서 교하신 愛는 仇敵까지 愛하신다고 하시며 自己行爲로 同一한 理致를 教授하신 소이다

(三) 謙遜함이니 오스드리아國에서 每年에 聖誕時면 國內八十以上 老人을 皆京

都로 召集하고 其中에 十二人을 選擇하여 使徒團과 彷彿히 組織하고 當日에 皇帝陛下

가 榮光의 服裝을 廢去하고 寶座에서 下하시야 該十二人의 足を 洗한다 더라 其義趣는 예

수가 十二使徒의 足を 洗하신 것 같치 皇帝께서도 此를 效則하시야 同一한 謙遜을 行함이

라 하시니 此는 眞正한 謙遜이 아니오 形式에 지나지 못하시며 예수께서는 天堂寶座에서 捨

尊取卑하시야 降世하신 中貧寒한 家庭에 寄居하시 고 惡人의 壓制를 當하시며 十字架에

被釘하시 기까지 하시셨스나 此乃眞正한 謙遜이 외다

(四) 容恕함이니 異邦人이라 도 故舊間이나 眷屬끼리는 서로 容恕하시라 고 勸告도 하

며 敎訓도 하시 마는 主예수께서는 特別히 仇敵까지 容恕하시라 고 敎訓하시셨스며 十字架

에 懸在하시실 時에도 仇讐를 爲하시야 懇曲히 祈禱하신 거시 외다 然則 聖愛謙恕 此四

너님의子(아들이)시라 하였소 (마廿七〇五十四) 又(또) 마七〇卅七에言(말씀)하기를多人(많은사람)이甚(심)히驚(놀)나

曰(말)그의行(행)을신(신)겨스다 잘(잘)하였도다 하였소이다

(2) 예수께서肉身(육신)으로 잘 못(잘 못)하신品行(품행)이 無(없)을뿐더러 聖經(성경)을 詳細(자세)히 閱覽(열람)한즉 예수

께서 惡行(악행)을 할(할) 실수(실수)가 無(없)을거시라 예수와 他(다른)聖賢(성현)을 比較(비교)한즉 예수께서 人(사람)의 品行(품행)에 對(대)

하여 幾條(몇가지) 條(창) 創論(론)하신 教理(교리)가 있는거시외다

(一) 聖(거룩)함이니 예수께서 降世(강세)前(前)에 世人(세인)들이 此理(이리)를 漠然(막연) 不知(부지)하였소 率(몸을) 다스리

教訓(교훈)으로 但(다만) 惡行(악행)의 事(일)만 禁(금지)止(지)하였스나 예수 的(교훈) 教訓(교훈)은 그거시오 허(만족)지안타하시

고 心理(심리) 及(및) 領率(영솔)하시야 할(할) 것(것)다 하였스니 卽心(곧 마음)으로 人(사람)을 惡(위)하시면 早(발)서 살(살)인(인) 죄(죄)를 犯(범)

하였다 하시니라 亦(또) 女人(여인)을 見(볼)을 時(때)에 淫思(음란)만 置(두)여도 早(발)서 淫行(음행) 罪(죄)로 認(인)定(정)하셨소 然(그런)즉

世人(세인)이 普(보)通(통)으로 思(생)각(각) 聖(거룩)이라 할(할) 거스다 이대(대)로 思(생)각(각)치 아니하였고 예수가 始(비로)초(초)로 其(그) 聖(거룩)

의 旨(뜻)을 制(지)述(술)하시 教訓(교훈)하시외다

(二) 愛(사랑)함이니 不(못)信(신)之(는) 世(세)는 彼(彼此) 親(친)故(고)세리나 相(서로) 愛(사랑)하고 家(가)內(내)에서나 相(서로) 愛(사랑)할(할) 줄(줄)을 知(알)하

(2) 此溫良<sup>이</sup>好<sup>않</sup>다<sup>친</sup>는 무리<sup>이</sup>뿐<sup>아</sup>니<sup>라</sup>惡<sup>악</sup>하다<sup>는</sup> 무리<sup>도</sup>待<sup>대</sup>接<sup>접</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

여리고<sup>로</sup>에서 예루살렘<sup>로</sup>으로<sup>가</sup>나<sup>가</sup>실<sup>때</sup>에<sup>사</sup>키<sup>오</sup>란<sup>者</sup>을<sup>逢</sup>見<sup>見</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罪<sup>죄</sup>人<sup>인</sup>을<sup>待</sup>接<sup>접</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

으로<sup>로</sup>生活<sup>생활</sup>하<sup>는</sup>者<sup>者</sup>인<sup>디</sup>交<sup>교</sup>接<sup>접</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不<sup>불</sup>義<sup>의</sup>의<sup>인</sup>이<sup>라</sup>然<sup>그러</sup>하<sup>나</sup>예<sup>수</sup>는<sup>罪</sup>人<sup>인</sup>을<sup>待</sup>接<sup>접</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

者<sup>者</sup>이<sup>신</sup>즉<sup>생나무아더</sup>桑<sup>상</sup>樹<sup>나무아더</sup>下<sup>아</sup>에서<sup>사</sup>키<sup>오</sup>를<sup>보</sup>고<sup>서</sup>迎<sup>영</sup>接<sup>접</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

바리새<sup>교</sup>人<sup>인</sup>시<sup>몬</sup>의<sup>家</sup>에서<sup>음</sup>食<sup>식</sup>을<sup>잡</sup>수<sup>실</sup>時<sup>때</sup>에<sup>가</sup>可<sup>가</sup>憐<sup>연</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女<sup>녀</sup>人<sup>인</sup>하<sup>나</sup>히<sup>방</sup>入<sup>에</sup>室<sup>에</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女<sup>녀</sup>人<sup>인</sup>을<sup>逐</sup>出<sup>출</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

예<sup>수</sup>의<sup>발</sup>足<sup>발</sup>을<sup>씻</sup>고<sup>머</sup>頭<sup>머리</sup>髮<sup>머리</sup>노<sup>말</sup>넛<sup>넛</sup>는<sup>디</sup>시<sup>몬</sup>이<sup>이</sup>此<sup>이</sup>事<sup>일</sup>을<sup>보</sup>고<sup>女</sup>人<sup>인</sup>을<sup>逐</sup>出<sup>출</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女<sup>녀</sup>人<sup>인</sup>을<sup>逐</sup>出<sup>출</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

수<sup>씩</sup>서<sup>는</sup>該<sup>그</sup>女<sup>녀</sup>人<sup>인</sup>의<sup>眞</sup>正<sup>정</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悔<sup>회</sup>改<sup>개</sup>를<sup>아</sup>시<sup>고</sup>此<sup>이</sup>罪<sup>죄</sup>人<sup>인</sup>을<sup>待</sup>接<sup>접</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

叱<sup>질</sup>辱<sup>욕</sup>이<sup>나</sup>잘<sup>하</sup>고<sup>是</sup>非<sup>비</sup>도<sup>화</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初<sup>최</sup>에<sup>예</sup>수<sup>씩</sup>와<sup>는</sup>時<sup>때</sup>에<sup>其</sup>衷<sup>중</sup>心<sup>심</sup>

이<sup>보</sup>물<sup>것</sup>업<sup>섯</sup>스<sup>나</sup>예<sup>수</sup>씩<sup>서</sup>그<sup>대</sup>로<sup>接</sup>待<sup>대</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使<sup>사</sup>徒<sup>도</sup>의<sup>무</sup>리<sup>中</sup>에<sup>陞</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使<sup>사</sup>徒<sup>도</sup>의<sup>무</sup>리<sup>中</sup>에<sup>陞</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

거<sup>시</sup>외<sup>다</sup> 其<sup>그</sup>벧<sup>에</sup>스<sup>다</sup>池<sup>못</sup>傍<sup>가</sup>에서<sup>三</sup>十<sup>삼</sup>八<sup>십</sup>年<sup>팔</sup>間<sup>년</sup>苦<sup>고</sup>痛<sup>통</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病<sup>병</sup>者<sup>자</sup>가<sup>예</sup>수<sup>씩</sup>懇<sup>구</sup>求<sup>구</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該<sup>그</sup>病<sup>병</sup>

은<sup>유</sup>대<sup>대</sup>人<sup>인</sup>들<sup>의</sup>싱<sup>각</sup>에<sup>罪</sup>를<sup>因</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生<sup>생</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待<sup>대</sup>接<sup>접</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病<sup>병</sup>을<sup>蘇</sup>醒<sup>성</sup>케<sup>하</sup>는

섯<sup>습</sup>니다<sup>는</sup> 사<sup>마</sup>리<sup>아</sup>井<sup>우물</sup>畔<sup>곶</sup>에서<sup>맛</sup>나<sup>신</sup>女<sup>녀</sup>人<sup>인</sup>으로<sup>말</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淨<sup>정</sup>潔<sup>결</sup>치<sup>못</sup>하<sup>는</sup>것<sup>이</sup>다<sup>는</sup> 女<sup>녀</sup>人<sup>인</sup>이<sup>지</sup>마<sup>는</sup>

記述의 講道

고옵니다비록선망雖善良타고하나실상實狀은罪人죄인뿐이오하는님을眞個진개信賴신뢰하엿다고하나罪人죄인

이오후암중사도黑暗中人이오요하福音복음二章에잇는言을見말씀호는神靈신령理致리치에對대하야는거진하

나도知알지치못하엿습니다亦또한하는님을모른것뿐아니라예수를反對반대하던者인가되다當당

時시에예수를訪問방문하러來올할時에乘夜밤에暗來올거시외다同僚동료가알사羞愧부끄스러이思생각함으

로他人타인이知알호는사恐저함이외다亦또한黑暗후암中에도무어슬아는레하고驕교만心마음으로예수를

質問질문호는거신즉예수를待持대지하러온거시아니오暗來올거슨관待대하거시오然그러하나예수

씩서來者오는자를不보去러지하거시고其不그足부된點점을介개意의치아니하사善선히迎영接접하시며教訓교훈하시

고信者신자가되게하거시외다아리마대요셉과메다니마리아와나다나엘과若輩그러한이들

을皆善다선히受받호는것소이다其時그世세上상이알기에此等이런人사람은임의의堂당已이미天천堂당갈무리로認인定정하엿

스나예수씩서는人을外貌외모로取취하거지아니하거고內心속을知아호는故고로其人그도亦또한罪人죄인

으로아르섯소驕慢교만과猜忌시기와膽弱담약과情欲정욕과諸般모든罪惡죄악을因인하야天천堂당에가기어려온

무리로아신거시외다然그러하나예수씩서그들을迎영接접하시고教訓교훈하섯습니다

상 찬송  
上 讚頌이 되었습니 다 今 此 本 文 은 意 趣 가 其 外 如 奇 異 히 變 體 되 는 말 습니 을 세 다

당 시 當 時 에 바 리 시 敎 人 이 嘲 笑 하 야 言 하 기 를 「 罪 人 을 待 接 하 십 니 다 」 하 였 스 니 今 에 吾 儕 가 此 語

聲 을 聽 하 고 할 罷 누 야 라 부 르 고 讚 頌 하 면 서 誠 然 하 다 고 歎 服 하 십 니 다 「 예 수 가 罪 人 을 待 接

하 십 니 다 」 하 음 에 對 하 야 思 惟 하 기 는 世 人 들 은 恨 이 罪 人 을 對 하 야 凌 侮 하 니 고 排 斥 하 며 誹

辱 하 십 니 다 그 러 나 예 수 씨 서 는 그 와 又 ち 아 니 하 시 고 도 케 待 接 하 십 니 고 오 지 彼 等 을 矜

恤 하 니 이 시 는 心 으 로 彼 等 을 親 近 하 하 샤 自 己 를 信 靠 으 로 救 援 을 엿 어 淨 潔 하 니 이 되

기 를 願 하 심 이 라

一. 예 수 씨 서 如 何 하 人 을 迎 接 하 십 니 까

(1) 溫 良 하 다 는 紳 士 를 待 接 하 셧 습 니 다

유 대 國 中 에 니 고 데 모 보 다 더 溫 良 하 紳 士 가 만 히 이 셧 습 는 지 맞 치 모 르 거 니 와 聖 經

썬 아 니 라 遺 傳 하 俗 諺 에 도 良 善 하 先 生 이 라 고 하 십 니 다 遺 傳 하 言 대 로 예 수 씨 서 十 二 歲

時 에 예 루 살렘 聖 殿 에 서 諸 位 博 士 와 問 答 하 실 際 니 고 데 모 도 亦 其 中 에 同 參 된 듯 하 다

結果를 得할 것을 지니라 何書던 謊言이 아니오 眞談이면 其即하는 님의 理致니 그 거슬 精  
 細히 研究할 수록 敎會가 有益을 받는 니라 然 牧師 된 者는 誰某를 勿論하고 思想의  
 生活에 對하야 思하며 養成하도록 크게 注意하기를 切望하는 바이다

# ○記述的講道

(기술편강도)

郭安連牧師 著述

本文 본문

눅十五〇二 「此人이 罪人을 待接한다」

題目 제목

罪人을 待接하는 예수시라

引導 인도

聖經中에 異常한 語句가 몇군데에 잇스니 假令 눅廿三〇卅五에 예수가 他人

을 救援하셨다고 呼말 又흔 거시 오 其言이 誹笑한 말이나 도로 혀 合適한 正論이 되었스

니 此는 예수의 仇敵되는 人의 口吻로 出言이라 도 예수를 讚頌한 言이 되었습니 다 他

人을 救援하 십다 呼였스 니 此보다 尤大한 讚辭가 어디 잇습닛가 誹謗하는 辱이 變하야 無

의知識이增加되면敎人の累百番듯던말노講說하지아니하고恒常高明한言論으로

敎人の新思想을發揮케할거시오若不然하면敎師의思想이頑固하고言論이太古

한야敎人の心靈을改新케할수업슬거시니라敎師뿐아니라敎友도宜當히敎育을받

아야할터인디學校로갈수업스나敎師가引導할면敎友가漸々敎育을받게되느니

此亦敎師의擔當이니라故로敎師가無識하면敎會도無識하고敎師가有識하면敎會

도有識하게되느니라

(二)敎友로하여골稽古한흥氣를내게함

敎師가個人으로書籍을研究하는거스로敎人の게善한模本을보이느거시可有

書籍中에思究할것과談話하기에滋味있는거시만히잇스니敎人들이알기만하면個

人으로敎師를模倣한야書籍講究할思想이自然發生할거시니라敎師가本敎人の可

學的理致를十分之一이라도直接으로敎授코져하면時間이입숨으로勞心하지마는

敎友를感動시켜書籍을講究하게하면自己가直接으로敎育식히는結果보다尤多한

敎師의思想의生活



牧師가 時間을 앗기고 操心을 면意外에 공부할 時間을 만히 얻을 수 있는 니 鄉村에 周

行하는 牧師라도 一卷書를 常携하고 旅行하면 往々路傍에서라도 數三句節을 볼 時間

을 얻을 수 있겠고 其閱覽은 句語는 行路中에 更思할 機會가 있을 거시오 旅店에서 食物

準備하기를 企待間이나 或時衆人이 會坐하여 無用閒談을 할 때에 牧師가 携帶한 書籍

을 衆人듯는 디 數章을 朗讀하면 無用閒談보다 有益하고 聽者로 하여 公相適한 書籍

을 볼 興氣를 나게 할 수 있는 니라 世上에 張皇한 古談이 만흔 디 書籍을 朗讀하고 靜坐默

思하면 古談을 만히 하는 것보다 有益하니라 一卷書라도 恒常携帶하고 來往하면 時間

을 節用할 수 있고 他人의 利有益을 遺할 수 있는 니라

三、牧師의 思想의 生活를 養成하는 結果

上記說話中에 結果가 만히 發現되었으나 數條를 說明코져 하노라

(一) 敎會가 敎育을 받음

牧師가 知識이 增加하는 著가 되면 講道할 때마다 本敎友가 敎育을 받게 되는 니 牧師

書籍研究서적연구을 시간시간을 얻기 어렵고 牧師가 不可不書籍을 연구하여야 될 줄을 不知하는 教友가 있스나 巡行牧師가 아니면 依例히 每日二時以上으로 書籍을 연구하는 것이 시可가

하니라

各支教會에 對하여 牧師가 書籍을 연구하는 것이 教會에 大益이 되는 것을 莫크유익히

시니라 牧師가 自己事業에 對하여 時間表를 準備하디 每日 書籍研究을 時間을 定하고

教友와 相議하면 教友가 許諾하여 其時間表대로 施行할 듯하니라

多數의 教會를 管轄하는 牧師의 此事 極難하지 마는 注意함이 可하니 一週日間에

一日은 己家에 居處할 듯하니 其日에 終日도록 書籍을 研究할 수가 있고 或時 管轄各

教會內에 閒寂한 處所를 預備하고 該處에서 時間을 쓰라 書籍을 講究하는 것이 시可가

라 牧師의 書籍講究함이 教會에 有益되는 것을 誰某던지 該教會에 對하여 莫그교회히

시可가하니라

② 牧師가 恒常書籍을 携帶하고 든닐 것

잇서야 할 지니라 普通으로 말하면 朝鮮敎友들이 書籍博覽에 有意하는 者가 甚히 稀少  
 하니 可惜한 事라 書籍을 博覽치 아니하면 生活看視範圍가 亦是 狹少할 지니 牧師가 敎  
 友를 勸勉하여 書籍을 博覽하도록 할 거시니라

④ 他宗敎書籍

牧師된 吾儕가 言必稱에 수 敎는 他宗敎보다 優勝하다 하나 他宗敎書籍을 보지 아니  
 할면 何以 勝 何以 劣을 何由로 得知리오 優勝한 理由와 證據를 發現하여야 할 거시니  
 라 世上各族이 居生하는 各國의 宗敎에 對하여 考究하는 거시 滋味가 多할 事이나 此는  
 아직 急先務가 아니지 마는 本國에 있는 宗敎의 裏面은 早速히 研究하여야 할 거시니 此  
 를 詳知後에야 對敵한 材料만 있을 뿐 아니라 本敎에 對하여 더 堅固한 信仰의 力을 얻을  
 수 있느니라

(三) 研究할 時間을 얻을 것

○ 每日 時間을 定하고 書籍을 精研할 것

서과거시대過去時代에如何행케行행하신거슬볼수잇고新聞紙신문지에서는하는하는신문지는님씩신문지서現時代현대에如何

케行행하시는거슬볼수잇스며且또다른사물他人타국이如何행한問題문제에對하야如何행케思생각하느니문제알수잇

는니他國타국에居生거성하느니人民인민이自國자기나라사물人당의當당하여보지못한事에對하야思생각究하느니문제알수잇

스면牧師목사는本敎友본교우의게알게함으로敎人교인의思想界상계를 넓히느니거시도흐니라特別특별히近

日일에는世上세상에여러가지可惜가석한事가發生하느니거시잇스즉何處어느곳에居生하느니者자던지彼

可惜가석한事를當하느니者자의情동경을表하으며其擔그것을分擔하기를圖謀하느니거시도코該事그일

에對하야深究하야再次發生치안도록할수잇슬가研究하느니거시니라

◎ 普通書籍

世人的現今思하느니問題를牧師가解決코져하면先次其問題를알아야될거시니라

小說冊이라도牧師의게有益한것은該冊을牧師가閱覽하면平民이何事에對하야如

何케思하느니지알수잇습이나或時敎友가如何한書籍을보느니거시可하가牧師의게

問議하기쉬울지니牧師가自己의閱覽書籍中에서可讀書籍을擇하야指示할能力이

牧師의 思想의 生活

爲<sup>위</sup>야相從<sup>상종</sup>하는人<sup>자</sup>의形便<sup>형편</sup>을따라研究<sup>연구</sup>하는거시도호니라

(二)此<sup>이</sup>知識<sup>지식</sup>은如何<sup>엇더</sup>호書籍<sup>서적</sup>에서잇을거신고하니라

○聖經<sup>성경</sup>

此<sup>이</sup>는知識<sup>지식</sup>의第一<sup>매일</sup>되는泉源<sup>근원</sup>이니誰<sup>누구</sup>某<sup>그러</sup>던지不然<sup>저안</sup>라고하는者<sup>자</sup>가업는니라聖經<sup>성경</sup>에하는

第一<sup>매일</sup>對<sup>대</sup>호理致<sup>리치</sup>도잇고各<sup>각</sup>種<sup>종</sup>인人<sup>류</sup>類<sup>의</sup>의對<sup>대</sup>호야마르치는것도잇는니라諸書<sup>모든책</sup>中<sup>중</sup>에聖經<sup>성경</sup>을

第一<sup>매일</sup>만히研究<sup>연구</sup>호는거시然<sup>그러</sup>호나聖經<sup>성경</sup>만研究<sup>연구</sup>호는거시失策<sup>실책</sup>이니聖經<sup>성경</sup>은古<sup>옛</sup>昔<sup>날</sup>에記錄<sup>기록</sup>호

書冊<sup>서적</sup>이라陳舊<sup>묵어쓰</sup>不用<sup>자못</sup>호게된거슨아니로되現<sup>현</sup>世<sup>세</sup>界<sup>계</sup>人<sup>인</sup>의事蹟<sup>사적</sup>과世<sup>세</sup>上<sup>상</sup>事<sup>일</sup>의發<sup>발</sup>展<sup>전</sup>되는形便<sup>형편</sup>

도아는거시可<sup>가</sup>호니라

○新聞及雜誌<sup>신문과잡지</sup>

敎會<sup>교회</sup>에서發<sup>발</sup>刊<sup>간</sup>호는新聞<sup>신문</sup>及雜誌<sup>잡지</sup>뿐아니라本<sup>본</sup>地<sup>지방</sup>方<sup>국</sup>과他國<sup>타국</sup>의形便<sup>형편</sup>을알만호新聞<sup>신문</sup>과雜<sup>잡</sup>

誌<sup>지</sup>도볼거시니或<sup>혹</sup>다른사<sup>사</sup>동<sup>동</sup>라국<sup>국</sup>사<sup>사</sup>경<sup>경</sup>아지못도無<sup>무</sup>關<sup>관</sup>호는거시와牧師<sup>목사</sup>된者<sup>자</sup>는하느님

피서他國<sup>타국</sup>에對<sup>대</sup>호야엇더케眷念<sup>권념</sup>호는지알아야호는지니라世界<sup>세계</sup>史<sup>사</sup>記<sup>기</sup>에서는하느님피

고其命命을直接으로받고遵行할能力도있을거시오凡事를하는님이보시듯自己

가볼能力을얻어야할것고憂慮되는事를解決하기를하는님께서解決하시는것고치

할能力을얻어야할것고無識하고暗昧한人을敎訓하시는것과又치牧師도할거시라

牧師가講道할時에人의對對야하는님께서던言만할거시아니오自己의當經

過(바울이다메섹路中에서當한것과又흔形便中에서잇은것)를드러講道할거시니

此는牧師의第一되는研究題目이니라

㉓人을知할것

牧師가自己의所好辨아니라他人의所好辨지알아야할것고自己의思想辨아니라

他人의思想辨지알아야할것고自己가生活에對하야料量하는것辨아니라他人의如

何料量하는것辨지알아야할거시니라牧師가所親者의게所願과不足한거슬本人

이覺知前이라도預量하여야할것고其願과不足함을치우는데서지引導할거시니라

牧師가自己의福音이一便에는너무深奧하고一便에는너무淺薄한거시되지안키

入리갈할 듯 하니 然그러히나 牧師가 學問만 잊서야 할 거시 아니오 神靈신령의 能力능력과 祈禱기도는 能능力력又다은 것들이 皆是必要필요하니 以上所記를 본즉 學識학식도 大段必要대단히 필요할 거시 때 不可不불가불잇을

거시니라

二、思想的 生活을 養成하는 方針  
수상덕생활 양성 방침

(一) 研究연구할 問題문제

牧師가 少許조공이라도 自己의 職分을 盡다하고 저하면 研究할 問題가 들이잇는니 하는 님을

知알할 것 과 人을 知알할 거시라

○ 하는 님을 知알할 것

牧師가 하는 님을 熟知하는 者라야 될 거시니 誰某던지 此言을 드르면 當然당연하다 하나

此言中에 深奧處가 잇는니라 하는 님씩 對대하야 아는 것만 滿足지 아니하니 하는 님을 熟너히

知알할 거시니라 聖經과 天地萬物中에 하는 님의나 타내심을 恒常詳細히 보아야 할 것고

하는 님의 行행하심을 逢着하는 대로 알 거시오 自己心中에 하는 님을 迎接하야 居거하시게

(三) 本地<sup>본디</sup>方人<sup>방사론</sup>의 凌侮<sup>릉부</sup>를 免<sup>면</sup>키 爲<sup>위</sup>하야 思想<sup>사상</sup>의 生活<sup>의생활</sup>을 養成<sup>양성</sup>할 事<sup>사</sup>라

教會<sup>교회</sup>가 附近<sup>가까운</sup>地方<sup>디방</sup>을 感動<sup>감동</sup>시키코 隣里<sup>린리</sup>中<sup>중</sup>에서 多數<sup>다수</sup>인 人<sup>사람</sup>을 會<sup>회</sup>수되 引導<sup>인도</sup>할 意<sup>의</sup>向<sup>향</sup>이 잇스

나 該<sup>그</sup>外<sup>의</sup>人<sup>인</sup>들이 禮拜<sup>례배</sup>堂<sup>당</sup>에 來<sup>來</sup>參<sup>참</sup>時<sup>때</sup>에 牧師<sup>목사</sup>의 講說<sup>강설</sup>에 可<sup>드름</sup>耳<sup>주호</sup>의 言<sup>언</sup>論<sup>론</sup>이 不<sup>무</sup>足<sup>숙</sup>하거나 何<sup>무</sup>等<sup>등</sup>滋<sup>지</sup>味<sup>미</sup>가 잇

서 再<sup>두</sup>次<sup>번</sup>다시 오리오 洞<sup>동</sup>里<sup>리</sup>人<sup>사람</sup>들이 教會<sup>교회</sup>를 引<sup>인</sup>導<sup>도</sup>하<sup>자</sup>는 者<sup>목사</sup>와 牧師<sup>목사</sup>를 認<sup>인</sup>定<sup>정</sup>하<sup>는</sup>대 로 其<sup>그</sup>教會<sup>교회</sup>를

認<sup>인</sup>定<sup>정</sup>하<sup>는</sup>니 其<sup>그</sup>地<sup>디</sup>方<sup>방</sup>에 有<sup>유</sup>識<sup>의</sup>者<sup>자</sup>가 不<sup>그</sup>足<sup>사</sup>하<sup>는</sup>디 該<sup>그</sup>人<sup>사람</sup>을 會<sup>회</sup>수되 牧師<sup>목사</sup>의 知<sup>지</sup>識<sup>식</sup>이 不<sup>부</sup>足<sup>족</sup>하거나 又<sup>또</sup>牧

師<sup>사</sup>가 所<sup>아</sup>知<sup>는</sup>를 有<sup>자</sup>味<sup>미</sup>하<sup>는</sup>게 新<sup>새</sup>模<sup>모</sup>制<sup>제</sup>로 說<sup>설</sup>明<sup>명</sup>할 事<sup>사</sup>를 不<sup>아</sup>知<sup>지</sup>하<sup>는</sup>면 該<sup>그</sup>有<sup>유</sup>識<sup>의</sup>者<sup>자</sup>들이 禮拜<sup>례배</sup>堂<sup>당</sup>에 意<sup>의</sup>向<sup>향</sup>

이 不<sup>부</sup>足<sup>족</sup>하거시나 誰<sup>누</sup>某<sup>구</sup>던 지 信<sup>믿</sup>仰<sup>음</sup>이 堅<sup>견</sup>固<sup>고</sup>하<sup>는</sup>여 進<sup>후</sup>後<sup>도</sup>에는 講<sup>강</sup>道<sup>도</sup>가 何<sup>하</sup>如<sup>어</sup>개 되던 지 하<sup>는</sup>님을

敬<sup>경</sup>拜<sup>배</sup>하<sup>는</sup>기 爲<sup>위</sup>하야 禮拜<sup>례배</sup>堂<sup>당</sup>에 오려나와 確<sup>확</sup>實<sup>실</sup>한 信<sup>믿</sup>仰<sup>음</sup>을 會<sup>회</sup>수되 前<sup>전</sup>에는 禮拜<sup>례배</sup>會<sup>회</sup>의 秩<sup>질</sup>序<sup>서</sup>가 盡<sup>전</sup>善<sup>선</sup>

盡<sup>전</sup>美<sup>미</sup>하야 着<sup>착</sup>味<sup>미</sup>할 만하거시 잇지 아니하<sup>는</sup>면 叅<sup>참</sup>席<sup>석</sup>하<sup>는</sup>기 를 不<sup>불</sup>肯<sup>肯</sup>할 거시 오 設<sup>설</sup>或<sup>혹</sup>該<sup>그</sup>地<sup>디</sup>方<sup>방</sup>人<sup>인</sup>民<sup>민</sup>

이 無<sup>무</sup>識<sup>식</sup>할 지라도 牧師<sup>목사</sup>의 言<sup>언</sup>論<sup>론</sup>에 可<sup>드름</sup>耳<sup>주호</sup>의 價<sup>가</sup>值<sup>치</sup>가 잇는 事<sup>사</sup>를 認<sup>인</sup>定<sup>정</sup>하<sup>는</sup>지 아니하<sup>는</sup>면 牧師<sup>목사</sup>를 仰<sup>앙</sup>

望<sup>망</sup>할 理<sup>리</sup>가 不<sup>부</sup>足<sup>족</sup>하거시나

一<sup>한</sup>地<sup>디</sup>方<sup>방</sup>內<sup>안</sup>에 兩<sup>두</sup>教<sup>교</sup>派<sup>파</sup>의 教會<sup>교회</sup>가 잇스면 人<sup>인</sup>民<sup>민</sup>은 自<sup>자</sup>己<sup>기</sup>의 憂<sup>걱</sup>慮<sup>정</sup>를 善<sup>풀</sup>히 解<sup>해</sup>慰<sup>위</sup>하<sup>는</sup> 教會<sup>교회</sup>에 投<sup>투</sup>



가 되여야 할 것 고 有識인隣人의 恥羞耻 事端이 發生되 지 아니 할 여야 할 거시니라  
유식 리웃사람 수처 수단 발생

(二) 本敎會前에 羞愧者가 되 지 안기 爲야 思想의 生活을 養成할 거시라 牧師가 萬一  
본교회 앞해벗그려온자 위 수상덕성환 양성

自己의 知識不足함을 恒常思念하고 羞愧之心을 품어 憂慮할 터이면 自然히 敎友들이  
자기 지식부족 항상성자 수괴지심 걱정 자연 교우

그거슬알고 牧師의 對야 其心이 變야 慢忽히 녀 이는 思想이 發生하기 易하니라  
목사 항상 자기 교우 못노말 변 만흔 수상 발생 쉬우

牧師가 恒常自己를 밋고 敎友의 所問에 對야 如何히 答할 거슬알아야 할 거시니라  
목사 그교회 목자 양무리 품 먹이느자 잇 더케더답

牧師는 其敎會의 牧者니 羊群을 飼養者가 되여 羊의 供給을 糧食이 乏스면 羊이 何  
목사 그교회 목자 양무리 품 먹이느자 양 공급 양식

由得生고 牧者가 羊을 靑草原으로 引導하 지 아니 할 면 其羊이 혼자 잇지 其路를 尋하며  
더케살 목자 양 푸른풀들 노인도 그양 그길을차지

又 惡지 毒草原에서 먹지 아니 할 수 잇스리 오 牧師가 敎友의 말을 解釋하 지 못하 고  
또 독흔풀들 우리자아니 목사 그사람 감동 힘 일흔

敎會를 引導할 資格이 되 지 못하면 不久야 牧師가 其人을 感動식 힘을 失할 거시니  
교회 인도 자적 오리지아니 목사 그사람 감동 힘 일흔

라 敎友들이 牧師의 世上諸般理致를 了 知 處 달나 할 지 아니 할 나 下記 幾種 知識을 要  
교우 목사 세상 모든 리치 아리괴독흔것가지지식

求 權利가 잇고 此理를 不知하면 敎友가 該 牧師를 仰望치 아니 할 지니 敎友가 牧師를  
구 권리 이리저 아저못 교우 그목사 양망

仰望치 아니 할 면 敎會外人은 더 욱이 仰望하 지 아니 할 듯하니라  
양망 교회외인 양망

이말슴 목수 자 천하 각종 학문  
라此言은牧師된者가天下各種學問을다알수밖의없다는言이아니라其職分에關係

되는學問과其事業을贊助할만할것과하는님과人生을和合하게하는學問은牧師의

게잇서야할터이니恒常研究할거시니라

一、思想的 生活의 必要

(一)牧師가教育을맡고知識으로長成하는人이아니면自慊하야其職을堪當하지못

할줄노알기易하니라誰某던지其職에對하야相當한知識이업고暗昧한者이면沒廉

者나外飾者가될거시아니오닛가今日은一年前보다知識이不增하였스면牧師가잇

더케安心을얻을수잇스리오然이나眞理로引導하시는聖神의引導로每日더高尚한

知識을얻어現的世事와不現的世事를自覺하는中에長成하게되는줄을알면此等牧

師는無識호者보다堅固한心으로自己의事務를볼수잇는니라

此等人은每日하는님의보디시는間接通信을接受하는줄노알고未久에當할難事

를爲하야自己가次第準備하는中에잇는줄노覺知할지니라且牧師는本地에引導者

牧師의 思想의 生活

종 전일 숭봉 種잇스며 前日崇奉호던 神을 毀撤호는디도잇스니 此時는 朝鮮에 一大機會가 되느니  
 是 恩惠 賜을 日이로다 他神을 廢棄호고 하는 神도 敬事치 아니호면 可憐호 民族이 될  
 지니 牧師된者는 他人의 助力을 不待호고 自己의 能力을 自疑치 말며 合力호여 주시는  
 하느님만 依賴호고 誠心 熱性으로 勉力호거시니라

# 牧師의 思想의 生活

(목사의 사상적 생활)

文學文士

孔韋亮牧師

著述

大抵 教會史를 閱覽호즉 學問잇는 資格을 要求호는 事는 何時를 勿論호고 無害有益  
 事라 萬國長老 教會의 遺傳으로 有識호 牧師를 두는 거시 第一 良好호 事니 天下 萬國  
 諸般 敎派中에 長老會 牧師들이 舉皆 有識호 名譽를 얻었느니라 現今 長老派가 天下 各  
 國에 遍傳되엿스즉 各地에서 宜當히 此 遺傳대로 호는 거시 可호니 此等 好規模를 變更  
 치 아니호거시 오 朝鮮本 敎會에서 此事를 成就호면 他敎派의 게도 模範이 될수잇느니라

하지아니  
不爲할거시니라牧師가或言하기를諸般事務中에此事가極難한事이라하나然이나

이도또호루관  
此亦無關이로다信者의生活은十字架를지는거시니難事인故로不爲할거시아니라

어려운일  
難事이니사特別한預備와恩賜를받아서特別히일할거시니라誰가言하기를「吾儕의

능력덕담  
계잇는能力에適當한負擔을하느니라求는것보다吾儕의계잇는負擔에適合한能力을求는거시可하다」

고하였느니라

광고덕  
廣告的으로하는個人傳道와公禮拜會에서傳道하는거시皆爲好나終局에悔改信

주  
主케하는거슨個人傳道로될거시니自落하는果實보다本主의手로摘取한果實이爲

다오 본교회 부흥  
佳나本教會를復興케하는事에對하여念慮할時에此方針을深究하는거시可하니라

四. 人의 心を 預備하는 事

유덕 년중 오늘  
由來廿三年中에今日과如히不信者가傳道를歡迎할時는업섯느니라逼迫하던時

리 지나가 조롱  
期는過去하고嘲弄하는事가或有하나此도牧師가懇切히言할時에는自滅되느니라

조선 송비 감소  
朝鮮에서崇拜하던거시漸々減少하여가고邪神의게獻祭하는事를廢止하는디가種

不信者의 傳道

不信者의 재傳道

三、此方針으로使役할事

목수 우러 이방침  
牧師된 吾儕가 此方針대로 일한다 하나 實狀 闕하지 안코 每日 일하는 者가 稀少하니

개인  
라 個人의 對하야 지나가는 말노 信하라고 하는 廣告的 傳道를 아니하는 牧師가 업스

어부 원  
나 漁父와 又치엇기를 願하는 人의 姓名을 記錄하여 노코 每日 特別히 其人을 爲하야 祈

도 그 친근  
禱하며 其와 親近히 하고 새라 든니 며 엇기까지 不捨하는 牧師가 無多하니 此方針대

교 회 부흥  
로 일하지 아니하면 教會의 復興을 必랄수 업스니 此는 예수씨서 親히 設立하신 바이니

부르  
라 예수씨서 안드레와 요한을 召하시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引導하고 빌립이나 다나엘

인 도 이련 일 면 력  
을 引導하였는 니라 牧師가 此等事를 勉力하야 敎人들도 此等事에 對하야 用力할지

현 금 도 신 교 수 목 수 중  
니 現今 十三道에 있는 宣敎師와 牧師들 中에 더러는 此事에 對하야 等閒히 하는 故로 敎

인 동 한 흥 용 교 회 만 호 신 교 수 목 수 중 후 말  
人들도 等閒히 하야 興旺치 안는 敎會가 多하니라 宣敎師나 牧師 中에 或言하기를 查經

회 인 도 문 담 일 파 처 리 분 주 이 려 일 저 들 이 업 스 전 도 인  
會 引導와 問答하는 事와 治理하는 事에 奔走하야 此等事에는 暇及지 못하즉 傳道人이

평 신 도 맞 당 하 험 이 부 당 말 인 도 자 이 실 을 하 지 아니 교 인  
나 平信徒의 當行할 거시라 하니 此는 不當한 言이라 引導者가 此事를 不爲하면 敎人도

神 學 指 南

히엿엇스나 본교회중 특별 本教會中에 特別히엿고저<sub>사롬</sub>던人은 每會에 來參<sub>덕창</sub>하엿스나 終是<sub>종서</sub>하는 님씨  
 降服<sub>항복</sub>하<sub>장도</sub>지아니하<sub>자</sub>고 講道를 듯기 만하<sub>자</sub>는 者가 되엿더라 該人은 兒時에 甚히 貧寒<sub>민한</sub>하<sub>자</sub>던 者  
 인디 金錢<sub>금전</sub>을 稍聚<sub>초모</sub>하<sub>화서</sub>야 工場 一處를 設置<sub>공장호</sub>하<sub>곳을</sub>설치<sub>치</sub>고 富者<sub>부자</sub>가 되엿느니라 復興會時에 該人이 自  
 服<sub>복</sub>하<sub>부흥회후</sub>지아니함으로 復興會後에 牧師가 該人을 尋訪<sub>무수</sub>次로 該工場에 觀<sub>그사롬</sub>讚<sub>심방</sub>하<sub>초</sub>니 該人이 欣然<sub>그사롬</sub>히  
 迎接<sub>영접</sub>하<sub>은</sub>야 全工場을 縱覽<sub>구경</sub>케 함으로 牧師가 該人을 稱讚<sub>무수</sub>하<sub>그사롬</sub>라든니 觀覽을 幾畢<sub>구경</sub>할 時에 該人  
 의 對<sub>대</sub>하<sub>자물</sub>야 貧寒<sub>빈한</sub>中에서 財物을 모화 各樣으로 잘된 稱讚<sub>칭찬</sub>하<sub>중</sub>다 從容<sub>중용</sub>한 處所에  
 니르러서 是 該人의 改更<sub>그사롬</sub>言<sub>다시말</sub>하<sub>이거사다</sub>기를 「此가 皆好<sub>사롬</sub>하<sub>만일</sub>나人이 萬一<sub>만일</sub>全天下를 잇고도 其生命을 失<sub>그성명</sub>면 何益<sub>일호</sub>이  
 잇스리오」 하엿는디 該人이 暫時<sub>그사롬</sub>間 惡感情을 發<sub>잠시 동안의</sub>하<sub>감정</sub>다가 牧師의 懇切<sub>무수</sub>한 言을 보고 其心이 實  
 變<sub>변</sub>하<sub>중용</sub>야 하느 님씨 降服<sub>항복</sub>하<sub>중용</sub>고 牧師와 함씨 從容<sub>중용</sub>한 구석에서 俯伏<sub>물어</sub>하<sub>엿</sub>야 痛淚<sub>통회의</sub>를 흘니며 祈禱<sub>기도</sub>  
 하엿다 하엿스니 此等事는 何如<sub>이런 일</sub>한 牧師던 지 能爲<sub>무수</sub>할 거신디 此方針으로 教人을 復興케  
 하<sub>공례회회</sub>면 公禮拜會보다 其益이 倍蓰<sub>그유익</sub>하<sub>비나</sub>니라

不信者의 傳道

을畢<sup>다</sup>하였다고할수업<sup>다</sup>니라各樣傳道方針中에此方針이第一<sup>第一</sup>만히結實케하는거시

니牧師된者가萬一此方針대로一年間用力<sup>일년 동안 힘써</sup>하야一人이라도得지못하면其過失은他<sup>그 허물</sup>

인<sup>인</sup>의개있는거시아니오自己의개있는거시니牧師가懈怠<sup>무소 게을르</sup>하던지信仰이不足<sup>부족</sup>하던지

資格이不足<sup>부족</sup>한理由<sup>이유</sup>니라석<sup>석</sup>만博士의言이그般<sup>일반</sup>信者가宜當<sup>적당</sup>히異蹟을行하는者가될거시니라

엇스니牧師는더욱異蹟을行하는者가되여야할거시라

個人의개傳道할時에操心<sup>조심</sup>하야할지니라人을逢着<sup>만나</sup>하는대로마교傳道할거시아니

오魚를釣<sup>고기</sup>하듯할거시라魚을釣코져할時에其種類와性質을보아서此處彼處로츠즈

든니<sup>자음은</sup>나釣人<sup>어부</sup>하는漁父가될時에도그와又<sup>형</sup>치行할거시니라個人傳道方針中에最要

點은人과親睦<sup>친목</sup>하는거시오洞內各人을爲<sup>위</sup>하야隱密히該姓名을舉<sup>올</sup>하야祈禱<sup>기도</sup>할거시며

牧師가該人과情熟<sup>정숙</sup>하게親近<sup>친근</sup>하야何事에던지助力<sup>조력</sup>하야喜悅케<sup>기뻐</sup>하면서言<sup>말</sup>할機會를

待<sup>기대</sup>할거시오自然<sup>자연</sup>히言<sup>말</sup>할天然<sup>자연</sup>的機會가싱기거든勉力<sup>힘써</sup>하야言<sup>말</sup>하는거시可<sup>가</sup>하니라

古談<sup>이야기</sup>하나히있는디何許<sup>엇던</sup>牧師가一朔間本教會에서復興會를 열고每日新入者를만

오르락나리락함으로聽者가 맞치夏日溪邊에坐하야水聲을探聽하는것과又치牧師

의聲調만듯고言하는바理致는別노히思지아니하는니牧師가繼續하야그대로講道

하면其敎會를復興케할수업슬지니操心하야語韻分辨하는弊習을브리고人類의生

死에關係되는危急形便을醒悟할거시며禮貌에對한念慮는브리고同胞로自己와

又치生活하도록懇曲히說明하면委任牧師도復興講道者와又치도흔結果를볼수있

는니라

牧師가如斯히本敎會를復興식히기爲하야用力하야여볼거시오事若不成할지라도

他處에서他人을請邀할거시아니오他方針으로할지니라

二、個人을復興케하는事

今年에平壤、京城、大邱、光州에서석만博士가此方針에對하야敎授하였는니라

何如하牧師를勿論하고此方針대로못한다코할수업는니라牧師가自己洞里나區域

內에있는人들을一々히尋訪하야親睦하고勸勉하는디니르지아니하면牧師의職分

不信者의 傳道



케하도록하면此는特別능력이니此等能力이 있는者는別恩賜를 받은者니라然하

나講道하야他人을復與케하던지不信者를信케하는디對하야嫺熟하게言하는것만

능력있는言이아니라雖言語는未熟하야完全치못할지라도講道者의心에理致가充

滿하코炭火又흔熱心으로言하던歡心으로聽受하야感動될거시니라復興講道하는

牧師의게第一必要한거슨嫺熟하게言하는거시야니오本靈魂이本講道를因하야드

겁게되는거시니라

何許少年蕩子가엇던牧師의게言하기를「我が當身又흔講道人の言을前에未聞하였노라當

身이講道할時我的靈魂을愛하기를我的母親이我的靈魂을愛하듯하니我가悔改하던지此禮拜堂에돈니기를

廢止하던지喜일이라」고하였다하니然則地獄에沈淪하는人을拯出할熱情으로言하는

거시第一必要한거시니라牧師된者의恒茶飯失手하는거슨無他라敎友들의恒用하

는例言을使用치아니하고談話하듯하지도아니하며但規則에依하야禮貌를치리노

라고셋々하코異常한貌樣으로言하는거시라又牧師의講道하는音聲에曲調가있서

何許牧師는 自言하기를 我는 復興會를 도모지 引導할 수가 없다 하나 吾儕는 答하기를 何由로 若此히 自認하는 고하노니 人의 願이나 習性으로 認定하는 것은 滿足을 證據

가 아니니라 하는 넘쳐서 예리미아, 이사야, 요나와 其他先知者를 불넷을 時에 無非不 堪을 줄노 自認하고 辭讓하엿스며 모세, 엘니아, 루터, 무디 등 諸先生도 亦然하엿는

니라

人若 預先 研究하고 用力 練習하며 能力을 受할 만흔 價를 年後에야 能力을 得할 수 있

는 지 업는 지 判斷할 거시니 眞實한 信者의 게는 能치 못흔 事가 업는 디 骨髓까지 悔改하

고 還償하는 價와 長時間 祈禱하는 價와 自服하는 價와 聖經 研究하는 此等 價를 다 내지

아니 하엿스면 該事를 不能爲라고 推諉할 수 업는 니라 價는 太高하나 結果는 極好하니

各其 勉力하는 거시 合當하니라

一、公禮拜會에 復興케 하는 事

公禮拜會席에서 嫻熟하게 說明하야 聽者의 心을 開導하며 感動시키 何事던지 作爲

不信者의 傳道

# 不信者の게傳道

(불신자의게전도)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譯述

朝鮮教會界에 稍々發生하는 一種弊習이 있는디 此를 微防漸杜치 아니하면 不可호  
조전교회계 점々발생 호가지폐습 이 저을때에막지

니 所謂 弊란 거슨 何인고 教役의 重任을 받은 牧師들이 自思하기를 自己 教會에서 復興  
닐은바예 무엇 교역 중임 무스 스스로성자 자의교회 부흥

傳道코져 할 時에 自執 引導하는 거슨 無益호고 遠地 他處에서 復興 傳道에 有力호 牧師  
전도 립시 청요 스스로맛하인도 면짜라쳐 부흥전도 유력 무스

를 臨時로 請邀호야 適當호출노 認定호는 거시 如何호 教役者는 果然 復興 傳道호  
림시 청요 면당 인당 엇디 교역자 과연 부흥전도

는 方法을 善解호야 特別히 有力호 게 引導호는 者가 잇스나 幾個人에 不過호 즉 此等 教  
방법 잘알 아특별 유력 인드 자 몇 사람 지나지못 이련교

役者의 巡迴周到만 屹待호면 該 教會는 大害를 當호고 萬事가 瓦解호 것 豈이 나라 教役  
역자 순회주도 기대리 그교회 큰회 당 만수 와히 교역

者가 能力에 對호야 自疑心이 太過호야 此等事는 莫可爲로 自判호고 拋棄호니 其爲 失  
자 능력 더 자의심 마장과 이련일은 못할줄 스스로판단 날리 그실화

錯이 莫過於 此니라 昔日 猶대 人이 불네셋人을 探視호고 言호기를 「吾儕가 彼人所視에 蝗  
홍 이만과홍이업는 옛적 인 정탐호여보 말 우리 더회보기 황

虫과 如호다」고 호였스니 猶대 族이 果然 蝗虫과 如히 殘弱호야 其敵을 抵當키 難호나 保  
충 又 족속 과연황충 又치관약 그더덕 더당 어력오 보

護호시는 全能호신하는 님을 依恃호였스면 不能호 事가 업슬 辨호였는 나라  
호 전능 의저 능저못 일의

神 學 指 南

醒세여잇서야 주주를迎接영접하랴고預備예비할時시期기가아닌가(마廿四〇四十二一四、廿五〇一一十三)  
 聖經성경에記錄기록하바와又그次지其再臨시일의時日가을可미히預知리할수업스나(마廿四〇卅七一九、막  
 十三〇卅二、눅十七〇廿四一卅)然그이나醒在세여잇할거시라또吾儕우의企望기대하느바再臨約束리  
 이有내四회하니

(1) 主주되셔萬王만왕의王왕으로계셔其門徒그문도와與더부러之同榮영화를하실거시오(마十九〇廿八)  
 (2) 自己자의選民선민을召集소집하심에地方지방을限한하지아니하실거시오(마廿四〇卅、卅二、막十

三〇廿六、七)

(3) 其日그날에萬民만민을區別구별하셔賞상과罰벌을行행하실거시라(마廿五〇卅一、二)  
 (4) 此日이날後후에는사단을火坑불구덩에投던져야永기히誘惑유혹을絶無문케하실줄知아하노라(막廿〇十)

三支、예수께서世上을勝하심

주예수께서軟弱하<sup>연약 우리신자 위</sup>吾信者를爲하<sup>모든군축</sup>야諸般窘逐과試驗과神靈的仇敵을盡皆勝捷하<sup>다 승첩</sup>섯

스니(요十六〇卅三)卽此世에言할수업<sup>말리암아 모든 화전</sup>는惡魔의風習과逼迫과自己의肉體々지니

라今日이라도此勝力으로由하<sup>말리암아 모든 화전</sup>야諸般火箭을撲滅하고能히搖動치안코信仰에強硬

히立脚할수있게되엿다하노라(고후一〇十四)然나能力이多하<sup>그리 능력 만호 주</sup>신主께서도四十

日間禁食하<sup>일간금식 후</sup>신後에聖經말씀으로勝利를보시고갓세마네園裡에서血汗을流하<sup>출나</sup>며祈

禱하<sup>도</sup>심으로勝捷하<sup>승첩</sup>섯거든况吾儕가聖經을信用하<sup>함은여우리 성경 신용</sup>고하<sup>기도 의지 필요</sup>는님의祈禱로依할必要가있

지아니하겟는요

四支、예수께서世上에再臨하실거시라

大蓋예수의再臨하<sup>대개 저림</sup>실일은모든聖經에預指하<sup>성경 미리마르친 증거</sup>證據가分明호<sup>분명</sup>中特別히馬太福音廿四

〇과默示錄十九〇二十〇에確實히될預言이多數히記載되어時期가漸近하<sup>무시록 화실 예언 다수 적지 시의 접근</sup>여가는

比較的兆證이聖經과正히合符되<sup>비교적 조중 성경 정 합부 승합 만</sup>는應驗이多하<sup>그런즉</sup>여진다하겟도다然則우리信者들은은

神 學 指 南

諾<sup>약</sup>하신거슬應<sup>응</sup>驗<sup>험</sup>되게못<sup>못</sup>하엿슬거시오諸<sup>모든</sup>先<sup>선</sup>知<sup>지</sup>의預<sup>예</sup>言<sup>언</sup>을能<sup>능</sup>成<sup>성</sup>치못<sup>못</sup>하엿슬거시며世<sup>세</sup>人<sup>인</sup>

의罪<sup>죄</sup>惡<sup>악</sup>을贖<sup>속</sup>할수도업<sup>업</sup>섯슬거시오能<sup>능</sup>히하<sup>하</sup>는<sup>는</sup>尼<sup>니</sup>과人<sup>인</sup>으로復<sup>복</sup>和<sup>화</sup>케하<sup>하</sup>지못<sup>못</sup>하엿슬거시라

(고후五〇十九)主<sup>주</sup>의十<sup>십</sup>字<sup>자</sup>架<sup>가</sup>寶<sup>보</sup>血<sup>혈</sup>의實<sup>실</sup>力<sup>력</sup>이吾<sup>우</sup>儕<sup>리</sup>로嚴<sup>엄</sup>한律<sup>률</sup>法<sup>법</sup>咀<sup>주</sup>呪<sup>呪</sup>를脫<sup>탈</sup>出<sup>출</sup>케하<sup>하</sup>엿고(갈

三〇十三)遠<sup>멀</sup>離<sup>니</sup>하<sup>하</sup>엿던吾<sup>우</sup>儕<sup>리</sup>를天<sup>천</sup>父<sup>부</sup>의親<sup>친</sup>近<sup>근</sup>케하<sup>하</sup>엿고(엡一〇十三一十五)不<sup>불</sup>義<sup>의</sup>한者<sup>자</sup>를義

롭게하<sup>하</sup>엿스며永<sup>영</sup>生<sup>성</sup>의基<sup>기</sup>業<sup>업</sup>을受<sup>수</sup>케하<sup>하</sup>엿는<sup>는</sup>니라(로五〇十八, 갈四〇四一七)萬<sup>만</sup>一<sup>일</sup>예수씨

서埋<sup>의</sup>葬<sup>장</sup>할을當<sup>당</sup>하<sup>하</sup>지아니하<sup>하</sup>엿든들繁<sup>번</sup>盛<sup>성</sup>한結<sup>결</sup>實<sup>실</sup>이發<sup>발</sup>生<sup>생</sup>치못<sup>못</sup>하엿슬거시오(요十二〇

廿四)若<sup>만</sup>以<sup>약</sup>예수씨서復<sup>부</sup>活<sup>활</sup>하<sup>하</sup>지못<sup>못</sup>하엿든들信<sup>신</sup>者<sup>자</sup>들이依<sup>의</sup>然<sup>연</sup>히罪<sup>죄</sup>惡<sup>악</sup>中<sup>중</sup>에잇섯

슬거시오(고전十五〇十七)亦<sup>또</sup>重<sup>중</sup>生<sup>생</sup>과永<sup>영</sup>生<sup>성</sup>의所<sup>소</sup>望<sup>망</sup>이업<sup>업</sup>섯슬거시라(벧전一〇三, 四)若

예수씨서升<sup>승</sup>天<sup>천</sup>하<sup>하</sup>지아니하<sup>하</sup>엿섯다면保<sup>보</sup>惠<sup>혜</sup>師<sup>사</sup>가來<sup>來</sup>臨<sup>림</sup>치아니하<sup>하</sup>섯슬거시오(요十六〇七)

吾<sup>우</sup>儕<sup>리</sup>의將<sup>장</sup>來<sup>래</sup>居<sup>거</sup>所<sup>소</sup>가預<sup>예</sup>備<sup>비</sup>되<sup>되</sup>지못<sup>못</sup>하엿슬거시오(요十四〇二)信<sup>신</sup>者<sup>자</sup>의求<sup>구</sup>는<sup>는</sup>바祈<sup>기</sup>禱<sup>도</sup>가

成<sup>성</sup>就<sup>취</sup>될수도업<sup>업</sup>고(요十四〇十二, 三)能<sup>능</sup>히魔<sup>마</sup>를足<sup>발</sup>下<sup>아</sup>에厭<sup>압</sup>伏<sup>부</sup>케할수가업<sup>업</sup>섯스리라(마廿

二〇四十四)故<sup>고</sup>로主<sup>주</sup>씨서中<sup>중</sup>保<sup>보</sup>와大<sup>대</sup>祭<sup>제</sup>司<sup>사</sup>長<sup>장</sup>이되신거시라(히七〇廿一, 二)

四〇十六一廿二、廿一〇七十、七十一) 주역서 異蹟을 行할 時에 邪鬼도 證據하고 使徒

도 亦 證據였는니라 (눅四〇四十一、九〇二十) 주역서 十字架에 被釘할 時에 強盜

와 兵丁과 百夫長도 證明하였스며 (눅廿三〇四十二一七) 嘗모세의 다윗왕이 證言하였

고(히三〇廿二、시七十二편) 古代 삼우엘以來로 諸先知가 皆預此日을 言하였는니(히

三〇廿四) 此日은 卽에 수역서 尊榮을 捨하시고 塵凡에 下하시 罪人을 救贖하시려고 來

臨하시 吾儕의 福된 日이라 故로 今古 世界萬國의 盛大호 紀念日이 된거시 然則天

下人間에 此救主外에는 別로 他名으로 得救할 수 업는 거시라 (히四〇十二)

二支, 예수역서 世上을 救援하심

吾儕 信仰하는 救援의 道理에 最要한 事는 主에 수그리스도역서 捐軀流血하시고 墓에

葬하시 三日만에 復活하시 四十日後에 升天하신 것과 祈禱와 傳道와 使徒를 選擇하심

과 衆病을 蘇完케 하시며 邪鬼를 逐하시고 奇能과 異蹟을 行하신 거시니 設使에 수역서

血을 流치 아니하셨는들 能히 하는 님의 恩義를 昭彰케 할 수 업섯슬 거시오 하는 님의 許

시니蓋<sup>대개</sup> 예수升<sup>승</sup>天<sup>천</sup> 후 오旬節<sup>후 오순절</sup>에 聖神<sup>성신</sup>이 降臨<sup>강림</sup>하시 (히 1-14) 今日<sup>오늘날</sup>까지 來<sup>來</sup>함으로 人<sup>사람</sup>의 心<sup>마음</sup>을 感應<sup>감응</sup>하시야 罪<sup>죄</sup>를 알 고 예수 를 自己<sup>자기</sup>로 堅確<sup>튼튼</sup>히 信仰<sup>신앙</sup>하시며 漸々<sup>점점</sup>至善<sup>지선</sup>한 聖潔<sup>성결</sup>의 域<sup>영역</sup>으로 日濟<sup>날로</sup>하시야 完全<sup>완전</sup>한 救援<sup>구원</sup>을 成就<sup>성취</sup>케 하시니라

### 三題 世와 關한 예수

一 支<sup>지</sup> 예수께서 世<sup>세상</sup>上<sup>상</sup>에 降臨<sup>강림</sup>하신심

大抵<sup>대여</sup>四福音<sup>부음</sup>中<sup>중</sup>에 惟<sup>오직</sup>누가 福音<sup>부음</sup>에 예수 降世<sup>강세</sup>하신 事蹟<sup>사적</sup>이 特詳<sup>특별</sup>하시니 主<sup>주</sup>의 母親<sup>모친</sup> 마리아가 受<sup>수</sup>

胎<sup>태</sup>하기 前<sup>전</sup>부터 예수 誕生<sup>탄생</sup>하시는 日<sup>날</sup>까지 天使<sup>천사</sup>가 數次<sup>수차</sup>에 수가 하는 님<sup>은</sup>의 子<sup>자</sup>로 救世<sup>구세</sup>主<sup>주</sup>되심

을 證明<sup>증명</sup>하였고 (눅 1-8, 卅, 卅五, 1-14) 當<sup>당</sup>時<sup>시</sup>에 野處<sup>문외</sup>하던 牧者<sup>목자</sup>들 도 確證<sup>확증</sup>하였

스며 (눅 2-15) 其<sup>그</sup>後<sup>후</sup>에 義<sup>의</sup>롭고 誠實<sup>성실</sup>한 사<sup>사</sup>머온 이 證明<sup>증명</sup>한 것 (눅 2-16) 卅一 卅二) 과

女<sup>녀</sup>先知<sup>선지</sup> 안나 의 證言<sup>증거</sup>과 (눅 1-16) 洗禮<sup>세례</sup> 요한 의 證據<sup>증거</sup>와 (눅 3-16) 主<sup>주</sup>受洗<sup>세례</sup>時<sup>때</sup>에

하 는 님<sup>은</sup>의 證明<sup>증명</sup>한 심과 (눅 3-16) 福音<sup>부음</sup>을 傳播<sup>전파</sup>한 심 때 에 예수 親<sup>친</sup>히 證據<sup>증거</sup>한 신 것과 (눅



神學指南

祖亞담을爲하야皮衣를衣게하셨고(창三〇廿一)

其後아벨이首生羔를奉獻하셨으며(창四〇四)

노아도方舟에下하면서壇을築하고祭를獻하셨으며(창八〇廿)其後에도逾越節羊

의血을塗한것과(출十二〇廿一八)及各種祭禮에血을灑하는거시皆此將來에主에

수익서贖罪하실거시를表明한거시라

예수익셔도當時門生들을對하야流血代贖之道를講演하셨고(마廿〇十八九)막九

〇卅一, 卅廿二〇十九, 廿, 廿四〇四十六, 七, 卅三〇四十四, 卅一)

諸先知의使徒들이亦多證明하셨스니예수그리스도의寶血外에는罪들贖하고赦罪

함을被하야得救할方法이都無하니라

三支, 聖神의感化하시노道

然나如許할救援의道로立하신救主를受信케하시노이는聖靈이시니不可不聖神

의感化權下에서人이自己의罪惡을覺悟하고重生의恩賜를受하야日新하여지는거

(一〇廿一)

마가書에曰人子가地面에서赦罪하는權이있다(二〇十)

누가書에曰吾儕를爲하야拯救하는角을舉起하셨다(一〇六十九)

요한書에曰世人的諸罪를負往하는하는님의羔羊을觀하라(一〇六十九)

値는死亡이아니故로

로六〇廿三에曰罪價는死亡이오惟하느님의恩賜는永生이라(一〇六十九)

亦罪에陷溺하엿슴이라故로世人을其罪에서救援하시라면不得不一贖罪하는方法

을設立하실수밖과업는니라

二支、聖子에수의代贖의道

然則贖罪의方法은요一〇十四言슴과又처道가(原文대로言)人身을成하지아니하

고는到底히될수업는거시오히九〇二十二말슴과又치「血을流함이無한즉赦宥함도업다」하

엿스니其聖羔의寶血이아니면不能할지라故로早已預證이多有하엿스니最初에始

多<sup>한</sup>나<sup>본지남</sup>本指南을<sup>열람</sup>閱覽하시<sup>계서</sup>는諸氏는<sup>여우</sup>如右를<sup>해석</sup>解釋을<sup>정확</sup>正確히<sup>타치</sup>致受<sup>맞아</sup>하여야<sup>성자지</sup>될<sup>다만명목소</sup>출<sup>히</sup>思<sup>히</sup>치<sup>히</sup>마<sup>히</sup>시<sup>히</sup>고<sup>히</sup>但<sup>히</sup>丁<sup>히</sup>牧師의<sup>히</sup>解<sup>히</sup>釋<sup>히</sup>을<sup>히</sup>인<sup>히</sup>줄<sup>히</sup>노<sup>히</sup>만<sup>히</sup>아<sup>히</sup>시<sup>히</sup>기를<sup>히</sup>希<sup>히</sup>望<sup>히</sup>하<sup>히</sup>옵<sup>히</sup>는<sup>히</sup>이<sup>히</sup>다

釋<sup>히</sup>言<sup>히</sup>인<sup>히</sup>줄<sup>히</sup>노<sup>히</sup>만<sup>히</sup>아<sup>히</sup>시<sup>히</sup>기를<sup>히</sup>希<sup>히</sup>望<sup>히</sup>하<sup>히</sup>옵<sup>히</sup>는<sup>히</sup>이<sup>히</sup>다

編<sup>히</sup>輯<sup>히</sup>人<sup>히</sup>」

# 聖經報講臺中摘要

(성경보강대중덕요)

車 相 晋 牧師 譯述

## 一題 四福音에關한三位一體

一<sup>支</sup>支<sup>성부</sup>聖父하<sup>님</sup>는<sup>구인</sup>님의<sup>도</sup>救<sup>도</sup>人<sup>도</sup>의<sup>도</sup>道

粵<sup>최초</sup>自<sup>로</sup>最<sup>브</sup>初<sup>리</sup>에<sup>죄악</sup>罪惡이<sup>세상</sup>世<sup>상</sup>上<sup>에</sup>에<sup>드러</sup>入<sup>을</sup>實<sup>재</sup>際<sup>하</sup>는<sup>구원</sup>님의<sup>도</sup>救<sup>도</sup>援<sup>도</sup>하<sup>실</sup>道<sup>가</sup>가<sup>발</sup>早<sup>서</sup>已<sup>고</sup>其<sup>뜻</sup>端<sup>을</sup>倪<sup>를</sup>를<sup>나</sup>顯<sup>라</sup>現<sup>되</sup>하<sup>이</sup>섯

스<sup>니</sup>此<sup>이</sup>는<sup>뜻</sup>即<sup>차</sup>창<sup>조</sup>三<sup>십</sup>〇<sup>五</sup>의<sup>약</sup>約<sup>속</sup>束<sup>하</sup>신<sup>거</sup>거<sup>지</sup>오<sup>사</sup>五<sup>십</sup>二<sup>〇</sup>에<sup>말</sup>言<sup>하</sup>기<sup>를</sup>를<sup>주</sup>主<sup>이</sup>씩<sup>서</sup>我<sup>의</sup>의<sup>죄</sup>罪<sup>와</sup>와

愆<sup>으로</sup>으로<sup>담</sup>身<sup>당</sup>에<sup>담</sup>擔<sup>당</sup>當<sup>하</sup>섯<sup>다</sup>하<sup>엇</sup>스<sup>니</sup>此<sup>이</sup>乃<sup>가</sup>願<sup>하</sup>시<sup>던</sup>救<sup>원</sup>援<sup>의</sup>의<sup>도</sup>道<sup>를</sup>를<sup>둘</sup>第<sup>재</sup>二<sup>위</sup>位<sup>로</sup>되<sup>신</sup>聖<sup>조</sup>子<sup>의</sup>의

身<sup>상</sup>上<sup>에</sup>에<sup>맡</sup>任<sup>게</sup>行<sup>케</sup>하<sup>심</sup>이<sup>라</sup>故<sup>로</sup>로<sup>마</sup>태<sup>서</sup>書<sup>에</sup>에<sup>말</sup>曰<sup>彼</sup>彼<sup>가</sup>其<sup>민</sup>民<sup>을</sup>을<sup>罪</sup>罪<sup>에</sup>에<sup>서</sup>救<sup>원</sup>援<sup>하</sup>시<sup>리</sup>라<sup>하</sup>섯<sup>고</sup>

리스도의國이 되어世々에王노릇하시리로다하니二十四長老가俯伏하야하는님씩

敬拜하며曰感謝하옵는니昔에도在하시고今에도在하신全能하신하는님이여親히

大權能을잡으샤王노릇하시도다異邦들이忿怒하매主의震怒하심이世上에臨하야

死者를審判하실時요僕先知者들과諸聖徒와도無論大少하고主의名을恭敬하는者

의賞給하실時요또世上을亡하게하는者들을滅亡시키실時로소이다하더라하엿

스니此는魔鬼가權勢를執함이已久하다가一次末期가至하매主예수씨셔다시管轄

케됨으로新世界를成하야甘泉이湧出함과又함을表明하시라然함으로當時에하

느님의聖殿이天에서開하코하는님의法櫃가現하며또電과音聲과雷聲과地震과大

電이있더라하엿스니此는無非審判의完結함을表明함이라

以上에論하바는곳默示錄全書上半의結末이오十二章으로始하여는下半이되는

니此는大罪者를審判하는事를更論하겠노라

「注 默示錄을解釋하는事는極히難한거시오니各解釋家가皆各異言을하기쉽고且各々相反되는論說이

十 말廿四〇十五 말에 말言 말하 말바 말와 말又 말치 말其 말時 말期 말에 말至 말하 말여 말는 말聖 말殿 말이 말必 말然 말코 말應 말驗 말이 말되 말리 말라

所 말謂 말四 말十 말二 말個 말月 말과 말一 말千 말二 말百 말六 말十 말日 말이 말란 말者 말는 말合 말하 말야 말末 말期 말의 말七 말年 말이 말니 말上 말三 말年 말半

과 말下 말三 말年 말半 말에 말分 말하 말야 말上 말半 말期 말는 말審 말判 말하 말고 말下 말半 말期 말는 말더 말욱 말이 말緊 말要 말하 말니 말若 말如 말斯 말하

時 말期 말가 말至 말하 말면 말罪 말惡 말의 말魁 말首 말가 말出 말하 말거 말시 말오 말然 말이 말나 말예 말수 말를 말爲 말하 말야 말證 말據 말를 말짓 말는 말者 말도 말있 말을

거 말시 말니 말二 말橄 말欖 말樹 말와 말二 말燈 말臺 말는 말聖 말靈 말의 말能 말力 말이 말있 말는 말뜻 말이 말니 말一 말은 말能 말히 말하 말늘 말노 말하 말여 말靄 말雨 말가

降 말하 말지 말못 말하 말거 말기 말를 말以 말前 말에 말엘 말니 말아 말와 말又 말치 말하 말고 말一 말은 말能 말히 말水 말로 말變 말하 말야 말血 말이 말되 말게 말하 말기

를 말以 말前 말모 말세 말와 말又 말치 말하 말거 말시 말라 말예 말수 말當 말時 말에 말도 말變 말化 말山 말에 말서 말일 말즉 말이 말모 말세 말와 말엘 말니 말아 말가 말主 말에

수 말로 말더 말브 말러 말談 말論 말하 말고 말이 말잇 말섯 말니 말라 말此 말二 말證 말人 말이 말雖 말如 말斯 말하 말大 말能 말이 말잇 말스 말나 말三 말年 말半 말後 말에 말至

하 말여 말서 말는 말敵 말그 말리 말스 말도 말의 말게 말被 말殺 말하 말바 말되 말엿 말다 말가 말後 말에 말如 말前 말히 말復 말活 말하 말야 말升 말天 말하 말리 말니 말其 말時

世 말界 말에 말最 말大 말하 말災 말難 말이 말至 말하 말야 말地 말가 말크 말게 말震 말動 말하 말고 말城 말十 말分 말之 말一 말이 말崩 말壞 말하 말리 말니 말此 말가 말第 말三

禍 말니 말前 말보 말다 말尤 말極 말甚 말하 말리 말라

其 말時 말에 말第 말七 말天 말使 말가 말囉 말叭 말을 말부 말니 말天 말으 말로 말서 말大 말聲 말들 말이 말잇 말서 말曰 말世 말上 말諸 말國 말이 말吾 말主 말와 말其 말그

南 指 學 神

리스도가 아니면 決斷코能히 世界의 全權을 잡지 못하리라

其手에 執한 文書內에 七雷가 잇서 聲을 發하거늘 요한이 그 거슬 記錄하고 저호즉天

에서 聲이 有하야 言하거늘 記錄지 말나 하엿다 하엿스니 大概七雷는 本書十六〇에

잇는 七大鏢의 光景과 서로 혼지라 요한이 또 보니 海와 地를 履立호호 天使가 글으되 餘

時가 업스리라 하니 第七天使가 其囉叭을 불게 될時에 하는 님의 奧妙함이 반다시 成就

하리니 此는 其僕 여러 先知者의 現호신 福音과 又호리라 하며 또 天使가 요한을 命하

야 其小卷을 食하라 하기로 持하여다가 食하니 口에는 蜜又치 달되 食後에 腹에서 는 쓰

더라 하엿스니 此는 時期가 速히 至함으로 審判의 事를 能히 免치 못하거늘 不得不 念慮

함이라

本書十一〇에는 審判에 關호 二證據者를 提出호거시니 大概 默示錄을 研究함에 對

하야 萬一其全書에 明白지 못하면 엇지 能히 其時期가 相同호고 情形이 相同치아 님을

알나 오該審判의 時期가 至호면 尤대 國聖殿이 반다시 汚穢함을 受호거시니 단十二〇

먹다가 遺흔흔거시잇스니 完全완전히 消滅소멸하는 權能권능이 업는 줄 알수잇는니라 大概대개主주씨셔 臨림

하샤 大審判대심판을 行행하실 時세에 반다시 이 런 惡靈악령의 類류가 잇셔 人生인생으로 하여 五個月다섯달 間동안 苦고

痛통케 하리라 五數다섯수를 查考사고하면 恩典은연의 數수요 또 長久장구치 못할 義의가 包含포함하엿스나 그러나

彼惡靈악령도 首領수령이 잇스니 其名그이름은 아바돈이라 (能능히 人사람을 害해한다는 뜻) 此이가 第一첫째의 禍화

니라

第六여섯째 天使천사가 囉叭라발을 부니 已往이왕 結縛결박되엿던 四네 天使천사가 放釋방석되엿는디 彼等대회가이 世人세상사람 三분

之一중이을 殺죽이하더라 하엿스니 世人세상사람이 如斯이와한 災難재난을 受맞음은 如前전회히 悔改회개치 아니함이니 昔옛

日날애 古王왕바로의 惡악함과 無異무이함이다

本書본서 十章장에 요한이 또 보니 크게 有力유력한 他다른 天使천사가 天하늘에서 降나하야 雲구름을 被덮고 其首그머리에

靑무지가 잇스며 其容貌그얼굴은는 太陽해와 같고 其足그발은 火柱불기둥과 같더라 하엿스니 此이는 救主구주에 수의 降장

臨림하심을 表明표명하더라 其右足그을른발은 海바다를 밟고 左足왼발은 地땅를 밟았다 하엿스니 世界세계가 全般완전其

手수中중에 歸도라함이라 世界세계를 審判심판하시니 奇異괴이한 事일과 異常이상한 形像형상이 顯出나함이라 主주에 수그

手中에 歸함이라 世界를 審判하시니 奇異한 事와 異常한 形像이 顯出함이라 主에 수그

神 學 指 南

第廿一〇廿五을보면日月星辰에異常이상徵兆가잇스리라이호였스니此는곳主주석서  
 大審判의臨림兆朕을謂謂호심이라然그함으로本書八〇十三에닐녓스티아적도三天使  
 의불囉叭聲이남앗스니其囉叭聲으로因인호야地에居호는者의게禍가잇도다禍가잇  
 도다禍가잇도다호였느니라

第五天使가囉叭을부니天에서地에隕호二星이잇는디彼가無底坑의鑰을가져無

底坑의穴을열더라호였스니此는사단이空中에서權勢를잡아恒常하느님前에서世

人을讒訴함을表明함이라六〇十二음一〇六默十二〇十을參考호지니大抵審判

時期가至호면敎會는升天호고魔鬼는落下호지라然故로하느님석서魔鬼로호여곰

任意로妄倭되히行케호샤無底坑의穴을여니其中에서烟氣가나오는디大治의烟氣

와호호야日과空氣를暗黑케호더라호였스니蓋出호바黑烟은곳惡靈이라彼가世界

를擾亂케함이蝗虫과蛇蝎호고요엘二〇四을보면本章七節과호은言이니其蝗虫의

貌樣은미역이와호고消滅호는能力도미역이와호호나요엘一〇四을보면미역이는

默示錄의大概



표명  
表明함이라

셋째 연수 라 별  
第三天使가 囉叭을 부니 大星이 炬火를 켜고  
天에서 落하야 江三分一과 諸水

의 泉에 覆하니 此星의 名은 艾라 水가 變하야 苦케 되여 飲者가 만히 죽는다 하엿스니 大

抵水는 恒常道理에 比할 거시오 또 宗敎에 比할 수 잇스니 萬一魔鬼가 被逐하야 世界

에 나려 오면 宗敎가 其害毒을 넘어 苦水와 又 出지라 主 예수의 生命水外에는 人을 養하

는 法水가 업는 니라

넷째 연수 라 별  
第四天使가 囉叭을 부니 日月星辰 三分之一이 打함을 넘어 暗하여 지니 晝夜 三分之

一은 光이 업더라 하엿스니 本來太陽은 世界의 光이라 如斯히 主 예수의 眞理도 世界에

光이 되고 信徒들도 또 世界의 光이라 稱하느니 萬一 信徒들이 예수를 離하면 반다시

變하야 暗黑함이 되리니 此는 教會가 主의 道를 離하야 暗黑하디로 陷入을 表明함

이라 但如斯하 譬喩만 잇슬 뿐 아니라 末期가 至하면 實狀如斯하 恠事와 異像이 잇스리

니 本書六〇十二三에 早已如斯하 光景을 말하엿느니라

니엘의 말하마 最末의 七年이라 할 것 과 열마 似하니 余는 敢히 斷定치 못하거니와 但 聖

經에 記錄호 마 日時가 非常히 奧妙하니라 半時는 七年이라 고 말호 者도 甚히 漫호니라

本書 八〇二,五을 본즉 七天使가 있셔 囉叭을 持호고 吹기前에 他天使가 香爐를 가지

고 祭壇上에 잇는 火를 盛호야 地에 突호매 雷聲과 音聲과 電光과 地震이 나더라 호엿스

니 此는 皆 審判을 表明함이니라

又 本章 六十三 止 본즉 第一天使가 囉叭을 부니 血이 交雜호 靄과 火가 生호야 地에

落下호매 地와 樹木 三分之一과 各種 草가 墫다 호엿스니 靑草는 곳곳人을 比호거시

니 벧전 一〇廿四을 參考호지 어다 出九〇廿三을 보면 巴로 王이 曾往如此호 災難을 受호

엿느니라

第二天使가 囉叭을 부니 火焚호는 巨山을 海에 投호는 것호 又호매 海 三分之一이 變호

야 血이 되고 海中에 生物 三分之一이 死호며 舟가 三分之一이 破傷호엿스니 巨山은 곳

世界의 權柄을 表明함이라 或者는 魔鬼의 權柄이라고 도 호는디 此는 皆 敗亡호는 뜻스

形容하기難하리라(마廿四〇四十五、六)

第四論說 世界末日審判時

주의日에審判하는事는第三論說에임의말하였거니와本書六〇에말한바와又次

審判의時期가곳末日에잇슴을左에論코져하노라예수씨저임의第七印을떼시때天

이半時間寂寥하다하였스니此言이甚히奧妙하야實義를知치못할지라何許學者가

聖經에記錄하바時를研究하야特別히敎示함이잇스니一日를千年으로하고千年도

可히一日노함이니民十四〇卅四을보면一日의罪를一年의罰로計數하고또겔四〇

六에一日을一年으로計算하는法이잇스니如斯히一年을合計하면三百六十日이陰

曆대로滿一年이되니若一日로一年을하면可히三百六十年으로計算할지라一日이

므릇二十四時間(小時點鐘)이니年대로計算하면每時間은(廿四分之一)곳十五日

(半朔)인디半時가엇지七日半이아니냐또二次로一日을一年으로하면七日半은七

年半이라고할수잇느니라半時를이러케計算하면또近七年이나되느니先知者단

이 비록 엄嚴하나 나중終末에는 호구역一區域을 잇어 괴업基業을 삼을 지니라

既往大患難을 過호 後에 各國의 救援을 얻은 者가 多호 되有 名無實호 信徒又 혼거스 其

時에 能히 教會와 함씨 上升호야 大患難을 免치 못호되 但此 經歷으로 由호야 警醒함을

얻어 眞誠으로 主를 信호면 可히 救援을 얻으리 라 雖然이나 大患難을 經過호는 事가 또

痛苦호도 다 默七〇九一十四을 보면 無數호人들이 手에 棕櫚樹의 枝만 가졌고 冕冠은

持호 事가 업섯스니 此를 深思호야 宜當히 警醒호거시니 萬一 冕冠을 얻고져호진디 반

다시 時々로 恒常 預備호야 主를 忠信으로 事호지 아니호면 안될지니라 以前에 美國에

某人이 職業을 棄호고 山上에 올라가서 主의 再臨호심을 待호였스니 엇지 大謬호음이 아

니 리오 蓋聖經에 임의 明確호게 敎示호섯스니 主씨서曰「其日과 其時는 아는 者가 업고 天使도

아지 못호고 子도 아지 못호되 父씨서 만아시니 人子의 臨호일이 노아의 日과 또 호리라」호섯스니 (마廿四

卅六, 七) 然則 吾儕가 宜當히 警醒 祈禱호고 恒常 主를 爲호야 幹證호지니 如斯히 호

면 主씨서 再臨호실 時에 忠誠시 리온 僕으로 主를 迎接호리니 其時의 福樂은 言語로써

하야大聲큰소리으로呼불호하야曰地땅와海바다와樹木나무을害해호지말고我等우이我等우의하느니라僕종의額니에

印인치기를待기호라호호스니但다유대十二支派지파의每支派지파에保護보호함을엇은者자가므릇一萬만

二千人천인式식이니統計통계호면十四萬四千천인人인이더라

或者謂혹이호디何如엇지호야此十二支派지파中중에단支派지파는업느나호니此問題이문제에對대호야一한種

意義의의가있는지라蓋대개이스라엘人사람이犯罪범죄호야하느님을棄버호고偶像우상을崇拜숭배함은단의一

支派지파가罪惡죄악의種子씨를種심음으로各支派각지파의累연무가되호스니此이로因인호야단支派지파에屬속

호는는保護보호함을엇지못함이니由이로此觀말미암아之보건디此이事일가可가히吾儕우리로警醒경성케호말호지라

若吾儕만약우가하느님을背逆배역호면必然필연罪죄가있슬거시오또他人다른사람으로호호여곰하느님을背逆배역

케호면其罪그죄가尤大더욱크호리라將來장래에天國천국이地上땅에成성立립호時때에至나호호는단支派지파에屬속호

者자들도赦罪사죄호시는恩典은전內안에一한部分부분이잇스니겔四十八그모든지파〇一을을보면닐넛스디其諸支派그모든지파

의名이름이如此이러호니其極北극북으로브러헛을는路길로말미암아하릿어구와다메섹地境지경에잇노하살에난과北북으로호

맛地境지경호지니此이는其東便그동편과西便서편인디단一分분襟깃이호호호스니이로보건디단支派지파가審判심판받음

第七印을 쥔 즉 七天使가 있어서 하는 님前에侍衛하엿는디 더 회개 七囉叭을 주시더라

또 他天使가 金香爐를 持來하야 祭壇側에서 香을 多히 受持하고 諸聖徒의 祈禱와 和

합하야 寶座前 金壇에 두니 香烟이 聖徒의 祈禱와 香의 天使의 手로 브러하는 님前으로

上하더라 하엿스니 此는 審判後 殘存人들이 救援엇음을 表明하거시라 雖審判前이라

도 敎會가 救援을 엿으리라 하니 但 猶대人中에도 善者가 잇서 審判을 經歷하야 음으

로 全體가 敗壞함이 아니니라 然함으로 하는 님씩서 大患難以前에 特別히 여러 方法으

로써 猶대人의 善者一部分을 保護하시니 예수씩서 弟子들의 對하야 謂하심과

又 其時에 반다시 大患難이 잇스리니 猶대에 잇는 者가 宜當히 山으로 逃亡하리라 하

섯는니라 (마 廿四 〇 十六)

本書第七章에 至하야 요한이 보니 天使가 잇서 地의 四隅에서 地의 四方風을 잡아 風

으로 하야 吾地와 海와 樹木에 吹치 못하케 하느디 또 보니 他天使가 日出하느處로 브러

하야 永生하시느하는 님의 印을 持하고 地와 海를 害롭게 하 權勢를 엿은 四天使를 向

等의 血을 伸冤하야 주지 아니하시기를 何時까지 지니르시려하는 잇가하니 各々 多 회개

白周衣를 주시며 하시느니라 言이 아직 暫時 時間 쉬여 彼等 同 伴 와 兄弟 들 도 彼等 처 럼 殺 害 을

밧아 其 數 가 次 기 를 待 하 라 하 였 스 니 此 는 善 惡 의 報 應 이 잇 스 되 其 數 가 滿 차 아 니 하 면

行 처 아 니 함 을 表 明 함 이 라

第六印을 屢 즉 大地震 이 나 며 太陽 이 驄 毯 又 次 검 어 지 고 月 이 變 하 야 血 色 又 次 되 며

하늘에서 星 이 地 에 墜 러 지 기 를 無 花 果 樹 가 大 風 에 흔 들 녀 未 熟 果 가 落 하 는 것 과 如 하

며 天 이 紙 軸 被 捲 하 는 것 又 次 移 去 하 고 諸 山 嶽 과 島 嶼 가 其 位 置 에 서 移 하 더 라 하 였 스

니 此 는 最 末 의 大 災 難 이 天 地 開 闢 以 來 로 未 曾 有 함 을 表 明 함 이 라 마 廿 四 〇 廿 一 과 九

廿一 〇 廿五 에 도 말 하 였 스 니 其 時 에 世 上 君 王 과 大 夫 와 將 軍 과 富 者 이 며 尊 卑 貴 賤 을

勿 論 하 고 落 膽 하 지 아 닐 이 가 업 서 彼 等 이 隱 避 코 저 하 도 能 히 못 하 는 지 라 此 는 主 예 수

의 서 彼 等 의 罪 惡 을 審 判 하 심 이 니 可 하 는 님 의 大 怒 하 시 는 末 日 이 오 도 후 特 別 主 의

日 이 라 稱 함 을 謹 히 알 지 나 라

神 學 指 南

야 세계를 陷害하고 세계에 大災難을 造成하는 자니라

第二印을 硯 즉 赤馬가 있어서 나오는 디 乘者가 權勢를 잊어 世上으로 하여 公平安치안

케 하야 諸人으로 相殺케 하고 彼等의 大劍을 주었다 하엿스니 此는 첫째로 平和를 僞

造하는 者를 表明하시라 赤馬들든 거슨 곳 世界를 擾亂케 함이 오또 第二審判을 指

한 事이라

第三印을 硯 즉 黑馬가 있어서 나오는 디 乘者가 手에 權衡을 잡고 또 糧食과 金錢의 權利

를 잡았스니 此는 擾亂 후에 반다시 飢饉이 至하야 糧食이 難할 거슬 表明함이라

第四印을 硯 즉 灰色馬가 있어서 나오는 디 乘者의 名은 死亡인 디 陰府가 其後를 隨하며

또 彼等이 權勢를 잊어 劍과 凶年과 死亡과 野獸로써 世人의 四分一을 죽이게 하엿다 하

엿스니 此는 世界를 審判하야 被殺하는 者가 甚히 많을 거슬 表明함이라

第五印을 硯 즉 祭壇下에 하는 님의 言과 彼等의 現호 證據를 爲하야 被殺하는 者의 靈魂

들이 있서 大聲으로 불너 글으 디 聖하고 崇되신 大主宰여 地에 居하는 人을 審判하야 我



概冊을 편者가 旣是 羔羊 卽 吾主에 수이신 즉 彼 白馬를 乘者는 必是 敵 그리스도 됨이 無

疑 卽 지라 審判 問題의 第一 事件이 卽 大罪人을 因함이니 其가 거짓 和平을 乞함으로 遂

히 此 世界의 權柄을 竊取한 거시니 譬喻한 現在 歐洲 各國 戰爭又한 야 解決하기 難하

나 後來에 반다시 講和함에 至하리니 萬一 講和 條件이 一次 成立되면 誰가 敢히 다시 戰

端을 니르키리 自然故로 不得 不跡을 收하고 軍器를 收束하나 그러나 其 內心에 仇恨은

如前히 消滅치 아니하야 干戈를 暫間 停止함에 過치 아니할지니 講和 條件이 決斷코 長

久키 難할지라 若 眞正 和平 世界를 要求할진디 眞正 和平의 王主에 수그리스도씨

서 再臨하심이 아니면 萬々 不能하리라

本章에 云하바 白馬를 乘者는 名字가 업스나 將來主에 수씨서 白馬라고 오실 時에는

必是 最히 榮光시러 온 名字가 잇슬 거시니 其 名字가 何이나 하면 卽 忠信과 眞實과 公義

니라 本書 十九〇十一三을 보면 自然可히 알거시니 此로써 比較하면 眞僞가 卽 分離

될지라 本章에 言하바 白馬 乘者는 眞實노에 수가 아니오 卽 예수의 獨一한 심을 對敵하

는 眞實노에 수가 아니오 卽 예수의 獨一한 심을 對敵하

者자가 업는 지라 그림으로 요한이甚심히憂悶근심하야痛哭통곡하니長老장로中에一人한 사람이曰말「哭울지말

나 유대支派지파의獅子소다윗의根뿌리이已勝이었스니能능히此冊이책을開열리라」고 (五〇—一五) 又六節에曰말

「我나가 보나寶座와靈物과諸長老中間에羔羊이섯느니라 殺죽음을當당할 貌樣이오七角과七目이있다」고 엿스니

此七數는皆其의게全權과完善한智慧가있서足족히世界를審判심판할 表표明명함이라

羔羊이寶座에坐하신者의手에서其冊을受하시니活物과二十四長老가皆羔羊前에

伏엎하야新歌로歌하고後에는萬千天使들이羔羊의七善을讚美하니卽能力과富饒함

과智慧와力과尊貴와榮光과讚頌이니라 但只天使만讚美할뿐아니라 무릇天上과地

下와海中에萬物과活物도皆讚美하엿느니라

第六章에도審判의大意를말하엿스니羔羊이其冊을取하야第一印을써시니白馬

가잇는디乘者가弓을持하고冕冠을받아出하야勝하엿는디或者曰白馬는和平함을

表표明명함이오弓은大力量이잇슴을表표明명함이오冕冠이잇스니何如하야吾主에수그

리스도를表표明명함이아니나하니或如斯히解釋할수잇스나實狀그러치아니호거슨大

에坐안존호표명거세계슬대성판表빛을明때호진정거교회시발서니다世여界서가大이審보判좌을受이호보時좌에는眞이正보호좌教이會보는早이已보皆이醒보호좌야

升올往나호가게되세고世이界가에在있치아닐거슬可가히알거시라

本본書서四〇안內큰에大문問에題심는審판判대을預비備호호호一보寶좌座를를말이함이니此이寶보座좌는이곳보하는이님보의보寶보

座좌를指마指르함지이라試험驗이호보야此이寶보座좌의如엇何더호광景경을보광라호경진경디五경節경노七경節경시지호말숨

이寶보座좌로브번리電기과音와聲음과雷뢰聲성이나오고寶보座좌前전에七보燈좌을보켜거시잇스니此이는即이하는이님이의七닐神곱이라寶보座좌前전에

水수晶지과又유호류琉리璃파海다가잇고寶보座좌中중과寶보座좌四네面령으로四네靈령物물이잇는디前앞後뒤에目눈이遍가滿두호지라其그第첫一재靈령物물은

獅소子지와又그其둘第재二령靈물物물은송犢아과又그其셋第재三령靈물物물은얼面골貌이가人사과又그其넷第재四령靈물物물은날飛나去가호는鷲독又슈다」호

였스니此이는지곳으하는활님물의造인호신류바活슈物류에人모類든과獸구類비의諸포種명類이가具표備명함을表표明명함이

니此이諸모物든은皆다하는지님으의造지호신으바인즉엇지하는찬님미을讚찬美미치아니호리오

可가惜가호거슨魔마鬼귀가許허多다호方法방法법으로世세界계에造지호함을受바호各은活각物활物물노호여음곰하는음님의의

眞참道도를바리고하는의님의意의志지를違어違그케호였스니然그함으로能능히하는심님의審심判판을심받지아

니치못호리라又또本본書서五〇에記기錄록호였스디審심判판호는文문卷권이잇는디誰아謀모도能능히開열호

神 學 指 南

又엿二〇六에 하느님씩셔 그리스도에 수로 因하야 吾儕로 하야 吾彼와 함께 起生케 하

야 혼가지로 天에 坐케 하 시니라 하엿는니라

當時에 요한이 見則天에 門이 開호고 又聽호니 喇叭聲과 如호聲音이 잇셔 글으디「此

處로 上來호라 내가 此後에 必成호事로써 爾의 게示호리라」하엿스니 (默四〇一) 教會도 後에 變化

하야 升天호 事를 表明호 과 又호니라 (四〇十六)

世界末日은 卽取穫호는 時期라고 謂호는 者도 有호니 善호者는 麥과 又 倉內에 收

入호 거시 오惡호者는 稗와 又 火에 投燒호 거시라 (마 十三〇卅九一四十一) 此外에

又一件이 잇스니 最先熟호 果實과 後에 熟호 果實노 分別함이 잇스니 特別히 몬져 復活

을 엇음도 잇고 普通으로 復活을 後에 엇음도 잇스니 大概바울의 一生에 希望호는 바는

곳 特別히 復活을 엇음에 잇는 지라 此言은 빌二〇十一에 되엿스니 原文대로 此死者中에

아 조되는 復活이란 意義요 又默四〇에 記錄호 기를 二十四長老가 잇다 하엿스 舊約

과 新約中에 誠實히 信主호는 者들이 몬져 復活을 엇어 彼等이 天上에서 二十四寶座

# 默示錄의 大概

(묵시록의 대개)

丁 義 華 牧 師 著 述

## 第三論說 主의 日은 卽審判日

前號에 記題호니 主의 日은 審判의 日이라고 說明호였거니와 默一〇十에 言호니

가 甚히 明確호고 又二〇二을 보면 云호였스디 「使徒라고 自稱호나 實狀使徒가 아닌 거슨 爾가 既

히 試驗호야 其 虛僞호를 알미라」 호였스니 大抵 教會內容에 眞者도 있고 僞者도 있는 거시 世

界 內容에 善함도 있고 惡함도 있는 것과 相同호지라 此로 因호야 不可不 審判을 受호거

시니 그럼으로 三〇廿一에 許諾호신 言이 「勝호는 者는 我가 我의 寶座에 同座케 호여 주기를 我가 勝

호을 잇고 父의 寶座에 同座호는 것과 又 호호리라」 호섯는 니라

一〇廿에 曰 「此로 그리스도를 死亡中에서 다시 살니사 天에서 自己의 右使에 坐케 호섯다」 호였스

니 吾儕의 最大 希望은 期必코 將來에 復活호야 主와 永々히 同在호을 줄을 可히 알거시오

神 學 指 南

와 외은 날  
 來 謁 乎 日 과 하 는 님 의 神 이 鵠 의 貌 樣 으 로 其 上 에 降 臨 하 며 此 는 我 의 愛 子 요 喜 悅 者 라  
하늘 소리가 세례받으신날  
 高 天 으 로 서 聲 이 잇 던 受 洗 日 과 가 나 에 서 六 坐 石 缸 水 로 葡 萄 酒 만 든 日 을 다 榮 光 受 하  
날  
 신 日 이 라 하 야 다 慶 節 노 守 하 더 니 第 四 世 紀 後 에 로 마 教 會 監 督 을 니 오 가 비 로 소 誕 日  
정절 작명  
 을 慶 節 노 作 定 하 었 는 니 라 로 마 帝 國 東 便 教 會 에 서 思 하 기 를 예 수 受 洗 日 卽 一 月 六 日  
세  
 은 예 수 三 十 歲 되 는 誕 日 이 라 하 야 受 洗 日 과 誕 日 을 同 日 노 認 定 하 더 니 第 四 世 紀 後 에  
동편교회  
 는 東 便 教 會 에 서 도 西 便 教 會 를 따 라 十 二 月 二 十 五 日 을 誕 日 이 라 고 更 定 하 었 스 니 西  
전교회  
 便 教 會 에 서 는 十 二 月 二 十 五 日 이 誕 日 되 는 確 然 證 據 가 잇 는 듯 하 니 라 以 上 諸 證 明  
중합  
 을 綜 合 하 면 예 수는 로마 歷 七 四 九 年 (主 前 五 年) 十 二 月 二 十 五 日 에 誕 生 하 신 듯 하  
년월일  
 나 라

예 수 의 誕 生 年 月 日

니라十一月월 초初에霖雨가始作하야翌年三月월々지繼續하고四月十月월々지旱魃이太甚

하야靑草가黃枯하니野外牧羊은冬節이適合하고벧을내힘은예루살렘보다冬節

이더욱温和하다하니十二月이예수誕生月이라고現代가認定함을牧羊의時節이아

니라고하여서는反對치못할지니라

### 三、誕生의 日

一、엘니사벳의孕胎로證明하노니예수씨서十二月에誕生하셨스니사가라가聖殿

에잇던時는十月三日부터九日까지요엘니사벳이厥後未久에孕胎하야六個月後即

翌年三月十五日과四月十五日의中間에其天使가마리아의게顯하엿스리니예수의

誕生日은十二月十五日과一月十五日의中間에되엿스리라現代各國敎會에서歲守

하느十二月二十五日은遺傳을依하야함이나誤解라할수업느니라第四世紀前에는

예수誕生日은예수씨서榮光을捨하신日이라하야慶節노력이아니하고東方博士

經을보니로마皇帝의도가로마曆八二三年八月五일에루살넴을攻陷하고聖殿을

毀滅하니此日은第一班여호야립祭祀當番의初日이라此로서推算하면第八아비

아班의祭司長사가라는로마曆七四八年四月十七日노廿三日지외十月三日노九

日지聖殿에잇섯스리라然則聖殿에서默示받은後未久에엘니사벳이孕胎하였슬

지니四月에默示를받앗스면洗禮요한이翌年一月에生하였슬거시오十月에默示를

받앗스면洗禮요한이翌年七月에生하였스리니눅一〇廿六을보면何時던지예수의

誕生은洗禮요한보다六個月後에되었느니라

二、유대氣候로證明호니예수의誕生은洗禮요한보다六個月後即六月이나十

二月에됨이明確호니라누가二章을보면예수誕生夜에牧者가野外에서羊群을守호

였다호였스니世界普通氣候로論호면六月에誕生호심이無疑호듯호나유대氣候

는他邦과特異호야예루살넴에는十二月의溫度가寒日은三十六度요溫日은七十三

度라南田에서收獲호며北田에서種植호야九秋三春의景光을一時에翫賞호는處이

예수의誕生年月日



왔노라 하였스니 그 별 었다 별 其星은 如何 星인지 詳知할 수 업스나 민 廿四〇 十七 言대 로 應하야

東方博士를 引導할 異星인 줄 알 수 잇스며 天文學者 皆 불니 (Kepler) 의 言을 據하면 로 마

曆七四七年에 木星과 土星이 相聚하였고 七四八年에 木星과 火星과 土星이 相聚하였

다 하였고 中國史를 按驗하면 로 마 曆七四九年二、三月頃에 一慧星이 見하였다 하니

未知 케라 東方博士가 此等의 星을 像察하다가 예수의 誕生을 指路하는 其星을 發見함

이 아닌 가 하 노라 然이나 博士의 來謁함으로 는 예수의 誕生年을 確知할 수 업느니라

## 二、誕生의 月

一、洗禮 요한의 出生으로 證明하노니 一〇五를 보면 아비아 班列에 祭司長 一人이

잇스니 名은 사가라라 하였스니 此 祭司 班列은 바벨론에서 歸후에 에스라가 新히 廿

四班을 組織하야 每班이 循環法으로 七日式 一年兩次로 聖殿에 祭祀하는 定例이니 여

호야 립이 第一班이 오아비아는 第八班이 되었더라 (代上 廿四 〇 一 一十九) 유대 遺傳

바왕時왕 때에落成락성되었다하니 아직 예수當時당 시까지工事공 사를繼續계 속하는中중이니라 로마曆七

三四年년에始作시 작하야四六年년을經過경과하였스니 로마曆七八〇年년即 예수께서敎訓교 훈을始作시 작

하신初年초 년이라 예수께서洗禮受세례 받신後四十日후間試驗일 동안 시험을經경하시고요 단江강으로브러歸도라

하야가나와가버나움으로든녀에루살넴에上去상 거하야逾越節유월절을守지하셨스니受洗後自세례 받은 후

然數個月後연두어 돌 후가되였슬지라 로마曆七八〇年년의逾越節유월절은四月九日일브러始作시 작하였스니

逾越節유월절노브러前期二個月전 구 이 기 월이면同年一月頃동 년 월 경이라然則그런 즉로마曆七八〇年년一月以內월 이 내에洗

禮세受받신거시分明분 명하니此時이 때에 예수三十歲세라 예수단의誕生생은 로마曆七四九年년(主

前五年)전 년末말이나七五〇年년初초가되리로다

四、東方博士동 방 박 사들의來謁려 알함으로證明증 명하노니 마二〇一十一장 절을보면東方博士동 방 박 사들의來

時때는혜롯이에루살넴에잇섯고요세보史스 크 에第十七卷第六章권 장 절四節을보면로마曆七五〇年년

三月十二、三日월 일月蝕夜일 월 식 야에謀叛人모 반 인맛디아를殺죽할時때는혜롯이에리고에잇섯스니博士박 사

來謁事와 본 일은는 로마曆七五〇年년三月十三日월 일以前이 전의事일요又博士等또 박 사 들이東方동 방에서其星그 별을보고

예수의誕生年月日

하나로마曆七四八年에解任되고와로(Varus)란인이繼位하야로마曆七五〇年即해

로死亡年에至하야解任되었스니 예수誕生時々지와로가수리아監司되었고구레노

는로마曆七五〇年에수리아監司되었는지라눅二〇에잇는戶籍이구레노가수리아

監司되었을時에初次戶籍이라함은아마센티오, 사두르니노時에始作된戶籍이

구레노時에至하야畢役된사두르인듯하니라

三、 예수敎訓의始作으로證明하노니눅三〇廿三을보면예수씨서敎訓함을始作하

실時에僅三十歲라하엿스니此는一二朔不及하거나或一二朔過호거스르思함

이니예수씨서洗禮를受하시고敎訓을始作하실時에三十歲나되신줄認定할수잇스

며요二〇十三廿을보면예수씨서受洗後幾月이 못되어예루살렘에上하야逾越節을

守하실제유대인들이曰「此聖殿은四十六年만에지엇거늘爾가三日만에建하겟느냐」하엿더라

요세보의유대史를보면此聖殿은大해롯이即位한지十八年即로마曆七三四年에建

築하기를始作하엿고祭司長들이繼續하야로마曆八一七年(主後六四年)即아그립

도二個月의時日을要한것스리니예수의誕生時點은晚한여도로마曆七五〇年(主前四年)一月의內에잇섯스리라한노라

二、가이사외戶籍令으로證明한노니눅二〇一을보면가이사, 아구스도(아구스

도)가戶籍令을下할때요셉과마리아가벧살레헴에歸한야예수를誕生한것다한나

此戶籍令이何時에나렸는지未詳한도다로마古碑에로마曆七二六年과七四六年과

七六七年에아구스도가戶籍令을下한것다한文이잇스나此三次의戶籍은로마本土

에만限한戶籍이오누가福音에말한戶籍은로마領地까지頒布된戶籍令이니右兩種

의戶籍으로예수誕生年을參考한것다한면誤解에陷하기易하리로다然이나누가福音

의戶籍은구레노가수리아監司되였을時에戶籍이라하니구레노의監司된時는何

時이나한면로마에有名한敎父테르툴리아노(Tertullian)가言하기를예수誕生時戶籍

은센티오, 사두르니노(Sentius Saturninus)가수리아監司되였을時에戶籍이라하고

유대歷史家요세보가言하기를센티오, 사두르니노가何年에監司되였는지는未詳

예수의誕生年月日

나오가父喪을哭호지七日後에유대人이逾越節을守호였다호였다然則헤롯이로

마曆七一年에王이되야在位三七年에死亡호였스니예수는헤롯生存時에誕生호

신지라其時期를晚點으로計算호지라도마曆七五〇年即헤롯死亡前에誕生호섯

슬거시오맛디아를殺호던月蝕夜는今日天文學上으로溯究호면로마曆七五〇年三

月十二三兩日夜에잇섯스니헤롯이七五〇年三月十二日夕生存호였스며또아켈

나오가父喪을當호지七日後에逾越節이라호니로마曆七五〇年の逾越節은四月十

二日부터始作호였스니逾越節前七日이면四月五日이라헤롯이로마曆七五〇年四

月五日以前에死亡호음이分明호니헤롯의死亡은로마曆七五〇年三月十二日以後와

四月五日以前의中間에在호였다然則헤롯의死亡前幾月內에예수씨져誕生호섯

논지마태와누가福音을參考호면예수의誕生後와헤롯의死亡前의中間에生호지八

日만에割禮受호신事와誕生호신지四十日後에하느님씨獻호事와東方博士敬拜호

事와예굽으로避호신事와베을네hem兒孩들을殺호事가잇섯스니此諸行事는速호여

七五四年에 죽은 死할 줄 노 인명 認定하고 예수는 로마 력 曆七五三年에 탄생 誕生할 신 줄 노 계산 計算할 엿슴

이라 그리 然이나 요세보 (Josephus) 의 수기 史를 조세히 詳覽하면 대 大혜롯이 로마 력 曆七五〇年 년 春에 사 死

亡할 엿스니 예수는 성 聖존 시 時 곳 即로 력 大혜롯이 로마 년 曆七四九年中에 탄 生할 엿스니 이 此로써 바 正算

할면 금 今年이 주 主後一千九一八年이라 함 은 디오누시오의 오 誤算이 오 其實은 년 一九二二年

이라 할 노라 그리 然이나 고 古今의 증 證徵이 자 各異하고 사 人々の 사 思考가 부 不同할 니 이 而今의 은 是로 이 前古

를 은 非라 할 며 나 而我的 가 可로 은 他人을 은 全否라고 단 斷言치 못할 지라 다 但 예수 탄 生年 월 日 참 考에

對하야 판 管見을 여 如左히 기 記述할 노라

### 一、탄 生年

一、대 大혜롯의 사 死亡年으로 증 證明할 노니 요 世보의 유 大史 수 第十七卷 한 八章 장 一節에 혜 롯

이 로마 력 曆七一四年에 유 大王이 왕 位에 재 在位三七七年에 사 死亡할 엿다 할 고 동 同六章 장 四節에 혜 롯

이 월 月 침 蝕夜에 모 謀叛人 맛 狄아 의 사 死刑을 집 執行할 엿다 할 고 동 同八章 장 四節에 혜 롯의 아 子 아켈

前에 유대인들이 예수씨를 彼等王으로 待遇치 아니하고 反히 蔑視하였시나 以後에  
 는 主님을 彼等王으로 待遇할 터인 터 其時에는 前에 主께서 登山하여 敎訓하신 律法대  
 로 實行할 거시오 그 썬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待遇하는 全世上國의 律法이 되리라  
 只 今은 一般信者가 그리스도께서 此四種職分 卽 救贖하신 者와 吾儕를 爲하여 祈禱  
 하시느 者와 中保와 律法을 주신 者로 記憶하여 愛와 權能으로 預備하신 福樂中에서 行  
 할 거시니라

# 예수의 誕生年月日

(예수의 탄생년월일)

文學文士 羅富悅牧師 著述

今年이 主後一九一八年이라 함은 主後五二六年에 로마 修道院長이 오누시오, 예  
 시구오가 信徒들을 노하여 公로 마紀元 (로마 城設立元年) 을 依하여 年數를 計算하는  
 規模를 廢하게 하고 저야 吾救主의 降生年을 元年으로 制定할 때에 大혜로이 로마 曆

이 른 법  
此律法은 하는 님 의셔 百姓의 제 首次로 주신 거신 디 此世上人이 聖潔히 行할 거슬 初

제 기록  
次記錄된 거시오 吾儕가 新約中에 第一冊마래 福音五〇一七〇을 보면 모세의 律法보

다 尤極重大한 律法이 第二律法으로 記錄되었는디 此律法은 八福山에서 주셨스니 囉

판 소리와 불과 우의 소리  
叭聲과 火와 雷聲업시 神聖하시고 柔順하시고 仁愛하시는 音聲으로 주신 거시오 又誰

를 爲하야 주신 고하니 天國 百姓을 爲하야 주신 거시오 即天國 律法이라 하는 니라 그리

스 도 의셔 하는 님의 遺하신 王으로 天下萬民의 제 尊敬을 受하야 王노릇 할 실 터이니 其

時에 十字架에서 立하신 贖罪하신 심을 依하야 王노릇 하시며 此律法대로 施行할 실 거시오

오마 五〇十七 言에 「我가 律法이나 先知者나 廢하리 온 줄 노 思치 말나 廢하리 온 거시오 아나 오 完全케 하리

와 노라」 하 셴스니 此律法을 完全케 하는 거슨 例인 고 하니 하는 님 前에 人을 代身 하야 律

法을 全守할 뿐 더러 人을 代身 하야 刑罰을 受함으로 其約條를 完全케 하심이니 刑罰 받

을 者들 노 하는 님의 容恕하신 심을 받게 하야 新히 하는 님의 相關되게 하시며 그리 스도의

나라 능 드러가게  
國에 능히 入往케 하시느니라

主에 수 님의 類範



는<sup>편</sup>님<sup>고</sup>便<sup>다</sup>에<sup>일</sup>있는<sup>을</sup>故<sup>맛</sup>로<sup>크</sup>盡<sup>맛</sup>成<sup>크</sup>할<sup>동</sup>수<sup>서</sup>外<sup>동</sup>에<sup>서</sup>업<sup>지</sup>는<sup>크</sup>거<sup>크</sup>슨<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님<sup>크</sup>씩<sup>크</sup>서<sup>크</sup>自<sup>크</sup>己<sup>크</sup>의<sup>크</sup>許<sup>크</sup>諾<sup>크</sup>하<sup>크</sup>신<sup>크</sup>中<sup>크</sup>에<sup>크</sup>一<sup>크</sup>句<sup>크</sup>語<sup>크</sup>

도<sup>어</sup>違<sup>크</sup>하<sup>크</sup>실<sup>크</sup>수<sup>크</sup>업<sup>크</sup>습<sup>크</sup>이<sup>크</sup>라<sup>크</sup>如<sup>크</sup>斯<sup>크</sup>히<sup>크</sup>思<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同<sup>크</sup>時<sup>크</sup>에<sup>크</sup>예<sup>크</sup>수<sup>크</sup>그<sup>크</sup>리<sup>크</sup>스<sup>크</sup>도<sup>크</sup>씩<sup>크</sup>서<sup>크</sup>中<sup>크</sup>保<sup>크</sup>가<sup>크</sup>되<sup>크</sup>시<sup>크</sup>샤<sup>크</sup>其<sup>크</sup>職<sup>크</sup>務<sup>크</sup>

를<sup>형</sup>行<sup>크</sup>하<sup>크</sup>심<sup>크</sup>에<sup>크</sup>對<sup>크</sup>하<sup>크</sup>야<sup>크</sup>聖<sup>크</sup>經<sup>크</sup>에<sup>크</sup>있<sup>크</sup>는<sup>크</sup>言<sup>크</sup>詞<sup>크</sup>를<sup>크</sup>집<sup>크</sup>히<sup>크</sup>記<sup>크</sup>憶<sup>크</sup>할<sup>크</sup>거<sup>크</sup>시<sup>크</sup>니<sup>크</sup>堊<sup>크</sup>前<sup>크</sup>二<sup>크</sup>〇<sup>크</sup>五<sup>크</sup>에<sup>크</sup>「<sup>크</sup>概<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님

과<sup>사</sup>人<sup>크</sup>生<sup>크</sup>間<sup>크</sup>에<sup>크</sup>一<sup>크</sup>中<sup>크</sup>保<sup>크</sup>가<sup>크</sup>계<sup>크</sup>시<sup>크</sup>매<sup>크</sup>即<sup>크</sup>그<sup>크</sup>리<sup>크</sup>스<sup>크</sup>도<sup>크</sup>에<sup>크</sup>수<sup>크</sup>타<sup>크</sup>」<sup>크</sup>하<sup>크</sup>였<sup>크</sup>스<sup>크</sup>니<sup>크</sup>此<sup>크</sup>言<sup>크</sup>을<sup>크</sup>보<sup>크</sup>면<sup>크</sup>眞<sup>크</sup>中<sup>크</sup>保<sup>크</sup>는<sup>크</sup>惟<sup>크</sup>예<sup>크</sup>수<sup>크</sup>뿐<sup>크</sup>이<sup>크</sup>시

니라<sup>크</sup> (히<sup>크</sup>九<sup>크</sup>〇<sup>크</sup>五<sup>크</sup>十<sup>크</sup>二<sup>크</sup>〇<sup>크</sup>廿<sup>크</sup>四<sup>크</sup>)

### 四、律法을授受者

出<sup>출</sup>十<sup>크</sup>九<sup>크</sup>〇<sup>크</sup>과<sup>크</sup>二<sup>크</sup>十<sup>크</sup>〇<sup>크</sup>을<sup>크</sup>보<sup>크</sup>면<sup>크</sup>모<sup>크</sup>세<sup>크</sup>는<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님<sup>크</sup>의<sup>크</sup>神<sup>크</sup>聖<sup>크</sup>하<sup>크</sup>고<sup>크</sup>義<sup>크</sup>로<sup>크</sup>오<sup>크</sup>신<sup>크</sup>律<sup>크</sup>法<sup>크</sup>을<sup>크</sup>이<sup>크</sup>스<sup>크</sup>라<sup>크</sup>엘<sup>크</sup>百<sup>크</sup>

姓<sup>성</sup>의<sup>크</sup>傳<sup>크</sup>授<sup>크</sup>하<sup>크</sup>였<sup>크</sup>스<sup>크</sup>니<sup>크</sup>此<sup>크</sup>律<sup>크</sup>法<sup>크</sup>은<sup>크</sup>救<sup>크</sup>贖<sup>크</sup>할<sup>크</sup>을<sup>크</sup>受<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百<sup>크</sup>姓<sup>크</sup>을<sup>크</sup>爲<sup>크</sup>하<sup>크</sup>야<sup>크</sup>立<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신<sup>크</sup>되<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님<sup>크</sup>씩<sup>크</sup>서

彼<sup>더</sup>等<sup>의</sup>을<sup>크</sup>特<sup>크</sup>別<sup>크</sup>히<sup>크</sup>擇<sup>크</sup>하<sup>크</sup>심<sup>크</sup>을<sup>크</sup>諸<sup>크</sup>異<sup>크</sup>邦<sup>크</sup>人<sup>크</sup>前<sup>크</sup>에<sup>크</sup>分<sup>크</sup>明<sup>크</sup>히<sup>크</sup>顯<sup>크</sup>出<sup>크</sup>하<sup>크</sup>기<sup>크</sup>爲<sup>크</sup>하<sup>크</sup>야<sup>크</sup>주<sup>크</sup>셨<sup>크</sup>는<sup>크</sup>니<sup>크</sup>라<sup>크</sup>此<sup>크</sup>律<sup>크</sup>法<sup>크</sup>中<sup>크</sup>

에<sup>더</sup>吾<sup>의</sup>儕<sup>의</sup>가<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님<sup>크</sup>을<sup>크</sup>向<sup>크</sup>하<sup>크</sup>여<sup>크</sup>서<sup>크</sup>나<sup>크</sup>人<sup>크</sup>을<sup>크</sup>向<sup>크</sup>하<sup>크</sup>여<sup>크</sup>서<sup>크</sup>나<sup>크</sup>聖<sup>크</sup>潔<sup>크</sup>하<sup>크</sup>게<sup>크</sup>行<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거<sup>크</sup>슬<sup>크</sup>教<sup>크</sup>하<sup>크</sup>신<sup>크</sup>뜻<sup>크</sup>이<sup>크</sup>있<sup>크</sup>고

個人<sup>개</sup>의<sup>크</sup>家<sup>크</sup>庭<sup>크</sup>으<sup>크</sup>로<sup>크</sup>브<sup>크</sup>터<sup>크</sup>全<sup>크</sup>民<sup>크</sup>이<sup>크</sup>며<sup>크</sup>異<sup>크</sup>邦<sup>크</sup>에<sup>크</sup>서<sup>크</sup>지<sup>크</sup>相<sup>크</sup>關<sup>크</sup>되<sup>크</sup>는<sup>크</sup>諸<sup>크</sup>般<sup>크</sup>形<sup>크</sup>便<sup>크</sup>中<sup>크</sup>에<sup>크</sup>宜<sup>크</sup>當<sup>크</sup>히<sup>크</sup>行<sup>크</sup>하<sup>크</sup>는<sup>크</sup>거<sup>크</sup>슬

教諭<sup>마</sup>하<sup>크</sup>신<sup>크</sup>뜻<sup>크</sup>이<sup>크</sup>있<sup>크</sup>는<sup>크</sup>니<sup>크</sup>라

일로 말미암아 보전 중보 직책 남 위 근 구 수 죄 말미암아 이 그리  
由此觀之 권 디 中保의 職責은 人을 爲하야 懇求할 뿐 더러 贖罪하고 罪로 由하야 違乖

전 약도 법 의 권 수 법 의 된 約條를 法과 義로써 連續하야 合하게 하는 거시 오하는 님씩서 모세가 自身으로 犧性

을 삼아 貢獻코져 함을 受치아니 할지 渴은 하는 님의 聖潔하심과 義를 因하야 無罪호는 者

라야 中保가 될수 잇슴이라 當時에 하는 님씩서 모세의 代求함을 聽하심은 將次 모세 보

다 勝者가 欠업고 疵업는 自己를 하는 님씩 贖罪祭物노 貢獻할 거슬 預指하신 뜻시니라

前에 잇던 約條가 廢하여진 理由는 人民이 犯罪함을 因함이 오然함으로 하는 님씩서

尤善호 約條를 立하섯스니 예수 그리스도씩서 此尤善호 新約의 中保가 되심은 自己가

十字架에 死하심으로 贖罪하심이니라

하느 님의 法은 實狀石에 記錄할 거시 아니 오心에 記錄할 거시니 人이 赦罪함과 淨潔

함을 受호는 後에 라야 新約에 入할수 잇는 故로 新約은 前에 잇던 約條를 업시 할 거시 오

此 新約이 尤極有益호는 舊約으로 由하야 受호는 福은 此世上 福이 오 新約으로 由하야

受호는 福은 하는 님國의 福이라 許諾도 尤極有益호는 人生의 便에 잇는 것 아니 오 皆하

모세가 하는 법 律法 記錄 碑石을 밧아가지고 산 山에 서 下來 時에 百姓들이 該 律法

을 犯 咎거슬보고 此로 因 咎야 重 咎 罰 밧을 줄알고 該 碑石을 擲 破 咎였는디 此는 怨 心을

因 咎야 咎거시 아니오 百姓으로 咎여 該 律法을 違 咎 罪로 因 咎야 受 咎 刑 罰을 臨 時로

免 咎 咎고 自己가 中 保가 될 機 會를 得 咎려 고 待 咎이라

모세가 百姓의 罪를 審 理 咎 後에 中 保가 되리 山에 更 次 上 去 咎야 하는 前에 祈 禱 咎

기를 「嗚 呼라 此 民이 自己를 爲 咎야 金으로 神을 造 咎야 임의 大 罪를 犯 咎였다」 咎는 言으로 推 諉 咎시

其 罪를 終 末 々 自 服 咎고 且 「主 咎서 其 罪를 赦 咎시 리 잇가」 咎고 深 慮 咎거 슨 하는 咎의

斯 罪를 赦 咎실 수 잇는 가 斯 罪를 赦 咎는 方 策 이 나 贖 罪 祭 物 이 도 모 지 업 는 줄 알 미 나

라 神 聖 咎신 하는 咎과 刑 罰 受 咎 咎 百姓間에 中 保가 도 모 지 업 는 줄 알 고 懇 求 咎기를 然 咎

안 소 오 卽 余 名을 主의 記 錄 咎 冊에서 塗 抹 咎 咎 소 서」 咎으로 贖 罪 咎기 爲 咎야 自 身을 獻 咎고 온

百姓의 代 身으로 自己가 刑 罰 밧기를 願 咎인 디 此는 自己가 中 保 咎으로 由 咎야 百姓으

로 赦 罪 咎심과 慈 悲 咎심을 更 咎 咎게 咎려 咎이라

되서自己百姓을愛호하고諸般形便을悉知호심을表明호심이라主되셔온敎會를爲  
호야늘懇求호실뿐더러個人의形便을아시고代求호시느거슬吾儕가記憶함으로患  
難中에라도恩惠와義로옴과所望을크게밧을지니라

三、中保됨

人을爲호야懇求호는것과中保되느거슨類似호나分揀도잇는디代求호는거슨恒  
常호는事로되中保가되느거슨特別호境遇라야되느거시니聖經中에首次로記錄된  
中保는人이하느님의約條를違호고踈遠호여젧다가更次和合되느境遇에잇섯느

니라 (出卅三〇卅一四)

其時에이스라엘百姓들이 시내山에셔여호와하느님과約條함으로宜當히其十誠  
命과諸般律法을守호를責任을受호였스니其律法대로行호면福을受호거시오萬一守  
치아니호면重호罰을受호거시라然이나얼마되지못호야該神聖호誠命을犯호고金

속아지물만드러그압해경비  
贖을鑄호여其前에敬拜호였느니라

主 예수님의類範

다시 怨望치안케되니라

이 두가지 일을 생각하라  
此二種事를 생각하노라  
중에서  
主에 수씨對하야  
二種事를記錄하건디

(一) 히 7. 25에 「恒常사라서  
吾儕를爲하야  
懇求하심이니라」  
하엿스니  
主씨서  
天堂에서  
下

鑑하시고  
救贖함을受호는者들이  
此世上과  
肉體와  
魔鬼와  
對敵하는  
거슬보시고  
늘하느

님씨彼等을爲하야  
祈禱하심으로  
諸般試驗을  
善勝하게하시느니  
예수씨서는  
許久間

祈禱하시되  
被釘手가  
疲困치아  
니하심으로  
誰某던지  
扶助할  
必要가  
업느니라

此被釘手는  
信仰의  
價를  
證據할  
뿐더러  
吾儕가  
其手를  
看時  
마다  
勝하심을  
忘할수

업고  
永遠히  
魔鬼를  
勝하  
신줄  
알거시  
니라  
權能  
이잇서  
勝하  
시고  
復活하  
신예  
수씨서

永遠도록  
懇求하  
실터이  
니  
吾儕는  
何時  
라도  
勝할  
줄노  
分明히  
알수  
밖고  
업느니라

(二) 主씨서  
베드로의  
勸勉하  
심이니  
當時에  
베드로가  
大言으로  
獄에  
도  
偕하고  
死하

는  
디도  
偕하  
갓다  
함을  
聞하  
시고  
베드로의  
言謂하  
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爾等을  
求得

하야  
小麥을  
簸하  
는  
것과  
又  
爾等을  
簸하  
려하  
나  
然이나  
我가  
爾等을  
爲하  
야  
祈禱하  
엿다」  
하  
섯스  
니  
此는  
主

二 代 求 者 덕구 자

모세가 特別히 二次人을 爲하야 懇求하였는디

(一) 出十七〇八一十三言대로 이스라엘百姓이 아말렉族屬과 相戰할 時에 모세가 其

民을 爲하야 山上에 서하는 尼西懇求하였는디 其腕力이 疲困함으로 아론과 홀이 其肱

을 扶上하야 勝戰케 되었스니 當時에 이스라엘百姓이 學하거슨 彼等이 모세의 代求함

을 依賴하야 必될 것과 其懇求함의 能力이 如何할 거슬 學함이 오

(二) 民十二〇言대로 모세의 家內에 難處한 形便一件이 잇섯스니 此는 아론과 미리암

이 모세를 誹謗하야 其權勢를 取하려하였는디 모세의 性稟은 하는 尼前에 淨潔하고 神

聖함으로 하는 尼씩서 미리암의 罰노 癩病을 忽然히 下하심으로 全族屬前에서 모

의 無罪함을 明白히 證據하시코 미리암은 罪지음으로 營外에 逐出함을 當하엿더니 모

세가 彼를 爲하야 하는 尼씩 懇求함으로 미리암의 病이나 하 家內에 入去할 수 잇게 되었

스니 然함으로써 此二人이 自己를 爲하야 懇求하는 모세를 依賴하야 必될 거슬 學하야

야 預備<sup>예</sup>하신 方策<sup>방책</sup>을 記錄<sup>기록</sup>하시라

(1) 水<sup>물</sup>가 苦<sup>쓰</sup>야 飲<sup>마</sup>할 수 없<sup>않</sup>으므로 모세가 樹枝<sup>나무가지</sup>를 投<sup>던</sup>야 甘味<sup>서단맛</sup>로 變<sup>변</sup>케 하고

(2) 十二<sup>열두</sup> 泉<sup>샘</sup>이 有<sup>있</sup>는 愉<sup>시</sup>快<sup>원</sup>하게 休<sup>쉬</sup>息<sup>게</sup>케 되고

(3) 其<sup>그</sup>後<sup>후</sup>에 이 斯<sup>이</sup>라 엘 百<sup>백</sup>姓<sup>성</sup>이 잘 冥<sup>미</sup>지 아니하고 怨<sup>원</sup>望<sup>망</sup>하며 喧<sup>부르</sup>呼<sup>지</sup>할 時<sup>때</sup>에 하느님께서 鶉<sup>의</sup>과 鵲<sup>초락이</sup>과 만

나를 賜<sup>주</sup>하셨는디 此<sup>이</sup>만 나느 彼<sup>더</sup>等<sup>회</sup>이 四<sup>네</sup>十<sup>년</sup>年<sup>동안</sup>間<sup>동안</sup> 受<sup>받</sup>을 許<sup>앗</sup>하시니 하느님께서 豐<sup>부</sup>足<sup>족</sup>하신 恩<sup>은</sup>惠<sup>혜</sup>로

保<sup>보</sup>護<sup>호</sup>하셨는니라

(4) 彼<sup>더</sup>等<sup>회</sup>이 曠<sup>가</sup>野<sup>광야</sup>에 잇<sup>있</sup>슬 洞<sup>반</sup>안<sup>석</sup>에 磐<sup>홀</sup>石<sup>나</sup>에서 流<sup>흐</sup>出<sup>나</sup>하느 水<sup>물</sup>를 々<sup>물</sup>히 밧<sup>물</sup>고 一<sup>한</sup>次<sup>번</sup>도 不<sup>부</sup>足<sup>족</sup>함이 업

섯스니 此<sup>이</sup>는 諸<sup>모</sup>般<sup>든</sup>恩<sup>은</sup>惠<sup>혜</sup>로 오신 方<sup>방</sup>策<sup>책</sup>을 成<sup>일</sup>하시느 中<sup>중</sup>에 하느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

라 엘 百<sup>백</sup>姓<sup>성</sup>을 訓<sup>마</sup>誨<sup>루</sup>하시고 모세는 하느님의 機<sup>기</sup>關<sup>관</sup>이 되엿는니라 그와 又<sup>우</sup>치 吾<sup>우</sup>主<sup>의</sup>에 수 그리

스 도 되셔 吾<sup>우</sup>儕<sup>의</sup>의 生<sup>성</sup>命<sup>명</sup>糧<sup>량</sup>과 生<sup>성</sup>命<sup>명</sup>水<sup>물</sup>가 되시고 自<sup>자</sup>己<sup>의</sup>의 百<sup>백</sup>姓<sup>성</sup>을 爲<sup>위</sup>하야 諸<sup>모</sup>般<sup>든</sup>恩<sup>은</sup>惠<sup>혜</sup>와 權<sup>권</sup>能<sup>능</sup>의

根<sup>근</sup>源<sup>원</sup>이 되시며 各<sup>여</sup>種<sup>러</sup>試<sup>가</sup>驗<sup>지</sup>과 諸<sup>모</sup>般<sup>든</sup>形<sup>형</sup>便<sup>편</sup>中<sup>중</sup>에서 吾<sup>우</sup>儕<sup>의</sup>의 게 하느님의 充<sup>충</sup>滿<sup>만</sup>을 顯<sup>나</sup>出<sup>라</sup>하시

는니라

호 護할 것과 豐足히 飼할 거신디 하는 님씩서 모세로 말미암아 其慈悲한 심을 이스라엘 百姓의게 顯出한 심을 詩百三〇七 「其路를 모세의게는 알게하시고 行한 심을 이스라엘 子孫의게는 보이셨도다」 말한 거시 잇는 니라

一、引導한 심, 出十三〇에 雲柱가 前을 引導한 것과 又치 主님의 許諾대로 聖神씩서

自己 百姓을 罪의 奴隸된 地位에서 自由함에 引導하시니라 (요 十六〇十三、八〇卅

二) 又로 六〇十四 言과 又치 「大概 罪가 爾等을 主管치 못함은 爾等이 法下에 屬하지 안코 恩惠下에 屬하

이라」 한 엿는 니라

二、保護한 심, 이스라엘 百姓이 애굽에서 出去時에 一種 大危急함을 當한 엿는 디 바

로 後를 襲來하고 紅海와 山間에 잇서 脫出할 路가 도모지 업섯스니 異蹟아 니코는

될 수 업슬 時에 하는 님씩서 自己의 無限한 神權能으로 救援한 셧는 니라 救援함을 受한

者들이 하는 님을 依賴하고 順從만 한 면늘 그와 又치 救援한 심을 受할 거시 니라

三、豐足히 飼한 심, 出十五〇廿二 以下로 十六〇言은 自己의 救贖한 신 百姓을 爲한





티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게 救贖을 심을 廣告하고 其羊을 잡는 것과 其血을 門闌에 바

르 此 救贖을 指함으로 吾儕의 크신 救贖者의 類範이 되는 니라

此 救贖을 指함으로 大綱으로 말하면 二種인 디 死亡에서 救贖에 至함과 死함으로 救

援에 至함이 니라

(一) 羊을 잡아서 其血을 바르느 理致는 何意義요 (二) 하는 님씩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

굽에서 救贖을 實時에 何如하야 此보다 尤易한 方策으로 아나 하섯는 요 (三) 何如하야

死亡을 시 權能과 榮光으로 救贖치 아나 하섯는 요 此問題中에 福音의 眞理가 있스니

聖潔하신 하느 님씩서 罪人中에 入往하시면 罪價로 諸人이 死할 수 外에 업는 니라 萬一

慈悲하신심으로 價贖을 容恕할 실 것 又하면 其의 義를 廢하시겠는 故로 入往하시기 前에

彼等이 죽을 수 밖과 업는 거 先 廣告하시 百姓들 노하야 吾彼等 罪를 恕드라 自服하

는 뜻으로 彼等 代身에 羊들을 殺케 하심 이라 (겔 20)에 當時이 שראל 百姓의 形便

을 指하야 말하엿는 디 其 百姓들이 極히 惡함으로 애 人과 分揀이 업다 하엿는 니라

느니라 우려 더 욱긴하신자 吾儕가尤極深思할거슨何時던지하는님의言外에는世上을勝하는方策이 업느니라

八、對敵함을當(出七〇十一、廿二)에 굽바로의命命대로에 굽에 있는諸巫覡와 술객과 術客들이 各々自己의 밋는異端의 術法으로 모세를對敵하러 왔는디 (딤후三〇八)

안네와 암브레) 此人들은心이 문히졌고 信仰을棄한人들의代表者가 된것又치예수

를第一逼迫하고對敵한人들은바리시敎人과사두개敎人과해롯黨인디其人들도心

이문히졌고異端의代表로예수님의仇讎가되어眞福音을밋는者들을迷惑시키려

고하엿느니라(마十二〇十四)

모세의 四種大職分으로顯出함

一 救贖하는者、二代求하는者、三中保、四律法을授하는者

一、救贖하는者

出十二〇言은逾越節羊의血노由하야奴隸의地位에서救贖하는理致를指하심인

거시아니로되四十年間牧者노릇하면서精神업는羊群을保護하는中에仁愛와良善

과謙遜함을學하듯하니라그와又치마十一〇廿九言대로예수께서曰「我는心이溫柔

하고謙遜하니我를學하라」하셨는니라

七、決心함(히十一〇廿四-六) 모세는年이四十歲나되어서大試驗을밧았는디強

盛함에國國公主의養子로權勢와榮光과尊貴를受할가或은하는님의百姓으로더브

러苦難과悲痛을其의許諾하신바救援함에至할時々지當할가此中間에서躡踏할時

에헝七〇七言하신바「又曰 奴隸를삼는國을我가罪로定하리니後에彼等이將次出하야此處에서

我를事하라」고신하는님의言을依하야心을곳개作定하코此大試驗을善勝함으로救

贖함을밧는무리의引導者가됨과又치吾主예수께서도大試驗을受하신中에此世에

王되魔鬼가天下萬國과其榮光을示하코골으디萬一我개伏하야拜하면此諸件을주

리라할때에(마四〇八、九)主께서곳答하시기를「사단아退去하라記錄하엿스디主爾의하는님

에敬拜하고오직其를奉事하라하엿다」하셨스니하는님의言을依함으로此大試驗을勝하섯

스도는人民을救援하시러 오신줄醒悟치못함으로예수를밋지아니할썬더러殺하시  
지시였느니라

四、持別히預備함을受함(出三〇一十)모세가荆棘에火붓는거슬볼時에當時

까지하던牧者의業을브리고이스라엘百姓을救援하는事를함으로하는님의經綸을

成就할줄醒悟함과치마三〇十七言대로예수는洗禮를받고聖神의臨함을受함

실時브러나사렛木手業을브리고이스라엘百姓과全世에相關된事를하시始作하시  
느니라

五、救援하시러遣함심(出三〇)하는님의言約대로이스라엘百姓은하는님의特別

한百姓이된故로모세가더희를奴隸노릇하는地位에서救援하시러온것과又치눅四〇

十六廿一言대로예수께서會堂에서사六十一〇言을朗讀하신後에自己가하는님께

기름부음을 받은자 구원 의향 마르처

注油함을受함者로救援하시러온意向을教하시느니라

六、謙遜함(民十二〇三)모세의爲人이天下萬民보다甚히謙遜함은本來그런

모세의 歷史를 探考할 것<sup>살과 볼</sup> 또 한편에 수님의 類範되는 거시<sup>그 범주</sup> 如左하니<sup>어라</sup>

一、出生<sup>출생</sup>함(출<sup>출</sup> 一〇廿二一〇) 애굽<sup>왕</sup>王이 이스라엘의 男兒<sup>사나와 어린</sup>를 滅亡<sup>멸망</sup>시키니 法令<sup>법령</sup>下

에 出生<sup>리출생</sup>한 것과 又<sup>또</sup> 처마<sup>말</sup> 二〇十六<sup>말</sup> 言대<sup>말</sup>로 예수께서도 헤롯王<sup>왕</sup>이 二歲<sup>두살</sup>以下<sup>이하</sup>되는 男子<sup>남자</sup>를 다

滅亡<sup>멸망</sup>시키시는 境遇<sup>경우</sup>에서 出生<sup>출생</sup>하셨는니라

二、保護<sup>보호</sup>함을 受<sup>받음</sup>함(출<sup>출</sup> 二〇六十一) 애굽<sup>공주</sup>公主가 모세를 養子<sup>양자</sup>로 삼아 기르고 保護<sup>보호</sup>함과

又<sup>또</sup> 처마에 수께서도 幼時<sup>어릴때</sup>에 애굽<sup>땅</sup>地에서 保護<sup>보호</sup>함을 받으심이라(마 二〇十三一五) 애굽<sup>어</sup>이요

셈과 야곱의 全家<sup>원가족</sup>族과 모세와 예수를 皆<sup>다</sup> 保護<sup>보호</sup>한 거시하는 尼씨<sup>빛</sup> 價<sup>대</sup>준 것과 又<sup>또</sup> 하니 사十九

〇 廿二五<sup>말</sup> 言대로 이스라엘과 애굽<sup>왕</sup>과 맞수르가 相合<sup>서로 합</sup>하야 世上<sup>세상</sup> 中<sup>가운데</sup>에 福<sup>복</sup>을 施<sup>베풀</sup>케 하심으로

하는 尼씨<sup>빛</sup> 價<sup>대</sup>를 報<sup>보</sup>給<sup>함</sup>하심과 又<sup>또</sup> 하니라

三、排斥<sup>배척</sup>을 受<sup>받음</sup>함(出<sup>출</sup> 二〇二十一十四) 모세가 自己<sup>자</sup> 百姓<sup>백성</sup>을 幫助<sup>도</sup>하<sup>자</sup>라고 할 때에 이스

라엘 百姓<sup>백성</sup>들이 모세가 自己<sup>자</sup>를 救<sup>구</sup>援<sup>원</sup>할 줄 노 醒<sup>깨</sup>悟<sup>닫</sup>치 못하<sup>고</sup> 怨<sup>원</sup>望<sup>망</sup>함을 又<sup>또</sup> 처마 一〇十一<sup>말</sup> 言대

로 예수께서 自己<sup>자</sup> 地<sup>지</sup>에 와도 其<sup>그</sup> 百姓<sup>백성</sup>이 待<sup>대</sup>接<sup>접</sup>지 아니하니라 當<sup>그</sup>時<sup>때</sup>에 유대<sup>사</sup>人<sup>들</sup>들이 예수 그리

주에 수님의 類範

主에 수님의 類範

(주에 수님의 그림자)

故 조르저, 솔다우牧師 著述

文學學士 蘇悅道牧師 翻譯

引導者 (인도자)

一, 모세

모세는 이<sup>외성</sup>스라엘<sup>외성</sup>百姓을 애<sup>나오게</sup>굽에서 出來케 하<sup>나오게</sup>고 여호수아는 許諾<sup>허락</sup>하<sup>사오</sup>신 地<sup>드러가게</sup>로 入去케 하<sup>위</sup>

엿<sup>몬져</sup>는 니하<sup>말미암아</sup>는 님<sup>나오게</sup>되셔 여호수아로 由<sup>말미암아</sup>하<sup>나오게</sup>야 이<sup>외성</sup>스라엘<sup>외성</sup>百姓을 許諾<sup>허락</sup>하<sup>사</sup>신 地<sup>드러가</sup>에 入去<sup>위</sup>하<sup>위</sup>기 爲<sup>위</sup>하<sup>위</sup>

야 爲<sup>몬져</sup>先<sup>말미암아</sup>모세로 由<sup>말미암아</sup>하<sup>나오게</sup>야 出來케 하<sup>나오게</sup>니 모세는 百姓<sup>외성</sup>의 가<sup>사롱</sup>는 主<sup>주장</sup>掌<sup>주장</sup>하<sup>사롱</sup>는 人<sup>사롱</sup>이 오<sup>사롱</sup>여 呼<sup>사롱</sup>수

아는 百姓<sup>외성</sup>의 가<sup>완전</sup>는 主<sup>완전</sup>掌<sup>완전</sup>하<sup>완전</sup>는 人<sup>완전</sup>이 呼<sup>완전</sup>수 呼<sup>완전</sup>는 自己<sup>자공</sup>의 百姓<sup>외성</sup>을 奴隸<sup>우리</sup>의 地位<sup>밋음</sup>에 서<sup>주장</sup>나 오<sup>주장</sup>게 하<sup>완전</sup>셨스니 必<sup>반국</sup>

是<sup>사복디</sup>福<sup>드러가게</sup>地<sup>드러가게</sup>에 入去케 하<sup>드러가게</sup>실거시니라

行<sup>행</sup>하는 것을 표<sup>표</sup>하는 사람이 되었<sup>사람</sup>고 아모스二〇十一、二言中에 이스라엘民의 罪<sup>죄</sup>가 甚<sup>甚</sup>히 크

게 됨은 하는 님의 恩惠<sup>은혜</sup>를 蔑視<sup>멸시</sup>하고 나시르의 試驗<sup>시험</sup>을 식혀 誓約<sup>서약</sup>대로 하지 못하게 葡葡<sup>포도</sup>

酒<sup>주</sup>를 飲<sup>먹</sup>게 함이라 이 일은 百姓<sup>백성</sup>들이 幾許<sup>얼마</sup>나 하는 님을 멀니 離<sup>떠</sup>는 거슬<sup>는</sup> 마르치는 證據<sup>증거</sup>니라

以上<sup>이우</sup>에 도말하였거니와 나시르 誓約<sup>서약</sup>의 本意<sup>본뜻</sup>는 사람이 區別<sup>구별</sup>하여 호와 씨 屬<sup>속</sup>을 뜻시니

나시르가 社會<sup>사회</sup>上<sup>상</sup>交際<sup>교제</sup>에 對<sup>대</sup>하여도 自己<sup>자기</sup>를 善克<sup>잘이</sup>하는 人<sup>사람</sup>인 즉 吾信者<sup>우러잇는자</sup>와 又<sup>또</sup> 혼거슨 요十七

〇十五、六에 잇는 言<sup>말</sup>과 又<sup>또</sup> 世上<sup>세상</sup>에 居生<sup>거성</sup>할지라도 世上<sup>세상</sup>에 屬<sup>속</sup>하지 아니할거시오 又<sup>또</sup> 나시

르가 私慾<sup>사욕</sup>을 克<sup>이</sup>하는 거슬 표<sup>표</sup>하는 禮式<sup>례식</sup>을 行<sup>행</sup>하며 自己<sup>자기</sup>를 하는 님의 獻<sup>드</sup>하는 거스로 표<sup>표</sup>함과 又<sup>또</sup>

치 吾信者<sup>우러잇는자</sup>도 十二〇一、二에 잇는 言<sup>말</sup>과 又<sup>또</sup> 吾儕<sup>우리</sup>身<sup>몸</sup>으로 산 祭祀<sup>제사</sup>를 드러 聖潔<sup>거룩</sup>하고 하는

님을 喜悅<sup>기쁘</sup>케 하는 事<sup>일</sup>을 行<sup>행</sup>할지니라



이길게자란거슨하는님의事役을行하는表된祭司長의冠과又치頭上에表가됨이라

예수當時에헤롯의(建築)聖殿內女人의場에는나시르禮式을行하기爲하야

特別房屋一座가있섯는디誓約期限이滿時에三種祭祀를獻하고나시르가其房에入

력가불을피우고和睦祭에서남는肉을炙吃하고削頭髮을燒火하였는나라

本來頭髮을삭고燒火하는거시聖幕門前에서行禮式이나數百年을過後에는

漸次變하야나시르가他處에있서誓約期限을當하면何處에있던지頭髮을삭그나該

頭髮은聖殿에가져다가淨潔케하는禮式을行하는法이잇는디如斯法을思하즉바

울使徒가一次그레아에서頭髮을삭금은(行十八〇十八)其時에何許誓約의期

限이滿故르삭것스나예루살렘에上往하야諸般禮式을盡成하듯하며又行廿一〇廿

四과其下에記錄言은艱難人四名이나시르誓約事에對言辭이니當時에바울

使徒가모세의法을自己가輕忽히여이지아니하거슬認證하려고該誓約호四人을爲

하야禮物의價를自擔하거시니라哀歌七〇四을보면나시르가하는님前에서淨하게

며 凡事에 淨潔하게 하야 自己를 하는 님이 드리며 親族關係라도 棄하는 意는 卽나시르

法의 原意라 然이나나시르 誓約하는 人이 祭司長職分맞는 거시 아니라 但 祭司長이 不

得已하야 行하는 諸般法을 自願하야 自己의 法으로 定하는 거시 自己를 하는 님이 드

리는 人으로 思하야 하는 님을 對敵하는 習慣을 棄하는 뜻시니라

頭髮을 絜지 아니하는 第二法의 裏意를 思할진디 民六〇七、九에나시르의 絜지 아니

하 頭髮은 區別하는 表即히브리原文대로 冕旒冠이니 祭司長의 쓰는 冠과 (出廿九〇

六) 頭上에 注油(레廿一〇十二)와 又 絜시라 絜하레 廿五〇五、十一言을 보나 安息

年과 禧年에 栽培치 아니하고 摘지 아니하 葡萄樹는 히브리原文에나시르 樹라 絜였스

니 頭髮을 絜지 아니하 絜시 其事로 因하야 現出하며 定한 期限間에 葡萄樹實果를 普通

으로 用치 아니하 葡萄樹가 제대로 長成하는 거시 許諾하야 하는 님이 獻하 禮物노 思

함 又 치나시르의 頭髮은 力과 生氣의 表니 定한 期限間에 表되는 頭髮을 絜지 아니함은

나시르의 身體가 完全히 하는 님의 禮物이 되여 力은 하는 님을 奉事하는 力이 되고 頭髮

나시르 誓約

있는火로燒흔거슨祭壇에서人의血로祭祀를獻하 지 못하 나人의力과生氣를表하 는  
바身體에서生흔頭髮을獻하거시니라

나 시 르 誓 約 法 이 어 디 서 성 겹 는 지 詳 細 히 알 수 업 스 나 古 代 國 風 中 에 서 난 듯 하 니 誓

約 하 는 意 義 를 知 코 저 하 면 舊 約 言 을 研 究 하 여 야 覺 知 할 수 있 는 니 라 以 上 記 錄 하 민 數

記 六 章 言 을 보 니 나 시 르 誓 約 矣 스 卽 獻 身 하 는 意 義 가 分 明 하 니 何 許 人 이 何 意 義 로 如

斯 히 獻 身 하 는 나 問 할 진 디 何 許 博 士 가 說 明 하 기 를 葡 萄 農 事 는 文 明 表 이 니 葡 萄 汁

을 禁 하 는 것 과 頭 髮 을 삭 지 안 는 거 스 나 시 르 가 하 는 님 과 人 의 間 에 交 際 하 는 거 스 막 는

文 明 과 關 係 업 는 거 스 指 하 는 神 靈 的 禮 式 이 라 하 나 유 대 博 士 필 노 (Philo) 와 有 名 하 라

비 마 이 몬 이 데 (Maimonides) 氏 가 말 하 기 를 此 三 種 禁 하 는 法 이 나 시 르 誓 約 과 祭 司 長 職

分 과 相 關 됨 을 指 하 듯 하 다 하 니 第 一 法 은 례 十 〇 九 과 其 下 로 記 錄 하 祭 司 長 禁 酒 法 과

又 卽 第 三 法 은 례 廿 一 〇 一 一 에 現 出 하 는 祭 司 長 이 死 하 尸 體 에 逼 近 하 지 말 나 는 法

과 又 하 니 라 祭 司 長 의 行 爲 에 關 하 裏 意 는 何 이 던 지 死 하 屍 體 과 腐 하 屍 體 과 相 關 치 아 니 하

과 又 하 니 라 祭 司 長 의 行 爲 에 關 하 裏 意 는 何 이 던 지 死 하 屍 體 과 腐 하 屍 體 과 相 關 치 아 니 하

神 學 指 南

며 하나 는 번제 후 머리 를 거룩 제 전 서 약 날 一은燔祭로 드린後에頭髮을 다시聖潔케 하여前誓約대로 하던日을勿論하고 다시

始作하여 일년 어린양 유전제 서 약 기한 一年된羔羊으로贖愆祭를 드릴거시라誓約의期限이 차면나시르가三種祭

祀를 드릴거신디 일년 암양 유죄제 일년 수양 번제 또 수양 화목 一年된牝羊으로贖罪祭와 一年된牡羊으로燔祭와 又牡羊으로和睦

祭를드리며 그밖의 누룩업는색을광주리와 기름 섞근 고온일가로 만든색 기름마른 누룩업는전병 其外에無酵餅一筐과油로和한細麥粉으로製한餅과塗油한無酵煎餅과

素祭物과奠祭物을드렸는디 이네 가지법 누룩업는색일병 전병일기 此四種法을싸라無酵餅十塊와煎餅十個로드렸는니라

此物을獻한後에는 성소앞에 머리 를 화목제물 너려살오 재소장 삼은 聖所前에서頭髮을삭가髮은和睦祭火에投燒하고祭司長이烹한

牡羊의前脚과筐中에無酵餅하나와無酵煎餅하나를取하여나시르의手에두고搖한

야여호와前에搖祭로드리고 그후 또도주 마실 其後에는나시르가葡萄酒를飲할수가잇섯는니라

右에말한三種祭祀中燔祭의義는身을完全히하는 뜻스음 완전 화목제 身을完全히하는니씩獻하는意義요贖罪祭의義

는誓約을守할間에犯한罪를업시하는意義이며和睦祭는하는니과完全히和睦하며

感謝하는意義를指함이니 이세 가지제수 합동 화가시 일을마르치 뜻스 그예드며 此三種祭祀가合同하여一種事를指하는意義로其時獻한

는禮物은皆同樣種類이니 뜻어린양 한마리 수양 한마리 암양 한마리 작근 머리일 제단 卽羔羊一頭와牡羊一頭와牝羊一頭라削한頭髮을祭壇에

나시르誓約

生 나 시 르 가 되 었 는 니 라

民 六〇 에 記 錄 法 을 말 하 면 三 個 條 件 이 있 는 니 一 은 葡 萄 汁 과 諸 毒 酒 를 禁 하 디

醋 나 何 者 던 지 葡 萄 汁 으 로 만 든 飲 料 과 葡 萄 樹 에 서 나 는 核 브 러 皮 사 지 먹 는 거 슬 禁 하 음

이 오 二 는 頭 髮 을 削 지 아 니 할 썬 아 니 라 削 刀 라 도 首 에 디 이 지 못 함 이 오 三 은 尸 體

를 摩 하 야 自 己 를 不 淨 하 게 못 할 지 니 父 母 나 兄 弟 나 姊 妹 가 死 할 지 라 도 其 尸 體 있 는 디

로 가 지 못 할 거 시 니 라 其 外 에 何 者 를 禁 하 는 法 이 업 는 니 人 을 交 際 하 는 事 도 禁 하 지 아

니 하 고 獨 身 者 되 는 것 도 命 하 지 아 니 하 었 는 니 라

誓 約 의 期 限 을 말 하 면 第 一 條 을 지 라 도 一 個 月 間 을 하 는 디 以 上 三 種 禁 하 는 法 中 에

士 十 三 〇 四 과 其 下 로 記 錄 言 을 보 니 第 一 二 條 件 은 平 生 나 시 르 와 相 關 되 고 삼 상 一

〇 十 一 을 보 면 第 二 法 만 現 出 하 며 十 一 〇 十 五 에 는 第 一 法 만 現 出 하 는 니 라

나 시 르 가 誓 約 을 守 할 間 에 意 外 에 死 體 에 逼 近 하 야 不 淨 케 되 면 作 定 한 潔 禮 日 卽 第

七 日 에 ( 民 十 九 〇 十 一 ) 頭 髮 을 삭 고 第 八 日 에 鳩 雛 二 首 들 드 러 一 은 贖 罪 祭 로 드 리

세 가지 조건  
포도즙  
모든 독주  
머리  
삭도  
머리  
죽음  
그시  
사슴  
교제  
아우에 세가지금  
법중  
상관  
상  
첫재법  
나타나  
작명  
절  
일곳  
에

# 나 시 르 誓 約

(나 시 르 서 약)

文學文士 魚除萬牧師 譯述

大抵 모세의 律法대로 하는 誓約中에 第一 緊重한 誓約은 나 시 르 誓約이라 此 나 시 르

라 하는 말은 히브리 方言을 隨하여 區別한다는 意義니 卽何者를 禁하는 誓約인디 (民

六〇一廿一) 나 시 르란 人은 自己를 區別하여 호와 歃身한 者니라 (民六〇二와

五를 比較) 民六〇에 顯現한 나 시 르 禮法은 삼손과 삼우엘과 洗禮요한과 又 此 平生 守

는 誓約이 아니오 自願하여 臨時로 하는 誓約을 指함인디 삼손은 母胎로 브터 나 시 르

人으로 定하였고 (士十三〇五, 六十六〇十七) 삼우엘은 其 母親이 誓約함으로 호와

歃身한 人이 되어 平生에 頭髮을 削지 아니하였스며 (삼上一〇十一) 洗禮요한은 葡

萄酒와 毒酒를 飲치 아니하고 母胎로 브터 聖神을 特別히 받았스니 (눅一〇十五) 此

三人은 主의 召함을 被하여 이 스라엘의 宗敎上 復興을 식히는 職分을 受한 故로 平

神 學 指 南

야 설립 원후 불변  
夜를設立한原則이不變함과  
又變치 아니하시리라 (렘卅三〇卅, 卅一) 然이나此意

은 유대인은 한 사람도  
는 유대인은一人이라  
도 브림을當하지 아니하시리라  
舊約時에 하시는  
을

비판자 지금 비판자  
背反者와只今그리스도를背反하는者는  
만다시 브림을當하지 오오  
직約條의百

성 보존  
姓만 보존함을엇을거시라  
此許諾은一便으로는그리스도로由야  
일우워졌스나  
가

나안지에對許諾은  
아직應하지 아니하였스니  
此는何時에應할거신지  
모르나  
吾儕

가分明히아는거슨이거시니  
하는님의말씀이虛言되지  
못할거슨確實하시라  
多年間

유대인이가나안地即발네스  
디나에만히도라가서居하는  
事도있고  
現今英國軍隊가

이은此이땅토이과  
此全地를異邦土耳其의  
手에서取하였고  
英國政府는此地를  
유대인의게  
주기로許諾

하였스니  
意料컨디此戰爭이  
국後에는有史以來로  
未曾有하던  
유대인의回復이  
事

실상실현  
實上實現될듯하시라  
天下各處에居하는  
유대인이  
임의米國에會集하시  
야  
가나안地를

회복기爲하시야  
幾百萬弗을義捐한  
事까지  
있느니라  
갑도다  
하는님의智慧와智識의

豊富함이여  
其判斷하시느거슨  
可히測量치못하며  
踪跡도  
찾지못하겠도다

섯는니라 (行一〇六七)

七、使徒<sup>수도</sup> 바울이로十一〇一에하는님이其民을브리섯는노<sup>구박성</sup>호<sup>문대</sup>문제에决斷<sup>결단</sup>코아니라

答<sup>답</sup>호<sup>그</sup>엿고하는<sup>그</sup>님씩서其舊民을對<sup>대</sup>호<sup>설명</sup>야엇더케<sup>완악</sup>호<sup>전</sup>신거슬說明<sup>전부</sup>호<sup>전</sup>제그브리선거슨全部

가아니오다<sup>부분</sup>단部分에지나지아니<sup>이</sup>함을<sup>구원</sup>마르쳐「더러는頑惡<sup>완악</sup>호<sup>구원</sup>재<sup>전</sup>되엇다」호<sup>전</sup>엿고(로十

一〇廿五) 하는<sup>이</sup>님씩서異邦人을<sup>구원</sup>救<sup>구원</sup>호<sup>구원</sup>실<sup>구원</sup>진<sup>구원</sup>디自己親民의<sup>구원</sup>게야<sup>구원</sup>더<sup>구원</sup>욱<sup>구원</sup>救<sup>구원</sup>호<sup>구원</sup>을<sup>구원</sup>배<sup>구원</sup>프시

지아니호<sup>구원</sup>시<sup>구원</sup>라<sup>구원</sup>卽自己의<sup>구원</sup>橄欖樹에<sup>구원</sup>다<sup>구원</sup>시<sup>구원</sup>接<sup>구원</sup>붓<sup>구원</sup>치<sup>구원</sup>심<sup>구원</sup>을<sup>구원</sup>엇<sup>구원</sup>지<sup>구원</sup>못<sup>구원</sup>호<sup>구원</sup>리<sup>구원</sup>오<sup>구원</sup>호<sup>구원</sup>엿고(로十一〇

廿四) 또<sup>구원</sup>分明<sup>구원</sup>히<sup>구원</sup>說明<sup>구원</sup>호<sup>구원</sup>여<sup>구원</sup>글<sup>구원</sup>으<sup>구원</sup>디<sup>구원</sup>유<sup>구원</sup>대<sup>구원</sup>人의<sup>구원</sup>브<sup>구원</sup>림<sup>구원</sup>을<sup>구원</sup>當<sup>구원</sup>호<sup>구원</sup>거<sup>구원</sup>슨<sup>구원</sup>臨<sup>구원</sup>時<sup>구원</sup>로<sup>구원</sup>된<sup>구원</sup>거<sup>구원</sup>시<sup>구원</sup>니<sup>구원</sup>異<sup>구원</sup>邦<sup>구원</sup>人

의<sup>구원</sup>滿<sup>구원</sup>數<sup>구원</sup>가(原文<sup>구원</sup>대로)드<sup>구원</sup>러<sup>구원</sup>오<sup>구원</sup>기<sup>구원</sup>서<sup>구원</sup>저<sup>구원</sup>라<sup>구원</sup>호<sup>구원</sup>엿스<sup>구원</sup>니<sup>구원</sup>此<sup>구원</sup>諸<sup>구원</sup>聖<sup>구원</sup>經<sup>구원</sup>句<sup>구원</sup>節<sup>구원</sup>을<sup>구원</sup>보<sup>구원</sup>면<sup>구원</sup>하<sup>구원</sup>는<sup>구원</sup>님이<sup>구원</sup>丁

寧<sup>구원</sup>히<sup>구원</sup>其<sup>구원</sup>親<sup>구원</sup>民<sup>구원</sup>유<sup>구원</sup>대<sup>구원</sup>人을<sup>구원</sup>回<sup>구원</sup>復<sup>구원</sup>호<sup>구원</sup>시<sup>구원</sup>며<sup>구원</sup>가<sup>구원</sup>나<sup>구원</sup>안<sup>구원</sup>地<sup>구원</sup>를<sup>구원</sup>다<sup>구원</sup>시<sup>구원</sup>주<sup>구원</sup>샤<sup>구원</sup>永<sup>구원</sup>遠<sup>구원</sup>도<sup>구원</sup>록<sup>구원</sup>居<sup>구원</sup>호<sup>구원</sup>게<sup>구원</sup>호<sup>구원</sup>시<sup>구원</sup>고<sup>구원</sup>彼<sup>구원</sup>輩<sup>구원</sup>의

로<sup>구원</sup>호<sup>구원</sup>여<sup>구원</sup>곰<sup>구원</sup>그<sup>구원</sup>리<sup>구원</sup>스<sup>구원</sup>도<sup>구원</sup>를<sup>구원</sup>밋<sup>구원</sup>게<sup>구원</sup>호<sup>구원</sup>실<sup>구원</sup>줄<sup>구원</sup>알<sup>구원</sup>거<sup>구원</sup>시<sup>구원</sup>라<sup>구원</sup>렘<sup>구원</sup>卅三〇七,八에<sup>구원</sup>보<sup>구원</sup>면<sup>구원</sup>하<sup>구원</sup>는<sup>구원</sup>님이<sup>구원</sup>씩<sup>구원</sup>서<sup>구원</sup>彼<sup>구원</sup>輩<sup>구원</sup>의

捕<sup>구원</sup>擄<sup>구원</sup>된<sup>구원</sup>者<sup>구원</sup>를<sup>구원</sup>들<sup>구원</sup>녀<sup>구원</sup>보<sup>구원</sup>니<sup>구원</sup>고<sup>구원</sup>彼<sup>구원</sup>輩<sup>구원</sup>의<sup>구원</sup>犯<sup>구원</sup>호<sup>구원</sup>罪<sup>구원</sup>를<sup>구원</sup>씩<sup>구원</sup>곳<sup>구원</sup>호<sup>구원</sup>게<sup>구원</sup>호<sup>구원</sup>시<sup>구원</sup>겟<sup>구원</sup>다<sup>구원</sup>호<sup>구원</sup>섯<sup>구원</sup>스<sup>구원</sup>니<sup>구원</sup>此<sup>구원</sup>는<sup>구원</sup>그<sup>구원</sup>리<sup>구원</sup>스<sup>구원</sup>도

로<sup>구원</sup>말<sup>구원</sup>미<sup>구원</sup>암<sup>구원</sup>아<sup>구원</sup>聖<sup>구원</sup>潔<sup>구원</sup>호<sup>구원</sup>여<sup>구원</sup>짐<sup>구원</sup>을<sup>구원</sup>마<sup>구원</sup>르<sup>구원</sup>친<sup>구원</sup>거<sup>구원</sup>시<sup>구원</sup>라<sup>구원</sup>하<sup>구원</sup>는<sup>구원</sup>님이<sup>구원</sup>己<sup>구원</sup>民<sup>구원</sup>으로<sup>구원</sup>더<sup>구원</sup>브<sup>구원</sup>러<sup>구원</sup>제<sup>구원</sup>우<sup>구원</sup>신<sup>구원</sup>約<sup>구원</sup>條<sup>구원</sup>는<sup>구원</sup>畫

히<sup>구원</sup>는<sup>구원</sup>님의<sup>구원</sup>約<sup>구원</sup>條



二、其時<sup>그때</sup>는 다만 一國<sup>한 나라</sup>에서 도라왔스되 以上<sup>이상</sup> 聖經<sup>성경</sup> 句節<sup>구절</sup>을 보면 萬國<sup>만국</sup> 卽地<sup>곳</sup>의 四隅<sup>네모</sup>에서 도

라 오리라 하였고 (사 十一 〇 十一、二)

三、사 十一 〇 十一 에는 第二<sup>둘</sup> 回復<sup>회복</sup>을 말한 거시오 (히브리 原文<sup>원문</sup>에 「다시」란 말은 第二<sup>둘</sup> 次<sup>차례</sup>라 함)

次<sup>차례</sup>라 함)

四、렘 卅 四 〇 六 에 (原文<sup>원문</sup>대로) 曰<sup>말하</sup> 余<sup>나</sup> 가 彼輩<sup>그들</sup> 들 세우코 毀破<sup>파괴</sup> 처 아니 함며 彼輩<sup>그들</sup> 들 심으

코 拔去<sup>뽑아내</sup> 처 아니 함리 라 함섯코 卅 九 〇 卅 九 에 曰<sup>말하</sup> 余<sup>나</sup> 가 다시 余<sup>나</sup> 의 顔<sup>얼굴</sup> 을 彼輩<sup>그들</sup> 의 게 서 隱蔽<sup>가려우</sup>

치 아니 함리 라 함섯스니 此<sup>이</sup> 는 彼輩<sup>그들</sup> 가 最終<sup>마지막</sup> 回復<sup>회복</sup> 을 엮은 後<sup>후</sup> 에 (卅 八 節) 다시는 彼等<sup>그들</sup> 의

故土<sup>고토</sup> 에서 쫓겨나 지 아니 함거 슬 마 르 침 이 라 바 벨 론 으 로 브 러 드 라 온 거 시 永遠<sup>영원</sup> 한 回復<sup>회복</sup>

이 아 닌 거 스 何人<sup>아모사</sup> 이 라 도 알 터 이 니 自今<sup>이제</sup> 으 로 最終<sup>마지막</sup> 回復<sup>회복</sup> 이 永<sup>영원</sup> 遠<sup>회복</sup> 한 回復<sup>회복</sup> 이 되 리 라

五、彼輩<sup>그들</sup> 의 許諾<sup>허락</sup> 地<sup>땅</sup> 의 全<sup>전</sup> 部<sup>부</sup> 를 엮 지 못 함 고 다 만 一<sup>한</sup> 部<sup>부분</sup> 만 (南<sup>남</sup> 方<sup>방</sup>) 엮 었 느 니 라

六、弟<sup>제</sup> 子<sup>자</sup> 들 이 에 수 석 問<sup>무엇을</sup> 曰<sup>말하</sup> 이 스 라 엘 國<sup>나라</sup> 을 回<sup>회</sup> 復<sup>복</sup> 할 時<sup>때</sup> 가 此<sup>이</sup> 時<sup>때</sup> 오 닌 가 할 時<sup>때</sup> 에 예 수 석 서

다 시 는 回<sup>회</sup> 復<sup>복</sup> 이 엽 스 리 라 함 지 아 니 함 서 고 다 만 何<sup>어</sup> 時<sup>때</sup> 에 될 년 지 爾<sup>너</sup> 等<sup>희</sup> 의 알 거 시 아 니 라 함

이 땅  
此地를 주겠노라

以上七個許諾中第七卽 유대인의게가나안地許諾한 것을 연구하든  
或은

曰 유대인이 하는님을 反逆하고 特別히 예수 그리스도를 棄한 것으로 由하야 하는님  
말씀이다

으로 하여곰 其約條의 義務에 버셔나게 할故로 彼輩는 許諾엇은가나안地에 드러가지  
그약도 의무

못할다고 하는 사람이 잇스나 여러先知들이 分明히 說明하여 글이 유대인이 비록 順從  
사도

치아니 함을 因하야 萬國에 赫赫질지라도 終末에는 彼輩가 故土에 다시 모혀 回復하리  
만국

라 하였도 하는님씩서 일즉 이 글이 사대 他國은 全滅하되 유대인은 全滅하지 아니하겠  
다른나라는 전멸

다 하신 言辭도 잇스니 렘四十六〇廿七、八、十六〇十四、五、廿三〇三、卅一〇卅二、三特別  
말씀

히겔十一〇十三、卅一、卅七〇廿一、廿八、卅九〇廿五、九言을 參考할거시니 或者此預  
참고

言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引導로 바벨론에서 도라온時에 應하였다 하나  
인도

以下 몇가지 條件을 보면 此로써 正當한 解釋이라 하기에 어려오나  
이아라 조건 이 정당 해석

一、其時에 도라온 人數는 比較的 少數요  
인수 비교적 소수

하나님의約條

님이신故로 그許諾을 신겨슬 還收할 실수가 업는 나라 人은 何等許諾을 할 後에 或其心

이 變하되 하는 님은 그 러케 할 실수가 업고 하는 님의 주시는 恩惠와 부르심은 何等悔改

할 거시나 變할 거슬 보시고 고할 심이 아니니 (로 十一 〇 廿九) 바울이 갈 三 〇 十七, 八에 特

別히 證據야 글으디 多年 後에 律法이 能히 約條를 破하게 할 수가 업다 고하였는니

라 此 約條를 다윗의 게 할 실 때에 (詩 八十九 〇 卅五) 하는 님이셔 自己의 聖함을 盟

誓하셨다 하였스니 此意는 (히 七 〇 十二, 廿一 四) 에 說明할 거신디 此 約條는 永遠無

變할 거시라는 意義니라 (히 六 〇 十三 一 九)

四、아브라함으로 더 드러 立할 신 此 約條 內에 는 하는 님의 여러 許諾이 잇스니 其 許諾

은 如左함

(一) 爾의 後孫은 大國이 되리라 (二) 爾의 게 福을 주겠노라 (三) 爾名을 크게 할 것

노라 (四) 爾로 由야 多人이 福을 받으리라 (五) 爾를 爲야 祝福하는 者는 福을

받으리라 (六) 萬國 萬民이 爾의 後孫으로 由야 福을 받으리라 (七) 爾의 後孫의

하시고彼輩로더브러하신約條를破하지아니하시리라 (四十四) 若彼輩가固執하시

하는님을不順하면其地에서만다시逐出함을當할거시므로災殃을느리샤彼輩로

여곰悔改케하시終乃回復함을밧게하시리라 (申廿九〇廿四、卅〇一一三代下廿一〇

七) 然則此約條는도모지破할수가업는거슨하는님便으로하면其喜悅하신意대로

條件업시하신거시오百姓便으로하면彼輩가犯罪하는時는懲誡하시야彼輩로하여곰

悔改하며自服하게하시는사들이라

三、하는님씩서己民으로더브러세우신此約條는永遠할거시니 (創十七〇七、八、

詩八十九〇四、廿八卅七) 百姓은何等行爲가있던지能히此로써此約條를破하지못

할지니하는님씩서自己의誠實함을廢하지아니하시겟다고宣言하신事가있는니

라 (詩八十九〇을보되特別히卅三一七을보고又詩百五〇을보되特別히八一十一

을보고로三〇三、四도볼것) 此幾節을보면或信從치아니하는者가있슴으로하는

님씩서一誓로하신許諾을破하시리오諸人類는謊言을할지라도오직하는님은하는

하는님의約條

님의하시겟다<sup>일문</sup>하신사를막아못하시게할수도업는거시라<sup>이약도</sup>此約條의<sup>주요</sup>主要<sup>목적</sup>目的은<sup>그</sup>其民은<sup>평소</sup>何等<sup>행위</sup>行爲를<sup>행</sup>행하던지<sup>불관</sup>不關하고<sup>오직</sup>오직하는<sup>님이</sup>님이스스로<sup>일우</sup>일우게하시는거시라

하<sup>는</sup>님의<sup>통치</sup>統治<sup>심은</sup>심은여<sup>괴</sup>괴서<sup>지</sup>지밋치샤<sup>彼輩</sup>彼輩가<sup>犯罪</sup>犯罪할<sup>時</sup>時는<sup>悔改</sup>悔改케하시며<sup>順從</sup>順從치아니

하<sup>는</sup>時<sup>는</sup>는<sup>懲誠</sup>懲誠하시<sup>샤</sup>샤<sup>悔改</sup>改하시<sup>기</sup>기<sup>서</sup>서<sup>지</sup>지<sup>施罰</sup>施罰하시<sup>샤</sup>샤<sup>곳</sup>곳<sup>치</sup>치게하시<sup>는</sup>는<sup>지</sup>지라<sup>彼等</sup>彼等의<sup>心理</sup>心理<sup>狀態</sup>狀態가<sup>如</sup>如

是<sup>케</sup>케<sup>되</sup>되<sup>매</sup>매<sup>하</sup>하는<sup>님의</sup>님의<sup>此約</sup>此約<sup>條</sup>條<sup>許諾</sup>許諾과<sup>祝福</sup>祝福을<sup>能</sup>能히<sup>다</sup>다<sup>成</sup>成<sup>케</sup>케<sup>하</sup>하<sup>실</sup>실<sup>수</sup>수가<sup>있</sup>있는<sup>니</sup>니라<sup>하</sup>하는<sup>님의</sup>님은<sup>全</sup>全

智<sup>全</sup>全能하시<sup>니</sup>니<sup>조</sup>조<sup>곰</sup>곰<sup>이</sup>이라<sup>도</sup>도<sup>此約</sup>此約<sup>條</sup>條<sup>를</sup>를<sup>破</sup>破<sup>壞</sup>壞<sup>할</sup>할<sup>念</sup>念<sup>慮</sup>慮<sup>가</sup>가<sup>업</sup>업<sup>는</sup>는<sup>거</sup>거<sup>시</sup>시<sup>라</sup>라<sup>又</sup>又<sup>順</sup>順<sup>從</sup>從<sup>하</sup>하는<sup>者</sup>者<sup>를</sup>를<sup>爲</sup>爲<sup>하</sup>하

야<sup>特</sup>特別<sup>히</sup>히<sup>祝福</sup>祝福을<sup>許諾</sup>許諾하시<sup>라</sup>라<sup>(레</sup>(레<sup>廿六</sup>廿六〇<sup>一</sup>一<sup>十三</sup>十三)然<sup>이</sup>이나<sup>如</sup>如<sup>斯</sup>斯<sup>할</sup>할<sup>時</sup>時<sup>도</sup>도<sup>分</sup>分<sup>明</sup>明<sup>히</sup>히<sup>여</sup>여<sup>러</sup>러

번<sup>하</sup>하는<sup>님의</sup>님의<sup>犯罪</sup>犯罪하시<sup>고</sup>고<sup>順</sup>順<sup>從</sup>從<sup>치</sup>치<sup>아</sup>아<sup>니</sup>니<sup>하</sup>하는<sup>者</sup>者의<sup>게</sup>게<sup>는</sup>는<sup>丁</sup>丁<sup>寧</sup>寧<sup>히</sup>히<sup>嚴</sup>嚴<sup>히</sup>히<sup>罰</sup>罰<sup>을</sup>을<sup>느</sup>느<sup>리</sup>리<sup>샤</sup>샤<sup>眞</sup>眞<sup>實</sup>實<sup>히</sup>히<sup>悔改</sup>悔改

를<sup>하</sup>하<sup>게</sup>게<sup>하</sup>하<sup>리</sup>리<sup>라</sup>라<sup>하</sup>하<sup>셨</sup>셨<sup>는</sup>는<sup>니</sup>니라<sup>(레</sup>(레<sup>廿六</sup>廿六〇<sup>十四</sup>十四<sup>一</sup>一<sup>廿七</sup>廿七)然<sup>則</sup>則<sup>此</sup>此<sup>諸</sup>諸<sup>處</sup>處<sup>에</sup>에<sup>分</sup>分<sup>明</sup>明<sup>히</sup>히<sup>顯</sup>顯<sup>示</sup>示<sup>할</sup>할<sup>點</sup>點<sup>은</sup>은<sup>此</sup>此

等<sup>施罰</sup>施罰과<sup>懲誠</sup>懲誠<sup>는</sup>는<sup>반</sup>반<sup>다</sup>다<sup>시</sup>시<sup>彼輩</sup>彼輩로<sup>하</sup>하<sup>여</sup>여<sup>吾</sup>吾<sup>悔改</sup>悔改<sup>케</sup>케<sup>하</sup>하<sup>도</sup>도<sup>록</sup>록<sup>하</sup>하<sup>심</sup>심<sup>이</sup>이<sup>라</sup>라<sup>하</sup>하<sup>거</sup>거<sup>시</sup>시<sup>니</sup>니<sup>레</sup>레<sup>廿六</sup>廿六〇<sup>四</sup>四

十一<sup>四</sup>四十五<sup>에</sup>에<sup>分</sup>分<sup>明</sup>明<sup>히</sup>히<sup>記</sup>記<sup>錄</sup>錄<sup>되</sup>되<sup>었</sup>었<sup>는</sup>는<sup>니</sup>니라<sup>四</sup>四<sup>十</sup>十<sup>節</sup>節<sup>을</sup>을<sup>보</sup>보<sup>면</sup>면<sup>彼輩</sup>彼輩<sup>는</sup>는<sup>반</sup>반<sup>다</sup>다<sup>시</sup>시<sup>自</sup>自<sup>服</sup>服<sup>할</sup>할<sup>거</sup>거<sup>시</sup>시<sup>오</sup>오<sup>四</sup>四

三<sup>節</sup>節<sup>을</sup>을<sup>보</sup>보<sup>면</sup>면<sup>彼輩</sup>彼輩<sup>는</sup>는<sup>하</sup>하<sup>는</sup>는<sup>님의</sup>님의<sup>주</sup>주<sup>시</sup>시<sup>는</sup>는<sup>罰</sup>罰<sup>을</sup>을<sup>順</sup>順<sup>히</sup>히<sup>받</sup>받<sup>으</sup>으<sup>리</sup>리라<sup>然</sup>然<sup>故</sup>故<sup>로</sup>로<sup>그</sup>그<sup>許諾</sup>許諾<sup>하</sup>하<sup>신</sup>신<sup>대</sup>대<sup>로</sup>로<sup>實</sup>實<sup>行</sup>行

百姓은하는님씨對하야他民보다勝함을因하야擇하심을맞은거시아니오數多함을

因하야擇하심도아니니(申七〇七彼輩는數가적은民族이오)聖潔함을因하야擇하

심도아니니彼輩는惡民이오(申九〇四一七)아브라함의割禮밧은일이나其他儀式

的律法을因하야彼를擇하야約條를미지신것도아니니바울이일즉이證明하야글이

티아브라함이其許諾을밧은거슨割禮밧은後가아니오割禮前오린일이라하엿스니

(로四〇以下)然則此約條를세우심은但하는님이其民을愛하심이오그喜悅하신

意대로아브라함으로더브러세우신約條를因하야모든福을彼等의게주고저하심으

로由하거시라(申七〇八)

二、하는님이아브라함으로더브러세우신此約條는오직한가지뜻으로無條件許諾

을세우신거시라하는님씨져아브라함의게나타나샤「爾가如此如此호事를호면余가福을주

겠다」아니하시고但아브라함의게自己의經營하신거슬말씀하신것뿐이라何等條件

도업고彼等의무슨큰罪惡이잇슬지라도此로써此約條의目的을破할수도업고하는

하느님의約條

# 하느님의約條 (하느님의약도)

神學博士 裴裕社牧師 著述

## 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子孫과 하신約條

아브라함과 이스라엘子孫으로 더브러立하신 하느님의約條를研究的으로創世記十五章과十七章을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게 나타나사其喜悅하신意대로彼로 더브러永遠約條를結하신거시니라

此約條와許諾은 이삭의게至야更히確實케하시고 (創廿六〇三一五) 其後야 콧의게至야更히堅固케하시고 (創廿八〇十三一十五) 其後모세의게와 (出六〇二一八)

다위의게도 (삼하八〇十一十七) 그와又치하셨느니라

一、此約條를論하면 하느님便으로는其喜悅하신意대로立하신約條이니 하느님께서其約條를立하신必要도 없고 또한不得已하신것도 아니오 하느님께서擇하신

眞實노善함과仁慈함이我的사는날  
서지我를싸르리니 (百倍)

我が여호와의殿에永遠도록居る리로  
다 (榮光内居處)

라또호此諸物을爾等の게加하시리라  
마六〇 卅三

또我名을爲하야屋宇나兄弟나姊妹나  
父母나子女나田土를棄하는者마다百  
倍나受하고또永生을遺業으로得하리  
라 마十九〇 廿九

我が去하야爾等を爲하야居處를預備  
하리라...我が復來하야爾等を我的  
게로迎接하야我的在處에爾等도在  
케하리라 卽十四〇 二、三



詩廿三篇 (牧者詩)

己名을爲호샤公義의路로引導호시도  
다 (引導호심)

또호 내가 비록死亡의陰沉호谷으로行  
호지라도害밧음을畏懼치아니호은主  
씨서我와호씨게심이라 (同在호심)

主의막닥이와主의집힘이가我를安慰  
호시니이다 (安心)

主씨서我를爲호샤내仇讎前에床을設  
호시고 (飲食)

油로我의首에注호시니 (喜樂)

我의杯가溢호니이다 (滿足호)

四

我가即路요眞理요生命이라 요十四  
〇六

我는世上末日까지爾等과常偕호리라  
마廿八〇廿

女야安心호라 마九〇廿二

父씨서또他保惠師를爾等의게遣호시  
리라 요十四〇十六

我가即生命의糧食이니我의게來호는  
人은飢호지아니호터이오我를信호는  
人은永遠히渴호지아니호리라요六〇  
卅五

我의喜가爾等內에在호야爾等의喜를  
充滿케호이니라 요十五〇十一

爾等은몬져하느님의國과其義를求호

詩廿二篇

(牧者詩)

救主의 言으로 解釋됨

다윗의 言

여호와 되셔 我의 牧者시니라

我게 不足함이 업스리로다

我로 하야 靑草田에 臥케 하시며 (便히 休息함)

潺々하야 水濱으로 我를 引導하시도다 (飲을 거스)

我의 靈魂을 回復하시교 (赦罪하심)

詩廿三篇 (牧者詩)

救主의 言

我는 善호 牧者니라 요 十〇 十一

我名으로 何던지 求하면 我가 施行할거시오 요 十四〇 十四

受苦하야 重擔을 負호 人들은 다 我의 게로 來하라 爾等을 便히 休息케 하리라 마 十一〇 廿八

人이 渴하거든 我의 게로 來하야 飲하라 요 七〇 卅七

爾罪를 赦하엿다 : 人子가 世上에서 赦罪하노 權이 有하니라 마 九〇 二, 六

講道圖型	講道에可用을比辭	牧師體鏡	可用的題目과本文	傳道狀況	卒業生任命과移動	教會事況	書籍에對을鑑定
：	：	：	：	：	：	：	：
：	：	：	：	：	：	：	：
：	：	：	：	：	：	：	：
姜斗松牧師、郭安連牧師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	：	編輯人	：
：	：	：	：	編輯人	：	：	：
：	：	：	：	：	：	：	：
：	：	：	：	：	：	：	：
一〇七	一一一	一三〇	一三七	一四三	一四七	一四九	一五一

# 目次

神			學			指			南			
詩廿三篇	：	(牧者詩)	：	：	：	：	：	：	：	：	：	：
하느님의約條	：	：	：	：	：	：	：	：	：	：	：	：
나시르誓約	：	：	：	：	：	：	：	：	：	：	：	：
주 예수님의類範	：	：	：	：	：	：	：	：	：	：	：	：
예수의誕生年月日	：	：	：	：	：	：	：	：	：	：	：	：
默示錄大概	：	：	：	：	：	：	：	：	：	：	：	：
聖經報講臺中摘要	：	：	：	：	：	：	：	：	：	：	：	：
不信者の卽傳道	：	：	：	：	：	：	：	：	：	：	：	：
牧師의 思想的 生活	：	：	：	：	：	：	：	：	：	：	：	：
罪人을 接對하시느 예수	：	：	：	：	：	：	：	：	：	：	：	：
編輯人	：	：	：	：	：	：	：	：	：	：	：	：
裴裕祉牧師	：	：	：	：	：	：	：	：	：	：	：	：
魚涂萬牧師	：	：	：	：	：	：	：	：	：	：	：	：
蘇悅道牧師	：	：	：	：	：	：	：	：	：	：	：	：
羅富悅牧師	：	：	：	：	：	：	：	：	：	：	：	：
丁義華牧師	：	：	：	：	：	：	：	：	：	：	：	：
車相晋牧師	：	：	：	：	：	：	：	：	：	：	：	：
郭安連牧師	：	：	：	：	：	：	：	：	：	：	：	：
孔韋亮牧師	：	：	：	：	：	：	：	：	：	：	：	：
郭安連牧師	：	：	：	：	：	：	：	：	：	：	：	：
神學博士	：	：	：	：	：	：	：	：	：	：	：	：
神學博士	：	：	：	：	：	：	：	：	：	：	：	：
文學文士	：	：	：	：	：	：	：	：	：	：	：	：
文學文士	：	：	：	：	：	：	：	：	：	：	：	：
神學博士	：	：	：	：	：	：	：	：	：	：	：	：
郭安連牧師	：	：	：	：	：	：	：	：	：	：	：	：
九四												

# CONTENTS

	Page
The Abiding Paraclete (following Andrew Bonar) Editor	3
Mutual Recognition in the Hereafter Rev. C. F. Bernheisel	13
Jericho Rev. W. C. Erdman	20
The Early Irish Church and St. Patrick Rev. W. R. Foote	30
John Eliot Rev. W. M. Baird, D. D., Ph. D.	42
Ancient Mythology Rev. Ch'ay Pilkeun	49
Lectures on Revelation Rev. E. W. Thwing	57
The Armenians Rev. L. O. Mc Cutchen	72
Lectures on Homiletics Prof. J. Burrell	
(3)Opposing Sin, (4)Evangelistic Preaching, (5)After Evangelistic Meetings, tr. Rev. C. A. Clark, D.D.	74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s Rev. J. T. Docking, Ph. D.,	94
Sermons: Abiding in Jesus Rev. O Dukin	106
Opposing and Receiving Jesus Rev. C. A. Clark, D.D.	109
Sermon Outlines Revs. Song Hyunkeun, 118 J. C. Crane; J. E. Adams, D.D., E. J. O. Fraser, W. T. Cook, F. S. Miller	
Illustrations Clarence Edward Rice & Dr. A. T. Pierson	130
The Pastor's Mirror	138
Our Alumni	140
The General Assembly	144
Themes and Texts Selected	147

---

## SUBSCRIPTIONS.

Subscription rates payable in advance	Annual 50 sen	Postpaid
	Single copy 15 sen	„
	In Europe and America Annual 75 sen	„

Send all subscriptions to the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Seoul; all manuscripts to Rev. G. Engel Fusanchin; and all advertising copy and other business communications to Chas. Allen Clark, Seoul, Korea.

---

When writing our advertisers, please mention the Review.

Christian Publishers

We carry the following in stock:

*Every Japanese Christian Publication  
Large Assortment of Bibles, Japanese  
and English; Commentaries, and Gen-  
eral Religious Books, in English;  
Secular Literature.*

Main Depot and Sales Room for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Japan

Waterman's Ideal Fountain Pens

Agents for Underwood Typewriters  
and supplies.

Kyo-Bun-Kwan

1 Shichome, Ginza, Tokyo

이거슨 모든 일본잇는 밋는 최수중 데일 크고 데일 유명훈거시니 일어나 영어 책을 사실 마옵 개시  
면 이최수로 편지를 보너시옵 日本東京銀座四丁目 敎文館이라고 하느니라 감리회최수요

# YOU CAN DO What Others Have Done.

## **BECOME A MINING EXPERT:**

In your own home, in your spare time you can receive thorough, practical training in any branch of mining. S.K. Huang, formerly Chief Engineer of the Pinghsiang Collieries and now supervising the installation of modern blast furnaces for the Tayeh Iron & Steel Co., has written us "I was much surprised to find the instruction of your Mining Course so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In eight months I finished three quarters of the course as easily as though your instructors had been at my side."

## **STUDY AGRICULTURE:**

The I.C.S. offer ten thorough Courses in FRUIT FARMING, FARM CROPS, LIVESTOCK, and POULTRY FARMING. "I am so glad that the China Agency, I.C.S. helped me secure a position with the Anhwei Government Stock Ranch where I am now doing successful work in Farming and Stock Raising." I.F. Tsang

## **BECOME AN AUTOMOBILE**

**EXPERT:** "In my opinion the I.C.S. method is so perfect that anyone who knows simple English may master any of their Courses that he may choose." Y.K. Peng.

THE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SCHOOLS  
offer

282 Courses of Thorough, Practical  
Salary-Raising Training

A partial list is given herewith. If you do not find the Course you want, write and tell us what position you want,

**MARK AND MAIL**

**THIS COUPON**



Tear Out This Coupon

### **CHINA AGENCY**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Schools  
of Scranton

Office No. 37-11c Nanking Rd.  
Shanghai, China

Please explain, without further obligation on my part, how I can qualify for a larger salary in the position, trade, or profession, or gain a knowledge of the subject, before which I have marked x.

Salesmanship Advertising Man Show Card Writing Window Trimming Bookkeeper Stenographer Commercial Law Good English English Branches High-School Mathematics Teacher Commercial Illustrating Carpet Designing Wallpaper Designing Linoleum Designing Bookcover Designing Ornamental Designing Ship Drafting Lettering and Sign Painting Stationary Engineer Marine Engineer Gas Engineer Automobile Running Refrigeration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Mechanical Draftsman Machine Designer Boiler Designer Patternmaking Toolmaking Foundry Work Blacksmithing Navigation Cotton Manufacturing Woollen Manufacturing Textile Designing	Electrical Engineer Electric Lighting Electric Railways Electric Wireman Electric Machine Designer Telegraph Construction Telephone Expert Agriculture Livestock and Dairying Poultry Farming Architecture Contracting and Building Concrete Construction Architectural Draftsman Fruit Farming Structural Engineer Bridge Engineer Structural Draftsman Plumbing & Steam Fitting Heating and Ventilation Plumbing Inspector Foreman Plumber Sheet-Metal Worker Civil Engineer Surveying and Mapping R. R. Constructing Municipal Engineer Mining Engineer Coal Mining Metal Mining Metallurgist Assayer Chemist French German Spanish Italian
--	--

Name \_\_\_\_\_  
Address \_\_\_\_\_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RELIABILITY OF THE I.C.S., WRITE  
TO THE PUBLISHERS OF THIS MAGAZINE.

一、祈禱的生命(기도덕성명)(살전五〇十七)

一、하는님의永遠(영원)히不足(부족)지아니호愛(사랑)

(로八〇卅八、九)

一、將來에對호所望(장래덕소망)(예廿九〇十二)

一、空器를充滿케호심(빈그릇은가득)(王下四〇三)

一、祈禱의元精(기도원격의왕상)(王上九〇二、三)

一、예수의足傍에(발곁에)(눅七〇卅八)

一、聖神과風(성신바람)(요三〇八)

一、예수의음식朝飯을吃함(조반먹음)(요廿一〇十二)

(十二)

一、二種緊要事(두가지긴요한일)(히廿〇廿一)

一、救主(구주)의서至聖所에(저성소)一次入호심(한번드러가)(히

可用的題目과本文

九〇十二)

一、도훈所聞(소문)(살전一〇八)

一、그리스도의榮華의福音(영화복음)(고후四〇四)

(四)

一、밋는竊盜(도적놈)(눅廿二〇四二、三)

一、人이人을不知함(사람사람아저못)(잠十四〇十)

一、그리스도의復活의權能(부활권능)(빌三〇十)

一、奇異호事(괴이일)(요엘二〇廿五)

一、無價之恩(가업없는애)(요엘二〇卅二)

一、遺失호羊一頭(일흔양호 한마디)(마十八〇十二、三)

一、聖經의鍊鍛호(성경연단)(시十二〇六)

一、遺業을取호는것(유업취)(여호수아一〇二、三)



一、그 淨潔케 하시는 血정결 피 (一 요 一 〇 七)

一、十字架 勢力자가 세력 (고전 一 〇 十八)

一、예수의 血과 吾儕의 良心피와 우리 광심 (히 九 〇 十 四)

一、十字架 前에 罪를 記憶함자가 앞헤 죄 기억 (딤후 전 一 〇 十三)

一、弟 子의 票예제 표 (마 十 六 〇 廿 四)

一、예수 대 로 傳을 福音전 복음 (눅 十 五 〇 四)

一、福音을 傳하는 目的복음 전 목적 (히 廿 六 〇 十八)

一、傳道 師의 公布전도사 공표 (히 十 三 〇 卅 八)

一、예수 의 衣邊옷가 (마 九 〇 卅)

一、十字架 에 서 나 는 讚美자가 찬미 (요 六 〇 卅 七)

一、所願 成就치 못함이 福됨소원 성취 부 (막 十 〇 卅 七 一 四十)

一、信 徒가 聖書를 嗜好함신도 성서 도화 (시 百 十 九 〇 九 七 七)

一、永 生의 堅固함영성 견고 (요 十 〇 卅 八, 卅 十 一 〇 卅 九)

一、예수 의 哭하신 事목 소고 (요 十 一 〇 卅 五)

一、詩 篇家의 愚人시편가 우인 (시 十 四 〇 一)

一、바울 使徒의 愚人사도 우인 (고전 十 五 〇 卅 五 一 卅 八)

一、吾主 의 愚人우리주 우인 (눅 十 二 一 〇 卅)

一、異世 를 思慕함다른세상을 소모 (베후 三 〇 十 一, 十 二)

神 學 指 南

一、洗禮 요한의 歷史 (눅 一〇五―廿五, 五十七―六十六, 三〇―一―廿, 一〇―十九―卅七, 三〇―廿―卅, 마 十一〇―二―十九, 十四〇―一―十二)

一、니고데모 (요 三〇―一―八, 十九〇―卅八, 卅九)

一、삭기오 (눅 十九〇―一―十)

一、少年富者 (막 十〇―十七―廿二)

一、도마 (요 廿〇―廿四―廿九)

一、하느님과 和睦함 (로 五〇―一)

一、教會의 價値 (히 廿〇―廿八)

一、決斷 코아니타심 (출 卅四〇―七)

一、愛의 發現함 (一요 四〇―八, 九)

一、愛의 四面積 (요 三〇―十六―三〇―十八)

一、예수의 免코져함심 (마 廿六〇―廿九)

一、被賣夜 (고전 十一〇―廿三)

一、其前에 置호樂 (눅 十〇―廿, 히 十二〇―二)

一、예수는 一中保라 (딤후 二〇―五, 六)

一、十字架의 拘碍됨 (시 五十三〇―三―갈 五〇―十一)

五〇―十一)

一、예수의 盡成호선事 (요 十九〇―卅)

一、羔羊과 冊 (막 五〇―九)

一、和睦함을 得함 (로 五〇―十一)

一、하느님의 會計法 (詩 百三〇―十)

- 一、세베대二子의 請願 (마廿〇卅一卅三)  
두 아들 청원
- 一、弟子들의 寐 (마廿六〇四十五)  
제자 잠
- 一、예수의 母親과 兄弟 (막三〇卅四)  
모친 형제
- 一、其長子 (눅十五〇卅一)  
그 맏 아들
- 一、幼兒의 心은 信仰에 要緊함 (눅十八  
〇十六、十七)  
어린이의 마음 믿음 요건
- 一、秋收의 所望 (요四〇卅五、卅六)  
추수 소망
- 一、赦罪함을 傳함 (행十二〇卅八)  
사죄 전
- 一、死後所望 (빌一〇卅三、살전五〇十)  
사후 소망
- 一、變更함과 堅固함 (벧전一〇卅四、卅  
五)
- 一、예수의 死亡의 目的 (고전十五〇三)  
사망 목덕

- 一、世上과 그의 結局 (一요二一〇十七)  
세상 결국
- 一、야브라함의 被召 (히十一〇八一十  
三一十六)  
부르심
- 一、야곱의 被召 (벧엘) (창廿八〇十一卅  
二)  
부르심
- 一、야곱의 被召 (브니엘) (창卅二〇卅  
二一卅二)  
부르심
- 一、모세의 被召 (출二〇四一六)  
부르심
- 一、사울王의 被却 (삼上十五〇)  
왕 버리심
- 一、逃避할엘리아 (왕上十九〇)  
도망 왕상
- 一、이사야의 被召 (시六〇一八)  
부르심
- 一、예리미아의 被召 (예一〇四一十、  
卅〇)  
부르심

神 學 指 南

一、時間의 飛去함(시간 날 나 감)(시九十〇四「千年이昨日過去함과又함」)(천년 어제 날 지나 감)

一、現時의 機會(이 때 기회)(에스더四〇十四「爾가此位를得호거시此機會를爲호인지誰가知호나」)(나)

一、예수를仰望함으로變化함을受함(바라봄 변화 받음)  
(고후二一〇十八)

一、愛로由호야하는님과예수의模本을(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본)

受호할수有함(엡五〇一、二)  
(받을 있음)

一、信者가同力호야事役함(히十五〇廿五)  
(신자 또 처 힘써 일 받음)

一、後園에在호墳墓라(요十九〇四十二)  
(후원 잇는 무덤이)

一、信經과行蹟이라(출九〇廿一廿二)  
(신경 형적)

可用的題目과本文

一、離發호는停車場(서 나 명 거 장)(눅廿四〇四十七)

一、分離호는親戚이라(로十六〇十一)  
(갈 나 친 천 직)

一、眞正호는智慧라(로十六〇十九)  
(진정 지혜)

一、未知호는未來事라(출十〇二十六)  
(알지 못 미래 사)

一、財物의 危殆함(느흐미九〇二十八)  
(재물 위태)

一、生命은生命으로代身호를거시라(요十〇十、十五)  
(생명 생명 대신)

一、하는님과又치寓居함(레廿五〇廿三)  
(우거)

一、하는님의河水(詩四十六〇四)  
(하슈 서)

一) 하는님의使役者의平安함(단十二〇十三)  
(수역자 평안)

一、世上의光(요八〇十二、마五〇十四)  
(세상 빛)

十三)

一、不信믿지 아니함과 不行행치 아니함 (딤후 二〇 八) 眞理진리를

對敵대역하니 其心그 마음이 문히 졌고 信仰믿음을 論의론할 진 디 棄버

할 바 된 지라)

一、宣敎선교의 世界세계來歷래력 (민 廿三 〇 廿三) 「하

느 님의 行행을 事일가 었 지 그리 큰 고)

一、靑年청년 男子남자는 今世금세에 예 수 敎교에 서 受받을

것 (막 十 〇 十七 一 廿三)

一、如何엇더 할 心마음으로 救濟구제할 거 시 요 (눅 十

〇 卅七) 「가 서 그와 又다치 하 라)」

一、世界세계上상 問語문답 (막 十 〇 十七) 「何事무슨 일을 行행하 여

야 永영生생을 었 으 릇 가)」

一、예 수와 又다치 言約언약함 (눅 廿二 〇 廿) 「此

杯잔는 내 言約언약호 는 血피라)」

一、예 수 內안에 兄형弟제 됨 (빌 네 十、十五、

十六)

一、福복을 場자리所로로 引인도 함 (눅 二十四 〇

五十) 「예 수 잇 쓰 러 베탈 아 니 마 존 便편에 至나르 手손를

舉들어 彼等대을 爲위하 야 祝福축복하 심)」

一、예 수 使사者자의 苦難고난 (막 十六 〇 十三) 「其人그 사람

들 아 가 서 弟제子자들 의 告고하 되 送보내 름 미 저 아

니 호)」

一、任事맡은 일를 完완全전히 成성함으로 得얻을 喜樂기쁨과

賞상給급이 라 (마 廿五 〇 卅、卅一)

一、眩亂치 아니한 信仰믿음 (단 二〇十六) 「吾儕우리

가此事에對하야答할거시업나니라」

一、弱약中에서榮光영광됨 (고후 十二〇九)

一、新出生과 新榮光을觀覽구경함 (요 三〇

三)

一、少事와例事로온時에하느님을奉事섬김

함 (눅 十六〇十)

一、少年의生活을愛慕사랑함이도함 (전도

十一〇九)

一、模範的先生 (요 七〇四十六) 「其人又그사람치言말

호는人이此時々지업다」

一、財物의越去넘어갈할수업는限定한정 (욥 一〇

七,八)

一、소돔의外城외성 (창 十三〇十二) 「롯은野邑야읍

에居하여 소돔々지감」

一、禮拜中에實狀의要求요구 (눅 十七〇五

「吾儕信仰을增進케함쇼셔」

一、하느님을敬愛함으로하느님을알

(一요 四〇七)

一、遲滯함의危殆함 (고후 六〇二) 「只今은

救贖호는日이오」

一、子女된證據 (요 八〇四十二) 「하느님이爾

等父시면爾等이我를愛할지라」

一、愛함으로聖함이됨 (살전 二〇十二、

노거시오 靈神의 思想은 사는 것과 平安함이 나

라)

一、祈禱는 性稟을 顯露하는 거시라 (창

十八〇廿四、十九〇廿)

一、神靈의 旺盛(식六十〇廿二)

一、此世의 午正時에 子正이라 (막十五

〇卅三「午時中으로 브러 未時未々지 全地가

어두어짐」

一、不信者의 無能을 祈禱 민十四〇二)

一、喜樂에서 自退함(눅十五〇廿八「怒호

야入往호기를 肯치아니호거늘」)

一、靜默케 하는 音聲(히九〇七「又치가던

이는 서서 言語를 못호 면서 聲音만 드름」)

一、窮乏호 富者(잠十三〇七「스스호 富호

테호되何物도 無호者가 잇고 스스호 艱難호테

호되財物이 多호者가 잇는니라」)

一、害로운 念慮(마十〇卅「畏懼호지말나

爾等이 小雀여리마리보다 畏호니라」)

一、自由의 順從(갈五〇十三「爾等을 自由호

게호시라고 호호섯느니라 그니라 其自由호서肉

體의 機會를 삼지말나」)

一、主管의 眞榮光(막十〇四十四「爾等中

에 웃음이 되려호는 者는 諸人의 僕이되리라」)

一、靈魂을 埋葬함(골十三〇十九)

# 可用的題目과本文

(쓸만한데목과본문)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著述

一、가인의路라(或固執路)(유다十一장)

四〇九)

一、베드로의二個寫眞(두사진)(눅廿二〇五十七

「女人아 내가彼를知치 못하노라」(녀인 내대여 저자) 行二〇十

四)

一、信者의生活은人을代身하여受苦하

는生活이오(생활)(一요二〇十六「五儕도또

호兄弟를爲하야生命을棄하노거시宜當하나

라)

一、變변치아니하노心腸(마음)(시五十七〇七

可用的題目과本文

「我心을定하엿노이다」(내마음)

一、人種의性質에完全함과其完全함을

엿는方針(방법)(빌二〇十三、十四「오직一

事만하야後에잇는거슬忘却하고前에잇는거

슬執하라고票竿를向하야疾走하노라」(잡으 포대를향 다름길)

一、不信者의救贖함을不受하노緣故

(시五十九〇一、二「오직爾의罪過는爾等

과하노님間을막는다」(사이를)

一、有福호生活(복스러운생활)(로八〇六「肉身의思想은죽



이 六萬一千七百九十六名인디新加一百七十八名이오

執事(任員并)가 六千六百七十五名인디新加一千一百十九名이오

領袖가 二千三十七人인디新加三百二十七人이오

長老가 七百二十二人인디新加一百五人이오

牧師가 二百五十四人인디新加二十九人이오

未組織教會가 一千五百八十七處인디減六十四處요

組織教會가 四百十八處인디新加六十四處이니라

平壤章臺峴教會長老 曾往에 大學卒業을 하고 또 神學第十回卒業을 맞아 講道師된  
朴尙純氏라 다톰 본老會의 按手함을 받은後에 即時任地로 發行하리다더라

海參衛와 其附近과 또 上海에 居留하는 朝鮮同胞의 形便을 들어 總代朴禎燦氏가 演

說後에 또 上海에서 온 代表人이 演說함으로 一般會員과 傍聽人의 地感心이 되어 當

席에서 一千八百圓을 捐補하였고 또 總會가 作定하는 海參衛로 傳道牧師 一人 派送

하기로 하고 上海에는 五個月間 調查하기 爲하야 牧師 一人 派送하기로 하였다더라

新到老會

平北老會區域內에 義州郡과 他三郡과 또 滿州地方에 幾縣을 合하야 新老會區域을  
定하였는디 此를 義山老會라 稱하더라

總計

今年敎人總數는 十六萬九百九十九名인디 新加一萬三百九十三名이 오 聖餐參與人

錫昌牧師라더라

會員總數는 朝鮮牧師와 長老가 各六十七人 式이니 合一百三十四人 이요 宣教師

四十餘人 이 參與하였스며 外國에서 來參 賓客은 英國가 나다 長老會 傳道局 書記

아름스드 롱 牧師와 美國 南長老會 傳道局 書記스미트 牧師와 日本 東京 明治 學院 神學

部 教授로 視務하시는 改革 敎派의 宣教師을 도 만스 博士인 디 該氏는 曾往에 故元 杜尤

牧師와 神學校에서 修業하였스며 또 元 杜尤 牧師를 勸獎하시야 朝鮮으로 나 오게 하였

는 디 其時에 自己도 朝鮮에 나 오려 하였스나 하는 님씩서 路를 開하시여 주시 지 아니 하시

故로 三十二年 前에 日本으로 나 와서 門져 九州 長崎에서 傳道하였다 더 라 氏의 事蹟에

對하시야 深思하시여 본즉 吾 朝鮮에 宣敎하는 事를 主倡호이라 할수 잇는 나라

傳道狀況

中華民國 山東省 萊陽으로 宣敎師一人을 더 派送하시기로 作定하였는 디 被命된 이는

제구회 졸업생 권영하씨 저금경상북도 칠곡군 인동면 진평동교회  
第九回卒業生 權永海氏는現今慶尙北道漆谷郡仁同面眞坪洞教會에서委任同

事牧師로視務함

제십일회 금년 졸업생 김석항씨 평북벽동읍교회  
第十一回(今年)卒業生 金碩伉氏는平北碧潼邑教會에서委任牧師로視務케됨

제십일회 졸업생 채필근씨 전 조소시무 경흥읍웅곡고읍치교회  
第十一回卒業生 蔡弼近氏는前에助事로視務하던慶興邑雄基古邑三處教會

의延聘으로八月十一일에咸北老會의按手함을받아委任同事牧師로視務케됨

졸업생제씨 저금 임평이동 본지남편정인 직접신속귀송  
(卒業生諸氏에서는自今으로任命되시던지移動되시옵거든本指南編輯人의게로直接迅速히記送하시되

임명일자 전주소 현주소 저세 귀목  
任命日字와前住所와現住所를詳細히記錄함읍소서)

편집인 고백

總會概况 (총회개항)

금년총회 제회 일 평안북도선천읍 회정  
今年總會는(第七回)八月三十一일에平安北道宣川邑에서會集하였는디會長

은現今平壤府西門外教會에서視務하시는金善斗牧師요副會長은馬布三悅牧師

요書記는張德櫓牧師요副書記는金聖澤長老요會計는彼得牧師요副會計는金

전도 목사 시무 傳道牧師로 視務하다가 一九一七年十二月十五日 브리 영등포 양평리 세교리 처  
교 회 전임 목사 임명 教會의 專任牧師로 任命되어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유슈 씨 전 평북선천군 슈청면 교읍 리 교회 第九回卒業生 韓應秀 氏는 前에 平北宣川郡 水淸面 古邑里 教會에서 委任牧師로

제구회 졸업생 김병조 씨 전 평북의주교관면 리 교회 第九回卒業生 金秉祚 氏는 前에 平北義州古館面 館里 教會에서 同事牧師로 視務

제구회 졸업생 김선환 씨 전 평남중화군 읍내 교회 第九回卒業生 金善煥 氏는 現今 平南中和郡 邑內 教會에서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양의근 씨 전 평남덕천군 읍내 교회 第九回卒業生 楊義根 氏는 現今 平南德川郡 邑內 教會에서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강학근 씨 황해도 서흥군 읍내 교회 第九回卒業生 姜鶴麟 氏는 黃海道 瑞興郡 邑內 教會에서 宣敎師 彼得氏와 同事牧師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김선환 씨 전 평남중화군 읍내 교회 第九回卒業生 金善煥 氏는 現今 平南中和郡 邑內 教會에서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양의근 씨 전 평남덕천군 읍내 교회 第九回卒業生 楊義根 氏는 現今 平南德川郡 邑內 教會에서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강학근 씨 황해도 서흥군 읍내 교회 第九回卒業生 姜鶴麟 氏는 黃海道 瑞興郡 邑內 教會에서 宣敎師 彼得氏와 同事牧師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제구회 졸업생 한선철 씨 전 남흥원군 다방교회 第九回卒業生 韓元七 氏는 現今 咸南洪原郡 地方 教會에 委任牧師로 視務함

第五回卒業生 崔德峻 氏는 六年間 黃海道 黃州郡 黑橋面 龍淵里 教會에서 專任牧

師로 視務하다 가 咸北老會 區域內 北間島 局街子 附近 四處 教會의 請聘함을 받아 今年

八月九日에 委任 同事牧師로 視務케 됨

第六回卒業生 金迺範 氏는 北間島 頭道溝 教會에서 委任 同事牧師로 視務하다 가

該教會의 請願과 本老會의 任命을 依하야 今年 八月十二日 該教會에서 專任牧師

로 視務함

第七回卒業生 沈益鉉 氏는 平安南道 大同郡 金祭面 院場, 班石二處 教會에서 委

任 同事牧師로 視務하다 가 只今은 該教會의 專任 牧師 됨

第八回卒業生 李斗燮 氏는 現今 咸北 吉州, 明川 教會에서 宣教師 富錄道氏와 同

事牧師로 視務함

第九回卒業生 車載明 氏는 京忠老會 區域內 高陽, 金浦, 始興, 三郡 十七 教會 巡回

二、聖餐禮設行時에 床褥을 禮貌있게 開閉하며 整齊히 접어 淨潔處에 두었다가 쓸거

시니 此事雖少나 小許라도 失禮되면 온 禮式을 汚損케 하는 니라 (郭安連牧師)

三、講道人이 憫恤시聽衆을 恤히 보며 講道할 거시니 萬一 눈을 감던지 意味 없시 此處

彼處를 보던지 聽衆의 上面을 向하야 바라보느거든 失禮되는 事이 니라

(富解理牧師)

卒業生의 任命과 移動 (졸업생의 임명과 이동)

第三回 卒業生 朴禮獻 氏는 七年間 咸鏡南道 元山府 教會에서 專任 牧師로 視務하

다가 咸北老會 區域內 北間 島龍井 教會의 請聘함을 받아 今年 九月二日 부터 委任 同事

牧師로 視務함

第三回 卒業生 金永濟 氏는 其間 咸北老會 區域內 吉州、明川 教會에서 委任 同事

牧師로 視務하다가 只今은 咸南老會 區域內 元山府 上里 教會에서 專任 牧師로 視務함

五、開會하기 전에 讚美를 擇하되 講道하는 뜻에 合흐니 그로 擇하느니라

六、祝福祈禱後에 老幼를 勿論하고 教會가 暫時間從容히 坐하던지 伏하던지 하는 거

시 도흐니 本敎會에 此等風習이 없스면 設立하는 거시 도흐니라 祝福祈禱後에 卽

時 聖經과 鞋를 收拾하는 것과 急急히 出去하는 거슨 失禮되는 事이니 閉會後에 徐

徐히 出去하면서 寒暄도 하며 情談도 하는 거시 可하니라 (蘇悅道牧師)

一、牧師가 閉會後에 卽時 出口門에 가서 來賓과 會員을 餞送하는 거시 도흐니라 萬若

出入門이 만흐면 長老도 各門에 一人式가셔 餞送하는 거시 可하니라 此時에 會員

中牧師로 더더러 長時間談話코져하거나 牧師가 誰某와 長時間談話코져하는 境

遇에는 他人의 退去後까지 기다리는 거시 可하니라

牧師의 妻나 女傳道人도 各門에서 女敎友를 餞送하되 牧師와 知面치 못할 者와 牧

師의 談話코져하는 者가 있으면 男敎友의 退去後까지 다려 牧師의 介紹介

는 거시 可하니라



에釘死<sup>죽으</sup>할<sup>때</sup>時에自己生命을喪失<sup>일허</sup>할<sup>바</sup>신<sup>바</sup>거시아니오吾儕를爲<sup>위</sup>할<sup>위</sup>야任意로貢獻<sup>임의</sup>할<sup>맛</sup>것<sup>지</sup>니라

# 牧師 體鏡 (목사체경)

一、牧師가公禮拜時에<sup>목사</sup>祈禱를預備<sup>공예비</sup>할<sup>때</sup>야本會員의形便에<sup>기도</sup>適合<sup>예비</sup>할<sup>바</sup>거시니라

二、廣告<sup>광고</sup>할<sup>수</sup>事件이잇스면恒常講道<sup>홍상강도</sup>할<sup>전</sup>거시니라

三、他人을<sup>다른사람</sup>請<sup>청</sup>할<sup>례</sup>야禮拜를引導<sup>인도</sup>할<sup>때</sup>時에牧師가特別히<sup>목사</sup>審慎<sup>특별</sup>할<sup>조심</sup>야傍在人과<sup>곁에잇는사람</sup>偶語<sup>수은수은</sup>할<sup>것</sup>

지도말고坐睡<sup>조을저</sup>치도말거시니라

四、聖餐<sup>성찬</sup>設行<sup>설행</sup>할<sup>전</sup>기前에各長老의行<sup>각장로</sup>을<sup>행</sup>事를<sup>일을</sup>作定<sup>작명</sup>할<sup>준비</sup>야다準備<sup>특별</sup>할<sup>례</sup>特別히<sup>포도즙</sup>餅과葡萄汁

을<sup>분급</sup>分給<sup>장로</sup>할<sup>년</sup>長老(年老古長老가無妨<sup>무방</sup>함)를<sup>명</sup>定<sup>다르고</sup>할<sup>회</sup>고他敎會牧師가會長이<sup>회장</sup>될<sup>경우</sup>境遇<sup>경우</sup>에

는該牧師의<sup>그목사</sup>게何長老가餅을<sup>이나장로</sup>分給<sup>분급</sup>할<sup>나</sup>것과何長老가葡萄汁을<sup>포도즙</sup>分給<sup>분급</sup>할<sup>나</sup>것을<sup>알</sup>알<sup>게</sup>할<sup>것</sup>

거시오또誰某가床褥를<sup>누구</sup>開閉<sup>상보</sup>할<sup>리</sup>것과長老中各人の<sup>장로중</sup>行事<sup>각사람</sup>番次<sup>일할</sup>도<sup>차례</sup>作定<sup>작명</sup>할<sup>것</sup>거시니라

然則眞珠라그런즉는거슨苦生中고생중에서出生성기되는寶貝라亦天堂門도如許또한연당문眞珠라이러는  
손즉예수의苦生을善依야入드러갈의미호意味를되안듯하니라

죄毒독을知하고拒絶거절호후수업습

有名유명호動物學者一人이一夜에는一大園囿中에서寢寐하다가醒觀세어본호一호큰구렁大蟒이  
가胃部에蟠在호는지라驚惶氣塞호야輕動경동치못하고不省人事러니未幾에復醒호죽  
友人의處治로蛇蟒을捉去호였다라作罪者가往々이와又치罪의毒害를知호여도避  
호지못하니救主의勢力을依호거시니라

일론  
失호거시아니오獻호거시라

現今戰亂中에英國兵士一人이出戰호였다가大砲丸에一脚을喪失호고歸國호야  
治療中에一友人이來호야問病호기를當身의一脚을何處에서喪失호였는호는  
應호기를我脚을失호거시아니오我國家에獻호거시라고호였다라예수가十字架  
講道에可用호比辭

연약 자 구호  
軟弱한者를救護함

호문 젊은 부인 팔세 어린아기 산곡간 노형 데 별안간 사납고큰목수리호마리가나리  
 一位少年婦人과八歲된幼兒가山谷逕으로行할時에瞥眼間猛大호一鶩가飛下호  
 서그어린아기 초가지고달나가고 동형 부인 경악 급 그득수리 박속  
 야該幼兒를掬掠而飛去코져호거늘同行호던婦人이驚愕호야急히該鶩를撲逐호매  
 사문과재가서로싸화 류혈 땅자 그부인 전 소호 생명 위 의상 열과  
 人鳥相鬪호야流血이浪藉호되該婦人은專혀小兒의生命을爲호야衣裳이裂破되고  
 신메 부상 전력 구호 우리 고난 참여 사문 이와로  
 身體가負傷호도록盡力救護호였다호니吾儕가예수의苦難을參與호는人이면如斯  
 치피를 흘닐 사문 신령의 유의 위 전력  
 血을流호지라도人의靈的有益을爲호야盡力할거시라

진주 근본  
眞珠의根本

묵시 廿一〇 廿一을보니 天堂門은眞珠라호였스니眞珠라호는거슨海底에서生活  
 조의 갑속 동물 학자 증명 조기가 바다물을삼키고도 즙음  
 호는蚌蜃匣裡에서出生되는거시니動物學者가證明호기를蚌蜃이海水를呑吐할際  
 모퉁나물 모진자 속에드러가서 그모에떨넘이심 고통 줌 자성전익 침 바로고또발나  
 에沙石의稜者가入中호야其稜刺가甚은苦痛을貽호므로自生眞液의涎으로塗復塗  
 두리워진 곳이지고유리 그신고 중 어연간 보화 진주 일운  
 厚호거시固且潤滑호여져서其辛苦호는中에於焉間寶貨로운眞珠를成호거시라더

그 보미체 獨文을 그리 그대 감초아 든 보화 유실 왜단과 도적 환 연키어  
該寶具櫃와相等할거시라然하나該櫃에貯藏호寶貨는遺失의弊와竊盜의患을難免  
할거시나天父의寶櫃에在호貴重호許諾은誰某던지奪取호수업슬거시라

가공 리은 구제치아니  
可矜호鄰近을 不濟 함

미주 화문선호척 항회 광풍 파선 선취 합장 간신 죄은리 의탁  
美洲에火輪船一隻이航海하다가狂風에破船되여船客과艦長이僅히小艇에依托

막막 대척 포류 그잇흔날 요형 지나가 귀선호척 맛나보 귀  
되여漠々호大海에漂流하다가其翌日에僥倖히過去호는汽船一隻을逢着호고旗로

구조 포 큰소리 높히불너 샅너달나 든담히분애아니 포연 지나  
씨救助호기를票호고大聲으로高叫호야救家하라하되頓不顧見호고漂然히過去호

갓 조공잇다가뜨다는 귀선을맛나 구조 귀국 후 사실 각신문 반포  
엇더라小傾에又值一汽船호야救助함을엇어歸國호後에事實을各新聞에頒布호야

구조저아니 함장 일흔이 광고 천하 메일 북그리 지금 신자  
該不救助호艦長의名號가廣告됨으로天下에第一羞愧로온일이되엇더라只今信者

불신자 더우침문 보 부음 구원 이  
들이不信者의地獄沉淪할거슬見호고福音으로救援호여주지아니호면엇지此와異

함잇스  
함이有호리오

講道에可用호比辭

南 指 學 神

鍊<sup>연</sup>야<sup>중</sup>야<sup>괴</sup>蒸氣<sup>정</sup>로<sup>결</sup>精潔<sup>결</sup>케<sup>하</sup>는<sup>디</sup>其鍊磨<sup>연</sup>는<sup>烟</sup>煤<sup>중</sup>中<sup>소</sup>에서<sup>마</sup>消磨<sup>되</sup>는<sup>金</sup>屑<sup>이</sup>該機<sup>연</sup>關<sup>동</sup>煙<sup>동</sup>桶<sup>중</sup>中<sup>조</sup>에<sup>공</sup>稍<sup>식</sup>々<sup>모</sup>히<sup>혀</sup>儲聚<sup>셔</sup>되<sup>어</sup>어<sup>문</sup>塵<sup>자</sup>芥<sup>又</sup>와<sup>치</sup>如<sup>차</sup>히<sup>협</sup>積<sup>함</sup>으로<sup>로</sup>一<sup>일</sup>年<sup>년</sup>一<sup>일</sup>次<sup>일</sup>式<sup>식</sup>該煙<sup>연</sup>桶<sup>안</sup>內<sup>바</sup>底<sup>닥</sup>를<sup>쓸</sup>어<sup>일</sup>어<sup>셔</sup>遺<sup>유</sup>失<sup>실</sup>되<sup>어</sup>엿던<sup>금</sup>金<sup>수</sup>을<sup>취</sup>收<sup>취</sup>取<sup>하</sup>는<sup>예</sup>例<sup>잇</sup>가<sup>잇</sup>有<sup>섯</sup>엿던<sup>라</sup>幾<sup>몇</sup>年<sup>히</sup>前<sup>전</sup>에<sup>그</sup>該<sup>연</sup>煙<sup>동</sup>桶<sup>일</sup>一<sup>좌</sup>座<sup>가</sup>毀<sup>문</sup>頽<sup>하</sup>된<sup>거</sup>슬<sup>개</sup>改<sup>쳐</sup>築<sup>쌌</sup>는<sup>중</sup>中<sup>벽</sup>間<sup>들</sup>에서<sup>수</sup>收<sup>취</sup>取<sup>하</sup>는<sup>금</sup>金<sup>삼</sup>이<sup>천</sup>三<sup>원</sup>千<sup>가</sup>圓<sup>치</sup>價<sup>달</sup>值<sup>에</sup>達<sup>하</sup>는<sup>다</sup>더<sup>라</sup>何<sup>엇</sup>許<sup>디</sup>世<sup>세</sup>人<sup>인</sup>을<sup>살</sup>觀<sup>과</sup>察<sup>보</sup>하<sup>는</sup>즉<sup>중</sup>其<sup>중</sup>中<sup>에</sup>有<sup>유</sup>益<sup>의</sup>益<sup>을</sup>有<sup>는</sup>는<sup>하</sup>거<sup>시</sup>一<sup>하</sup>無<sup>도</sup>有<sup>는</sup>는<sup>나</sup>實<sup>실</sup>狀<sup>상</sup>細<sup>세</sup>密<sup>밀</sup>히<sup>覓</sup>得<sup>하</sup>는<sup>기</sup>만<sup>하</sup>면<sup>모</sup>不<sup>로</sup>知<sup>는</sup>던<sup>보</sup>寶<sup>비</sup>貝<sup>로</sup>은<sup>거</sup>시<sup>만</sup>多<sup>히</sup>有<sup>는</sup>는<sup>거</sup>슬<sup>볼</sup>나<sup>라</sup>

보비계 하느님의寶貝櫃라

美國<sup>미국</sup>에<sup>부</sup>富<sup>호</sup>豪<sup>가</sup>家<sup>호</sup>一<sup>인</sup>人<sup>이</sup>이<sup>잇</sup>는<sup>디</sup>平<sup>평</sup>生<sup>성</sup>에<sup>도</sup>愛<sup>화</sup>好<sup>하</sup>는<sup>거</sup>는<sup>金</sup>金<sup>강</sup>剛<sup>석</sup>石<sup>보</sup>寶<sup>화</sup>貨<sup>동</sup>等<sup>완</sup>玩<sup>호</sup>好<sup>지</sup>之<sup>물</sup>物<sup>이</sup>라<sup>간</sup>間<sup>혹</sup>극<sup>가</sup>가<sup>보</sup>보<sup>물</sup>寶<sup>물</sup>物<sup>을</sup>을<sup>사</sup>買<sup>었</sup>得<sup>으</sup>면<sup>종</sup>種<sup>々</sup>々<sup>그</sup>其<sup>안</sup>妻<sup>히</sup>의<sup>귀</sup>귀<sup>품</sup>妻<sup>의</sup>의<sup>귀</sup>寄<sup>품</sup>贈<sup>을</sup>을<sup>사</sup>寄<sup>중</sup>贈<sup>하</sup>야<sup>전</sup>賻<sup>물</sup>物<sup>을</sup>을<sup>애</sup>愛<sup>중</sup>重<sup>히</sup>히<sup>녀</sup>녀<sup>이</sup>나<sup>상</sup>常<sup>거</sup>居<sup>에</sup>에<sup>가</sup>携<sup>지</sup>帶<sup>고</sup>帶<sup>니</sup>치<sup>아</sup>아<sup>나</sup>하<sup>고</sup>每<sup>데</sup>受<sup>양</sup>得<sup>하</sup>는<sup>는</sup>妻<sup>안</sup>가<sup>남</sup>家<sup>편</sup>君<sup>의</sup>의<sup>귀</sup>寄<sup>품</sup>贈<sup>을</sup>을<sup>귀</sup>貴<sup>품</sup>品<sup>의</sup>의<sup>전</sup>賻<sup>물</sup>物<sup>을</sup>을<sup>애</sup>愛<sup>중</sup>重<sup>히</sup>히<sup>녀</sup>녀<sup>이</sup>나<sup>상</sup>常<sup>거</sup>居<sup>에</sup>에<sup>가</sup>携<sup>지</sup>帶<sup>고</sup>帶<sup>니</sup>치<sup>아</sup>아<sup>나</sup>하<sup>고</sup>每<sup>데</sup>受<sup>양</sup>得<sup>하</sup>는<sup>는</sup>大<sup>대</sup>로<sup>대</sup>櫃<sup>대</sup>에<sup>모</sup>貯<sup>화</sup>置<sup>두</sup>어<sup>어</sup>極<sup>귀</sup>貴<sup>중</sup>重<sup>하</sup>는<sup>珍</sup>珍<sup>보</sup>寶<sup>를</sup>를<sup>삼</sup>삼<sup>았</sup>다<sup>더</sup>더<sup>라</sup>吾<sup>우</sup>儕<sup>의</sup>의<sup>귀</sup>貴<sup>중</sup>重<sup>히</sup>히<sup>녀</sup>녀<sup>이</sup>는<sup>성</sup>聖<sup>경</sup>經<sup>冊</sup>冊<sup>은</sup>

은보아 그신앙 其信仰에 엇디홀르무어스 如何를 인 何로 아 因하야 그주인 知하노니 덕담 該主人이 지금 答言하기를 이공 只今은 이공 此婢  
兒가 소제 掃除할 때 방사 房舍에 조리 席底까지 정리 淨掃함을 본다 하더라

靈魂의價值 (령혼의가치)

美國에 미국 一大孤兒院이 잇스 有하니 하로는그주관 何日은 의사 該王管하는 친목회 醫師들이 회집 親睦會로 유명 會集하고 유명 有名  
演說家를 연설가 請邀하야 청요 演說하엿는데 연설 其言內에 이공 此孤兒院을 설립 設立하고 비용 費用이 이위수십 已爲數十  
萬圓巨額에 이로 至하엿서 이공 此孤兒院으로 인 因하야 혼사름 一人의 령혼 靈魂만 구원 救援하면 그 該價額이 시오 猶小  
라 할거시 합당 오合當하게 하 쓰거시라 그시 其時 청중 聽衆에 혹자 或者는 질문 質問하기를 일 一個 령혼 靈魂의 가 價  
格이 격 엇지 과다 그러케 험치 過多하랴고 그연수 詰責하든 답 該演士의 라인 答이 령혼 他人의 불연 靈魂이면 불연 不然하련이와  
나의 나 愛子의 의자 靈魂이 명혼 變果若 과약이 如是의 다의 多額이 인명 되노 인명 즐노 인명 認定하노라 인명 고하엿다 인명 더라

일헛던금 모화잇  
遺失된금을聚得하는것

美國華盛頓京城에 미국 金을 연정 鍊精케 한처 하는 회소 一座會社家屋이 일부 잇스니 일부 日復日 금 金을 가마 釜鼎에 증 蒸

講道에可用을比辭

去<sup>시</sup>후<sup>후</sup>後에야<sup>내</sup>余가<sup>능</sup>能히<sup>그대를</sup>君을<sup>광명</sup>光明케<sup>하</sup>여<sup>줄</sup>수<sup>있</sup>다<sup>고</sup>하<sup>였</sup>다<sup>더</sup>라<sup>然</sup>則<sup>그런</sup>聖<sup>성</sup>潔<sup>절</sup>한<sup>사</sup>人<sup>랑</sup>이라야<sup>光明</sup>光明할<sup>거</sup>시<sup>라</sup>라<sup>함</sup>이<sup>러</sup>라

民과子的分間 (십성과아들의분간)

古代<sup>옛</sup>代<sup>적</sup>羅<sup>마</sup>馬<sup>국</sup>國<sup>황</sup>皇帝<sup>에</sup>가<sup>적</sup>敵<sup>국</sup>國<sup>을</sup>을<sup>討</sup>討<sup>멸</sup>滅<sup>하</sup>고<sup>도</sup>凱<sup>도</sup>旋<sup>라</sup>하<sup>는</sup>길<sup>에</sup>에<sup>병</sup>兵<sup>거</sup>車<sup>로</sup>로<sup>환</sup>還<sup>어</sup>御<sup>하</sup>실<sup>際</sup>際<sup>에</sup>에<sup>가</sup>街<sup>로</sup>路<sup>와</sup>左<sup>우</sup>右<sup>에</sup>에<sup>민</sup>民<sup>衆</sup>衆<sup>이</sup>如<sup>구름</sup>雲<sup>과</sup>이<sup>더</sup>라<sup>어</sup>御<sup>가</sup>駕<sup>가</sup>關<sup>대</sup>門<sup>문</sup>에<sup>갓</sup>近<sup>가</sup>할<sup>때</sup>時<sup>에</sup>에<sup>호</sup>呼<sup>호</sup>하<sup>는</sup>一<sup>병</sup>兒<sup>거</sup>가<sup>병</sup>兵<sup>車</sup>車<sup>압</sup>압<sup>호</sup>로<sup>로</sup>走<sup>달</sup>到<sup>내</sup>하<sup>는</sup>매<sup>환</sup>環<sup>위</sup>衛<sup>하</sup>였<sup>던</sup>던  
警<sup>정</sup>官<sup>관</sup>들이<sup>길</sup>路<sup>밖</sup>外<sup>로</sup>로<sup>모</sup>驅<sup>라</sup>出<sup>니</sup>하<sup>고</sup>여<sup>경</sup>誠<sup>계</sup>兒<sup>를</sup>하<sup>는</sup>기<sup>를</sup>此<sup>이</sup>兵<sup>병</sup>車<sup>에</sup>에<sup>계</sup>신<sup>이</sup>是<sup>는</sup>大<sup>대</sup>皇<sup>황</sup>帝<sup>에</sup>帝<sup>하</sup>下<sup>하</sup>시<sup>니</sup>爾<sup>너</sup>輩<sup>회</sup>는<sup>맛</sup>맛  
當<sup>당</sup>히<sup>길</sup>路<sup>좌</sup>左<sup>에</sup>에<sup>배</sup>陪<sup>립</sup>立<sup>하</sup>를<sup>거</sup>시<sup>오</sup>不<sup>불</sup>敢<sup>감</sup>近<sup>근</sup>前<sup>전</sup>이<sup>라</sup>하<sup>는</sup>디<sup>該</sup>該<sup>兒</sup>兒<sup>가</sup>答<sup>답</sup>하<sup>는</sup>기<sup>를</sup>兵<sup>병</sup>車<sup>에</sup>에<sup>승</sup>乘<sup>좌</sup>坐<sup>하</sup>신<sup>이</sup>是<sup>는</sup>余<sup>나</sup>  
의<sup>아</sup>父<sup>바</sup>親<sup>지</sup>이<sup>신</sup>獨<sup>독</sup>히<sup>근</sup>近<sup>전</sup>前<sup>을</sup>을<sup>권</sup>權<sup>세</sup>勢<sup>가</sup>가<sup>있</sup>다<sup>하</sup>였<sup>다</sup>더<sup>라</sup>하<sup>는</sup>님<sup>의</sup>子<sup>녀</sup>女<sup>와</sup>世<sup>상</sup>上<sup>을</sup>을<sup>불</sup>不<sup>신</sup>信<sup>자</sup>者<sup>의</sup>의<sup>분</sup>分  
據<sup>간</sup>이<sup>이</sup>如<sup>이</sup>是<sup>가</sup>히<sup>가</sup>됨<sup>이</sup>라

信仰의好果라 (믿음의도흔열매)

예<sup>전</sup>수<sup>실</sup>를<sup>신</sup>眞<sup>행</sup>實<sup>하</sup>는<sup>한</sup>一<sup>홀</sup>婢<sup>계</sup>子<sup>정</sup>가<sup>동</sup>있<sup>어</sup>는<sup>디</sup>誰<sup>누</sup>가<sup>그</sup>其<sup>주</sup>主<sup>인</sup>人<sup>의</sup>의<sup>대</sup>대<sup>문</sup>問<sup>하</sup>는<sup>가</sup>를<sup>귀</sup>貴<sup>비</sup>婢<sup>자</sup>子<sup>의</sup>의<sup>행</sup>行<sup>실</sup>實

수의跟跡뒤따라를隨따라는거시此와做似또한거시라

眞榮光의根源 (참영광의근원)

近古時代에아프리카가王왕은분리購物을載驅하  
英女영국녀황皇녀황빅도리아를來觀와하其  
政治와教化의盛大성대한거슬觀光하고그根因을女皇의問問무른즉빅도리아王이新舊約  
聖經一冊을贈與하며曰今日寡人의國이如斯히榮華롭게된거슨此書를服膺中  
에서生난한거시라고答應단응하셨다더라

聖潔의必要 (성결의필요)

古代小說에一面鐵盾이있서每太陽의光線을受할時면光明광명한빛이倍增하야聲譽  
를受하더니其後에偶然히風磨雨洗로因하야鐵面이銹汚하야짐으로太陽이照耀하  
나前日에잇던光明스럽던거시업서되엿더라于時防牌가太陽의게請求하기를前과  
又光線으로我를光明케하야달나흔즉太陽이謝絶하야曰君의銹汚된거슬先自濯  
講道에可用할比辭

講道에可用할比辭



五、예수씨서行<sup>행</sup>하신事蹟<sup>소적</sup>을보면祈禱<sup>기도</sup>를

最<sup>가장</sup>히緊要<sup>진요</sup>케녀이사祈禱<sup>기도</sup>하는人<sup>사람</sup>이되셨

스니吾儕<sup>우리</sup>는더욱만히祈禱<sup>기도</sup>하여야씀

(히七〇廿五 路八〇卅四)

六、예수씨서吾儕<sup>우리</sup>의기喜樂<sup>기쁨</sup>을주시는路<sup>길</sup>

는祈禱<sup>은기도</sup>요

(요十六〇廿四 시十六〇十一)

七、하느님씨서吾儕<sup>우리</sup>의憂愁<sup>근심</sup>업시하시

路<sup>길은기도</sup>는祈禱<sup>라</sup> (빌四〇六、七)

### 講道에可用할比辭

(강도에사용할만한비사)

#### 예수의蹤跡 (예수의종적)

古<sup>옛적</sup>昔<sup>어나</sup>에某大將<sup>대장</sup>이軍隊<sup>군대</sup>를領率<sup>령솔</sup>하고嚴冬<sup>엄동</sup>雪程<sup>설정</sup>에險惡<sup>험악</sup>한山<sup>산</sup>谷<sup>곡</sup>으로行<sup>행</sup>軍<sup>군</sup>할적에山路<sup>산로</sup>曲<sup>곡</sup>

逕<sup>경</sup>이甚<sup>심</sup>히踈澁<sup>소삼</sup>하여行陣<sup>행진</sup>키極難<sup>극난</sup>함으로軍士<sup>군사</sup>들이怨望<sup>원망</sup>하고前進<sup>전진</sup>할心<sup>마음</sup>이업섯더니其時<sup>기시</sup>

大將<sup>대장</sup>이親自<sup>대장</sup>冒險<sup>친히스스로도침</sup>하고開路<sup>길을열고</sup>先前<sup>앞서</sup>하니軍隊<sup>군대</sup>들이一齊<sup>일제</sup>히樂而從<sup>즐거게조차나</sup>跟<sup>아</sup>았더라吾儕<sup>우리</sup>도예

本 文  
題 目

祈禱의 緊要 (기도의 緊要)

神學博士 도 리牧師 著述

閔老雅牧師 翻譯

엠펙 六〇十八

祈禱의 緊要

講道圖型

가서 의원 (去)야 醫員의 게 任置하고 왔더니 幾日後에 醫  
원이 通奇하기를 其子를 携去하고 호고 其  
아바지 병원 (父)가 病院으로 가서 其子가 外庭에서 노는 거  
를 見드리가 (아들아 부르) 그아들이 아바지  
슬보고 走入호며 子야 呼호니 其子가 父  
아바지 여호는 지라 其父는 晝宵間 一心으로  
願호던 此聲을 聞호고 逾喜호야 昏迷호야  
죽은 모양 又 지  
死樣과 如히 되었달라

인도 恒常祈禱하라 하섯스니 其理由

을 七條로 說明함

一、사단이 恒常勉力함 엠펙 六〇十二

二、吾儕의 感謝히 녀이는 心과 依賴호는

心과 하는 衞榮光 돌니 고저호는 心을

培養기 爲호야 하는 衞셔 吾儕의 祈禱

를 受호심 (희 四〇十六 약 四〇二)

三、예수를 模倣호면 祈禱만히 할수 잇슴

(약 一〇卅五 눅 六〇十二)

四、使徒를 模倣호면 祈禱만히 할수 잇슴

(엠펙 六〇四 로 一〇九 엠펙 一〇十五, 十六)

골 一〇九 살전 三〇十 됴후 一〇三)

三、子女즈너가 된즉 行행할것과 受受할거시오

시요

(一) 아바지 父親으로 待대遇할것

(甲) 下보너送하신 獨生子두생자를 待대遇할거시오

一 善일도待遇

(乙) 聖經에 教訓하신 대로 順從할면

善待이요

(二) 受할거슨

(甲) 現今이라도 福된名分을 受함

(乙) 永遠히 父親의 家에 居할거시오

結末 此諸福은 世上榮華富貴보다 勝

結末 此諸福은 世上榮華富貴보다 勝

참고 參考할것 (甲) 西洋에 何許女人이 緊急事로 困

자自己의 幼兒를 家人의 게任置하고 遠處에 가서

久留할가 還家時에 欣喜心이 잇는거슨 그

子를 復見하게 됨이라 그렇므로 家에 到着하야 兒

子를 抱하랴 고 室內에 入하야 兒子를 呼喚하니 그

兒가 啼且逃하는지라 其母가 愛子가 母

를 不知하고 逃避하는거슬보니 逾憫하야 甚

히 痛哭하엿다 함데다

(乙) 何許人이 一啞子를 두었는디 其情形은 何

如하고하니 其父가 子를 呼時에 答을 못하

고 但應聲은 禽獸와 又치쌍々 소리만하니 其

父의 晝夜로 切望하는바는 其子가 父라 呼

호는 소리를 一次聽하기爲하야 病院으로 携

결말 心으로 믿는 것보다 模倣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難事 니 吾主의 助佑하는 심을 懇求하시오

# 하느님의子女 (즈녀)

安東 鞠裕致牧師

본문 本文 卽四〇四一七이나 卽八〇十四

一十六

제목 題目 하느님의子女됨

一、하느님의子女란 말함이 무슨 뜻이뇨  
(一) 天地는 吾儕의 父母란 말함이 아니오

講道圖型

(一) 肉身으로 된 것도 아니오

(二) 하느님이 父親처럼 吾儕를 造出하시오

양육 시고 養育하시오 保護하시오 永生하시오

지주심이오

二、子女된 줄 얻더케 알 수 있는 노

(一) 하느님의 愛跡을 볼 수 있음

(二) 하느님의 愛하신 단 말함이 聖經에

있음

(三) 聖神이 吾儕의 根據함

(甲) 兒孩가 自己의 母親을 不知함

(乙) 啞子가 其父를 呼함

(丙) 天堂에서 罪人을 迎接함

五、眞實전실을親友친구가되심

(一) 此理이리치를敎마르치함심 (요十五〇十五)

(二) 結果결과를보면알수잇슴 (요十〇一

十八)

(三) 使徒사도들이其敎訓그교훈을받음으로其理그리치

를변화변화소 (막十二〇卅一、 요一

書四〇卅一)

六、恒常항상祈禱기도함심

(一) 職務일을始作은시작함시기前전에 (눅三

〇卅一)

(二) 使徒사도를擇되함시기前전에 (눅六〇

十二、三)

(三) 難事어려운일을畢마치함신後후에 (마十四〇

二十二、二十三)

(四) 病人병인을곳치시는일에 (막七〇

卅四 요十一〇四十一、二)

(五) 變化변화함을받으실때 (눅九〇二十

八、九)

(六) 敎授교수함시기前전에 (눅十一〇一)

(七) 十字架십자가에苦難고난을받으시기前전에

(마廿六〇卅六一四十六)

(八) 十字架십자가에달나실때에 (마廿七〇

四十六 눅廿三〇卅四一卅六)

神 學 指 南

안코自己를模本으로 두지 안코 다만예수를模倣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가지 吾儕가 幾種으로 예수를模倣할수잇습

一、幼時에 順從하심 (눅二〇五十一、五十二)

十二)

二、諸般事에 誠實하심 (눅十九〇)

十三木手일할 때와 敎訓할 때에)

三、聖經을 勤勉히工夫하심 (想必에)

수역서 聖經一卷이라도自己所有로 잇

어둔거 사업섯서도其中에多數히 誦하

도록學習하서서 잘引用하심)

(一) 試驗을 當할 때 (마四〇四、七、

講道圖型

十)

(一) 訓誨時 (마八〇四)

(二) 祈禱時 (마二十七〇四十六、눅

二十三〇四十六)

四、謙遜함의 마음을 抱하심

(一) 訓誨時 (마五〇三、五、十一、十二)

(二) 하느님의 자이라도 貧寒한 人家

로 誕生하서서 苦生하심

(三) 十字架에 죽기까지 逼迫받으실 줄

預知하셔도 世人의 罪를 擔着하시기

를 喜悅하심 (히五〇八 謙遜함으로

로 天國에 大人이 됨 마十八〇四)

一一五

三〇十逆天者역천자는亡망고順天者순천자는存존

이라

(二)義人의인사람은하나도업는나라 男女間남녀간

罪죄와貪慾罪탐욕죄와憎惡증위는罪죄와畏懼무서워

는罪죄와憤怒분노는罪죄와驕慢교만는罪죄가다잇

는나라

四、此諸罪이모든죄의結果결과는하나뿐이나라

(一)聖潔거룩하신하는님의國나라에入去드러가지치못

하며咀呪저주만발을거시라

(二)吾儕우리가庭前뜰앞에잇는樹木나무에서虫類벌레지

를一一낫낫히捕잡야火爐화로에投던지는것又

치吾等우리들이刑罰형벌을받을수받괴업는나

라

結末결말 그런즉

(一)今日오늘날自心마음을細察자세히살피하시오

(二)當身당신이地獄더옥으로가는길에잇는노

(三)從速얼년회기悔改회개고臨림할震怒진노를避피키위

하야예수를扶依부잡아의지하고하는님씩로歸도

還라오하시오

예수의模本모본

元山 裴禮仕牧師

本文본문 고전十一〇一

引導인도 바울이此言이말씀을할時때에自矜자랑하지

神學指南

아니오하는 님씩 로서 나 은 말슴을 곱하

라 흠뻑 다 우리 다 吾儕는 皆하는 님씩 로 歸去하

거시오 里諺에 닐으기를 生은 寄也 오 死

는 歸也 라 함 거스도라함이

題目 사라계 生存호신하는 님의 手에 싸져드

러가 는 거시 可畏호거시라 무서운

一、하는 님씩 서 聖호시고 公義로 으시니 거룩

可畏호 事호 무서운일이

(一) 人의 外貌나 行爲를 보아 取치안코 사람의 외모 행위 취하지

中心을 取호심 중심 취

(二) 人의 權勢와 財産을 보지 아니호심 사람 권세 재산

(三) 하는 님씩 서 昨日과 今日과 永遠히 어제와 오늘 영원

講道圖型

二心을 懷치아니호심 두마음 품지

二、하는 님은 吾儕를 造成者와 管理者와 우리 조성호신이 관리호신이

判事시니 可畏事호 판사 무서운일이

(一) 吾儕를 造成호스니 吾儕가 하는 우리 지어지우

님의 所有호 (天生萬民) 지시 천성만민

(二) 吾儕를 治理호시니 吾儕가 順從호 우리 처리 순종

여야 함 (그의 臣民이 됨) 신민

(三) 吾儕의 判事시니 할수 업시 그의 判 우리 판사 판

決대로 服從호거시라 결복종

三、吾儕가 하는 님압 罪人안즉 可畏事 우리 죄인 무서운일이

호

(一) 諸人이 皆하는 님을 離호者라 (로 모든사람 다 떠나는자



(三) 他人爲<sup>남위</sup>야 盡力<sup>힘다쓰</sup>호지 안는 것

注意<sup>주의</sup>할 것 右<sup>우</sup>에 記載<sup>기재</sup>호는 大小<sup>대소</sup> 旨<sup>지</sup>를 말

할 때에 衡<sup>저울</sup>을 執<sup>가지</sup>호고 一條<sup>한나</sup>식 權量<sup>권량</sup>호시

오 番<sup>번</sup>々<sup>번</sup>히 衡<sup>저울</sup>一<sup>편</sup>便<sup>편</sup>에 何物<sup>아모것</sup>도 업스니 其<sup>그</sup>

側<sup>편</sup>으로 傾<sup>기우려</sup>仄<sup>정</sup>호되다 其次<sup>그다음</sup>에 此終<sup>이마지막대</sup>大旨<sup>대</sup>

를 說明<sup>설명</sup>할 때 該空<sup>그빈</sup>便<sup>편</sup>에 예수의 功勞<sup>공로</sup>라

호는 石<sup>돌</sup>一<sup>한</sup>枚<sup>개</sup>를 두워셔 酷似<sup>꼭</sup>케시리호

야 보여시오

四、眞信者의 罪

(一) 잇기는 잇스나

(二) 眞實<sup>진실</sup>호는 信仰<sup>믿음</sup>에 예수의 功勞<sup>공로</sup>도 드려

가니 하는 넘씩셔 달아보실 때에 不足<sup>부족</sup>

함이 업는 나라

結末<sup>결말</sup> 爾等<sup>너희들</sup>이 今日<sup>오늘</sup>此幾種<sup>이 몇가지</sup>群衆<sup>무리</sup>중 에 何<sup>어</sup>

便<sup>편</sup>에 잇는 노 今日<sup>오늘</sup>하는 넘씩셔 爾等<sup>너희들</sup>을 불

너셔 달아보실 것호면 엇더케 되겠는

노

復興會講道

(부흥회강도)

大邱 安義窩牧師

朗讀<sup>낭독</sup>할 말씀 회十〇廿一廿六 로三二

〇十一十六

본문 本<sup>본</sup>文<sup>문</sup> 회十〇廿一

引導<sup>인도</sup> 今日<sup>오늘</sup>은 滋味<sup>조미</sup>잇는 말만 호려 온 것

거시오(고전九〇廿六,七)

결말

十五,十六 大概信主之人이 一步

에그리스도를엇고又一步에는그리스도

도내에잇고又一步에는그리스도를알

고終步에는勇敢을精神과神靈을法

도로前進할즉失足을시目的의地에達할

야冕冠을賞으로엇을거시라

兒童의게하는講道

順天 그레인牧師

본문

단五〇廿七

제목

人生의罪를權衡하는거시라

講道圖型

一、惡하는者의罪

(一) 酒色雜技

(二) 盜賊질

(三) 殺人과如한것

二、암전하는者의罪

(一) 謊言

(二) 驕慢함

(三) 自己慾心대로生活하는것과그와

類似한것

三、信하는자의罪

(一) 外樣으로만밧는것

(二) 衷曲까지悔改치안한것

(二) 萬事만사를 糞土분토로 又또 처봄

人사람이 寶物보물을 엇고 저하면 제게 잇는 金

錢돈을 다 내여 노아야 寶物보물을 엇는 것 又

치제가 도화하는 宴樂연락과 榮光영광을 다 버

려야 예수의 救贖구수을 신恩惠은혜를 엇는 거

시오

二、 그리스도 內안에 잇슴이 美妙아름다움함 九

(一) 律法률법으로 義의음가 되지 못함

(二) 信仰의음으로 義의가 됨

枝가져가 葡萄樹포도나무에 붙흐면 果實과실을 多結만히 맺호

는 것 又 처예수 內안에 잇스면 하는 님의

義의를 成일우호는 니라

三、 그리스도를 아는 거시 美妙아름다움함 十一十二

(一) 復活부활의 權能권능을 암

(二) 苦難고난을 又또 처봄

(三) 죽으심을 模倣본받음함

「그리스도의 餘難남은고난을 吾身내몸에 처우노니」

(골 一〇廿四)

四、 熱心열심으로 前進전진함이 美妙아름다움함 十三、十四

(一) 後뒤에 잇는 거슬 忘니즘함

(二) 前앞에 잇는 標竿표대을 向향함

(三) 賞상급을 엇음

獲勝者이권자마다 易朽색어질할 冕冠면류관을 엇는 것 又

치 永遠영원히 不朽색지안호는 冕冠면류관의 賞상을 엇는

고할수잇스지금덕덕現今對敵호는者도잇고待接호는이도잇는디예수씨셔쉬이再臨호실터  
이니오시기前전에부디그를待接호는무리속에드러와서예수를救主로구주받으시기를願  
합니다

講道圖型 (강도도형)

그리스도를思慕호수모

平南江西郡 宋賢根牧師

본문  
본 文  
일 三〇七一十六

인도  
引 導  
世 上 到 第 一 美 妙 好 事 無 有 其 者

혹  
或 是 風 采 好 事 美 妙 好 事 多 矣 或  
은 學 問 이 高 明 好 事 美 妙 好 事 多 矣 或

講道圖型

은智勇이兼全함이美妙호다호나그러

나그거시眞美호거시아니오오직全世

界罪惡을救贖호신그리스도예수를아

는거시第一美妙호거시올세다

제목  
題 目  
그리스도예수의게屬함이第一

美妙호거시라

一、그리스도를엇는거시美妙호 七、八

(一)肉體의榮光을害로녀임

기始作<sup>시작</sup>호엿스니바울, 니고데모, 요셉, 此<sup>이</sup>여러분이나아와서밋음으로待接<sup>대접</sup>호거시

오然<sup>그런즉이상</sup>則異常<sup>일어</sup>호事가되엿슴니다敎會, 政府, 百姓, 弟子, 此<sup>이</sup>여러분이다예수를對敵<sup>대적</sup>호

고犯罪<sup>범죄</sup>호者의數<sup>수</sup>호交中<sup>호교중</sup>에參與<sup>참여</sup>호者로認定<sup>인정</sup>호더니只<sup>지금</sup>今은그反對<sup>반대</sup>로弟子, 百姓, 政府,

敎會主管者此諸人이다예수를놓히待接<sup>대접</sup>호고하는님아바지도諸名上에超出<sup>초출</sup>호名을

주셨슴니다

結末<sup>결말</sup> 只<sup>지금</sup>今하는님과天使와人生과萬物이다예수를놓히讚頌<sup>찬송</sup>호고待接<sup>대접</sup>호슴니다

然<sup>그러나</sup>이나如斯<sup>이러케말</sup>히言<sup>말</sup>호수잇스면도켓지마는尙<sup>아직</sup>今<sup>지금</sup>까지호수업슴니다하는님과天使와萬

物은다예수를待接<sup>대접</sup>호나尙<sup>아직</sup>今<sup>지금</sup>까지世人中에예수를對敵<sup>대적</sup>호는者가더러잇슴니다實<sup>실</sup>노

可<sup>가</sup>痛<sup>통</sup>호일어을세다誰<sup>누구</sup>某던지예수를自己의敎主로알지아니호면其人의罪는바리시

敎人의罪와못박은로마兵丁의罪나異<sup>이</sup>호<sup>호</sup>이업겟소웨그러나호면彼等이다예수를善<sup>도은</sup>

人으로認定<sup>인정</sup>호엿스나하는님아니라고호거시오예수씩셔「我<sup>내가</sup>가하는님이라」호신코로

彼等이죽엿스<sup>누구</sup>죽<sup>죽</sup>어<sup>어</sup>는<sup>는</sup>誰<sup>누구</sup>某던지예수를敎主로받지아니호는이도그와又은罪를犯<sup>범</sup>호엿다

其十一使徒는 다예수의 이름을爲하야致命申지하엿스니 참예수를待接하고無罪호이  
로廣告호거시오

(三) 第三幕도 그썬아니라 유대百姓들이 예수씩셔 골고다山으로 나가실時에戲弄호

고侮辱호하엿스나 도라가신後에는即時悔改호는 믿음이나셔 臂을치며城으로 드러와

시며 또幾日後에 베드로의傳道함을듯고 一日에三千名이 밋었시며 又幾日後에二千

名이 밋고漸次만하져서 오리 못되여數十萬名이나 밋었스니 예수를對敵호고犯罪호

者의數交中에 參與호者로 認定호다가 反히待接할호고自己의 救主로 밋았습니다

(四) 第四幕도 그썬아니라 나에서 예수를對敵호고惡호者로 認定호하엿스나 도라가신

後에 그나라七十人公會々員中아리 마대 요셉이 밋었고 바울도 밋고 예수를 죽인百夫

長도 밋고 헤롯王의 食口와 로마大皇帝의 食口中에 多人이 밋었습니다

(五) 第五幕도 그썬아니라 유대教會主管者들도 예수를待接호거시오 以前에는仇敵

中에 第一은仇讎더니 예수씩셔 도라가신後로 브터彼等中에서 밋는이가 만히 나

예수를對敵호고파예수를待接호

를뵈나게하엿습니라

三、第三回 회 둘째회 후 일동안 온나라가

안하엿스나第二回 회는너무섭々하게되고로참아볼수업섯습니라然이나깃븐거슨또

회 回하나가남아잇슴이외다

(一)第一幕 막사흘동안세상이다숨하게되엿스나그第三되는日에太陽이뜻기前에그보

다九明호義의太陽이뜻앗습니라그悲慘하고暗黑호墳墓中에서하는님아바지許諾

으로예수씨서뛰어나오섯습니라少許前에는「犯罪호者의數交中에잇섯스나하는님이능히을

니사諸名에超出호名을주셨느니라」俄時에하는님씨서對敵하섯스나復活식히심으로

그러케待接하시고天地萬物前에無罪호이로讚頌하신거시외다

(二)第二幕그뿐아니라俄時그弟子들이예수를밋지안코對敵하엿스나主씨서復活

하신後에膽大호心과굿센信仰을얻어나가서反對호는者前에라도예수씨서救主되

심을證據하엿고又其日부터나가서東西南北으로든니며傳道함으로終末에요한바

神 學 指 南

마는 참으로 그대로 하였소 무슨 연고 何故이나 하였면 그弟子들이 주셔 도라가실 때 저 時까지 잘 안 밋

엇소 동산 갓세 마네 園中에서 軍士들이 잡으려 왔을 때 저 時에 그弟子들이 다 逃亡하고 베드로만

멀니 쓰러진 거시오 또 十字架에 달너 계실 때에도 十二使徒中 요한만 잇섯는 나라 그런 然

則十二使徒들도 예수를 對敵하고 犯罪者로 認定함 모양이 외다

(九) 第九幕 유대 敎會 主管者와 政府와 百姓과 弟子들이 다 예수를 對敵하였는디 其外

에도 對敵하는 이 혼분이 남았는디 此는 곳하는 尼아바지라 할 수 잇는 나라 不然하고

하기 심지 마는 예수 씨서 갓세 마네 園中에서 血汗을 흘니도록 祈禱하였셔도 하는 尼씨

서 뜻는 데 아니 하였고 十字架에 달너 계실 때에 참다 못하야 高聲으로 言하시기를 「我

의하는 尼아바지라 하는 尼아바지라 하였거니와 我를 棄하시니 잇가」 하였셔나 하늘 노셔 아모 回答도 업섯는

나라 然則 하는 尼아바지 씨서 예수를 臨時로 棄하시고 犯罪者로 認定하신 모양이 외

다 그 時間에 日光이 暗黑하여 지고 地震이 나며 天地萬物이 다 뒤집어진 모양이 되었소

世上 創造 이후 此 時間은 第一 감하 時間이 오또함 그 夜 帷帳이 나려와서 第二回

예수를 對敵함과 예수를 待接함



예수를讚頌하였으나其後에其事가다變하게되였소主께서五千名을먹이시던日

에百姓들이나러나셔역지로王을삼으려하나主께서拒絕하시고言하시기를我가王

이지마는義의王이니誰某던지我民이되면善하게살아야되겟다하셨는디彼等이其

言을듣고主님을厭棄하고갓고十二使徒만겨우남았시며또예수께서十字架를지사

고出往時에유대教會主管者들뿐아니라그百姓들도예수를凌辱하고戲弄하였으며

또호十字架前에서戲弄하시오然則그教會主人뿐아니라그百姓도예수를犯罪

者로判斷하였습니라

(七)第七幕 유대官吏들도예수를對敵함

예수誕生하셨을時에헤롯왕이殺害하려하였소其時부터十字架에釘死할時

지각금危險대로드러가신모양이오나라에서예수를對敵하고犯罪者로認定함

였는니라또終末에十字架에도다가실時에나라의判決대로도갓섯습니라

(八)第八幕 그뿐아니라그十二使徒라도主님을對敵하시오不然하고하기쉽지

한야 그圍에워싸고잇는在교인호바리시敎人의 개問무로한섯는디彼等다회이默々가잠々한는지라主주의셔彼等다회罪로因인

한야忿분히녀이시고그病人병인을곳쳐주섯는디此時이때에도彼더유대敎會교회가다시에수를犯범죄

한者의數交수호가온디참예中에參與참예한다」참예한것슴니다

(四) 第四幕다몇幾日일후後에主의셔弟子제자들과某處어덕로가실時에그弟子들이麥穗밀이삭을를싸서먹었

는디유대敎人들이彼等을責望책망한나예수씨셔그責望을막으시고言말씀한시기를人子인자는

安息日의主人이라한섯슴니다

(五) 第五幕가베나움에서四人이半身不遂를昇來한야예수씨곳쳐달나할時에主의

셔彼偵探軍의듯는디言한시기를爾罪를赦하노라한시고爾牀을가지고거러가라한

섯는디그敎會主人들이그말슴을듯고譖濫한다한며예수죽이기로作定한것슴니다

(六) 第六幕유대敎會뿐아니라유대百姓까지예수를對敵하고예수를犯罪한者의數

交中에參與된者로認定한것소막十二卅七에「百姓이듯기를즐기더라」한말이잇스나

間或그러케한거시오累種異蹟을行한時에그百姓들이싸르던것고餅을먹었時

예수를對敵하고예수를待接함

「毒蛇의 種類라 地獄에 갈者라」독소 종류 더욱 하되 예수對敵<sub>덕</sub>하는 아모 말도 업고 洗禮<sub>세례</sub> 주기도 堪當<sub>감당</sub>치 못함

갓다 흘썬만 아니라 彼等<sub>대회</sub>의 前<sub>앞</sub>에서 廣告<sub>광고</sub>하기를 내가 前<sub>전</sub>에 累次<sub>여러번</sub> 廣告<sub>광고</sub>한대 시야는 곳此<sub>이</sub>예

수라고 하였는디 其時<sub>그때</sub> 브터 예수<sub>고난</sub>의 苦難<sub>고난</sub>이 갓가워지기 始作<sub>시작</sub>하였습니다 何如<sub>엇지</sub>함이냐 하

면바리시敎人<sub>교인</sub>과 其他<sub>그다른</sub>예루살넴에 居<sub>거</sub>하는 官員<sub>관원</sub>들이 요한<sub>관원</sub>의 廣告<sub>광고</sub>를 듯고 예수對敵<sub>덕</sub>하야

크게 미운싱각이 난거슨 그를 다만 木手<sub>목수</sub>의 子인 줄노알고 肉身<sub>육신</sub>榮光<sub>영광</sub>업는대 시야를 願<sub>원</sub>치

아니 할사듬이 으 其時<sub>그때</sub> 브터 彼等<sub>대회</sub>이 예수를 對敵<sub>대적</sub>하기 始作<sub>시작</sub>하야 十字<sub>자가</sub>架<sub>가</sub>에 못박을時<sub>때</sub>사지

쉬지 아니 하였스니 本文<sub>본문</sub>言<sub>말</sub>과 又<sub>그날</sub>치 其日<sub>그날</sub> 브터 예수對敵<sub>대적</sub>者<sub>자</sub>의 數<sub>수</sub> 爰<sub>호</sub>中<sub>가운데</sub>에 奚<sub>참</sub>與<sub>에</sub>

하섯습니다

(二) 第二<sub>둘째</sub>幕<sub>막</sub>에 수對敵<sub>대적</sub>서 四十<sub>열</sub>日<sub>동안</sub> 曠野<sub>광야</sub>에 가서 祈禱<sub>기도</sub>하시고 禁食<sub>금식</sub>하신後<sub>후</sub>에 熱心<sub>열심</sub>으로 도라

오셔서 예루살넴 聖殿<sub>성전</sub>을 清潔<sub>청결</sub>케 하시라고 諸商<sub>모든장수</sub>買<sub>사</sub>를 逐出<sub>쫓내</sub>하시니 當日<sub>그날</sub>에 又<sub>또</sub>一次<sub>한번</sub> 유대敎<sub>교</sub>

會<sub>회</sub>가 예수를 惡者<sub>악한자</sub>로 判斷<sub>판단</sub>하였스니 「犯罪者<sub>범죄자</sub>의 數<sub>수</sub> 爰<sub>호</sub>中<sub>가운데</sub>에 參與<sub>참에</sub>하디다」 하섯습니다

(三) 第三<sub>데</sub>幕<sub>막</sub>에 何許<sub>나안</sub>安息日<sub>식일</sub>에 예수對敵<sub>대적</sub>서 傳道<sub>전도</sub>할時<sub>때</sub>에 一便<sub>한편</sub>手<sub>손</sub>枯<sub>마</sub>病<sub>른병</sub>者<sub>자</sub>를 곳치실事<sub>일</sub>에 對<sub>대</sub>

神 學 指 南

頌<sup>송</sup>고榮<sup>영</sup>光<sup>광</sup>을돌<sup>돌</sup>렸<sup>렸</sup>스니此<sup>이</sup>第<sup>둘</sup>二<sup>째</sup>幕<sup>막</sup>도깃<sup>깃</sup>브고平<sup>평</sup>安<sup>안</sup>할<sup>할</sup>時<sup>때</sup>요

(三) 第<sup>셋</sup>三<sup>째</sup>幕<sup>막</sup>은幾<sup>몇</sup>日<sup>일</sup>이<sup>이</sup>나幾<sup>몇</sup>月<sup>월</sup>後<sup>후</sup>에東<sup>동</sup>方<sup>방</sup>博<sup>박</sup>士<sup>사</sup>들이그嬰<sup>어</sup>兒<sup>린</sup>을차<sup>차</sup>자와서黃<sup>황</sup>金<sup>금</sup>과乳<sup>유</sup>香<sup>향</sup>과沒<sup>물</sup>

藥<sup>약</sup>을禮<sup>례</sup>物<sup>물</sup>노박<sup>박</sup>치고敬<sup>경</sup>拜<sup>배</sup>할<sup>할</sup>였<sup>였</sup>스니此<sup>이</sup>幕<sup>막</sup>도깃<sup>깃</sup>브고平<sup>평</sup>安<sup>안</sup>할<sup>할</sup>時<sup>때</sup>요

(四) 第<sup>네</sup>一<sup>째</sup>回<sup>회</sup>終<sup>종</sup>幕<sup>막</sup>은유<sup>유</sup>대國<sup>국</sup>北<sup>북</sup>便<sup>편</sup>나사렛洞<sup>동</sup>里<sup>리</sup>에열<sup>열</sup>렸<sup>렸</sup>스니그少<sup>소</sup>年<sup>년</sup>예<sup>예</sup>수<sup>수</sup>가艱<sup>간</sup>難<sup>난</sup>할<sup>할</sup>者<sup>자</sup>의家<sup>가</sup>

庭<sup>정</sup>에서生<sup>성</sup>活<sup>활</sup>할<sup>할</sup>는故<sup>고</sup>로受<sup>수</sup>苦<sup>고</sup>를만<sup>만</sup>히<sup>히</sup>할<sup>할</sup>시고世<sup>세</sup>人<sup>인</sup>의諸<sup>주</sup>般<sup>반</sup>困<sup>곤</sup>苦<sup>고</sup>를다<sup>다</sup>맛<sup>맛</sup>보<sup>보</sup>셨<sup>셨</sup>느니라當<sup>당</sup>時<sup>형</sup>形

便<sup>편</sup>을말<sup>말</sup>할<sup>할</sup>면리<sup>리</sup>우<sup>우</sup>困<sup>곤</sup>難<sup>난</sup>할<sup>할</sup>時<sup>때</sup>라도깃<sup>깃</sup>브고平<sup>평</sup>安<sup>안</sup>할<sup>할</sup>時<sup>때</sup>라고할<sup>할</sup>수<sup>수</sup>있<sup>있</sup>습<sup>습</sup>此<sup>이</sup>幕<sup>막</sup>의終<sup>종</sup>言<sup>언</sup>은누<sup>누</sup>가二

〇五<sup>오</sup>十二<sup>이</sup>에잇<sup>잇</sup>스니「예<sup>예</sup>수<sup>수</sup>가智<sup>지</sup>慧<sup>혜</sup>가더<sup>더</sup>고身<sup>몸</sup>이長<sup>장</sup>할<sup>할</sup>때<sup>때</sup>더<sup>더</sup>욱<sup>욱</sup>하<sup>하</sup>는<sup>는</sup>님<sup>님</sup>과人<sup>인</sup>의<sup>의</sup>寵<sup>寵</sup>을보<sup>보</sup>시<sup>시</sup>더<sup>더</sup>라」

二、第<sup>에</sup>二<sup>회</sup>回<sup>회</sup> 以<sup>우</sup>上<sup>에</sup>一<sup>회</sup>回<sup>회</sup>는다<sup>다</sup>깃<sup>깃</sup>브고平<sup>평</sup>安<sup>안</sup>할<sup>할</sup>時<sup>때</sup>요此<sup>이</sup>二<sup>회</sup>回<sup>회</sup>始<sup>시</sup>作<sup>작</sup>할<sup>할</sup>時<sup>때</sup>브터日<sup>일</sup>光<sup>빛</sup>이<sup>이</sup>어<sup>어</sup>두<sup>두</sup>워

지<sup>지</sup>고깃<sup>깃</sup>봄<sup>봄</sup>이<sup>이</sup>긋<sup>긋</sup>치고숨<sup>숨</sup>흔<sup>흔</sup>일<sup>일</sup>이<sup>이</sup>싱<sup>싱</sup>기<sup>기</sup>々<sup>々</sup>始<sup>시</sup>作<sup>작</sup>할<sup>할</sup>음

(一) 第<sup>첫</sup>一<sup>째</sup>幕<sup>막</sup>은요<sup>요</sup>단江<sup>강</sup>邊<sup>변</sup>베<sup>베</sup>다巴<sup>바</sup>라近<sup>근</sup>處<sup>처</sup>에서열<sup>열</sup>렸<sup>렸</sup>스니거<sup>거</sup>과<sup>과</sup>셔<sup>셔</sup>요<sup>요</sup>한<sup>한</sup>이洗<sup>세</sup>禮<sup>례</sup>를베<sup>베</sup>플<sup>플</sup>매<sup>매</sup>數<sup>수</sup>

多<sup>다</sup>한<sup>한</sup>人<sup>인</sup>民<sup>민</sup>이<sup>이</sup>오<sup>오</sup>는<sup>는</sup>가<sup>가</sup>온<sup>온</sup>뒤<sup>뒤</sup>에<sup>에</sup>수<sup>수</sup>도<sup>도</sup>오<sup>오</sup>서<sup>서</sup>洗<sup>세</sup>禮<sup>례</sup>를달<sup>달</sup>나<sup>나</sup>할<sup>할</sup>시<sup>시</sup>니<sup>니</sup>요<sup>요</sup>한<sup>한</sup>이辭<sup>사</sup>讓<sup>양</sup>할<sup>할</sup>였<sup>였</sup>느니라<sup>바</sup>

리<sup>리</sup>서<sup>서</sup>教<sup>교</sup>人<sup>인</sup>과祭<sup>제</sup>司<sup>사</sup>諸<sup>주</sup>長<sup>장</sup>들이<sup>이</sup>僞<sup>거</sup>心<sup>심</sup>으로와<sup>와</sup>서洗<sup>세</sup>禮<sup>례</sup>를달<sup>달</sup>나<sup>나</sup>할<sup>할</sup>時<sup>때</sup>에<sup>에</sup>요<sup>요</sup>한<sup>한</sup>이嚴<sup>엄</sup>히<sup>히</sup>責<sup>책</sup>할<sup>할</sup>기<sup>기</sup>를

예수를對敵宮과예수를待接함

예수를 對敵 宮과 예수를 待接 宮

(一) 第一幕始作하는 유대 國京城南便二十里相距되는 벅을 네 함城內에서 始作하는

것은 티一千九百十八年前이 오當夜에 예루살렘城內에는 榮光스러운 王도 있고 富者

와 權勢잡은 貴人들이 있섯스니 誰某던지 表面上으로 볼 것 又하면 其座席이 全國中에

榮光스러운 자리라고 할 듯하외다 然이나 거 眞榮光이 업섯슴니다 世上史記를 본 즉

헤롯王은 惡人인고 多人을 虐殺하고 終末에 自己의 長子까지 죽였는니 當夜에 從

容홀가온디 肉身榮光업시 벅을 네 함城內에서 榮光스러운 王이 誕生하섯슴니다 家

宅이 업스니 馬廐에 處하엿고 財物업스니 그 갓난 嬰兒를 옷 衽히지 못하고 襁褓로만 싸

노앗고 幫助하느니 업스니 그 母親과 요셉이 혼즈고 할 거슬 다 하엿고 肉身榮光하나도

업스나 하늘노셔 多數 天使들이 와서 讚頌하고 榮光을 돌렸슴니다 此一回一幕의 性

質을 말하면 깃브고 平安할 時요 그 天使들의 讚美와 又흔 거시오

(二) 第二幕은 四十日後에 예루살렘聖殿에서 열렸는디 그 嬰兒를 하는 日 獻하는 日

이 오當日에 예시야를 오티 苦待하던 老人시머온과 안나가 그 嬰兒를 안고 하는 日 讚

예수를對敵함과 예수를待接함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著述

本文 이사야五十三〇十二 빌二〇九一十一

犯罪者의 數文中에 參與하나 하는 념의 서늘히 을니사 諸名上에 超出名을 주섯

느니라

題目 예수를對敵함과 예수를待接함

引導 世人들이 幾皆演劇場이나 活動寫眞館에 가서 觀覽하기를 도화하느니라

하나 예수對하야 聖經에 記錄한 말을 보니 普通演劇보다 多한 演劇이 을세다 예수  
의 行蹟演劇中에 回가三이 잇고 每回內에 幕여러이 잇스니 今日此演劇을 又치 觀覽하

기를 希望함이다

一、第一回 此演劇의 初回는 滋味잇고 平安호回요

예수를對敵함과 예수를待接함

諸氏는自己의不足與否는勿論하고其內에入할거시라  
제씨 자의 부족 여부 물론 그안 드러갈

五、其內에入지아니하면主의平安을得지못함  
그안 드러가 주 평안 잇

假令淺水邊에出沒하는小魚隊는恒常驚動心으로지낼지니此는往來하는動物  
가령얕은물가 출몰 작은고기떼 항상놀리는동물 이 왕래하는동물

과飛去하는禽鳥를봄이오또한深水中에其處所를平安하고留하는巨魚는泰  
날나가 새들은 오또한深水中에其處所를平安하고留하는巨魚는泰

然心으로지낼지니此는他物은接見치아니하고但只水만봄이라然則信者도예  
호되오 이 다른물건 보지 다만물 그안주신자

수外에잇셔지낼거시면보는거시危險한此世上인고로不可不憂愁로지낼거시  
밖이 안 김히드러간자 위험 이세상 불가불근심오

나예수內에深入할者는예수外에잇는此世上은思치안는고로예수의平安만누  
안 밖이 이세상 생각지

랄거시라然故로예수의平安을得코져하는諸氏는其內에深入하여世上을忘却  
그안고 평안 잇고 제씨 그안 김히드러가서세상 니저만

할지어다  
릴

結末 以上幾條의理由를思할즉其內에入할여야만될지니然則現今諸氏는예수  
이상몇가지 이유 생각 그안 드러가

를받기만하는者가되지말고其內에入하기까지勉力하고祈求할지어다  
자 그안 드러가 힘쓰 귀구

三、 其內에 入지 아니하<sup>스</sup>면 愛의 主와 交際할 수 업<sup>슴</sup>

내 餘가 昨年春에 平壤新市街에 一種異常한 事를 보았는디 何許村間에 있는 女兒一

名이 日本商店前에 至하야 琉璃窓內에 있는 假花一朶를 보고 雙手로 執코져하나

琉璃가 間隔함을 因하야 하<sup>지</sup> 못하<sup>매</sup> 羞愧함을 不勝하<sup>여</sup> 우는 거슬보았스니 敎人

中에 아직도 自己力으로 예수를 交際코져하<sup>는</sup> 者가 心誠을 竭盡함으로 잇던 時에

는 主意의 心眼이 開하<sup>여</sup> 主의 容貌을 보는 듯하<sup>나</sup> 其內에 入지 아니하<sup>면</sup> 예수를 眞

的히 交際할 수 업스니 예수를 交際하<sup>고</sup> 저하<sup>는</sup> 諸氏는 自己力으로 예수를 交際하<sup>고</sup>

라고 하<sup>지</sup> 말고 速히 其內에 入하<sup>여</sup>야 할 거시라

四、 其內에 入하<sup>지</sup> 아니하<sup>면</sup> 예수와 交할 수 업<sup>슴</sup>

假令 無數한 雜鐵이 火爐에 入하<sup>기</sup> 前에는 火되기가 萬無하<sup>지</sup> 마는 火爐에 入하<sup>기</sup>

만하<sup>면</sup> 火와 同樣色을 成하<sup>는</sup> 니 此와 如히 雜鐵과 如하<sup>는</sup> 罪人이라 도 火爐와 交하<sup>여</sup>

수內에 入하<sup>기</sup> 만하<sup>면</sup> 그리스도人이 될 거시라 然故로 예수와 交치되기를 願하<sup>는</sup>

예수內에 入居함



一、 예수 내에 入지 아니함면 救援의 奧妙한 理致를 得할 수 업슴

가령 미성 유은 갈녀 온 슈박을 맛맛 그 수을 전 그 맛을 아지

假令 未成 幼兒가 濃熟한 水瓜를 受호엿스나 其 內部를 먹기 前에 是 其 味를 知치

못할지니 此와 如히 恩惠로 주신 예수를 밧고도 其 內에 不入호면 救援의 奧妙한 理

致를 得지 못할지라 然故로 救援의 奧理를 得코저 호는 諸氏는 誰某를 勿論호고 其

內에 入호여야 할거시라

二、 예수 內에 入지 아니함면 榮光의 主를 親見할 수 업슴

내가 몇히 전 천구 활등스진 정형 만히 드릿 천 무도

余가 幾年前브러 親舊의 卮 活動 寫眞의 情形을 飽聞호엿스나 親히 目睹치 못함으

로 沓々호더니 昨年 春에야 비로소 其 情形을 目睹호즉 듯던 바에서 幾倍나 더 分明

호고 滋味스른 지 稱言할 수 업도다 此와 如히 多年間 信主호는 者가 講道時

에나 聖經工夫時에 예수 的 形便을 飽聞호故로 예수를 他人의 卮 說明할 수 서지 잇스나 然이나 其 內에 入호지 아니함면 榮光의 主를 目睹치 못호고 아직 稀微할 것 썩 인즉 예수 的 榮光을 親見코저 호는 諸氏는 其 內에 入호여야 할거시라

記述的講道 (괴슬덕강도)

예수內에入居함

吳得仁 牧師 記述

본문 卷二〇二

문題 예수를受함者는其內에入함여야할것

인도 諸君의게請問함노니今日朝鮮半島에예수를信타가退去함者가幾萬名인

지斟酌할수잇는는余가一處敎會堂內에서六年間視務함는中에年々히新入者가五

六十名이된다함수잇스나敎人總數는恒常四百餘名에不過함는此는無他라新入者

는雖有함나그만몸退去者가又有함緣故라此를例見함신디朝鮮半島에예수를受함

고도其內에入지안코已함者가夥多함리로然則예수를受기만함고已함는것보다

其內에入함이必要함지니故로예수內에入함여야될理由를幾條로解說함노라

예수內에入居함

其朗讀하는디其意를顯出할수잇는니라

(四)朗讀하기를學習할거시라

講道를預備하듯朗讀하는것도預備하거시合當하니多年間勉力工夫한人이라

야聖經을잘朗讀할거시라句々節々이其言을察視하고分別하야要點과休息處를

알아서諸般音聲을預先分揀하거시要緊하니라要點一處라도變하면聖經말씀

이倒着될수잇스니마래廿五〇卅七節에흔이「何時라」는言을要點으로하나곳처「主

씨서」라한言을宜當히要點으로할거시오然則其全譬喩의뜻이變하야다르게되느

니라

唇舌노言辭를分明히만하면過大音聲을쓰지아니하여도聽衆이足히得聞하

게될거시오音聲을알아들을만치만朗讀하고其聲音과容貌와體格의運動으로其

言의뜻을다通情하느心意로顯出하거시도흔朗讀이라

用力學習하면보비로운新能力을얻고牧師의權能이倍나더될수잇는니라

(四) 讚美와 又 은 詩言도 잇슴

此四部分의 言을 各異케 朗讀호거시니 各其種類대로 適當하게 朗讀호라면 第一도

은 方針은 演習함으로 作定호거시라

(二) 句節々々노나 章々이 其主體되는 辭意대로 等分호는거시미우도 은거시라

假令詩篇九十과 九十一을 比較호면 九十은 敬畏호는거시오 祈禱요 嚴肅함은 言이오

九十一篇은 膽大호고 憂慮업는 讚頌이라

此二篇言을 朗讀호라면 相同호게 못호거시라

갈나디야 五章言을 보면 上半章은 敎訓호는 討論과 又호나 下半章言은 美畫와 又

호니 此二部分의 言을 同一호게 朗讀호지 말호거시오

(三) 朗讀者가 自己의 思호는 心辨아나라 感覺호는 心으로 聖經을 서듯 고알어야 잘

朗讀호수 잇는니 朗讀者心中에 七情이 感發되야 其冊에 眞意를 顯出호수 잇는니라

心中에 悲哀이나 忿怒이나 愛이나 憎惡이나 矜恤이나 喜悅이나 恐懼가 感應되야

適中히 할 거시라 然하나 其演劇者의 意思發表의 要衷은 學할 만하니라 假令十字架

語句를 朗讀할 時에 感悵을 心情을 不勝하여 流淚할 것 又하면 含淚하면서 讀過하느

거시 無妨할 거시 自然則 主의 復活을 신句語를 朗讀할 時에 할 時에 呼하면서 讀하

것도 도흔 거시라 故로 喜悅과 悲悵과 慰勞와 憎惡의 皆其意趣를 音聲으로 顯出할

수잇습이라

(二) 聖經朗讀하는 거시 何許한 方法으로 잘할 수잇는뇨

牧師가 朗讀하는 거시 잘하랴면 聖經을 晝夜로 深究하야 眞義를 裏々히 通透히 알아야

하겟소 眞正한 朗讀은 解釋이 되느니라 裏意를 모르면 有益을 시 實朗讀은 못될 거시라

(一) 聖經言을 或種類대로 分하면 朗讀하는 데 有益잇슴

(一) 來歷과 圖畫와 又 新言도 잇고

(二) 敎訓하는 言도 잇고

(三) 預言한 言辭도 잇고



은 림시 臨時로 할 수 있는 줄 아느니 이 마음을 此心을 기방 改良할 때 망독자 時々지도 혼 망독 朗讀者되기를 바라지 못 할

거시라 목수회명중 牧師百名中에 예비 預備할工夫 공부 업시 잘 망독 朗讀할 자 者가 일인 一二人에 불과 不過할지니 목수 牧師된

자 者마다 김희성과 深思하고 준비 準備할 거시라

(二) 망독 朗讀하는 대일 第一 실수 쉽게 하는 실수 失手가 무어시뇨

(一) 음성 音聲이나 용모 容貌나 대격 體格으로 허식 虛飾이나 망독 거시라

何人은 후천 或友人과 교제상 交際上 언론 言論은 잘 서책 하거나 망독 書冊을 망독 朗讀하기 시작 始作할 수모양 즉 망독 泣樣으로 망독 讀하던

지 찬미 讚美하듯 말소리 하던 말소리 言聲을 이상 異常케 후진 하야 망독 或長讀하던 후단 거나 망독 或短促하게 말소리와 하야 말소리와 辭意와 서로이 相違

하게 용모 容貌와 대격 體格을 이상 異常스럽게 이 하니 취미 此는 취미 趣味 말소리 單業을 말소리 뿐아니라 덕당 適當치 못

하고 도후 且 음형 或者는 음형 淫行이라 말소리와 하는 말소리와 語句와 말소리와 聖潔이라 말소리와 하는 말소리와 語聲을 말소리와 同樣 말소리와 聲音으로 망독 朗讀하는

니 이 此는 경고 淨穢를 말소리와 分別치 아니 말소리와 하는 거시라 가령 假令 음형 淫行이라 말소리와 하는 말소리와 語句들 말소리와 朗讀할 말소리와 時에 용 容

貌와 음성 音聲과 전신 全身으로 음형 其淫行에 악 惡하고 오예 汚穢한 의미 意味를 나타낼 顯出할 거시 아니 대개 蓋 망독 朗讀할

時에 그말의 其辭意를 대소 大小와 상하 上下의 성음 聲音이 분간 分揀하야 남녀 갓고 성음 男女의 성음 聲音과 대개 하는 망독 時

(三) 何教會中에서는 그 又 例次로는 알지 아니하나 禮拜節次中 少部分으로 認定  
하는 發表가 現하는 니 敎友들이 自然히 輕히 녀이게 되는 니라 或 講道에 付屬例로도

알고 序文과 又 치도 쓰는 니 到底히 不可하고 或 다 른 節次에 時間을 足하게 하기 爲하  
야 聖經은 數節만 速讀하고 마는 니 此는 聖經을 相當히 待遇치 안는 大失手라 萬一 此

와 又 치하면 聽衆들이 牧師알기를 하는 님의 代言者로 認定할 수 업고 自己의 製述할  
俗諺을 爲하야 來者로 만 볼 수 받게 업는 니라

亦何 教會에서는 聖經朗讀을 洽足하하나 迅速讀去하하니 無實호 遊戲와 又 치되고 聽  
者로 하여 公聖經을 慢忽히 녀이게 하는 事도 잇는 거시라 或 朗讀을 多數하하나 細微

聲으로 하던지 分明치 못하노하는 故로 有益이 업고 好影響을 받기 어려오나 라  
聖經을 朗讀하는 거슨 卽하는 님의 言辭를 直說하는 거시니 禮拜節次中 特別히 注

意하야 第一 緊要한 恩賜을 받는 機會로 알고 勉力할 거시라  
(四) 牧師들과 敎人中에서 라도 皆思하기를 講道는 預備하여 야 될 줄이나 聖經朗讀



님의言도代身으로할수잇는니라

(二)何教會에서는聖經朗讀하는거슨一端傳例로만알고但禮拜時間에充數하기

爲하야輕忽히녀이는貌樣으로하는니엇지朗讀하는中에趣味를잇을수잇스리오

이처럼聖經朗讀을禮式의一部分으로만알고廣告하면聽衆이所重히녀일리가잇

겟는요然故로有益을받을수업는니라或이말하기를敎友들이皆聖經이잇서各々

본즉我が力讀지아니하는여도關係치안타하니此는尤極失手에言이라聖經을朗讀

하는거슨凡忽한事이아니라禮拜中에貴重한部分인즉牧師가其朗讀의言辭로眞

義를顯示하고敎友들도宜當히自己冊을隨着하면耳目으로다眞理를받을터이니

有益을더욱받을거시라

牧師가이처럼自己의心中預備와音聲預備로聖經의뜻을尋記者의思想과又区分

明하고아름답게顯示하면該朗讀은講道도되고註釋도되고自然히通譯과解釋이

될거시라

이 오 희 귀 한 능 력 이 라

(一) 聖經朗讀하는 事에 對하야 何許牧師들은 逾偏되히 思하는 是 朗讀할 時에 俚諺

하듯 하는 거슨 하는 님을 鄭重히 待遇하는 거시 아니 오 또 한 그 뜻슬 音聲으로 顯出하

는 거슨 演劇하는 無實者의 糞바라 하 며 虛飾만 되고 其職分에 正當치 못 한 事라 하는

니 未嘗不 聖經을 朗讀하는 거슬 此와 又 한 穩當치 못 한 儀式은 盡棄하야 하 겠지 마

는 如許한 試驗은 되 지 안 코 朗讀하는 일은 有益되게 할 수 있는 니 라 聖經句語中에 別

뜻과 別味를 다 消抹식히고 어물 거려 留聲器에서 나는 聲音과 又 치하면 此는 眞正한

聖經朗讀이 아니 오 僞飾하는 거시 라 聖經을 잘 朗讀하는 者가 聖經을 深究함으로 其

聖經記述者의 衷曲思想과 意趣를 알고 當時記錄한 形便과 뜻 又 한 貌樣을 思하는 中

에 서 言하는 니 라 然則 聖經中에 있는 者들과 同人이 되고 同情을 表하는 知己의 友가

될 수 있는 니 라 如是케 된 즉 想像하는 中에 相近하고 相助하야 有 助한 朗讀이 될 거시

라 如許케 聖經을 朗讀하는 中에 敬畏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自己言을 하 면서 하는

故로禮拜節次中에第一緊重하고할수밖과업는거슨聖經을朗讀하는部分이라誰某

던지會前에서서聖經을朗讀하는人은하는님과人間에서先知者或代言者或通辯

者가되여其言을傳할時에其音聲과容貌와運動으로該聖經의뜻을自顯示하여야할

니니大概音聲으로其眞意를顯出할수도잇고蔽할수도잇는니이러함으로公衆朗讀

은講道보다要緊치안타할수업는니라

此問題에對하야三旨로난化工夫할수잇슴

(一)會中에聖經朗讀하는디對하야有益과趣味가何故로不足하뇨

(二)會席에서聖經을朗讀하는디第一쉽게하는失手が무어서뇨

(三)聖經朗讀하는거슬何如方法으로하야잘할수잇는뇨

普通敎會에聖經을朗讀하는디別有益과趣味가업는거슨共同所知라何故로然고

하니幾皆講道만重히녀이며聖經朗讀하는거슨例事로온거스roman認定함이라聖經

의眞理를其辭意대로適合하게朗讀하야其眞正한意味를顯出하는거슨特別한才分



# 聖經朗讀

(성경 랑독)

哲學博士 鄧 錫 牧師 著述  
神學博士 郭安連 牧師 翻譯

## ○講臺에서 성경 랑독

聖經이 最初로 出世될 時에 第一多히 所用되기는 公衆會席에 朗讀으로 需用되었는

나 聖經에 對한 最初使命은 公會에서 朗讀이라고 할 거시라

如是히 所用되기를 爲하야 記錄한 바가 되었는디 特別히 新約全書가 皆此로 因하야 編

輯된 거시 舊約猶大人의 禮拜堂에서 禮拜할 時에 예수 世上에 계실 때 서자라도 幾皆

聖經朗讀이 其朗讀하기는 大概講道하기보다 猶久할 거시라 聖經의 言을 朗讀하

라 할 命은 講道하라는 것보다 有力하고 長緩케 하라는 거시라 然則 聖經朗讀하느거

는 講道하느중 最先基礎된 講說種類라

바울使徒가 디 모데의 게 (딤후전 4:13) 聖經을 熟讀하라고 敎訓하거슨 個人으로

만讀하라는 關係가 있슬 뿐 아니라 公衆을 對하야 朗讀하라는 意趣도 있느니라

할섯스니 우리 부흥회 吾儕復興會는 중 中에는 성경 예수가 우리心腸이 되게 하는 가장 요소 事最要素가 되는

거신즉 이거시 때 此乃 도 第五條의 실디 實地條目이라

(六) 항상 기도 恒常祈禱하기를 집안 務한 거시라

此는 이 最末要言이 이 如斯히 이 祈禱하는 일 一事만 일 잇스면 어는 何教會던 부흥 事復興은 날 늘 날 굿칠날

이업슬 거시오 일 三日祈禱會와 가 家屬祈禱會와 시 曉晨祈禱會와 다 外他諸般祈禱會가 어 何敎

會던 회 日을 하 잇슬 것 우 又 우 흐면 무 牧師의 교 敎友가 무 多無識하고 인 引導에 생 生疎할지라 도 하는 우 日

서 하 天門을 크 大開하시 신 靈福을 사 積置할 곳 處가 어 無하고 은 恩賜할 거 事 우 吾儕가 或 日字

를 과 作定하고 부 復興會를 기 開催하 라 고 하는 방 方針이 잇 스나 제 第一要緊한 거 事는 하 는 님 님압해

俯伏하야 부 祈禱로 부 復興이 來 來하 게 여 주 주시기를 구 懇求하 는 거시라

右 우 記한 도 六條目을 다 보니 다 皆實地의 도 條目이 오 朝鮮敎會形便에 미 宜우 적 適合한 거시라 此 使徒

事 수 實노 하는 님 日의 모 模本으로 주 主신 거시니 此 方針의 法 法대로 만 行하면 新 新

入 입 敎友를 간 看守不失하고 극 極嘉한 結 結果로 末 末日에 하 는 님 日獻上할 거시라

退<sup>물러</sup>息<sup>감</sup>을 立<sup>세우</sup>見<sup>보</sup>할 자니 此<sup>이</sup>를 注<sup>주</sup>意<sup>의</sup>하야 新<sup>새</sup>教<sup>교</sup>友<sup>우</sup>를 實<sup>실</sup>心<sup>심으로</sup>交<sup>교</sup>涉<sup>섭</sup>하며 看<sup>간</sup>守<sup>수</sup>하야 教<sup>교</sup>役<sup>역</sup>者<sup>자</sup>되 기

自<sup>양</sup>養<sup>성</sup>成<sup>성</sup>할 거시라 朝<sup>조</sup>鮮<sup>선</sup>教<sup>교</sup>會<sup>회</sup>에 一<sup>일</sup>大<sup>대</sup>問<sup>문</sup>題<sup>제</sup>가 있스니 曾<sup>이</sup>往<sup>왕</sup>에 是<sup>맞</sup>어 드려 온 계서 信<sup>믿</sup>入<sup>어</sup>諸<sup>다</sup>氏<sup>나</sup>가 入<sup>입</sup>會<sup>회</sup>하 면서

卽<sup>즉</sup>時<sup>시</sup>自<sup>자</sup>己<sup>기</sup>의 親<sup>친</sup>舊<sup>구</sup>族<sup>족</sup>戚<sup>척</sup>을 對<sup>대</sup>하야 예수의 말씀을 証<sup>증</sup>據<sup>거</sup>하 고 冥<sup>먼</sup>도 록 勸<sup>권</sup>勉<sup>면</sup>하 더니 近<sup>근</sup>年<sup>년</sup>則<sup>은</sup>

不<sup>그</sup>然<sup>러</sup>하야 自<sup>자</sup>己<sup>기</sup>一<sup>신</sup>身<sup>신</sup>만 思<sup>사</sup>하 고 家<sup>가</sup>族<sup>족</sup>의 別<sup>별</sup>도 別<sup>전</sup>도 傳<sup>전</sup>道<sup>도</sup>하 는 熱<sup>열</sup>誠<sup>성</sup>이 業<sup>업</sup>은 卒<sup>졸</sup>實<sup>실</sup>노 慨<sup>개</sup>歎<sup>탄</sup>할

바라 故<sup>고</sup>로 教<sup>교</sup>內<sup>내</sup>外<sup>외</sup>를 勿<sup>무</sup>論<sup>론</sup>하 고 道<sup>도</sup>로써 親<sup>친</sup>密<sup>밀</sup>히 交<sup>교</sup>接<sup>접</sup>하야 其<sup>그</sup>心<sup>마음</sup>을 冥<sup>그</sup>도 록 其<sup>그</sup>人<sup>사람</sup>을 救<sup>구</sup>하 는 거

시 第<sup>제</sup>一<sup>번</sup>寶<sup>보</sup>貝<sup>배</sup>로 온 方<sup>방</sup>針<sup>침</sup>의 第<sup>제</sup>四<sup>번</sup>條<sup>조</sup>되 는 條<sup>조</sup>目<sup>목</sup>이 라

(五) 餅<sup>떡</sup>을 擘<sup>깨</sup>하야 食<sup>먹</sup>하 고 互<sup>서</sup>相<sup>로</sup>集<sup>모</sup>合<sup>합</sup>하 기를 務<sup>힘</sup>하 는 거시라

此<sup>이</sup>는 信<sup>신</sup>者<sup>자</sup>들이 聖<sup>성</sup>餐<sup>찬</sup>으로 會<sup>모</sup>하 는 거시니 聖<sup>성</sup>餐<sup>찬</sup>은 卽<sup>곧</sup> 예수를 紀<sup>기</sup>念<sup>념</sup>하 는 거신 즉 此<sup>이</sup>會<sup>회</sup>席<sup>석</sup>에

서는 特<sup>특</sup>別<sup>별</sup>히 예수를 逢<sup>맞</sup>迎<sup>다</sup>하 는 切<sup>요</sup>要<sup>진</sup>한 時<sup>시</sup>間<sup>간</sup>이 라 이 坐<sup>좌</sup>席<sup>석</sup>에서 特<sup>특</sup>別<sup>별</sup>히 心<sup>마음</sup>眼<sup>눈</sup>으로 其<sup>그</sup>十<sup>십</sup>字<sup>자</sup>

架<sup>가</sup>에 高<sup>높</sup>懸<sup>히</sup>하 는 주를 仰<sup>양</sup>視<sup>시</sup>하 고 其<sup>그</sup>赫<sup>홀</sup>冕<sup>홀</sup>과 流<sup>흘</sup>血<sup>피를</sup>을 深<sup>깊</sup>思<sup>생각</sup>하야 예수의 贖<sup>속</sup>罪<sup>죄</sup>하 심과 極<sup>극</sup>盡<sup>진</sup>히 愛<sup>사랑</sup>

하 심을 覺<sup>깨</sup>悟<sup>닫</sup>케 되 고 感<sup>감</sup>謝<sup>사</sup>하 고 讚<sup>찬</sup>頌<sup>송</sup>하 게 되 니 다 使<sup>사</sup>徒<sup>도</sup>들의 教<sup>교</sup>授<sup>수</sup>하 는 中<sup>중</sup>에 예수를 心<sup>심</sup>腸<sup>창</sup>

으로 知<sup>알</sup>하야 受<sup>아</sup>케 하 였 고 또 예수의 말<sup>말</sup>씀<sup>씀</sup>이 「受<sup>수</sup>苦<sup>고</sup>하 고 重<sup>무</sup>거 온 짐 任<sup>진</sup>자 다 나 와 서 비 호

(三)使徒가 敎訓하는디 勉力하거시오

使徒들이 敎會를 建設하는거시世上社會를 立하는者들과 懸殊히 不同한거슨무슨

肉身에 對한 權勢나 財物 밧을 거슬 傳布하거시 아니오 但 永遠히 업서 지지 아니 할하

느님의 福音 道理를 傳播하고 힘쓰거시라 萬一其時에 大聲舞蹈와 異常한 貌樣으로

演戲場又치 玩覽거리로 하고 止하였을것고 하면 暫時그로 因하야 밧노라 고하는者

를 得할지라도 說히가 업는 信仰이 덜더인즉 緊急히 할일은 道理를 敎授하고 學習케

하기를 專務하야 그 新進信者들이 各其 信仰에 對하야 根基를 着立할거시라 故로

復興에는 第一要緊한 材料가 聖經의 道理를 專務 敎授하는거시니 若不然則 新得

信者가 必皆 退縮하야 敎會 事業이 自然 失敗될지니 此 第三條도 眞個 實地條目이라

(四)互相 交接하는디 勉力하거시오

敎會나 社會를 勿論하고 此에서 尤勝한 方針이 無하니 何會 團體던지 舊會員이 新入

者를 善良한 方法으로 잘 迎接하고 親睦하며 訪問하지 아니하면 暫時後에는 皆其 厭



爲<sup>위</sup>하야推<sup>평</sup>誘<sup>제</sup>할수업는거시아니오닛가一般<sup>반교인 단속호시간</sup>敎人이短<sup>단</sup>促<sup>속</sup>時間이라도一<sup>체</sup>齊<sup>평</sup>히救<sup>구</sup>靈<sup>혼</sup>等<sup>등</sup>

事<sup>노일</sup>에輪<sup>륜</sup>回<sup>회</sup>하야獻<sup>헌</sup>身<sup>신</sup>의主<sup>주</sup>意<sup>의</sup>를務<sup>협쓰</sup>하면役<sup>역</sup>事<sup>사</sup>者<sup>자</sup>가不<sup>부</sup>足<sup>족</sup>之<sup>지</sup>歎<sup>탄</sup>이決<sup>결</sup>無<sup>단</sup>할거시라設<sup>설</sup>或<sup>혹</sup>躬<sup>몸</sup>進<sup>소나아</sup>

할수업슬지라도時<sup>때</sup>々<sup>때</sup>營<sup>영</sup>業<sup>업</sup>에從<sup>종</sup>事<sup>사</sup>하면서晝<sup>주</sup>宵<sup>소</sup>로人<sup>사람</sup>을爲<sup>위</sup>하야祈<sup>기</sup>禱<sup>도</sup>할수는잇는니故<sup>고</sup>

로此<sup>이</sup>第<sup>데</sup>一<sup>도</sup>條<sup>도</sup>는熱<sup>열</sup>心<sup>심</sup>에實<sup>실</sup>地<sup>디</sup>條<sup>도</sup>目<sup>목</sup>이라하노라

(二)全<sup>은</sup>敎<sup>교</sup>會<sup>회</sup>가合<sup>합</sup>力<sup>력</sup>하야不<sup>변</sup>變<sup>저</sup>하는目<sup>목</sup>的<sup>적</sup>을두교從<sup>종</sup>事<sup>사</sup>호거시오已<sup>이</sup>爲<sup>위</sup>信<sup>신</sup>者<sup>자</sup>인즉自<sup>자</sup>己<sup>기</sup>의

信<sup>믿</sup>仰<sup>음</sup>으로受<sup>받</sup>호출<sup>출</sup>알고用<sup>협</sup>力<sup>력</sup>하야人<sup>사람</sup>의生<sup>성</sup>命<sup>명</sup>을救<sup>구</sup>活<sup>활</sup>하여주라고目<sup>목</sup>的<sup>적</sup>을立<sup>세</sup>호고일호거

시니此<sup>이</sup>實<sup>거</sup>要<sup>사실상요진</sup>緊<sup>요진</sup>호거시라敎<sup>교</sup>友<sup>우</sup>中<sup>중</sup>에萬<sup>만</sup>一<sup>일</sup>이일<sup>일</sup>이成<sup>성</sup>就<sup>취</sup>될가疑<sup>의</sup>詞<sup>수</sup>를發<sup>발</sup>하야於<sup>이</sup>左<sup>터</sup>於<sup>터</sup>右<sup>리</sup>로

風<sup>바람</sup>靡<sup>에서</sup>하듯하면事<sup>일이</sup>決<sup>결</sup>不<sup>코</sup>成<sup>불성</sup>할거시오假<sup>가</sup>令<sup>령</sup>富<sup>부</sup>者<sup>자</sup>의圖<sup>도</sup>章<sup>장</sup>을捺<sup>마</sup>은銀<sup>은</sup>行<sup>행</sup>標<sup>표</sup>가잇슬것又<sup>또</sup>호면

疑<sup>의</sup>心<sup>심</sup>업시銀<sup>은</sup>行<sup>행</sup>에가서其<sup>그</sup>標<sup>표</sup>에金<sup>금</sup>額<sup>액</sup>으로推<sup>추</sup>尋<sup>심</sup>하야쓰라고할거시아니요天<sup>하</sup>에게신<sup>신</sup>父<sup>아</sup>

하<sup>하</sup>는<sup>하</sup>님<sup>하</sup>의<sup>하</sup>多<sup>다</sup>大<sup>대</sup>하<sup>하</sup>許<sup>허</sup>諾<sup>락</sup>들은銀<sup>은</sup>行<sup>행</sup>標<sup>표</sup>보다尤<sup>더</sup>極<sup>극</sup>信<sup>신</sup>實<sup>실</sup>無<sup>무</sup>疑<sup>의</sup>할거시아니오닛가人<sup>사람</sup>의救<sup>구</sup>贖<sup>속</sup>

을爲<sup>위</sup>하야懇<sup>근</sup>求<sup>구</sup>하<sup>하</sup>는者<sup>자</sup>의게厚<sup>후</sup>히주실거시니第<sup>데</sup>二<sup>도</sup>條<sup>도</sup>는該<sup>그</sup>目<sup>목</sup>的<sup>적</sup>을成<sup>일</sup>호는디實<sup>실</sup>地<sup>디</sup>의條<sup>도</sup>

目<sup>목</sup>이<sup>이</sup>라

備<sup>비</sup>만<sup>만</sup>善<sup>선</sup>良<sup>량</sup>히<sup>히</sup>할<sup>할</sup>것<sup>것</sup>又<sup>又</sup>흐<sup>흐</sup>면<sup>면</sup>多<sup>다</sup>數<sup>수</sup>의<sup>의</sup>結<sup>결</sup>果<sup>과</sup>를<sup>를</sup>得<sup>얻</sup>을<sup>을</sup>거<sup>거</sup>는<sup>는</sup>定<sup>정</sup>理<sup>리</sup>致<sup>치</sup>니<sup>니</sup>라

(二)失<sup>실</sup>手<sup>수</sup>를<sup>를</sup>免<sup>면</sup>할<sup>할</sup>模<sup>모</sup>本<sup>본</sup>은<sup>은</sup>형<sup>형</sup>二<sup>二</sup>〇<sup>〇</sup>四<sup>四</sup>十二<sup>十二</sup>에<sup>에</sup>불<sup>불</sup>수<sup>수</sup>가<sup>가</sup>잇<sup>잇</sup>스<sup>스</sup>니<sup>니</sup>六<sup>여</sup>部<sup>소</sup>分<sup>부</sup>에<sup>에</sup>條<sup>도</sup>目<sup>목</sup>이<sup>이</sup>有<sup>있</sup>음<sup>음</sup>이<sup>이</sup>라

(一)其<sup>그</sup>復<sup>부</sup>興<sup>흥</sup>이<sup>이</sup>始<sup>시</sup>作<sup>작</sup>될<sup>데</sup>時<sup>때</sup>에<sup>에</sup>使<sup>소</sup>徒<sup>도</sup>들<sup>들</sup>이<sup>이</sup>日<sup>일</sup>字<sup>자</sup>의<sup>의</sup>期<sup>기</sup>限<sup>한</sup>을<sup>을</sup>作<sup>작</sup>定<sup>정</sup>하<sup>하</sup>지<sup>지</sup>아<sup>아</sup>니<sup>니</sup>하<sup>하</sup>고<sup>고</sup>無<sup>무</sup>時<sup>시</sup>로<sup>로</sup>繼<sup>계</sup>續<sup>속</sup>

하<sup>하</sup>야<sup>야</sup>累<sup>여</sup>朔<sup>리</sup>累<sup>리</sup>年<sup>년</sup>에<sup>에</sup>復<sup>부</sup>興<sup>흥</sup>會<sup>회</sup>를<sup>를</sup>하<sup>하</sup>거<sup>거</sup>시<sup>시</sup>니<sup>니</sup>其<sup>그</sup>最<sup>최</sup>初<sup>초</sup>에<sup>에</sup>三<sup>천</sup>千<sup>명</sup>名<sup>명</sup>의<sup>의</sup>衆<sup>중</sup>이<sup>이</sup>信<sup>무</sup>進<sup>리</sup>하<sup>하</sup>였<sup>었</sup>고<sup>고</sup>又<sup>또</sup>幾<sup>몇</sup>日<sup>날</sup>後<sup>후</sup>

에<sup>에</sup>一<sup>하</sup>日<sup>로</sup>二<sup>천</sup>千<sup>명</sup>名<sup>명</sup>의<sup>의</sup>信<sup>신</sup>者<sup>자</sup>를<sup>를</sup>得<sup>얻</sup>었<sup>었</sup>스<sup>스</sup>며<sup>며</sup>其<sup>그</sup>後<sup>후</sup>에<sup>에</sup>도<sup>도</sup>連<sup>련</sup>續<sup>속</sup>하<sup>하</sup>야<sup>야</sup>數<sup>수</sup>多<sup>다</sup>하<sup>하</sup>는<sup>는</sup>人<sup>인</sup>民<sup>민</sup>이<sup>이</sup>信<sup>믿</sup>進<sup>어나</sup>하<sup>하</sup>거<sup>거</sup>시

라<sup>라</sup>然<sup>그</sup>則<sup>런</sup>其<sup>도</sup>第<sup>목</sup>一<sup>목</sup>條<sup>목</sup>目<sup>목</sup>으로<sup>으로</sup>는<sup>는</sup>聖<sup>성</sup>神<sup>신</sup>의<sup>의</sup>일<sup>일</sup>을<sup>을</sup>日<sup>일</sup>字<sup>자</sup>로<sup>로</sup>限<sup>한</sup>定<sup>정</sup>하<sup>하</sup>거<sup>거</sup>시<sup>시</sup>아<sup>아</sup>니<sup>니</sup>오<sup>오</sup>引<sup>인</sup>導<sup>도</sup>하<sup>하</sup>는<sup>는</sup>대<sup>대</sup>로<sup>로</sup>

하<sup>하</sup>라<sup>라</sup>고<sup>고</sup>始<sup>시</sup>作<sup>작</sup>하<sup>하</sup>였<sup>었</sup>는<sup>는</sup>니<sup>니</sup>라<sup>라</sup>肉<sup>육</sup>身<sup>신</sup>生<sup>성</sup>活<sup>활</sup>을<sup>을</sup>爲<sup>위</sup>하<sup>하</sup>야<sup>야</sup>事<sup>수</sup>業<sup>업</sup>從<sup>종</sup>事<sup>수</sup>하<sup>하</sup>는<sup>는</sup>사<sup>사</sup>람<sup>람</sup>들<sup>들</sup>이<sup>이</sup>終<sup>종</sup>日<sup>일</sup>로<sup>로</sup>특<sup>특</sup>生<sup>성</sup>業<sup>업</sup>

을<sup>을</sup>廢<sup>폐</sup>棄<sup>기</sup>하<sup>하</sup>고<sup>고</sup>作<sup>작</sup>定<sup>정</sup>업<sup>업</sup>시<sup>시</sup>如<sup>기</sup>期<sup>기</sup>히<sup>히</sup>累<sup>여</sup>月<sup>월</sup>間<sup>간</sup>을<sup>을</sup>하<sup>하</sup>는<sup>는</sup>수<sup>수</sup>업<sup>업</sup>을<sup>을</sup>辨<sup>변</sup>아<sup>아</sup>니<sup>니</sup>라<sup>라</sup>예<sup>예</sup>수<sup>수</sup>씩<sup>씩</sup>셔<sup>셔</sup>도<sup>도</sup>그<sup>그</sup>대<sup>대</sup>로<sup>로</sup>하<sup>하</sup>라

고<sup>고</sup>命<sup>명</sup>令<sup>령</sup>하<sup>하</sup>는<sup>는</sup>지<sup>지</sup>아<sup>아</sup>니<sup>니</sup>하<sup>하</sup>는<sup>는</sup>줄<sup>줄</sup>노<sup>노</sup>아<sup>아</sup>는<sup>는</sup>거<sup>거</sup>시<sup>시</sup>지<sup>지</sup>오<sup>오</sup>만<sup>만</sup>은<sup>은</sup>幾<sup>기</sup>皆<sup>다</sup>某<sup>어</sup>人<sup>사</sup>이<sup>이</sup>던<sup>던</sup>지<sup>지</sup>一<sup>주</sup>週<sup>간</sup>間<sup>간</sup>一<sup>일</sup>二<sup>일</sup>日<sup>일</sup>

夕<sup>저</sup>에<sup>에</sup>만<sup>만</sup>이<sup>이</sup>야<sup>야</sup>獻<sup>헌</sup>身<sup>신</sup>하<sup>하</sup>는<sup>는</sup>가<sup>가</sup>업<sup>업</sup>다<sup>다</sup>하<sup>하</sup>는<sup>는</sup>수<sup>수</sup>잇<sup>잇</sup>겟<sup>겟</sup>소<sup>소</sup>假<sup>가</sup>令<sup>령</sup>鄰<sup>리</sup>親<sup>친</sup>友<sup>우</sup>人<sup>인</sup>이<sup>이</sup>緊<sup>신</sup>急<sup>명</sup>하<sup>하</sup>는<sup>는</sup>身<sup>신</sup>病<sup>병</sup>을<sup>을</sup>因<sup>인</sup>하<sup>하</sup>야<sup>야</sup>一

時<sup>시</sup>醫<sup>의</sup>士<sup>사</sup>를<sup>를</sup>請<sup>청</sup>邀<sup>요</sup>하<sup>하</sup>여<sup>여</sup>來<sup>오</sup>케<sup>케</sup>하<sup>하</sup>여<sup>여</sup>달<sup>달</sup>나<sup>나</sup>하<sup>하</sup>면<sup>면</sup>아<sup>아</sup>모<sup>모</sup>리<sup>리</sup>無<sup>거</sup>暇<sup>를</sup>하<sup>하</sup>지<sup>지</sup>라<sup>라</sup>도<sup>도</sup>其<sup>그</sup>生<sup>성</sup>命<sup>명</sup>의<sup>의</sup>危<sup>위</sup>急<sup>급</sup>함<sup>함</sup>을

神學指南

흔이復興會準備하느거슬보면其復興을日字마치豫算하야比較的으로預備하고

新入信者와其得力を看守하기爲하야滿足하게準備하지아니하느거시라

大盖朝鮮教會形便으로말할것又흐면復興會를爲하야準備하느것보다復興會後

에新進者를看守하기爲하야倍나預備할거시라幼兒가肉種을喫할수업고自立에行

步도할수업스며衣服도自由로着衣치못할지니新入信者가此와如히自行하기를期

望할수업스즉自然誰某던지穉弟를保佑하느兄과又흐貌樣으로其人을擔任하야敎

育하며指導하고慰勞도하며勸勉도하고愛함으로通情하면其看守할效力으로堅固

히될수잇스나若其自立하기를企待리고泛過할즉依例히息退되여見失할수밧게업

느거시라吾儕敎役者들의失策이專히此에在할줄노知하노라然則敎役者가新得한

信者를親密히交際하야互相來往하며接待도하고敎友들의介紹하야交誼도敦篤

케하고失手를敎導하며信行을勸告하며肉身에關한產業等事라도相議케되면靈肉

을다發展케할지니此乃良好한方法이라吾儕前失手는預備를疎忽하緣故이니預

第五講演 復興會後方法

朝鮮教會가 年々히 諸處에서 敎友와 敎役者들이 會集하야 復興會를 幾日間 開催하

는 中에 信進者가 年復年累千名의 多數가 되々 其 復興會를 畢한 後에는 往々히 新信者

들이 消退하고 다시 墮落하며 已久히 信者들도 熱心을 失하고 冷落하여 지는 거슬 볼 때

에 牧師와 敎役者들이 如許한 形便에 對하야 만히 憂慮하고 其 理由를 深究하야 改良을

道理를 工夫되라 도하는 거시 외다

무어시던지 教會에 關係되는 일을 工夫하라면 聖經內에 指敎를 尋求할 수 밖게 업스

니 行二〇四十二에 在한 말씀을 보코 或是 그 失手의 理由를 知하야 免할 道理가 잇슬 듯

하니라 經에 曰恒常使徒의 敎훈을 受하며 互相交接하고 餅을 擘하야 食하며 祈禱하기

를 務하더라

(一) 復興會後에 即時 準備할 거시 무어시뇨

(예수 죽지 아니 할 수 업는 것은 血을 流함 이 업는 즉 罪赦宥함이 업는 나라)

(二) 이 일 이 하는 님의 預定 이 실지 라 도 너 희의 毒手의 罪惡 이 니 卽 하는 님의 獨生子

를 殺한 거 시 니 라

(三) 그 러 나 하 는 님의 서 復活케 하 셧는 니 라 여 러 가 지 證據 (서 十六 〇 八 一 一)

(四) 이 예 수가 至 今 은 하 는 님 右에 升坐 하 시 고 今 日에 나 타 난 此 異常함을 주 셧스 니 이

는 다 예 수를 指한 預言이 然 則 예 수는 그 리 스 도 시 오 救主 시 라

(五) 刑罰을 免할 道理는 悔改 하 고 信 하 는 거 시 라

結末 此 許諾은 너 희와 너 희子孫과 遠方에 在한 者들의 게 잇는 거 시 라

이 講道는 完全한 講說인 디 復興會 講道요 聽하 고 信進者가 三千名 이 나 되 엿스 니 吾儕

가 番々히 講道할 時에 復興되 든 講道の 種類라야 良好한 줄 노 知하 노 라



그대로 될 듯 하되 同意旨(의혼 뜻)이라 도 여러 貌樣(모양)으로 만 講演(강연)하면 聽者(듣는 자)가 더욱 滋味(즈미)롭게 受(밧)을

거시오 琴絃(김은고줄)이 四五(소오)에 不過(불과)하나 數十(수십)聲音(성음)과 數多(수다)호 曲調(곡도)를 奏(알)을 수가 있는 것 又(또) 講(강)

道(도)의 權能(권능)은 題目(제목)을 變更(변경)하는 데 不在(있지)아나 言詞(언어)의 形便(형편)을 變改(변경)하는 데 有(있)는 나 同(동) 一(일)

호 理致(리치)를 가지고 도 數百(수백)가지 異他(다른)의 講道(강도)를 할 수 있음이라

(三) 第三(삼) 反對(반대)는 늘 同一(동일)호 말만 하면 陳談(진담) 累說(루설)이 된다 解結(해결)者(자)曰(말) 그늘 講道(강도)는

나 福音(복음)의 句語(구어)는 異常(이상)호 거시오 如何(어디)히 되어 그리 호지 陳舊(진구)호 거시오 아니 되고 늘 新(신) 々(진)

호 거시 됨니다 何許(엇던) 八十(로) 老人(로인)이 호 번은 聖經(성경)을 閱覽(열람)할 때 其孫女(그손녀)가 問(물어)호 曰(조) 祖父(부)

무어 슬 또 보 십 닷 가 호 니 其祖父(그조부) 對答(대답)호 기를 今日(오늘) 通信(통신)을 보느 거시라 호 었다 호 니 眞(참)

箇(으로) 是(는) 那(그) 러 호 도 다 逐日(죽일) 聖經(성경)을 볼 때 마다 新舊(신구) 通信(통신)으로 알고 보느 거시 또 호 니 새 譬喻(비유)와

새 圖型(도형)을 時々(때때)로 다 新製(새로) 할 수 있스니 講道(강도)가 陳舊(진구)호 것 又(또) 호 면 題目(제목)을 改易(개혁)호 으로 變(변)

更(경) 호 것 아 니 라 全部(전부)를 新精神(새정신)으로 講道(강도)호 거시 니 라

(四) 第四(사) 反對(반대)는 教友(교우)들이 예수의 계로 來(오)호 라 來(오)호 라 호 는 말을 聽(듣)기 困勞(피로)히 녀 인

常講說을 皆예 수 十字架에 關한 言辭로 하야 할 거시라 此에 對하야 反對하는 者가 或  
잇스니

(一) 反對者曰 恒常傳道할 때마다 十字架에 關係가 잇게 하기 爲하야 不適한 題目에

도 勿 업시 張皇說去하야 易하다 하나 解結者의 答은 不然하다 講道人이 些少한 言

論에 才分이 有할지라도 連絡되도록 講演할 수 잇고 或是其 反對에 말과 又할지라도

妨害될 거시 무어시요 大蓋 十字架 題目만 緊要할 거시다 시 또어 디 잇는 노 其道理

를 得聞치 못함으로 人生들이 地獄路程으로 日進하는 者多數가 되지 아니 함이 사 譬

컨디 鄰家에서 失火하면 萬事를 다 除置하고 急赴하야 救援하여 주지 아니 하겟소이

와 又치 講道는 模法만 取하즈는 거시 아니오 罪人을 死亡에서 救贖케 하는 事인즉 十

字架外에는 다 시 업는 거시 외다

(二) 其次 反對者曰 十字架 言論만 들 講說하면 大段히 悲憾하고 聽者를 睡寐케 만하

는 聲音이라 解結者의 答은 講道人이 番々히 兪貌樣으로 만 其 十字架를 說明하면



(二) 講道마다當히復興會講道가 되여야 할거시오 或者言하기를不然이라 하며品行

講道와 多般分類의 講道가 있다 하나 品行講道라도 十字架에서 離야 十字架로 歸하

가 여야 할거시라 吾儕가 흔히言하기를 救贖이라 하는거시 二部分이 있다 하나 地獄에

서 拯出하는 救贖과 惡을 習慣中에서 拯濟하는 救贖이라 하나 外人의 對하야 하는 講

道中에 敎友를 勸勉하는 言辭도 多하고 敎友의 對하야 講說하는 中에도 外人을 救贖

할言이 有하니라 救贖과 聖潔은 兩皆예수를 望見中에서 生하는니라 眞正호 講說은 皆

예수를 望見하고 生活하라 하는거시니 如許호 講道가 皆復興會講道니라

(三) 眞正호 講道를 組織할時에 形便이 하나니 예수와 그 十字架를 傳道하는거시

라 바울使徒의言이 유대人은 異蹟을 求하고 헬나人은 智慧를 求하나 講道人이 맛당히

二皆不聽호드시 但예수만 講道할거시라 吾儕가 其救贖하는 道理를 於此於彼에 傳播

도하야 指敎도하되 其法不一하야 或은 罪나 審判을 言하고 或은 愛나 永生을 講하고 或

은 天堂地獄之說과 信仰에 關호 道理를 輪次로 迭相交易하야 發明할거시라 然하나 恒

神 學 指 南

預備<sup>에비</sup>하려고 도아나하매<sup>아</sup>此는實<sup>실</sup>노受<sup>은</sup>恩<sup>에</sup>기難<sup>맞</sup>호弱<sup>기</sup>點<sup>아</sup>이라或<sup>혹</sup>時<sup>시</sup>復<sup>부</sup>興<sup>흥</sup>力<sup>력</sup>을特<sup>특</sup>受<sup>별</sup>호牧<sup>목</sup>師<sup>사</sup>를  
請<sup>청</sup>하야하<sup>는</sup>것도另<sup>리</sup>好<sup>우</sup>호<sup>도</sup>호<sup>호</sup>거시지<sup>는</sup>各<sup>각</sup>其<sup>기</sup>牧<sup>목</sup>師<sup>사</sup>가自<sup>자</sup>己<sup>기</sup>復<sup>부</sup>興<sup>흥</sup>會<sup>회</sup>를引<sup>인</sup>導<sup>도</sup>하<sup>는</sup>거시優<sup>우</sup>勝<sup>승</sup>하<sup>는</sup>

니라

大<sup>대</sup>蓋<sup>개</sup>復<sup>부</sup>興<sup>흥</sup>會<sup>회</sup>牧<sup>목</sup>師<sup>사</sup>들은全<sup>온</sup>數<sup>전</sup>히大<sup>대</sup>衆<sup>중</sup>의傳<sup>전</sup>道<sup>도</sup>하<sup>는</sup>特<sup>특</sup>別<sup>별</sup>호才<sup>재</sup>分<sup>분</sup>이잇고或<sup>혹</sup>時<sup>시</sup>靈<sup>영</sup>魂<sup>혼</sup>을秋<sup>추</sup>

收<sup>수</sup>할時<sup>시</sup>機<sup>기</sup>에本<sup>본</sup>敎<sup>교</sup>會<sup>회</sup>牧<sup>목</sup>師<sup>사</sup>를幫<sup>방</sup>助<sup>조</sup>할수잇스나居<sup>거</sup>半<sup>반</sup>該<sup>개</sup>本<sup>본</sup>敎<sup>교</sup>會<sup>회</sup>牧<sup>목</sup>師<sup>사</sup>가該<sup>개</sup>事<sup>사</sup>에不<sup>불</sup>敢<sup>감</sup>主<sup>주</sup>力<sup>력</sup>하<sup>는</sup>

는理<sup>리</sup>由<sup>유</sup>는他<sup>타</sup>事<sup>사</sup>故<sup>고</sup>가아니라懶<sup>라</sup>怠<sup>타</sup>의性<sup>성</sup>質<sup>질</sup>을因<sup>인</sup>호<sup>인</sup>즉工<sup>공</sup>夫<sup>부</sup>와祈<sup>기</sup>禱<sup>도</sup>로用<sup>용</sup>力<sup>력</sup>하야預<sup>예</sup>備<sup>비</sup>하<sup>는</sup>면

너々<sup>너</sup>히될수잇는일이라主<sup>주</sup>日<sup>일</sup>마다牧<sup>목</sup>師<sup>사</sup>의講<sup>강</sup>道<sup>도</sup>는復<sup>부</sup>興<sup>흥</sup>會<sup>회</sup>講<sup>강</sup>道<sup>도</sup>와비슷호<sup>성</sup>性<sup>성</sup>質<sup>질</sup>이잇스면

亦<sup>또</sup>合<sup>합</sup>當<sup>당</sup>호果<sup>과</sup>實<sup>실</sup>을收<sup>거</sup>할수잇스나不<sup>그</sup>然<sup>리</sup>호<sup>인</sup>는牧<sup>목</sup>師<sup>사</sup>들이혼이救<sup>구</sup>贖<sup>육</sup>하<sup>는</sup>主<sup>주</sup>意<sup>의</sup>로講<sup>강</sup>道<sup>도</sup>하<sup>는</sup>지

안코尋<sup>심</sup>常<sup>상</sup>의世<sup>세</sup>上<sup>상</sup>俚<sup>니</sup>諺<sup>야</sup>처<sup>가</sup>림<sup>만</sup>함이라講<sup>강</sup>道<sup>도</sup>는神<sup>신</sup>靈<sup>령</sup>호理<sup>리</sup>致<sup>치</sup>를가지고聖<sup>성</sup>經<sup>경</sup>으로基<sup>기</sup>를立<sup>세</sup>하<sup>는</sup>

고救<sup>구</sup>贖<sup>육</sup>하<sup>는</sup>主<sup>주</sup>意<sup>의</sup>로人<sup>인</sup>의心<sup>심</sup>을感<sup>감</sup>動<sup>동</sup>하<sup>는</sup>도勸<sup>권</sup>勉<sup>면</sup>하<sup>는</sup>有<sup>법</sup>法<sup>의</sup>的<sup>연</sup>演<sup>설</sup>이니講<sup>강</sup>道<sup>도</sup>人<sup>인</sup>이番<sup>번</sup>々<sup>번</sup>히

如<sup>이</sup>斯<sup>스</sup>히만호면別<sup>별</sup>引<sup>인</sup>導<sup>도</sup>者<sup>자</sup>를演<sup>연</sup>說<sup>설</sup>하야要<sup>요</sup>求<sup>구</sup>할것엄시敎<sup>교</sup>會<sup>회</sup>는늘復<sup>부</sup>興<sup>흥</sup>의恩<sup>은</sup>惠<sup>혜</sup>를分<sup>분</sup>明<sup>명</sup>히受<sup>받</sup>호

거시라

神學指南

을恢復케 하는 거시極嘉호는事이라 하는 니大抵復興會라 하는 거슨預備업시會集호야

고聲으로大叫나호며撓頭轉目으로恐動的無禮行動이나演劇호드시手舞足蹈나호

것又호면勿論依例히害가될 거시나全教會가祈禱호는心으로會集호야聖經에基礎

되는道理를工夫호고罪를互相自服호며예수의榮光을힘써돌니면未嘗不該復興會

가有益이多대호고特別호恩惠를受호므로其後에教會가繼續호야良好호新信仰으

로禮拜를獻할수잇는니라一年一次式霖雨經過호드시復興會를호는 거시良好호거

시나尤極嘉호는統一年內에每主日마다復興호려는 거시라若牧師가注意만호게

되면그대로할수잇는니라

(一)牧師의第一되는目的은不信者를예수의게로引導호는 거시라此世界中에特別

호復興會牧師라호는傳道牧師가잇기는잇는 거시로되此로因호야普通牧師中諸氏

의懶怠心을發生케호는니흔이잘못思호기를復興會호기爲호야有時乎特別호牧師

一人을請邀호後에야될줄노思호고自己는自分必落호야不足히思호고勉力호거나

又<sup>도</sup>마태十一장에가베나<sup>초</sup>음을責望<sup>초</sup>하신後<sup>후</sup>에受<sup>수</sup>苦<sup>고</sup>고重擔<sup>무거운 짐</sup>을負<sup>진</sup>한者<sup>자</sup>는皆來<sup>다</sup>하라<sup>오</sup>  
섯<sup>는</sup>니라

하<sup>는</sup>님익셔罪<sup>죄</sup>는惡<sup>위</sup>하시나人<sup>사람</sup>은愛<sup>사랑</sup>하심니다<sup>우</sup>爾<sup>리</sup>儕<sup>리</sup>도그대<sup>로</sup>로할거시라<sup>사</sup>人生<sup>사람</sup>을救<sup>살</sup>甦<sup>니</sup>케  
하라<sup>면</sup>如<sup>이</sup>許<sup>리</sup>한心德<sup>심덕</sup>을懷<sup>품</sup>호<sup>출</sup>수<sup>을</sup>박<sup>게</sup>업<sup>는</sup>니라

장연 부흥회장도  
第四講演 復興會講道

大蓋<sup>대개</sup>復興會<sup>부흥회</sup>하는거슬可<sup>가</sup>합<sup>합</sup>할줄노<sup>녀</sup>이<sup>는</sup>이도잇고無<sup>무</sup>益<sup>익</sup>히<sup>는</sup>이도잇는니有<sup>유</sup>益<sup>익</sup>

이업<sup>다</sup>고<sup>는</sup>이<sup>의</sup>말은禮<sup>례</sup>拜<sup>비</sup>는從<sup>종</sup>容<sup>용</sup>히<sup>단</sup>端<sup>단</sup>肅<sup>숙</sup>히<sup>보</sup>는거시趣<sup>취</sup>味<sup>미</sup>가잇고그<sup>又</sup>차別<sup>별</sup>한

貌<sup>모</sup>樣<sup>양</sup>으로幾<sup>몇</sup>日<sup>날</sup>間<sup>동안</sup>惹<sup>야</sup>端<sup>단</sup>스<sup>럼</sup>게<sup>하</sup>는거시終<sup>종</sup>末<sup>말</sup>은害<sup>해</sup>가<sup>된</sup>다<sup>고</sup>하<sup>나</sup>復興會<sup>부흥회</sup>를有<sup>유</sup>益<sup>익</sup>히<sup>알</sup>고

贊<sup>찬</sup>成<sup>성</sup>하는人<sup>사람</sup>의言<sup>말</sup>이假<sup>가</sup>令<sup>령</sup>每<sup>매</sup>年<sup>년</sup>一<sup>일</sup>次<sup>번</sup>式<sup>식</sup>霖<sup>잠</sup>雨<sup>우</sup>가有<sup>잇</sup>야<sup>許</sup>久<sup>오</sup>積<sup>적</sup>置<sup>치</sup>되<sup>엿</sup>던汚<sup>더</sup>穢<sup>러운</sup>한<sup>것</sup>들<sup>을</sup>洗<sup>세</sup>

濯<sup>탁</sup>하<sup>야</sup>淨<sup>정</sup>하게<sup>하</sup>는것<sup>又</sup>차有<sup>잇</sup>다<sup>금</sup>時<sup>부</sup>乎<sup>흥</sup>復興會<sup>회</sup>가<sup>됨</sup>으로<sup>로</sup>陳<sup>무</sup>荒<sup>은</sup>心<sup>마음</sup>을耕<sup>경</sup>墾<sup>근</sup>하<sup>야</sup>新<sup>새</sup>覺<sup>로</sup>悟<sup>로</sup>로天<sup>천</sup>良<sup>량</sup>

神 學 指 南

그릇노자 당석 반대 불공평 그런면 받지 아니 쉬우  
其聽者가當席에反對는하지못하나不公平함으로該勸勉을不受하기易하니라敎友

들이言權업스니尤極小心하여야할거시니라

(四)訟詞하면서도牧師의主掌하는目的은人을救贖하는目的인즉罪를甚히對敵하

는中이라도恒常禮인게生命을愛하고撫恤하는貌樣으로할거시오嫉視하는貌樣으

로人을誦辱하듯시訟詞하는人은一人이라도此世에서拯出하지못하였소河魚를釣

하는것과飛蠅을捉하는거슬思하시오香餌나甘糖이有하여야魚蠅을得할거시니倣

又치사름 나 어부 스티히人을釣하는漁夫가되라면그대로하여야될거시오嫉視하는貌樣으로長時責望

만하는牧師의講道는聽기難하니라예수씨서罪人을訟詞하시는데甚하게하셨스나

主는人의衷曲을通透히知하셨스니吾儕와不同할거시오亦예수씨서라도勸勉업시

는責하지아니하셨소마래二十二장에言하신後라도淚를垂하시면서言하시기를예

루살넬아예루살넬아我が爾等の子女集하기를母鷄가雛를翼下에集함과又치屢次하려되爾等이願치아

니하였다하심거시오

南 指 學 神

(二) 牧師가 罪에 對하야 討伐치 아니 할수 업는 講說을 할時에 恻隱시 膽大하게 猛烈히  
 對敵할거시 假令淫行의 罪를 聲言할時에 其名詞를 變하야 或失手라 失節이라고만  
 呼言하느거시 不可하고 直淫行이라고 聲言하느거시 合當하며 且外他罪에 對하야 言  
 呼 때에 도 皆屈諱하지 말고 直說할거시라 荆棘叢을 踈摩하다가는 手部를 被刺할뿐이  
 니 不得不把 棘을 수박피 업는 形便이면 緊々히 把執하야 할거시라 故로 罪를 對敵하  
 니 할수 업는 形便이면 雖甚難하여 도 宜當히 할말은 할거시라 假令安息敎會라 하느거  
 曜會가 本里에 入하야 敎友의 信仰心을 眩亂케 하게 되면 直接으로 強硬히 對敵하느거  
 시 可하고 其 僞證의 似是 非을 違反되는 道理를 發明하느거시 合當하고 或時 雜伎나 外  
 他 罪惡이 入하거나 生하면 不願利害하고 絶對的으로 對敵하느거시 可하니라  
 (三) 然하나 罪를 對敵하느중 正當無僞言만하고 眞的하 該形便이 있는대로 單模  
 寫하듯시 하고 加減하느말이 업서야 할거슨 魔鬼를 對敵하느중 이라 도 講道人이 公平  
 正直하 言치 아니하면 切지 講道人의 心이 不安하고 良心에 刺碍되니 害가 되고 들지

講 道 學

或何時에 牧師가 瞥眼間 憾情을 因하야 何罪를 對하야 酷責하되 基礎가 업시 自己憾

想만 持하고 責望호 卒 失敗만 되 且有 益을 遺치 못하거시라 假令 敎友가 活動寫眞館에

觀覽하기 爲하야 祈禱會에 參與치 아니함을 忿히 녀 魔窟에 沈惑이라 고 甚하게 論責

하는 講說로 憾情만 買홀가 操心홀거시오 愼하고 思하야 聖經을 보고 祈禱하코 (약 一

〇五) 作定 홀일이라 敎友의 良心의 主人은 하는 님 쉰이시니 敎友들이 聖經言은 밧고

順從하나 牧師의 憾情으로 從來하는 言은 不受하거시라 牧師가 聖經을 頒布하는

職分만 있는 거시오 聖經을 解釋하는 것까지 라도 敎友各個人이 自己를 爲하야 홀수가

있는 거시오 牧師가 證據될 단호 聖經말씀을 解釋할 때에 斷其理意대로 만 홀거시라

牧師가 若 解釋하는 디 異意가 잇다 하던지 相當호 證據를 顯치 못하면 權勢만 失홀거시

라 萬一 僞証으로 敎友의 一二次 失信하게 되면 古之 牧羊兒가 僞呼 狼到라 하야 鄰

里를 驚動케 하는 事로 詒衆의 能事를 삼다가 必竟은 危難호 境遇에 應救하는 者가 업서

害를 當함과 又 失敗보기 易하리라

을 當함과 又 失敗보기 易하리라

神 學 指 南

壞의 劍과 建築의 機를 二皆俱用할거시라 牧師된者마다 該敎友를 敎育하는 事에 對하

여는 尤極歡迎心으로 할거시라 魔鬼와 暴虐한 事를 避할許諾이 업는 나라 하는 尼

의 言이 猛烈히 討伐하는 거슨 罪惡이니 現今世界에 多數히 犯科되는 罪는 惡한 거스

로 頒布되 지안는 事이 逾多하여서 討罪하기를 去益忌畏하는 習俗을 成함이 된거시오

以前世界보다 罪가 消除된 거슨 아니라 故로 講道人의 當行할 本分은 罪惡이라 하는 거

세 對하야 小許하라도 隱護하거나 容貸하저 말고 分明히 聲言할거시라 吾儕가 하는 尼

의 理致를 立하라고 하면 罪를 몬져 對敵할수 밖게 업고 義의 捷徑을 修하라고 하면 몬져

惡을 毀撤하야 할거시라 眞理와 僞飾이 同里의 友가 될수 업고 何處던지 魔鬼가 離去

하야 예수 씨서 入來하서 리라 然則 罪를 對敵하기 에 畏懼하지 말고 胆大히 할거슨 良

醫가 凡於 病者의 對하야 塗藥만 쓸뿐 아니라 針과 刀로 砭割하기도 할거시니라

(一) 然나 講道人이 何樣 罪던지 責望하기 前에 其形便과 聖經을 分明히 知하야 될

거시오 美國俗說에 云하기를 先히 路程을 詳知하야 前進할거시라 하는 나라



시겻는 평안한디경 平安界에 안진 坐호朝鮮兄弟姊妹諸氏는 호번연구 一次研究호여보시고 우리 吾儕가 평안 平安호地  
 境에잇는것과 다른사람 他人의 비참 悲慘호地境에싸진거슬 도라보 顧念호시와 도아줄 幫助호機會를 인 因호야 우리 吾大  
 父의 감사 感謝호음고 세상 世上에 악 惡이 자라나 長成호는 이때 此時에 호충 一層더 경건 敬虔호心으로 지니음호셔

# 講道學 (강도학)

神學博士 버 렐 牧師 著述

神學博士 郭安連 牧師 翻譯

## 第三講演 講道人이 罪를 對敵호

大蓋 대키 牧師의 직분 職分은 건설 建設호기 위 爲호야 파괴 破壞호는 직분 職分이니 예수씨셔도 이세상 此世에 림 臨호신  
 目的은 무덕 魔鬼의 과과 事役을 파괴 破壞호시고 의 義의 나라를 國을 건설 建設호시는 우리 거신즉 우리 吾儕도 예수와 파 又치 파 破

女老少를定配하는故로其虐待를避하는人民들이履가업서서민발노雪과氷을 밟고

飢渴이莫甚야路中에顛死하는者만호며젊은婦女들은土耳其人中아조野蠻된구

뭇(KIND) 支派男子의게言할수업는辱을當하며其後形便은艱難한百姓이自己故郷

에서虐待를받으며거가서스(Vincasus) 山越便露國地境에가도生業을形便이되지못

하고苦生이莫甚야女子와兒孩들의죽음이맞치黑死病傳染中에서름죽는것과又

호며또其中에餓死한兒孩들의數交는詳細히調査한世上有名한人들의言이百萬名

이나된다하는니라오늘날存在한百餘萬名이나되는幼兒들은他國人の慈善한救濟

가아니면餓死할수밖고업는나라

彼處幼兒들과婦女들의生命을保全키爲야二十朔間英、美國스랑하는敎友들

이救濟費數百萬圓을捐補하여서保全케하는中이나主님의慈悲한선恩惠가아니면

엇지그러케되리요彼土耳其와獨逸國이主의敎會設立할此時에이처럼軟弱하고臞

味한婦女와兒孩들을못살게하며侮辱하는罪를하는님씩서엇지다스리시자아니하

아르메니아民族

# 아르메냐 민족

文學文士 馬路德牧師 著述

亞細亞洲西南便直經으로此處에서一萬五千里相距되는西南便에吾信者들이만

히工夫호地境女유대國과小亞細亞地는現時회회교왕성곳보통으로其地境

을土耳其國이라하는바人口는二千五十萬名이오黑海와地中海中間과유프라데江

과디그리江間에農事지여먹는他百姓이잇는디此百姓은宗敎上으로보면오리前보

터예수님을잘밧는百姓이며敎育上으로言하면才幹이잇고學文을미우도화하는百

姓인디此는아르메나(Armenia) 민족이라

유로바戰爭前에土耳其人이아르메나人을猜忌호야恒常逼迫호더니歐洲戰爭後

에土耳其가獨逸과호便이되여서土耳其國이其屬邦된아르메나人들을虐殺호며男

요 又 二〇廿五에 주석서 글으샤디 「다만爾게 잇는 거슬 내가來時々지堅執하라」 하섯스니 此는

주석서 第四두아디라 教會에 對하야 言하신 바요 三〇三에 주석서 글으샤디 「我가 盜賊

又 爾게 臨하리라」 하섯스니 此는 주석서 第五사대 教會에 對하야 言하신 바요 二〇十에

주석서 글으샤디 「爾가 我의 참도道를 守하엿스니 我가 爾를 守하야 試驗當할 時를 免케 하리라」 하섯스

니 此는 주석서 第六빌나델비아 教會에 對하야 言하신 바요 三〇廿에 주석서 글으샤디

「我가 門前에서 서叩하노니 萬一誰던져 我聲을 들고 門을 열면 我가 彼의 게로 入하야 彼로더 브러먹고 彼는 我로

더 브러먹으리라」 하섯스니 此는 주석서 第七라오디게아 教會에 對하야 言하신 바라 大概

同席에서 飲食먹는 다함심은 羊의 婚宴席의 喜樂을 表明하싯이니라

茲에 其每章每節을 調査하매 雖審判의 事를 言함이 많으나 다만 주석서 其時期가 至

호기 前에 一面으로 는 門져 吾儕를 救援하시고 一面으로 는 自己의 再臨에 對하야 歡迎

치안 人을 審判하시리니 吾儕가 可히 大快樂의 希望에 明白하저니 然則 吾信者들은

엇지 可히 主의 再臨과 그와 同在하노者를 歡迎치 아니하리오 (未完)

默示錄의 大概

棄버릴할거시니 卽二〇十六에 言말하엿스디 「爾네가 미지근하야 熱열치도아니하고 冷차지도아니하니 我내口에

서 爾너를 吐토하야 내리라」 하섯는니라

以上이우에 言말하바는 곳마대 十三章에 잇는 七種譬喻닐곱가지의유니 默示錄一、三章에 記錄기록한 七書

信신과 比較비교하면 甚심히 明白명백하리라 大概聖經대개 성경으로 聖經을 解釋해석하는 거슨 默示錄을 研究연구

하는디 最가장히 緊要진요한 方法방법이라 主주를 밋는 者자들이여 當身당신들이 果然能과연히 魔鬼마귀의 大力量큰력량을

이기고져하는 卽萬一만층이 이기고져할진디 힘써 救主구주씨서 再臨재림하시는 希희望망에 注주意의할지

이다

救主구주씨서 再臨재림하시는 題目제목에 對대하야 第一첫째은 宜當맞당히 悔改회개할거시오 (卽二〇五) 第二둘째

는 苦難고난을 當당하야도 畏懼두려워하거시니 主주씨서 반다시 爾等너희의 卽永生영생의 冠冕관모를 주실거시

오 (卽二一〇十) 第三셋째은 卽後이후로는 吾儕우리를 爲위하야 義의의 冠冕관모을 預備예비하야 두엇다 하엿스니

(卽卅四〇八) 다만 卽此이런류관冕은 卽永生영생의 冠冕관모과 뜻이 又다하니라 卽二〇十六에 主주씨서 卽말하신바

我내가 卽爾네를 卽速속히 卽臨림하리라 하섯스니 卽此이는 卽主주씨서 卽第三셋째버가 卽교會회에 對대하야 卽말하신바



(一) 播種하는 거스로譬喩하는 심이니 사람이 極히 熱心으로 하는 다만 사단이 其人心을 漸  
 々 冷淡하게 하는 지라 二〇四에云하기를 「然이나 오히려 爾를 責을 거키 잇스니 爾가 初愛를  
 버렸다」 하였는니라

(二) 가라저로譬喩하는 심이니 大概가라저와 보리가 서로를 닮이 열마 안되는 니 맞치 敎  
 會가 다만 外貌로 求하고 能히 成果치 못함과 같아 眞僞가 서로 섞임이라 二〇九  
 에言하였스디 「自稱 유대인이라 하는 者의 毀謗한 言을 아노니 實狀은 유대인이나 오사단의 會라」 하

神 學 指 南

섯는니라

(三) 茶種으로譬喩하는 심이니 芥子가 큰 나무를 일우매 鳥가 와서 棲한다 하였스니 敎會  
 가 專히 外規만 힘쓰므로 驕傲함이 성기여 謙卑의 眞理를 일허브림과 혼지라 二〇十

五에 닐넛스디 「此와 又치니 풀나 黨의 敎訓을 守하는 者가 그처럼 네게 잇다」 하였는니라

(四) 女人이 製餅하는 거스로譬喩하였스니 므릇 聖經에 記錄한 바 酵는 一種不潔한 物  
 件이라 萬一餅을 만들 때에 酵를 넣코 곳 굽지 아니하면 반다시 敗壞함을 볼거시니 敎會

神 學 指 南

니라 이전以前에는 성명나무生命樹에 과실果實을 능能히 먹지 못하였거니와 장리將來에는 성명나무生命樹의 과실果實을 가可

히 먹을 거시오 이전以前에는 광야曠野에서 마나들 먹었거니와 장리將來에는 가可히 하늘天上의 양식糧食을 었

어 먹을 거시오 이전以前에 유대인이 거 짓됨과 장리又 처 신자將來에 신자信者들 도 거 짓함이 만만 할 거시오

이전以前에 유대인이 선지자先知者의 교훈教訓을 좃지 아니함으로 막대莫大 죄악大惡의 씨를 심은 것과 又又 처

장리將來教會에 전도인도 여러 전도인傳道인들이 있어서 자自己가 참도眞道를 말바리고 교회又 처 교회教會로 하여 죄公罪를 범犯케

하리라 구약호듯함이 구약라 구약舊約列王記上十六〇卅二、三에 말言과 又又 처 이이 세 벨이 조심가 서 조심바 알 들

섬겨 제단절하고 제단又 祭壇을 지 었다 그런고호였스니 우然故로 우我等教會는 조심가 장 조심謹愼을 지 니라

이此 목서默示錄 성경一書가 성경聖經 성경속해 성경잇스나 구약문저 구약舊約 전부全部에 능보지 못하면 능能히 목서默示錄에 도도 보

지 못 할 거시오 연구研究하는 방법方法에 대對하여는 맛당宜當히 성경聖經으로 성경서 성경解釋을 해解釋 할 거시오 적次

단斷 사람코 뜻人의 뜻意志로서 그其裏에 속서 거 만넛치 말 거시니 만萬一 목서默示錄의 닐七書 닐信을 닐보지 닐알고 적저 호

면 장마대 장十三章에 닐있는 닐七 닐譬諭를 비교比較하여 이보지 이거시니 이此는 교회教會에서 천국天國을 예비預備할 정형情形

이니라

默示錄의大概



러門徒들이注目하야天을仰見하니忽然二人이잇서白衣를 입고其傍에서서글으디

「갈닐니人들아爾等이웨여키서서하늘을仰見하니此에수씨서只今升天하시니此貌樣대로後에다시오시

리라」하엿스니(히. 一〇十, 十一) 其時에弟子들이主씨서再臨하심을希望함이極히

熱誠으로함은可히思慕할만흔지라然이나年深日久함에至하야疑惑이여러가지로

남을誰가測量하엿스리오그림으로베드로曰「愛하는者들아此一事를忘치말지니主씨는一

日이千年과又고千年이一日과又다」하엿스니라(벧후二〇八)

由此觀之컨디主예수씨서降生하신時로브터今日에至하기까지計算하여보면一

千九百餘年이겨우지나스니엇지잇홀동안이不足할거시아니나또예수씨서升天하

신後로브터十日만에곳恩典을나리샤七星期를顯示하야敎會로하여公其中에奧義

를明悟케하고져하샤다만安慰하시니言만잇슬뿐아니라또責望하시니言과應許

하시니言과儆醒하시니言이잇스니므릇耳가잇는者는皆宜當히드를지어다또一層

더마르치시느듯이잇스니七星期內에言하신바는舊約에事를引用한거시만히잇는

의일이오또는將來에반다시일을알이라  
연구 중 그 때 일을 알  
 現제시대

또二十節에七星이란거슨곳七教會의使者들이오七燈臺란거슨七教會의光이發  
절 년공별 교회 소자  
 現제시대

하는뜻을表明하니萬一吾儕가詳細히研究하면表明言詞가곳眞實無忘함을알  
표명 만일 우리 조세 연구  
 眞실 무망

지라바라건디此第一論說中에二個緊要한問題를注意할거시니곳首次信徒를救援  
이첫째론설중 두가지진요 문예 주의  
 몬져신도 구원

하고後에世界를救援하야곳新天新地의顯示함이잇슬거시니謹慎하야勿忘할지어  
후 세계 구원 신천신지 나타내의안 조심 잊지말

다

第二論說

教會의預備한天國

前에論한바本書一〇二、三의言은곳主에수씩서使者를보너여요한의게命하샤各  
전 의론 본서  
 各

教會에書信을致送하야天國을預備케하신거시라大概此書信은普通것보다最히緊  
교회 서신 써보너여면국 예비  
 最히緊

要한書信이라往昔에主에수씩서十字架에못박히셨다가復活하야升天하실時에여  
요 서신 이전 주 십자가  
 時에여

셔음에는長衣를긴 옷은 남고 가슴에는金帶를금 띠 띠었다. 「하엿스니此를按驗하건디 가슴에金帶를금 띠 띠거슨

일하기預備함을예비 닦음이 오十四節에 「其首와 髮이白하기가白羊毛도흰 양털 또고雪도눈 또호며 그의目は

火燄화염 又다.」 하엿스니按驗하건디髮白者는審判官을指함이라大槪審判官은老成練達

한人을쓰고青年을쓰지아님을表明함이라只今英國에서도審判官된者는다首에白

毛冠을쓰니이런規模는自古로傳하야今日에至함거시오目이火燄과又다함거슨곳

審判官의威嚴을表明함거시오十五節에云하기를足은冶에鍊鍛精함錫과又다함

엇스니按驗하건디聖經中에言함바錫도亦是審判의뜻을表明함시오十六節에其口

에서左右에날선利함劍이나온다함거슨곳善惡을分別함는뜻이라此書를查察함에

萬一其審判의大槪를明知치못하면自然반다시錯誤함이잇슬지니요한이當時에異

像을보고곳其足前에伏하야死함것과如함때그가右手로서按撫하야글의사디恐懼

하말나하섯스니此言에甚히감함뜻이包含함엇스니곳主를밧는사람이예수의寶血

下에在함즉雖如此情형을볼지라도畏懼함거시업는줄을表明함이라本書에記錄

이 세상 살고 望하는 福과 크신 하나님을 救主에 수 그리스도의 榮光이 顯하기를 待하게 하셨다 하엿스니 吾

儕가 임의 世界大審判의 災難을 脫出하야 예수로 더 브러 又 天上에 잇서 世界를 다 審

判하거시 저니 르러 吾儕가 主와 함께 臨하리라

실전 三〇十三에云하기를 「吾主에 수셔서 그 諸聖徒와 함께 降臨하실 때에 吾儕의 天父前에서 爾等

의 心을 聖靈으로 責望업시 究게 하여 주음 쇼셔」 하엿스니 萬一主셔서 문져 吾儕를 救援치 아니

하시면 잇지 能히 其時에 又 次 臨함을 보리오 그 禮으로 救主셔서 再臨하샤 行하실 事

가 先後不同함이 잇스니 卽首次에 雲中에서 門徒를 救援하야 마즐거시오 其次에 是

地에서 그 仇讎를 이기실 거시니 實전 四〇十六과 卅十四〇四을 參考할 지어 다

然故로 吾儕가 上文에 言하마 先後二種事를 分別함이 最히 宜當하니 如是 後에

라야 紛亂함에 至치 아니하리라 김히 바르건디 諸君은 힘써 研究하고 詳細히 查察하면

此論說이 聖經眞理에 合하고 아님을 自然히 알니라 本書一章에 요한이 본바 異像은 곳

主셔서 世界를 審判하시는 情形을 봄이라 十三節에 言하기를 「七燈臺間에 人子 又 尊者가 잇



(二) 그리스도 예수의日是 人을 救援하시는日이니라

默示錄의 內容은 主를 明言한 事만히잇스니 첫재는 人을 懲罰함이요 둘째는

世界를 審判함이니 다 審判以後에는 新天地가 顯示함이잇스리니 默一〇十을

보면 요한이言하기를 「主日을 當야 내가 聖神의 感動함을 聞호니 我後에서 大聲이 喇隊부는 것과

又다」 하였노니 此主日을 按驗하여 보면 卽禮拜日이오 七日의 首日이니 此는 主의 復

活심을 窮念함으로 主의 日이라 함은 審判의 뜻이잇음을 表明한 事라 聖經中

에 主의 日이 盜賊과 又來호리라 하였고 또 其日에 天이 離去호고 體質이 熱火에 푸러

지고 諸物이 露出호갓다 하였스니 (베후三〇十 살 후二〇二 세 十四〇一) 此數節노

말미암아 보건되 主의 日은 審判의 뜻이 其裏에 包含함을 가히 알지니라 요한이 感動

하심을 넘어 審判의 內에잇는 것호니 然故로 요한이 主日에 主의 日을 默示

로 當호였다고 할수잇스니 萬一吾儕가 主의 日의 뜻을 明히 知치 못하면 他事情을 觀察

함도 尠지 못할가 恐懼호라 然이나 聖經中에 가 장貴重한 事시며 가 장 希望

그 후 상전 니르리 그 형 통회이 곡  
니 其後相見 恫에 至하야 其兄들이 痛悔 哀哭 恫과 如하리라 又호

대 더 묵시록 연구 입문 방법 가장 진요 맛당 구쥬 저림  
大 抵 默 示 錄 을 研 究 하 는 入 門 方 法 에 最 히 緊 要 하 는 事 宜 當 히 救 主 의 再 臨 하 실 거

명회  
슬 未 져 明 白 하 아 라 야 할 거 서 니 萬 一 그 러 치 아 니 하 면 可 유 다 書 四 節 에 云 하 바 와 又 처

대 개가 만히 드리는 사슴 몇 처  
大 槩 暗 入 入 人 幾 名 이 잇 스 니 可 昔 브 리 此 定 罪 恫 을 犯 기 로 記 錄 하 는 者 라 彼 等 이 敬 虔 처 아 니 하 야 我 等 하

은혜 변 색욕 홀노나 주지 우리쥬  
나 님 의 恩 惠 를 變 하 야 色 慾 을 삼 고 獨 一 이 신 主 宰 可 吾 主 에 수 그 리 스 도 를 背 反 하 는 者 니 라 하 였 스 니 然

주우리 묵시록 연구 때 그중 기록 말습이 확실 쥬  
則 吾 儕 가 默 示 錄 을 研 究 하 는 時 에 맛 당 히 其 中 에 記 錄 하 는 言 語 가 確 實 히 主 예 수 의 默 示 하

이 우리쥬 소역 자 불가불 맛당 항상 때에  
신 가 신 줄 알 거 서 니 此 는 吾 儕 가 主 의 使 役 하 는 者 가 되 여 不 可 不 宜 當 히 恒 常 時 々 로 보

귀역 이오 무시록 만일 내 은회  
고 듯 고 記 憶 하 거 서 라 다 만 此 奧 妙 하 默 示 錄 을 萬 一 余 가 隱 蔽 하 야 즐 거 히 講 解 처 아 니

무리가 능 명회 현저전도 해군 만일 본서 대개  
하 면 衆 人 이 엇 지 能 히 明 白 하 처 드 리 요 現 在 傳 道 하 서 는 諸 君 이 萬 一 本 書 의 大 概 를

알고 장력 가 타인 교훈 이 내 그가장진요 때목  
知 코 저 하 면 將 來 에 또 하 可 히 他 人 을 教 訓 하 지 라 茲 에 余 가 其 最 히 緊 要 하 題 目 을 줄 이

몇부분 설명 명론설 두가지 큰 제목 문술  
여 幾 部 分 으 로 說 明 코 저 하 는 디 第 一 論 說 에 는 二 個 大 題 目 으 로 論 述 하 겠 노 라

쥬 날 죄악 심판 날  
(一) 主 의 日 은 罪 惡 을 審 判 하 시 는 日 이 오

神學指南南

國에對하여는特別關係가잇스니此는聖經에記錄함이오余의敢히杜撰하바아니  
로라

제가리야十二〇十에「내가恩寵과懇求하는心を다윗의族屬과예루살렘居民의게부어주리라彼等

가씨든나우리의를이刺할我를仰視할거시오爲하여哀慟하기를人이其獨子가死함으로哀慟할듯하며爲하여痛哭하기를人이

其長子를爲하여痛哭할듯하리라」하엿스니此預言은本書一〇七、과相同할지라또地에

잇는모든족속在할諸族屬이라함은유대地와其十二支派의各族屬을指함이니主예수씨서初次降

臨하심을因하여유대人이그를不認할뿐아니라그를死地에두어늘不共戴天之讎又

치하야裁判官빌나도의前에서예수를十字架에못박으라함으로빌나도의言이그가

何惡을行하엿느냐하디衆人이더욱외쳐글으디十字架에못박으라하엿스니(마廿

七〇廿二-廿三)嗚呼라유대人이如此히함은罪大惡極이라고謂할만하도다그럼

으로主예수씨서再臨하시기前에반다시特別히유대人을審判하신後에顯示하사

彼等으로하여곰보고痛悔哀哭케하시리니譬컨디요셉이其兄弟들의게팔닌바되엿디

默示錄의大槪



도能히知치지 못하야 救主의 再臨함을 希望함이 업스리니 然則 默示錄을 研究하야 무

엇하리오 默示錄書中에 最히 큰 題目도 能히 知치지 못하면 雖研究하더리도 實狀研究아

니 禧만 又 치 못할지라 昔에 요한이 此 默示錄을 記錄하야 七敎會에 보너엿을 時에 彼信

徒들도 救主의 再臨하시느니 一事에 對하야 極히 希望하야 主에 수셔서 다시 降臨하심은

곳 罪惡을 審判하시러 오심으로 아랏스되 彼等도 조곰만 必히 알앗더니 年久日深함에

至하야 漸次 救主 再臨하실 所望을 忘失하리라 이럼으로 默示錄에 記載하바 皆

何事를 指하야 言함인지 아지 못하니 昔日에도 如此엿고 今日에 在하여도 皆如此하

니라

本書 一〇七, 을 보면 主에 수셔서 雲을 타고 降臨하실 時에 衆人의 眼이 必見할거시

오 刺者도 불타이오 地에 在하 諸族屬이 皆因하야 哀哭하리라 하엿스니 此節의 原文

대로 諸族은 應當各支派로 翻譯할거시오 若各族은 誰를 指함이냐 무르면 卽대國을

指함이라 하리니 하느님의 審判은 卽世界上에 固有한 關係로 알거시오 더욱이 유대

# 默示錄의 大概

(묵시록의 대개)

丁 義 華 牧 師 著 述

第一論說 주 제림 主에 수의 再臨

第二論說 교 회 천국 教會의 預備를 天國

第三論說 주 곧 곳심 판일 主의 日은 卽審判日

第四論說 세 계 뜻날 심판 때 世界末日 審判時

第五論說 선 악 큰 전쟁 善惡의 大戰爭

第六論說 세 계 최말 큰 재난 世界最末에 大災難

第七論說 장 리 잇을 큰 기쁨 將來에 得할 大喜樂

## 第一論說 主에 수의 再臨

이 예 목 신 도 가 장 근 요 예 목 우 리 만 일 이 예 목 명 비 그 남 아  
此 題 目 은 信 徒 의 最 緊 要 題 目 이 라 吾 儕 가 萬 一 此 題 目 에 明 白 지 못 하 면 其 餘

의 事物을 一目瞭然하며 一命肅然케 하니 善人의 靈魂은 地獄에 下墮함이 第九世界夜見國으로 永

高登함이 諸神과 近交하고 惡人의 靈魂은 地獄에 下墮함이 第九世界夜見國으로 永

墮함이니라

神園의 中央에 이르러 실이라 果樹가 有함디 其下에는 諸神의 會遊하는 座席이 有

함며 其枝는 世界를 普蔽하고 天界를 高貫하며 其根은 三大枝로 分함야 一은 前天神國

에 達함고 一은 曾往空洞의 氷霜巨人國에 着함고 一은 夜見國의 上에 及함니 其根의 底

에 一池가 있고 池中에 大蛇가 有함야 其根을 嚙斷함니라 (瑞典王夢問答)

호변보아라하얏

호변명호야속인

선인

칭

극락경

놀리올나가셔모든신

갓가히사과

악인

명혼

더욱

떨러저메

세계야전국

영영

씨러저

신원

중앙

실과나무

잇는

그아터

모든신

모혀노

좌석

잇

스

그가지

세계

두루덮

천계

놀리쉬이

그물의는세큰가지

분

전던신국

달

중앙

공동

빙상거인국

너르

야전국

우

밋쳐

그물의

헤호

못이

못가온터큰비암이

잇서

그물의를몰어큰호

서던왕몽문답

神 學 指 南

스트라와婚配하야오딘과其弟二神을生하니此三神은世界를主宰하느니라불神이

거인인 巨人의 暴惡을 厭忌하야 殺戮하매 其身에서 血液이 湧出함으로 洪水를 漸成하야

거인 巨人 全旅을 滅絶하느니 中에서 最賢한 벨릴밀의 夫婦 단木船(中空한 木材)을 乘하야 得

면 免함으로 新民族의 祖先이 되니라 三神은 이 밀의 死體를 空洞中央에 引移하야 其 頭蓋

로 蒼天을 造하야 고 軀體로 大地를 造하야 고 餘血로 河海를 造하야 고 完骨로 山嶽을 造하야 고 碎

骨의 片과 齒牙로 巖石을 造하야 고 全身의 毛로 草木을 造하야 고 其 腦를 空中에 擲하야 風雲

을 造하야 고 熱火國의 火花를 天空에 置하야 大地를 普照케 하야 大地와 巨人國間에 는 이

밀의 睫毛로 城壘를 築하야 巨人의 侵犯을 防備하 後에 二個의 木片을 取하야 人體를 造

하야 고 兄神은 靈魂을 與하야 次神은 生命을 與하야 弟神은 耳目을 與하니 男名은 아속이

오女名은 엠플나라 人類의 祖先이 되여 大地에 居生하야 大地外에 巨人의 住留하느니 處

은 中園이라 稱하야 全世界의 中央에 는 神園을 建하야 고 神園中央에 는 黃金宮殿이 잇서

世人의 事를 裁決하느니 十二神의 座席을 設하야 고 最高位에 는 萬父神이 座定하야 全世界

古代神話

五五

神學指南

出<sup>나</sup>야<sup>하</sup>十<sup>출너드</sup>河<sup>르</sup>로<sup>르</sup>流<sup>르</sup>入<sup>르</sup>하<sup>르</sup>는<sup>르</sup>디<sup>르</sup>冷<sup>르</sup>氣<sup>르</sup>로<sup>르</sup>由<sup>르</sup>하<sup>르</sup>야<sup>르</sup>氷<sup>르</sup>霜<sup>르</sup>의<sup>르</sup>塊<sup>르</sup>片<sup>르</sup>이<sup>르</sup>恒<sup>르</sup>浮<sup>르</sup>하<sup>르</sup>며<sup>르</sup>其<sup>르</sup>次<sup>르</sup>에<sup>르</sup>熱<sup>르</sup>火<sup>르</sup>國<sup>르</sup>이<sup>르</sup>又<sup>르</sup>

有<sup>스</sup>하<sup>스</sup>니<sup>스</sup>스<sup>스</sup>루<sup>스</sup>로<sup>스</sup>神<sup>스</sup>의<sup>스</sup>主<sup>스</sup>宰<sup>스</sup>하<sup>스</sup>는<sup>스</sup>處<sup>스</sup>라<sup>스</sup>世<sup>스</sup>界<sup>스</sup>終<sup>스</sup>末<sup>스</sup>에<sup>스</sup>有<sup>스</sup>形<sup>스</sup>의<sup>스</sup>物<sup>스</sup>質<sup>스</sup>을<sup>스</sup>燒<sup>스</sup>盡<sup>스</sup>하<sup>스</sup>者<sup>스</sup>라<sup>스</sup>熱<sup>스</sup>火<sup>스</sup>國<sup>스</sup>에<sup>스</sup>도

江<sup>강</sup>河<sup>하</sup>가<sup>하</sup>잇<sup>하</sup>서<sup>하</sup>火<sup>하</sup>爐<sup>하</sup>의<sup>하</sup>鎔<sup>하</sup>滓<sup>하</sup>와<sup>하</sup>如<sup>하</sup>하<sup>하</sup>거<sup>하</sup>시<sup>하</sup>常<sup>하</sup>沉<sup>하</sup>하<sup>하</sup>니<sup>하</sup>寒<sup>하</sup>熱<sup>하</sup>兩<sup>하</sup>河<sup>하</sup>의<sup>하</sup>相<sup>하</sup>逢<sup>하</sup>하<sup>하</sup>處<sup>하</sup>는<sup>하</sup>空<sup>하</sup>洞<sup>하</sup>이<sup>하</sup>라<sup>하</sup>空<sup>하</sup>洞<sup>하</sup>

의<sup>부</sup>北<sup>반</sup>半<sup>부</sup>部<sup>는</sup>夜<sup>야</sup>見<sup>견</sup>國<sup>에서</sup>서<sup>流</sup>來<sup>하</sup>하<sup>는</sup>堅<sup>전</sup>重<sup>중</sup>하<sup>는</sup>氷<sup>빙</sup>霜<sup>상</sup>으로<sup>彌</sup>滿<sup>만</sup>하<sup>고</sup>南<sup>남</sup>半<sup>반</sup>部<sup>는</sup>熱<sup>열</sup>火<sup>화</sup>國<sup>에서</sup>飛

越<sup>넘</sup>하<sup>는</sup>猛<sup>맹</sup>烈<sup>렬</sup>하<sup>는</sup>火<sup>불</sup>焰<sup>뿔</sup>이<sup>充</sup>塞<sup>색</sup>하<sup>는</sup>디<sup>其</sup>中<sup>중</sup>部<sup>에</sup>는<sup>寒</sup>熱<sup>열</sup>이<sup>交</sup>雜<sup>잡</sup>하<sup>야</sup>霜<sup>상</sup>露<sup>로</sup>가<sup>結</sup>滴<sup>적</sup>하<sup>는</sup>디

萬<sup>만</sup>父<sup>부</sup>神<sup>신</sup>의<sup>威</sup>力<sup>력</sup>으로<sup>一</sup>個<sup>기</sup>生<sup>생</sup>物<sup>물</sup>이<sup>成</sup>하<sup>야</sup>男<sup>남</sup>子<sup>자</sup>의<sup>形</sup>狀<sup>상</sup>을<sup>呈</sup>하<sup>니</sup>氷<sup>빙</sup>霜<sup>상</sup>巨<sup>거</sup>人<sup>인</sup>族<sup>족</sup>의<sup>祖</sup>先<sup>선</sup>이

밀<sup>밀</sup>이<sup>라</sup>性<sup>성</sup>質<sup>질</sup>이<sup>邪</sup>怪<sup>괴</sup>하<sup>며</sup>事<sup>수</sup>爲<sup>위</sup>가<sup>暴</sup>惡<sup>악</sup>하<sup>디</sup>나<sup>睡</sup>眠<sup>면</sup>中<sup>중</sup>에<sup>左</sup>腋<sup>액</sup>을<sup>手</sup>搔<sup>搔</sup>하<sup>매</sup>一<sup>일</sup>偶<sup>우</sup>의<sup>男</sup>女<sup>녀</sup>

가<sup>성</sup>生<sup>생</sup>하<sup>고</sup>左<sup>좌</sup>右<sup>우</sup>의<sup>足</sup>이<sup>相</sup>觸<sup>촉</sup>하<sup>야</sup>一<sup>일</sup>人<sup>인</sup>의<sup>男</sup>子<sup>자</sup>를<sup>又</sup>生<sup>생</sup>하<sup>야</sup>子<sup>자</sup>孫<sup>손</sup>이<sup>漸</sup>昌<sup>창</sup>하<sup>되</sup>性<sup>성</sup>質<sup>질</sup>과<sup>事</sup>爲<sup>위</sup>

가<sup>그</sup>其<sup>아</sup>父<sup>비</sup>와<sup>酷</sup>似<sup>유</sup>하<sup>야</sup>尤<sup>더</sup>極<sup>욱</sup>悖<sup>피</sup>逆<sup>역</sup>하<sup>디</sup>라<sup>先</sup>時<sup>음</sup>부<sup>터</sup>一<sup>일</sup>牝<sup>암</sup>牛<sup>소</sup>가<sup>霜</sup>露<sup>로</sup>中<sup>중</sup>에서<sup>化</sup>生<sup>생</sup>하<sup>야</sup>氷<sup>빙</sup>霜<sup>상</sup>에

混<sup>섞</sup>在<sup>어</sup>는<sup>氣</sup>監<sup>감</sup>氣<sup>를</sup>舐<sup>하</sup>고<sup>生</sup>長<sup>장</sup>하<sup>며</sup>其<sup>그</sup>乳<sup>젖</sup>房<sup>방</sup>에서<sup>四</sup>線<sup>줄</sup>의<sup>乳</sup>汁<sup>즙</sup>이<sup>流</sup>出<sup>출</sup>하<sup>야</sup>이<sup>밀</sup>의<sup>食</sup>糧<sup>량</sup>이<sup>되</sup>

는<sup>디</sup>牝<sup>암</sup>牛<sup>소</sup>의<sup>舐</sup>는<sup>는</sup>氷<sup>빙</sup>霜<sup>상</sup>의<sup>塊</sup>中<sup>중</sup>에서<sup>初</sup>日<sup>날</sup>에는<sup>男</sup>子<sup>자</sup>의<sup>頭</sup>髮<sup>발</sup>이<sup>顯</sup>하<sup>고</sup>次<sup>다음</sup>日<sup>날</sup>에는<sup>頭</sup>에<sup>目</sup>

이<sup>성</sup>生<sup>생</sup>하<sup>고</sup>第<sup>셋</sup>三<sup>째</sup>日<sup>날</sup>에는<sup>全</sup>身<sup>신</sup>이<sup>顯</sup>하<sup>야</sup>불<sup>나</sup>神<sup>신</sup>이<sup>되</sup>여<sup>불</sup>神<sup>신</sup>을<sup>生</sup>하<sup>고</sup>불<sup>나</sup>神<sup>신</sup>은<sup>巨</sup>人<sup>인</sup>의<sup>女</sup>媧<sup>노</sup>

이大喜<sup>대희</sup>야村落<sup>촌락</sup>을新設<sup>신설</sup>하고邦國<sup>방국</sup>을漸建<sup>점진</sup>하야全世界<sup>전세계</sup>에繁昌<sup>번창</sup>하니라 (天下傳說集)

神<sup>신</sup>과人<sup>사람</sup>이分離<sup>분리</sup>할時<sup>때</sup>에人類<sup>인류</sup>는女性<sup>여성</sup>이姑無<sup>고무</sup>하더니天神<sup>천신</sup>쓰스가人類<sup>인류</sup>의違逆<sup>위역</sup>을施罰<sup>시벌</sup>코

저하야工神<sup>공신</sup>을命<sup>명</sup>하야올림비아 (Olympia)의不死女神<sup>불사녀신</sup>의模型<sup>모형</sup>으로一人<sup>일인</sup>의美婦<sup>미부</sup>를粘土<sup>점토</sup>

로造成<sup>조성</sup>하니即<sup>곧</sup>반도라風神<sup>풍신</sup>이天神<sup>천신</sup>의命<sup>명</sup>을奉<sup>받드려</sup>하야此婦<sup>이녀인</sup>을率<sup>다려</sup>하코브로매도이스의弟<sup>아오</sup>

에비매도이스の家<sup>집</sup>에至<sup>나르</sup>하니에비매도이스가브로매도이스의預訓<sup>예훈</sup>을「天神<sup>천신</sup>이與<sup>여</sup>하느거

손無論<sup>무론하물</sup>何物<sup>다맛지</sup>이던지皆受<sup>적히지</sup>치말나」守<sup>지</sup>치아니하코美婦<sup>미부</sup>의容姿<sup>용자</sup>에迷<sup>미혹</sup>하야受納<sup>수납</sup>하매반도라는一

箇<sup>카</sup>의陶器<sup>도기</sup>를携來<sup>휴려</sup>하리라好奇<sup>호기</sup>의心<sup>마음</sup>에不勝<sup>불승</sup>하야訓誡<sup>훈계</sup>를又違<sup>또이</sup>하고器蓋<sup>그릇뚜개</sup>를開見<sup>열어본</sup>하즉其內<sup>그안</sup>

에서憂愁<sup>우슈로고</sup>勞苦<sup>외와</sup>의種<sup>질병</sup>과疾病<sup>수망</sup>死亡<sup>근</sup>의根<sup>근</sup>이忽爾<sup>문득</sup>飛散<sup>비산</sup>하야全世<sup>온세상</sup>에廣播<sup>널리전파</sup>하매大驚<sup>대경</sup>慌惚<sup>황급</sup>하야

其蓋<sup>그뚜개</sup>를復閉<sup>다시</sup>함으로一縷<sup>홀실</sup>의希望<sup>희망</sup>이尙<sup>오허려</sup>히殘存<sup>남아</sup>하니라 (古代神話集)

六 北歐 古代神話

最高<sup>가장높호</sup>하고最古<sup>가장오리</sup>神<sup>된신</sup>은萬父<sup>만부</sup>神<sup>신</sup>이니永久<sup>영구</sup>不滅<sup>불멸</sup>하코事物<sup>사물</sup>에萬能<sup>만능</sup>하리라前<sup>전</sup>天神國<sup>신국</sup>에在

하다가冰霜<sup>빙상</sup>巨人國<sup>거인국</sup>을創造<sup>창조</sup>하코主宰<sup>주재</sup>하니其初<sup>그처음</sup>에는夜見<sup>야견</sup>國<sup>국</sup>이有<sup>있</sup>하야中央<sup>중양</sup>에一泉<sup>호심</sup>이湧

하거늘天神이大怒하야火神을立招하매火兩가降하고礦泉이湧하야該城을燒盡하

니리가온은罔知所措하야此逃彼匿하다가華服은暗烟에黑毛로化하고兩手는匍

行하매前脚으로變하야狼으로幻成하니라殘餘한人民도리가온을從하야天神의訓

誠을違逆함이極도에到達한지라쓰스가水神을招呼하매海神江鬼와雨師風伯이一

時協力하야世界를征服하니有命生物이盡沒溺하느니라더으갈니온의妻는女性의

원시原始된반도라의女피라(Dyrha)인디夫妻가共히善良正直하야敬神愛人하기를晝夜

로全務하더니天神의愛護로랄나스란舟를乘하고洪水를避하야九日만에바르나소

(Pannassus) 或者曰오트리스(Ochrys) 산에漂着하엿는디四面에地皆荒蕪하고人

亦絶種하야寂寞함이比할티업더니忽焉天空에서大聲이特有하야「開眼解帶하고爾母

의骨을背後로投하라」明呼하느니라더으갈니온이聞聲自解하디此는天神의謎語니我

之母는地를指함이오母의骨은石을意함이라하야其妻와共히石을舉하야背後로投

하니男의投한거슨男子로女의投한거슨女子로化成하야其前에聚來하느니라兩人

일방 한쪽에는 살창과 창자를 모조로 결절과 또 일방 뼈와 힘줄 싸고 기름으로 덮은 후

天神의聰明을試코져하야何方이던지隨意選取하시라仰請하즉쓰스의電目은早已

看破하엿스나此分配하거슨永久하効力을有케하기로契約하고故意로脂蔽하部分

을取후에天神의睿智를逆試하罪罰노人間의用火를永禁하때鼎에는飯을炊기

未能하고夜에는燈을點키不得하야生活하기困難하지라브로매도이스는第二詐術

노長竹을持하고天上에登하야祭壇에서火種을竊取하니此時로브터브로매도이스

와人類는永遠히神罰下에在케되니라브로매도이스는天神의對하야逆試行詐하

며破約違誠하罪가深하나人類의게向하야는創造訓育하고保護扶助하恩이多하디

니嚴絶하神罰노寒冷荒寂하北極巖石에永遠하結縛을受하니라(天下傳說集)

브로매도이스의子더으갈니온(Denacation)時代에리가온(Lycaon)이란惡人이잇서天

神을不敬하고人民을廣惑하야自己가도로혀天神인테하더니쓰스(Zeus)가聞知하

고親히視察코져하야下降往訪하즉리가온이人을宰하야設待하고逆弑하기를隱謀



주저신  
主宰神이 되었더니 父靈의 詛咒로 그로 노도其末子쓰스 (Zeus 유비더 Jupiter) 의 被

弑되고 쓰스가 第三回의 主宰神이 되어 永遠히 宇宙政治의 主權을 掌握하고 世界神人

의 尊崇을 獨受하며 해라 (Hera) 女神과 配合하야 올림보 (Olympus) 山에 居生하는 神界

의 主되는 義戰女神 아르데미 (Artemis) 를 生하니라 (神統紀)

이 때 此時에 야페도 (Iapetos) 라 稱하는 天神의 子브로매도이스 (Prometheus) (人文保護神)

은 至極히 伶俐智巧호 神이라 年幼多戲로 父神의 戒逐함을 被하야 世界로 謫降하

니 天地와 生物이 俱備하나 人類가 始無홀지라 粘土를 掘取하야 自己狀貌를 模製하고

其胃에 生物의 命을 呼入호 後에 智慧와 學術과 技藝를 教授하야 人生을 始成케 홀지라

쓰스가 天上에서 此를 俯察하고 벨로보네소에 天神을 會合하고 神과 人의 權利와 義務

를 議定홀시 天神의 代表는 쓰스요 人類의 代表는 브로매도이스라 彼此立約하야 天神

은 人類를 保護하고 人類는 天神의 戒服從하기로 하였는디 犧牲을 天神의 戒奉供홀時

에 브로매도이스가 天神을 欺瞞코져 하야 一頭의 肥牛를 宰하야 二部에 分配홀시 巧妙

나일하기를 보라노라」  
하니其謙遜하고敬虔함과熱心이잇서主의福을爲하야受苦하

거슨果然百歲後人이본발을만하니라追後에教會中에서엘니웃을紅人의使徒라稱

하고本英國教會中에박스더라하느는有名호牧師는말하기를我의親舊中에엘니웃만

공恭敬을受할만하人이업는줄아노라하더라엘니웃이일즉말하디祈禱함과예수그

리스도를밋음으로某事이던지할수잇다하엿스니此言은眞實노記錄하야後世에傳

할만하言이니라

### 古代神話

(고딕신화)

蔡弼近 牧師 著述

### 五、헬나 古代神話

(凶惡한人類의史話가神話로轉成함인듯)

天神우라노는世界에第一回主宰神으로女性地神가이아로더브러衆子를生하엿

는디末子의名은크로노(Kronos)라그로노가母神의勸誘로父神을逆弒하고第二回의

고其後에 其子도 宣敎師가 되어 父親을 도아 일하더니 過度히 勞苦하야 其餘毒으로 天

死를 享거슨 實노 可惜하더라 엘니 웃의 딸은 나 이 오 아 들은 五人인디 세 아 들은 牧師

가 되니라 其後에 數多흔 書籍을 土人의 方言으로 翻譯하시 特別히 文典冊도 發刊하교

神學과 論理學을 演說도 하며 新舊約을 다 시 精密히 翻譯하니라

其間에 各敎會에 巡行 傳道하며 天國을 爲하야 受苦하더니 나히 八十歲에 나르러 氣

力이 衰弱하야 자 조 講道하지 못하니라 敎會의 事도 助事와 神學 卒業生의 게 맞기고

또록 스버리 本敎會의 牧師 職分까지 辭免하나 敎友들이 許諾지 아니하교 同事 牧師 두

기를 請하디 엘니 웃이 其所願대로 許諾하되 如前히 月給은 밧지 안켓노라 하나 敎會는

如前히 月給을 드리니라 其後에 氣力이 不足함을 因하야 本敎會에서 別로 講道하지 못

하교 다만 紅人을 마르치며 勸勉하야 引導하는 일노 餘年을 보내더니 一千六百九十年

나히 八十六歲에 世上을 離別하니라 臨終時까지 紅人을 잊지 못하야 「死後에 도하노님이

도아셔 該敎會일이 旺盛케 하시기를 願하며 我는 더 히를 爲하야 事호거시 不足하나 我보다 勝호人이 만히 나

南 指 學 神

고 臨終時림종시 々 兩手양수를 들어 하늘을 向향하야 祝手축수하고 그 어린 子息자식들을 敎會長老교회장로의 託

맛겨 하느님의 뜻을 마르쳐 將來장래에 本族屬본족속의 託 福音복음을 傳전하는 자가 되게 하야 달나고

또 죽기 前전에 自己族屬자기족속을 勸勉권면하야 예수를 主주로 알고 하느님을 順服순복하야 規模규모대로 盡守다지

하라 하니 傍觀보노사람인들이 皆淚다 눈물을를 흘리고 또 엘니웃도 此言이말을 記錄기록할 때에 눈물을 흘닐 수 밧

괴업다 하고 또 말하기를 此頭領이두령은 하느님씩 順服순복하야 두려움이 업시 感謝감사함으로

世上세상을 떠났스니 보는 사람들이 尤益堅固더욱 굳게히 밧었다 하엿더라

엘니웃이 일할 거시 多만 혼 中중에 遲滯지체함으로 落心락심함이 잇스되 一한千천六백六십一년에 新

約聖經약성경을 該處方言그곳방언으로 온전히 翻譯번역하야 出版출판하니라 二두年년後후에 또 舊約譯文구약역문이 出版출판하

게 되엿스니 此이는 엘니웃이 數年수년 동안 受수고 祈禱기도함 소願소원대로 됨이 오 其後그후에 詩篇시편과

여러 雜誌잡지 冊책도 出版출판하니라 (大學校대학교에 잇슬 때 브터 口才구재가 잇서 히브리와 헬나 方言방언을

니히비 혼지라) 聖經全部성경전부를 翻譯번역하야 出版출판하게 되매 미우즐거워 하야 受수고 일을

더 만히 하는 中중에 다른 宣敎師선교사보 내기를 本國敎會본국교회에 請願청원하야 여러 사람이 와서 同事동사하

요한, 엘니웃傳

屋을建築하는디와生活程度를곳치는事に쓰고該處方言으로聖經을翻譯하여累年

만에出版한지라該處土人들이英國人の近傍에와서살기를願치아니하니此는英國

人中에不信者가잇슴이라그럼으로엘니웃이幾里밖게가셔土人들이居住하는廣

濶한地境을엇어새로洞里를設立하고會堂과學校를세우고土人の懶惰한거슬곳치

고져야여러가지事業을마르친즉各處에人民等이만히와셔사니該洞名을나득이

라하니라土人等이더희중에서人을擇야頭領을삼고새로히教會의合當한法대로

다스리는規則을세우고全洞里를誠心으로하는님씩드리니라其後에次次洞里가繁

盛하여漸々더滋味가만하스니其形便을다記錄할수업거니와大抵土人等の快樂이

만더라其中에一頭領이病드러別世한면셔하는말이하는님씩셔吾儕의게矜恤함을

베프신거서세가지니第一은力과氣運이오第二는衣服과飲食이오第三은病과죽음

이라우리가前에第一과第二는만히받앗는디엇저야第三을즐거은모임으로받지

아니하니오하고最終에말하기를하는님이여내게예수그리스도를完全히주옵소서

을傳진홀시土人信者中에엘니옷을싸라든니며진힘씨受수苦하야傳道진하는자도여러사람

이러당라當時該地에旅行하는形便을말하면道路도險도하고川에橋梁도업스며人家

稀疎희홀즉雨를마자옷이저저도물닐수가업는곳이라當時에엘니옷이巡行하는路中

에서서쓴書信中에記錄하였스되水曜日부터土曜日까지各處로巡行하는間에옷이저

저서夜에寢時에靴를벗고襪을버서쥐여싸두었다가翌朝에其沾홀보선과신을도

로신고그대로든니기를累日하였스니此는雨도마질썩더러江水가급히馬를두고

越涉월할時에水에沉하야저즘이라巡行하는가如斯히困難하나하는님씨서保護하샤

慰勞위함을주셨시니巡行하며思하는中에바울이디모데의게홀말씀에爾가그리스도

의精兵이되여我와함씨苦難을견디라홀말씀과又흔聖經을만히思하였노라하였더

라

英國에서紅人들이悔改하고잇는다는소문을듣고其後에敎人들이만히捐補하

야보낸돈썩아나라國議會에서도財錢을보내니該財錢으로學校를세우며土人家

엘니 옷이 그 형편 其形便을 안 후에 스스로 생각 思하되 복음 전과 福音을傳播하야 회개 悔改하고

복음 福音을 밋게 하리라 하고 점점 漸々 토인 土人의게 전도 傳道하되니 성경 聖經을 보고 기도 祈禱하며 강론 講論하되

리지 아니하야 대회중 彼等中에 모혀드르며 회개 悔改하되자 동역사 만흐나 무당과 박슈들이 이 일을 슬허

하야 막으려하되 그러나 점점 漸々 교회 教會가 왕성 旺盛하야 다른 동역사 洞里人도 와서 이전 풍속 以前風俗을 버

린고로 못중내 畢竟 참교인 眞敎人이 된자가 만더라

또 그 후 其後에는 다른 곳에 토인 土人의 교회 敎會가 설립 設立되니 토인중 土人中에 믿는자 信者가 점점만 漸多함을 따라 대 彼

等의 회 生活程度가 초초 次次 진보 進步하야 장막거처 帳幕居處와 의복제도 衣服制度를 개혁 改革하고 신자 信者세리 새터 新地를 개 開

拓하야 새동리 新洞里를 설시 設始하고 모든 생활제도 諸般生活制度를 새로 온 풍도 風度로 써하니 그 곳 該處에 가

서 복음 福音을 전 傳할뿐 아니라 문자 文字를 마르치며 글씨도 마르치고 그 토인 該土人의 방언 方言으로 성 聖

經을 번역 翻譯하기를 시작 始作하되라 이 새동리 此新洞里에서 이르러서 새규모 新規模로 생활 生活하느거

슬 보고 영국인 본교회 英國人本敎會에서 도아 幫助함으로 더욱 힘 力잇게 나아가니라

엘니 옷이 동리 該洞里에 일할 것뿐 아니라 요원 遙遠한 각부락 各部落까지 순행 巡行하며 예수의 복 福音된 소식 消息

神 學 指 南

느님의子息된證據를얻은지라

其時<sup>그때</sup>부터<sup>작명</sup>作定<sup>작명</sup>하기를하느님의事役을하리라하고神學을工夫<sup>신학 공부</sup>하야牧師가된後에

다시作定<sup>작명</sup>하되我는決코本國內에일하기쉽고俸給이裕足<sup>봉급 넉넉</sup>한處에서일할거시아니오

美<sup>미</sup>洲에나아가我等의困苦<sup>수리 곤고</sup>를同胞를차자가서傳道<sup>동포 전도</sup>하리라하고一千六百三十一年에

美<sup>미</sup>國보스돈市에건너갔다其後에록스버리에가서英國人의教會牧師가되여거의

六十年間을거기서일하니라其品行이端雅하고講道는理想이高尚하며熱心있게

말하니近處에所聞이나서其講道를와서듯고悔改하는자만더라거기잇을때에各家

를尋訪하야兒童까지勸勉하야마르치고男女老少를勿論하고힘써引導하니有益을

좀이實<sup>실</sup>노단더라그러나本英國人의게만傳道하지아니하고漸々土人의게傳道하기

를始作하니彼土人等を議論컨대本來하느님의敎訓을아지못하고그리스도의福音

을아지못할뿐더러生活形便은可憐한野蠻들인디恒常서로싸화죽이는일이만코도

男子는戰爭에從事하고女人만일하는디其居處와衣服이변변치못하더라



스나第十二世紀로브터로마教會의게服從하게된後로는宣教師를派送할일이업는 듯하니라

요한, 엘니웃傳

神學及哲學博士 裴緯良牧師 著述

요한, 엘니웃은美國本土紅人의게傳道한宣教師中에첫재사람이라一千六百四

年에英國에서出生하였스며其父母는敬虔한人이라(時는요한, 변연이나기전二十

四年이니一六〇四年이라) 겐브릿지大學校에서卒業하니其幼年時代와겐브릿지

에서大學工夫할時에其行爲를보건디다른同俸들보다特別히異한거슨敬虔하야하

느님압해宜當히할本分을다하고저함이라그러나아직은重生하기前이러니大學卒

業을못고他處中學校에가서教授할時에特別히自己의性稟에罪惡이充滿함을써듯

고悔改하야新人이된後에全心으로福音의眞理를研究하는中에畢竟自己心內에하

一、 프리돌린 (Fridolin) 이 주후 五百年 쯤에 德國南便으로 가서 傳道하였다

一、 五百六十三年에 콜롬바 (Columba) 가 十二兄弟를 스곳들난드 西便에 오니 島로 引導하였다

導하였다

一、 모호나 (Mohanna) 가 十二兄弟를 스곳들난드 東便으로 引導하였다

一、 五百九十年에 콜롬바노 (Columbanus) 가 十二兄弟를 데르브러 法國東便 (부르군디

아 왕國) 으로 가서 傳道하다가 六百十年에 逐出함을 당하여 德國南便 (現今 쉬

절란드) 으로 가서 傳道하였다

一、 六百八十年에 길니아 (Kilian) 이 十二兄弟를 데르브러 德國 프란코니아 (Franconia) 地

方으로 가서 極力 傳道하였다

一、 同年에 엘노귀오 (Eloquius) 가 十二兄弟와 벨지움 (Belgium) 으로 가서 傳道하였다

一、 九百七十年에 포라난 (Foranan) 이 벨지움 (Belgium) 으로 가서 傳道하였으니라

아이틀난드 教會가 異常히 거스 로마 教會와 關係되기 前에는 此와 如한 活動을 하였

아이틀난드 教會와 聖바드릭

該島名을聖徒의島라稱호였스며修道院을設置호고거기서修道士中에先生들이牧

師와宣教師되者를爲호야教授호였스며宗教書類를謄書호는題書所도잇섯스니아

이를난드教會는當時에유로비中에서學問으로因호야有名호教會러라

켈도(Kells) 民族教會의原始에修道院은石으로建築호華麗호집은아니나木材로

江邊에建築호여러집이니荒村과又호며其中에는會堂과食堂과工場所와行人의게

慈善事業호는旅客舍도잇스며其外에는土石으로建築호牆이잇스며其中年老호修

道士는敬虔會를引導호고聖經을謄書호며神學生教授호는일을만히호며年少호修

道士들은農場에서일호며手工도호고幼兒를教育도식혔느니라

此修道院에서밋지아니호는國에宣教師를派送호였는되傳道호러갈時에는十二

人을一隊로호고又一人是引導者로定호니合十三人이다라이는主예수當時에十二

弟子를領率호시고傳道호시던模本을밧음이니라此宣教會에著名호者는如左호니

라

神 學 指 南

도언더라

先生선생이 教會교회에 對대한 信經신경을 지었는디 此이는 自己자기가 信仰신앙을 告白고백한 것과 傳道전도한 道理도리와

敎友교우들이 잇을 만흔 거스르엿는디 現在현재 更正정정 敎道교도 理리와 又또 呼호며 特別특별히 三位위一體체의 理리

致치를 마르쳤는니 此이는 新約신약과 完全완전히 合합하는 道理도리니라

以上이우에 記錄기록한 事實사실을 思생하 여 본즉 先生선생은 熱心열심만흔 有力유력한 傳道전도師사며 또 아이들난드

敎會교회에 高尙고상한 指導지도者자라 稱칭할 만흔 거슨 受받은 道理도리를 篤實독실히 밋고 聖神성신이 充滿충만함으로

多人만사람을 主주석로 引導인도하엿슴이니라

先生선생의 事業사업을 繼續계속한 者자들은 先生선생의 門문下하 弟子제자들과 英國영국에 잇는 門문下하 修道士수도사들 中중에

第五세、六世紀세에 英영갈 노삭손 (Anglo-Saxons) 이 英영갈 난드 (England 英國)에 侵침入입함으로 아

이를 난드로 좃겨 간 者자들이 繼續계속하엿는니라 聖성바드릭이 別世별세한지 百백年년도 되지 못하 여

서 아이들난드 各處각처에는 會堂회당과 男남女녀를 爲위하야 設설立립한 修수道도院원이 數수多다하엿스며 第六세、

七世紀세間간에는 아이들난드에 잇는 그리스도 敎人교인의 敬경虔건함이 他國다른나라보다 뛰여 나섬으로

아이들난드 敎會와 聖바드릭

神 學 指 南

이 들난 드 教會와 聖바 드 리

三 八

하엿는 디 此處는 先生이 처음으로 傳道 處이며 처음으로 信者를 잇은 곳이라 末年에

身體가 弱하야 此處에 와서 平安히 留하다가 別世하엿는 디 此日을 아이를난 드 全國이

慶節노 직혀 休業하느니라

先生의 神學은 로마 敎道理와 相異함이 맞치 晝夜가 相反되느 것 又하엿스며 先生이

著述한 冊中에 로마 敎나 敎皇의 對하야 쓴 글이 一節도 업섯스며 로마 敎會에서 主

의 母親마리아를 榮光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下位로 보나 先生은 마리아를 恭敬

치아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萬有의 主가 되시고 萬有에 계시다 하엿스며 로마 敎會

에서는 聖經을 만히 禁하나 先生은 聖經을 眞理에 對하야 最히 重要한 줄 認證하엿고

로 敎會에서 是 職任者가 娶妻하느 거슬 禁하나 先生의 祖父와 父親은 敎會에 職任者일

지라도 娶妻하엿고 先生도 娶妻한 者를 按手禮式으로 牧師로 세웠스며 로마 敎會에서

는 敎人들이 神父의 告罪하느 거슬 緊要히 녀이나 先生이 設立한 敎會中에는 도모지

그러 할말이 업스며 臨終時에 塗油式이나 밋사 祭를 舉行한 事가 업고 煉獄이 있다 는 말

此下에 一 種 滋味 잇는 事實을 陳述하노니 此는 衆人이 共知하는 바라 先生이 미르

(Meath) 王御前에서 傳道할 때에 一 幹에 三 葉 달닌 草(삼옥)를 들고 하신 三位一體

되시는 奧妙한 道理를 說明하엿는디 是로 由하야 아이를난드에서는 삼육을 國花나하

느니라 \*

先生이 修道院과 教會를 만히 設立하고 牧師를 按手禮式으로 任職하엿스며 教會를

治理하는디 是는 大主教(大監督)나 主教(監督)가 업고 但各處 教會에 牧師가 잇서 本

支教會를 治理함으로 該支教會의 監督으로 잇섯다 하엿는디 엇던히에 教會가 三百六

十五處所가 되고 牧師도 三百六十五名이 되며 教會가 더 旺盛하야 七百處所가 되엿습

으로 牧師도 亦是 七百名이 되엿다 하엿스니 果然其 道理는 狹窄하지 안코 統一的 正教

며 新約과 合한 道理라 아이를난드 教會가 慈心을 除하야 世上을 좃지 안코 로마 教會의

主敎에 對하야 關係가 업스며 獨立的으로 自行한 教會니라

先生이 主後 四百六十一年 三月十七日에 다운바드릭 (Down-Patrick)에서 臥席終身

아이를난드 教會와 聖바드릭

구원  
혀救援을 잇게 하였스니 此重生하는 恩惠는 로마教會의 方法대로 外貌로 禮式을 직함

우상  
과 偶像과 헛된 形像을 崇拜함에 잇지 아니하고 但하는 님의 言을 傳하고 實狀으로 직함

에 잇는 나라

선생  
先生은 祈禱를 만히 하며 性品이 溫柔하고 教會를 잘 引導하고 治理하며 하는 님을 篤

실경  
實히 밋고 聖經을 精確히 알며 恩惠의 道理를 固게 잡고 그리스도를 愛함으로 使役에 獻

신  
身하야 아름답고 恩惠로는 福音을 盡心으로 傳播하였는 나라

주장  
族長의 子가 바드리 의 傳道하는 事를 비화 其後를 繼續하였스며 宮殿에 잇는 音樂

가  
家도 信호故로 鬼神의 讚揚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게만 讚揚하나라 第八世

紀前  
紀前에는 아이를 낳드 教會에서 그리스도의 福音外에는 밋고 傳하는 事 업더니 只今

은 그 나라 四道中에 三道가 로마教會의 權利下에 잇슴으로 異端과 迷信이 잇게 되었스

나 그러나 聖神의 權能으로 重生하야 하는 眞子女가 되기 願하노라 아이를 낳드

가  
各處에서 先生을 記念하기 爲하야 其名으로 定호 都城이 만호니라

神 學 指 南

할 때에 내가想像하니 卽大西洋가가 온 포글넛(Fogel) 森林갓헤居는 人民들의 號泣

하는 聲音이 耳에 들니는 디 其言이 神聖한 青年이 여와서 以後로 브터我等中에 行하사

오하더라 然함으로 最終에 아이를 난드에 傳道하러 가기로 作定하고 數年間에 神靈은

職分을 엿기爲하야 工夫하며 準備후에 아이를 난드로 도라가서 平生도록 其處에서

使役하고 諸村에 傳道하야 教會를 세웠으며 先生이 言하기를 我的게 큰 恩惠를 베프사

나의 傳道함으로 數多人民이 하는 님前에 重生한 者가 되며 各處에서 百姓을 爲하야 按

手함을 밧아 牧師된 者가 만흔코로 내가 하는 님씩크게 負債者로 다하고 또 本來아이를

난드 百姓이 도모지 하는 님을 知치 못하고 偶像과 物件前에 崇拜하는 者가 되엿더니 近

來에는 主의 百姓이 되고 하는 님의 百姓이라 稱함을 엿는다 하더라

先生은 敏速한 活動力이 잇는코로 原野에 나가서 擊鼓하야 邪教徒를 會集하고 其支

派의 方言대로 하는 님의 子예수의 行蹟을 一々히 마르치고 또 한셔듯기 쉽고 滋味잇는

演說을 함으로 未久에 神奇한 權能이 싣겨 그와 又치 教育이 업는 무리의 心志를 感化시

아이를 난드 教會와 聖바드릭



神 學 指 南

아이를난드敎會와聖바드릭

三四

나려나서 醒起야 하느님과 交通하려고 甚흐 風雨寒雪을 冒호고 山中森林에 가서 祈禱호엿

스며 言호기를 主께서 我心을 쓰 汲개호심으로 我의 不幸을 掛念치아니호고 懶惰호뜻

도나지아니호엿다호니라

奴隸노릇호지 六年만에 主人의 게서 逃脫호여 海邊으로 가서 乘船호고 스곳들난드

로 渡還호야 本郷에 到着호니 兩親이 許久間일헛던 子息을 更逢호므로 頸을 안고 깃버

호더라 바드릭이 奴隸事業에 汨沒호을 因호야 瘦瘠호엿슬지라도 잡혀가기 前에 보지

못호던 光이 其面上에 輝煌호을 其兩親이 보고 其子의 暫時 밝은 若難을 輕히 녀엿느니

然이나 父親宅에 오리 留호지 못호거슨 아이를난드의 暗黑호거슬 보고 自己의 光을

其百姓의 게 빛치기를 思慕호일너라 先生이 異常호 夢으로 因호야 作定호거시잇스니

夢中에 아이를난드에서 온듯호사름이 無數호 書信을 가져와서 其中에 一枚를 줌으로

取覽호니 書頭에 問題는 아이를난드 百姓의 聲音이라 호엿더라 其問題를 다시 보고 思

南 指 學 神

바드릭을買主人이 아이를난드北便브레드 (Bride) 江邊沃土平原에서牧畜하는事

役을식혔는디其近處에高山이잇슴으로其兒童이時々로高山에올나本國을望見할

時에其心이얼마나悲感하였스리오

하느님께서자조吾人の困苦로由야他人의게神靈을有益을베프샤喜樂을 누리

게하심과又치바드릭이奴隸노릇할時에裸足으로牧畜하는困苦를當하였스나하느

님께서矜恤히 녀이사奴隸中에서其靈魂을救援하심으로由야衰하지안는芳美한

名譽를얻게하심뿐아니라萬姓의게恩惠를遺하게하셨는니라

바드릭이일즉父母의게敬虔한教養을받앗스나다른兒童들의와는것과又치父親

의教訓을輕視하고로自己의信仰告白書에言하기를我가참하는님을知치못하였더

니 아이를난드에잡혀와서十六歲가되도록信치아나하던我的心을主께서여려주신

거슨遲滯하던我로하여公罪를覺悟케하시며重生케하시全心으로主我하는님씩로

歸往케하신意向이라하였스며또바드릭이心を하느님께서드려祈禱하고夜이면자조

아이를난드教會와聖바드릭

主後三八九年주 후 三八年에 출생출생하야 四六一年三月十七日四六一年三月十七日에 別世별세하였는디 其間그 동안에 先生선생의 著述저술 冊책은 信仰告白신앙 고백 이란 冊과 그리스도 敎人교인의 冊책 보는 書信서신 이란 冊이니 其冊그 책 들은 果然과연 吾儕우라의 福樂복락을 享有누라케 할 만 할 冊이 되고 此外이 밖에는 其의 行傳행전에 對하야 依遵의지 할 만 할 冊이 업는 니라

先生선생의 祖父조부의 名은 보디도 (Poidus)인 디 敎會의 長老장로요 父親은 갈부르니오 (Calpurnius)

敎會執事교회집사며 其邑그 읍의 郡守군수와 又또 職分직분이 잇스며 母親은 콘젯사 (Concessa)인 디 有名유명

두르스 (Tours) 大主敎대주교 마르틴 (Martin)의 妹氏누의며 家族生活가족 생활도 饒足요족하코 사 람들의 尊敬존경

을 受받 할 만 할 者자 들이 러라

스곳들난드 (Scotland) 글나스코 (Glasgow) 城近處성 근처에 길바드릭 (Kil-patrick) 이란 村촌이

잇는 디 或者엇던는 其處그 곳가 先生선생의 出生地출생지인 줄 노 아는 니라

바드릭이 十六歲세時시에 娣妹제제二人두 사람과 又또 流浪류랑을 盜賊도적들의 捕縛포박을 乘船비를하코

一處한 곳에 到着도착하니 如何엇 할 處처 소인 지 모르나 盜賊도적들은 兒孩아이들을 該處그 곳의 人사람의 放賣방매할 지라

第四世記에는 펠네스티오란 아이를 난드 사람이 벨나기오의 門徒로 其道理를 辯論하

는 事에 出衆한 사람이 되었스며 또 第五世記에 있던 史書에 記錄하기를 아이를 난드

姓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잇스니 此諸般事況을 思하여 본즉 일즉이 아이를 난드

에서 예수를 믿는 運動이 있던 줄 알거시니라

然故로 其時부터 教會가 旺盛함으로 組織된 듯하니라 博學士 兪철 (Usher) 이 말하기를

를 第十一世記로 부터 로마 教會가 아이를 난드 教會를 主掌하게 됨으로 腐敗함이 蔓延

하였셔도 아이를 난드 教會中에 第四世記로 부터 純全하고 清潔한 禮式이 數百年間에

地下川과 又 斷澗지 안코 第十七世記에 長老 敎派가 組織될 時까지 繼續하였다 하였

스니 此는 아이를 난드 長老 敎會가 第四世記에 單純한 信仰을 가졌던 信徒의 後를 繼續

하였다는 뜻이니라

아이를 난드 歷史中에 第一著名한 人物이 잇스니 名은 聖바드릭이라 歷史家中에 바

드릭의 年數에 對하여 辯論이 만함으로 著作定하기 어려오나 있던 事緣을 依하면 如左

아이를 난드 敎會와 聖바드릭

# 아이클난드教會와聖바드릭

文學文士 富斗一牧師 著述

세상사람 소의 연구 중 저의  
 世人이 史記를 研究하는 中에 滋味를 만히 얻는 것은 何許國이 信敎할 것과 何許信者  
 고향을 떠나 他處나 他國으로 가서 累處에서 教會를 設立할 일을  
 가 故鄉을 떠나 他處나 他國으로 가서 累處에서 教會를 設立할 일을  
 이클난드가 信敎할 것과 聖바드릭이 該地에서 敎를 傳함으로 人民이 信敎케 된 일이니  
 라

혹자 생각과 교회  
 或者의 思量에는 Waldensian Church ) 가 現時에 있는 更正敎中 最先 設立된  
 現시  
 更正敎中 最先 設立된

줄아랏더니 近來 歷史에 通達할 자가 云하되 更正敎會中에 아이클난드 教會는 愈久  
 근리력수 통달자 닐은 更正敎會中에 아이클난드 教會는 愈久  
 愈久할

거시라하되 何年에 如何한 形便으로 設立하였는지 分明히 知치 못하나 教會에 關한  
 어나히 었디 형편 설립 분명 알지 못하나 教會에 關한  
 關한

史記는 四師의 歷史란 冊인디 其冊에 記錄하기를 其國王고르막 (Cornac) 이 하느님  
 소의 넷스승 역사 그책 기록 그나라왕  
 其冊에 記錄하기를 其國王고르막 (Cornac) 이 하느님

을 恭敬으로 鬼神을 崇拜하는 祭司長들의 地震怒함을 납었다 하엿더라  
 공경 귀신 숭배 제사장 진노  
 을 恭敬으로 鬼神을 崇拜하는 祭司長들의 地震怒함을 납었다 하엿더라

平安히待接호緣故라 (히十一〇卅一) 호였스니라 합이잇는信仰을行爲로 보여

서救援함을받음으로 (약二〇十八一廿五) 一般信者의게信仰의模本이 되었스며

二、바디매오가當호事를思호니信仰이잇는대로福발을거술自然히알수잇스며

(눅十八〇四十二)

三、엘나사가여리고泉水를곳친거술思호니人의信仰이淨潔호고私慾과疑心이업

는完全호信仰이라야神靈호열미를질수잇스며 (王下二〇十九一廿二)

四、삭기오가當호事를思호니예수맛나기를懇切히願호는人이當身을차질수잇고

또호예수를一次救主로받은後에以前行爲를온전히곳치고自己의所有로主님

씩드려섬길거서며 (눅十九〇八)

五、여리城을思할時마다예수씩서호신말슴中에第一貴호신말슴을여기서호신

줄알거서니其言은다름아니라人子가失호者를차자救援호러왔노라호섯스니

라 (눅十九〇十)

호城인듯하니라

將來

終末여리고는如何호城이될년지知치못하나節儉호유대人이발케스되나에다시

드러가셔農事하며果園을栽培호터이면여리고가富饒호고살만호城이될듯하며只

수이라도아골골짜이에는橘과바나나(Banana)와棕櫚實果가만하나는되以後에호세

아二〇十五言과又치아골谷이所望의門이될수잇슴이라現今諸形便이예수當時

와判異호니自働車가險호여리고路로來往하며軍用飛行機가요단江골짜이上空에

飛行호는것又흔거시라

可學的理致

또여리고史記를思호니學호만호理致가左와如히만히잇는줄노아노라

一、信仰으로媵라합은信從치아니호者와함되滅亡치아니호였는니此는偵探軍을

예수역서其時最終逾越節직히시라고예루살렘으로上去時에여리고地境에서바

뒤매오란盲人을맛나곳치셨는뒤(막十〇四十六一五十二, 눅十八〇卅五一四十三)或이

마가와누가福音에잇는言이슴지아나하는줄노思할수잇스나古여리고와新여리고

二城이잇는거슬記憶하야예수씨서古여리고를離하시고新여리고에入往時에盲人

을맛나신거슬思할면를님이업슬지나라

거민 形편  
居民의形便

여리고는요단江深谷에잇슴으로第一熱城이오人民이其日氣로困하야弱하

여짐으로일하기가困難하나土地가肥沃하며實果가豐盛하나는處이오그썩아나라

여호수아가이스라엘百姓과又치其城에서探覓한物件을思하니富饒한거시分明하

며(수六〇廿四)아간이감초앗던신알(바벨논)周衣잇는거슬보아도바벨논과애급

으로來往하는商賈들이바벨논物品을其城에서買賣한證據요(수七〇廿一)예수當

時에도삭키오란人이로마國政權下에稅吏가된거슬보니富者인듯하고該城도富饒



라가여리고城을皇帝어구스도(Augustus)의게팔고또어구스도가헤롯왕의게주었는

디헤롯왕이華麗한家屋과大闕을만히짓고花園도만히만들며큰池를파고路邊에桑

樹를多植하였스니헤롯이桑樹를植時에自己가하는님의器械가되어主님의路를預

備하여어수씨와삭기오가逢着할位置를預備하는줄모르고하였는니라(눅十九〇

一一五)

주 동과  
주석서通過하심

이말습  
此言을보니어수씨서八十里면에루살넴으로가는險路를가시기前에삭기오의

家에서一夜를留하셨는니라예루살넴으로通路가險한거슨예루살넴은二千五百

尺海面上에있고여리고는우헤記錄한대로一千一百尺海面下에잇스니八十里相距

에三千六百尺의差異가되는사들이오도道路左右便에는深谷이잇는고로危殆하며

强盜가多흐路이라어수씨서其路를잘아신고로예루살넴에서여리고로느려가는사

름의譬喻를베프셨는니라(눅十〇卅)

부르시 후서 바벨론字擄時와後時

一 二 三百年後유대王中에末次王시드기야가예루살렘을包圍한느부갓네살의軍隊  
 를避하여여리고通路로逃亡하였다니王卞廿五〇五에記錄한대로갈대아軍士가王  
 을 좃초여리고平地에밧쳐매王의諸軍이離散한더라갈대아軍士가遂히王言사로잡  
 앓고예루살렘百姓을바벨론으로擄去할時에여리고百姓도흔가지로잡혀갓더니七  
 十年後에루살렘을回復할時에여리고人三百四十五名이바벨론을떠나又北上往  
 었스며(느二〇二)또느헤미아時에여리고人들이예루살렘城을建築한事에參與  
 도한것이니라(느二〇二)그러나바벨론에서歸來한人들이여리고城을建築할時에  
 前에있던城址에아니하고아골골짜기에서流下하는溪南使七里外에建築하였다니  
 라數百年을지나유대國이로마屬邦되였을時에有名人마르고, 안도니오가棕櫚城  
 을예굽女王을네오바드라(Osopatra)의게賄物노짐으로그가棕櫚樹에서나는棗와橘  
 과여러가지다른果實을時價로會計하여稅를収去한더니主前五十年에글네오바드

나 이 此城을 세우는 자는 여호와 前에 詛呪를 받아 基를 닦을 제 長子를 일코 門을 세울 제 季  
 子를 일호리라 할 말과 又 三五〇年後에 이스라엘 惡한 王아 합時에 應하엿스니 卽列  
 王記上十六〇卅四에 記錄한 言과 又 其時代에 벳엘人 히엘이 여러 고를 다 시 建築하  
 리라 彼가 基를 修할 時에 長子아 비람이 죽고 其門을 建時에 季子스 급이 죽으니 此는 여  
 호와 又 서는 의 子여 호수아를 憑藉하야 하신 言과 又 더라 (수 六〇卅六) 이 로 보 건 디 여  
 호수아 時 브터 아 합 時 又 지 여러 고에 人이 살지 아니 하엿다 흠이 아니라 其 時에 히엘이  
 하느님 又 서 崩壞케 하신 城郭을 다 시 建築함으로 預言한 대로 災殃을 받았다 흠이 니라  
 아 합 王 時에 여러 고 城에 先知者 (神學) 學校가 잇섯는 디 (王下 一〇三 一五) 거 기 서  
 엘니아가 떠 나 요 단 江을 通過하야 終乃 旋風으로 升天하 고 (王下 一〇五 一三) 엘니가 서  
 가 엘니아의 心 神과 權能으로 여러 고 로 도 라와 서 여러 고 近處에 잇던 泉을 掘쳤는 디 今  
 日 서 지 엘니사의 泉이라 稱하 는 니라 (王下 一〇四 一廿二)

장 다 팔소리외 長의 囉叭聲外에는 異聲을 호지아니하고從容히其城을七日間에 每日一次式週行호

것과마즈말날에는 七次를도라셔百姓의 鼓喊聲으로城이 崩壞된거슬보니 如斯히싸

홀호지아니하고城을 占領호는하는 命의셔아브라함의게 許諾호신대로 福地를이

스라엘百姓의게 그져주신거슬 證據호는事이라 (히十一〇三十) 其時에된일을思호

니이스라엘百姓이여리고城內에잇는 物件을하는 命의宜當히박칠거신디아간이란

사름이 巧흔物件을보고 貪호야 順從치아니함으로아골골짜기에서石을마져죽잇는

디(수七〇十九廿六) 何許人의言이아골골짜기에서흘너나려오는 溝川은그릿溪인

줄노思호즉眞談이면數百年後先知者엘이아가 鴉鳥의게糧食을밧던골짜기라 中世

代에 隱士들이엘니아를 記念함으로其谷에 險호盤石을擇호야 修道院을지잇는디스

日서지잇는니라

列王時代

여리고城이이스라엘百姓前에 崩壞할時에여호수아가盟誓호야골으디므르트起호

여리고城

기념 연유  
紀念할緣由

여리고라<sup>성일흥 드물제</sup>는城名을聞<sup>암암</sup>時에暗々히昔日여호수아가天<sup>하늘노</sup>으로브터느려은하늘軍隊의

대將<sup>대장</sup>前<sup>앞</sup>에서<sup>공경</sup>열며恭敬<sup>공경</sup>하던것과(수五〇十三十五) 妓<sup>기성</sup>라합이罪人<sup>죄인</sup>일지라도信仰<sup>믿음</sup>으로

救援<sup>구원</sup>을<sup>불근노면</sup>받아紅繩<sup>창문</sup>을窓門<sup>창문</sup>에<sup>떨옷</sup>민것과毛衣<sup>술넘은</sup>를被<sup>소경</sup>흔엘니아와盲人<sup>소경</sup>바디매오와<sup>적은</sup>적은<sup>사기</sup>사기

오와<sup>그성거리</sup>예수<sup>릭왕</sup>씨서其城街에서來往<sup>성가</sup>하시던거슬思<sup>성가</sup>할지니라

여호수아時

聖經<sup>성경</sup>中<sup>중</sup>에여리고가初<sup>처음</sup>次<sup>나</sup>顯<sup>라</sup>出<sup>나</sup>하<sup>나</sup>기는모세가비스가山峯<sup>산봉</sup>에올나서<sup>자</sup>自己<sup>의</sup>가犯<sup>범</sup>罪<sup>죄</sup>함

으로入<sup>드리</sup>去<sup>가지</sup>치<sup>허디</sup>못<sup>구경</sup>할<sup>때</sup>許<sup>때</sup>地<sup>때</sup>를觀覽<sup>서편</sup>할<sup>종려나무성</sup>時<sup>탑</sup>에<sup>환</sup>더면西<sup>환</sup>便<sup>환</sup>에棕櫚<sup>환</sup>城<sup>환</sup>과<sup>환</sup>塔<sup>환</sup>이<sup>환</sup>煥<sup>환</sup>하<sup>환</sup>게<sup>환</sup>보<sup>환</sup>이<sup>환</sup>는<sup>환</sup>거<sup>환</sup>슬

요단江東<sup>강동편</sup>便<sup>편</sup>에서보<sup>편</sup>앗<sup>편</sup>스며(신二十四〇一三)여호수아一<sup>편</sup>장<sup>편</sup>을<sup>편</sup>보<sup>편</sup>니여호수아가보

넌偵探<sup>정탐군</sup>軍<sup>군</sup>이여리고城<sup>성</sup>을探<sup>탐지</sup>知<sup>지</sup>흔것과<sup>보호</sup>라합의게保<sup>보</sup>護<sup>호</sup>함을<sup>보호</sup>받<sup>보호</sup>아<sup>보호</sup>窓門<sup>창문</sup>에서<sup>창문</sup>달<sup>창문</sup>녀<sup>창문</sup>나<sup>창문</sup>린<sup>창문</sup>것<sup>창문</sup>과

라<sup>약</sup>합<sup>약</sup>과<sup>약</sup>約<sup>약</sup>條<sup>약</sup>흔<sup>약</sup>거<sup>약</sup>시<sup>약</sup>잇<sup>약</sup>고<sup>약</sup>또<sup>약</sup>本<sup>본서</sup>書<sup>서</sup>六<sup>본서</sup>장<sup>본서</sup>을<sup>본서</sup>보<sup>본서</sup>면<sup>본서</sup>이<sup>본서</sup>스<sup>본서</sup>라<sup>본서</sup>엘<sup>본서</sup>百<sup>백성</sup>姓<sup>성</sup>이<sup>백성</sup>요<sup>백성</sup>단<sup>백성</sup>江<sup>백성</sup>을<sup>백성</sup>渡<sup>강</sup>흔<sup>강</sup>後<sup>강</sup>에<sup>강</sup>祭<sup>제</sup>司<sup>제</sup>

거스<sup>서경</sup>聖經中에 있는<sup>우</sup>는<sup>리</sup>吾儕의 아<sup>일</sup>는<sup>름</sup>名이 만<sup>드</sup>히<sup>리</sup>顯發<sup>남</sup>함이 라 聯合軍이 昨年秋에 淸<sup>연</sup>바와<sup>합</sup>룻다

(<sup>정</sup>형九〇卅八)를<sup>취</sup>取하고<sup>정</sup>뻬<sup>령</sup>호론(수十〇十一)을<sup>정</sup>占領<sup>년</sup>하였다니<sup>월</sup>今年二月十四日에<sup>일</sup>예

루살<sup>부</sup>넬北便에<sup>전</sup>있는<sup>리</sup>막<sup>아</sup>마스(삼<sup>취</sup>전十三〇十二)도<sup>취</sup>取<sup>어</sup>하였다니<sup>동</sup>此洞里는<sup>리</sup>발<sup>중</sup>네스<sup>터</sup>의<sup>나</sup>나<sup>중</sup>

央<sup>양</sup>高原에<sup>고</sup>있는<sup>원</sup>處<sup>곳</sup>이라<sup>이</sup>此洞里를<sup>취</sup>取<sup>취</sup>한<sup>후</sup>지<sup>후</sup>一週日<sup>호</sup>後에<sup>유</sup>요<sup>일</sup>단江深谷에<sup>후</sup>地<sup>장</sup>中海<sup>김</sup>海<sup>진</sup>々<sup>은</sup>面<sup>은</sup>보다<sup>면</sup>

一<sup>일</sup>千<sup>천</sup>一<sup>일</sup>百<sup>백</sup>尺이나<sup>척</sup>々<sup>척</sup>진<sup>척</sup>곳에<sup>척</sup>있는<sup>척</sup>여<sup>척</sup>리고<sup>척</sup>城을<sup>척</sup>占<sup>척</sup>領<sup>척</sup>한<sup>척</sup>매<sup>척</sup>터<sup>척</sup>거<sup>척</sup>軍士<sup>척</sup>들은<sup>척</sup>死<sup>척</sup>海<sup>척</sup>近<sup>척</sup>傍<sup>척</sup>에<sup>척</sup>積<sup>척</sup>置<sup>척</sup>

하였다<sup>군</sup>던<sup>수</sup>軍需品을<sup>품</sup>燒<sup>불</sup>火<sup>살</sup>하고<sup>오</sup>요<sup>장</sup>단江越便으로<sup>전</sup>退<sup>퇴</sup>軍<sup>군</sup>하였다<sup>군</sup>라

여<sup>다</sup>리고<sup>형</sup>의<sup>지</sup>地形

여<sup>세</sup>리고<sup>상</sup>는<sup>데</sup>世<sup>일</sup>上<sup>하</sup>에<sup>성</sup>第一<sup>성</sup>低<sup>성</sup>陷<sup>성</sup>한<sup>성</sup>城<sup>성</sup>인<sup>성</sup>디<sup>성</sup>古<sup>넛</sup>時<sup>적</sup>여<sup>넛</sup>리고<sup>적</sup>와<sup>넛</sup>現<sup>넛</sup>今<sup>적</sup>여<sup>넛</sup>리고<sup>적</sup>가<sup>넛</sup>異<sup>넛</sup>한<sup>넛</sup>니<sup>넛</sup>古<sup>넛</sup>時<sup>적</sup>여<sup>넛</sup>리고<sup>적</sup>

고<sup>큰</sup>는<sup>성</sup>大<sup>성</sup>城<sup>성</sup>이<sup>성</sup>요<sup>성</sup>돌<sup>성</sup>노<sup>성</sup>造<sup>성</sup>한<sup>성</sup>宏<sup>성</sup>壯<sup>성</sup>한<sup>성</sup>家<sup>성</sup>屋<sup>성</sup>과<sup>성</sup>四<sup>성</sup>方<sup>성</sup>에<sup>성</sup>花<sup>성</sup>園<sup>성</sup>이<sup>성</sup>며<sup>성</sup>美<sup>성</sup>麗<sup>성</sup>한<sup>성</sup>果<sup>성</sup>園<sup>성</sup>이<sup>성</sup>만<sup>성</sup>흠<sup>성</sup>으로<sup>성</sup>棕<sup>성</sup>櫚<sup>성</sup>

城<sup>성</sup>이라<sup>성</sup>稱<sup>성</sup>하였다<sup>성</sup>니<sup>성</sup>現<sup>성</sup>今<sup>성</sup>은<sup>성</sup>樹<sup>성</sup>木<sup>성</sup>이<sup>성</sup>없<sup>성</sup>는<sup>성</sup>平<sup>성</sup>地<sup>성</sup>에<sup>성</sup>있<sup>성</sup>스<sup>성</sup>니<sup>성</sup>貌<sup>성</sup>樣<sup>성</sup>이<sup>성</sup>고<sup>성</sup>閒<sup>성</sup>寂<sup>성</sup>한<sup>성</sup>곳<sup>성</sup>이라<sup>성</sup>但<sup>성</sup>百<sup>성</sup>餘<sup>성</sup>戶<sup>성</sup>

되<sup>토</sup>는<sup>담</sup>집<sup>담</sup>은<sup>담</sup>土<sup>담</sup>墻<sup>담</sup>으로<sup>담</sup>築<sup>담</sup>造<sup>담</sup>한<sup>담</sup>거<sup>담</sup>시<sup>담</sup>오<sup>담</sup>佳<sup>담</sup>麗<sup>담</sup>한<sup>담</sup>景<sup>담</sup>致<sup>담</sup>이<sup>담</sup>는<sup>담</sup>花<sup>담</sup>園<sup>담</sup>도<sup>담</sup>업<sup>담</sup>스<sup>담</sup>며<sup>담</sup>洞<sup>담</sup>內<sup>담</sup>에<sup>담</sup>는<sup>담</sup>財<sup>담</sup>產<sup>담</sup>家<sup>담</sup>가<sup>담</sup>

업<sup>라</sup>슬<sup>라</sup>썩<sup>라</sup>아<sup>라</sup>니<sup>라</sup>懶<sup>라</sup>惰<sup>라</sup>한<sup>라</sup>失<sup>라</sup>業<sup>라</sup>之<sup>라</sup>輩<sup>라</sup>의<sup>라</sup>巢<sup>라</sup>穴<sup>라</sup>이<sup>라</sup>되<sup>라</sup>므로<sup>라</sup>華<sup>라</sup>麗<sup>라</sup>한<sup>라</sup>貌<sup>라</sup>樣<sup>라</sup>이<sup>라</sup>업<sup>라</sup>는<sup>라</sup>니<sup>라</sup>라

여<sup>어</sup>리고<sup>고</sup>城

나서 초면인소 필요 누구 말 드를 필요 누구 직접  
 하여 初面人事를 必要도 업고 誰의 言을 聽을 必要도 업시 誰인지 直接으로 알거시니라  
 그리 후세계 의식  
 然하면 後世界에서 意識업시 지낼가 念慮하지 말거슨 其時에는 吾儕의 知識과 聰明이  
 발단 지금 진리  
 더욱 發達하야 只今보다 眞理를 잘서다 라서 古時聖人과 我等親舊를 交際하고 永遠히  
 부족 안락 누릴  
 不足할 것 업시 安樂을 享할 거시니라

여리고城

文學文士

魚涂萬牧師

著述

본지 남전호 커져 작년 월 일 연합군  
 本指南前號에 記載호바와 又치 昨年十二月九日에 聯合軍이 耶魯살렘을 占領호일

이온世上과 關係가 되는 大問題인 줄은 一般이다 아는바라 其後 聯合軍이 더욱 勇戰함  
 세상 관계 금문에 일반 그 후 연합군 용전

으로 東北便으로 進軍하야 터키 軍士를 요단 江東便모압山地境까지 擊退시키니라  
 동북편 진군 군사 장동편 산디경 쳐퇴

吾儕가 歐洲(유로바) 大戰亂記事中에 法國과 德國軍士의 싸움하는 地境과 城이나  
 우리 구주 대전란 기사중 범국 덕국군사 더경 성

洞名이 聞치 못하던 것도 多하나 말네스디나 戰爭記事를 보거나 드를 時에 趣味가 있는  
 동남일홈 뜻지 만호 전정 기사 때 취미

과 그의使者들이龍과 그使者들노더브리戰爭을 거슬보니 天使들이相知하는證據가 되는니라 卷十二〇八대로 예수께서 하는님의使者前에서 吾儕를 아노라 하겠다 하섯 스니 天使도亦是 吾儕를 알거시오 又 吾儕가 死後에 天使와 又치 되겟다 고 하섯스니 然故로 吾儕가 死後에 相知할거시오 分明하니라

六、相知하는 방법

吾儕가 此世上에서는 彼此人 事함으로나 他人의 紹介를 因하여 相知하는 거시오 되

後世界에는 그리케 알지 안코 直接으로 아는 證據가 있는니라 삼上九〇十五十七을 보

면 삼우엘이 하는님의 指示함으로 사울을 遇할時에 直接으로 알았고 變化山에서 三

弟子가 모세와 엘나아를 前에 見치 못하였스나 他人의 紹介함 因시 直接으로 알았는

니라 마一〇二十을 보면 天使가 요셉을 直接으로 알았고 卷一〇卅一을 보면 天使가

마리아를 直接으로 안거시오 卷二十七〇卅三대로 天使가 바울을 直接으로 알았스니

諸天使가 하는님의 指示함을 받아서 吾儕를 아는 것 又치 吾儕도 後世界에 誰를 逢着

後世界에 聖徒의 相知함



神 學 指 南

아니라 記憶力으로 幾年前에 吾儕가 있던 것을 알고 吾儕의 品行과 習慣과 外位는 變함  
 지라도 吾儕 個人의 同一한 것은 何時던지 變치 않는 것이 아니라 然故로 一平生 個人의 同  
 一함이 變치 않는 것이 死後에 잊지 않아야 同一함이 變함 다고 할 것은 死後에 吾儕의 知  
 識도 發達되며 吾儕의 記憶力도 豐富할 터인 터 何如야 記憶力을 일어서 吾儕가 其前  
 에 如何한 사람이 될 것을 知치 못하겠는 否 決코 然치 아니하다 記憶力이 廣大히 發達할 터  
 分明하고 確實할 것이니라

五、死後에 天使와 又함 (막 十二 卅五)

天使들이 相知함 다는 證據는 聖經에 만히 記述되었는 터 단 十 十三(바사(벨시아)國王)

이 二十一日間 我를 마는 터 불지 어다 大軍中에 一미가 엘이 와서 我를 助給하기에 내가 거 留야 마사 國王들

과 互히 있다 「호 말음을 본즉 天使들이 彼此對敵하는 것도 있고 彼此도 화하는 것도 있다

며 互相幫助하는 것도 있다 그와 如한 事는 相知하는 者라야 하는 것이 오 유 다 書 九 대

로 미가 엘과 사단이 모세의 屍體를 爲야 是非할 것도 있다 默 十二 〇七, 八에 미가 엘

已得<sup>서</sup>은<sup>엇</sup>자<sup>자</sup>이니그런고로肉身<sup>육신</sup>을被<sup>남</sup>은<sup>은</sup>時<sup>때</sup>나肉身<sup>육신</sup>을脫<sup>바</sup>은<sup>는</sup>時<sup>때</sup>가榮華<sup>영화</sup>로온<sup>은</sup>몸을<sup>은</sup>엇은<sup>은</sup>時<sup>때</sup>나<sup>우</sup>吾<sup>우</sup>儕<sup>리</sup>가彼<sup>피</sup>此<sup>차</sup>로<sup>로</sup>알<sup>아</sup>아<sup>교</sup>통<sup>통</sup>할<sup>하</sup>거<sup>기</sup>시<sup>니</sup>라

四、人生의 性質

吾<sup>우리</sup>人<sup>사람</sup>의靈魂<sup>영혼</sup>이不滅<sup>불멸</sup>할<sup>것</sup>것<sup>은</sup>又<sup>또</sup>호<sup>호</sup>면<sup>면</sup>그의性質<sup>성질</sup>과同<sup>동일</sup>一<sup>일</sup>할<sup>것</sup>는<sup>은</sup>不滅<sup>불멸</sup>호<sup>고</sup>永<sup>영원</sup>遠<sup>원</sup>도<sup>도</sup>록<sup>로</sup>있<sup>는</sup>거<sup>기</sup>

시<sup>니</sup>然<sup>그런</sup>故<sup>고</sup>로生前<sup>성전</sup>에交際<sup>교제</sup>호<sup>던</sup>人<sup>사람</sup>을後世界<sup>후세계</sup>에서<sup>도</sup>分<sup>분</sup>明<sup>명</sup>히<sup>알</sup>줄<sup>밋</sup>노<sup>라</sup>삼<sup>우</sup>엘<sup>과</sup>모<sup>세</sup>와

엘<sup>니</sup>아<sup>와</sup>라<sup>사</sup>로<sup>와</sup>諸人<sup>모든사람</sup>이<sup>죽</sup>엇<sup>다</sup>가世<sup>세</sup>上<sup>상</sup>에<sup>다</sup>시<sup>도</sup>라<sup>온</sup>後<sup>후</sup>에<sup>前</sup>에<sup>있</sup>던<sup>동일</sup>同<sup>일</sup>一<sup>일</sup>할<sup>것</sup>과<sup>인</sup>格<sup>격</sup>

을<sup>失</sup>치<sup>아</sup>니<sup>하</sup>는<sup>것</sup>을<sup>보</sup>니<sup>其</sup>死<sup>죽은</sup>동<sup>안</sup>에<sup>도</sup>同<sup>동일</sup>一<sup>일</sup>할<sup>것</sup>과<sup>인</sup>格<sup>격</sup>을<sup>失</sup>치<sup>아</sup>니<sup>하</sup>는<sup>것</sup>을<sup>알</sup>거<sup>기</sup>시<sup>오</sup>마

二<sup>十七</sup>〇<sup>五</sup>二<sup>五</sup>三<sup>을</sup>보<sup>니</sup>예<sup>수</sup>씨<sup>서</sup>復活<sup>부활</sup>호<sup>신</sup>後<sup>후</sup>에<sup>墓</sup>에서<sup>자</sup>던<sup>者</sup>中<sup>자</sup>幾<sup>중</sup>人<sup>더</sup>은<sup>나</sup>出<sup>나</sup>호<sup>야</sup>

예<sup>루</sup>살<sup>렘</sup>城<sup>성</sup>에<sup>드</sup>러<sup>가</sup>衆人<sup>모든사람</sup>의<sup>게</sup>보<sup>이</sup>니<sup>聖</sup>人<sup>인</sup>을<sup>본</sup>사<sup>람</sup>은<sup>該</sup>聖<sup>성인</sup>人<sup>이</sup>誰<sup>누구</sup>인<sup>지</sup>分<sup>분</sup>明<sup>명</sup>히<sup>알</sup>았

다<sup>하</sup>는<sup>말</sup>은<sup>말</sup>은<sup>그</sup>중<sup>중</sup>에<sup>隱</sup>々<sup>은은</sup>하<sup>는</sup>뜻<sup>이</sup>있<sup>고</sup>또<sup>산</sup>사<sup>람</sup>이<sup>死</sup>엇<sup>다</sup>가復活<sup>부활</sup>호<sup>는</sup>人<sup>사람</sup>을<sup>알</sup>거<sup>기</sup>는

況<sup>정</sup>死<sup>죽은</sup>人<sup>사람</sup>들이<sup>彼</sup>此<sup>차</sup>로<sup>로</sup>알<sup>아</sup>고<sup>지</sup>낼<sup>것</sup>은<sup>분</sup>明<sup>명</sup>치<sup>아</sup>니<sup>하</sup>리<sup>오</sup>또<sup>하</sup>는<sup>人</sup>은<sup>精</sup>神<sup>신</sup>生<sup>생</sup>活<sup>활</sup>호<sup>는</sup>

性<sup>성</sup>質<sup>질</sup>이<sup>있</sup>는<sup>디</sup>精<sup>정</sup>神<sup>신</sup>生<sup>생</sup>活<sup>활</sup>호<sup>는</sup>性<sup>성</sup>質<sup>질</sup>中<sup>중</sup>에<sup>記</sup>憶<sup>억</sup>호<sup>는</sup>能<sup>능</sup>力<sup>력</sup>이<sup>있</sup>스<sup>니</sup>吾<sup>우</sup>儕<sup>리</sup>는<sup>現</sup>時<sup>시</sup>事<sup>사</sup>만<sup>만</sup>알<sup>려</sup>면

後世界에聖徒의相知宮

三、성경 기록 소전 聖經에 記錄한 事件

눅十六〇十九一卅一 귀술 부자 記述된 富者와 라사로 譬喩中에 富者는 죽어서 陰府에서 苦痛함

고라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懷中에 드러간 거신듯 부유중 부자 그후 其後에 아브라함과 라사로가相知

함 알 고아브라함과 富者가相知함 고 富者가 아브라함만 알뿐 아니라 또 세상 世上에 잇슬時

에 自己門前에서 乞求하던 乞人을 其時々지도안거시라 상 삼上二十八〇八一卅에 記述

한 事件을 본즉 사울이 블레셋人과 相戰時에 하는 님의 指示함심을 受코져하나 罪가 多

함을 因함야하는 님의 指示함심을 受치못함으로 鬼神사관女人을 차져서 그의 紹介로

以前에 죽은 先知者삼우엘을 보고안거시오 또 마十七〇三、四대로 前에 죽은 모세

와 엘니아가 예수와 又치登山함 三弟子의 게회였는듯 이 두 사람 별세 此二人은 別世함이

되었스나 弟子들이 其人이 誰인지 分明히안거시오 예수와 모세와 엘니아가相知함은

만 아니라 彼此言語도 통함였고 예수로 말함면 其時에 肉身을 被함거시오 모세는 肉

身을 脫함였스나 榮華로운 몸은 아직 被치못함時요 엘니아를 말함면 榮華로운 몸을 부

를 脫함였스나 榮華로운 몸은 아직 被치못함時요 엘니아를 말함면 榮華로운 몸을 부

共同生活을 할 터이니 萬一 共同生活을 할 것 又 하면 相知 할 거슨 分明 하니라

二、天堂을 預示 하는 聖經言

눅 廿二〇 卅上 半 「爾等으로 하여 吾我國에 在하여 我床에서 食하고 飲하며 또 寶座에 坐하여 이스라엘

열두 지파 다스리게 十二支派를 治케 하리라」 눅 十三〇 廿九 「人이 東西南北으로 브러와서 하는 國에 坐하리라」 하섯

스니 如是 好言을 보니 後世界에 도 宴樂이 잇슬 거신 디 大概 宴樂은 人々이 皆 喜樂으로

지내며 彼此 交際도 하야 親近하게 지내느니라 卅十三〇 廿八 「爾等이 아브라함과 이삭

과 야곱과 諸先知者가 하는 國에 잇고 오직 爾等은 外에 逐出한 거슬 時에 該處에서 哀哭하고 切齒하리라」

此言은 不信者의 게 하시는 言이니 不信者는 天堂에 잇는 聖人으로 더 브러 相從도 못하

고 逐出함을 當하나 天堂에 잇는 聖人을 알기는 알거시니라 若不信하고 逐出함을 當하

者가 天堂에 잇는 聖人을 알게 되면 同一 天堂에 잇는 聖人들이 彼此 間知치 못하겠는

도 彼等은 하는 님의 子女가 되어 無窮히 하는 님의 寶座前에 會集하야 一聲音으로 하는

님의 讚頌도 드리고 하는 님을 敬拜도 할 時에 相見하여 서 잇지 모르겠는 노

後世界에 聖徒의 相知함

儕가此世上에居處하는거시旅客으로暫間지내는것과又호니吾儕가暫時相知하

가互相離去하는거시오假令此世上에서有名호나人을逢見코져하였스나相距가過히

멀어서相見치못하고또임의別世하야天堂에간人이나親族을다逢見치못하면大端

히悲愴할거시니라然則逢見호所望이全無하나豈라其所望을生호기爲하야聖經에

敎호신거시잇는디此聖經에證據호거슬보고밋으니吾人生은後世界에서相逢함을

眞實노確信호노라其證據는如左함

一、하느님의性質

하느님은愛이시니(一ヨ四〇八)다말호분이시로되創世前부터三位로계셨스니

然故로三位間互相交際호샤共同生活을하신줄아는니如斯히吾信徒들은예수로由

함아本形像을回復함이되엿스즉愛로써互相交際호터인디萬一單獨生活을할것又

호면愛를施호수업슨즉不得不共同生活(社會的生活)을할수밖고업는거시오又信

徒들의性質이別世後에라도滅亡호事가업스니自然히後世界에서愛를施하야

거신터外界에서扶助하시는것만아니오  
 吾儕內에活動하는能力이되샤  
 吾儕의普衷을感動시키시고  
 惡한思想을驅滅하시는니  
 然故로主의弟子여  
 勝戰샤샤榮光에게신  
 救主의授與를貴히녀이며  
 그의交通심을깃브  
 己녀이며  
 聖神內에살며  
 行動하며  
 禱할지어다  
 吾儕가如是케하면  
 聖하고  
 福된者가되리라

後世界에聖徒의相知함

文學文士 片夏薛牧師 著述

吾儕가此肉身을脫却하고  
 榮華로운體를넘은後에  
 相知하겠느냐  
 是는問題에對하  
 야몇가지로對答하는  
 人이잇스니  
 或人은言하기를  
 吾儕가此世上을離別  
 後에肉身과靈魂이  
 다업서진다  
 故又或人은言하기를  
 靈魂은消滅아니  
 故지라도無意識으로  
 지낸다  
 故或人은曰  
 此世上을離後라도  
 意識이잇서  
 相知하겠다고  
 故는니라  
 故吾

後世界에聖徒의相知함

서듯지 못하며 彼等이 聖神을 받지 아니 할지라도 能히 此世界를 지낼수 있는 줄 알며 世

上의 智慧와 知識을 依하시며 彼等の 自由를 貢獻치 아니 하고 彼等の 智慧로 由하시야 眞理

의 路를 얻을 줄 望하시니 世上이 聖神을 受할수가 업는 거슨 그를 棄却하시며 그의 言과

行動을 서듯지 못하며 그를 아조하지 못함이라 世上이 예수를 棄却할 썬 아니라 聖神도

棄却하시니 此罪는 此唯智的 世界의 特罪니라

八、弟子들의게 接受되신 保惠師

「爾等이 그를 아나니라」 하시심은 聖神이셔 爾等을 對하시야 初面이 아니 오 爾等の 同行者

요 敎師요 幫助者요 親友요 保惠師니라 聖神업시 爾等이 行動할수 업고 그가 爾等것해

게시며 無時로 自己의 力을 주시며 諸般 神靈한 事에 幫助하시 고 亨通하게 하시니라

또 그 썬 만 아니라 爾等內에 도게시 고 爾等을 自己의 處所와 聖殿과 聖器具로 使用하

시느니라

聖神이셔 吾儕內에 居하시느 거시 吾儕와 同居하시느 것보다 더욱 重大하고 堅固한

호는 中에 라 도 聖神의 交通함을 忘失하지 못하리라

六、眞理의 神

眞理는 聖神內에 잇고 聖神이셔는 「我가 眞理라」 하신 主의 神이시며 信者의 心에 眞理를 주시며 眞理의 言(聖經)을 解釋하시며 彼等으로 하여 公저듯게 하시니라

假僞가 遍滿호는 世上과 虛誑호는 世界에 眞理의 神이 必要할 處는 盡言할 수 업는 나라 眞理는 聖神의 性稟에 和合하시되 假僞는 自己의 憎惡호는 바라 末時에 世人들이 眞理를 밋

지 안코 不義함을 好함으로 하는 人이셔 彼等의 罪發動호는 迷惑을 주사 僞者를 信케 하

실거슬(살후二〇十一、十二) 思호는 特別히 末時에 聖神의 充滿히 居호는 心이 僞者의 緊要하시니라 然故로 眞理의 神과 늘 交通호고 眞理의 言을 勤實히 研究할 지니라

七、世上의 罪棄却된 保惠師

世上은 毒蛇의 種子며 敬虔치 아니호는 種類이니 眞理의 神을 知치 못호며 其必要함도

恒居하시노는 保惠師



의업슬동안에特別히<sup>특별</sup> 吾儕와同居하시거시오主<sup>주</sup>께서再臨<sup>재림</sup>하시後에는聖神<sup>성신</sup>이 吾儕를

離<sup>리</sup>하시겟다고하시심이나니 오主<sup>주</sup>께서弟子<sup>제자</sup>들을離別<sup>리별</sup>하시後에彼等<sup>타희가</sup>이孤獨<sup>외로운</sup>者가되겟

는고로聖神<sup>성신</sup>의 空座<sup>빈자리</sup>에계셔哀孀<sup>애포카부</sup>된敎會<sup>교회</sup>를慰勞<sup>위로</sup>하시며牧者<sup>목자</sup>업는羊羣<sup>양떼</sup>을도라보

시며孤兒<sup>고아</sup>된個人<sup>개인</sup>을保護<sup>보호</sup>하시실事는예수의初次<sup>첫번</sup>降臨<sup>재림</sup>時와再臨<sup>재림</sup>하시실其間<sup>그동안</sup>에聖神<sup>성신</sup>의特別

職責<sup>직책</sup>이되느모양이라然故로保惠師시니라

主<sup>주</sup>의再臨<sup>재림</sup>時에는聖神<sup>성신</sup>의保惠師<sup>보혜사</sup>의職分<sup>직분</sup>을辭免<sup>사면</sup>하시실지라도恒常<sup>항상</sup>敎會<sup>교회</sup>에居<sup>거</sup>하시며

必要<sup>필요</sup>하시대로恩惠<sup>은혜</sup>를베프시리라예수께서再臨<sup>재림</sup>하시後에聖神<sup>성신</sup>의何等<sup>무슨</sup>特別<sup>특별</sup>한職分<sup>직분</sup>을

보실년지알수업스나然<sup>그러</sup>이나大關係<sup>큰관계</sup>는聖神<sup>성신</sup>의現時<sup>현재</sup>에吾儕<sup>우리</sup>를爲<sup>위</sup>하야保惠師<sup>보혜사</sup>의職分<sup>직분</sup>

을行<sup>행</sup>하시심이라聖神<sup>성신</sup>의永遠<sup>영원</sup>하신神<sup>신</sup>이故로敎會<sup>교회</sup>와又<sup>또</sup>치永遠<sup>영원</sup>도록居<sup>거</sup>하시며各聖徒<sup>각성도</sup>

內<sup>안</sup>에居<sup>거</sup>하시거시오又敎會<sup>교회</sup>가主<sup>주</sup>의再臨<sup>재림</sup>하시後에라도聖神<sup>성신</sup>의居<sup>거</sup>하시심업시지낼수업슬

줄아느니聖神<sup>성신</sup>의交通<sup>교통</sup>하시심은(고후十二〇十四原文<sup>원문</sup>의義)此世界<sup>이세계</sup>가盡<sup>다</sup>過<sup>지</sup>홀지라도變<sup>변</sup>

치아니할거시오又信者<sup>또 믿는자</sup>가累種<sup>여러가지</sup>變<sup>변</sup>하는事(生命<sup>생명</sup>이나死亡<sup>사망</sup>이나現時事<sup>이제일이</sup>나將來事<sup>장리일</sup>)를當<sup>당</sup>

하느<sup>자</sup>자의게더<sup>성신</sup>욱<sup>성신</sup>聖神을주시지안케<sup>아바지</sup>나<sup>처분</sup>」<sup>우리</sup>父의<sup>성신</sup>處分이<sup>우호</sup>게시니<sup>우호</sup>吾儕가<sup>우호</sup>聖神을<sup>우호</sup>받고<sup>우호</sup>上으로<sup>우호</sup>셔오

는<sup>성신</sup>聖神의<sup>세례</sup>洗禮를<sup>성신</sup>받으<sup>성신</sup>거시니<sup>성신</sup>然則其<sup>성신</sup>洗禮를<sup>성신</sup>受<sup>성신</sup>호<sup>성신</sup>는<sup>성신</sup>聖神이<sup>성신</sup>充滿<sup>성신</sup>하<sup>성신</sup>심<sup>성신</sup>으로<sup>성신</sup>聖神內

에<sup>성신</sup>살며<sup>성신</sup>行<sup>성신</sup>하<sup>성신</sup>며<sup>성신</sup>祈禱<sup>성신</sup>하<sup>성신</sup>며<sup>성신</sup>使役<sup>성신</sup>하<sup>성신</sup>리라<sup>성신</sup>吾儕가<sup>성신</sup>父<sup>성신</sup>씨<sup>성신</sup>서<sup>성신</sup>充滿<sup>성신</sup>케<sup>성신</sup>하<sup>성신</sup>신<sup>성신</sup>器<sup>성신</sup>면<sup>성신</sup>늘<sup>성신</sup>充滿<sup>성신</sup>하<sup>성신</sup>리라<sup>성신</sup>

四、<sup>아바지</sup>父<sup>구</sup>의<sup>구</sup>求<sup>구</sup>하<sup>구</sup>실<sup>구</sup>保<sup>구</sup>惠<sup>구</sup>師<sup>구</sup>

「<sup>내</sup>我<sup>아바지</sup>가<sup>아바지</sup>父<sup>구</sup>씨<sup>구</sup>求<sup>구</sup>하<sup>구</sup>실<sup>구</sup>保<sup>구</sup>惠<sup>구</sup>師<sup>구</sup>」<sup>아바지</sup>父<sup>아바지</sup>씨<sup>아바지</sup>서<sup>아바지</sup>……<sup>아바지</sup>주시<sup>아바지</sup>리라<sup>아바지</sup>」<sup>말합</sup>하<sup>말합</sup>신<sup>말합</sup>言<sup>말합</sup>은<sup>말합</sup>主<sup>말합</sup>씨<sup>말합</sup>서<sup>말합</sup>自<sup>말합</sup>己<sup>말합</sup>의<sup>말합</sup>祭<sup>말합</sup>司<sup>말합</sup>長<sup>말합</sup>職<sup>말합</sup>分<sup>말합</sup>을<sup>말합</sup>指<sup>말합</sup>

하<sup>치</sup>신<sup>치</sup>듯<sup>치</sup>하<sup>치</sup>니<sup>치</sup>吾<sup>우리</sup>儕<sup>우리</sup>의<sup>우리</sup>大<sup>대</sup>祭<sup>대</sup>司<sup>대</sup>長<sup>대</sup>이<sup>대</sup>하<sup>대</sup>는<sup>대</sup>自<sup>대</sup>前<sup>대</sup>에<sup>대</sup>吾<sup>우리</sup>儕<sup>우리</sup>를<sup>우리</sup>代<sup>대</sup>表<sup>대</sup>하<sup>대</sup>샤<sup>대</sup>吾<sup>우리</sup>儕<sup>우리</sup>의<sup>우리</sup>게<sup>우리</sup>其<sup>그</sup>他<sup>다른</sup>保<sup>보</sup>惠<sup>혜</sup>師<sup>사</sup>주

시<sup>치</sup>기<sup>치</sup>를<sup>치</sup>初<sup>처</sup>次<sup>번</sup>求<sup>구</sup>하<sup>구</sup>신<sup>구</sup>時<sup>구</sup>是<sup>구</sup>升<sup>승</sup>天<sup>천</sup>하<sup>천</sup>샤<sup>천</sup>榮<sup>영</sup>光<sup>광</sup>을<sup>영</sup>還<sup>도</sup>受<sup>로</sup>하<sup>로</sup>신<sup>후</sup>後<sup>후</sup>十<sup>후</sup>日<sup>일</sup>만<sup>후</sup>에<sup>후</sup>되<sup>후</sup>였<sup>후</sup>는<sup>후</sup>디<sup>후</sup>其<sup>그</sup>時<sup>때</sup>브<sup>그</sup>터<sup>때</sup>個<sup>개</sup>

人<sup>인</sup>을<sup>위</sup>爲<sup>위</sup>하<sup>구</sup>야<sup>구</sup>늘<sup>구</sup>求<sup>구</sup>하<sup>구</sup>시<sup>구</sup>는<sup>구</sup>니<sup>구</sup>聖<sup>성</sup>子<sup>자</sup>가<sup>성</sup>恒<sup>항</sup>常<sup>상</sup>求<sup>구</sup>하<sup>구</sup>시<sup>구</sup>대<sup>성</sup>聖<sup>성</sup>父<sup>부</sup>가<sup>성</sup>恒<sup>항</sup>常<sup>상</sup>주<sup>항</sup>시<sup>항</sup>는<sup>항</sup>니<sup>항</sup>라

五、<sup>우리</sup>吾<sup>성</sup>儕<sup>영</sup>의<sup>영</sup>永<sup>기</sup>遠<sup>보</sup>도<sup>혜</sup>록<sup>사</sup>居<sup>사</sup>하<sup>사</sup>실<sup>사</sup>保<sup>사</sup>惠<sup>사</sup>師<sup>사</sup>

此<sup>이</sup>「<sup>영원</sup>永<sup>영원</sup>遠<sup>영원</sup>도<sup>영원</sup>록<sup>영원</sup>」<sup>말</sup>이<sup>말</sup>란<sup>말</sup>言<sup>말</sup>은<sup>말</sup>原<sup>원</sup>文<sup>문</sup>에<sup>말</sup>「<sup>세계</sup>世<sup>세계</sup>界<sup>세계</sup>如<sup>세계</sup>지<sup>세계</sup>」<sup>말</sup>라<sup>말</sup>하<sup>말</sup>신<sup>말</sup>거<sup>말</sup>시<sup>말</sup>니<sup>말</sup>其<sup>그</sup>世<sup>세계</sup>界<sup>세계</sup>는<sup>세계</sup>何<sup>어</sup>時<sup>는</sup>시<sup>어</sup>지<sup>는</sup>될<sup>어</sup>년<sup>는</sup>지<sup>어</sup>窮<sup>은</sup>

究<sup>구</sup>하<sup>구</sup>여<sup>구</sup>本<sup>우</sup>주<sup>리</sup>吾<sup>우</sup>主<sup>리</sup>씨<sup>주</sup>서<sup>주</sup>再<sup>재</sup>臨<sup>림</sup>하<sup>재</sup>실<sup>재</sup>時<sup>재</sup>에<sup>재</sup>此<sup>이</sup>世<sup>세계</sup>界<sup>세계</sup>가<sup>세계</sup>滿<sup>만</sup>期<sup>만</sup>될<sup>만</sup>줄<sup>만</sup>아<sup>만</sup>는<sup>만</sup>니<sup>만</sup>라<sup>만</sup>然<sup>그</sup>則<sup>런</sup>聖<sup>성</sup>神<sup>신</sup>씨<sup>성</sup>서<sup>성</sup>吾<sup>우</sup>主<sup>리</sup>

恒居하시느保惠師

하야 我의 使役을 볼거시오 또 爾等を 愛하시며 勸勉하시며 感化시키사 力을 주실者리

라고 주께서 弟子들의게 말씀하시니 모양이오

(二) 我와 又흔 保惠師 他保惠師로 되 異호 保惠師 아니오 我와 又흔 心志로 爾等を 愛

하시며 引導하시며 幫助하시리니 爾等이 此保惠師를 受호면 卽我를 받는 것과 又다고

하신 모양이니라

三、父의 授與

弟子들이 聖神을 받기 前에는 父의 許諾이라 稱호였스나 그를 받은 後에는 父의 授與

라 하시니 예수께서 사마리아 女人의 게 말씀하시니 中에 云하시디 「하느님께서 주신 것..... 知

호였더면」 하섯스니 此는 卽聖神을 指호신거시라 예수께서 遣호신者되심과

又 聖神도 父께서 遣호신者시니 吾儕가 예수를 受호면 聖神도 受호수잇슨즉 二倍

로 받는 거시라 예수와 聖神은 「盡言호수업는 父의 恩賜」 이시니 吾儕가 價업시, 그저, 恩

惠로 受호수가잇는니라 「爾等이 惡호지라도 善호거스르니 子息의 게 줄 것을 알거든 况 爾等의 天父가 求

보다 엇지 만홀지測量할수업스리라 吾儕의 怨望하는 것과 이쓰는 것과 落心하는 것과 失望하는 것과 權能의 不足은 其原因이 何에 在否 此는 吾儕의 傍에 계시 吾儕를 幫助하시기를 願하시는 聖神을 吾儕가 자 依하지 아니하는 緣故니라

二、他保惠師

此言대로 예수 씨셔는 我等의 元保惠師인디 自己가 弟子들을 離別後에 此幫助者를 遣하갓다 하심이오 他教師를 遣하갓다고 하신 거시 아니 萬一 他教師라 하섯더면 異敎理로 敎訓하는 敎師인 가 하는 念慮가 업지 아니 하갓지 마는 此保惠師는 와셔 異敎理로 敎訓하실 意向이 업고 다 만 예수 의 敎理를 依하야 弟子들의 게 分明히 示하시고 그들 노하여 公더욱 分明히 示갓게 하시라는 主意뿐이니라 然則 예수를 隱蔽할 者가 아 니오 예수를 顯하실 者요 吾儕로 하여 公主 예수를 忘却지 안케 하실 뿐아니라 더욱 예수 를 記憶하게 하시리라

(一) 我的代에 他保惠師 我가 갈터인 故로 그가 올거시오 卽我的座에 잇셔 爾等을 對

하시기를約束하셨는데此師傳는弟子들을肉身形便에對하시야幫助하실거시아니오

但神靈形便에對하시야彼等이늘強健하도록幫助하시고恩惠에立하시느者마다늘其

恩惠에立하시기爲하시야用力하시느聖神은保惠師라고宜當히稱할거시니라

聖神의셔以上에譬喩로解說호幾種事爲를吾儕를爲하시야行하시려하시니恒常吾

儕의傍에계서서幫助하시기를望할수잇는니라

然故로吾儕가何時던지必要호대로吾儕에계시는師傳를依하시야그의力을使用호

수잇는디엇지하시야吾儕가자조그거슬忘却호고聖神을依하시야아니하며그의幫助호

심을望하시야아니하며그의力을使用치아니하며그를愛하시도아니하며그와交通치

도아니하시느요吾儕가聖神의力을使用치아니함으로吾儕의損害가엇지만호며吾儕

의有益이엇지적은지測量할수잇겠는요每日幾次式吾儕가吾儕의傍에계신保惠師

의力을使用치아니함으로그를憂케하시니라吾儕가必要할時마다此保惠師를依호

야其力을더욱使用호면吾儕의平安함과光彩와愛와聖함과力과權勢와慰勞함이前

神 學 指 南

스니 「代대言언者자」라 翻번譯역하기는 宜의當당치 아니하니라 假가令령吾우人리이 政정府부前전에 要요緊요하 請청願원書서

를 獻도하려 하면 辯변護호士스를 식혀 合합當당法법으로 記기錄록하 告고하거시오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其그路길를 아지 못하면 我내가 其그路길를 아는 者자를 引인도하 告고하거시오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一일中중路로에서 我내가 不부困곤하면 그 我나를 獎장勵려하 告고하 我내가 危위殆태중 中중에 在재서 畏두려워하 則즉 그

我나를 勸권勉면하야 畏두려워하 則즉 我내가 暗어두운夜밤에 其그路길에서 失실足족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그 我나로 하야 恐협險험하 則즉 我내가 失실足족하 則즉 我내가 危위殆태중 中중에 在재서 畏두려워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를 吾우리儕연호스가 辯변護호士스라 稱칭하 則즉 我내가 不부困곤하면 그 我나를 感감化화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에 是나가 我나를 感감化화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或혹 引인도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足족하면 我내가 幫방助조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我나의 力힘이 不부困곤하면 我내가 幫방助조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者자나 助조師소라 稱칭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者자나 助조師소라 稱칭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此이幾몇種가지譬비유喻유로 說설明명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弟제子자들이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常상彼미等회의 傍곁에 在재서 諸모든時대諸모든事일에 彼미等회을 幫방助조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師스승傳이가 必필要요하 則즉 我내가 何어處어로 가던지

恒居하시느는 保惠師

지아니하시실거시무어시요授與가多하시니라

주시려하시느거시多하시나여귀는一種授與만言하시니다른거시아니오곳聖神이

시라

此聖神을自己의音聲듯는者를爲하시야父求하시리니其內에는永生과平安함과

慰勞함에對하시야必要하시다잇스나然함으로吾儕의게不足하시나도업스리

라其授與가何인지議論하시옵세다

一、保惠師

이러케翻譯된語는 헬나方言의元義대로「것으로부터는者라」바라글네도 (Paraklete,

Parakletos) 라하시特別히裁判所에紹介하시며引導하시며幫助하시는者를使用코저하면辯

護士를것으로부터는일이잇느니헬나人이此를稱하시야바라글네도라하시니라一요

二〇一에예수를指稱하시는又은文字가잇스니「代言者」라正確케翻譯된거슨罪를因

하시야判事前에그런辯護士가크게所用됨이라然이나여귀는贖罪하는事를말할것업

늘 거  
恒居하시느保惠師 보혜수

爾等이我를愛호면我의誠命을守호리라我가父되求호겟스니父되서또他保惠師를爾等의게遣호야永  
遠로동同在케호시리니此는眞理의神이라世上이能호受치 못호는거슨뵈치도못호고知치도못호이나  
爾等이아는거슨爾等과同在호시고또爾等의衷에在호실緣故라 (요十四〇十五—十七)

우리주  
吾主예수되서我等을爲호야生命을棄호섯스니我等의게사랑밖으시기를願호시

며브르시고又宜當히受호실만호는거슨임의吾儕를爲호야滿足호호救援을施호심이라

그런주주  
然則主되서吾儕를向호샤「我를愛호는나」고宜當히問호실權勢가잇는니라

주  
主되서吾儕가其誠命守호시기를要求호시니吾儕는宜當히其敎訓을듯고其付托대

행  
로行호거시라如斯히호은誠命을守호는거시오又此는愛의必然히生호는結果이니

그런고  
然故로愛호는거슨聞호라愛호는거슨順服호라愛호는거슨隨호라愛호는거슨我의言을守호

라하시느듯함이라

주  
主를如斯히愛호야聽호는者의게는主되서重大호호주시기를許諾호시느니라주시



神 學 指 南

目 次

講道	예수內에入居함 :	:	:	:	:	:	吳得仁牧師	:	:	一〇六
講道	예수를對敵함과 예수를待接함 :	:	:	:	:	:	郭安連牧師	:	:	一〇九
講道圖型	:	:	:	:	:	:	宋賢根牧師	:	:	一一八
							그레인牧師			
							神學博士			
							安義窩牧師			
							裴禮仕牧師			
							鞠裕致牧師			
							閔老雅牧師			
講道에可用한比辭	:	:	:	:	:	: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翻譯	一三〇
牧師體鏡	:	:	:	:	:	:	蘇、郭、富、師牧	:	:	一三八
卒業生任命과移動	:	:	:	:	:	:				一四〇
總會概況	:	:	:	:	:	:				一四三
可用的題目과本文	:	:	:	:	:	:				一四七

# 神學指南第一卷第三號

## 目次

恒居하시는保惠師	編輯人	三
後世界聖徒相知함	片夏薛牧師	一三
여리고城	魚涂萬牧師	二〇
아이들난드教會와聖바드릭	富斗一牧師	三〇
요한, 엘니옷	裴緯良牧師	四二
古代神話	蔡弼近牧師	四九
默示錄大概	丁義華牧師	五七
아르데나民族	馬路德牧師	七二
講道學	버얼牧師著述	
聖經朗讀	郭安蓮牧師翻譯	七四
哲學博士	독깁牧師	九四

目次

## CONTENTS.

Jerusalem	Rev. W. C. Erdman.
The teaching of Christ regarding the Trinity	Rev. S. L. Roberts.
O. T. Types of our Lord	The late Rev. George Soltan, transl. by Rev. T. S. Soltan.
Ancient Mythology	Mr. Ch'ay Pilkeun.
William Carey	Rev. W. M. Baird, D. D., Ph. D.
Missionary Items	Rev. S. A. Moffett, D. D.
Book Review	
The Use of Illustrations	Rev. F. J. L. Macrae.
Interesting Preaching	Rev. W. R. Foote.
A Testamentary Exhortation to Belief	Rev. Kim Pilsoo.
Sermons, Life a race,	Rev. H. A. Rhodes.
The Friends of Jesus	Rev. C. A. Clark, D. D.
Two Lectures on Homiletics	Prof. J. Burrell, D. D., Princeton.
Illustrations	The late Rev. A. T. Pierson, D. D.
The Pastor's Mirror	Rev. H. A. Rhodes and others.
Sermon Outlines	Rev. Yi Yongnin, Rev. Song Hyunkuun. Rev. J. C. Crane, Rev. J. E. Adams, D. D. Rev. E. J. O. Fraser, Rev. W. T. Cook. Selected.

---

 SUBSCRIPTIONS.

Subscription rates payable in advance	Annual 50 sen Postpaid
	Single copy 15 sen „
In Europe and America	Annual 75 sen „

---

Send all subscriptions to the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Seoul; all manuscripts to Rev. G. Engel Fusanchin; and all advertising copy and other business communications to Chas. Allen Clark, Seoul, Korea.

---

When writing our advertisers, please mention the Review.

# The Christian Workers Magazine

Monthly

Rev. James M. Gray, D. D., Editor.

\$1.50 a year to any address in the world. 80 pages and cover.

*A choice Christian magazine published by The Moody Bible Institute of Chicago.*

Strictly independent. Treats editorially world topics in the light of prophecy. Selected contributions from well-known preachers and teachers. Many Bible study features and helps on the Sunday-school lessons and Christian Endeavor topics.

Ask for sample free, Or a trial subscription of four months, with pamphlets on

“The Battle of Armageddon” and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War” by

Dr. James M. Gray, for 50 cents. Address

The Christian Workers Magazine

163 Institute Place,

Chicago, Ill.

*Mention “The Theological Review” when writing.*

---

이 잡지는 무의 선성의 세우신 성서  
학원에 서 발간하는 거신 디미우키  
훈거시라 영어를 아시는 이가 보시  
면 큰 유익을 보겠슴 너다 성경히서  
과 강도감이 만히 잇는 나라

# YOU CAN DO What Others Have Done.

## BECOME A MINING EXPERT:

In your own home, in your spare time you can receive thorough, practical training in any branch of mining. S.K. Huang, formerly Chief Engineer of the Pinghsiang Collieries and now supervising the installation of modern blast furnaces for the Tayeh Iron & Steel Co., has written us "I was much surprised to find the instruction of your Mining Course so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In eight months I finished three quarters of the course as easily as though your instructors had been at my side."

## STUDY AGRICULTURE.

The I.C.S. offer ten thorough Courses in FRUIT FARMING, FARM CROPS, LIVESTOCK, and POULTRY FARMING. "I am so glad that the China Agency, I.C.S. helped me secure a position with the Anhwei Government Stock Ranch where I am now doing successful work in Farming and Stock Raising." I.F. Tsang

## BECOME AN AUTOMOBILE

**EXPERT:** "In my opinion the I.C.S. method is so perfect that anyone who knows simple English may master any of their Courses that he may choose." Y. K. Peng.

## THE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SCHOOLS offer

282 Courses of Thorough, Practical  
Salary-Raising Training

A partial list is given herewith. If you do not find the Course you want, write and tell us what position you want,

**MARK AND MAIL  
THIS COUPON**



Tear Out This Coupon

### CHINA AGENCY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Schools  
of Scranton  
Office No. 37-11c Nanking Rd.  
Shanghai, China

Please explain, without further obligation on my part, how I can qualify for a larger salary in the position, trade, or profession, or gain a knowledge of the subject, before which I have marked x.

Salesmanship	Electrical Engineer
Advertising Man	Electric Lighting
Show Card Writing	Electric Railways
Window Trimming	Electric Wireman
Bookkeeper	Electric Machine
Stenographer	Designer
Commercial Law	Telegraph Construction
Good English	Telephone Expert
English Branches	Agriculture
High-School	Livestock and Dairying
Mathematics	Poultry Farming
Teacher	Architecture
Commercial Illustrating	Contracting and Building
Carpet Designing	Concrete Construction
Wallpaper Designing	Architectural Draftsman
Linoleum Designing	Fruit Farming
Bookcover Designing	Structural Engineer
Ornamental Designing	Bridge Engineer
Ship Drafting	Structural Draftsman
Lettering and Sign	Plumbing & Steam
Painting	Fitting
Stationary Engineer	Heating and Ventilation
Marine Engineer	Plumbing Inspector
Gas Engineer	Foreman Plumber
Automobile Running	Sheet-Metal Worker
Refrigeration Engineer	Civil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Surveying and Mapping
Mechanical Draftsman	R. R. Constructing
Machine Designer	Municipal Engineer
Boiler Designer	Mining Engineer
Patternmaking	Coal Mining
Toolmaking	Metal Mining
Foundry Work	Metallurgist
Blacksmithing	Assayer
Navigation	Chemist
Cotton Manufacturing	French
Woolen Manufacturing	German
Textile Designing	Spanish
	Italian

} With I.C.S.  
} Phonograph  
} Method.

Name \_\_\_\_\_

Address \_\_\_\_\_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RELIABILITY OF THE I.C.S. WRITE  
TO THE PUBLISHERS OF THIS MAGAZINE.

(4) 하느님께서 브리신줄아신고로

(엘니) 라마사박다니라함심

(七) 십자가에서 죽는길노감

四、羊이 吾罪를 負往할 結局

(一) 赦罪得救함

(二) 하느님의子女됨

(三) 永生을 얻음

(1) 弟子들은 皆散하고

(2) 베드로는 不認함

(3) 左便盜賊도 又치아니감 (同情함)

만할자가

講道圖型

結末 吾儕의 當行할일

(一) 再次犯罪할것

(二) 熱心傳道할것

(三) 兄弟를 사랑할것

(四) 恒常感謝할것 (誰가 짐을 지울지)

라도感謝할것 (미완)

(二) 하느님의獨生子요 독생자

(三) 세상을審判할일이오 심판

二、世上罪의形便이엇더함을지고가심 세상죄 형편

(一) 第一 陋醜한罪 대일쿠쥬 보

(1) 사마리아女人 내인

(2) 罪단혼女人 내인 녹七〇

(證據) 罪人이라도彼等의罪를더럽게 증거 죄인 더러운 죄

낙인

(二) 第一 重한罪 대일중 죄

(1) 各人의罪負 각사람 죄진

(2) 憂患과念慮 근심 걱정

(證據) 穢世마네서血汗을흘니심 증거 피땀

三、此負를지고何如路로가느뇨 이 짐을 짓고 어떤 길

(一) 困苦路 곤고한길

(1) 木手 목수

(2) 傳道하시기에밥잡수실겨를업슴 전도

(二) 逼迫路 (到處마다當하심 핍박길 곳곳 당

(三) 哀痛路 이통노는길

(1) 나사로죽엇을때

(2) 예루살렘에가실때에 동육길

(四) 凌辱路 (유대官員의게잡혀가서) 등육길 관원

(五) 悲慘路 十字架에달렸을때에母親 비참한길 십자가 모친

마리아가在傍하야지날때 곁에서

(六) 孤獨路 외로운길

(解) 萬一禮拜主掌하는이가 그말아니 할것又호면講道하는이가 言할서들이 업고 또

講道人은하는님의言을하는고로其居住姓名을말할必要가업는니라

十、講道할時에聖經言을一、二句節만朗讀하지말거시오

(解) 講道하는者の言보다하는님의言辭가더要緊한고로時間이不足할지라도聖經

을治足치朗讀할거시니라

講道圖型 (강도도형)

하나님의羔羊

李用麟牧師

본문

요 一〇十九

牧師의體鏡

제목 世上罪를 지고가는하나님의羔羊

一、하나님의羊의本地位

(一)世上을造成하신이오



할수잇는대로 잘 할거시오

六、장도 시작 때 시계 講道始作할 때에 時計를 보고 半時를 過케 할지 말거시오

(解) 회 목수 백명 중 후호 사름 牧師百名中에 或一人이나 半時 지나 卽히 유익으로 有益케 할수 잇슬 듯 하나 普通으로

말하면 半時 過호게 講道하는 거슨 有益이 업는 니 萬一 一時間 說明 할 것 有호면 預

先準備호야 半時間만 할면 도 할 것시오

七、회 및 자 사름 信치 안는 人이나 或 信仰을 背反호는 者가 患難中에 잇는 거슬 보고 罪價로 當호는 다고

호지 말거시오

(解) 회 보통 말 신도 불신자 환난 普通으로 말호면 信徒보다 不信者가 患難 當호는 거시 만호나 個人을 指호야 罪孽문

이라 호지 말거시오

八、회 신자 중 병든 자 信者中에 罹病者를 보고 하는 尼叱懲戒를 受호는 다 호지 말거시오

(解) 회 교인 敎人들이 그와 又 叱懲戒를 受호는 수 잇스나 病人마다 皆然호는 것이 아니니라

九、회 교인 앞 敎人前에서 講道할 때에 居住와 姓名을 言호지 말거시오

(解) 히사라와리브가와라헬의게된것又現時代에도하는님의權能으로生產할수있

스나或何病으로困하여예수밋기前에孕胎치못하였스면밋은後에라도그러케

될듯하고또生產하기爲하여밋었다가萬一願대로되지아니하면落心하기쉬움

三、예수를밋으면病癒하겠다하지마시오

(解) 히主를밋는中에하는님의權能으로病나흠을受할수잇스나或如何케될년지알수

업슴

四、吸煙하면예수를볼수업다고하지마시오

(解) 히吸煙하는거슨凡事에有益이업고또먹는人十名中에幾皆身體에害를受할수잇

스나然이나吸煙한다고예수를볼수업다고하지말거시오

五、講道始作할때에自己가아는것업고또預備할못하였다고하지말거시오

(解) 히萬一預備치못하였다고하면敎인들이聽心이無할거시오또講道하는人은聖

神되서引導하는대로할터인즉그와如한廣告하지말고但하는님을依하여言

卅二、빚술지 負債하지 말거시오

卅三、빈궁 貧窮한者 자구제 救濟하기를 니저바리 忘却지 말거시오 자귀천 自己가 교우 親히하기 권 도하고 교우 敎友들을 권 勸하

구제 야 구제 救濟하게 할거시오

卅四、본교회일이 本敎會事가 자량 잘된다고 자량 自誇하지 말거시오 결과 잘된 과 結果는 과 皆하는 과 님씩서 과 주신거시

영광 니 영광 榮光은 하는 영광 님씩 만들닐거시니라

(二)

文學文士

盧解理牧師

著述

一、교인 敎인들이 각각개인 各々個人으로 수괴도 私祈禱하지 아니하면 질병 疾病과 환난 患難이 환난 만갓다 할지 말거시오

오

(解)교인 敎인들이 각각개인 各々自宅에서 수괴도 私祈禱하는거시오 양호 良好할거시오 양호 지만은 양호 그러케 아니 할라고

환난 患難 환난 밧갓다 할수 업슴

二、부부간 夫婦間에 부부간 여러 부부간 히 동안 자녀 子女를 낳 生産치 못하 사공 人이 사공 예수를 사공 밧음으로 생산 生産갓다 할지

말거시오

神 學 指 南

二十二、如何所聞을 들던지 또는 소문 所聞이 아니면 他人의 傳言을 지말거시오

二十三、前으로 何事를 하기로 經營하거든 自己의 心內에 乃 終까지 其事를 研究하도

로 他人의 告廣을 지말거시오

二十四、諸般 質問하는 言을 皆 答할 能力이 있는 데 하지말거시오

二十五、自己의 講道를 言대로 實行하기를 忘却지말거시오

二十六、他處에서 講道하여 달나 고하는 諸 講願을 受치말거시오

牧師의 特先務는 自己의 本敎會니라

二十七、神學指南과 基督申報購覽하기를 忘却지말거시오

二十八、學習人 敎育식하기를 忘却지말거시오

二十九、祈禱할 때 特別한 人의 姓名을 불러서 禱告하기를 忘却지말거시오

三十、本敎會中에 事役者 養成하기를 忘却지말거시오

卅一、財政에 對하여 恒常 注意할 거시오

牧師의 體鏡

十三、本敎會敎友들尋訪하기를忘却지말거시오

十四、自己의 맞은 區域에 있는 不信者들을尋訪하는 事는 牧師의 義務인 줄 忘却지말

거시오

十五、本敎會敎友들의 可爲事를委任하기를忘却지말거시오

十六、女敎友를尋訪할 時에 獨行하지말고自己 妻나 敎人中 女老人이나 長老를帶同

고갈거시오

十七、罪人의 悔改하고 勸勉할거슬 妄却지말거시오

十八、本敎會職員들의 特別히 할 事를 多數委任할거시오

十九、間或日捐補를 作定하기를忘却지말거시오

二十、敎友들이 日捐補를 作定後에 各人이 誓約대로 踐行하도록 管理하기를忘

却지말거시오

南 指 學 神

動식히기爲호야할거시오

五、萬一其譬喩가講道호는理致를더明白호게發明할만호거시아니거든使用치말

거시오

六、聽者를笑케호나고만用力지말거시오自然히不知中에笑호면關係치안으나強

仍히笑케호려고호지말거시오

七、大聲을呼호거나足으로力踏호는거시趣味업는거시라

八、講道할時에길고여러句節잇는本文을免호지말거시오

九、頻々히여괴더괴서得호各々된題目만使用호지말고互相聯絡되고互相補助호

는題目을次第로使用호거시오

十、講道人이每日敬虔호心으로本靈魂을牧養호는聖經工夫를忘却지말거시오

十一、自己의個人的私祈禱를忘却지말거시오

十二、講道를잘호지라도牧師가또호教師된責任을忘却지말거시오

牧師의體鏡

# 牧師의 體鏡

(목사의 體鏡)

神學博士

郭安連 牧師

著述

(一)

## 神 學 指 南

前號에 掲載호 바와 又치 牧師의 體鏡이란 거슨 牧師들의 恠이 호는 失手를 論告함이 이라  
 第一號에 掲載호 바 幾條는 但一個人의 収集호 거신 고로 種類대로 分揀호 옧거니와 이  
 後로는 여러 宣敎師의 接受호는 대로 記載호려호되다 然則間或同一호言辭가 有호  
 듯호의 다 其理由는 두어 宣敎師들이 同一호 失手를 보고 改良호자함이 오니 一々히 閱  
 覽호시고 商量호서서 適合호 批評이 면 改良호여 복세다

一、如何호會를 開催호던지 晩到치 말고 開會時에 時間을 擘직 할 거시오

二、講道를 너 무 長皇케 말 거시오

三、講道時에 다 創世記의 言브터 始作호지 말 거시오

四、譬喻를 使用호時에 듯기 도케 호나 고 판호지 말고 本講道의 理致를 잘 解釋호고 感





一、患難裏에 도福이貯藏함

德國有有名畫工이異常호畫本一件을그렸는디其名은雲들이라함인디其畫를遠

觀하면愚호고意味가엄셔보잘것업는貌樣과如호나近觀하면數百天使의華麗호

容貌를畫호거시니觀覽호가另嘉호고無限호意趣가잇셔觀覽호滋味가多有호

다더라

吾儕가或時患難을當호제每如호形便이되는니遠見호즉畏懼호거스로現호나

近히當호後에는天父의送호신바福이되엿는니라

一、人命의價値라

何許吝嗇호富者가津을渡호다가江水에沉沒호여서死境이되엿는디何許善泳

少年의拯出함으로살게되엿더라該富者가錢橐을傾호여纔二十錢金으로該少

年의卹納호여救活호여준恩惠의報酬가되개호나當時에傍觀호는者들이皆吝嗇

年의卹納호여救活호여준恩惠의報酬가되개호나當時에傍觀호는者들이皆吝嗇

담부 바다 밑에 헤엄쳐 드려가 샘근원  
를擔負하고海底에潛入하여서泉源이 있는디서帶에其淸冽한泉水를汲來한다더

그  
又  
치  
라其와如히하는님의恩惠를受할수가업는듯한處에서도特別히異常한貌樣으로

은혜 만히받을  
恩惠를多受할수가잇는니라

업어린 줄 푸러버리 위티

一、榮紆한繩索을解除하는거시危殆함

스코틀랜드地方海岸一處에一大村이잇스니數百年前에는人戶도稠密하고王宮

도잇는處이더라居生愚氓들이火木으로쓰는私益을爲하야該沙岸을維持한樹木

을盡伐하고木根까지拔去한故로沙岸이風勢를因하야四方으로飛揚散布하고甚

至於家屋과村巷까지埋沒되어人民이居生할수업는廢地가되어居民이皆渙散하

였다더라

蓋道德과實力의關係되는法이此와如하니特別히靑年된者들이自己를維持하여

가는道德의法을棄却하기를嗜好하느니甚히危殆한거시라

講道에引用한말을譬喻

야問호기를姓啣이誰氏호하거늘答曰余는멘덜손이로라하니老人이驚歎曰  
 余가平生에當身の彈琴호는것一聽호기를至願호였더니今日萬一許諾지아니호  
 었더면何爲호였스리오호였다더라是와如히吾儕가獻身함으로하느님을奉事호  
 는機會를得호리라

一、하느님의淨潔호심

어나녀인衣服을潔白호게漂濯호야漂繩에布置호였더니其日夜에雪下호야其  
 翌旦에漂衣를본즉昨日甚히潔白호던거시雪色에比較호매不潔호여진지라女人  
 이慨歎호다가言호기를誰가하느님의淨潔호심을勝호수잇스리오호였다더라

一、深低호되셔得호는泉源이라

별시아海邊에在호바렌이란城은世界에第一炎熱호地方인디該地에는井水와泉  
 源이나溝川이無호處인디異常호거슨海底에淺處泉源이잇스니其居人들이革帶

심  
 源  
 深  
 低  
 得  
 泉  
 源  
 在  
 海  
 邊  
 該  
 地  
 有  
 井  
 水  
 及  
 泉  
 源  
 其  
 地  
 居  
 人  
 皆  
 用  
 革  
 帶

一、默想함의 必要라

어나 목사 강도 예비 위 자괴 공부방 문 고요  
 何許牧師가 講道를 預備하기 爲하야 自己工夫房에 드러가 門을 닫고 靜寂히 잇는  
 었더니 少頃에 自己의 五歲된 女兒가 入함으로 奔走케 되어 歡迎치 아니하고 冷待  
 는 意로 問하기를 何事로 왔느냐 할 즉 該兒가 答하기를 何事를 因하야 온 것도 아니오  
 다만 아버지 계신 디 又 처 잇  
 但 父親居所에 와셔 同在하기를 願하노 것 씬 이 외 다 하엿스니 信者가 如是히 天父와  
 同在하기를 願하던 頻頻히 閒寂한 處에 가서 默想하는 거시 必要함  
 同 在 하 기 를 願 하 던 頻 頻 히 閒 寂 한 處 에 가 셔 默 想 하 는 거 시 必 要 함

一、하는 님의 獻身함

풍금 세계 제일 유명 사롱  
 風琴이기로 世界에 第一有名하던 멘델손이 人이 프라이북이라 하는 城近處를 過  
 나다가 其城內 禮拜堂에 價가 高貴한 新造 風琴이 잇는 줄 알고 該風琴을 主 管 하는 老  
 人의 게 가서 一彈하기를 許諾하라 하니 該老人이 先은 趨趨하다가 暫間 許諾하노 지  
 라 멘델손이 該風琴으로 天使들의 讚美와 又은 聲音을 發하야 들으니 老人이 驚喜하  
 風 琴 이 기 로 世 界 에 第 一 有 名 하 던 멘 델 손 이 人 이 프 라이 북 이 라 하 는 城 近 處 를 過  
 나 다 가 其 城 內 禮 拜 堂 에 價 가 高 貴 한 新 造 風 琴 이 잇 는 줄 알 고 該 風 琴 을 主 管 하 는 老  
 인 의 게 가 셔 一 彈 하 기 를 許 諾 하 라 하 니 該 老 人 이 先 은 趨 趨 하 다 가 暫 間 許 諾 하 노 지  
 라 멘 델 손 이 該 風 琴 으 로 天 使 들 의 讚 美 와 又 은 聲 音 을 發 하 야 들 니 老 人 이 驚 喜 하

講道에 引用할 만한譬喻

講道에引用한말을譬喩

(강도에인용한말을비유)

故神學博士 郭安連牧師 著述

郭安連牧師 翻譯

一、主의 본모양 子대로갈거시라 (讚頌百二十七章)

로마城에서何許한畫工이一乞人의縵縷한衣服에散髮한貌樣으로行乞한거슬

보고其形狀대로一番畫寫한라한야其乞人다려言한기를來日吾家로오기만하면

厚한雇價를受하리라한였더니果然其翌日에其乞人이親所에가서髮을削하고其

友人의衣服一襲을借着하고其畫工의家로갔더라畫工이其乞人의前樣이變하

야온狀態를보매其要求하던目的이失敗된지라其所用에遠越진고로박지안코拒

絶하였다하니吾儕가예수되往時에自己貌樣을變하고가라할것아니오그저本樣

子대로갈거시니라

인도 사론 人에게는 善을 거시 하나 차 無하고 하는 德만 善을 거시 잇소 이 말중 (此言中에 예 수

외서 自己가 하는 德되 는 거슬 表함 심이 오)

(一) 品行의 法을 言함 심이 오 誠命을 守함 라 제명 지히 (이 제명은 世界萬國人이 共知함 는 마

라)

(二) 罪를 犯함 었다 고 訟詞함 심이 오 不足함 것 하나 잇다 함 심 그 소년 법 어진 (其少年도 法을 違함

줄 노아 랐소)

(三) 改正함 道理를 言함 심 所有를 斥賣함 야 貧者를 救濟함 고 來함 야 我를 從함 라 이정 도리 말함 소유 파라 처 가난함과 구제 와서 나 조츠

結末 완전 完全함 게 되 라 면 此世上에서 此全함 外에는 他全함 이 업 소 예 수 十字架前에 아 세상 이온전 벗기 다른온전 십자가 앞

容恕함을 밧고 예 수의 踪跡을 隨往함 는 거 시 眞全함 거 시 라 용서 아 최를 따라 감온전

反<sup>반</sup>된다고言<sup>말</sup>을<sup>말</sup> 썩<sup>썩</sup>아나라此<sup>이</sup>罪<sup>죄</sup>惡<sup>악</sup>의事<sup>일</sup>을<sup>을</sup>因<sup>인</sup>하야예수가死<sup>죽</sup>을<sup>을</sup>수外<sup>밖</sup>에업시되엿다<sup>외</sup> 할거

시라只<sup>지</sup>今<sup>금</sup>聖<sup>성</sup>하게되라<sup>말</sup>는거슨新<sup>신</sup>性<sup>성</sup>만得<sup>얻</sup>기爲<sup>위</sup>하야<sup>말</sup>하라고<sup>말</sup>는거시아니라예수를

喜<sup>기</sup>悅<sup>부</sup>케하<sup>기</sup>는일이닛<sup>말</sup>하라고<sup>말</sup>함이오主<sup>주</sup>예수<sup>말</sup>對<sup>대</sup>하야<sup>말</sup>言<sup>말</sup>하<sup>말</sup>지아니<sup>말</sup>하<sup>말</sup>고品<sup>품</sup>行<sup>행</sup>만<sup>말</sup>言<sup>말</sup>하

야講<sup>강</sup>道<sup>도</sup>하<sup>말</sup>면皆<sup>다</sup>虛<sup>허</sup>言<sup>말</sup>이<sup>말</sup>될거시아品<sup>품</sup>行<sup>행</sup>講<sup>강</sup>道<sup>도</sup>가極<sup>극</sup>佳<sup>佳</sup>할<sup>말</sup>지라도聽<sup>듣</sup>者<sup>자</sup>로容<sup>용</sup>恕<sup>서</sup>함을<sup>말</sup>받기爲<sup>위</sup>

하야十<sup>십</sup>字<sup>자</sup>架<sup>가</sup>로引<sup>인</sup>導<sup>도</sup>하<sup>말</sup>지안코生<sup>성</sup>存<sup>존</sup>하<sup>말</sup>신예수의게引<sup>인</sup>導<sup>도</sup>하<sup>말</sup>지아니<sup>말</sup>하<sup>말</sup>면不<sup>부</sup>足<sup>족</sup>할<sup>말</sup>거시아

勿<sup>물</sup>論<sup>론</sup>某<sup>어</sup>題<sup>제</sup>目<sup>목</sup>이던지必<sup>필</sup>竟<sup>경</sup>基<sup>터</sup>의心<sup>심</sup>腸<sup>장</sup>은예수그리스도의게在<sup>잇</sup>슴<sup>말</sup>이오謊<sup>거</sup>說<sup>조</sup>이無<sup>없</sup>하<sup>스</sup>시고

主<sup>주</sup>日<sup>일</sup>을守<sup>지</sup>하<sup>말</sup>심如<sup>이</sup>許<sup>변</sup>諸<sup>모</sup>般<sup>든</sup>事<sup>일</sup>中<sup>중</sup>에皆<sup>다</sup>예수<sup>말</sup>씨<sup>말</sup>模<sup>모</sup>本<sup>본</sup>이시오自<sup>자</sup>己<sup>기</sup>의死<sup>죽</sup>하<sup>스</sup>심<sup>오</sup>로諸<sup>모</sup>罪<sup>죄</sup>를

洗<sup>세</sup>濯<sup>탁</sup>하<sup>말</sup>여주<sup>말</sup>심又<sup>다</sup>차自<sup>자</sup>己<sup>기</sup>살<sup>말</sup>으심<sup>오</sup>로諸<sup>모</sup>善<sup>선</sup>을<sup>말</sup>敎<sup>가</sup>導<sup>도</sup>하<sup>말</sup>시느니라

五、<sup>완</sup>全<sup>전</sup>善<sup>품</sup>品<sup>형</sup>行<sup>강</sup>講<sup>도</sup>를<sup>도</sup>보<sup>도</sup>라<sup>도</sup>고<sup>도</sup>하<sup>도</sup>면(마<sup>마</sup>十九<sup>십구</sup>〇<sup>〇</sup>十六<sup>십육</sup>一<sup>일</sup>二<sup>이</sup>十二<sup>십이</sup>)<sup>에서</sup>見<sup>見</sup>을<sup>을</sup>수<sup>수</sup>잇<sup>잇</sup>는<sup>는</sup>니<sup>니</sup>라

本<sup>본</sup>文<sup>문</sup> 마<sup>마</sup>十九<sup>십구</sup>〇<sup>〇</sup>十六<sup>십육</sup>一<sup>일</sup>二<sup>이</sup>十二<sup>십이</sup>

題<sup>제</sup>目<sup>목</sup> 善<sup>선</sup>함<sup>을</sup>을<sup>을</sup>잇<sup>잇</sup>는<sup>는</sup>方<sup>방</sup>針<sup>침</sup>

강도  
기講道할 때에 아푸리가에 在호는 百姓의 罪를 責望호는 時間만 虛費호는 것 辨이 오

선지  
나단 先知와 又 처할 거시오 (삼후 12-10) 然이나 誰를 指名호야 責호거나 指目호야

죄 받각  
罪를 發覺호는 거슨 合當지 못호는 거시오 但聽者를 却斥호는 事만 될 것 辨인 즉 地獄刑

벌 받각  
罰노 講說할 때에 悲感호는 眞情의 淚로 言호야 有益을 遺호는 거시오 萬一講臺에 立호

서교우  
야 敎友를 壓迫호는 詰責으로 論罪호야 羞愧케호야 激忿만 호게호면 此는 胆大호는 거

무리 일  
시아니 오 無理호는 事이니 聽者가 當席에서 言權이 업스즉 發明호는 수 업스나 如是호는

죄수 따리  
거슨 結縛호는 罪囚를 打擊호는 것 과 又 호는 나라 聽者의 罪를 言호야 도 甦生호는 기 爲호야

통인정  
通人情호는 心과 順호는 貌樣으로 호는 것 시라 愛心으로 其罪의 形便과 罪되는 理由와 結

과말  
果를 言호고 天父의 命令호는 심과 救援호는 시는 거슬 言호면 聽者가 悔改호는 思想이 날 수

죄망  
잇스나 責望만 호는 誰를 甦生케 못호는 거시오

모든 품행 강도  
四、諸般品行講道호는 理由는 갈브리산에 在호는 이오 以前西乃山은 禮儀에 根本이 오지

금변  
今變호야 尤極完全히 實行호게 되엿소 只今은 罪를 免호라고 호는 時인 즉 聖호는 法만 違



호심에對호야含糊호는말을使用치말고分明히理致에可否를確實히記錄호대

斷言호거시라講道인의性質이謙遜호고溫順호지라도嚴威호하는님의말슴을抑

制호야禁口호는거시不可호니라品行에關호講道는嚴肅호게호는西乃山에서

律法을밧을時에雷霆과烟雲과地震의動撓가잇섯쓰니(출十九〇十八)此形便과

如히嚴호言으로호거시라然이나特別히小心호것一이有호니先其聖經言을詳

察호야自己호고저호는講說은하는님의言인지自己個人的意思인지 잘小心호야

分揀호後에言호거시라하는님되로得호言아니면聽者가不受호辨아니라도로혀

憾情이나고其諸般講說에對호야疑心이나기易호니라假令吸烟치말나는言은聖

經에無호니講道인이如許事에對호야講道호라면하는님의訓辭라고直言호지말

거시오意趣가相似호聖經句節을가지고能力있게言호거시오自己의말노만堅硬

호게廣告호지말거시라

三、品行講道호時에듯는敎友의關係되는言아니면無益호虛事이오朝鮮兄弟의

一、品行講道를 할라 면先以相當한題目을 立하야 할거시오 行爲에 對하야 할말이

多有하나 其中에 輕言도 多하니 小過에 對하야 長皇히 講說하면 無味할거시오 十誠

에 關한 큰 罪에 對하야 講說을 多言할수잇스나 不然則 操心할거시오 例컨디 主日守

하라고 講道하는 거시오 도흐나 主日은 子正브러 守하는 夜一時브러 始作할년지 日

暮時까지 限하는 지 其日 携帶物은 엇더하거시오 罪인 지 冊子外에는 他物을 携帶하

는 거시오 罪인지 如許事實노 張皇히 言하는 거시오 聽者들노 徒히 分爭만나게 하고 睡眠

케 할것 없이라 主日守하는 거슨 吾儕 信仰에 大關係가 잇고 主日不守하는 者는 必竟

他罪를 여러가지로 犯하게 되겟소마는 以上에 言한 것과 又치些少한 일노 過히 辯論

하면 全般理致를 다 笑資만 되게 하거 易하나 舊約聖經에 烏卵을 取하는 罪에 對하

야 若干數語로만 記錄하였는니라 (신二十一〇六一七)

二、大蓋品行講道는 自己 確知中에서 權勢잇는 言辭로 할거시오 講說할時에 講道人

이 自己言으로 하지안코 하느님의 代表者로 言하느니 하느님께서 罪를 惡으로 判斷

顯出<sup>나타내</sup>는 거시라

(五) 예수의 死<sup>죽으</sup>심 吾儕<sup>우리</sup>를 代身<sup>대신</sup>하야 當<sup>당</sup>함

(六) 예수의 復活<sup>부활</sup>함

(七) 예수께서 我<sup>又</sup>와 同在<sup>처</sup>함 (마二十八〇二、요十五〇)

結末<sup>결말</sup> 이 여러 證據<sup>증거</sup>를 보니 예수가 眞<sup>참</sup>하는 님이 아니 오닛가 故<sup>고</sup>로 밋고 從<sup>좃</sup>往<sup>차</sup>함

다

第二講演 品行講道

道理<sup>도리</sup> 講道<sup>강도</sup>를 不樂<sup>즐거하지아니</sup>하는 者<sup>자</sup>들이 或言<sup>혹말</sup>하기를 有益<sup>유익</sup>한 講道<sup>강도</sup>는 品行<sup>품행</sup> 講道<sup>강도</sup>라 하고 亦<sup>또</sup> 實地<sup>실지</sup>의 講道<sup>강도</sup>라 하나 品行<sup>품행</sup> 講道<sup>강도</sup>가 道理<sup>도리</sup>의 基本<sup>기본</sup>을 삼은 것시 아니면 別<sup>별</sup>有<sup>유</sup>益<sup>익</sup>이 업는니 道理<sup>도리</sup> 講道<sup>강도</sup>는 恒常<sup>항상</sup> 結末<sup>결말</sup>에 合當<sup>합당</sup>한 行爲<sup>행위</sup>를 指敎<sup>지교</sup>하야 하겠고 品行<sup>품행</sup> 講道<sup>강도</sup>는 道理<sup>도리</sup>에서 生<sup>나</sup>하야 하거신 즉 二<sup>둘</sup> 皆<sup>다</sup> 聖神<sup>성신</sup>의 使用<sup>사용</sup>하시느니 互<sup>서로</sup> 相輔<sup>보</sup>益<sup>익</sup>이 되느니 皆<sup>다</sup> 貴<sup>귀</sup>한 講道<sup>강도</sup>니라

도만하던故로洗禮요한이監獄에在囚中에疑心이나서其本文言에弟子를보더여

問할거시라

注意 예수<sup>한성</sup>의誕生<sup>성종</sup>하심과性稟<sup>구약</sup>은舊約에預言<sup>예언</sup>과比較<sup>비교</sup>함으로똑又치된거슬表示<sup>표시</sup>하

고信케하<sup>의계</sup>여주려함

(一) 예수<sup>한성</sup>의誕生<sup>성종</sup>하심全舊約言을應<sup>응</sup>하엿소

(二) 예수<sup>성종</sup>의性稟<sup>가</sup>罪<sup>남</sup>업<sup>죄</sup>는者<sup>구약</sup>라야人<sup>인간</sup>의罪<sup>죄</sup>를救贖<sup>구약</sup>할수잇스니人間<sup>인간</sup>에罪<sup>죄</sup>업<sup>죄</sup>는이<sup>의</sup>는예수外<sup>외</sup>

에업<sup>의</sup>느니라

(三) 예수<sup>마르처</sup>의敎訓<sup>우물것해</sup>하심井邊에서女人<sup>녀인</sup>의敎訓<sup>교훈</sup>하실제其女人<sup>그녀인</sup>의證據<sup>증거</sup>가잇슴 (요四〇

二五—三十九) (눅四〇廿二) 其敎訓이書記官<sup>서기관</sup>의마르침과又지안타는百姓<sup>백성</sup>의公論<sup>공론</sup>

(막一〇二十二) 모세의法<sup>법</sup>을뒤집어노섯소(마五〇十八, 二十, 二十二) 官吏<sup>관리</sup>들도證據<sup>증거</sup>

함(요七〇四十六)

(四) 예수<sup>이적</sup>의異蹟<sup>이적</sup>예수<sup>이적</sup>의異蹟<sup>이적</sup>은恒常<sup>항상</sup>二條<sup>두가지</sup>意<sup>뜻</sup>가잇느니(1) 矜恤<sup>구휼</sup>히<sup>이</sup>는것과(2) 靈理<sup>신령론리치</sup>를

者<sup>자</sup>르<sup>르</sup>호<sup>호</sup>여<sup>여</sup>공<sup>공</sup>救<sup>구</sup>贖<sup>구</sup>함을<sup>함을</sup>受<sup>받</sup>케<sup>케</sup>하<sup>하</sup>는<sup>는</sup>거<sup>거</sup>시<sup>시</sup>니<sup>니</sup>其<sup>그</sup>目<sup>목</sup>的<sup>적</sup>을<sup>을</sup>成<sup>성</sup>하<sup>하</sup>는<sup>는</sup>方<sup>방</sup>針<sup>침</sup>과<sup>과</sup>機<sup>연</sup>具<sup>장</sup>는<sup>는</sup>少<sup>적</sup>하<sup>하</sup>는<sup>는</sup>거<sup>거</sup>시<sup>시</sup>오

其<sup>그</sup>結<sup>결</sup>果<sup>과</sup>는<sup>는</sup>큰<sup>큰</sup>거<sup>거</sup>시<sup>시</sup>라<sup>라</sup>예<sup>예</sup>수<sup>수</sup>가<sup>가</sup>即<sup>곧</sup>眞<sup>진</sup>理<sup>리</sup>요<sup>요</sup>救<sup>구</sup>贖<sup>구</sup>하<sup>하</sup>게<sup>게</sup>하<sup>하</sup>는<sup>는</sup>거<sup>거</sup>시<sup>시</sup>眞<sup>진</sup>理<sup>리</sup>니<sup>니</sup>라<sup>라</sup>昔<sup>옛</sup>에<sup>에</sup>로<sup>로</sup>마<sup>마</sup>國<sup>국</sup>에

서<sup>서</sup>俗<sup>속</sup>談<sup>담</sup>에<sup>에</sup>謂<sup>느</sup>하<sup>하</sup>기<sup>기</sup>를<sup>를</sup>全<sup>은</sup>天<sup>천</sup>下<sup>하</sup>諸<sup>여</sup>路<sup>로</sup>가<sup>가</sup>다<sup>다</sup>로<sup>로</sup>마<sup>마</sup>京<sup>경</sup>城<sup>성</sup>으로<sup>으로</sup>上<sup>올</sup>來<sup>나</sup>하<sup>하</sup>는<sup>는</sup>道<sup>도</sup>路<sup>로</sup>이<sup>이</sup>라<sup>라</sup>하<sup>하</sup>였<sup>었</sup>스<sup>스</sup>니<sup>니</sup>此<sup>이</sup>

와<sup>와</sup>如<sup>又</sup>히<sup>치</sup>諸<sup>모</sup>般<sup>든</sup>講<sup>강</sup>道<sup>도</sup>는<sup>는</sup>皆<sup>다</sup>其<sup>그</sup>聽<sup>듣</sup>者<sup>는</sup>들<sup>들</sup>을<sup>을</sup>예<sup>예</sup>수<sup>수</sup>의<sup>의</sup>게<sup>게</sup>로<sup>로</sup>引<sup>인</sup>導<sup>도</sup>하<sup>하</sup>야<sup>야</sup>來<sup>오</sup>케<sup>케</sup>하<sup>하</sup>야<sup>야</sup>合<sup>합</sup>宜<sup>의</sup>하<sup>하</sup>는<sup>는</sup>講<sup>강</sup>道<sup>도</sup>가

되<sup>되</sup>는<sup>는</sup>니<sup>니</sup>라<sup>라</sup>

七、道<sup>도</sup>理<sup>리</sup>講<sup>강</sup>道<sup>도</sup>一<sup>한</sup>件<sup>부</sup>工<sup>위</sup>夫<sup>이</sup>하<sup>하</sup>기<sup>기</sup>爲<sup>이</sup>하<sup>하</sup>야<sup>야</sup>以<sup>이</sup>下<sup>아</sup>에<sup>에</sup>記<sup>기</sup>述<sup>술</sup>하<sup>하</sup>는<sup>는</sup>니<sup>니</sup>예<sup>예</sup>수<sup>수</sup>가<sup>가</sup>眞<sup>진</sup>하<sup>하</sup>는<sup>는</sup>님<sup>님</sup>되<sup>되</sup>심<sup>심</sup>이<sup>이</sup>라<sup>라</sup>는

道<sup>도</sup>理<sup>리</sup>를<sup>를</sup>指<sup>지</sup>教<sup>교</sup>하<sup>하</sup>는<sup>는</sup>心<sup>심</sup>이<sup>이</sup>잇<sup>잇</sup>스<sup>스</sup>면<sup>면</sup>做<sup>이</sup>此<sup>와</sup>하<sup>하</sup>는<sup>는</sup>수<sup>수</sup>잇<sup>잇</sup>는<sup>는</sup>니<sup>니</sup>라<sup>라</sup>

本<sup>본</sup>文<sup>문</sup> 누<sup>누</sup>가<sup>가</sup>福<sup>복</sup>音<sup>음</sup>七<sup>칠</sup>〇<sup>〇</sup>十<sup>십</sup>九<sup>구</sup>

題<sup>제</sup>目<sup>목</sup> 예<sup>예</sup>수<sup>수</sup>가<sup>가</sup>眞<sup>진</sup>하<sup>하</sup>는<sup>는</sup>님<sup>님</sup>이<sup>이</sup>시<sup>시</sup>라<sup>라</sup>

引<sup>인</sup>導<sup>도</sup> 當<sup>당</sup>時<sup>시</sup>에<sup>에</sup>全<sup>은</sup>世<sup>세</sup>上<sup>상</sup>이<sup>이</sup>다<sup>다</sup>예<sup>예</sup>수<sup>수</sup>臨<sup>림</sup>하<sup>하</sup>는<sup>는</sup>거<sup>거</sup>시<sup>시</sup>기<sup>기</sup>를<sup>를</sup>企<sup>기</sup>待<sup>대</sup>하<sup>하</sup>고<sup>고</sup>잇<sup>잇</sup>섯<sup>섯</sup>는<sup>는</sup>디<sup>디</sup>異<sup>이</sup>邦<sup>방</sup>人<sup>인</sup>々<sup>々</sup>지<sup>지</sup>畧<sup>략</sup>知<sup>알</sup>하<sup>하</sup>는<sup>는</sup>거<sup>거</sup>시<sup>시</sup>오

더<sup>더</sup>라<sup>라</sup>(東<sup>동</sup>方<sup>방</sup>博<sup>박</sup>士<sup>사</sup>)舊<sup>구</sup>約<sup>약</sup>全<sup>전</sup>書<sup>서</sup>에<sup>에</sup>救<sup>구</sup>主<sup>주</sup>來<sup>來</sup>臨<sup>림</sup>하<sup>하</sup>는<sup>는</sup>신<sup>신</sup>다<sup>다</sup>는<sup>는</sup>句<sup>말</sup>語<sup>어</sup>가<sup>가</sup>만<sup>만</sup>코<sup>코</sup>임<sup>임</sup>의<sup>의</sup>僞<sup>거</sup>예<sup>예</sup>시<sup>시</sup>아<sup>아</sup>로<sup>로</sup>來<sup>온</sup>者<sup>자</sup>

神 學 指 南

神學科에서得호奧妙호學識上文字는相當호知識이있는이의게는合當호나外他  
多人의게는無益호니라

四、道理講道는宜當호論理的으로前進이있게호야其目的을成就호게호시오道

理를解釋호노라고於此於彼引導호가發明되도록教授치아니호면聽者가有益

을受치못호실더러寧히始作지마랴면도호를거시라聽者가無疑도록說明호여주

지아니호면返히發明함이되기못호기易호니라

五、然호나小心호것호나잇스니知호면卽知호는거스로發明호는거시도호나講道

人이너무驕慢호貌樣으로怒發호듯高聲으로自己外에모로는理致호처廣告호면

聽者中에其氣強스립게壓迫호는狀態를因호야反對호는思想이나기易호니라然

則當然히諄々호호고호말노通人情호는音聲으로謙히言함이良好호니라假令釣

者가漁時에水中에躍入호야魚口에釣鉤를勒舍호려는것과如호니라

六、諸般講道가皆救贖호는目的을成호는거시나此道理講道호時에其元目的은聽

一、聖經에 敎하신 基되는 道理를 敎할 수 밖의 業은 罪와 審判과 救贖과 信仰으로 義

롭다 함을 밝는 것 과 聖潔케 되는 道理와 其他 基되는 道理를 外除하고 는 其 講道가

無力 할 거 시 마 치 參孫이 削髮後에 權能을 失할 것 과 又 敎道人이 無能할 여 지 고 一

次 地獄에 浸淪되 여 가 는 者을 拯出할 지 못할 거 시 오 亦 敎友를 信仰中에서 長成할

도 록 敎育할 수 업는 니 라

二、然이나 道理講道를 할 지 라 도 預先 廣告할 지 업는 니 예 수 씨 서 도 道理講道를

할 것 스 나 聽衆은 覺知 치 아 니 할 것 고 今 日 々 地 라 도 何人은 예 수 가 道理講道를 만

히 할 것 을 自覺 지 못 할 것 은 니 라

世上에 第一 多數 多 結果를 成케 할 는 講道者들은 道理講道를 만 히 할 는 者 니 라

三、道理講道할 時에 自己가 神學科에서 學할 바 諸般 奧妙한 文字의 言을 用 치 아 니 할

는 거 시 도 同 一 言 쉬 운 恒 用 할 는 言 辭로 指 敎할 면 無識한 者와 老婆들이 理解 可 容

易하고 亦 効驗이 尤 多 할 거 시 라

講道學 (강도학)

美國 브린스톤神學校教授神學博士젬스, 버럴講演

郭安連牧師 翻譯

第一講演 道理解講道

諸般講道中에 道理解講道를 或은 反對하야 言하기를 道理解講道가 趣味와 有益이 別로  
 業은 故로 敎友들이 樂聞치 아니 할 다 하나 不然 할 거슨 普通으로 言하면 敎友들이 皆願  
 하기는 하는 님의 顯出하신 眞基되는 道理解得聞하기를 企望하는 거시오 講道人도 自  
 己所知中에 丁寧眞正한 道理解를 敎授할 수 있스면 聽者들이 欣心으로 歡迎할 줄 아노라  
 가령 幼兒가 乳를 먹는 것 又 新信者들이 或乳와 如한 易言을 善受하되 久信者들은 肉  
 味와 如한 眞理의 糧食을 받아 靈魂을 長成케 하는 니라



每熱心過激의양열심과격所致소치失手실수된일이오惡악함으로된缺點결점은아니외다然그리이나主주의名이름으로

苦辱고욕을만히當당하고必竟필경死時죽을때十字架십자가에倒懸거꾸로달려하여서예수의苦難고난을繼蹟계적함거시오

然그리이나베드로가一番한번예수를不知모름다함失手실수가잇섯스니但特다만특진權團體단체되는三人인중中에

만참가參加대우함엇고尤연함단近참여히聯合團참여에는未참여參참여함엇소

讚頌찬송함지어다요한使徒사도여他弟子다른제자는皆다失手실수가잇섯스나요한은諸般모든試驗시험을盡克다함

고最近최근團體단체사지參加참가되엇도다

結末결말 如許이러한事實사실이皆다吾儕우리와何關係무상관계가잇는나함면大相關큰상관이잇는거시오되다只지今금

吾儕우리도예수의命명함신대로함면예수의親舊친구가될거시오更言다시말함즈면主주의命명함신대

로함여야主주의命명대로함속예수의親舊친구가되오深思깊히생각함시오當身당신이今日오늘此七個團이일곱단

體中대중에何團體하나단체에잇습닛가其그一첫이요其그二셋이요其그七일곱이요當身당신의意向의향에懸달려함거시오

尙아今주사지도其七團中그칠단체중에參加참가되지못함엇스면即此時間못이시간으로悔改회개함시오其命대로

함시오其命대로함는이라야예수의親舊친구가됨니다

(1) 마가<sup>귀</sup>는 貴호<sup>메</sup>는 弟子<sup>노</sup>로<sup>되</sup> 一次<sup>한</sup> 失手<sup>번</sup>호<sup>실</sup>는 缺點<sup>수</sup>이<sup>있</sup>었<sup>스</sup>니 (卷十三〇 三十五〇 三十八)

바을<sup>과</sup> 못치<sup>담</sup> 胆大<sup>대</sup>히<sup>나</sup> 進치<sup>가</sup> 못호<sup>고</sup> 弱호<sup>약</sup>는 心으로<sup>심</sup> 事役<sup>일</sup>호<sup>수</sup>는 中路<sup>중</sup>에<sup>로</sup>서<sup>도</sup> 歸來<sup>라</sup>호<sup>온</sup>는 거시<sup>라</sup> 그러

나其<sup>그</sup>後<sup>후</sup>에<sup>일</sup> 예수<sup>의</sup> 名으로<sup>일</sup> 事役<sup>일</sup>과<sup>수</sup> 受苦<sup>고</sup>를<sup>만</sup> 多히<sup>만</sup> 호<sup>고</sup> 福音<sup>복</sup>도<sup>음</sup> 一冊<sup>한</sup>을<sup>책</sup> 記錄<sup>기</sup>호<sup>록</sup>는 것이<sup>고</sup> 예

수世<sup>세</sup>上<sup>상</sup>을<sup>떠</sup> 離호<sup>나</sup>는 後에<sup>후</sup> 埃及<sup>이</sup>國<sup>국</sup>에<sup>가</sup>서<sup>교</sup> 會監<sup>회</sup>督<sup>감독</sup>이<sup>되</sup> 었다<sup>가</sup> 惡衆<sup>악</sup>들<sup>의</sup> 개舉<sup>개</sup>石<sup>노</sup>打<sup>쳐</sup>殺<sup>죽</sup>호<sup>인</sup>

바되<sup>었</sup>다<sup>그</sup> 然호<sup>리</sup> 여도<sup>마</sup>가<sup>는</sup> 七十<sup>인</sup>人<sup>단</sup> 團體<sup>대</sup>中<sup>중</sup>에<sup>참</sup> 參加<sup>가</sup>된<sup>친</sup> 親舊<sup>구</sup>인<sup>즉</sup> 最近<sup>가</sup>호<sup>까</sup>는 團體<sup>단</sup>에<sup>는</sup> 未

參<sup>참</sup>호<sup>호</sup>는<sup>거</sup>시<sup>오</sup>

(2) 도마<sup>도</sup>에<sup>예</sup>수<sup>의</sup> 貴호<sup>귀</sup>는 弟子<sup>노</sup>요<sup>주</sup> 主의<sup>일</sup> 名으로<sup>수</sup> 受苦<sup>고</sup>도<sup>만</sup> 多히<sup>만</sup> 호<sup>고</sup> 他弟<sup>타</sup>子<sup>노</sup>보<sup>다</sup> 胆大<sup>담</sup>히<sup>대</sup> 言

하기<sup>를</sup> (요十一〇十六) 主와<sup>주</sup> 同往<sup>동</sup>호<sup>가</sup>야<sup>동</sup> 死호<sup>죽</sup>는<sup>것</sup>노<sup>라</sup> 라호<sup>고</sup> 遺傳<sup>유</sup>호<sup>전</sup>는<sup>말</sup> 言에<sup>도</sup> 마는

十二<sup>수</sup>使<sup>도</sup>徒<sup>중</sup>中<sup>에</sup> 第一<sup>일</sup>遙<sup>요</sup>遠<sup>원</sup>호<sup>는</sup> 地方<sup>지방</sup>으로<sup>가</sup>서<sup>선</sup> 宣教<sup>교</sup>호<sup>는</sup> 言다<sup>는</sup> 디아<sup>푸</sup>리<sup>가</sup> 北便<sup>북</sup>과<sup>편</sup> 印度<sup>인</sup>國<sup>국</sup>이<sup>니</sup>

지傳<sup>전</sup>道<sup>도</sup>호<sup>는</sup> 言다<sup>는</sup> 그러<sup>나</sup> 도마<sup>도</sup> 一次<sup>한</sup> 失手<sup>번</sup>호<sup>실</sup>는 缺點<sup>결</sup>이<sup>점</sup>이<sup>있</sup>었<sup>스</sup>니 十二<sup>인</sup>人<sup>단</sup> 團體<sup>대</sup>에<sup>참</sup> 參加<sup>가</sup>

되었<sup>고</sup> 最近<sup>최</sup>호<sup>근</sup> 團體<sup>단</sup>에<sup>는</sup> 不入<sup>드</sup>호<sup>리</sup> 호 言소

(3) 베드<sup>로</sup>로<sup>주</sup> 主의<sup>성</sup> 愛호<sup>사랑</sup>는 甚히<sup>심</sup> 愛호<sup>사랑</sup>는 신거<sup>시</sup>외<sup>다</sup> 베드<sup>로</sup>가<sup>항</sup> 恒常<sup>상</sup> 失手<sup>실</sup>가<sup>수</sup> 만호<sup>는</sup> 人이<sup>나</sup>

記述的講道

이외다十二使徒는樓房上에서聖晚餐에參預할수있고三人團體는變化山에서主

의榮光을볼수있섯스나全體徒中에惟요한一人만逾越節筵에獨히예수懷中에잇

슬수있고最終에天堂榮光의默示를此一人外에觀者가업고요한은예수의親舊中

第一親近호友라할거시오故로此團體의名은與主聯合團이라할수잇느니라

(二)此諸團親舊中에何如分揀이잇느냐問할것又호면요한十五〇十四言이其方

針에要點이라할거시오(爾等이我的命호대로行호면即我友라)更言호즈면爾

等이我的命호는대로行호여야我的親舊라或更又言호즈면爾等이我的命호대로

行호스록我的親舊라할수있고或我的命호대로行호니만큼我友라할수잇소그러

면예수의親舊가되즈고호면相當호價가잇는거시외다예수의命호신대로遵行호

는거시該價가되느니라然後에야예수의親舊가될수잇느니라

(三)예수의親舊中에何人은盡善호지못호고若干缺點으로因호야親近호友가되지

못호고稍遠호團體에만參預호게된거시假令



神신을 여러가지 이 상 권능 을 잇 었 느 니 라 이 단 에 이 상 두 단 에 이 상 두 단 에 예 수 와 最 親 近

사중 한 이 이 오 이 러 케 眞 實 히 順 從 하 는 信 仰 으 로 十 日 을 盡 日 토 록 勤 勉 히 祈 禱 하 였 스 니

특별 한 이 들 이 오 此 團 體 名 稱 은 眞 信 團 이 라 할 수 있 는 거 시 외 다

(4) 然 이 나 其 幾 團 體 보 다 예 수 의 게 尤 近 한 團 體 도 있 스 니 누 가 福 音 十 章 을 보 면 七 十

인 단 에 人 團 體 의 親 友 가 있 는 거 시 외 다 예 수 씨 서 全 猶 大 國 을 周 行 하 시 면 서 傳 道 하 는 中

이 적 에 異 蹟 도 多 行 하 시 고 救 援 하 섯 스 나 親 히 盡 不 得 爲 줄 아 시 고 特 別 히 弟 子 中 親 近 한

자 者 七 十 名 을 擇 召 하 샤 傳 道 職 分 을 任 하 시 고 言 하 샤 티 出 往 하 야 我 行 事 役 을 代 行 하

라 하 시 미 該 七 十 人 이 二 人 씩 各 出 하 야 奇 事 異 蹟 을 行 하 고 事 役 을 畢 하 고 歸 來 하 야

복 命 할 時 에 其 行 을 거 슬 自 誇 하 야 言 하 되 魔 鬼 라 도 吾 等 權 下 에 服 從 하 더 라 하 니 에

수 言 하 샤 티 以 此 로 自 誇 하 지 말 고 爾 等 의 名 을 生 命 冊 에 記 錄 된 거 슬 讚 頌 하 라 하 시

더 라 此 七 十 人 團 은 밋 기 만 하 거 시 아 니 라 福 音 의 役 事 지 體 行 하 였 스 니 此 團 體 는

信 行 團 이 라 稱 名 할 수 있 습 어 니 라

신 행 단 이 라 稱 名 할 수 있 습 어 니 라

예수의復活부활하신거슬본緣緣고故이니此는弟子中에別証據증거라(히 一〇二一—二二二)故고

此團體에對대하야다른거슨別별노더알지못하고假度假度만하느니此團體에對대하야名稱명칭

을定명할터이면或是혹시맞는다고하는團體라할수有잇슴이라

(3) 其第三되는團體는百二十名親友라

예수께서升天승천하시기前에遺言진하시기를(누가二十四〇四十九) 예루살렘을離떠나치

말고聖神의臨림하심을待기대하라함으로主升天후後에其命令그명령하신대로弟子들이

朝아침부터夕저녁까지예루살렘樓房上에서會集하야祈禱하며聖神臨하시기를待기대하거시

오十日間祈禱하며待時에必然一百二十名만되지아니하엿슬거시오多數의人이

集合하엿슬듯하니或是其五百名團體가會集되엿섯는지도모를거시오然이나十

日間聖神을待하는中에每日倫一二人씩退落되여稍小하여짐으로終末에百二十

名만餘在하듯하오第十日되는날旦에如前히又會集하여서祈禱를始作하다가瞥

眼間에大風과又흔聲이나고全家가搖動하며各人頭上에불又흔舌이臨하며皆聖

記述의講道

等<sup>들</sup>이 알고陸行<sup>못호로가</sup>하야先該處<sup>몬거곳</sup>에到<sup>이로러</sup>하야예수를맛났스니其衆<sup>그무리</sup>들中<sup>중</sup>에病者<sup>병자</sup>도있고悲<sup>슬문</sup>

者<sup>자</sup>도있고憂慮<sup>근심</sup>하는者<sup>자</sup>도있고游玩<sup>놀여구경</sup>하는者<sup>자</sup>도多來<sup>만히온</sup>하거시라예수甚<sup>심</sup>히困<sup>곤</sup>하신中<sup>중</sup>이라

도皆迎接<sup>다영접</sup>하사其衆<sup>그무리</sup>들의糧乏<sup>량식업서</sup>하야飢情<sup>시창호경</sup>을보시고憫<sup>민망</sup>히너이사餅<sup>떡다섯덩이</sup>五塊와魚<sup>성선두머리</sup>二尾를

持<sup>가지</sup>하시고糧食<sup>량식</sup>을豐足<sup>풍족</sup>케하야其衆<sup>그무리</sup>를盡飽<sup>다만부르게</sup>케하셨느니라

當時<sup>당시유대</sup>猶大國數百萬同胞<sup>국수백만동포중</sup>中<sup>중</sup>에此五千名<sup>이오천명</sup>이特別<sup>특별</sup>히예수의親舊<sup>친구</sup>라할수잇소然<sup>그러</sup>이나親<sup>친</sup>

近<sup>근</sup>하다가고는하지못할듯하외다此各團體<sup>이각단체</sup>에對<sup>대</sup>하야名稱<sup>명칭</sup>을個個<sup>낫낫차</sup>히製定<sup>제정</sup>할것又<sup>영</sup>하

면此第一團體<sup>이첫제단에</sup>는或游玩者<sup>후구경군단에</sup>團體<sup>단체</sup>라할수잇스니親舊<sup>친구</sup>는親舊<sup>친구</sup>라할수잇스되游玩<sup>구경</sup>만하

는되不過<sup>불과</sup>한親舊<sup>친구</sup>라하리로다

(2) 其第二<sup>그둘째</sup>의는團體<sup>단체</sup>는五百名親友<sup>오백명친구</sup>라

고린도前書<sup>전서</sup>十五章六節<sup>장절</sup>을보니예수復活<sup>부활</sup>하신後<sup>후</sup>에五百人<sup>오백인</sup>이예수를親觀<sup>친히</sup>하엿다하

니其事<sup>그사실</sup>實<sup>어나데</sup>은何時<sup>조세하안</sup>에된거신지詳知<sup>조세하안</sup>할수업스나或<sup>혹</sup>갈닐니山上<sup>산상</sup>이나(마二十八〇十

六) 예루살렘에서된일곳소此衆<sup>이무리</sup>은其五千<sup>그오천인</sup>人團體<sup>단체</sup>보다는稍近<sup>좀가온</sup>하친구友<sup>친구</sup>인줄아는거슨

○記述的講道

(기술덕강도)

神學博士 郭安連牧師 著述

예수의 親舊 친구

본문 本文 요한十五章十五—十六節 장 절

제목 題自 예수 의 親舊 라 친구

인도 引導 친구 親舊 라 하는 中 에도 累等 分이 있는 니 遠近 에 別과 知面 만 있는 이 도 잇고 知己 之 친구

友도 있는 거 사 아 니 오 닷 가 此 와 如 히 聖經 의 言 을 見 則 예 수 在 世 時 에 親舊 中 七 친구

個 團體 가 있 스 니 今 日 은 此 團體 等 을 工 夫 하 라 함 내 다 친구

(二) 其 七 個 團體 되 는 親舊 라 친구

(1) 其 第一 團 되 는 友 人 은 五 千 人 衆 이 오 친구

예 수 一 日 은 困 하 여 乘 船 하 시 고 갈 날 니 海 東 北 邊 으 로 가 사 休 息 하 라 하 셧 더 니 百 姓 친구

記述的講道



記述的講道

城에서 踟躇彷徨하다 此世를 離別하는 日에 無底坑에 永罰을 逃避기 難할지 不然

故로 勸二〇七 말슴하기를 「誰가 將來에 怒함을 避하라 하더냐」 하엿고 또

이 勸後二〇二二에 「少年의 情慾을 避하라」 고 하엿스니 斯如히 危殆하고 險惡世

間에서 競走하기를 容易치 못하나 그러나 사四十〇三十一에 「여호와를 依賴하는 者

는 疾走하여도 困하지 아니하고 步行하여도 疲困치 아니한다」 하엿스니 此言을 思

야 膽大하고 勇猛있게 하는 心으로 疾然히 天城을 向하여 競走함시

다

시들 櫻洋 子 이니 故 麓石 이니 或 樅木 을 櫻準 故 이니 或 耕田 故 이니 디 勿 計 小 謬 抵

에 말하기를 「學徒十餘名이 白雪이 多降 故 거슬 보고 相約 故 야 田中으로 過去時

에 誰가 直來 故 었는지 其足蹟을 보고 證據 故 자 故 十餘名 學生이 一齊히나 오미

其中에 九名은 足跡이 弓形을 成 故 었스되 故 學生은 直線과 又 直來 故 었는지라

其餘 學生들이 其理由를 問 故 디 該 學生이 答 故 기를 我가 出發時에 彼樹를 標準 故

고 왔다」 故 었습니 다 然 故 로 예수를 信 故 呼 時에 世上 事業에 許多 故 諸件을 注視 故

면 아 모 리 故 여 도 平生 路程이 屈曲 故 呼 러 이 오 故 러 나 試驗 困難 中에 서 라 도 上으로

예수를 仰望 故 면 終身 도록 正路로 一 步 一 步 式 前 進 故 呼 수 있 습 니 다

結末 聖經言대로 思 故 면 天城으로 가는 路는 直 故 고 又 險 故 呼 것도 만 故 呼 며 入去 故 는

門이 狹窄 故 다 고 故 었 습 니 다 故 러 나 예수 님의 引導 故 심을 必 故 르 永遠 故 國에 進 入 故

면 金冕을 밧을 수 있 스 나 故 러 나 天堂 本 鄉가 는 路에 深 壑도 있 스 며 詭計로 써 이 는 사

단 도 있 고 又 徑路가 만 故 하니 是 故 로 正路로 引 導 故 는 예수를 仰望 故 지 아 니 故 면 將 亡

記述的講道

스니然故로競走하는者는目的地만볼거시니假令驕慢心으로在傍人들이稱讚

하는거슬보면잘할수업스며또自心에落心이나서其路가險한거슬보고過히念

慮하면競走할수업고또後를顧야幾許나왔는지或發行치아니하였더면도할

줄思하면終點까지到達할수업습니다예수밋는人도如斯하니稱讚받을모음있

스면잘밋을수업고試驗과患難을견딜能力이업스면또할밋을수업고心이半

만큼은世上에屬하야二個主人을事하고하면此亦하는님前에合當치못한거

시을시다以前舊約時代로의妻가소돔城을出發時에自心이情든家舍를참아離

去할수업서背後를回顧하다가鹽柱가되어서後世에傳하며또예수씨서何許人

의게말씀하시기를乘機를잡고顧後하는者는我的弟子가되지못하리라하였습

니다本文言대로예수를仰望하야될거시을시다然故로使徒바울이말씀하시

기를後에잇는거슬忘却하고前에잇는거슬取라고標竿을向하야競走하노라

세상일을  
이방죄  
응용  
능부  
맛출간  
뜻다갓나  
승아

四、

는 것 도 克<sup>이</sup>하 며 所<sup>것</sup>傍<sup>에서</sup>에 서 妨<sup>방</sup>害<sup>해</sup>하 는 者<sup>자</sup>도 克<sup>이</sup>하 야 서 目的<sup>목</sup>的<sup>적</sup>地<sup>지</sup>에 지 到<sup>니</sup>達<sup>르</sup>하 여 야 되 겠 습  
 니 다 然<sup>그</sup>故<sup>런</sup>로 競<sup>경</sup>走<sup>주</sup>할 때 에 自<sup>자</sup>身<sup>신</sup>을 처 服<sup>복</sup>從<sup>중</sup>케 할 거 시 니 吾<sup>우</sup>信<sup>리</sup>徒<sup>신</sup>들 이 試<sup>시</sup>驗<sup>험</sup>과 苦<sup>고</sup>難<sup>난</sup>을 當<sup>당</sup>  
 할 때 에 忍<sup>인</sup>耐<sup>내</sup>할 거 시 을 시 다 로 十<sup>십</sup>二<sup>이</sup>二<sup>이</sup>에 「愚<sup>한</sup>難<sup>난</sup>에 참 으 라」 하 였 고 또 十<sup>십</sup>八<sup>이</sup>〇<sup>이</sup>十<sup>이</sup>  
 五<sup>에</sup>에 「忍<sup>인</sup>耐<sup>내</sup>로 結<sup>결</sup>實<sup>실</sup>하 다」 하 였 스 며 十<sup>십</sup>六<sup>이</sup>〇<sup>이</sup>九<sup>에</sup>에 「善<sup>선</sup>을 行<sup>행</sup>하 다 가 落<sup>락</sup>心<sup>심</sup>치 말 지 니 懶<sup>개</sup>  
 怠<sup>으</sup>하 지 아 니 하 면 時<sup>때</sup>期<sup>기</sup>가 至<sup>나</sup>르 미 收<sup>거</sup>獲<sup>두</sup>하 리 라」 하 였 스 며 또 약 一〇三<sup>에</sup>에 「信<sup>믿</sup>仰<sup>음</sup>을  
 煉<sup>련</sup>鍛<sup>단</sup>하 는 거 시 忍<sup>인</sup>耐<sup>내</sup>를 生<sup>나</sup>케 하 는 줄 알 거 시 라」 하 였 습 니 다 또 此<sup>이</sup>外<sup>밖</sup>에 도 他<sup>타</sup>人<sup>인</sup>을 對<sup>대</sup>  
 하 야 忍<sup>인</sup>耐<sup>내</sup>할 거 시 있 스 니 살 전 五〇十四<sup>에</sup>에 「衆<sup>모</sup>人<sup>사</sup>을 對<sup>대</sup>하 야 久<sup>오</sup>忍<sup>리</sup>하 라」 하 였 스 며 第<sup>마</sup>  
 二〇二<sup>에</sup>에 主<sup>주</sup>의 僕<sup>종</sup>은 爭<sup>다</sup>鬪<sup>투</sup>하 지 아 니 하 며 人<sup>사</sup>을 對<sup>대</sup>하 야 溫<sup>온</sup>柔<sup>유</sup>하 며 訓<sup>마</sup>誨<sup>무</sup>하 기 를 잘 하  
 며 虐<sup>학</sup>待<sup>대</sup>받 음 을 忍<sup>참</sup>하 라 하 였 스 니 然<sup>그</sup>故<sup>런</sup>로 人<sup>사</sup>을 對<sup>대</sup>하 여 서 참 을 때 에 예 수 를 模<sup>모</sup>本<sup>본</sup>하 야  
 서 行<sup>행</sup>할 거 시 오 살 후 三〇五<sup>에</sup>에 「그 리 스 도 의 忍<sup>인</sup>耐<sup>내</sup>에 드 러 가 기 를 願<sup>원</sup>하 노 라」 하 였 습  
 니 다

예 수 를 仰<sup>백</sup>望<sup>목</sup>하 자 本<sup>본</sup>文<sup>문</sup>言<sup>말</sup>에 信<sup>믿</sup>仰<sup>음</sup>을 主<sup>주</sup>掌<sup>장</sup>하 사 完<sup>완</sup>全<sup>전</sup>케 하 시 는 예 수 를 仰<sup>백</sup>望<sup>목</sup>하 자 하 였

記述的講道



二、

에勸獎하는이가만히있는줄노알거시을시다

脫去벗어버릴할것잇슴 본문말슴 本文言에諸般障礙物과束縛얽여되기쉬운罪를脫去하고競走場으

로疾速빠르히競走하리라하엿스니然故로吾儕도競走할때에는帽子와鞋와襪과諸般

障礙物은盡棄하고다單衣만입고競走하는거슨體를經捷하게하라는일이을

시다

古時에다윗이골나아와戰鬪하러나갈때에몬져사을王의甲冑를取하엿다가過

重하고또平日에도試驗하여보지못하거신고로脫却하고出戰하엿슴니다또競

走하라고하는사름이幾箇月前부터酒草를쓰으며每日運動도하지아니하며또

飲食을節操있게먹어서自己를服從시켜預備함니다此와如히危險世上에서

光明호天堂路로競走하라고하면酒와辱하는것과謊言과諸般束縛되기쉬운罪

를斷去하야되겡슴니다또拘碍되는것잇스니吸烟하는것과主日을犯하는과

財錢과世上에있는거슬過度히愛하는거시을시다

記述的講道

記述的講道

四面을包圍하고 엘니사를 죽이라고 하였습시다 그럼으로 僕은此를見하고 保護

할이 업서서 被殺할 줄 알았스나 엘니사가 하는 님의 祈禱하기를 此人의 目を 明瞭

케 하쇼셔 할 즉 하늘 四方에 수리아 軍兵보다 더 만히 있는 거슬 보았스니 其僕이 본

거슨 火와 馬와 火車가 無數한 거슬 보았습시다 예수 誕生할 실 때에 夜半에 羊을 守

護하던 牧者들이 讚頌하였고 또 升天할 실 때에 天使가 와서 弟子들을 慰勞하는 말

을 하였스니 此數件을 思하야 불진디 하늘에 近在 容貌樣도 있고 또 世上에서 된 形

便을 彼處에서 도 相關하는 거시 있습시다 然故로 信徒中에 誰某던 지사 단을 對敵

하고 試驗과 苦難을 當할 時에 萬一 克할 것 又 흐면 天에 게신이 도 拍手 喝采로 稱讚

하겟습시다 聖經言에 罪人하나히 悔改하면 天에서 크게 喜悅한다 하였스니 然故

로 두말 업시 勸獎하는 이가 있는 줄 알 것 又 흐면 世上에서 더 잘 믿을 듯 하습시다 學生

들이 聯合大運動을 할 때에 近傍에서 勸獎하고 拍掌하는 이가 있으면 運動하는 學

題 目 多 務 事 女 人 生 命 競 走 的 生 命

一、 幹 證 者 들 이 잇 습

觀 光 者 들 이 雲 如 히 吾 儕 를 들 낫 다 乎 乎 本 書 十 一 〇 에 其 名

들 이 나 타 냈 스 니 아 벨, 예 녹, 노 아, 아 브 라 함, 사 라, 이 삭, 야 곱, 요 셉, 모 세, 나

합, 괴 더 온, 발 낙, 삼 손, 입 다, 다 뢰, 삼 우 엘, 此 十 六 人 이 을 시 다 卞 此 外 에 도 許

多 先 知 者 와 女 人 들 이 만 코 만 혼 고 로 吾 儕 等 이 如 何 히 行 ㅎ 는 지 天 堂 에 서 注 目 ㅎ

는 者 가 만 습 니 다 그 러 나 吾 儕 가 思 ㅎ 기 易 ㅎ ㅎ 는 九 萬 里 長 天 이 라 天 堂 이 無 限 ㅎ

距 離 에 있 서 서 甚 히 멀 고 멀 다 고 ㅎ 지 마 는 그 러 나 聖 經 言 을 보 면 天 堂 이 갓 가 히 ㅎ

는 貌 樣 도 있 고 卞 世 上 에 서 된 形 便 을 彼 處 에 서 도 아 는 것 이 있 습 니 다 아 브 라 함 이

帳 幕 門 에 안 졌 습 時 意 外 에 三 天 使 가 旅 客 又 ち 왔 고 야 곱 이 石 枕 을 베 고 寢 時 에 天

使 들 이 梯 에 오 르 락 나 리 락 ㅎ 는 거 슬 보 앓 스 며 엘 니 야 升 天 時 에 火 車 를 타 고 을

나 갓 고 卞 엘 니 사 가 其 僕 을 다 리 고 도 단 城 을 드 러 가 니 其 夜 에 수 리 아 軍 兵 들 이 城

記 述 的 講 道



# 記述的講道

(기술덕강도)

## 競走的生命

(경주덕성명)

文學文士

盧解理牧師

著述

본문

회브리十二〇一上半節까지

참고

叅考하여볼말씀

고전九〇十九一二十七 빌二〇十三一十六 딤후四〇六一八

인도

바울이如斯히譬諭하였스니

新約中에自古로회브리書는何人이記述하였

는지아지못하는고로此書와또바울의記述書外에는此言이업고또舊約中에도업스

나그러나此와近似한言이있는거슨시十九〇五에「太陽이壯士와如히其軌道를별

니드니기를즐거워하도다」하였슴니다또바울이 로마로週行時에競走場을만히본

고로如斯히言하였고바울使徒도一生에競走한다고도하였심니다또엇던때에말하

기를我가浮虛히競走할가念慮하노라하였고갈五〇七에爾等이競走를잘하였다고

語과又도다弟子들은아직까지如此祈禱의眞味를覺悟치못한中에잇섯더라

主는此際에서一句의遺言으로古今信徒의共警醒하섯는니吾儕도主를圓滿하게

忠實하게잇는노主를밋는것처럼喜樂이업고主를信仰치안는것처럼悲慘이업고主

를밋는것처럼活發이업고主를信仰치안는것처럼墜落이업고主를밋는것처럼幸福

이업고主를信仰치아나하는것처럼災禍가업는니直言하면主를信從者는聖經에許

諾하신福樂을一漏없이受할거시오此에反히主를밋지아나하는者는聖經에記錄

災殃을其不信하는報償으로받는거시니信仰에서信仰으로今後부터前進하고前進

할지어다 아멘

聖神은 天에 昇하신 主의 榮光을 顯하샤 그 리스도의 手에 榮光과 尊貴와 生存을 示하

시는 니 吾人은 聖神을 밧어 야 天에 昇하신 主 그 리스도를 알수 잇스며 又 十四節 下半에

「我의 거슬 가지고 爾等의 敎諭하리라」 하섯는 니 聖神은 그 리스도의 敎對호 一切狀況

을 皆示與하시니라

第二은 聖神이 吾儕의 親父의 屬物 親父의 權威 父의 榮光 父의 慈愛를 吾儕의 敎皆

示하시니라 以上三述을 明悟하노니 거시 親聖神의 充滿이라 稱호하시니 聖神의 充滿이라

야 聖神의 役事를 좃차서 他人의 敎發布하리로다

五、 祈禱의 能力을 밧는다 此時 弟子들은 아직 서지 그리스도의 聖名으로 祈禱하

는 習慣이 업섯는 니 (十六〇廿四) 此 祈禱의 力을 更言하면 吾儕는 上帝의 言을 受入하

고 上帝는 吾儕의 言을 受納하시노니 거시 親聖神은 上帝의 言을 좃치면 神은 吾儕의 言을

좃치실 수가 잇는 니라 此가 祈禱의 秘訣이 되느니라 (세가 七〇十三) 此意를 指示하섯고

시

神 學 指 南

着點을 아직未定하거시더라

四、他保惠師를 믿는나 此는信仰의成就와眞理의了解와苦世를打勝하고前進하는

能力과其他一般信仰의生涯를活動코저하면聖神의保佑가아니면不可能일거시

라(十六〇十三) 此에對하야九牛의一毛又지마는더陳述코저하노라

聖神은自己로由하야서語치아니하시고但主의語를吾儕의게委托하신三個祕密을

示하섯는니

第一은將來事를爾等의게示하시리라 聖神은吾儕의게天國의榮光을示하시며地

獄의苦楚를示하시고또天國의富貴과人生의罪의價値되는死亡을示하시니吾儕

는此事를自心이感覺지못하고는他人을엇지感覺식할수인스리오感覺식할수업는

同時면引導할甘心의職務도疏忽하야懶怠에歸하리로다

第二는吾儕의게그리스도를示하섯는니 至今까지弟子等은肉體를取하신그리스

도를보기도하고肉體를取하신그리스도의仁愛와恩惠와權能을보았는디

遺言의警信

此可知인디主가告別辭를發布호는後로는憂心이滿面호지라此를보시고十六〇二十

二節에「只今은爾等이憂호는나我가다시爾等을보리니爾等의心이樂호러이오또

爾等の樂을奪호人이업슬러이라호시되反혀冷落無味호게듯는氣色이니大抵弱點

이何에셔나며憂가何로由호야오는도信仰이란者는弱은強호여지고憂는樂호여지

게호는原動力이니堅強과喜樂은信仰의結果가되는지라故로

三、밋는나호섯는니此는爆發彈의能力으로迷想의神經界를發射호심호하니箇中

에五個小彈이包藏호얏더라

(一)은主의죽으실事를밋는나 그리스도는弟子의薄弱호信仰을警告호시며當

身의개應호預言으로써敎訓호眞髓되는거슨「밋는나」호심인디萬一主의死호

실거슬不信호거시면主의復活이야엇지 생각인들호얏스리오

(二)는主의復活을밋는나

(三)은主의再臨을밋는나호심이니此三條는信仰의基礎인디弟子들은基礎의

다<sup>복선</sup>는福線에서餅<sup>떡</sup>을맛고禍庫<sup>하고</sup>에서金<sup>금</sup>을取<sup>취</sup>하엿스니主<sup>주</sup>의恩賜<sup>은사</sup>餅<sup>병</sup>을受<sup>受</sup>호<sup>호</sup>는厭手<sup>은손</sup>로敵<sup>적</sup>의不<sup>불</sup>義財<sup>의지</sup>를取<sup>취</sup>호<sup>호</sup>거서此<sup>이</sup>는(十二〇十八)하느님의攝理<sup>성리</sup>中<sup>중</sup>에一<sup>한</sup>預<sup>예</sup>定<sup>정</sup>條<sup>도</sup>件<sup>건</sup>이지마는人<sup>인</sup>意<sup>의</sup>로觀<sup>관</sup>호<sup>호</sup>면萬古<sup>만고</sup>一<sup>일</sup>流<sup>류</sup>의大敵<sup>대적</sup>이아니리오然<sup>그런</sup>則<sup>주</sup>一<sup>한</sup>面<sup>면</sup>은悲劇<sup>비극</sup>慘淡<sup>참담</sup>호<sup>호</sup>고一<sup>한</sup>面<sup>면</sup>은自<sup>자</sup>省<sup>성</sup>警<sup>경</sup>愼<sup>신</sup>호<sup>호</sup>時<sup>때</sup>로다

二、爾<sup>너</sup>等<sup>희</sup>이此<sup>이</sup>는유다를除<sup>제</sup>호<sup>호</sup>즉十一人<sup>인</sup>되느弟子<sup>제자</sup>를向<sup>향</sup>하야呼<sup>호</sup>名<sup>명</sup>의代<sup>대</sup>用<sup>용</sup>詞<sup>소</sup>이니回<sup>회</sup>想<sup>상</sup>컨

디荒野<sup>황야</sup>에서魚餅<sup>생선과떡</sup>을飽食<sup>포식</sup>호<sup>호</sup>던五<sup>무</sup>千<sup>의</sup>衆<sup>명</sup>四<sup>인</sup>千<sup>수</sup>名<sup>의</sup>의人<sup>인</sup>士<sup>녀</sup>女<sup>들</sup>들은何處<sup>어디</sup>로歸<sup>도</sup>호<sup>호</sup>고但<sup>다</sup>小數<sup>만소수</sup>의十

一人<sup>인</sup>의弟子<sup>제자</sup>만席上<sup>석상</sup>에叅<sup>참</sup>列<sup>렬</sup>되얏스나其<sup>기</sup>亦<sup>역</sup>信<sup>신</sup>仰<sup>앙</sup>의立<sup>립</sup>脚<sup>각</sup>이柔<sup>유</sup>弱<sup>약</sup>者<sup>자</sup>가아니면無<sup>무</sup>骨<sup>골</sup>格<sup>격</sup>者<sup>자</sup>가

太半<sup>대반</sup>이더라

例<sup>례</sup>컨디天父<sup>천부</sup>의聖音<sup>성음</sup>聲<sup>성</sup>을雷聲<sup>뢰성</sup>으로誤<sup>오</sup>聽<sup>청</sup>호<sup>호</sup>는耳膜<sup>이막</sup>病<sup>병</sup>者<sup>자</sup>도잇고(十二〇二十九)主<sup>주</sup>를

爲<sup>위</sup>호<sup>호</sup>야命<sup>목숨</sup>을棄<sup>버</sup>호<sup>호</sup>갓다고自<sup>자</sup>負<sup>부</sup>自<sup>자</sup>恃<sup>시</sup>호<sup>호</sup>는者<sup>자</sup>도잇고(十三〇三十七)主<sup>주</sup>의去處<sup>거처</sup>와其路<sup>그길</sup>를不知<sup>을부지</sup>

호<sup>호</sup>者<sup>자</sup>도잇고(十四〇五)主<sup>주</sup>를보고主<sup>주</sup>를不知<sup>아지못</sup>호<sup>호</sup>는者<sup>자</sup>도잇고(十四〇九)主<sup>주</sup>가世人<sup>세인</sup>과聖徒<sup>성도</sup>

의行<sup>행</sup>호<sup>호</sup>시는區別<sup>구별</sup>을不<sup>세</sup>覺<sup>못</sup>호<sup>호</sup>는者<sup>자</sup>도잇느니(十四〇二十三)弟<sup>제</sup>子<sup>자</sup>等<sup>들</sup>의信<sup>신</sup>仰<sup>앙</sup>未<sup>미</sup>定<sup>정</sup>은推<sup>추</sup>

遺言<sup>의언</sup>의警信<sup>경신</sup>

遺碑처럼設立하신거시고 一은實行的模範이니 卽막十章四十五節에말씀을實際로

躬行하야敎示하시니라 고弟子들의足を洗與하시고此에이긋치

「只今은爾等이잇는나」遺言的으로信仰을警醒시키심이니此를因하야研究를導

線이發見되얏도다 本福音中에漢字대로만「只今」이라흔거시二十六回에過호고에

수말씀으로만「爾」라함이三十八九回호「爾等」이라함은二百十六回以上이나되고

「信」이라함을動詞로五十六回에過호되其中에此一回에는具體的으로「只今은爾

等이잇는나」하섯는나此節을取하야講解할만호頭緒를本文의文次대로하는거시

極히趣味가잇는나

一、只今은此는主의期約의滿成된時期를指함만되는名詞로看做할나면其裏面된

粵義域에進及지못할가하는主의一言一事가엇지徒然無意味하거시잇스리오

問노니只今은何時호明暗을相分하고生死를判別하는時刻中이니一點의光明이照

暗界를射照하니惡光호는萬衆의對敵의기一處의媒路가通호엇더라嗚呼라가릇유

神學指南

遺言的警告信

(유언덕경신)

金弼秀牧師 著述

『예수 曰 只今은爾等이信호느니라』 (요十六〇三十一)

時維暮春이라 郇城萬戶에 夜短하느니라 院落의 點燈은 如星하느니라 羅馬孤營에 更深하느니라  
 戊兵의 枕戈殘夢은 黑暗域에 歸호고 旅館에 滞在호 遠客等은 節筵을 待望호느니라 狀態가  
 紛擾하느니라 主耶穌는 捨榮降世하느니라 卑身僕人하느니라 三個星霜中에서 奇蹟을 行하느니라  
 聖靈의 活能을 顯現호시고 譬喻를 取하야 眞道의 粵妙를 指示하심으로써 罪人을 死蔭  
 域에서 拯出하느니라 生命世에 移轉케 하느니라 出死入生의 正門은 卽信仰인디 噫彼弟子  
 凡十數人의 信仰을 觀察컨디 疑雲이 往來호고 信線이 斷續이로다 靜天一樓에 會筵을  
 排設하느니라 此卽告別筵이더라 此席上에서 二個特別現行으로 弟子들을 慰藉하느니라  
 敎訓하느니라 一은 晩餐이라 聖晩餐式으로 當身의 死하심과 復活과 再臨을 記念의

遺言的警告信



南 指 學 神

趣味있는講道

一〇六

방법  
方法으로 하지 말거시오 더 잘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思想을 늘 培養하며 또 不同한 方法

장도  
으로 講道하기를 實驗하여 볼거시오 講道人中에 何人의 게는 裏面에 能力이 有하나

양  
界에 現出함이 無한거슨 其能力을 修養치 아니함이라 某조 獨其才能 發現하기를 强하

혹이므로  
기 홀거시오 或者曰 爾心은 發現함의 母라 하였는니 各人이 自己의 定한 바 意向에 適合

문제  
한 問題를 擇한 後에 用力하여 其義를 互相比較도 하여 보고 分拆도 할거시오 此는 其才

능  
能을 發現하는 要素니라 吾人의 發現하는 才能이 活動하게 되기는 書籍을 閱覽함과 互

서로  
相間談話하는 時에 刺戟함을 받아 突起하는 니라

우  
吾人의 第一富하고 良好한 趣味를 發現하는 時는 主日聽衆의 게 들닐 講道를 準備할

때  
時가 아니오 但 常時 書籍을 閱覽할 時와 互相間談話할 時와 從容한 時에 習慣된 重負를

벗어서  
脫去하고 默想하며 自由로 蹈舞할 時에 成就하는 니라 然故로 勤勞함과 研究함으로 趣味

얻어  
를 得어야 修養하고 維持한 後에 講臺에서 生長하는 能力의 豊富함과 諸般有益을 還償

받음  
으로 受할거시오

거시라

思想과感情이豐富한宗敎上과現時의困難함과思慕함과時代의波動과變遷함이皆

講道人の福音傳하는디極히注意함을要求하는니라그런즉講道人이自己의學文만

依支하야正式論文的講道로趣味를現出하려하는것보다普通講道라도此處彼處適

合한問題를應用하야하면趣味가自然히現出할거시오人類의神靈上乏絶함을예수

敎의眞理로滿足케하며一般聽者로하여良心志를堅固케하며禁止할거슨禁止하야

混雜함이無케할거시라卓越한講道는現世의暫間되는事로由하야永久不變하는原

理에까지至케하는니라

六、自己를知할것

人生마다半生도록自己失手함에서學得할거시有할거신디講道人中에少年들도如  
斯히하려니와壯年들이더욱그리할거시라講道하는問題를解釋할時에恒常同一한

趣味잇는講通

四、各個人의 情景를 監察할 것

이 문제에 對하여서는 醫士와 辯護士가 講道人들의 模本이 될 수 있는 니라 智慧 있는 傳道者는 各個人의 情景를 察知함으로 各人의 心中에 乏絶된 眞理로써 充足케 할 수 있는 니라 然故로 牧師된 者가 敎友와 談話할 時에 暗示를 얻게 되면 마치 結果가 豐富한 種子의 如키 暗示는 其 牧師의 게만은 結果를 現出할 만흔 講道材料가 될 지니 誰某던 人 人間에 神靈의 交際나 社交的 交際를 維持하지 못하면 講臺上에서 趣味 있는 講道를 하기 難하니라

五、吾人의 生活하는 時代形便을 알아야 할 것

講道하는 者는 時代의 強弱과 聽道人의 意向에 正當한 所望과 空想的 所望이 有否를 知할 거신디 特別히 時代와 예수 敎間에 關係가 如何하며 예수 敎가 時代에 對하여 要求하는 바가 무어시며 時代가 예수 敎를 向하야 要求하는 거시 무어신디 敎訓을

通義만教示한다하느니라

普通理致에서奧妙한義를取하라면但其理致에屬心하야深히研究함에在하느니라

三 時代를利用할것

또한講道에對하야한것趣味만爲主할것아니오理致에實狀을探得하야할거서너

其中에第一趣味잇는거슨其時機와形便에適合하게하느니라然則첫제로할거슨

會衆의普通狀態를詳察할거시오또한宗敎上에關호特別호事件이나世上에關호普

通事件을說明호同時에應用할言辭를預先回想하느거서可하느니라

何時던지旣用호講道를更用하려하거슨其座席에出往하기前에自己의工夫室에서

其新狀態에對하야適合하게準備할거시라其理由는同一호講道로써諸時機와諸狀

態에皆適合하게應用할수無함이니라

趣味잇는講道

道에趣味를增進케하며支保케도할수있는거시니라然奇講道하는者는聖經을解釋  
 할時에異常하게像想的으로하지말고默示의義를正確하게解釋할거시오前에聖經  
 工夫할것있다고満足히여기지말고 더욱勤實히할거시라그리하면心中에新思想이  
 興起할거슨定理致니하는님의意志를眞實하고正當한心으로連續하여研究하는  
 者의講道는恒常趣味가多할거시라

一、神學을 연구할것

조직된神學의書籍은諸般理致를普通的으로解釋할것과特別한問題를論述할冊들  
 을잘參考할거시라

敎理中에도眞敎理를講論함이우必要하나그러나時代를새라新方法으로講道하  
 는거시 더욱必要하니何如間吾人은宗敎上眞理에尋常한理致를深히研究할거시

독어문헌대신상 전의 문헌 기초

神 學 指 南

文學文士 富斗一牧師 著述

講道에 對하야 數多한 方法을 盡記치 못하나 暫間講道에 關한 準備와 當席하야 如何히

할거슬 說明하노라

講道에 趣味를 尊重히 녀려 誇大的으로 言論하노者도 잇지 마는 講道에 奇事를 愛慕하

는거슨 決코 拒絶하노거시 可하니라

大抵講道の 基礎의 講道の 理致는 相離치 못할거슨 즉하노 님의 言으로 基礎를 定하고

하노 講道와 自古로 잇는 眞理를 解釋함으로 趣味잇게 하노 講道는 特別히 愛慕할 辨더

러 平生도록 維持할거시니 此趣味를 維持하기에 適當한 暗示幾條를 左에 論述코저 함

一、聖經을 研究할 것

聖經을 大體的으로 던디 各節解釋的으로 研究하기를 熱心으로 連續하여 하노者면 講

趣味잇는 講道

를犯<sup>범</sup>하엿셔셔도하는<sup>은혜</sup>님의恩惠로다시完全<sup>완전</sup>케할수잇스되罪<sup>죄</sup>中<sup>중</sup>에오리동안잇셔習慣<sup>버릇</sup>이

되면하는<sup>은혜</sup>님의크신恩惠로救援<sup>구원</sup>은엇을지라도痕跡<sup>흔적</sup>은잇슬거시오吾人<sup>우리</sup>의瘡<sup>헐미</sup>이完全<sup>완전</sup>히

癒<sup>나</sup>홀지라도痕跡<sup>흔적</sup>은남어잇는것又<sup>죄</sup>소

우리救主<sup>구주</sup>의血<sup>피</sup>이모든사<sup>죄</sup>름의罪<sup>경결</sup>를淨潔<sup>완전</sup>케씻셔完全<sup>완전</sup>케하시나永<sup>영원</sup>遠<sup>원</sup>지罪<sup>죄</sup>의痕跡<sup>흔적</sup>은남

어잇소

이비유가果然<sup>과연</sup>完全<sup>완전</sup>하<sup>전</sup>는아니로되此<sup>이</sup>와如<sup>又</sup>히이<sup>치</sup>밧과다른諸般<sup>모든</sup>譬喻<sup>비유</sup>도推測<sup>추측</sup>할수잇소

그림으로吾儕<sup>우리</sup>가天<sup>하</sup>父<sup>님</sup>를爲<sup>위</sup>하야譬喻<sup>비유</sup>를勤<sup>부</sup>히尋<sup>자</sup>하야天國<sup>천국</sup>子民<sup>국민</sup>의게吾主<sup>우리주</sup>에수그리스

도의愛<sup>사랑</sup>를講道<sup>강도</sup>할時<sup>때</sup>에有益<sup>유익</sup>한<sup>의</sup> 밧을준야옵는니다

(完)





四、譬喻解釋에對한說明

비유적의 對한 설명

善도호사마리아人사동의도호니야기를思상호면근뜻이우어시호不祥불상호地位디위에빠져남의게

慈悲자비를밧을만호人은우리웃이오또誰某누구던지助與도아주호는이도우리웃이라傷處상처에

붓친酒술이나기름을別志별뜻로解釋해석호고酒幕主人주막 주인이나錢兩돈량을曲々구비구비說대지호은大旨대지가아니니

時間시간을經濟경제호고吾主우리주씨서人民인민의게스랑호시는大旨대지를마르치심호치吾儕우리도其大旨그대지

만말호는거시도코술과기름과酒幕주막과錢兩돈량은무엇신지를講說강설아니호는거시도호호

아오或혹엇던境遇경우에는그詳細상세호거술아니되엇다는거슨아니나解釋해석이너무曲盡곡진호면

譬喻비유의方針방침이늘날줄아오假令가령劒칼이란거슨柄자루과축이잇서야完全완전호거시오또축에刃날

과背등가잇소劒칼을쓸때에柄자루을倒用거꾸로쓰호거나또축의背등를反用뒤집어쓰호면이는方法방법을誤그릇호시오

刃날으로쓰는거시定義정의나라또이說明설명이完全완전호다호는것아니라이와호치他다른譬喻비유를活활

用용호것도잇고또못호것도잇소씨뿌리는譬喻비유는씨와뿌리는人과田밭과鳥새와가시덤불

神 學 指 南

虛荒<sup>허황</sup>함을 따라 福音<sup>복음</sup>의 眞理<sup>진리</sup>까지 虛荒<sup>허황</sup>한 터 돌니 기쉬운 거시오 或<sup>혹</sup>罪<sup>죄</sup>를 미워하는 同<sup>동</sup>

時<sup>시</sup>에 人<sup>사람</sup>까지 미워하기 쉬운 것<sup>것</sup>은

丙、너 무滋味<sup>차미</sup>잇는 譬喻<sup>비유</sup>만 할면 其<sup>그</sup> 說話<sup>이야기</sup>에 精<sup>정</sup>神<sup>신</sup>을 들이고 聖經<sup>성경</sup>의 眞理<sup>진리</sup>는 思<sup>생</sup>치 아니하

는 편이 만함이 오제가 朝鮮<sup>조선</sup>에 온 뒤로 모든 兄<sup>형</sup>님들의 講道<sup>강도</sup>하는 거슬 聞<sup>들</sup>은 滋<sup>자</sup>味<sup>미</sup>잇

는 譬喻<sup>비유</sup>를 듯노라고 聖經<sup>성경</sup>의 本志<sup>본뜻</sup>는 너저 버린 세가 만하습니다

吾<sup>우</sup> 儕<sup>리</sup>의 크게 注<sup>주</sup>意<sup>의</sup>할 거슨이 又<sup>또</sup> 淺<sup>얕</sup>信<sup>믿음</sup>의 幼<sup>유</sup>穉<sup>치</sup>한 이의 是<sup>이</sup>는 道<sup>도</sup>흔 듯하나 深<sup>깊</sup>信<sup>믿음</sup>의 長<sup>장</sup>成<sup>성</sup>한

이의 是<sup>은</sup> 厭<sup>염</sup>情<sup>정</sup>을 難<sup>면</sup>免<sup>기</sup>할 거시오 다시 말하면 吾<sup>우</sup> 救<sup>구</sup>主<sup>주</sup>를 爲<sup>위</sup>하야 証<sup>증</sup>據<sup>거</sup>할 거시오 滋<sup>자</sup>味<sup>미</sup>잇는

나 약이 만할 것아니라 吾<sup>우</sup> 儕<sup>리</sup> 職<sup>직</sup>分<sup>분</sup>이 무어시뇨하면 道<sup>도</sup>흔 說<sup>설</sup>明<sup>명</sup>하는 人<sup>사람</sup>이라 道<sup>도</sup>흔 講<sup>강</sup>道<sup>도</sup>하는

人<sup>사람</sup>은 自<sup>자</sup>己<sup>기</sup>의 稱<sup>칭</sup>讚<sup>찬</sup>을 듯고 저할 것아니오 世<sup>세</sup>上<sup>상</sup> 萬<sup>만</sup>民<sup>민</sup>의 大<sup>대</sup> 福<sup>복</sup>音<sup>음</sup>의 眞理<sup>진리</sup>를 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敎<sup>구</sup>主<sup>주</sup>로 받개하는 거시오



이니이거슨大旨가直接으로나타나는거시오

一、譬喩를쓰는方法

吾儕가譬喩의分揀을仔細히알아야譬喩를잘使用할줄알거시오또使用할뉘만아

나라우리心裏에잘分揀하여야福音에있는譬喩를잘알고講道의解釋이잘될거시오

甲、쥬씨서譬喩할실때에我が門이라섯스니其門의理致를잘思하여야될거시오

문門이란거슨吾儕가出入하여房內에있는거슬保護하는거시오羊의우리에門

又흔예수의圈의門內에잇스면아모念慮할거시엄슬거시오우리가예수를밋음

으로天國에들어갈수잇고예수를밋음으로世上을떠날수잇는거시오

乙、쥬씨서天國은맞치제게잇는諸般거슬팔아도흔眞珠를사는것보다할실때는其

人은누구며眞珠는무엇됨을勿論하고其主意는誰某던지제게잇는모든거슬팔

아第一도흔거슬사고적함이라

乙、

易解알기쉬운한 거스르경유는 經由알기쉬운한 야 難解알기쉬운한 거세 引導인도한 심이라

譬喻비유의 種類종류를 區別구별한 면 類似論류사론과 比較論비교론과 同類論동류론과 直喻論직유론과 相對論상대론이 잇는디

그가 온디 다시 區別구별한 면 二種세가지이 잇스니 예수 씨서 譬喻비유베 푸설 때에 我내가 門문이라 한

실 때 는 類似論류사론을 쓰심 이 오 天國천국은 맞치 제 게 잇는 諸般모든 거슬 팔 아 도흔 眞珠진주를 삼과

又다 한 실 때 는 直喻論직유론을 쓰심 이 오 蕩子탕자의 悔改회개로 말삼 한 실 때 는 相對論상대론을 쓰심 이

라 此이와 如又如한 거시 四福音사복음에 다 잇스니 吾儕우리가 講道강도할 때 에 區別구별한 여 야 될 거시 오

萬一만일 區別구별을 잘 한 지 못 한 면 講道강도가 完全완전치 못 한 오 吾儕우리가 이 우 에 區別구별한 거슬 比較비교

한 면 各々각각 다른 줄 알 거시 오 엇지 한 야 다 르나 한 면 一은 短하나하고 一은 長하나한 야 分揀분간이

아니 오 예수 씨서 我나는 生命생명의 水물이라 한 신 말삼은 一節한절이니 短짧하고 羊양의 門문이라 한

신 말삼은 요 十〇—一十八 々지 길어 도 此이 譬喻비유의 理致리치는 又또흔 거시 오 이 거슨 類似論류사론

이니 門문과 水물의 가 온디 解釋해석할 단 한 奧妙오묘한 眞理진리가 잇고 天國천국은 맞치 제 게 잇는 모든

거슬 팔 아 도흔 眞珠진주를 삼과 같 다는 것 과 사 마 리 아 人사람의 리웃을 譬喻비유한 심은 直喻論직유론

또 이와 같은 책을 外國神學校와 聖經學院에서 教師나 學生이 使用하는 나我等教會內  
에 神學生뿐만 아니라 使役者 卽主日學校 教師와 查經會 先生들의 受苦를 減하게 하는  
冊이 되었소이다

此書의 廣은 曲調讚頌歌와 又고 表皮는 布衣며 페이지數는 三百九 페이지며 紙品은 上等이  
오定價는 一圓이니 京城鍾路에 수교書會에서 發賣합니다

富斗一牧師

# 譬 喻 (비유)

文學士 孟皓恩牧師 著述

## 一、譬喻가 무엇이니

甲、譬喻란 거슨 講道듯는 이의 難解한 것을 易解하도록 適合하게 하는 것이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리웃을 사마리아인으로 譬喻할 때에 難易를 對照符合케 하야

# 書籍에對한紹介的批評

(서적에對한소개의비평)

## 四福音 對照記述

오늘날이 세상 종교 인문 수다 중 특별히 그리스도의使役者되는諸位의게  
現今此世上에 宗教를言論하면數多한中에 特別히그리스도의使役者되는諸位의게

一言으로緊要히드리옵는하는教會內에累種雜誌가있어서可覽中에예수그리스도

의行蹟을渴症난사람이泉水를思慕함과같이하자는者를爲하야密義斗牧師의發刊한

冊一卷이있스니名은四福音對照記述이니新約에福音順序대로아니하고年數대로

順序를定하야주님의行蹟을明白히百六十八部分으로난호와記載하되各部分初頭

에年數와問題를記錄하였는니다假令예수씨의貌樣으로에루살렘에上去하신

거슬工夫를하면此書에目錄을考閱할즉百十五部分에있스니그페이지에四箇平線을

뚫고四箇空間에마래, 마가, 누가, 요한福音을代表하야記載하였는디四福音에있

는問題에對한道理를參考하기便利하며此書에書頭와페이지에鐵筆로記錄하기쉽고

성경 전파  
聖經을傳播함

歐州大戰亂에 出戰하는 軍兵中에 大英聖書公會가 六十方言으로 出版한 聖書 六百萬

卷을 只今까지 分給하였더라

또 聖書를 七百二十五方言으로 出版한 事가 有하나 現今에 不用하는 方言을 減하면 六

百五十方言으로 聖書를 出版하였는디 其中에 小部分을 論하면 一個單編 (假令마가

福音) 을 出版한 것도 잇스며 又 新舊約全書는 一百四十方言으로 出版하였는니라

近來에 아라비아 回々 敎人中에서 宣敎하는 舍이며 博士가 支那 回回 敎人 近一千萬

名中에 宣敎하는 事實을 調査한 結果로 大英聖書公會가 大 福音을 아라비아 文과 漢

文 官話로 冊兩頁에 出版하기로 作定하였는니라



일군 적음  
役軍이少함

(북十〇二)

남아메리카가 남아메리카가 南亞美利加베네수엘라國에 인구 人口는 백만명 三百萬名이나 되는데 그중 其中에서 전도 傳道에 로력 勞力하는

宣教師는 네수동 四人뿐이라하니 전라남북도 全羅南北道와 비교 比較할것又호면 인구 人口가 더못 彼處만 못하여 선 宣

教師는 인 七十人이나 되는니라

버르시아國에는 인구 人口九百萬名中에 선교수 宣教師가 명 八十四名이오 중앙아시아 中央亞細亞에는 인구 人口二

千三百萬名中에 선교수 但宣教師三人만 전도 傳道하는니라

全世界에 전도 傳道하는 반항교회 反抗教會(예수敎)의 선교수 宣教師가 만 二萬二千名뿐이니라

反抗教會中에 반항교회중 모라비아教會는 명수 名數를 의론 論하면 적은 微少한 교회 教會로 외방 外邦에 전도 傳道하는

熱心으로 큰교회 是大教會라 할수 있는니 그교회성찬참예인 該教會聖餐參預人 명중 八十七名中에 명 一名은 선교수 宣教師니

라 외국지방교회성찬참예인명수 外國地方教會聖餐參預人名數가 본지방성찬참예인명수 本地方聖餐參預人名數보다 만호 만호니라

南 指 學 神

스르스죽은 짐승 고기를 먹으  
 自斃<sup>민</sup>한 獸肉<sup>명</sup>을 食<sup>공</sup>하여 女<sup>부</sup>人<sup>녀</sup>들은 其<sup>그</sup>幼<sup>유</sup>兒<sup>아</sup>들을 棄<sup>버</sup>하<sup>는</sup>다 하<sup>고</sup> 었<sup>고</sup> 며 設<sup>성</sup>城<sup>성</sup>에서는 我<sup>우</sup>等<sup>리</sup>이 每<sup>매</sup>日<sup>일</sup>

貧<sup>빈</sup>民<sup>민</sup> 一<sup>일</sup>千<sup>천</sup>二<sup>백</sup>名<sup>명</sup>式<sup>식</sup> 供<sup>공</sup>饋<sup>급</sup>하<sup>는</sup>다 하<sup>고</sup> 었<sup>고</sup> 더<sup>라</sup>

該<sup>그</sup>處<sup>곳</sup>에서 傳<sup>전</sup>道<sup>도</sup>하<sup>는</sup>다 글<sup>나</sup>스<sup>란</sup> 牧<sup>목</sup>師<sup>사</sup>는 貧<sup>빈</sup>民<sup>민</sup> 救<sup>구</sup>濟<sup>제</sup>하<sup>는</sup>事<sup>일</sup>에 極<sup>극</sup>力<sup>력</sup>하<sup>는</sup>다 腸<sup>장</sup>窒<sup>질</sup>扶<sup>부</sup>斯<sup>스</sup>病<sup>병</sup>이

傳<sup>전</sup>染<sup>염</sup>되<sup>어</sup> 數<sup>수</sup>日<sup>일</sup> 後<sup>후</sup>에 別<sup>별</sup>世<sup>세</sup>하<sup>고</sup> 버<sup>르</sup>시<sup>아</sup> 人<sup>백</sup>民<sup>성</sup>들<sup>을</sup> 救<sup>구</sup>濟<sup>제</sup>하<sup>는</sup>中<sup>중</sup>에 病<sup>병</sup>死<sup>사</sup>하<sup>고</sup> 宣<sup>선</sup>教<sup>교</sup>師<sup>사</sup>가 八<sup>여</sup>人<sup>명</sup>이<sup>라</sup> 하<sup>고</sup> 었<sup>고</sup> 더<sup>라</sup>

또 宣<sup>선</sup>教<sup>교</sup>師<sup>사</sup>들이 但<sup>다</sup>一<sup>한</sup>地<sup>지</sup>方<sup>방</sup>에서 單<sup>단</sup>收<sup>수</sup>養<sup>양</sup>하<sup>는</sup>孤<sup>고</sup>兒<sup>아</sup>가 一<sup>만</sup>萬<sup>명</sup>이<sup>나</sup>된<sup>다</sup> 하<sup>고</sup> 었<sup>고</sup> 더<sup>라</sup>

日捐補

亞<sup>아</sup>非<sup>프</sup>利<sup>리</sup>加<sup>가</sup>西<sup>서</sup>便<sup>편</sup>教<sup>교</sup>會<sup>회</sup>에 教<sup>교</sup>人<sup>인</sup>(黑<sup>흑</sup>人<sup>인</sup>)들이 朝<sup>조</sup>鮮<sup>선</sup>教<sup>교</sup>會<sup>회</sup>에서 教<sup>교</sup>友<sup>우</sup>들이 每<sup>매</sup>年<sup>년</sup>查<sup>사</sup>經<sup>경</sup>會<sup>회</sup>時<sup>시</sup>에 日<sup>날</sup>捐<sup>헌</sup>

補<sup>보</sup>하<sup>는</sup>다 所<sup>소</sup>聞<sup>문</sup>을 듯<sup>고</sup> 此<sup>이</sup>事<sup>일</sup>을 模<sup>모</sup>倣<sup>방</sup>하<sup>야</sup> 암<sup>늘</sup>이<sup>라</sup> 教<sup>교</sup>會<sup>회</sup>에서는 教<sup>교</sup>友<sup>우</sup>들이 傳<sup>전</sup>道<sup>도</sup>하<sup>고</sup> 기<sup>로</sup> 捐<sup>헌</sup>

補<sup>보</sup>하<sup>는</sup>日<sup>날</sup>數<sup>수</sup>가 三<sup>삼</sup>千<sup>천</sup>四<sup>백</sup>六<sup>십</sup>五<sup>일</sup>日<sup>일</sup>이<sup>요</sup>에 폴<sup>폴</sup>런<sup>런</sup> 教<sup>교</sup>會<sup>회</sup>에서는 五<sup>오</sup>千<sup>천</sup>九<sup>백</sup>九<sup>십</sup>五<sup>일</sup>日<sup>일</sup>을 傳<sup>전</sup>道<sup>도</sup>하<sup>고</sup>

기<sup>로</sup> 捐<sup>헌</sup>補<sup>보</sup>하<sup>고</sup> 六<sup>육</sup>週<sup>주</sup>間<sup>간</sup> 傳<sup>전</sup>道<sup>도</sup>하<sup>고</sup> 여 本<sup>본</sup>즉 新<sup>신</sup>入<sup>입</sup>教<sup>교</sup>人<sup>인</sup> 二<sup>이</sup>百<sup>백</sup>二<sup>십</sup>九<sup>명</sup>이<sup>되</sup> 었<sup>고</sup> 더<sup>라</sup>

暹羅 (Siam) 國長老教會中에 女教師三人이 崑崙島로가서 醫學과 看護術을 修學

하노 中인디 其中에 二名은 卒業후 本國으로도라가서 首先 女醫師가 될듯하니라

又此國 敎人 中에 一人이 果園을 栽培하야 其收入은 價額 全部를 傳道하는 事에 補助

하기로 作定하였다더라

버르시아

數年前에 버르시아國에 在호는 長老教會에 屬호는 敎友들이 朝鮮에 傳道하는 事을 幫助하

기爲하야 捐補를 寄付호는 事가 有호는 事다 今年에는 朝鮮教會가 아르메니아 (아미니

아) 民族들의 苦難當호는 形便을 圖고 敎濟코져하야 平南老會地境內 一百六十五處

教會에서 一千一百六十一圓을 捐補하야 버르시아 長老教會 宣敎師들의 經由로 分與

하기爲하야 付送호는 事다

二個月前에 버르시아, 더허란城에서 傳道하는 뉴욕 長老敎傳道局에서 보낸 電報를

接見호는 事다 一城에 丹窮乏호는 者가 四萬名이 오 人民의 飢渴이 莫甚하야

神 學 指 南

감독직분 맡기 작명  
 監督職을任하기로作定하야寧波教會에서五十七歲되는牧師를擇하였다더라  
 또 동회 전도 일본 더방  
 又同會에서傳道하는日本地方에서도內地人을監督으로擇하기爲하야宣教師的監  
 督은辭職하였다더라

항항 잇는 침례 교회 정수 지나인 일인 그교회 남중학교전축  
 香港에在한沉禮教會執事(支那人)一人이該教會에男中學校建築하기爲하야萬圓  
 을寄付하였는니라

백년전 교모든교파 속 신자 일본 조선 한사람  
 百年前에는예수教諸教派에屬한信者가日本과朝鮮에一個人도업섯고支那에는十  
 명  
 名도되지못하였는니라

지나삼기년동안 일본교회 북음전 운동 천처  
 過去三個年間に日本教會들이福音傳하기로運動하야五千處에서人民을聚集하야  
 傳道하였는디聽者二十五萬名中에道理研究하기를願하는者가二萬七千三百五十  
 명  
 名이느되더라

또한반항교종모든교파선교사회 영국 미국 새선교사 명파송  
 又反抗教中諸般教派宣教師會는英國과美國에서新宣教師四百七十四名派送하기  
 를懇求하는中이라더라

宣教事况

此運動을 論評할 터이면 其賤民들이 罪惡에서 救援을 얻어 眞理를 尋求하는 神靈을 運

動이 아니 오 但敎人들의 富饒함과 教育上 便益을 보고 彼等도 如此를 利益을 得코저 하

며 又思하기는 敎人이 되면 國民中에 階級을 得출 希望하는 緣故라 此理由를 思할 즉

印度國에 있는 敎會가 無識한 賤民多數를 應接하여 敎會의 神靈을 道理를 醒悟케 하고

特別히 彼等으로 하여금 主에 수그리스도를 自己敎主로 受케 하는 責任이 重大하니라

東 洋

昨年 調查한 대로 支那에 在하는 敎徒가 五十萬名 쯤 되는데 其

中에 三十萬名은 聖餐 參與人이 오 禮拜堂은 四千處라 더라

又 美國에 留學하기 爲하야 試取를 受한 學生 九十一名 中에 四十一名은 그리스도 信者

라

英國 監督 敎會內 敎會 宣敎 師會 社 會에서 支那人 信徒 中에서 初次로 一人을 擇하야

# 宣 教 事 况

(선 교 사 항)

神學博士

馬布三悅牧師

著 述

인도국  
印度國

現<sup>현</sup>今<sup>금</sup>印<sup>인</sup>度<sup>도</sup>國<sup>국</sup>에 下<sup>하</sup>等<sup>등</sup>平<sup>평</sup>民<sup>민</sup>中<sup>중</sup> 그 리 스 도 教<sup>교</sup>會<sup>회</sup>에 入<sup>드</sup>항<sup>리오</sup>기 로 運<sup>운</sup>動<sup>동</sup>항<sup>일</sup>는 事<sup>이</sup>가 有<sup>있</sup>스<sup>스</sup>니 此<sup>이</sup>는 無<sup>무</sup>賴<sup>의</sup>

輦<sup>輦</sup>賤<sup>민</sup>民<sup>민</sup>(等<sup>등</sup>外<sup>외</sup>者<sup>자</sup>) 六<sup>천</sup>千<sup>만</sup>萬<sup>명</sup>名<sup>중</sup>에 數<sup>수</sup>十<sup>십</sup>萬<sup>만</sup>名<sup>명</sup>이 洗<sup>세</sup>禮<sup>례</sup>를 受<sup>받</sup>항<sup>입</sup>고 入<sup>입</sup>教<sup>교</sup>항<sup>교</sup>기 를 願<sup>원</sup>함 이 라 過<sup>지</sup>去<sup>는</sup>

五<sup>오</sup>年<sup>년</sup>間<sup>간</sup>에 五<sup>기</sup>個<sup>교</sup>教<sup>교</sup>派<sup>파</sup>의 宣<sup>선</sup>教<sup>교</sup>師<sup>사</sup>들이 三<sup>만</sup>十<sup>일</sup>萬<sup>인</sup>五<sup>만</sup>千<sup>인</sup>의 人<sup>인</sup>의 洗<sup>세</sup>禮<sup>례</sup>事<sup>사</sup>가 잇<sup>세</sup>섯<sup>레</sup>고 又<sup>또</sup>去<sup>거</sup>年<sup>년</sup>에

一<sup>교</sup>教<sup>교</sup>派<sup>파</sup>의 宣<sup>선</sup>教<sup>교</sup>師<sup>사</sup>會<sup>회</sup>가 願<sup>원</sup>入<sup>입</sup>人<sup>인</sup> 十<sup>만</sup>六<sup>만</sup>萬<sup>명</sup>을 許<sup>허</sup>諾<sup>락</sup>지 안 코 留<sup>기</sup>待<sup>대</sup>항<sup>대</sup>였<sup>는</sup>니 라

宣<sup>선</sup>教<sup>교</sup>師<sup>사</sup>들 은 極<sup>극</sup>히 用<sup>용</sup>力<sup>력</sup>항<sup>쓰</sup>여 도 如<sup>이</sup>斯<sup>와</sup>히 多<sup>만</sup>數<sup>혼</sup>平<sup>평</sup>民<sup>민</sup>을 教<sup>마</sup>導<sup>리</sup>할<sup>필</sup>수 업<sup>스</sup>음 으로 主<sup>주</sup>日<sup>일</sup>學<sup>학</sup>堂<sup>당</sup>教<sup>교</sup>師<sup>사</sup>와

傳<sup>전</sup>道<sup>도</sup>師<sup>사</sup>와 牧<sup>목</sup>師<sup>사</sup>들 을 教<sup>교</sup>授<sup>수</sup>항<sup>교</sup>야 彼<sup>타</sup>等<sup>들</sup>으로 항<sup>하</sup>여 公<sup>공</sup>新<sup>신</sup>進<sup>진</sup>教<sup>교</sup>人<sup>인</sup>을 教<sup>교</sup>育<sup>육</sup>항<sup>교</sup>기 할<sup>수</sup> 밧<sup>기</sup> 업<sup>는</sup>니

라 此<sup>이</sup> 賤<sup>천</sup>民<sup>민</sup>들 은 아 조 無<sup>무</sup>識<sup>식</sup>者<sup>자</sup>들이 니 洗<sup>세</sup>禮<sup>례</sup> 밧<sup>기</sup> 前<sup>전</sup>이 나 洗<sup>세</sup>禮<sup>례</sup> 밧<sup>기</sup> 後<sup>후</sup>이 나 訓<sup>훈</sup>誨<sup>회</sup>事<sup>사</sup>가 多<sup>만</sup>

항<sup>하</sup>니 라

宣 教 事 况



老長崔事助 元孝方 漢承洪 師教宣 國民華中



友教該叫堂拜禮陽萊



羅富悅 蘇安論 奇 一 富斗壹 金鉉贊

李昌珪 吳文根 蔡弼近 崔榮澤 李正奎

李文主 朴永和 裴裕祉 李載馨 李春澐

李基昌 崔鎮燮 馬布三悅 白容基 權衡模

申弘均 朴永淑 金益洙 文潤國 張弘範

郭安蓮 魚塗萬 李訥瑞 王吉志 金碩伉





神 學 指 南

이 옛古典에 있는 일이 아니 오다 중년만中年에 시작始作호 악惡호 풍속風俗에 지나지 못함을 알고 이뜻스

로 정부政府에 상서上書호고 백성百姓의 설명說明호니 인민人民의 이상思想이 점점漸漸열 년년지라 총一八二九년에 총總

督府에서 발령發令호야 과부寡婦를 불살으며 산장生葬호는 풍속風俗을 엄금嚴禁호고 어또 어兒孩를 장물江水에 던지

는 금일도 점점禁호야 점점漸漸엄서 그지니라 그또 외其外에 문둥병원같은 곳에 설립癩病院을 설립設立호고 년一八〇九年에

는 고또 원孤兒院을 설립設立호고 각各處에 초小學校를 만만히 세우니 그럼으로 병원病院과 학교學校와 고孤兒院

과 출판소出版所와 자自己의 생활生活과 동同事者의 생활生活等여 러러가 지일은 간間或 본本國人의 도도움을 받받음

도 잇잇섯스나 거거의 자自己가 수受苦호야 잇잇는 돈돈으로 쓰쓰는 거거시니 캐리가 이와 또또 대大學教授

의 직職任을 받받아 생활生活에 풍풍족호고 사事業에 너너히 쓸쓸財錢을 얻얻게 되되거 스스반다 시시하 는는 님님이

引導호신 은恩惠러라 수數十年間에 버버린 재財產이 수數萬圓이 로로되 교教會事業에 다다 허虛費호고 그其

末 말年에 니러는 빈貧寒호 형形勢로 별別世호게 되되니라

一八三四年六月九日에 월월일 임임, 캐리가 세世上을 리離別호니 나年이 세七十三歲라 세삼부루에

埋葬호고 그其親舊들이 거巨額의 재財力을 합합호야 비碑石을 삭삭여 분墳墓를 宏宏壯호게 삼삼이니라

월련개리傳

各文字로 聖經을 보게 되엇더라 印度에 到着후 數十年間을 일만히 함으로 同事者

의 費用外 諸般宣敎事業에 經費를 擔當함外에 印度國 累種方言을 비화其方言으로 聖

經을 翻譯하야 만히 出版하리라 세람 부루에 있는 宗教書類 出判所에서 印度國 六種文

字로 新舊約을 出版하고 또 新約全書는 二十三方言으로 하고 또 新約中에 單篇으로 出

版하다른 十種方言으로 하엇더라 此 累種方言으로 容易히 翻譯호理由는 其方言에 各

異호 文字를 使用하여 도산스그릿에 使用하는 各無形的名詞 (假令 救援은 목디) 又

흔 音이니 其方言의 有形的名詞 (사로리와 又치) 만히 홀것 辨이니라

또 말시만은 支那人을 맞나 支那方言을 工夫하고 漢文으로 新舊約을 翻譯하니라 세람

부루에서 出版하야 發賣호 聖經을 計算하니 總合이 二十萬三千卷에 達하엇더라

翻譯호는 일만히 함外에 傳道하야 敎會를 設立하니 此 二件만들어 말하노라 印度에 本

來강거 (英音 Ganges 강) 간지스江에 兒孩를 祭祀로 던지는 弊風과 男便이 죽으면 其妻를 잡

아 火에 살오코 或生葬호는 惡習이 잇더니 케리가 其國의 古典을 詳考하야 보고 其風俗

동소자

그방언

인도국여소가지문

신약중

단편

출

판

소

신약중

단편

출

판

가

그방언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神 學 指 南

지비호니라 처음 신약 번역 初에 번역 新約을 번역 翻譯한 방언 方言은 방언 本말나 방언 方言이니 신약 전서 新約全書를 최초 最初에 一八〇一

年에 출판 出版한 점점 漸漸산스그 문자 文字를 사용 使用하는 방언 方言을 번역 比호고 번역 翻譯한 출판 一八〇九

年에 년 是 네가지 문자 오릿사와 문자 마라타와 산스그릿 성경 번역 四種方言으써 번역 聖經을 출판 翻譯한 출판 一八〇九

다른 문자 文字를 사용 使用하는 방언 方言과 특별 特別히 버르시아 문자 文字를 사용 使用하는 방언 方言은 지비호며 더욱

여러 가지 방언 方言으로 성경 출판 聖經을 출판 出版한 년 一八一二年에 불행 不幸히 인쇄소 印刷所가 화재 火災를 당 當하여

火에 불 탄고 출판 出版하는 정지 일을 정지 얼마 동안 정지 停止한 년 一八一二年에 인쇄소 印刷所를 건축 建築하고 방언 方言

으로 성경 출판 聖經을 출판 出版한 방언 方言이라 목적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적 거슬 보면 목적 開리의 목적 宗旨와 목적 目的을 목적 알수 있는 방언 方言

라 자 自己의 항상 恒常하는 의 말이 「하는 의 님을 의 爲하여 크고 의 만한 일을 의 하여 보고 의 하는 의 님의 일을 의 하는

가 온 의 티하는 의 님의 도 의 으심을 의 만히 의 발을 의 줄 의 밧고 의 行하라」의 故니 의 其 의 本性과 의 其 의 信仰을 의 可히 의 推測

하야 의 알겠고 의 또 의 말하 의 기를 의 我는 의 勤實히 의 일하는 의 저 의 조 의 밭 의 개 의 업 의 노 의 라 의 한 의 人 이 의 라 의 英國에서 의 셔 의 셔는

기 의 前에 의 牧師 의 일과 의 敎師 의 일을 의 봄으로 의 汨沒無暇 의 中에서 의 道 의 外國 의 方言 의 여 의 섯 의 가지 의 를 의 比 의 환스

니 의 聖經 의 本文 의 곳 의 헬 의 나와 의 希 의 브리 의 方言 의 밭 의 古 의 로마 (라틴) 의 方言 의 과 의 法國 의 과 의 이 의 달 의 니 의 아 의 와 의 혼 의 난

윌렘 캐리 傳



南 指 學 神

船에 올랐더니 事勢가 또 該船으로 가지 못하게 됨으로 下陸하여 他船을 엮을 동안에

家에 도라가서 夫人의 同行하기를 勸勉하되 終是듯지 아니하거늘 다시 港口에 나간

즉비를 엮기가 遲緩하되 家에 도라와서 夫人을 勸勉하되 卽時許諾하느니라

夫人과 兒孩四名을 다리고 길을 催促하여 港口에 到着하되 卽時許諾하느니라

서든지라 當時로 말하면 아직 漁船이 發明되기 前이 오 風帆船으로 航海하는 時라 아 프

리가 南便으로 도라서 一七九三年에 印度國갈 곳다 (Calcutta) 에 이르니 此處는 英國東

印度會社의 領地라 月給이 업서 生活이 困難하되 캐리는 傳道에 熱心이 猛烈하여 親

手作工으로 生活하려 하여 一會社의 主務者로 일하며 方言을 비호후에 印度人의 傳

道하기를 始作하니 此所聞이 들니 東印度會社는 캐리의 傳道함을 禁止하며 本國으

로 歸去하기를 催促하니 英國領地內에 있지 못하게 된즉 移舍하야 덴막 國人 居留地세

람부루 (Serampur) 에 이르러 居하되 其後 一八〇〇年에 워데와 말쉬만 二宣教師가 니

르러 흥취 일하니 此三人이 다 月給이 업고 生活이 困難하되 中에 캐리는 일하야 엮는 財

次<sup>번</sup>이나意<sup>의향</sup>向<sup>제출</sup>을提出<sup>처음</sup>하되初<sup>사동</sup>에는人<sup>사람</sup>들이다어려온줄思<sup>생각</sup>하더니 캐리가累<sup>무차</sup>次<sup>차례</sup>말하고其<sup>그</sup>意<sup>의</sup>

向<sup>향</sup>으로州<sup>장도</sup>講道<sup>도회</sup>의지훈즉畢<sup>필경</sup>竟<sup>전도</sup>傳道會<sup>설시</sup>가設始<sup>무소</sup>되고牧師<sup>목사</sup>들세리힘써捐補<sup>연보</sup>하엿스나겨우

一<sup>원</sup>百五十圓<sup>원</sup>밖의되지못하더라 캐리는恒<sup>항상</sup>常<sup>귀도</sup>祈禱<sup>기도</sup>하기를하는님씩셔人<sup>사람</sup>을擇<sup>선택</sup>하야보내

주옵소서하더니他<sup>타인</sup>人<sup>사람</sup>은가지아니훈즉漸<sup>점점</sup>漸<sup>점점</sup>스스로서듯되하는님씩셔我<sup>나</sup>를부르셨다

하야親<sup>친</sup>히가여야될줄노作<sup>작명</sup>定<sup>명</sup>하엿스니아직은갈門<sup>문</sup>이열너지아니훈지라 캐리는오히

려傳道會<sup>전도회</sup>에請願<sup>청원</sup>하되捐補<sup>연보</sup>하돈이갈船費<sup>선비</sup>가되지는못하나할수있는대로떠나셔印<sup>인도</sup>度<sup>도</sup>

로간後<sup>후</sup>에는月<sup>월급</sup>給<sup>급</sup>업서親手<sup>친수</sup>로作<sup>작공</sup>工<sup>공부</sup>하야生活<sup>생활</sup>하며方<sup>방언</sup>言<sup>언</sup>을工<sup>공부</sup>夫<sup>부</sup>하야傳道<sup>전도</sup>하겟노라하나

傳道會<sup>전도회</sup>에서는船費<sup>선비</sup>가完<sup>완전</sup>全<sup>전</sup>히성간後<sup>후</sup>에야보내기로作<sup>작명</sup>定<sup>명</sup>하더라

印度國에到着함

그러나其<sup>그</sup>夫人<sup>부인</sup>이가기를願<sup>원</sup>치아니하니此<sup>이</sup>는길이遙<sup>요원</sup>遠<sup>원</sup>하고어려움을세림이러니其<sup>그</sup>後<sup>후</sup>  
에船價<sup>선가</sup>가準<sup>준비</sup>備<sup>비</sup>되여發程<sup>발정</sup>하게되나夫人<sup>부인</sup>은如<sup>여전</sup>前<sup>전</sup>히가기를슬허하즉不<sup>부득</sup>得<sup>이</sup>己<sup>기</sup>혼자가려고

南 指 學 神

地圖를 만드러各國에信치아니하는百姓이얼마나되는지알아서壁上地圖에記錄

하고每日祈禱하기를어셔쉬히世上에예수밋을機會를주옵쇼셔하여多年間이러케

祈禱하더라그러나아직은自己가부름님은줄은알기前이오其間에할수있는대로預

備하엿스니其預備는學校에서工夫는하지못하엿스나겨를잇는대로冊을만히보고

여러가지學文을研究하시라그러나艱難中에教會에서와學校에서받는月給이

너너지못하매謙遜心으로使徒와又치親히手으로일하야生活하니事業은卽靴工

이러라

該教會가온디一人이잇스니도마스라印度國에가서장스로든녀은人인디前에인도

百姓의生活形便과宗教의不完全함과서로싸호는것과여러가지行爲가不足함을보

고스스로思하디더기반다시福音을傳하야其百姓이救援을엇으리라흔지라其人

이本國에도라와서캐리의게말흔즉캐리는더욱싱각하기를우리英國信者들이不可

不힘써外國地境에傳道함이올타하고其後에여러牧師가모히는會中에서캐리가數

일컬케리傳



내게 할 여달 나 할 었는디 지음 只 수는 하는 님 석서 목수 牧師를 불러서 보내 시려 할 시니 우리 吾儕가 막

을 수 업 슬 썬 더 러 우리 我等도 수고 受苦 할 야 연보 捐補로 도 아 드 리 는 거 시 합당 合當 할 다 할 나 그 러 나 교 該教

會 가 회 艱難 할 야 만 히 연보 捐補 할 지 못 할 니 라 처음 初에 개 리 가 인도국 印度國에 연교수 宣教師로 가 는 거 슌 갑 작

이 가 려 할 거 시 아 니 라 여리히동안위 多年間爲 할 야 기도 祈禱 할 고 힘 썼 스 니 그 가 려 고 할 는 목적 目的은 사람 人 들 이

예 수 를 밋 어 야 구원 救援을 얻을 得 할 거 시 오 밋지 信치 아 니 할 면 도 모 지 구원 救援을 얻을 得 할 수 업 슌 파 또 로 마

十 장 章十四節과 결 又 처 예 수 의 복음 福音을 뜻지 아니 할 고 는 밋을 得 할 수 업 고 구원 救援을 얻을 得 할 수 업 는 줄

알 아 전도 傳道 할 기 를 작명 作定 할 흥 에서 성경 是 성 경 는 니 라

선교준비시대  
宣敎準備時代

그 럼 으 로 가 가 전 前에 여리히동안 多年間 겨 를 잇는 대 로 교회 敎會업 는 다른나라형편 他國形便을 조세 仔細히 연구 研究 할 었 는 디

冊 에 서 상고 詳考 할 썬 아 니 라 비타 乘船 할 고 든 녀 사람 本人의 게 도 탐지 探知 할 야 각국 各國地勢氣候와 민정 民情風

俗 과 속 諸形便을 다 알 게 되 었 스 니 이거스 此는 조집 듯기 만 할 것 아 니 오 기록 抄集 할 야 기록 記錄 할 것 도 잇 고 또

神 學 指 南

時에 한 리웃 사람 隣人의 言는 말이 牧師가 되어 도말 잘 하 고 有力한 牧師가 되리라 하 더 라 일 렴

캐리가 다른 사람도 引導하 야 및게 하 였거 니와 特別히 제 家族을 잘 引導하 야 및게 하 지

라 誰던 지 예수를 爲하 야 도 혼 일을 하 려 하 면 自己의 家族과 리웃 사람도 잘 引導하 여

야 漸漸 他人의 引導 能力이 成기 리라 一七八三年에 그 나히 二十三歲라 알네 浸禮

教會에 入教 하 였는 디 該教會의 牧師는 섯을 립써 라 一七八六年에 教會 일 보 기를 始作

하 였는 디 助事 模樣으로 물던 이라 하 는 洞里에서 일을 보 앓스 나 該教會는 弱하 야

별노 月給을 發給히 업스 니 恤수 업서 其 洞里學校의 教師일 지 兼하 야 보 니라 一七九

一年에 다른 洞里 할비네인에서 教會 牧師가 되 니 教會는 쉬히 旺盛하 야 未久에 教人이

前보다 倍나 되 지라 거 괴서 每月에 一次씩 祈禱會로 聚集時에 特別히 다른 地境에 傳道

하는 事業이 旺盛하 기를 爲하 야 教人들 노 더 브리 祈禱하 더 니 其後에 캐리가 外國에 宣

教師로 가 기를 作定 後에 該教人들이 말하 기를 가 실 썩 아니 라 우리 가 돈 사 지 捐補하

야 보 내 겠다 하 며 또 言하 기를 吾儕는 許久 間하 는 님의 祈禱하 기를 外國에 宣教師를 보

修슈養양을 받은 것도 별 노업스되窮궁究구하는心심과 알고저하는 마음 이만 하우어 서던지 할수  
 있는대로學비혼지라少年소년時節시절에靴工신으로職業직업을삼아四面수면으로든닐식敬虔경전함이  
 別별로업고敎人교인을辱욕하는事일도或혹있섯더니一七七九年년其年그나히十九歲時에心심이全은히變변하  
 야예수를밧고新새人사람이되여善事도를하기始시작과하니이러케改過遷善기하되됨은其同業者  
 一호人사람의勤勉면함을드름과또는聖經성경을잘마르치고註釋주석을잘내는牧師목사스곳도의講道강도를  
 드름으로말미암음이라

입교 형편  
入敎호形便

밧고悔改회기하였스나家族가족과他人다른사람이다캐리의心심과行實행실곳침을밧지아니함으로困難어려움  
 이만더니次次차례其父母그부모의게許諾허락을밧아家族가족祈禱기도를하게되여서캐리가引導인도호지라二  
 十歲時에其隣家그니웃집에모히는敎人교인들의게가서祈禱기도를引導인도하고聖經성경을講說강설호는디모히  
 人사람들이다그호는말을貴重귀중히드르며캐리로서將來장래에牧師목사되리라고斟酌검각호더니其

윌럼, 캐리 傳

神學及哲學博士

裴緯良牧師 著述

윌로바 교에 형편  
歐羅巴 教會 形便

數百年 동안에 윌로바 教會에 事가 만하는지라 內政에 奔走하야 他國으로 宣教師를 派  
 送하기를 겨를 하지 못하신편 더러 其時에 設或 宣教師를 派送하려 할지라도 他國人이 오  
 기를 許諾하지 아니하니 그 緣으로 宣教師를 外國에 派送하는 일을 許久 間하지 못하고 近  
 世에야 百五十年 前부터 비로소 敢히 派送하기를 始作하였는디 其中에 처음 나아가  
 서 有名하게 일한 者는 卽 윌럼, 캐리니라

소년 시대  
少年時代

윌럼, 캐리는 英國 노릇(北) 함던 郡 블널스 버리 城에서 一七六一年 八月 十七  
 日에 出生하였는디 其父母가 艱難함으로 윌럼이 幼時부터 工夫도 잘 못하고 또 特別호

인류선조 인간의 인간 一子가 身偶致傷 영구 할지라 天神이 相約 영구 할지라 汝子의 傷處를 汝가 療養 영구 할지라 全  
 人類先祖의 一子가 身偶致傷 할지라 天神이 相約 할지라 汝子의 傷處를 汝가 療養 할지라 全  
 癒케 하던 人間에 死亡이 永久히 侵犯 영구 치 못하리라 하였더니 兩親의 救護 영구 함이 稍疎 영구 하야  
 그 효력을 잊지 其効를 奏치 못하매 其罰 영구 노 慘慼의 死亡 영구 을 先當 영구 하고 人生은 必死 영구 之境에 入하니라

(馬來土話)

마우이는 一大英雄 영웅 인디 其子가 洗禮 영웅 受할時를 際하야 父親된 義務 영웅 를 守치 아니하고 宗  
 교의식 영웅 몇부분 영웅 소략 敎儀式의 幾分을 疎略케 할지라 此는 不祥 영웅 不幸의 原因이 되어 該時 영웅 지 死 영웅 치 안던 人生  
 은 死亡 영웅 을 免치 못하게 되었느니라 (뉴실난드神話)

天神이 世界 영웅 를 翺造 영웅 할시 數日 영웅 을 費了 영웅 하고 第七日 영웅 에 到達 영웅 하야 塵灰 영웅 로 人類 영웅 를 始造 영웅 하였  
 더니 其裔 영웅 가 作惡 영웅 함으로 大洪水 영웅 를 四十日 영웅 間 繼續 영웅 하야 最高 영웅 한 山頂 영웅 이 十五 영웅 千 영웅 피트 영웅 나 深  
 浸 영웅 하매 生物 영웅 이 幾滅 영웅 하니라 (中古 영웅 에 유대人 영웅 이 漂着 영웅 하야 傳來 영웅 한 說話 영웅 인지) (南洋土話)

(未完)

數<sup>슈</sup>호<sup>호</sup>鳥嶼<sup>섬</sup>를<sup>를</sup>成<sup>을</sup>하<sup>일</sup>니라  
(폴니네시아天地開闢說)

最高<sup>가장높은</sup>호<sup>호</sup>天神<sup>신</sup>바<sup>바</sup>데<sup>데</sup>아<sup>아</sup>는<sup>는</sup>顔面<sup>얼굴</sup>左右<sup>좌우</sup>에<sup>에</sup>各<sup>각</sup>々<sup>々</sup>一<sup>한</sup>眼式<sup>눈식</sup>잇<sup>잇</sup>스<sup>스</sup>니<sup>니</sup>其<sup>그</sup>一<sup>하나</sup>은<sup>은</sup>上<sup>상</sup>界<sup>계</sup>에<sup>에</sup>照<sup>빛</sup>耀<sup>최</sup>호<sup>호</sup>매<sup>매</sup>人<sup>인</sup>間<sup>간</sup>界<sup>계</sup>

에서<sup>에서</sup>는<sup>는</sup>太陽<sup>태양</sup>이라<sup>이라</sup>稱<sup>칭</sup>호<sup>호</sup>고<sup>고</sup>其<sup>그</sup>一<sup>하나</sup>은<sup>은</sup>下<sup>하</sup>界<sup>계</sup>에<sup>에</sup>照<sup>빛</sup>耀<sup>최</sup>호<sup>호</sup>매<sup>매</sup>人<sup>인</sup>間<sup>간</sup>界<sup>계</sup>에서<sup>에서</sup>는<sup>는</sup>太<sup>태</sup>陰<sup>음</sup>이라<sup>이라</sup>謂<sup>닐</sup>호<sup>호</sup>니<sup>니</sup>同<sup>동</sup>時<sup>시</sup>

에<sup>에</sup>兩<sup>두</sup>眼<sup>눈</sup>을<sup>을</sup>俱<sup>구</sup>見<sup>보</sup>호<sup>호</sup>니<sup>니</sup>라  
(東폴니네시아古話)

라<sup>라</sup>네<sup>네</sup>마<sup>마</sup>프<sup>프</sup>타<sup>타</sup>樹<sup>나무</sup>는<sup>는</sup>植<sup>식</sup>物<sup>물</sup>의<sup>의</sup>先<sup>선</sup>祖<sup>조</sup>인<sup>인</sup>디<sup>디</sup>天<sup>천</sup>地<sup>지</sup>開<sup>개</sup>闢<sup>척</sup>初<sup>초</sup>에<sup>에</sup>天<sup>천</sup>地<sup>지</sup>가<sup>가</sup>甚<sup>정</sup>히<sup>히</sup>接<sup>접</sup>近<sup>근</sup>호<sup>호</sup>야<sup>야</sup>距<sup>거</sup>離<sup>리</sup>가<sup>가</sup>無<sup>일</sup>幾<sup>무</sup>디<sup>디</sup>

니<sup>니</sup>此<sup>이</sup>樹<sup>나무</sup>가<sup>가</sup>其<sup>그</sup>間<sup>사이</sup>에<sup>에</sup>生<sup>성</sup>호<sup>호</sup>야<sup>야</sup>多<sup>다</sup>大<sup>대</sup>호<sup>호</sup>困<sup>곤</sup>難<sup>난</sup>을<sup>을</sup>凌<sup>업</sup>호<sup>호</sup>고<sup>고</sup>漸<sup>점</sup>次<sup>차</sup>로<sup>로</sup>向<sup>향</sup>天<sup>천</sup>生<sup>성</sup>長<sup>장</sup>호<sup>호</sup>니<sup>니</sup>天<sup>천</sup>地<sup>지</sup>之<sup>의</sup>間<sup>사이</sup>에<sup>에</sup>人<sup>인</sup>類<sup>류</sup>

가<sup>가</sup>安<sup>안</sup>居<sup>거</sup>호<sup>호</sup>니<sup>니</sup>天<sup>천</sup>神<sup>신</sup>은<sup>은</sup>人<sup>인</sup>의<sup>의</sup>居<sup>거</sup>所<sup>소</sup>와<sup>와</sup>自<sup>자</sup>遠<sup>연</sup>호<sup>호</sup>여<sup>여</sup>졌<sup>졌</sup>디<sup>디</sup>라  
(뉴실난드世界樹說)

人<sup>인</sup>生<sup>성</sup>의<sup>의</sup>祖<sup>조</sup>先<sup>상</sup>되<sup>되</sup>는<sup>는</sup>最<sup>최</sup>初<sup>초</sup>의<sup>의</sup>夫<sup>부</sup>婦<sup>부</sup>는<sup>는</sup>美<sup>미</sup>好<sup>호</sup>호<sup>호</sup>園<sup>동산</sup>內<sup>안</sup>에<sup>에</sup>居<sup>거</sup>生<sup>성</sup>호<sup>호</sup>니<sup>니</sup>迪<sup>디</sup>樹<sup>수</sup>木<sup>목</sup>이<sup>이</sup>繁<sup>번</sup>茂<sup>성</sup>호<sup>호</sup>지<sup>지</sup>라<sup>라</sup>就<sup>그</sup>中<sup>중</sup>一<sup>한</sup>

樹<sup>나무</sup>에<sup>에</sup>蝙蝠<sup>박쥐</sup>이<sup>이</sup>靜<sup>가</sup>住<sup>만</sup>호<sup>호</sup>고<sup>고</sup>로<sup>로</sup>天<sup>천</sup>神<sup>신</sup>이<sup>이</sup>此<sup>이</sup>二<sup>두</sup>人<sup>사람</sup>을<sup>을</sup>此<sup>이</sup>樹<sup>나무</sup>에<sup>에</sup>近<sup>근</sup>接<sup>접</sup>호<sup>호</sup>를<sup>을</sup>嚴<sup>엄</sup>禁<sup>금</sup>호<sup>호</sup>여<sup>여</sup>디<sup>디</sup>니<sup>니</sup>一<sup>하</sup>日<sup>로</sup>은<sup>은</sup>婦<sup>부</sup>人<sup>인</sup>

이<sup>이</sup>枯<sup>마</sup>薪<sup>나</sup>을<sup>을</sup>速<sup>속</sup>拾<sup>히</sup>호<sup>호</sup>기<sup>기</sup>爲<sup>위</sup>호<sup>호</sup>야<sup>야</sup>樹<sup>나무</sup>에<sup>에</sup>接<sup>접</sup>近<sup>근</sup>호<sup>호</sup>즉<sup>즉</sup>蝙蝠<sup>박쥐</sup>이<sup>이</sup>忽<sup>갑</sup>焉<sup>작</sup>飛<sup>날</sup>去<sup>나</sup>호<sup>호</sup>는<sup>는</sup>지<sup>지</sup>라<sup>라</sup>此<sup>이</sup>時<sup>때</sup>로<sup>로</sup>브<sup>브</sup>디<sup>디</sup>天<sup>천</sup>神<sup>신</sup>

의<sup>의</sup>訓<sup>훈</sup>誠<sup>계</sup>을<sup>을</sup>違<sup>위</sup>逆<sup>역</sup>호<sup>호</sup>此<sup>이</sup>二<sup>두</sup>人<sup>사람</sup>과<sup>과</sup>及<sup>및</sup>其<sup>그</sup>後<sup>후</sup>裔<sup>에</sup>가<sup>가</sup>必<sup>필</sup>死<sup>스</sup>의<sup>의</sup>神<sup>신</sup>罰<sup>벌</sup>을<sup>을</sup>皆<sup>다</sup>受<sup>맞</sup>호<sup>호</sup>니<sup>니</sup>라

(멜네네시아古傳)

늘마누가其言을 卽從하야 大船을豫造하더니 七日이纔過하매 洪水가果來하느니라

七名哲人과 禹의乘船하고 巨魚를憶念하니 其魚가 卽時泳來하느니라 一大角이 낫는지

라마누가船의繩으로 其角에繫縛하니 洪水는滔々하야 漲地호지 數年에生物이悉皆

溺沒이나 巨魚가 其船을北便으로護導하야 하마라야山頂에繫留하코 마누의게謂曰

我는브라마神이라 魚形을假借하야 汝의仁愛를試하코 汝의生命을救하엿스니 自今

以後로는 一切衆生된人畜과 神鬼가 皆汝로써 父를作호리라 我도此約을永守하야 如

此히騷亂호 洪水의慘患이復無케하리라 (마하파라다詩)

五、南洋土人神話

세계의 最初는 天과 海만 잇고 地가 없더니 天神당골나가 一片의 土塊를 天으로 브러 下

墮하야 凝集膨脹하야 漸次大地를成하엿스나 巨陸만 纔顯호지라 更히 一條의 絲線을

天으로 서 下垂하야 海底의地를 鈎擧하야 鈎出하다가 絲가 中斷하야 풀니네 시아의 無

하날 트러서 凝集膨脹하야 漸次大地를成하엿스나 巨陸만 纔顯호지라 更히 一條의 絲線을

神 學 指 南

잡과 일명 나라 언던 만물 탁탁 속살 파괴자  
 (溼婆一名은那羅延天)는萬物을剝落하고肅殺하는破壞者라 (三一新說) 신설

인류중 최초 죽은자  
 人類中에最初로死하는者는얍마(閻魔)니世界人生의通行할直路를尋求하다가渡河

인덕에올은후 신 죽는세계 주판 황  
 登岸後에얍마神이되어死界를主管하는王이되니라 (웨다)

아들 마노 큰나라를스스로정령 위세 날노성 성덕 군왕  
 와이와스와다의子마누(摩努)는大國을自領하여威勢가日盛한聖德의君王이요敬

전호현철 어려은형실 괴로운형실 날노더 돌노사우 호로는 장가 한마리  
 虔의賢哲이라難行과苦行이日増하고月積하더니一日은와리니河岸에서一尾의

큰고기 큰고기 못길을넘어 도아랏나 연후 취 큰병 기르  
 小魚가大魚의게被逐하야오다가求助함을보고憐恤히녀여取하야大瓶에蓄養하디

초초장대 못술 파서 옮겨기로 향하 다시음기 뒤중에큰바다 노하주 그코기  
 니漸次長大하매鑿池하야移養하고恒河에更遷하엿다가終乃大海에任放하니其魚

파다에드러갈새 고 내 구조 환 피 삼운잇 이제  
 가入海時에마누의게告하디我が君의救助함으로말미암아患을避하야得生하고今

또성장 다시탐멸 근성이업스 은혜 벗기어려운 고 이제흔일을고  
 且成長하야更히吞滅할憂가無하니恩誼를忘키難하리라故로今에一大事를告하리

불인간 홀 큰 홍슈 큰독법람 대소성물 다멸 망 그대는큰비호를쳐올  
 라不遠間에一大洪水가條爾汎濫하야大小生物이悉皆殲滅하리니君은巨船一艘을

미러지어서당첨할사됨침명 할씨타 홍슈 피 인류 멸멸 방비 또호성명잇는물진  
 預造하야哲人七名과共乘하고洪水를避하야人類의絶滅함을防備하고且有命物の

각종류 유성물 각종 이녀 다실은후 나 성자 내 그덕을구하야내  
 各類와有生物의各種을此船에俱載後에我를憶念하라我が君을救出하리라하거



왕의게서 생호고로 死後에도 波復歸海호고 葉落還根호고 又치브라마의게 返本

할뿐이며 또 二神을 雙生하니 一은 아니 (Ani) 인디 火神이 되야 萬物을 溫育호고 群生

을 愛護호며 一은 인드라 (Indra) 인디 天空의 王이 오 雨雲의 師요 軍兵의 神이니 皆讚頌

호고 祈禱호 尊神이라 (웨다論師說) 인디 困果의 間은 摩醯首羅天 (마하

因은 梵天의 由來호고 果는 那羅延天으로 以成호며 困果의 間은 摩醯首羅天 (마하

수라 Mahasura 太陽) 으로 말미암아 保護함을 얻으니 一體三分의 神이라 三界中에 有命

無命과 有情無情의 一切物이 摩醯首羅天으로 由生하니 其頭는 爲蒼空호고 其身은 爲

大地호고 其目은 爲日호고 其心은 爲月호며 尿爲河海호고 糞爲山嶽호며 呼吸은 爲風

호고 體溫은 爲火호며 腹中 諸蟲은 一切衆生으로 化호고 罪之福之는 諸般職業을 制定

하니라 (摩醯首羅論師說) 삼천대천 세계 최존 신 셋시

三千大千世界에 最尊호 神은 三이니 브라마는 萬物을 産出호고 生成케호는 創造者요

위스누 (Vishnu) (偉世努) 一名 摩醯首羅天) 은 萬物을 維持支配호는 保存者요 시와 (Siva)

위세로 일명은 마헤슈라던 만물 유지 지배 보존자 창조자

四、印度古代神話

업는거시화  
 無가化하야有가되고有가化하야爲卵홀식化之始也에는水而已러니黃金色의宇宙  
 알 물우 씨있다  
 卵이水上에颺浮라가漸次兩分하니其中에서萬有創造之大神이化生하코巨神의身  
 몸은곳 세계 근원  
 體는即世界の起源인디其頭爲天하고其足爲地하며其眼은爲日하고其心은爲月하  
 며呼吸은爲空氣하고肢體는生國民하니四級의人民이口腕腹脚으로由出하니라  
 호흡 공기 가 되 지에 국민은 생 네계급 위성 입 팔 위 다리 말의 앞 아 뒷

(릭웨다)

태초 나라 연던  
 太初에那羅延天의臍中에서大蓮花가生하코其蓮花에서梵天王이(婆羅麻、브라마  
 Brahma)生하야萬物의本源이된지라一切有命無命의物을짓고其口에서는婆羅門(브  
 생 만물 근원 일결성명이잇고성명이업는물진 근입 파 라 문)

라관Brahman祭司僧侶祭司長)이生하고兩臂中에서는刹第利(그사드리야 Kshatriya  
 제스승려제스장 비사 두 팔가온디 찬메리)

왕후무스(가생하고兩脾間에서는毘舍(와이시야 Vaisya 農商平民)가생하고兩脚  
 성 성 두 팔아사이 비사 농상 평민 두 다리)

의跟에서는首陀(수드라 Sudra 職工僕隸)가생하니衆生이브라마(婆羅麻)코梵天  
 발의곳지 슈타 직공과노복 중성 파 라 마 법연)

鳴尊명준이根國근국에被逐춏거하였다가出雲출운에潛渡가만히 건너하여國神老翁媪국신로옹은의一少女호소녀가大蛇큰뱀의게거의

被吞삼키게된呑을보고所帶면마十握십악의劔검으로誅蛇비암을버리고녀제의게장가들娶女비암의하고蛇尾호명에서一名劔검을얻으니<sub>叢</sub>

雲劔운검이라此이를兄尊형준의게獻上헌상하니라(日本書記)

伊奘冊尊이장책준은人間인간의母神모신으로人類인류의裨益유익을爲위하여火之夜화지야藝速男神예속남신(火神)화신을生생하고

身신體데가爛傷만상하여遂드디어病死병드러죽하니此이는人間인간死亡사망의始시작라身體신데는雖死비록죽나其靈그영혼은永存영존하니

라伊奘諾尊이장락준이左眼좌연을洗씻할時때에日神일신이生생하고右眼우연을洗씻할時때에月神월신이生생하고其氣息그숨쉬는

에서風神풍신이化生화생하여伊奘冊尊이장책준이病臥병와時시에其尿그에서土神토신이生생하고其尿그노에서水神수신이

生생하며保食神보식신이被殺죽임되리其頭그머리에서는蠶누에이生생하고目눈에서는稻벼가生생하고耳귀에서는粟서곡

이生생하고鼻코에서는小豆콩가生생하고尻엉덩이에서는大豆콩가生생하고腹下비아리에서는麥보리가이生생하였스

며火雷神화의신은昇天승천하였느니라(神統紀, 舊記)

神學指南

대일령존

성

광화명처

소방

빛

최

나

최이존

대희

일

하니 大日靈尊이 생하미 光華明彩가 四方에 照耀하는지라 諾冊二尊이 大喜하야 曰

「吾子雖衆이나 如此靈異함은 姑未有지라 天에 送하야 天事를 司하리라 하고」 次에 月

讀尊도 光彩가 亞日이라 하호 天에 送하호고 素蓋明尊은 勇悍不仁하호고 殘忍無道하야 祭

祀神事를 褻瀆하호며 農耕人業을 沮防하호는 等八條天罪를 犯하미 千坐置戶를 科하야 其

髮를 切하호며 其瓜를 拔하호고 根國에 黜謫하호시 發程之際에 兄尊이 暫謁을 請求하호디니 所

爲不恭하호故로 大日靈尊이 憤怒莫勝하호야 天石窟에 入하호야 盤戶를 閉鎖하호고 其內에 幽

居하호니 六合이 常闇하호고 四時가 不分이라

高皇產靈神이 八十萬神을 天安河原에 齊會하호고 虔誠으로 祈禱하호고 鼓樂으로 歌舞하호

니 大日靈尊이 聞而異之하호야 開戶窺視하호時에 手力雄神으로 其外에 隱在하호엿다가 其

扉를 引開하호고 神殿에 還御케 하호미 天地가 明朗하호야 衆俱相見하호니 面地明白이라 各伸

其手하호고 舞蹈且歌하호디 「아나面白」이라 하호며 素蓋鳴尊을 問罪放逐하호고 其所犯天罪

를 國內에서 淨潔케 하호기 爲하호야 大祓의 祭를 設行하호야 祝禱의 文으로 謝告하호니라 素蓋

古代神話

六五

二、日本古代神話

最初<sup>민처음 고대원</sup>高天原<sup>삼주존신</sup>에 三柱尊神<sup>홀노화하야스스로잇섯</sup>이 獨化自在<sup>다음은 고허산령신</sup>하엿스니 一은 天御中主神<sup>다음은 고허산령신</sup>이 오 次는 高皇產靈神<sup>다음은 고허산령신</sup>

이 次<sup>다음은 신황산령신</sup>는 神皇產靈神<sup>다독성</sup>이니 皆特生<sup>독신</sup>호 獨神<sup>독신</sup>이 오 隱身<sup>은신</sup>하야 無形<sup>형상이업는지 삼신</sup>이라 三神<sup>런디</sup>이 天地<sup>창조</sup>를 創造<sup>창조</sup>

홀시 混沌<sup>혼돈</sup>함이 浮脂<sup>뜨기름과 추사</sup>와 恰似<sup>포유</sup>하 고 颯遊<sup>희할</sup>함이 海月<sup>방사</sup>과 彷彿<sup>중</sup>하 中<sup>위</sup>에 葦牙<sup>又호모양</sup>의 同樣<sup>명동</sup>으로 萌騰<sup>명동</sup>하

야 可美<sup>가미</sup>葦牙<sup>위아</sup>彦舅<sup>아은 구신</sup>神<sup>성</sup>이 生<sup>생</sup>하 고 天之常立<sup>연지상립신</sup>神<sup>성</sup>이 又<sup>또</sup>生<sup>생</sup>하 니 皆獨神<sup>다독신</sup>인 디 以上<sup>이상</sup>五神<sup>오신</sup>을 總<sup>총</sup>히 別<sup>별</sup>

天神<sup>런신</sup>이라 稱<sup>칭</sup>하 니 라 (特生<sup>특성</sup>은 스스로 生<sup>생</sup>하 엿다 함이 오 獨神<sup>독신</sup>은 皆<sup>다</sup>이 業<sup>업</sup>단 뜻시 라)

(古事記)

別天神<sup>별런신</sup>外<sup>외</sup>에 獨神<sup>독신</sup>二<sup>이</sup>代<sup>대</sup>와 偶神<sup>우신</sup> (偶神<sup>우신</sup>이라 함은 倣<sup>우</sup>잇는 신이라 뜻) 五代<sup>오대</sup>가 又<sup>또</sup>有<sup>잇</sup>하 니 此<sup>이</sup>

는 天神<sup>런신</sup>의 七<sup>칠</sup>代<sup>대</sup>라 七<sup>칠</sup>代<sup>대</sup>中<sup>중</sup>에 最末<sup>최마</sup>偶神<sup>우신</sup>은 伊奘諾尊<sup>이장락존</sup>과 伊奘冊尊<sup>이장책존</sup>이라 二<sup>이</sup>尊<sup>존</sup>이 天御中主神<sup>런어중주신</sup>

의 所授<sup>준바</sup>와 所命<sup>명호바</sup>으로 國土<sup>국토</sup>를 生<sup>생</sup>成<sup>성</sup>하 고 海陸山川<sup>해육산천</sup>과 金石草木<sup>금석초목</sup>을 分司<sup>분히</sup>하 혼 夥多<sup>만호모든신</sup>諸神<sup>산출</sup>을 產出<sup>산출</sup>

하 고 天下<sup>연하</sup>에 君王<sup>군왕</sup>될 神<sup>신</sup>을 定<sup>정</sup>코 저 하야 大日靈尊<sup>대일령존</sup> (天照大神<sup>연조대신</sup>) 과 月讀尊<sup>월독존</sup> 과 素盞鳴尊<sup>소산명존</sup>을 生<sup>생</sup>

神 學 指 南

頭鐵額두철익이며呼風喚雨호풍환우고起雲作霧기운작무하니威振天下위진천하라天帝천제가玄女현녀를식혀兵信병신과(군

스의신호)神符신부(神의兵符)를黃帝황제의게주니黃帝황제가蚩尤치우를이기고帝位제위에在잇호지百

年년에白日昇天백일승천하니라(舊記)

天神천신의大者큰자는其名그이름이有三셋하니一은昊天上帝호연상제인디卽耀魄寶곧요벽보一은天皇大帝천황대제一은

大乙대을이며其佐그종노이는五帝오제니東方동방에는靑帝청제威靈仰위령앙이요南方남방에는赤帝적제赤熒怒적염포노一은西方서방에는

白帝백제白招拒백초거요北方북방에는黑帝흑제計光紀계광기요中央중앙에는黃帝황제舍樞紐함추뉴라(五經通義)

歷代皇帝력대황제는天子천자라稱칭하야犧牲희성으로郊社교사에서上帝상제祭祀제사하니라(禮記, 史記)

人類인류의此世이세상에存존은暫寄잠간보치하旅舍이노리사와又고後世후세로死去죽어함은永歸영원히도라하故鄉고향이니라(古史)

無極무극이太極태극을낳코太極태극이兩儀양의(陰陽) 낳코兩儀양의가萬物만물을나흐니太極태극이란거슨一

而三이로되셋이요三而一셋이되하나이라(前律曆志, 周易)

反復其道그길을반복하에七日칠일이來復다시오은天의行이러하야閭巷俗習리향에속습지祭祀齋戒제사제계와醫藥針灸의약침구가七

數수의儀度의도를多用만히쓰하니라(周易, 風俗考)

年紀述異記、三五曆紀

其後에 有巢氏는 巢居 實食하며 燧人氏는 鑽木 起火하고 伏羲氏는 蛇身 人首로 皮革의

옷을 지었으며 嫁娶의 禮를 立았니라 (史記)

天地初開에 人民이 未有러니 女媧氏가 黃土를 搏았으며 人을 造았다가 劇務不暇하며 繩

을 泥中에 引舉하며 造았니 搏土의 人은 榮達賢肖의 祖가 되고 引繩의 人은 貧窮凡庸의

祖가 되니라 (風俗通)

工共氏가 祝融氏와 親戚인디 互相不和하며 大戰하며 未勝하디니 不周山을 頭로써 觸하

야 天柱가 絶하며 地維가 缺하니 穹裂하며 雨注하느니라 女媧氏 (노아의 轉音)이 아닌

가)가 五色石을 鍊하며 天을 補하니라 (史要、易問)

炎帝神農氏는 人身 牛首로 耒耜를 지어 農耕法을 敎하고 花草를 嘗으며 醫藥을 定하

고 黃帝軒轅氏는 天數를 察하며 曆書와 六甲을 지으며 七日을 齋하며 井泉을 開하고 物

理에 應하며 機器를 造았고 蚩尤란 者가 있서 兄弟八十一人인디 皆獸身 人語요 銅

호비평. 전. 드리고  
一 評件을供코져호는이다

지나 옛 신화  
一 支那古代神話

元氣가鴻濛하고天地가混沌하야鷄子와恰如하더니萌芽가茲始하야天地가開闢하

고乾坤이肇立하며元氣가分布하고陰陽이啓感하며中和가是朶하야一人이首生하

니其名이盤古라神天聖地하야一日九變하고天은日高一丈하며地는日厚一丈하며

盤古는日長一丈하야一萬人千歲를經하니天數가極高하고地數가極深하야相距가

九萬里를隔하고盤古는極長하야垂死化身하니氣는風雲이되고聲은雷霆이되며眼

目은日月이되고喜怒는晴陰함이되며肢體는山嶽이되고血液은江海가되며筋脈은

地里가되고肌肉은田土가되며髮髭는星辰이되고皮毛는草木이되며齒骨은金石이

되코精髓는珠玉이되며體의流汗은空에散하야雨澤을成하고身의寄蟲은風에感하

야黎氓을化하엿스며後에三皇이有하니數가一에서起하야三에立함이라(五運曆

神 學 指 南

古代神話





南 指 學 神

世所謂聖經者概有數焉세상에서 성경이라 하는 것이 대개 몇 가지 있스나儒敎의經書와佛敎의經典과道敎의道德經과回々敎

의고란經이거시是也라倫理와政治와修道는것과敬神는거시有則殆有之나然이나

有滓而不純하고多缺而未完하야正鵠을難望하고直路를莫尋이라吾儕信徒는舊新

兩約에서眞理를曉得하니榮主로爲的하야希望이確如하고信主로爲路하야指導가

瞭然하니아一各敎經傳과諸族神話가自然히來朝歸降하야猗美正經의完璧寶筏

됨을爭相獻賀하느도다서로맛도아하리

各敎經傳과諸族神話를涉獵參考하니世人의先祖가大陸中央된西亞細亞에居生하

며長壽하느父祖의게始祖의遺傳과垂訓을聽得하며憶念하다가忽爾바벨의言語滯

混음을(창一〇)遭遇하야東亞南北으로分散蔓延하야成村建國하고設制立法하

며其子若孫의게前事祖訓을傳言遺戒하매大小長短의話差가自生하고錯訛荒誕

의語點이不無하나其中에可取할條項과可考할事理가頗多하니假令眞神의三位一

體와太初의空虛混沌과世界の由神創造와記數의七字重要와(창一〇)人類

古代神話

五九

古代神話 (고티신화)

神學徒 蔡弼近 著述

一、緒論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의롭고 극히 귀하고 극히 보배로운 구신 양약  
至 聖 至 義 至 極 貴 極 寶 舊 新 兩 約 은 하는 님의 은혜로 주신 勅 旨 人 類 의 當

행 할 본 분 이며 세계의 유일 일 력 스 유 리 고 막 와 셔 두 다 리 망 막 밧 최  
行 本 分 이 며 세 계 의 唯 一 一 歷 史 로 吾 人 의 鼓 膜 을 來 叩 하 며 網 膜 에 照 映 하 니 아 一 吾

人 의 耳 目 은 果 是 有 福 耳 目 이 로 다  
人 類 로 萬 物 을 主 管 活 用 케 하 심 브 터 得 贖 享 樂 케 하 심 스 지 無 非 하 는 님 의 慈 愛 하 신 勅

인 류 만 물 주 관 하 고 쓰 게 속 官 官 엇 고 曷 을 누 리 게 무 비 자 이 無 非 하 는 님 의 慈 愛 하 신 勅

旨 시 며 하 는 님 의 訓 誡 를 恪 守 順 從 케 하 심 브 터 同 胞 를 相 愛 扶 助 케 하 심 스 지 無  
旨 시 며 하 는 님 의 訓 誡 를 恪 守 順 從 케 하 심 브 터 同 胞 를 相 愛 扶 助 케 하 심 스 지 無

非 人 類 의 義 務 의 本 分 이 며 萬 物 을 權 能 으 로 創 造 運 用 하 심 브 터 公 義 로 審 判 裁 決 하  
非 人 類 의 義 務 의 本 分 이 며 萬 物 을 權 能 으 로 創 造 運 用 하 심 브 터 公 義 로 審 判 裁 決 하

심 스 지 無 非 世 界 의 眞 正 歷 史 로 創 世 記 에 서 始 하 야 默 示 錄 에 止 하 니 아 一 創 造 以 前  
심 스 지 無 非 世 界 의 眞 正 歷 史 로 創 世 記 에 서 始 하 야 默 示 錄 에 止 하 니 아 一 創 造 以 前

의 事 를 記 述 者 有 誰 며 審 判 以 後 의 蹟 을 言 論 者 其 熟 知  
의 事 를 記 述 者 有 誰 며 審 判 以 後 의 蹟 을 言 論 者 其 熟 知



아니 할 것 아니라

(五) 양을 棄(브)는 것(엿)다 고 讒(참)訴(소)함 삼상十七〇 廿八 野(들)에 있는 두어 양을 誰(누)가 맛(뵈)는 냐

할 것 고 요 十四〇 十八에 예수 되셔 離(뉘)실 時(때)에 弟(제)子(자)의 言(말)을 시기를 我(내)가 爾(너)等(들)을 離(뉘)

야 孤(나)獨(의)한 子(아)가 又(다) 棄(브)치 아니 할 것 고 爾(너)等(들)의 會(회)로 臨(림)하리라 할 것 스니 吾(우)儕(제)牧(목)者(자)의 羊(양)

은 此(이)世(세)上(상)諸(모)人(인)中(중)에 數(두)個(어) 羊(양) 孌(우)라 도 吾(우)儕(제)의 牧(목)者(자)가 自(자)己(기) 羊(양)을 棄(브)는 것(엿)다 고 言(말)할 수

無(없)는 것(아)니라

(六) 다윗이 群(무리)衆(들)을 募(모)集(집)함 삼상二十二〇 二에 聚(모)集(집)人(인)이 三(세)種(가지)形(형)便(편)인 디 患(환)難(난) 맛(뵈)는

者(자)와 負(빚)債(진)者(자)와 心(마음)이 不(불)平(평)한 者(자)라 然(그)리나 다윗이 引(인)導(도)하는 대로 彼(더)等(들)이 勇(용)士(사)가 되여

다윗의 國(나라)을 立(세)우고 다윗을 保(보)護(호)하며 其(그)後(후)에 管(관)理(리)한 것 又(다) 末(마)막 三〇 十二, 三言(말)을 본

즉 主(주) 되셔 十(십)二(이)人(인)을 擇(선택)하샤 恒(항)常(상)自(자)己(기)와 同(동)在(재)하섯는 디 主(주)님의 教(교)訓(훈)을 신대로 彼(더)

等(들)이 하느님의 國(나라)을 立(세)우고 保(보)護(호)하는 者(자)들이 되었는 디 彼(더)等(들)의 事(사)役(역)은 使(사)徒(도)行(행)傳(전)

이 아니라

孫손이여我나를矜恤불쌍히녀이쇼셔我女내 딸가凶惡악한히邪鬼악마가들녓는이다又十七〇十五言말씀

대로一人한 사람이曰말하여我子내 아들를憐恤불쌍히녀이쇼셔言말씀스니此二穉羊이 두 양을魔鬼악마의手손에서

救援구원言말씀섯는니라卅十二〇十八言말씀을본즉예수씨서會堂회당에서病병든女人녀인一名한 사람을醫치

言말씀後후에言말씀하시기를此女人이 녀인은사단의게繫연하바된지十八年십팔년이라言말씀섯스니其時그 때

에도아브라함의子孫자손을醫치言말씀심으로써自己羊言자기 양나를救援구원言말씀섯는니라

삼상十七〇言말씀대로불내셋人들의代表대표者자된골니앗은이스라엘百姓백성의大仇敵큰 원수이

라다윗은獨혼자히나가서仇敵원수을討滅치벌言말씀고勝捷승리한것又다치吾主우리 주예수씨셔도갓세마네

園동산에서自己자기혼자吾儕우리를爲위하야久陳오래된仇敵원수魔鬼악마를克服이言말씀섯는니라

(四) 侮辱모욕을受받음 삼상十七〇廿八言말씀대로다윗은戰場전장에出往나時長아兄나엘니압은다

윗이羊양을棄버고戰爭싸움觀光구경言말씀러와다고侮辱모욕言말씀섯스나다윗은實실노父親부친의命명령을

依의지하야兄弟형들의問安문안言말씀러간거시라고又다치五十三〇三에彼더는人사람의의게蔑視멸시

를받고厭棄슬피하바되였다言말씀섯고요七〇五一七보면其그의同生동생이라도예수를信믿치

主에수님의類範

주장  
계主掌하시리라

(二) 注油함을受함 기름부음 받음 삼상十六〇十三 삼우엘은사울의繼續함을擇하랴고이새

의家로往時에나윳의美妙함을보고注油하기를作定하였더니여호와께서

하시기를人은外貌를取하나我는中心을보노라함심으로삼우엘이羊치는다윳

을擇하신者로알았느니라다윳이注油함을받은後에여호와와의神의感動함을受

함것又치hing十〇卅八言대로베드로言하기를하느니라사렛예수의계聖神과

權能으로注油하듯하셨다하였스니예수께서自己羊을칠때에全天地에王노릇

하시기爲하야聖神으로注油함을受하셨느니라

(三) 羊의仇讎를克함 양 원수 이김 삼상十七〇卅六에「僕이獅子와熊을들다죽였다」하였스

니다윳이父親의羊을칠때에兩次釋羊을仇敵의手에서救援함것又치예수께서

此世上에在할時에自己釋羊을兩次이나吼는獅子又흔魔鬼의게서救援함

신事가有하니가十五〇卅一에가사안女人함이來하야言하기를나와서말하





(七) 寢지 못함

창 三十一〇 四十에

「夜이면 寒氣가 我를 凍게 하엿다」 하엿스니 夜

間 寒時에는 寢지 못하 지도 못하 면서 羊을 保護 하 것 又 치 마 十四〇 廿三 六〇 十二에

수 외 서 山으로 往하 사 祈禱 하 실 시 終夜 도 록 하 는 尼 必 祈禱 하 셧 스 니 如 斯 히 祈禱

하 심 으 로 弟 子 와 羊 된 吾 儕 를 救 援 하 셧 스 니 라

(八) 忍 耐 함

창 三十三〇 十三에 「牛 와 羊 이 다 乳 먹 이 는 거 시 라 萬 一 夕 日 만 셧 니 물

면 諸 群 이 盡 斃 하 리 라 하 고 第 一 軟 弱 한 羔 羊 의 形 便 을 思 하 야 作 定 하 것 又 치 서 四

十〇 十一에 「主 는 牧 者 又 치 羊 의 무 리 를 먹 이 시 고 臂 로 羈 羊 을 모 화 懷 에 抱 하 시 며

乳 먹 이 는 牝 羊 을 잘 引 導 하 시 리 로 다」

(九) 個 人 的 保 護

시 二十三〇 一에 「主 必 서 我 의 牧 者 시 니 我 의 게 不 足 함 이 업 스 리

로 다」 요 十〇 三에 其 羊 의 名 을 各 々 呼 호 다 하 엿 스 니 此 는 各 羊 의 不 足 함 과 過 失

거 슬 善 知 하 시 는 거 시 니 라

(十) 憐 愛 함

시 二十三〇 二에 我 로 하 여 吾 乎 른 草 田 에 臥 케 하 시 며 羊 을 잘 쉬 게 하

○十二言대로「我내가 주신人中에 一人이라 도滅亡치아니 하엿스나 오직滅亡멸망호를 지

息식만 失일흔 거슨 聖經言을 應응하 게 흠이 니이다」요十〇廿八言대로「彼等머희가 영원

滅亡치아니 할터이 오또 我手에서 奪세홀者가 업느니라」然그러이 나羊을 保護보호호시

는 中에 엇지 傷상함이 多만흔 지오 被釘手로 吾儕를 保護보호호실時에 諸般勞苦와 困難을

當당하섯스니 吾儕가 疑心의심업시 信믿호를 하시니라

(五) 警경醒성함 창三十一〇四十에 我의 事情이 如斯이러하니 晝夜受苦밤낮수고호며 羊을 保護보호호

것又치시百廿一〇三에 「爾를 守지호는者가 眠잠치아니 하시리라」하엿고又七에

「여호와 씨서 爾를 守지호샤 諸禍를 遭遇모든화 만나치안케 하사 리로다

(六) 飢渴기갈함 창三十一〇四十一「暑熱이 我를 쫓인다」하엿스니 夏節盛暑에 牧者가

渴목케된 것又치 요四〇六七에 예수 씨서 路를 가시매 困곤호샤 井邊에 坐우물호심...

...: 길의 사디 水를 少賜하라 하섯고 요十九〇廿八에 예수 씨서 十字架에 釘死호

실時에 我가 渴하다 하섯느니라

거시라 (요 10:14) 하셨는니라

(三) 慾을 制함 창 31:10 卅八 當身羊群에 수컷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하니 萬

一慾心을 좇는人 又하면 他人의 羊이라 고 利를 得으랴 할터이나 야곱은 自己羊으

로 알고 조곰도 利를 取하지 아니한 것 又치 我等의 大牧者는 此世에 幾실 동안에 其

弟子로 말미암아 有益한 事를 一次도 取하지 아니하셨는니라 假令 요 18:11

言대로 예수께서 베드로로 더불어 謂하시되 劔을 鞘에 收드라 父께서 주신 杯를 내가

지 飲하지 아니하겠는나 하시니라

(四) 羊의 關한 害를 自己가 擔當함 창 31:10 卅九 野獸의 傷한 害를 내가 當

身의 害들니지 안코 내가 其害를 當하였스며 盜賊마진 거슨 勿論 晝에 마졌던 夜

에 마졌던 當身이 我的 害를 內지라 하였스니 我等의 大牧者께서 羊을 保

護하시는 中에 何害를 받던지 困苦함을 當하지라도 少毫도 稱怨함이 업섯는니라

야곱이 害를 當한 거슨 할수 업시 野獸의 害나 盜賊의 害 羊을 失하였는니라 요 17

二、야곱은 大牧者 큰 목자

(一) 井邊에서 흐른 물 우물 事 일 창二十九〇—一十 야곱의 개關한 야척음記錄한 거슨 이거시

나라헬의父의羊을牧時에야곱이井에서羊의 개水를飲한 일이라 예수씨서

사마리아井邊에坐한 여자인 女의 개生水를 주시며全城人의 개도生水를 주신 거슬

생각 성자 思할 수 있는 니라 此事는 예수씨서 職務를始作할 때에 신事이니라

(二) 責任 책임 창三十一〇卅八—四十一 我가 當身과 同居한 지 二十年에 當身羊과 山羊

의 암젓이 胎를 啞러트리지 아니한 것과 이 此와 如히 我가 當身의 家에 居한

지 二十年이 되었습니라 : : : : :」

此言을 보고 思할 즉 牧者가 晝夜로 受苦한 것과 羊을 何如케 保護한 거슬 알 수 있는

나 其羊은 自己羊이 아니나 自己羊으로 녀이고 잘 願護한 야척안도 록 用力한 것

又 我等의 善한 牧者의 言이 「我는 善한 牧者니 我도 我羊을 알고 羊도 我를 아는

主 예수님의 類範

고 爾의 後孫과 女人의 後孫으로 仇讎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가인의 게 言하시기를

萬若爾가 善을 行하면 悅納함을 被치 아니하겠느냐 하시섯스나 가인이 善을 行치 아니

하고 도로혀 善을 惡한 거슨 其弟를 죽임으로 顯露한 거시라 마二十三〇卅五―七에

彼等이 하느님을 善知하고 事하노라 自稱되 恒常憎惡함으로 乃終에 善한 牧者를

殺하였느니라 창四〇十言대로 아벨이 死後에 自己血이 發聲하야 地로 브터 我

呼訴하였다 하심 又 치히 十二〇廿四言은 新約의 中 保되신 예수와 冥灑한 바 血이 言

하는 거슨 아벨의 血이 言하는 것보다 尤勝하니라 此言은 何言인고 하니 아벨의 血

은 하느님 앞에 報讎하여 달나느 聲이요 吾主 예수 그리스도의 血은 罪를 蔽하여 달나

는 聲音인 故로 가인은 自己罪를 自服지 아니하고 रो하는 罪를 離할 수 外에 無한 것

스나 예수 血을 흘니게 한 罪를 自服하고 悔改하면 其 血功勞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近히 入往할 수 있는 니라 羊을 爲하야 生命을 棄한 신我等의 善한 牧者가 自己의 모든

羊(하느님의 教會)을 天圈(天堂)에 入往케 하시느니라

하는<sup>의인</sup>님압헤<sup>의인</sup>義人은<sup>의인</sup>如何<sup>의인</sup>호인<sup>의인</sup>인고<sup>의인</sup>하시<sup>의인</sup>하는<sup>의인</sup>님을<sup>의인</sup>밋고<sup>의인</sup>心을<sup>의인</sup>盡<sup>의인</sup>하야<sup>의인</sup>順從<sup>의인</sup>하는<sup>의인</sup>人인<sup>의인</sup>디

아벨도<sup>의인</sup>잘<sup>의인</sup>밋고<sup>의인</sup>順從<sup>의인</sup>하시<sup>의인</sup>스니<sup>의인</sup>其<sup>의인</sup>證據<sup>의인</sup>를<sup>의인</sup>보<sup>의인</sup>건<sup>의인</sup>디<sup>의인</sup>一은<sup>의인</sup>羊<sup>의인</sup>을<sup>의인</sup>잡<sup>의인</sup>아<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씨<sup>의인</sup>드<sup>의인</sup>렸<sup>의인</sup>스니<sup>의인</sup>此<sup>의인</sup>

는<sup>의인</sup>自己<sup>의인</sup>가<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前<sup>의인</sup>에<sup>의인</sup>罪人<sup>의인</sup>인<sup>의인</sup>줄<sup>의인</sup>覺悟<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緣故<sup>의인</sup>요<sup>의인</sup>二는<sup>의인</sup>如<sup>의인</sup>斯<sup>의인</sup>히<sup>의인</sup>祭<sup>의인</sup>祀<sup>의인</sup>드<sup>의인</sup>리<sup>의인</sup>는<sup>의인</sup>거<sup>의인</sup>시<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

을<sup>의인</sup>敬畏<sup>의인</sup>하시<sup>의인</sup>는<sup>의인</sup>디<sup>의인</sup>宜當<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줄<sup>의인</sup>알<sup>의인</sup>았<sup>의인</sup>고<sup>의인</sup>二은<sup>의인</sup>初生<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羊<sup>의인</sup>을<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씨<sup>의인</sup>드<sup>의인</sup>린<sup>의인</sup>거<sup>의인</sup>슨<sup>의인</sup>自己<sup>의인</sup>牧養<sup>의인</sup>하시<sup>의인</sup>

羊<sup>의인</sup>이<sup>의인</sup>皆<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의<sup>의인</sup>物<sup>의인</sup>件<sup>의인</sup>인<sup>의인</sup>줄<sup>의인</sup>覺悟<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이<sup>의인</sup>로<sup>의인</sup>다

아벨이<sup>의인</sup>證據<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거<sup>의인</sup>슨<sup>의인</sup>我<sup>의인</sup>는<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의<sup>의인</sup>거<sup>의인</sup>시<sup>의인</sup>오<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은<sup>의인</sup>我<sup>의인</sup>의<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이<sup>의인</sup>라<sup>의인</sup>함<sup>의인</sup>으로<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

씨<sup>의인</sup>저<sup>의인</sup>義人<sup>의인</sup>으로<sup>의인</sup>定<sup>의인</sup>하시<sup>의인</sup>는<sup>의인</sup>니<sup>의인</sup>라

我<sup>의인</sup>等<sup>의인</sup>의<sup>의인</sup>善<sup>의인</sup>호<sup>의인</sup>牧者<sup>의인</sup>씨<sup>의인</sup>저<sup>의인</sup>十<sup>의인</sup>字<sup>의인</sup>架<sup>의인</sup>에<sup>의인</sup>못<sup>의인</sup>박<sup>의인</sup>혀<sup>의인</sup>계<sup>의인</sup>실<sup>의인</sup>時<sup>의인</sup>에<sup>의인</sup>傍<sup>의인</sup>立<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百<sup>의인</sup>夫<sup>의인</sup>長<sup>의인</sup>의<sup>의인</sup>證據<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言<sup>의인</sup>을

보<sup>의인</sup>컨<sup>의인</sup>디<sup>의인</sup>此<sup>의인</sup>는<sup>의인</sup>丁<sup>의인</sup>寧<sup>의인</sup>義人<sup>의인</sup>이<sup>의인</sup>로<sup>의인</sup>다<sup>의인</sup>하<sup>의인</sup>고<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아<sup>의인</sup>바<sup>의인</sup>지<sup>의인</sup>씨<sup>의인</sup>저<sup>의인</sup>此<sup>의인</sup>는<sup>의인</sup>我<sup>의인</sup>의<sup>의인</sup>愛<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子<sup>의인</sup>요<sup>의인</sup>我<sup>의인</sup>의<sup>의인</sup>悅

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者<sup>의인</sup>라<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니<sup>의인</sup>라

아벨의<sup>의인</sup>憎惡<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受<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거<sup>의인</sup>슬<sup>의인</sup>잘<sup>의인</sup>覺悟<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나<sup>의인</sup>하<sup>의인</sup>면<sup>의인</sup>창<sup>의인</sup>四<sup>의인</sup>〇<sup>의인</sup>言<sup>의인</sup>을<sup>의인</sup>參<sup>의인</sup>考<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거<sup>의인</sup>시<sup>의인</sup>라<sup>의인</sup>가<sup>의인</sup>인<sup>의인</sup>은<sup>의인</sup>蛇<sup>의인</sup>의

後孫<sup>의인</sup>과<sup>의인</sup>如<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디<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님<sup>의인</sup>씨<sup>의인</sup>저<sup>의인</sup>蛇<sup>의인</sup>의<sup>의인</sup>게<sup>의인</sup>하<sup>의인</sup>는<sup>의인</sup>신<sup>의인</sup>말<sup>의인</sup>씀<sup>의인</sup>은<sup>의인</sup>我<sup>의인</sup>가<sup>의인</sup>爾<sup>의인</sup>로<sup>의인</sup>하<sup>의인</sup>여<sup>의인</sup>吾<sup>의인</sup>女<sup>의인</sup>人<sup>의인</sup>과<sup>의인</sup>仇讎<sup>의인</sup>가<sup>의인</sup>되<sup>의인</sup>게

보좌 寶座가 온디 개신 羔羊이 彼等의 牧者가 된다 하였는니라

아벨이 예수의 類範된 것 二個가 有한디

一은 正實노 類範된 것과 二는 反對로 類範된 거시라

正實노 類範된 거슨 兄의 手에 殺함을 受함이 오 反對로 된 거슨 羊을 爲하야 死치아니

한 거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自己百姓의 手에 死하섯스니 自己地에 와도 待接지아니

하였는니라 此는 自己羊이 危殆한 中에 在함으로 救援하기 爲하야 死하섯는니라

아벨은 本性을 因하야 죽었다 고 할수 잇는디 제가 完全한 心으로 하는 님을 依하고 順

從함으로 쓰시는 님을 背反하고 順從치아니 하는 兄의 게 위움을 밧앗스니 新約言을

詳考하야 보면 善한 牧者인 줄 可히 알지니라 마二十三〇卅五에는 義人 아벨이라 하

였고 히十一〇四에는 아벨은 義로운 者라 하신 證據를 엿었다 하였고 一요三〇十二

에는 兄이 何故로 죽였는뇨 自己行한 事는 惡하고 其弟의 行한 事는 義로움이니라 하

였는니라

五、예수님의類範된牧者 아벨과 야곱과 다윗이라

주 예수 씨 對<sup>디</sup>야 牧者<sup>목자</sup>로 크게 친 特別<sup>특별</sup>한 言<sup>말</sup>은 二條<sup>삼조</sup>인디

一、요 十 〇 十一 我<sup>나</sup>는 善<sup>선</sup>한 牧者<sup>목자</sup>니 善<sup>선</sup>한 牧者<sup>목자</sup>는 羊<sup>양</sup>을 爲<sup>위</sup>야 生命<sup>생명</sup>을 棄<sup>버</sup>린

二、히 十三 〇 廿 羊<sup>양</sup>의 大牧者<sup>큰목자</sup>되신 吾主<sup>우리주</sup> 예수 ……………

三、벧전 四 〇 四 牧者<sup>목자</sup>長<sup>장</sup>이 顯現<sup>나타나</sup>時<sup>때</sup>에 ……………

然<sup>그런</sup>則<sup>주</sup> 吾<sup>우리</sup> 儕<sup>사</sup>가 以<sup>위</sup>上<sup>에</sup> 言<sup>말</sup>을 特別<sup>특별</sup>히 解<sup>해</sup>釋<sup>석</sup>할 터이면 아벨은 善<sup>선</sup>한 牧者<sup>목자</sup>의 類範<sup>그림자</sup>이 요야 哥<sup>큰</sup>은 大牧<sup>목</sup>

者<sup>자</sup>의 類範<sup>그림자</sup>이 요다 빛은 牧者<sup>목자</sup>長<sup>장</sup>의 類範<sup>그림자</sup>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니라

一、아벨은 善<sup>선</sup>한 牧者<sup>목자</sup>라

牧者<sup>목자</sup> 노릇은 舊約<sup>구약</sup>에 첫번 記錄<sup>기록</sup>은 事<sup>사업</sup>業<sup>업</sup>인디 창 四 〇 二 에 아벨은 羊<sup>양</sup>을 치는 者<sup>자</sup>되였다

였스나 或<sup>혹</sup> 아벨의 行<sup>행</sup>事<sup>사</sup>에 實<sup>실</sup>狀<sup>상</sup>을 思<sup>생</sup>하 기 爲<sup>위</sup>야 記錄<sup>기록</sup>한 言<sup>말</sup>인 가 하 노라 哥 七 〇 十七 에

주 예수님의類範



은나모밋헤 바위자이 은신  
 是樹蔭이나巖石間에隱身호엿다가羊이나或他獸가過去호을時에捕食호는니此  
 은우리 뜻밖괴시험  
 是吾儕가意外에試驗을當호는거슬그림호거시라然이나吾主씨서敬虔호는者를  
 시험 시험 전저내  
 試驗에서拯出호신다호엿는니니라(벧전二〇九)

(五) 犬이니 시廿二〇十六,二十 此는諸仇讎와逼迫호는거슨犬과又다호말습  
 이거슨모든원수  
 此는諸仇讎와逼迫호는거슨犬과又다호말습

인디吾儕의善호牧者씨서는逼迫호는中이라도保護호는니라  
 우리 선 목자  
 人디吾儕의善호牧者씨서는逼迫호는中이라도保護호는니라

(六) 盜賊이니 요十〇一 此는善호牧者의羊을盜賊호기도호며또호牧者씨지라  
 도적 이거슨선 목자  
 此는善호牧者의羊을盜賊호기도호며또호牧者씨지라

도업시호고저호는자니今日이라도十字架의功勞를虛無타호기도호고善호牧  
 오날 십자가 공로 허무  
 道業시호고저호는자니今日이라도十字架의功勞를虛無타호기도호고善호牧

者의票를無케호야自己의羊을삼으려호는者가卽盜賊이니라  
 조 표 업서 조괴 양  
 者의票를無케호야自己의羊을삼으려호는者가卽盜賊이니라

右에論說호諸物이皆吾儕의仇敵이되는데萬一吾儕가自心에不足호거시나  
 우 론설 모든거시다우리 원수가 만일 우리 마음  
 右에論說호諸物이皆吾儕의仇敵이되는데萬一吾儕가自心에不足호거시나

不善호思想이有호면皆此仇敵의造作인줄알고곳善호牧者씨付托호야不足호  
 불선 생각 잇스 다이원수 조작 선 목자 부탁 부족  
 不善호思想이有호면皆此仇敵의造作인줄알고곳善호牧者씨付托호야不足호

거시나不善호거시업게호여달나고求호거시니라  
 불선  
 거시나不善호거시업게호여달나고求호거시니라

# 四、牧者목자의 危險物위험물이라

(一) 獅子수조니 삼상十七〇卅四、아모스三〇十二

(二) 熊곰이니 삼상十七〇卅四此二種獸는 魔鬼의 惡行악행을 그림호거시니 벵견

五〇八에 爾等의 對敵 魔鬼가 吼獅와 又 吞噬者를 查는 다호엿스니 故로 魔鬼는

實실노 吾儕의 仇敵이라 智慧와 能力이 만한者인디 牧者가 恒常 警醒호야 智慧롭게

保護호지 아니호면 羊양된 吾儕들이 魔鬼의 害삼킨바가 되어 滅亡호지니라

(三) 狼일회이니 엠五〇六、요十〇十二에 狼은 世俗과 又 흔거시라 羊양이 牧者를 離호며

草場도 離호면 惡毒호 狼의 害 滅亡함을 밧는 니라 如斯히 吾儕도 世俗으로 由호야

聖호 牧者를 離호며 眞理中에 잇지 아니호면 惡魔의 害 滅亡호지니라

(四) 豹虎표범이니 엠五〇六에 林間에서 나온 豹虎가 其城邑을 窺視호다호엿스니 此獸

主에 수님의 類範

옛스니 假令 雇軍은 牧者와 反對로 羊을 守하다가 危急한 地境을 當하면 自身으로  
 만 避하거니와 牧者는 急한 地境이나 危殆한 形便을 當하여 도 生命을 惜지 아니하  
 고 羊을 保護하느니 吾儕의 善한 牧者씩셔도 己羊을 保護하거니와 吾儕의 善한 牧者씩셔도 自身으로  
 守하느니라

(九) 黃昏에 圈內에 入去케 할거시니 尤十〇九에 我是 即門이니 誰던지 我로 由

항야 入하면 救援할엇으리라 하엿스니 此는 牧者가 羊을 圈內에 두고 保護하느니 矣

시니라 大概 牧者가 夜에 羊을 保護하거니와 爲야 石牆으로 圈을 造하고 또 第一 狹

窄한 門을 開후 後에 羊을 盡入케 하고 牧者는 自身으로 門을 防遮하고 經夜하느니

故로 圈內에 있는 羊이라 도 牧者를 업시하고 야나 올수있고 盜賊이나 猛獸라도 牧

者를 업시하고 야 侵入할수 있는 나라이와 又치 吾儕의 善한 牧者씩셔도 自身으로

吾儕를 保護하느니라

(六) 양 羊을 計數을 거시니 卅七〇卅二에 무릇 牛群이나 양群의 十一條는 杖下

로 通過하는 第十羊마다 여호와의 區別하여 貢獻을 거시라 하였고 卅七〇卅七에

言도 此와 如히 自己百姓을 自己의 杖으로 計數하겠다 하였는니라 유대 牧者들이

恒常 羊을 計할 때 杖下로 通過하는 第十羊마다 靑點을 票하였다가 하는 祭物

노 獻하는 風俗이 有하니 如斯히 吾儕의 牧者되신 主께서 自己羊의 價票를 씩어서

詳識하시느니라

(七) 양 羊을 手下로 通過케 할 거시니 卅三〇十三에 양群이다 시 調查하는 者의

手下로 通過하리라 하였스니 此는 牧者가 羊을 調查할 때에 己手로 親히 屈指하면

서 調査하는 거시라 吾儕의 善한 牧者는 自己羊을 調査하기 위하야 手를 十字架上

에 親히 못박히셨느니라

(八) 보호 할 거시라 요十〇十一에 善한 牧者가 羊을 爲하야 生命을 棄하였다



(六) 清密이니 蜜 시百十九〇百三과 소十九〇十一에 主의 言이 我舌에 엇지 단지

蜜이 我舌에 甘味보다 더하느이다 하엿스니 此는 牧者가 恒常清蜜을 持하고 든니

다가 或時羊이 毒草를 먹고 病이나면 牧者가 清蜜을 먹여 살니는 거시라 吾儕中에

도 毒草와 又은 僞理致나 惡은 道理로 病이 날 때에는 必是하느님의 言으로야 治療

하고 蘇生함을 望을 수 있느니라

### 三、牧者의 職務니

羊은 自意로 잘든닐 수도 업고 仇敵의 侵害를 防禦할 수

도 업스며 芳草인는 處를 尋得할 수도 업는고로 牧者는 特別히 羊을 對하야 行할 事가

만흔 中에 次第로 思하건디

(一) 先導할 것 요 十〇四 其羊을 呼出後에 前往하면 其羊이 追從하느거시라 하

엿스니 此는 牧者가 每日早朝에 羊圈에서 屣느서 草場으로 引導하느거시라 如斯

히 吾儕도 每日早朝에 吾身을 能力만 하신 善한 牧者의 貢獻하야 隨從할 거시니

(三) 網牌니 (팔미) 물미 삼상十七〇四十에 손 手에 網牌를 가지고...라 하엿스니

此網牌는 이 물미 羊을 양 害하 회 라하는 仇敵을 원수 討滅하 치멸 기爲하야 위 使用하 소용 는거신디 網牌쓰는力 물미

은하느님을 의지 依하 의지 고밋는거시니라

(四) 携杖이니 막디 서廿三〇四에 막디 杖가나를 안위 安慰하시는이다 하엿스니 此牧 어

者의 자 杖은 막디는 양 羊의 총수 總數를 해아리 計檢하 해아리 는거시오 또 양 且羊을 지휘 指揮하 지휘 는막디라 如斯히 이와 杖이 차 杖이 막디 란거

스하느님의 인도 말씀이라 우리 吾儕가 악호길 惡路로나 뒤역 悖逆호 길 노형 路로行하 뒤역 라 할때에 하느님의 말씀 말씀

으로 인도 導하 인도 심을 말씀 밧을수잇는니라

(五) 帳幕이니 장막 雅歌書一〇八에 목자 牧者들이 장막 帳幕側에 서서 佇立하 서서 엿다 하엿스니 此는 어

牧者가 목자 往來時에 잠간류 暫時留하 잠간류 는處라요 一〇十四 말씀 말씀을 본문 唎나 바로 本文으로 번역 直譯하 말씀 면言

이 육신 肉身이 우리 我等中 장막 帳幕內에 거 居하 거 엿다하니 此는 이 예수 몸 수의 자 身이 장막 自己의 장막 帳幕이 되 엿다 하음이라





# 주에수님의類範

(주에수님의그림자)

故조르저, 솔다우牧師 著述

文學々士 蘇悅道 牧師 翻譯

舊約을보는中에예수그리스도의신일과吾儕의가相關된거슬愈益明白히覺得할

수잇는디고전十〇六言과又치그러호사가吾儕의前鑑이되엿다호는말씀은이스라

엘百姓이累次當호는事實을敎示호엿고또호히九〇八言도此와如호스스로記錄호는言

이라舊約中에여러牧者노릇호는人物들은特別히예수그리스도의類範으로되엿스니

此를詳考호는여블지니라

## 一、牧者라

목자 養을치 자 양 치는증성중 메일 자라도업 지능도업셔미 절 아저  
牧者는牧羊호는者요羊은家畜中에第一無知覺호고無才能호야己의棲所도不

知호는動物이라聖經言中에此世間人生이하는님과相關된거슬分明히覺醒키爲

南 指 學 神

만人사람 천근을 親近친근히 하야 扶助부조하섯고 예수씨셔 許諾허락하신 聖神성신은 永遠영원히 同在함께하시느 聖神성신이  
 시니 요 14 〇 16 에 「我나가 父아버지씨 求구하겟스니 父아버지씨셔 또 他保惠師다른보혜사를 爾等너희의 代대 遣보내하야 永  
 遠영원토록 同在함께하시리니」 하섯느니라 (一)는 聖神성신來臨타림하실 目的목적을 教訓교훈하심이니 (甲) 요  
 14 〇 16 18 을 보면 保惠師보혜사 오심이 예수 오심과 如또하느니 예수씨셔 近갓가히 계심을 알아  
 慰勞위로를 得얻게 하느니라 然則그런즉 예수를 아느거든 聖神성신 밧은 證據증거도 다 (乙) 요 14 〇 16 을  
 본즉 예수씨셔 弟子예수의 代대하신 言말씀을 다 記憶기억케 하심이니 (丙) 요 15 〇 16 을 보면 예수를  
 證據증거하심이니 (丁) 요 16 〇 7 14 을 보면 罪죄와 義의와 審判심판으로 世세상上상을 責책망하심이라 然則그런즉  
 吾儕우리가 慰勞위로를 得얻으며 예수의 言말씀을 記憶기억하며 예수를 알아 責望책망을 밧아 警醒경성할 거사 皆다 聖  
 神성신이셔 來臨타림하신 功공力력이니라

惠師혜스되심과 如유치히 하섯도 다 헬나 方言방언에 바라글네도 (PARAKLETOS) 라는 말을 요한 福복

音음에 保惠師보혜스라 翻譯번역하 고 요일서 二〇 一 에 代言者대언자라 翻譯번역하엿스니 聖神성신은 我等우리의 保惠보혜

師스도 되고 代言者대언자도 되느니라

2、眞理진리의 神신이라 요 十六 〇 十三 眞理진리의 聖神성신이 至니르하면 모든 眞理진리가온디中중으로 爾等너희들을 引導인도

하리니」 하섯스니 眞理진리를 立세우하신 聖神성신이 시오 眞理진리인 聖神성신이 시오 眞理진리中중으로 引導인도

하시느 聖神성신이 시오 我等우리들中중에 眞理진리를 成일우하시느 聖神성신이 되시느니라

3、聖神성신이라 此名이름은 聖神성신의 本性본성을 指마르친함도 되고 聖神성신의 感化감화하심 如何엇디함을 指마르친함도

되느니라

예수씨셔 弟子제자의 聖神성신을 對대하야 特別특별히 言말하신 것 二條두가지가 有잇스하니 (一)은 聖神성신來臨러림할 거

슬 許諾허락하심이라 예수씨셔 오시기 前전에도 聖神성신이 此世이 세상에 無업흔 거서 아 니 創창一〇 二 에

「하느님의 神신이 水물上우에 運動운동하시더라」 하엿고 諸先知者모든 선지자가 聖神성신으로 言말하엿다 하엿고

여러 가지 事일에 聖神성신이 關관계되섯느니라 然그러이나 舊約時代구약시대에는 聖神성신이 特別특별히 事일에

神 學 指 南

말씀  
 言이외다(丙) 10518 에 聖神과 聖神의 權能으로 大事를 許諾을 하섯도다 聖神  
 을 指하야 或하는 神이라 하시고 或爾父의 神이라고도 하섯스며 或 聖神이라고도  
 하섯스니 하는 神이라 하심은 權能이란 名稱이요 爾父의 神이라 하심은 我等  
 을 保護하시고 親愛하시고 扶助하신 단 名稱이요 聖神이라 하심은 我等을 聖潔케 하신  
 다는 名稱이니라

(二) 特別敎訓이라 함은 最後逾越節에 門徒의 敎訓하심이니 敎訓中에 三個特別  
 形便이 有하니라 (一)은 特別한 人의 게 하신 敎訓이니 弟子의 게 라도 유다 無할 時를 싸라

교훈  
 敎訓하심이요 (二)는 特別한 時에 하신 敎訓이니 自己의 게 十字架가 臨迫하고 弟子들이

근심  
 憂憫할 時에 하신 敎訓이요 (三)은 特別한 境遇에 하신 敎訓이니 聖神의 名을 三種으로 稱

관계  
 에 關係되신 境遇에서 敎訓하심이라 弟子의 게 敎訓하실 때에 聖神의 名을 三種으로 稱

하섯스니

1. 保惠師라요 十四 0 十六에 他保惠師를 遺하야 自己가 世上에 在할 時에 弟子의 保

保惠師라요 十四 0 十六에 他保惠師를 遺하야 自己가 世上에 在할 時에 弟子의 保

3. 聖神이 예수하신事와關係됨을敎訓하심이니 (一)은 마十二〇卅七-卅二을보면예

수되서 聖神을賴하야事를하섯다하엿고 (二)는 눅十二〇 四十九을보면 내가火를地에

投하러와노라하섯스니 此火는 聖神이라 清潔케하능력이有함을謂함이요또눅十

二〇 五十을보면예수死하심을當하야 火와如한 聖神을送하리라하섯느니라 (三)은

막十二〇卅六,卅七 에다윗이 聖神으로예수를證據하엿다하섯스니 聖神은또한예수

는누구시며何事行하실거슬證據하시느神이로다

4. 聖神이예수의弟子와關係됨을敎訓하심이라 (一)은마十〇卅막十二〇十二 눅十二

〇 十二을본즉 聖神이예수弟子의말을敎하갓다하섯고 (二)는復活하신後에敎訓

하신말이有하니 (甲)막十六〇十六 및고洗禮를받는人은救援을得할거시오밋지안는

사름은罪을定하리라」하섯스니 此는 聖神洗禮를受하라하심시오 (乙)요二十〇 廿二

「此言을하시고彼等을向하야氣를嘘하며曰爾等은 聖神을受하라」하섯느니라 然이

나눅二十四〇 四十九 을본즉其時로곳 聖神을받는거시아니라 尙호 聖神을受하라는

南 指 學 神

1、聖神이 天國과 關係됨을 敎訓하심이니 요 三〇五 「예수 答하샤 디 眞實노 眞實노 爾謂하노니 水와 聖神으로 生치아니 하면 天國에 入往치 못하느니」 하섯스나 此는

니고 데모가 眞實호心誠으로 온고 로 예수씨셔 亦是奧妙호 理致로 敎訓하심이라 사람이

天國에 入하려면 悔改의 水洗禮를 受할뿐아니라 聖神으로 重生함을 엿느거시 必要하

니라 요 三〇八에 風과 같다 하섯스니 聖神의 運動을 볼수도 있고 其能力을 賴하느者로

由하야 行하시는 事를 볼수잇스나 其裏面作用은 知기 難하니라

2、聖神이 吾儕箇人과 關係됨을 敎訓하심이니 (一)은 요 四〇十四에 「我가 주는 水를 飲

하느人은 永遠히 渴하지아니 하리니 我가 주는 水가 其裏에서 泉이 되여 永生하도 록 湧

出하리라」 하시고 七〇卅八, 九에 其水는 聖神이라 하니 水가 吾儕의 渴함을 止케 함과

如히 聖神씨셔 吾儕의 쓸거슬 豐足케 하다 하심이요 (二)는 요 七〇卅七, 九을 본즉 「聖神

이 其腹에서 生水가 되여 江又 流하리라」 하섯스니 吾儕가 他人의 게 治足호 有益을

주려 하면 聖神을 받는 거시 一策이 외다



에十五次와누가福音에二十六次나自稱人子라하시고其外에요한福音에도十次로  
人子라自稱하심이라 예수께서吾人과關係됨을知코저하면各福音中에人子라自稱  
하신本義를詳玩홀지로다  
본뜻을 자세히 볼

(二)世上에 오심을對하야敎訓하심  
세상에

1. 오신主意니福音마다一例를들건디마九〇十三王되신예수께서罪人을召하러  
주의 복음 일례

오심이오막十〇四十五僕되신예수께서事하러오심이오눅十九〇十人되신예수께서  
일흔자 마흔구인 중

失者를尋하야救援하러오심이오요三〇十三四하느님되신예수께서모재가曠  
잃은 자를 찾으려 오심

野에서蛇를舉함又치被舉하러오심이외다  
야에서 뱀을 든 것

2. 其主意를成達하심에對하야思하건디(一)은하느님을對하야法度二가有하  
그 주의 성취

니(一)은順從하심이오눅二〇四十九「我が父家에在하야 쓸줄을不知하시느릿가」(二)  
순종

는同事하심이라요五〇十七「父께서只今까지事를하시매我도事를한다」하섯고(二)  
동수

는人을對하야法度二가잇스니(一)은照臨이오요十二〇四十六「我是光으로世上  
사람 대



二、예수의關係되심을敎訓함심 관계 교훈

1、하느님의子아들되신예수씨서하는님과關係되심이如左함니(一)은性稟이相同함이

라요十〇三十一「我와父는一體니라」함신티유대인들이(三十一—三十三)石을擧함

야예수를치려함였스니此는유대인이예수의하느님과一體라는뜻을覺悟함證據

요또요十四〇九「我를見함인은父를見함엇거늘엇지함야父를見함라함냐」함

섯스며(二)는事를함심이相同함이라요五〇十七「我父씨서只今事를함시매我도

事를함다」함시니유대인들이더욱예수를殺코져함였스니此는예수씨서하는님과

一體라함이로다요五〇廿二「父씨서死人을活케함심又치子도또함고져함는者를活

케함리라」함섯스니此亦하느님의事를自己도行함다함심이라以上數言을詳思함

면예수씨서하는님과關係되심을能知함거시니라

2、人子되신예수씨서人과關係되심이如左함니마대福音에三十二次와마가福音

福音에三十二次와마가福音

神 學 指 南

거시 아니라 아버지 나 나를遣하신 거시니 하셨스니」此는 天使와 如히 天國이나 하는 님  
 의 左右로 從來함이 아니라 直히 하는 님 內로서 出來하셨다 함이 오요 八〇五十八」아브  
 라함이 잇기 전에 내가 在하는 나라」하셨스니 此는 아브라함은 一時的 世人이 어니와  
 自己는 永遠히 存在하시느니라 함심이 오요 十六〇廿八」아버지로 出來하시야 世上에 來하  
 었다가 다시 世上을 떠는 아버지로 歸하노라」하셨스니 此는 自己가 元來 世人이 아닌 거  
 실 說明함심이라 以上 諸言을 細察하면 예수께서 本是 人子가 아니 오하는 님의 子 되심

이 明白하시라

2、人子 되신 예수니 요 九〇四대로 時日의 制限과 눅 四〇四十三대로 處所의 制限과 막

十三〇卅二대로 知識의 制限을 밧으셨스며 또 마 四〇二에 飢함심과 요 四〇六、七에 渴

함심과 막 四〇卅八 寢함심과 눅 九〇五十八에 貧寒과 마 廿六〇卅八에 悲憫과 마 廿六

〇四十 寂寞과 또 四十一에 微弱을 感함심 거슬 보면 人子 되시는 證據가 分明함도 다

다요十〇十七아바지父나석서我를愛사랑하시느거슨我가生命을棄넌하였다가復得다지함이라」하신

此三이 세 뜻의意外에更無다시 없스하시니 아시고事를하시고愛사랑하시느父라고敎訓하심이니라

(二)身分신분으로敎訓하심이라 예수석하느님을對대하야敎訓하실時에右와如히境遇

로도하시고言辭언어로도하섯스나身分으로敎訓하심이 더욱明白명백하도다然그런故로요十

四〇九「我를見나見견인人은父를見사름하엿거늘엇지하야父를보이라하느뇨」하섯스니하

느님을知알고코져하느者는예수를아는거시必要필요하느니라

一一 自己의에關한敎訓

예수의仇敵과親舊가皆예수알기를願원하엿스되自己가何處로從來뜻하호者이며性稟성품이

如何어디호者라는特別問題로順序的說明이엿섯느니라

(一) 예수누구되심을敎訓하심

1, 하느님의子아들되신 예수니요八〇四十二我가하느님씨로出來출하엿노니我가自來자호

神 學 指 南

弟제子자의 개개敎교示시함 신言辭신언사辨변이니라

3、主주라 고稱呼칭호함 심은 예수씨서 舊約구약言말을 引用인용함 심이라 新約신약中중에 있는 主주라 는名이름은 舊約구약에 있는 여호와라 는名이름이니 여호와란義뜻는 自在자유함 시고 自자己기를 顯現나타내함 시는 하느님 이라 함이외다

(二) 言辭언사로 敎訓교훈함 심이라

1、神신이란 稱呼칭호로 敎訓교훈함 심은 요 四〇 卅四 에 「하느님은 神신이시니 禮拜예배함 는者자가 神신

靈령과 眞理진리로 禮拜예배함 지니라」 함 신말씀 一한次번辨이이니 此이는 하느님을 對대함 야 敎訓교훈함 시려

함 이 아니 오하는 神신씨 合當합당함 禮拜예배를 드리라 는말씀과 其그를 某處아모곳에서나 禮拜예배함 수 있다

고 함 신言辭말씀인 디 如斯이와저히 敎訓교훈함 신 中중에 하는 神신씨 敎訓교훈도 自자然연히 包포含함되 었는

니라

2、父아버지라 는 稱呼칭호로 함 신言辭말씀이 許多허다함 나 마 六〇 卅二 에 「此諸物이모든물건을 爾等너희의 天父천부가 爾等너희의

需用수용할 거 신줄 知아시 는니라」 요 五〇 十七 我父우리 아버지가 只저금今일윤씨 지 事일윤를 함 시 매 我나도 事일윤를 함

言은 헬나, 로마, 히브리 三方言이니 此方言으로 하는 님이라 稱呼한 言에 別異한 奧義

가 無하니라

헬나 言으로 하는 님을 데오스 (THEOS 語 幹 데오) 라 하고 로마 言으로 는 데우스 (DEUS 語

幹 데오 신스 그릿 語根 데와 와 와 흠) 라 하니 其義는 懇求와 祭祀를 受할 만 할 者라 할 수

있고 히브리 言으로는 엘노힘 (ELOHIM) 이라 하니 其義는 某解釋者의 意見대로 或強

健者라 할 수 있스나 하는 님이라 는 本義가 무어 신지 以上 三方言을 보아 도 眞的히 아

는 者가 無하니라 하는 님이 果然如何하신 하는 님이라 盡言기 難하외다

父라 稱呼함을 論하면 헬나 方言으로 饋하고 保하고 顧하고 愛한다는 뜻시오 特別

히 出生케 한다는 名詞는 아니니 然則 하는 님을 父라 稱呼는 出生케 할 심을 받은 고로 如

斯히 稱함이 아니오 愛內에 保護하심을 받은 고로 稱함인 듯하니 라 吾信者는 皆是 하는 님

의 子라 할 수 있스나 예수와 一體되는 子라 못 할 지니 예수 외 서 하는 님을 對하야 我父라

爾父라 稱하시오 我等의 父라 稱하지 아니 하섯스니 主祈禱文에 我等의 父라 稱하심은

참호 땅 별다른 오의

방언 이방언

삼방언

어간

그뜻은 간구 제사 받을

그뜻은 엇던 혀 자 의견

본뜻시

이상심 방언

다말하기 난

특별

사랑

출생

우리신자

다의

내 아버지

우리

우리의 아버지 칭

神學指兩

特別問題的說明이 업고 오직 하느님은 自然히 存在하시니 하느님으로 認定하고 마시

一〇廿七에 子와 子의 所願대로 指示하는 者外에는 父를 知하는 者가 없다 然이나 吾人의 宇宙가 廣大하듯 是은 알되

말씀을 하섯스니 吾信者가 斟酌할 수 있도다 然이나 吾人의 宇宙가 廣大하듯 是은 알되

幾許나 廣大하듯 不知할과 如히 하느님을 識서 廣大하신 줄 알되 幾許나 廣大하신 지 不

知할지라 故로 예수께서 하느님을 對하야 敎訓하시되 吾人의 偏狹한 心量에 堪當하리

만치 淺近한 理致로 左와 如히 敎訓하섯스니

(一) 境遇로 敎訓하심이라 此는 하느님을 對하야 次第로 說明치 아니하시고 但言語와

稱呼(하느님, 父라 主라고) 하시는데 自然히 弟子로 하야 吾如何 하느님인지 知得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하느님을 稱呼하신 三言이 有하니 曰하느님曰 父曰 主라 베편

一〇三에 예수 그리스도의 父하느님이라 함은 예수께서 하느님을 稱呼하시던 거슬베

드로가 記憶하야 言이니라

1. 하느님이라 稱呼함을 論하면 예수當時에 天下에 散在한 유대인들이 慣聞하는 方

삼아救援을잇는事에구원 일一호른 방법大方法이되는줄指示지시함이오第一緊要매일 진요한事라함심이

라

四、

自己의言은結末的完言으로自信자신함이라마廿四〇卅五에天地는廢폐하지안녕

自己의言은廢폐하지아니함리라함신言을보니히一〇一、二言과如히昔日諸先

知者로我等祖上의게여러貌樣으로言함신하는님이諸日終末에其子로我等의

最末完結的敎訓을垂나리하섯도다눅九〇卅五에此는我的子요我的擇택하바니爾

等은彼の言을聽드르하라함신言을吾儕의靈耳로靜聽하야예수의言은果然하는님

의言이오果然然人이遵行할말함言이오果然然人을救援할말함言이오果然然結末的

完言인줄信믿을할지니라

一、하느님씨關한敎訓

元來예수씨서하는님이如何함신인지間或言함섯스나하는님의存在와性稟에對함





神 學 指 南

하느님의 聖子성자가 아니시면 不敢감히 못 言말함 이 로 다 마 七〇 廿四 一 廿七 六〇 四十七 一 四十九

을 보면 我言내말을 듯고 行행함 하는 者자는 屋집을 磐石반석上위에 建築건축 하는 者자와 如또 하리라 하섯고 마 廿四

〇 卅五、 막 十三〇 卅一、 눅 廿一〇 卅三을 보면 天地연디는 廢폐할지 언언 我言내말은 不廢불폐 하리라

라 막 八〇 卅八 눅 九〇 廿六에 我와 我의 言말을 羞부끄러워 하는 者자는 人子인자도 父아버지의 榮光영광으로 聖

天使연수와 共來홍적을 할 時때에 其人그자을 羞부끄러워 하리라 눅 廿四〇 四十四 一 四十六에 舊約구약 言말함을 自己자가

應응 하게 하섯고 요 五〇 廿四에 我言내말을 듯는 者자는 永生영생을 得얻으리라 요 十二〇 四十七、

八에 我言내말을 듯고 守지치 안는 者자는 定罪명죄 할 者자가 有잇스리라 요 十七〇 八에 父아버지 되셔 我의

賜주하신 言말함을 彼等며희의 게 主주셨스오 乃며희들 彼等적희이 守말함하엿다 고 言말함하섯도 다 以上이상 諸言제언을 詳考상고

하면 예수 되셔 自己자의 敎訓교훈에 對대하야 自자信신하심을 알수 잇스니 예수 的敎訓교훈이 如何엇디 할

을 知알고코져 하면 先먼저히 예수 自자信신이 如何엇디 할을 研究연구할 事사의 다 然則그런즉 此이에 對대하야 吾儕우리의 取

信신者자 四條도가 有잇스니

一、 自己자의 言말함은 하느님 的言말함으로 自자信신하심이라 요 十一〇 四十九、 五十을 보면 「我

○二十一廿三十一〇二十一十五廿二〇二一四廿四十八〇卅五) 그럼으로聖經에記錄  
말습  
한말대로루살님을愛慕하는人이福을受할줄알고其城이平安할거슬爲하야祈禱  
하를지니라 (시百廿二〇六)

삼위일체  
三位一體에關한예수의敎訓

문학문사  
文學文士

라부열목사  
羅富悅牧師

편집번역  
編纂翻譯

총론  
總論

자고유명선생이라도皆自己의敎訓에對하야盡善盡美라고壯談치못하고反  
히不完全함을自悟하야他人과後生의是非評論을待俟치안는者업스되惟獨예수  
서는自己의敎訓이完全無缺하야永遠히變易업슬거슬一毫도遜色업시言하섯스니  
자고유명선생이라도皆自己의敎訓에對하야盡善盡美라고壯談치못하고反  
히不完全함을自悟하야他人과後生의是非評論을待俟치안는者업스되惟獨예수  
서는自己의敎訓이完全無缺하야永遠히變易업슬거슬一毫도遜色업시言하섯스니

잇느니라 이방사들 異邦人들의 時期가 찰때까지 이방인 예루살렘이 異邦人의 管轄하는 下에 잇스리라

할심시오 (눅廿二〇 廿四) 以後에 國이 回復되면 社會上과 生活上에 興旺할터이나

말세 만국 末世에 萬國이 다시 예루살렘을 滅亡시키라야 上往時에 (석十四〇一, 二, 요엘三

〇 九一十五) 유대인이 大患難을 當할지라도 (예卅〇 七 단十二〇一) 其時에 主께서

親히 顯現할심으로 이스라엘이 國家의 과 神靈의 으로 救援함을 受할거시라 (석十

四〇 一; 七 로十一〇 廿六; 廿九) 主께서 悔改할 人民을 救援하시라고 (석十二〇

十) 顯現時에 口의 氣로 敵그리스도를 滅亡시키시고 (살후二一〇 八; 十一〇 四) 예루

살렘을 慰藉하시리라 (석四十〇一, 二) 其後에 야이שראל이 眞正한 國으로 回復

되고 世上에 離散한 人民이 更히 集할거시오 (석十一〇 十一; 十二 六十六〇 十五

二) 其時에 主님께서 萬王의 王이 되사 主管할심으로 (엡廿三〇 五; 八, 석八〇

三, 十四〇 九; 十一) 예루살렘이 全世界에 宗教的의 都城이 되고 萬民이 예루살렘으

로 말미암아 福을 受하며 其城의 名을 「여호와께서 더그게심이라」稱할거시라 (석八

인 人의게 致書(편지)하야 曰(말) 英國政府(영국정부)가 말네스되나 吾(나)를 유대人(인)들의 居住地(거주지)로 定(명)하느니라

成(성)사며 此事(이일)이 成就(성취)되도록 用力(힘)하것노라 하였고 一般(일반) 聯合(합) 軍(군) 側(편)에서 皆(다) 贊(찬) 成(성) 矣(더러)

英國(영국)과 法國(법국)과 米國(미국)에 居住(거주)하느 猶(유) 大(대) 人(인) 中(중)에 第(제) 一(일) 有(유) 名(명) 富(부) 豪(호) 들이 此(이) 事(일)을 爲(위) 하야 用(힘) 力(력)

하느니 先(선) 知(지) 者(자) 에 스겔의 記(기) 錄(록) 하 言(말) (겔卅七〇 一十四) 大(대) 로 猶(유) 大(대) 國(국)의 枯(마른) 骨(뼈) 이 更(더) 히

活(활) 動(동) 하느 事(것) 과 又(또) 하느니라 一(모) 般(든) 猶(유) 大(대) 人(인) 들이 예루살렘으로 還(도) 去(가) 心(심) 이 有(있) 다 고 呼(호) 수 업(스)

나 祖(조) 上(상) 들이 하느 神(신) 受(받) 은 地(터) 를 이스라엘의 可(살) 居(만) 地(땅) 로 更(더) 히 變(바) 換(교) 하느니 宜(맞) 當(당) 하 示(보) 줄 노야

느니라

예루살렘의 將(장) 來(리) 教(교) 示(시) 하느 聖(성) 書(경)

聖(성) 經(경) 을 研(연) 究(구) 하느 人(인) 의 命(명) 是(이) 예루살렘을 占(점) 領(령) 하 事(사) 과 이스라엘 國(국) 을 回(회) 復(복) 하 言(말) 이 趣(취)

味(미) 가 有(있) 는 舊(구) 約(약) 에 아 奇(기) 應(응) 하 事(사) 지 못하 預(예) 言(언) 이 應(응) 하 時(시) 가 不(불) 遠(원) 하 證(증) 據(거) 요 猶(유) 大(대) 人(인)

比(비) 魯(루) 國(국) 을 回(회) 復(복) 하 言(말) 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永(영) 遠(원) 하 福(복) 과 榮(영) 光(광) 을 受(받) 을 時(시) 는 아 奇(기) 異(이) 되 지 못하

別히 유월절지현대 逾越節守할 때에는 말 言하기를 금년 이곳 今年에 이곳 此處에서 행 行하는 예식 禮式을 명년 明年에는 에루살렘 에 행 行하겠노라 하는 규례 規例가 수백년 동안 數百年間에 심 甚히 필박 逼迫을 당 當하는 중 中에 이러 如斯호는 소 所望을 니가보라 忘却지 아니하였는니라

빌네스디나가 국수방 터키國屬邦이 되었을 동안 間에 인 猶太人들이 임의 任意로 도라가 歸還하지 못할 도 必다

去할 라갈 지라도 국정부 土耳其國政府가 무리 無理히 행 行함으로 거성 居住하기가 어렵 難하고 조미 滋味도 별 別로 업섯 無호였스

나 그리 然호나 특별 特別호 허락 許諾을 도라간 무리가 농수 받아 과원 歸去호는 저비 民衆이 모든곡식 農事도 호며 모든곡식 果園을 모든곡식 栽培호여 모든곡식 보니 모든곡식 諸穀이

昔時에 넷적 되던 수십년전 것은 다국 又차 류리 잘 되었는 유대 니라 유대 數十年前부터 유대 他國에 유대 流離호는 유대 人들이 유대 是온

會 회 (Zionist Society) 수회 라는 조직 社會를 조직 組織호였는 그회 其會의 목적 目的은 유대 猶太人을 유대 爲호야 유대 살 유대 만호는 유대 地

를 얻으 得호라 호는 방언 거사라 방언 빌네스디나에서 방언 是발서 방언 브리히 방언 브리 방언 方言으로 교육 教育식히는 학교 學校

를 설립 設立호며 본사 本地로 도라온 歸還호는 유대 人들을 극력 極力 방조 幫助호며 지금 今 연합 聯合軍이 성 城을 점령 占領호는 후 後로

本地에서 나라를회부 猶太國을 회부 回復호기 회부 로 힘쓰는 회부 니라

昨年秋에 영국의 英國外務大臣이 후 吳士德 (Rothschild) 후 라는 부요 富饒호는 유대 猶太人

方방에在잇는諸地모든를主주管관할수잇는줄알고古時옛적부터互相서로貪탐호야侵奪세아호라함이오且其地또그가하느님의許諾허락호신대로유대人인이永遠영원호基業기업(창十七〇八)으로受받호時때지爭쟁奪탈호는戰亂전란이止곳호지아니호리라

신도 장리 상관  
信徒의 將來 相關

吾信者우리신자들은예루살렘을占領정령호거시유대人인의게如何엇디호關係관계가되느거슬思생호야불만

호일이로다此城이이數百年間수백년동안에유대人인의神聖신령호城성이되며유대人인들이他城다른성보다此城이

을더욱貴重귀중히녀이고스랑호엿스며(시百二十二〇一一九、百二十七〇五、六)萬만

國국에流離류리호면서도恒常항상此城이을닛지아니호고其處거기로歸還도라호기를絶望절망치아니호며諸모든

先知者선지자의預言예언이應응호기를苦待고대호고(예十六〇十四、十五、卅二〇三十六、三十七、卅一

〇三十一一四十)祈禱기도할時때마다예루살렘을向향호야祈禱기도호며飲食음식을對대호며安息日안식일

에讚頌찬송을호며나婚姻禮式혼인례식을行행호때에예루살렘으로歸去도라호기를爲위호야祈禱기도호며特특

회교인중예언  
回回教人中預言

예루살렘을 정령 占領호는 事에 對하야 回々 教人中에 預言으로 傳호는 言을 보건디 未世에 此

城을 占領호는 者의 名은 하는 님의 名과 回々 教大先知者의 名을 兼하야 受호는 名을 持호는 者

니라 호는 亞디 聯合軍大將 알렌비 (아라비아 方言으로 알네비라 호는 기쉬울) 의 名

을 論호는 進디 알레란 聲音은 아라비아 方言으로 하는 님을 指호는 言알라란 聲音과 又코 너

비는 아라비아 方言으로 先知者란 뜻이니라 然호는 言으로 古時 預言이 應호는 言을 노 思호는 言아

라비아人이 多호는 言니라

합락 당 리유  
陷落을 당호는 理由

世上에 歷史가 有호는 言以來로 예루살렘과 又치 陷落을 當호는 言城이 無호는 言디 其理由는 유로 바

와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三大洲의 中央에 有호는 言城인코로 其地境에 接近호는 言國은 能호는 言其四

神 學 指 南

沿岸에 鐵路를 敷設하며 自動車가 來往할 만할 道路를 修築도 하며 沙漠中에 數十里되

는 水道를 노아 軍士의 使用하는 水를 발네스디나지 引水후에 昨年十月에 行軍하

기를 始作하였는니라 獨일 軍이 戰鬪할 時에는 神聖호 城이나 家屋을 惜지 아니하고 大

砲로 無法하게 破壞를 식혔거니와 聯合軍이 예루살렘과 벳을네헴을 占領할 時에는 聖

城이 傷함을 被할가 念慮하야 大砲를 使用치 아니하고 但突擊함으로 만 城을 取하였스

며 聯合軍大將 알렌비 (Allenby) 와 一般將率이 以前十字軍의 行例를 依하야 徒步로

入城式을 行하였더라

占領호 日字를 論호진디 自今으로 二〇八二年前에 유다, 막가 배오가 此城을 取호 日

과 如호 日이니 即修殿節되던 日이 오또 思憶호 單호 主前五八六년에 是부갓네 살

王이 예루살렘을 取호던 日과 大將이 主後七十年에 城을 取호던 日은 유로바 戰爭

이 始作되던 日이니 即 유대 歷書로 五月九日이니 此 여러 날들이 相應호 거슬보아 現今

歐洲大戰亂이 유대인과 大關係되는 問題로 思호는 니라



十字軍이 城을 占領하야 에루살렘國을 設立하고 로린公爵곳 프레 或 불니온 (Godfrey

Bouillon)을 왕으로 擇았스나其人이 冕旒冠 冕冠을 辭讓하며 길요디 主의 赫冕冠을

쓰신 城에서 我是 金冕冠을 쓰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自稱 聖陵保護者란 稱號를 하였고

其時로 브터 百年이 못되어 이 굽파 아라비아를 管轄하는 回回 敎皇 帝 살나딘 (Saladin)

이 一八七七年에 에루살렘을 다시 占領하였고 一五一七년에 옷도만 (Ottoman) 터키族

屬이 管轄하기를 始作하였스나 此城이 其時로 브터 昨年 十二月까지 터키國 管轄하는 下

에잇섯는니라

현금시대  
現今時代

昨年에 聯合軍이 에루살렘을 占領한 事를 論할진디 三年前에 터키와 독일兩軍이 聯合

하야 이 굽으로 侵入하랴고 수에스 (Suez) 運河까지 이르러스나 英國軍士의 攻擊을

넘어 退却後 聯合軍이 발네스디나를 取하기도 힘쓸새 二個年間을 預備하야 地中海

神 學 指 南

관할시대  
벌시아管轄時代

주후 主後六一四年에 벌시아國王第二코스로이스 (Chosros 或쿠스라우 Khusrav) 가 예루살  
넴을 占領한지十四年後에 東로마皇帝가 다시 占領하였는니라

회회교인관할시대  
회회교人管轄時代

주후 主後六二二년에 회회교가 이라비아에서 始作되었는디 六三七年에 회회교軍隊들이  
他國들을 戰勝時에 아라비아貴族오말이에 耶루살넴을 占領한後에 聖殿基址에 회회교

堂을 建築하였는디 最初에는 木材로 建造하였다가 後에 다시 石材로 建築하고 名을 오  
말의 禮拜堂이라 하였는디 今日까지 잇는니라 其時부터 昨年까지 五百年만 除하면 예

루살넴이 회회교管轄하는 下에 잇섯는디 一〇七七年에 터키族屬이 예루살넴을 占領

할時에 城內居民을 甚히 逼迫함으로 聖戰(十字軍亂)이 起하였는니라 一〇九九年에

이니민廿四〇十七을의지야작명야이 사람 백성 인도 두 회 동안作名인도흥이라)此人이百姓을引導야二個年間을勇  
 敢대히로마軍隊를抵抗대역하엿스나引導人과數多슈다흥유대인이죽음으로맛츠너다시 대역更히對敵  
 力이업서짐으로一三五年에로마皇帝하드리아노(헤드리안, Hadrian)가여루  
 살넴에殘在남아 있는 정물 household을毀破하고基址를耕하머로마國神의名을싸라앨니아, 가비들  
 니나 (Aelia Capitolina) 城을세우고유대인의사는거슬禁하엿느니라

관할시던  
 콘스탄티노管轄時代

其後二百年間에루살넴歷史는詳細히알지못하나三二五年에로마皇帝콘스탄티노  
 (간스단딘 Constantine) 가예수敎를國家宗敎로定할時에예수敎人들이만히여루살  
 넴으로歸還하야居生함으로此城이興旺하엿고또皇太后가親히上往하야主님과相  
 關된여러곳에紀念的으로會堂을建築하엿는디其中에聖陵會堂은今日까지存在하

나라

스나 못하고 聖殿器具만 拯出하여 로마로 가져가는 나라 其時에 孚擄된者는 九萬七千

名이나 되며 戰亂에 죽고 殺戮을 당한者는 一百十萬名이나 되는데 此人들은 皆 유대인

이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것은 其時에 逾越節을 지키는 日에 上來한 이가 多을緣故

라 예루살렘이 仇敵의 手에 二十七次나 陷落된 일이 있섯스나 此時에 當한 苦難이 第一

이라 此諸事가 皆 모새가 하는 님을 背反하는 人民의 對하야 預言한 것과 (신 廿八 〇

四十九 一五十八) 主께서 預言한 신대로 應한 거시니라 (눅 廿一 〇 廿一 廿四、二十

三〇 廿七 一卅)

바, 고크바時代

예루살렘이 亡後 約六十年間은 其基址에 巨大城은 築고 微小間巷만 잇다가 主

後 一三二년에 本處에 잇는 유대人과 萬國에 離散한 유대人이 秘密團體를 組織하고 로

마를 對敵하고 저할 時에 自稱 메시아 바, 고크바 (Barcocha) 라고 하니 (其義는 星의 子

예루살렘

왕<sup>왕</sup> 때<sup>때</sup>에<sup>에</sup> 誕生<sup>탄생</sup> 하<sup>하</sup>심<sup>심</sup>과 (마<sup>마</sup> 二〇 一 十) 三十三<sup>三十三</sup>年<sup>년</sup>에<sup>에</sup> 該處<sup>그곳</sup>에서<sup>에서</sup> 苦難<sup>고난</sup> 受<sup>받</sup>하<sup>하</sup>신<sup>신</sup>거<sup>거</sup>슬 (마<sup>마</sup> 廿七 〇) 自然<sup>자연</sup>히<sup>히</sup> 紀念<sup>기념</sup>을<sup>을</sup> 지<sup>지</sup>니<sup>니</sup>라

두번재 쇠멸후시대  
再次衰滅時代

主<sup>주</sup> 후<sup>후</sup> 後六十六<sup>후</sup>年<sup>년</sup>에<sup>에</sup> 로마<sup>로마</sup> 國監司<sup>국감수</sup>가<sup>가</sup> 人民<sup>백성</sup>을<sup>을</sup> 甚<sup>심</sup>히<sup>히</sup> 壓制<sup>압제</sup>함<sup>함</sup>으로<sup>으로</sup> 유대<sup>유대</sup>人<sup>인</sup>이<sup>이</sup> 背反<sup>비반</sup>하<sup>하</sup>매<sup>매</sup> 七十<sup>七十</sup>年<sup>년</sup>에

로마<sup>로마</sup> 大將<sup>대장</sup> 디도<sup>디도</sup>가<sup>가</sup> 와서<sup>서</sup> 數個<sup>두어</sup> 月間<sup>달동안</sup>에<sup>에</sup> 루살렘<sup>루살렘</sup>을<sup>을</sup> 包圍<sup>에워싸</sup>하<sup>하</sup>고<sup>고</sup> 終<sup>맞춤</sup>乃<sup>나</sup> 占領<sup>점령</sup>하<sup>하</sup>며<sup>며</sup> 奪取<sup>탈취</sup>하<sup>하</sup>였<sup>었</sup>는<sup>는</sup>디<sup>디</sup>유

대<sup>대</sup> 歷史<sup>력사</sup> 家<sup>가</sup> 요세보<sup>요세보</sup> (Josephus)가<sup>가</sup> 에루살렘<sup>에루살렘</sup> 奪取<sup>탈취</sup>함이<sup>이</sup> 된<sup>된</sup> 事實<sup>사실</sup>을<sup>을</sup> 記錄<sup>기록</sup>하<sup>하</sup>였<sup>었</sup>스<sup>스</sup>디<sup>디</sup> 其<sup>그</sup>時<sup>때</sup>에<sup>에</sup> 유대

人<sup>인</sup>이<sup>이</sup> 城<sup>성</sup> 中<sup>중</sup>에<sup>에</sup> 糧食<sup>양식</sup>이<sup>이</sup> 乏<sup>없</sup>絕<sup>서</sup>할<sup>때</sup>時<sup>때</sup>시<sup>시</sup> 勇<sup>담</sup> 敢<sup>대</sup>히<sup>히</sup> 로마<sup>로마</sup> 軍兵<sup>군병</sup>을<sup>을</sup> 抗敵<sup>대적</sup>하<sup>하</sup>였<sup>었</sup>스<sup>스</sup>나<sup>나</sup> 飢渴<sup>기갈</sup>이<sup>이</sup> 莫<sup>막</sup> 甚<sup>심</sup>하<sup>하</sup>야

父<sup>부</sup> 母<sup>모</sup>가<sup>가</sup> 子<sup>자</sup> 女<sup>녀</sup>를<sup>를</sup> 殺食<sup>잡아먹</sup>하<sup>하</sup>기<sup>기</sup>시<sup>시</sup> 至<sup>니</sup>하<sup>하</sup>매<sup>매</sup> 다시<sup>다시</sup> 生<sup>성</sup> 存<sup>존</sup>할<sup>소망</sup> 所<sup>소</sup> 望<sup>망</sup>도<sup>도</sup> 업<sup>업</sup>고<sup>고</sup> 城<sup>성</sup> 外<sup>외</sup>에<sup>에</sup>는<sup>는</sup> 大<sup>대</sup> 軍<sup>군</sup>이<sup>이</sup> 包圍<sup>에워싸</sup>하<sup>하</sup>

여<sup>여</sup> 잇<sup>잇</sup>슴<sup>슴</sup>으로<sup>으로</sup> 유대<sup>유대</sup>人<sup>인</sup>들이<sup>들이</sup> 終<sup>맞춤</sup>乃<sup>나</sup> 聖殿<sup>성전</sup> 行<sup>행</sup> 廊<sup>랑</sup>에<sup>에</sup> 放火<sup>불을</sup>하<sup>하</sup>야<sup>야</sup> 絕望<sup>절망</sup>하<sup>하</sup> 狂<sup>광</sup>인<sup>인</sup>과<sup>과</sup> 又<sup>용</sup> 勇<sup>맹</sup> 猛<sup>맹</sup>스<sup>스</sup>럽<sup>럽</sup>게<sup>게</sup> 戰<sup>전</sup>

鬪<sup>투</sup>하<sup>하</sup>였<sup>었</sup>스<sup>스</sup>나<sup>나</sup> 로마<sup>로마</sup> 軍兵<sup>군병</sup>들이<sup>들이</sup> 四<sup>수</sup>面<sup>면</sup> 土城<sup>토성</sup>을<sup>을</sup> 發<sup>소</sup> 火<sup>화</sup>하<sup>하</sup>고<sup>고</sup> 燒<sup>소</sup> 火<sup>화</sup> 門<sup>문</sup>으로<sup>으로</sup> 乘<sup>드</sup> 入<sup>러</sup>하<sup>하</sup>야<sup>야</sup> 城<sup>성</sup>을<sup>을</sup> 占領<sup>점령</sup>하<sup>하</sup>고

人<sup>백성</sup>民<sup>민</sup>을<sup>을</sup> 多<sup>만</sup>히<sup>히</sup> 殺戮<sup>살륙</sup>하<sup>하</sup>였<sup>었</sup>는<sup>는</sup>니<sup>니</sup>라<sup>라</sup> 디도<sup>디도</sup> 大將<sup>대장</sup>이<sup>이</sup> 聖殿<sup>성전</sup>에<sup>에</sup> 失火<sup>실화</sup>된<sup>된</sup> 거<sup>거</sup>슬<sup>슬</sup> 鎮火<sup>전화</sup>식<sup>식</sup>히<sup>히</sup>라<sup>라</sup>고<sup>고</sup> 盡力<sup>전력</sup>하<sup>하</sup>였<sup>었</sup>

베오 (Judus Maccabaeus) 가 수리아 군병을 이끄고 성년 때로 세 아사 성절 紀念하기爲하야 유대인인 수년절 지히 법 百年間에 유대가自主國이 됨으로 막가배오의 자孫이 왕노릇하였는니라 (요 10 22) 其後

대왕시대 헤롯大王時代

主前三十七年에 동왕 헤롯이 막가배오의 家를 勝한後에 其子孫을 殺戮하고 其姪女

의게入娶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왕이 되었스나 로마國의게 降伏함으로 예루살렘

이 更히 異邦에 屬하였고 헤롯왕이 主前十九年에 유대人을 짓브게 하라코 金과 白石으

로 聖殿을 壯麗하게 建築하였스나 (막 13 0 1) 起工한지 二十三年後에 헤롯이 죽

고 其後에 祭司長들이 人民의게 聖殿稅를 거두어 (마 17 0 廿四) 建築하는 일을 繼

續하였스나 四十六年內에 畢役지 못하고 (요 2 0 廿) 主後六十四年에야 竣工되었

는니라 吾 예수敎人이 예루살렘史紀를 볼 때에 吾儕의 救主 되신 예수께서 既述한 헤롯

출만아느니 (디하卅六〇二十二二十三, 에스라 一〇一四, 단九〇二十五) 고레스王  
 의許諾대로建築한第二聖殿은솔노몬의聖殿만은못할였느니라 (에스라 三〇十一十  
 三 下 개 二〇一三)

헬나와막가배오時代 시대

헬나國第一有名한王알렉산더가예루살렘을滅亡시키지아니할거슨大祭司長이헬

나興旺한거슬敎示하니엘의預言을더의게알게할緣故라알렉산더가死後에其國

이四部分으로分裂될時부터예루살렘이北便수리아國과南便의굽此兩國間에잇슴

으로二百年間에侵害함을多受할뿐더러主前一百六十八年수리아王安디옥호(에

비파네)의게酷毒한壓制를當하는時는유대歷史中에第一暗黑한世代라안디옥호

가三次이나城을奪取한後에數萬名을殺戮하고己國에서崇拜하는偶像을至聖所에

세웠더니 (단八〇九一十二十一〇三十一三十五) 主前一百六十五年에유다, 막가

첫번 쇠멸후시되  
初次衰滅時代

솔노몬의 자르호바암 때에 이 굽왕시삭 (Diaser) 이 예루살렘에侵入하여 아聖殿에在호寶  
物을奪取하였는디 (디하十二〇 一一九) 예루살렘이其後約五百年間에都城으로잇  
섯스나 왕과人民들이終乃하는님을背反호故로 바벨논王는 부갓네살이主前五百八  
十六年에 예루살렘城을陷落식히고城과聖殿을燒火호며人民을 바벨논으로捕擄호  
여갓는니라 (디하三十六〇 十三一廿一)

다시 건축호시 되  
重建時代

七十年後에先知者 예리미의預言대로 바벨논國을이긴바사 (버르시아) 왕크레스  
(구로)가聖殿을再次建築호라는敕令을下함으로被擄되엇던人民中四萬名이나歸  
還호였스나其時 브티호二百年間에 메다, 바사 (메디아, 버르시아) 合國에屬邦이되  
였스며其間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記錄호것外에分明호史紀가업고騷亂호世代인



나라

예루살렘最盛時代

예루살렘이라 하는名稱은 여호수아 十〇 一 一五에 首先顯出하며 디상 十一〇 一 一九

대로 다윗왕이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여부스族屬의 개서 占領하여 自己의 都城

을 定하며 聖幕을 該處로 移設하고 (디상 十五〇 一 一三, 二十五 一 二十八) 其時부터 다윗

의 城이라 稱하였스며 다윗의 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님을 爲하여 榮華로운 聖

殿을 建築하였는디 하는 님께서 自己 百姓가 온디 계신 證據로 榮光이 殿內에 充滿하였

는 나라 (디하 七〇 一, 二 왕상 九〇 三) 솔로몬이 聖殿을 建築할 때 大闕과 亞銀과

柏香木으로 數多한 宮殿을 城中에 建築함으로 美妙하고 富饒한 城을 作하였는 나라

(왕상 十〇 廿七)

前아브라함時代(主前一九〇〇年)에잇던城인줄창十四〇十八二十을봄으로

알거시니其時에살넬王멜기세덱이東方王을勝하고歸來하는아브라함을歡迎하야

祝福축복할일이잇섯느니라創世記에記錄대로其城名은살넬이라고만하고로예루살

넬을마르침인줄알지못하였더니數十年前에이굽國넬, 엘, 아마르나 (Tel el-Amarna)

라는處에서古代煉瓦에刻書한書信幾張을發見하였는디此書信은主前一四五〇年

에예루살넬에王된者가이굽王마로의게致送한書信이니云하였스디城名은우루살

넬 (平安城) 이라고하며거기서崇拜하는神의名은平安의神이라고하며크신王이라고

하였고또王의言이王位를父의게나母의게받지아니하고이굽王의게도받지아니하고

但크신王의게받았노라하고였는즉此諸說이멜기세덱의게對하야記錄할말삼과彷彿

하니 (회七〇一三) 即聖經言이確實함을引證할뿐더러멜기세덱이아브라함時

에吾儕의아는예루살넬에王된證據가分明하니라然즉아브라함時에살넬이란城은

數百年後에우루살넬이라고稱할줄알며또吾儕의아는예루살넬이即此城인줄아는

예루살넬

六〇卅六一卅九、단六〇十

회회교인

회회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중히 녀어는 理由는 彼等이 비록 유대人은 아니나 이스마엘

말미암아

노由야 아브라함의 子孫이 되고로 아브라함이 하는 祀祭드리던 모리아山을 돕

자손

히며 다윗時부터 예수時까지 諸先知者가 居生하던 城으로 알뿐더러 회회교를 創設한

모든 선지자

거성

성

제사

회회교

창설

모하멧이 거고서 升天하였다는 遺傳을 依야 聖한 줄노 알며 末世에 大審判의 位置가

승연

유전

의지

거루

말세

대심판

자리

될 줄 아는 緣故요

연고

예수 敎人이 예루살렘을 貴히 녀어는 是는 救主 예수께서 異蹟을 行하시시고 神靈을 敎育

교인

귀

구주

이적

행

신령

교육

을 식히시며 代人贖罪하시기를 爲야 一次自身을 捨하시니 緣故니 無所不能하

代人수죄

위

호민

스죄물

버터

곳시

연고

무소불능

신하는 님의 子가 創世하시기 前부터 預定하신 대로 萬民을 救贖하신 處보다 尤貴한 處

아들이 세우창조

전

예정

만민

구속

곳

더귀

곳

가 어더 잇스리요

삼넴이나 우루살넴

예루살넴이 最初始作된 史紀는 分明치 아니하나 朝鮮에 箕子時代 主前一一二二(年)

민 처음 시작

수기

분명

조선

기조선시대

주전

년

예루살렘

文學士

魚涂萬牧師

著述

一九一七年十二月十日은全世界와크게相關되는特別히緊要한事가發生한日이니

即聯合軍이예루살렘을타기國人之手에서占奪한事라大抵예루살렘은유대敎와예

수敎와回々敎此三大宗敎의神聖한處가되었는니라

신성 聖城

유대인들이예루살렘을貴히여이논거슨政治上과宗敎上으로關係된것들이니有名

한다윗과솔로몬의城이되었을뿐더러하는님께서擇한事自己의名을該處에두시기

로酌定한故也오(딤후 六〇六, 七〇十二, 十六) 솔로몬時부터一般유대인이祈禱

할때마다하는님께서自己의榮光을顯出하신聖殿을向하여祈禱緣故니라(딤후

## CONTENTS.

### Editorial

A Congratulation	Haw Soonchay.
Theological Apologetics	Rev. W. D. Reynolds, D. D.
The Main Idea of the Bible	Rev. W. C. Erdman.
The Resurrection	Rev. E. F. Mc Farland.
The "Teaching (Didache) of the Apostles"	Rev. G. Engel.
St. Augustine (of Hippo)	Rev. G. Engel.
John Bunyan	Rev. W. M. Baird, D. D., Ph. D.
Church Statistics	Editor.
Sermon: "Counting all things but loss"	The late Rev. H. G. Underwood, D. D., LL. D.
Sermon Plans: Neh. 4	Rev. Yang Sukchin.
Rev. 18: 4	Rev. No Inmeun.
John 3: 30	Rev. Ch'a Hyungchoon.
Sermons: "On Peace" John 14: 27	
"On the Making of a Christian" John 1: 42-43.	Rev. C. A. Clark, D. D.
Sermon Outlines:	
Easter Sermon	Rev. Wayland Hoyt, D. D.
Boys' School Graduation	Rev. C. A. Clark, D. D.
Girls' School Graduation	
Communion Sermon	
Suggestive Texts and Themes	Selected.
Illustrations "Seed Thoughts"	Rev. A. T. Pierson, D. D.
The Pastor's Mirror	Rev. C. A. Clark, D. D.

---

## SUBSCRIPTIONS.

Subscription rates payable in advance	Annual 50 sen. Postpaid
	Single copy 15 sen. "
In Europe and America	Annual 75 sen. "

---

Send all subscriptions to the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Seoul, Korea, Japan, but all advertising, copy and other business communications to Chas. Allen Clark, Seoul, Korea, Japan.

When writing our advertisers, please mention the Review.



GRAHAM LEE MEMORIAL ENDOWMENT.  
**UNION CHRISTIAN COLLEGE**

IS IT WISE TO PREPARE FOR THE FUTURE?

THE UNION CHRISTIAN COLLEGE AT PYENG YANG BELIEVES  
WE WANT YOU TO JOIN US IN THAT BELIEF.

Several months ago, the College began a campaign to raise an endowment of  $\text{Yen } 200,000$  in memory of the late Rev. Graham Lee, D. D. The response from the missionaries is exceedingly gratifying, over  $\text{Yen } 15,000.00$  having been pledged or contributed by missionaries on the field. Owing to unsettled conditions in the countries at war, it has been difficult to carry the campaign to other countries thus far, but would not a generous contribution by missionaries on the field even during war times be the kind of argument to convince us in other lands after the war that we really believe in the necessity for supporting another the College?

If its necessity is admitted, then its support ought to be assured. The amount now amounts to over  $\text{Yen } 200,000$ , and in this deficit no allowance is made for the smallest addition to the equipment of the institution. An endowment of  $\text{Yen } 200,000$  will cover all expenses for the future but will provide against violent contingencies, and ought to be provided as soon as possible.

Have you done your "bit" towards raising this fund? It is not too late even now to do something. A prospectus was sent out recently to a large number of friends. If you have not received yours, please let us know and information will be gladly furnished.

UNION CHRISTIAN COLLEGE,  
PYENG YANG, KOREA.

神 學 指 南

講道圖型	同	牧師의 體鏡	講道에 引用한 만호 譬喩	講道學	同	記述的 講道	道言的 警信	趣味 있는 講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文學文士	神學博士	神學博士	神學博士	神學博士	文學文士	：	文學文士
：	盧解理牧師	郭安連牧師	郭安連牧師	郭安連牧師	郭安連牧師	盧解理牧師	金弼秀牧師	富斗一牧師
李用麟牧師	：	：	：	：	：	：	：	：
：	：	：	：	：	：	：	：	：
一五五	一五二	一四八	一四二	一三一	一二三	一一四	一〇七	一〇一

# 神學指南第一卷第二號

## 目次

神	學	指	南
예루살렘	三位一體에 關한 예수 의 敎訓	주에 수 님 의 類範	古代神話
文學文士 魚涂萬牧師	文學文士 羅富悅牧師	文學學士 蘇悅道牧師	神學徒 蔡 弼 近
一	一九	三六	五八
월령, 캐리傳	神、哲學博士 裴緯良牧師	今年神學卒業生寫眞	宣敎事況
神、哲學博士 裴緯良牧師	神學博士 馬布三悅牧師	書籍에 對한 紹介的 批評	譬諭
七三	八五	八五	九二
文學學士 孟皓恩牧師			
九三			



<sup>말합</sup>言으로 <sup>친목</sup>親睦하는 <sup>중</sup>中에 <sup>직접</sup>直接으로 <sup>어려</sup>兒孩의 <sup>조미</sup>滋味있는 <sup>강도</sup>講道도하고 <sup>있다</sup>有時 <sup>금문답</sup>乎問答도식  
<sup>순히인도</sup>혀서 <sup>도</sup>順導하는 <sup>도</sup>거시 <sup>호</sup>良好 <sup>책</sup>策이 됨이라



말씀을 들으 모히  
고는言辭를聽하러會하고講道人도예수를稱頌하러來하엿스즉講道人을稱頌

하거나責望을故가업슴然함으로講道後에一言이라도續論하는거슨大不可

고待遇가 못되는事이니該講說이滋味업시되엿슬지라도忍置하는거시可

고滋味有게善言하엿스면會長이又其本文이나題目이나大小旨結末에對하

一言半辭라도添益必要가 무어시오善한講道를亡케할뿐이라

一 捐補에 注意할 것

(一) 捐補도禮拜에一部分인즉收錢時에會中이祈禱하는心으로捐補를貢獻하야

하것고社會에서會金을收納하드시하지말것

捐補를收하는中에特別祈禱하는거시良好하니

(二) 何教會에서는個人마다捐補를獻하고卽俯하여祈禱하기도하고

(三) 何教會에서는執事들이捐補를收하기始作前에講臺前에會立하여서牧師

가祈禱하기도하고

(七) 聖餐式을閉호後에廣告나他事을一切호지말고但讚美와祝福祈禱로만閉會호일

一、禮拜會々長의注意할것

(一) 開會前에讚美를預擇호야數字를記錄호일

(二) 禮拜節次를各擔호야行코저호면皆預先通知호야準備케호일

(三) 貴賓이講道호기爲호야來臨호였슬지라도逾張皇히知面케말고逾過히稱譽도

호지말고예수를尊敬호는禮拜인즉來賓이雖貴重호이라도榮光을主의歸호게

호는會라

(四) 來賓의姓脚과歷史는他時機에公布호고講道始作호時에는已호는거시勝호듯

호

(五) 來賓이講道호後에會長이繼續호야該講說에續論처럼호던지稱讚호지라도是

는크게無禮호事인즉特別히如此호事가엄도록注意호일敎友들이예수를稱頌

擔當하는者外에는誰某던지一言이라도不發하는거시合當하고設或餅汁間得

參치못할者가잇슬지라도主掌하는牧師만問하고指揮할거시오長老中에서라

도言하는거시不當하고尤極其外에誰某던지一切皆安定히坐하여往來하거

나紛雜히하지못할지니라禮式中에或失操되는事이잇슬지라도主掌하는牧師

가言할거시오他敎友는言聲을揚하는거시不可하니라大概禮拜를始作하기前

에入敎人을分揀하여整齊히排坐하는거시合當하고若不然則中間에騷擾케

할것업는니라何如하던지盡末까지俯首端坐하여祈禱하는中에잇서야할거시

라餅汁을盡廻與후에引導者가即床에褥를佳樣的으로覆할거시라

禮式을始作할時에床覆褥를初開제二人이相對舉하여脫後에整齊히疊收하

야淨處에置하였다가閉會後에復覆하는거시合當하니라或牧師가事煩所致로

貌樣업시閃脫하여床底에胡亂케置하는거슨無禮할거시오敎友가見하기에도

不敬할거시라

(二) 伊日禮拜時會集前그날레비시모히기전에聖餐床과器具를皆排置하고淨潔성찬상白祿과구로覆다쳐노코정결히거시오敎교

人인이集合집합後후에하면聖餐성찬의有益유익에對하야半반이나減縮감축되기易쉬우하니라

(三) 器具와床祿가皆淨潔과구 상보 다정결히거시라야需用수용할것

(四) 葡萄汁을得用포도즙 얻어쓸할수가업스면寧히乾葡萄나山葡萄를買得하야서其湯水참호리 전포도 머 두부 사엇어 그뜨린물 사탕에砂糖

을調和하야用하던지或西洋夫人의造作하느절니라하느거슬得하야湯水뜨린 사탕물

에和用하느것도良好하니라 市上에서販賣하느葡萄酒는切不可用하느니或후

斷飲敎友의罪精神을更覺하가恐懼두려워하이라一言而蔽之하고酒性이잇는거슨斷단

定정코用쓰치말거시라

(五) 禮式례식선형設行세할時때에各其節次를擔任케하랄것又흐면臨時하야炫亂의窘塞을當하

지안도록預先準備하느거시合當하느니主導者가其節次에誰가祈禱하고誰가聖

經을朗讀하고餅과葡萄汁을分與하느니皆預知케하고開會後에는嚴肅하고

從容하게主를記念케하느거시正當하事라禮式을舉行하느間에는各其節次를

시可<sup>가</sup>함

(七) 瞑目<sup>눈을감</sup>하<sup>지</sup>말고

(八) 左右<sup>나리저리</sup>로 顧視<sup>도라다봄</sup>함으로 聽<sup>듯</sup>기 壓<sup>슬혀</sup>하<sup>는</sup> 貌樣<sup>모양</sup>을 示<sup>외이</sup>하<sup>지</sup>말며

(九) 起立<sup>나리서</sup>하<sup>여</sup>서 兒孩<sup>은취</sup>들을 勸勉<sup>권면</sup>하<sup>거나</sup> 外<sup>다른말</sup> 他言辭<sup>대지</sup>을 出<sup>내지</sup>치말고 諸般<sup>모든</sup> 教友<sup>교우</sup>들의 禮拜<sup>례배</sup>模<sup>모</sup>

本<sup>본</sup>이 될지나라

(開會<sup>기회</sup>後<sup>후</sup>에는 講道<sup>강도인</sup>人<sup>주인</sup>이 主人<sup>주인</sup>이오)

諸般<sup>모든</sup> 聽講<sup>청강</sup>하<sup>는</sup> 教友<sup>교우</sup>들이 當<sup>맞</sup>히이런 事<sup>일</sup>에 皆<sup>다</sup> 注<sup>주</sup>意<sup>의</sup>할 거시 尤<sup>더</sup> 極<sup>극</sup>히 講臺<sup>강대</sup>에 坐<sup>안</sup>하<sup>는</sup> 者<sup>자</sup>

가 謹<sup>삼</sup>慎<sup>갈</sup>할 거시나 不<sup>불</sup>然<sup>연</sup> 則<sup>즉</sup> 講臺<sup>강대</sup>에 登坐<sup>올나안</sup>하<sup>지</sup>아니하<sup>는</sup> 거시 可<sup>가</sup>함

성찬설형하는날 주의

一、 聖餐<sup>성찬</sup>設行<sup>설행</sup>日<sup>날</sup> 注<sup>주</sup>意<sup>의</sup>할 것

朝鮮<sup>조선</sup>牧師<sup>목사</sup>諸氏<sup>씨</sup>가 第一<sup>대일</sup> 多<sup>만</sup>히 過失<sup>과실</sup>하<sup>는</sup> 事<sup>일</sup>이 此<sup>이</sup> 聖餐<sup>성찬</sup>에 對<sup>대</sup>하<sup>는</sup> 事<sup>일</sup>이니 再<sup>지</sup> 三<sup>삼</sup> 深<sup>깊</sup>思<sup>히</sup>하<sup>는</sup> 事<sup>사</sup>고 注<sup>주</sup>

意<sup>의</sup>하<sup>는</sup> 事<sup>사</sup>기를 希<sup>희</sup>望<sup>망</sup>하<sup>는</sup> 事<sup>사</sup>이다

(一) 一<sup>하</sup>日<sup>로</sup> 前<sup>전</sup>期<sup>기</sup>하<sup>야</sup> 諸般<sup>모든</sup> 器<sup>기구</sup>具<sup>구</sup>와 床<sup>상</sup>과 祿<sup>보</sup>와 餅<sup>떡</sup>과 葡<sup>포</sup>萄<sup>도</sup>汁<sup>즙</sup>을 皆<sup>다</sup> 整<sup>정</sup>齊<sup>제</sup>히 準<sup>준</sup>備<sup>비</sup>할 거시오

一、講臺에 坐하는 者의 注意할 것

講臺에 登坐하는 諸氏가 特別 注意할 是 講道者 後座에 正面하야 坐하故로 聽講하는 敎友들이 皆仰視하는 바가 되엿는 處些 少한 拘碍되는 事示하면 講道者의 賜累를 遺하는 事이 되는 니라 故로 左記한 幾條를 注意하야 하지 말일

(一) 異常한 衣服을 着지 말고

(二) 異常한 貌樣으로 製作한 衣服을 着지 말고

(三) 異常한 貌樣으로 坐하지 말고

(四) 彼此耳語나 細語하지 말고

(五) 動作을 異常케 하지 말고 起坐치 말며

(六) 講道의 結末하기 前에 冊이나 鉛筆을 包持하고 速止하기를 苦待하는 色을 顯지 말

고

結末後 少지 從容히 端坐하엿다가 閉會後에 收拾하여 持하고 徐々히 下壇하는 거



이라

광고 주의

一、廣告에 注意할 것

(一) 禮拜節次中에 廣告하는 事가 緊要한 事나 禮拜에 一部分이라 할 수 업스니 可及

的대 로 張皇히 多케 하지 말기를 注意할 事 오且 無禮히 할 가 小心할 事 다

數人으 로 各々하게 말고 一人의 게만 委托하야 盡廣告케 하되 預盡昭詳히 知하야

準備하엿다 가 하게 하고 廣告하다가 中止하고 更探知하거사 無禮한 事이라

(二) 口頭로 廣告하는 것보다 廣告板을 設置하거사 던지 或速寫하야 賜하여서 各々

見하고 知게 하거사 勝하니라

(三) 廣告를 講道後에 하면 神靈한 言受하거슬 皆消抹케 하거 易하니 講道하기 前에

하는 거시 合宜하나 若別捐補事에 對하야 興起케 하는 講道이면 後에 或時할 수 있

느니라

禱할 거시오

찬송 주의

一、讚頌에 注意할 것

(一) 開會하기 전에 家에서 祈禱하는 心으로 講道에 適合한 讚美를 擇야 預備할 것、

然則 讚美와 講道가 互相聯絡하여 互相助佑가 될 거시오

(二) 讚美冊을 不帶하고 來賓이 있스면 借與하던 지 側히 坐호는 兄弟와 同看케 할 거시오

讚美도 禮拜에 一部分인 즉 主客이 皆讚美함으로 完全한 禮拜가 될 거시오

(三) 讚頌을 廣告할 時에 諸般 敎友가 皆分明히 知하도록 數次 明白히 하는 거시오

(四) 何敎會에서는 講臺 後壁에 廣告板을 揭하고 其日 禮拜 順序에 讚美章 數字々 지 記

揭하여 知게 하는 事이 있스면 如是한 會堂에서는 一次 廣告도 足함

(五) 讚美隊가 別讚頌을 할 라면 可及的 대로 其日 講道에 適合하도록 讚美를 擇定하여

하는 거시 極佳하고 讚美할 거슬 講道人의 게 預先 通知하는 거시오

(六) 讚美隊가 別讚頌을 할 後에 引導者가 即時 又 合唱을 廣告하는 거시오 合當치 못 할 事

(二) 하느님을 敎授하는 敎師와 如히 하느님이 하실 事에 對하야 敎授하시말거

시라 하느님이 天地萬物을 主宰하시는 主이시니 吾人의 指教를 受納하실 것업

슬거시오 故로 感謝를 獻하는 言과 懇求할 것뿐이오

(五) 丁寧受을 告知하고 信心으로 祈禱하고 求하는 事에 對하야 少許라도 疑心잇스면

寧卽止하는 거시 하느님을 優待하는 거시 됨

(六) 開會祈禱中에는 數多한 條目으로 張皇히 祈禱하지말일, 聖經에 模本的 祈禱는

皆簡短하고 一二條件式만 懇求하였습

(七) 舊約아브라함, 모세, 엘니아, 단이엘, 하박국의 祈禱와 新約히딩四〇二十四-三十三,

과엠티三〇十四-十九, 과如한 祈禱를 深思하고 効則하는 거시 合宜함

(九) 恒言만하지말고 新說으로 祈禱하기를 注意할일, 聖經을 多히 誦하도록 學하면

貴한 祈禱의 材料니라

(八) 講道後 祈禱는 講道人이 하는 거시 良好코 新語하지말고 該講說에 裏義로 祈

一、祈禱에 注意할 것

(一) 公祈禱할 때에 言辭를 愈促하게 勿오 深思하면서 祈禱할 일

(二) 逾大聲音으로 도하지 말일 하는 必셔 近히 在하시니 聞하실 수 잇슴

逾細한 聲音도 不可하시니 敎友들이 聲를 聞하야 同參하겠소 共同咸聞할 만치

만 分明하게 祈禱하는 거시 合宜함

(三) 祈禱하는 音聲을 釀蜜하는 蜂聲과 如히 應얼 應얼하지 말고 乞食하는 乞人처럼 恒

含哭聲만하지 말고 子女가 父母의 呼求하듯 言할 거시니라

(二) 祈禱에 不當한 言辭를 말거시오

(一) 聽者의 講道나 責望하듯하지 말거시오

恒常祈禱는 直接으로 하는 必의 呼籲하는 言이 오若하는 必의 祈禱하다가 更

히 會員에 對하야 說明도 하고 又繼續하야 祈禱하는 거시하는 必의 待接이 못되

느니라

○牧師의 體鏡

(목사의 體鏡)

中華民國山東省天新이라 하는 城에 一大中學校가 있는 디 學生이 累百名이 오 校長은  
 張保寧이라 하는 學士라 學校를 設立한 後로 幾年前까지 該校長이 恒常本校學生을 勸  
 勉하여 身體를 正直하게 持하고 하며 衣服을 淨刷케 하며 整齊히 着하라 하였스되 別  
 노히 聽從하는 者가 없더니 近年에 該校長이 一大體鏡을 該學校大門前에 設置하고 其  
 上에 揭示하기를 諸般學生들은 出入時에 此鏡裡에 照在하는 自己를 見하고 自身을 自  
 治하라 하였더니 其後로 全體學生이 各其自身을 體鏡에 照하여 見하는 대로 用力自治  
 하야 全學校가 異蹟과 如히 新學校가 成하였더라 吾朝鮮 牧師諸氏가 禮拜를 引導  
 하는 諸般事爲에 幾皆 嘉佳한 貌樣으로 하시나 或時 不足한 것도 잇기 易하니 此 牧師  
 體鏡이라 하는 題目下에 幾條式 注意할 事를 逐號하야 揭載하오니 某氏던지 該體鏡에 照  
 하여 改하는 事如히 自治力으로 改善하시기를 希望하는 事외다

고言<sup>말</sup>하<sup>나</sup>디 此繩端<sup>이 파 잇은 단</sup>을 堅<sup>잡으</sup>히 執<sup>잡</sup>하<sup>나</sup>라 하<sup>나</sup>엿고 艦長<sup>함장</sup>이 其沙工<sup>그 사공</sup>의 卮呼問<sup>불너 못</sup>하<sup>나</sup>기를 其繩<sup>그</sup>을 執持<sup>잡아가</sup>하<sup>나</sup>엿는 나 하<sup>나</sup>즉 沙工<sup>사공</sup>이 其繩<sup>그</sup>으로 肩部<sup>엇기</sup>를 圍結<sup>둘너 동이</sup>하<sup>나</sup>고 臥<sup>누</sup>하<sup>나</sup>여 서 對答<sup>대답</sup>하<sup>나</sup>기를 否<sup>아니</sup>라 其繩<sup>그</sup>이 余<sup>나</sup>를 執<sup>잡</sup>하<sup>나</sup>엿다 하<sup>나</sup>더라 吾儕<sup>우리</sup>가 救贖<sup>구속</sup>함을 得見<sup>엇어 보</sup>하<sup>나</sup>면 하<sup>나</sup>는 尼<sup>도</sup>이 助佑<sup>도우</sup>하<sup>나</sup>샤 救援<sup>구원</sup>을 受<sup>받</sup>게 하<sup>나</sup>여 賜<sup>주</sup>시<sup>나</sup>는 니다

一、 跪<sup>무릎을 꿇</sup>膝<sup>이</sup>하<sup>나</sup>고 克<sup>이</sup>하<sup>나</sup>는 事<sup>사</sup>이라

何許<sup>어</sup>碑石<sup>나</sup>刻<sup>비석</sup>手<sup>각수</sup>가 跪<sup>무릎을 꿇</sup>膝<sup>말</sup>하<sup>나</sup>고 鉄<sup>쇠</sup>撲<sup>마</sup>子<sup>치</sup>로 碑石<sup>비석</sup>을 打<sup>쳐</sup>銘<sup>삭</sup>時<sup>때</sup>에 何許<sup>엇</sup>하<sup>나</sup>牧師<sup>목사</sup>一<sup>인</sup>人<sup>이</sup>이 歷<sup>지</sup>見<sup>나</sup>하<sup>나</sup>고 言<sup>말</sup>하<sup>나</sup>디 我<sup>나</sup>가 石<sup>돌</sup>如<sup>또</sup>히 堅<sup>단</sup>固<sup>단</sup>하<sup>나</sup>의 心<sup>마음</sup>을 君<sup>그</sup>과 如<sup>또</sup>히 力<sup>힘</sup>打<sup>쳐</sup>할 수 有<sup>잇</sup>면 好<sup>호</sup>갓다 하<sup>나</sup>즉 其刻<sup>그</sup>手<sup>각수</sup>匠<sup>장</sup>이 加<sup>말</sup>言<sup>말</sup>하<sup>나</sup>기를 當<sup>당</sup>身<sup>신</sup>이 余<sup>나</sup>와 如<sup>또</sup>히 膝<sup>무릎</sup>을 跪<sup>말</sup>하<sup>나</sup>고 勉<sup>힘</sup>力<sup>써</sup>하<sup>나</sup>야 事<sup>일</sup>만 하<sup>나</sup>시면 或<sup>혹</sup>할 수 有<sup>잇</sup>다 하<sup>나</sup>엿는 니다

然故로此多數蟲類는盡死할지언딩 一人生命이업셔지는거슨不可호니 如是히獨

生聖子예수와多人을比較호면吾儕가昆蟲만못호니 吾人을皆合호여도貴호기가

一예수만못할거시오然則萬國人衆이盡死할지언딩예수一位는死호지마라야할

거신디萬民의罪를爲호야釘死호섯스니多人을代贖할만호價值가足호거시오

一、 重生는事이라

埃及國에서三千年前에死者棺內에穀粟幾粒을置호는風俗이有스니今日其穀一

粒을持고顯微鏡底에置호고温水을注호면今年生穀과如히萌芽가나서復生호粒

강이가될수있다호니 許久間罪에陷호여死者와如호人이라도聖神의權能으로

重生호者가될수有게호시리라

一、 救贖호는것

一夜에何許沙工一人이船에서溺水호야死게되엇는디人이잇서繩一端을投下호

一、날리 翔翼의 根本이라

誰가 누 言말하기를 하는 님이셔 最初에 禽鳥를 創造하실 때에 好音聲이 有있하시니 고 毛털을 被입히하섯스나 羽翼은 업섯더니 後에 하는 님이셔 又 兩翼을 添付與하신지라 禽鳥들이 雙翼을 受은 後 重負가 되어 苦境을 當당하엿더니 其後에 次次羽翼을 運動하야 飛往하 여 본즉 身이 前보다 輕捷하여 지고 升降에 便宜를 任意대로 하게 되니 重負으로 苦勞 히 知하던 羽翼이 力대로 運動하즉 反히 身을 輕便하하는 善선한 機械가 되엿더라

우리 우리 다날리 피로 吾儕는 皆翼을 苦와 하던 鳥와 如하 사람이 오 吾儕本分은 吾의 羽인즉 本分을 善運하면 負이 되지 안코 好翼이 되어 吾儕를 舉하여 서 天堂으로 引導하리다

一、만흔사람 多 人의 罪를 擔當함

全世界 昆蟲의 數交를 計算하여 보자면 不可勝數로 되 蟻 蜂 蚤 蚊와 諸般 蟲類가 億 千萬首나 될 거시라 然하나 皆合하여 도 貴하기가 人生 一名만 못하출은 皆所知이니

講道에 引用한 譬喻



이라稱호는니마돈나는이달니야言노余女主라其中에有名호圖像一座를德國聯

邦된삭션國王이巨額價를給호고買호여自己寶座有는寫眞室에掛置호經綸이더

니其圖本이愈大故로揭기適當호房이업고但自己寶座設置호正堂外에措置호處

가업는지라議論이紛紜호가가왕이乃에覺悟호고必竟其寶座를他室로移호고其

마돈나圖像을安挑호엿다호니

吾儕도心裡에잇는寶座를移호고예수를迎接호야坐定게할거시라

一、祈禱의 必要라

나불네온大將이致敗호든와덜누戰場에서英國大將들이先其軍隊의게命令호

기를法國兵丁들이初放鎗時에我軍隊는即俯伏호여暫間祈禱時刻을待호여接戰

케호야法國軍隊를攻擊호여盡逐出호엿다호니

信者들이萬一擾難호事을當호거든先祈禱함으로平安을得호수잇는줄알거시라

원조자 創造者 請邈하야 更히 一摩하디 如前히 善往게 되엿더라

一、將來가 現時보다 優勝하다

삼백년전 三百年前에 스바니아 國貨에 銘圖가 잇스니 左右邊에 柱가 잇고 其上에 記錄하거

를 其國方言으로 네블너스 일드라 하엿더라 其旨를 論하면 柱은 地中海西出하는 海

峽이 오其記述한 말을 翻譯하면 此에 在할 것보다 彼前에 잇는 거시 勝하다 하는 旨이

라 此거시 何如할 云云인 야하면 本是 스바니아 地方은 狹하야 屬한 版圖가 此에 잇는

것보다 海彼邊 美 洲 南北에 尤多타 하는 旨이라

吾儕는 此世上에 所有한 財產이 多히 積聚하엿서 도 信者는 彼에 在할 天堂世界에 잇는

거시 勝하나라

一、예수가 吾儕心內에 座定하실 王이시라

歐洲에 有名한 畫工等이 예수의 母親마리아의 肖像을 多畫는 디 其圖像을 마돈나圖

講道에引用한말을譬喩

一、世上情慾의 毒害라

德國에 水中에서 生하는 異常한 樹草가 있는디 名은 으벌그라웃이 오其花色은 白淡  
 然하고 其葉末은 赤色이 오望見함에는 美麗한 듯하고 危險한 것如지 아니하나 愚昧  
 魚子들이 近히來하야 暫間其花葉을 摩着하면 毒氣가 掩襲하야 魚子가 運動 못하  
 고잇슬 제 其葉이 魚子를 按抱하고 其身에 血를吮飲하야 消無하도록 盡喫하고乃已  
 하니 此世上情慾이라하는 거시 此와 酷似한 거시라

一、主에 수의 異蹟이라

德國스다루스 록城內에 一大禮拜堂 鐘閣尖塔 下에 有名한 時計를 粧飾한 거시 잇  
 스니 其製法이 甚히 奇恠하야 見者마다 異常하게 知고 皆妖術노 製造한 거신 가하디  
 라 幾年前에 其時計를 製造한 者가 其城人으로 憾情을 因하야 其時計裡機를 一摩  
 後로 停止되어 廢件이 되게 되미 多數한 時計匠工으로 도 必竟 改正지 못하 고 其病止

後로 停止되어 廢件이 되게 되미 多數한 時計匠工으로 도 必竟 改正지 못하 고 其病止

一、愛사랑의機會기회라 (로마五章六節)장

○講道에引用할만한譬喻 (강도에인용할만한비유)

一、福복이變변하야咀呪저주됨

有名유명의德國덕국畫工화공이異常이상한圖畫도화를그렸는디二層두층畫本화본이라上層우층畫은光明광명한天堂천당에

天使천사들이奇花기화瑤草요초中에安閑가온데히逍遙거니하는趣味취미가無窮무궁하고直곧其下아래에地獄지옥畫本화본이있

스니사단의奴隸종로地獄지옥苦楚고초를受받는中哀哭가온데하는形像형상을見고天使천사들이美麗미려한花꽃

藥약을摘따하야서天堂천당으로브러地獄지옥에投下던져하니其花그꽃가落내려下間갈동안에變변하야炭火숯불와如또하

硫黃유황火불이되여地獄지옥에있는苦痛고통하는者의身體신체를焚타苦괴게하엿다하니

設使설사惡악한者의게하는님씩서福복을下賜내려하실지라도每此대와如또하됨으로感謝감사한心마음도

업고感謝감사를獻드릴수도업게되느니홀수업시公理공리대로되느니妬부에福복이라도變변하야

咀呪저주와如또하되느니라

講道에引用할만한譬喻

一、萬國主人되시는 하나님을恭敬하는것 (출애굽장 3장 1節)

一、雲裡에居신하는님 (출애굽장 9章 9節)

一、人類의平等이라 (傳道書 7章 21) (로마 3:22)

一、忘置한默示라 (列王記上 11章 9節)

一、無所不知신자의異常히녀이심 (누가 7章 9節)

一、救援에基礎되는原理는愛과順從 (요한 1書 5:3)

一、財物의危殆함 (箴言 30章 8, 9節)

一、性稟을造出하는것 (아모스 7:7)

一、하나님의深察하심 (詩篇 百三十九篇 1節)

一、牧師의問을辭이라 (예레미야 13章 20節)

一、電如히隨從드는것 (에스겔 1章 14節)

一、예수外에所望되실이가업슴 (요한 6章 68節)

一、하느님을現調하는 것과 하는님의捺印 (默示二十二章四節)

其顔을現調할터이니主의名도彼の顔에잇스리라

一、信者의 본분과 其本分の 根源과 賞品 (유다書二十一二十一)

一、異端傳하는者를對하여行하는方針 (요한二書十一十一節)

一、眞宗敎를信仰하는者들이 財政에關한事에對하여正直하게함

(列王下四章七節)

一、克하는信仰이라 (歷代下十四章十八節)

一、人의 第一되는榮光 (箴言十九章十一節)

一、永生을得을希望은人을堅固케하는權能이라 (딤후前書一章一節)

一、神靈을能力이라 (에베소六章十節)

一、예수가其打는盤石이라 (出埃及十七章五、六節)

一、奧妙함에廳直이라 (고린도前書四章一節)

可用的本文과題目

그런고  
然故로하는님이尊昇샤 諸名上에超出호는名을賜섯스니

신자  
信者의하기易호는盜賊질 (말나기三章八節)

허거짓회기  
虛된僞悔改 (요엘二章十二十三節)

능력  
能力은本分에限定이라 (마가十四章八節) 此女人이力을盡호였다

순중  
順從은遺業을受호는方針이라 (申命記四章一節)

신자  
信者의權能得는方策 (여호수아四章十四節)

사온속  
人의衷曲은하는님이知심 (列王下十九章二十七節)

성경말씀  
聖經의言으로靈魂을餽호는有益 (이사야五十五章二節)

총성활  
眞된生活은信호는生活이라 (요한一書五〇四)

세상  
世上을克호는克은即吾信仰이라

이세상  
此世上에宜當히受호는宗敎 (요한十二章三十二節)

이저중  
異蹟中에聖經言이第一大異蹟이라 (詩百二十八篇二節)

一、信者신자의 生活생활은 高높하 여 加가는 生活생활이라

(요한十章十節) 余나가 來來거 슨 羊양으로 高高하 여 吾나 生命생명을 得얻고 加더得어 豐풍盛성하 게 하 라 는 거 시 오

一、그 리 스 도 는 人인種종의 獨독一일無무二이 所소望망이라

(요한六章六十六-六十九節) 弟제子자들等만이 多다히 退물去너하 고 復다隨시지 아 니 하 더 라

一、暫잠間간恩혜惠택受받음 (에 스 라 九章八節)

一、自자己기를 貢바친 후 祭제物물을 貢바치 는 거 슨 하 는 님의 酌작定정하 신 順순序서라

(歷역代대下하二십九구章장三십一일節절)

一、永영遠원히 奪세하 지 아 니 하 는 福부이라 (歷역代대上상十십七칠章장二십七칠節절)

一、直직行행하 이라 (列렬王왕記기下하二십二이章장二십二이節절)

一、예 수 를 待대接접하 는 賞상品품이라 (삼 우 엘 하 六章十一節)

一、諸모名든上인에 超뛰어 나 出나는 名명이라 (빌립 보 二章九-十節)

可 用 的 本 文 及 題 目



可用的本文과題目

결말

然故로專心으로主에수를思하시고參預하시오

○可用的本文과題目

(쓸만한본문과제목)

一、施恩所를露出케함 (마태二十七章五十一節)

一、容恕함으로容恕함을受는거슨예수의法이라

(누가十一章四節)余等の罪를赦하여賜음쇼서大槪우리도余等の罪犯한人을皆赦하여賜을엇는니다

一、信者等이傳道하는디懶怠하여짐

(고전一章十七節) 그리스도께서我等을福音傳하라고遣하섯소

一、宗敎에對한狼狽라

(누가十四章二十八—三十節)牆을築코져하면價를先預算할거시라

본문  
本文 마태二十六章二十六—二十七節

제목 聖餐을喫하는디受하는有益  
聖餐을喫하는디受하는有益

(一) 紀念하는有益 — 其十字架에釘과 棘冕冠과 流血를記憶한면感謝生覺이아

니生수업슴

(二) 예수와眞和睦하는有益 — 聖餐은예수의宴餉이오

(三) 互相親睦하는有益

(四) 從容한中에하는님이同在한심을思하는有益

(五) 良心을警醒케하는有益 — 善惡間에疑心있는事이多하니 譬喩한디夜와晝間에

良心이更分別하는力이生는니라  
良心이更分別하는力이生는니라

(六) 往事는過去事로送하고新言約으로始作하는有益

(七) 吾儕를更하는님의貢獻人으로서印을치는有益

神 學 指 南

聖餐設行時講道

(一) 心마음에 覺세느를 거시 업는 故고로 (奴隸종노릇을 아니 할 緣연고故고라)

(二) 心마음에 感謝감사할 거시 업슴으로

(三) 心마음을 預備예비하 지 아니 함으로

(一) 信믿음仰앙 (二) 愛사랑 (三) 淨潔정결 (四) 獻身헌신

(三) 命명령令은 客나그대人가이 參預참여치 못 할 거시 라

(二) 他國타국人인旅寓나그대者

(二) 宴餉잔치의 主주인人인을 反逆반역하 니 客객人인이 오

(三) 人남을 對대하 야 嫉妬위위하노마음心마음을 懷품호 者

結末 舊約구약逾越유월節절은 新約신약聖餐성찬이 오 當身당신이 至지今금客객人인의 座자리에 잇슴 닛 加+速속히 宴찬치主주인와

和睦화목하 시 오 悔改회개하 고 預備예비心마음으로 受받을 거시 의 다

○聖餐設行時講道

(성찬설행시간도)

본문  
本文 出埃及記十二章四十三節

제목  
題目 客人은參預하야喫지못할거시라

인도  
引導 異邦人으로寄寓하는旅人은逾越宴에먹지못하게하신여호와의規例라

禮受지못한者는評外人인故로

(一) 逾越節期는猶大人의明日中第一大名節이라

(二) 紀念하는日이오埃及에서救贖을受고出發한것

(三) 祈禱와感謝하는日이오

(四) 心情을省察하는日이오

(五) 全國民이參預아니할수업는日이오

(六) 客人이何如하야參預하지못하는노

시던지모본模本이있셔야成就성취할수잇는니聖經성경中에貴귀할女子녀조七人을模倣모방함세다

(一) 隨從수종잘드든 로나

(二) 聽道청도잘하든 베다니마리아

(三) 至孝지효하던 룻

(四) 勤부지런하던 마르다

(五) 傳道전도잘하던 브리스길나

(六) 人남을喜悅기쁘게잘하던 도르가

(七) 祈禱기도잘하던 하나

結末결말 此七人을合합하야完全완전한一人의人格인격을成일수하면卒業諸君의滿足만족을希희망이此

에서尤더大榮光이업는줄知알고特別특별한恩惠은혜는席자리에서用力前進하시오

(三) 食物 (聖經)

(四) 同僚

(五) 培養하는 것

(五) 目的을 성취하지 못할 거시면 斫伐하여 棄거시라

結末 曠野에 旅行하는 者들이 溪邊에 있는 樹木을 見거시면 其樹에 對하여 要求하는

거시 잇서 言하기를 吾儕의 遺與할 거시 잇는 나 혼다 하니 此世上에서 卒業호 青年을 對하여 此와 如히 問하는 言辭가 잇슬 거시라

○女學校卒業式講道 (녀 학교 졸업식 강도)

제목 卒業後에 무엇이 슬하느뇨

引導 吾儕가 方向을 定하고 往라면 前에 現하는 標準이 잇서야 善走할 거시 오 무어

神 學 指 南

男學校卒業式講道

(二) 擔任責任이同一함  
담임 처임 又

(三) 喜樂도同一함  
즐거움 又

(二) 植立호者가同一함 (하느님이시라)  
심어세운 자 又

(一) 此思은人을卑下호는거시오  
이성각 사됨 나 초이

(二) 此思은人을尊上호는거시라  
이성각 사됨 높히

(三) 植立호事故가同一함  
심으신 사됨이 又

(一) 하느님을喜悅케호기爲호야  
기부계 위

(二) 鄰을喜悅케호기爲호야  
리웃 기부계 위

(三) 自己々지喜悅케호기爲호야  
조끼 기부계 위

(四) 同一호目的을成就호기爲호야同一호거시잇셔야됨  
무덕 성취 위 又

二 光 (肉身과靈魂의光)  
빛 육신 영혼

(二) 空氣 (感動)  
공기 감동





(살전四〇十二)

結末 결말 至今예수의聲音을聞호면其日에又聞할거시라 지금 성음 드르 그날 또 드문

一、本文 본문 요한二十〇二十 主를見고喜호는지라 주 보 것비

제목 제목 復活의喜悅이라 부활 것비

(一) 失호였던主님을復見호니喜悅호였소 잃 었 주 다시보 것비

(二) 그리스도宗敎의奇妙호理致는復活호確定케되니喜호事이오 종교 기묘 터져 부활 확명 것비 일 몸 죽어업

도永生호는靈體는光明호天堂의生活이잇슴 영성 영체 광명 천당 생활

(三) 復活호由호야예수씨서苦難을當호신거시愛호시는하느님의許諾호로된證據 부활 앞의암 아 고난 당 사랑 하느님 허락 증거

가生則喜悅호였소 난 주 것비

(四) 回回敎가自信호기는諸般愛苦는預定호거시오避호을道理가업는줄知 회회교 스스로 및 모든 수고 예명 피 도리 암

(四) 復活은其贖罪호신方針을完全케호심이니喜悅호거시오 부활 그속죄 방침 완전 것비

○講道の圖型

(강도의도형)

復活主日講道

(부활주일강도)

一、本文 본문

요한十一章四十四節 장절

死人이 出<sub>나오</sub>는지라 죽사람

題目 제목

나사로를起<sub>살</sub>生<sub>나</sub>심

(一) 예수씨셔도事役<sub>일</sub>하시는데 中에 信者의 幫助를受<sub>받</sub>으심시오 (石을移<sub>옮기</sub>과 絞<sub>매</sub>를解<sub>풀</sub>는거

시 敎友와 敎役者의 할事役이라) 교우 교역자 일

(二) 예수씨셔 吾儕의 信仰이 微弱함을 責望<sub>책망</sub>하심시오 우리 믿음 미약

(敎訓을受<sub>받</sub>고도 忘置<sub>잊바림</sub>함으로 다 시 勸諭<sub>권유</sub>하심)

(三) 諸般肉身上 預備가 뒤後에 예수씨셔 世上에 來<sub>오</sub>신事를 盡<sub>다</sub>天父씨任<sub>맡</sub>기심시오 모든 육신상 예비 후 세상 오 일을 다

(其異蹟을 見<sub>보</sub>는者가 皆其權能은 하는 權勢로 成<sub>될</sub>줄노知<sub>아</sub>랏소) 그이적 보 자 다그권능 권세 될 아

(四) 예수씨셔 大聲音으로 大<sub>크</sub>叫<sub>게</sub>하심거슨 最末再臨<sub>장본</sub>하실時에 大<sub>크</sub>叫<sub>게</sub>하실張本이 됨 큰성음 부르 마즈마지림 때

(十三) 요한二十一〇十五節, 을見則에 수역서 모든에 조압에 諸弟子前에서 베드로를對하샤 愛하는

問題로問答하시고責罰을解赦하시외다

(十四) 五旬節日에 其大土器匠이 陶器를堅固케하는火을天上으로셔 下送하샤完

全 器을成신거시외다

結末 此와如히예수역서 吾儕를個人으로皆相關하시니 苦難을當할時에 吾儕

가 冤怨하나 此亦主역서 鍊鍛케하시는거시오 悲慼이나 喜悅이나 憂患이나 苦勞은

거세 諸般事이 皆吾儕를貴하게 造成는事이 오堅立케하시는事인즉 吾儕가 強硬하

泥土처럼 土器匠이를對敵지말고 身心을 貢獻서 土器匠이의 意대로하시기를 待하

세다그대로하면 次々吾儕를 尊사寶座前에 上함즉 尊貴한 器이 될줄 知니다

밖계업  
外에無는거시아니오닛가

(十) 예수와 十一弟子가 겿세마네園으로往하샤 八人은門前에留待게하시고 三人만

携率시고 入園祈禱하시기를始作하실시 弟子들의게醒在하시야서相助祈禱하라付

托하시고 稍深處서 血汗을流시고祈禱하신後에베드로의甘睡하는거슬見시고警

責하시디베드로야但一時間을醒在하지못하겿는나하섯스니自己가造成는器이

完實치못하게된거슬慨歎하신거시외다

(十一) 其後子正時에바리새敎人等이來서예수를捉去미 弟子等이皆逃亡하코베드

로가遠니追往서大祭司長의家에서其婢子의게 三次詰難을受고 三次皆不知다고

하지아니하엿소? 伊時第三次鷄鳴聲을聞고베드로가始覺하야哀痛하고三日間

죽은사름  
死人처럼經過는中에悔改한거시외다

(十二) 主復活하시든日朝에貴한土器匠이되신예수씨서奔走하신中이나베드로를

尋訪하시고 (누가二十四〇三十四) 隱密한和睦으로器을多數히改造하섯습니다

信者들의土器匠人

(七) 土器匠과 如히 新造시든 多흔 事을 盡言할수 無스니 略簡止고 歸逝시기 前日에 하

신事노 見하여 도 其日夜에 逾越節期를 守시고 爲하야 예수와 其弟子들이 樓房上에

會集난디 先以 예수씨서 手巾으로 腰를 束시고 器에 水노 弟子의 足을 洗시거늘 베드

로 曰余의 足을 洗시느 잇가 하니 主曰余가 爾足을 洗지 아니하면 余와 相關이 無는

者라 하신디 베드로의 言이 然면 余足은 洗아니라 手와 頭도 洗與쇼서 하엿스니 其日土

器匠이 되신 예수씨서 陶器된 베드로의 信行을 職責을 敎訓할거시외다

(八) 누가 二十二章 三十一節에 예수시기를 베드로야 사단이 爾等를(十二使徒)

尋求서 簸麥하듯 하라 하나 余가 爾等을 爲하야 祈禱하느니 爾가(베드로) 悔改하면

爾의 兄弟를 返還리라 하신것도 土器匠이 되신 主씨서 其器된 베드로를 爲하야 何如

케 顧念하신거슬 知겟고

(九) 예수또 言하샤 디 今夜에 爾等이 皆我를 離去리라 하시니 베드로의 言이 余가 死을

지언명 先生님을 背反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엿스나 其器에 分量을 知기는 造신 匠工

전생 배반 오날밤 너희들 다나 떠나가 그그릇 본량 알 된다 장공

시기를然則爾等은余를誰로知는뇨베드로가對答하되主는그리스도시오生在신

하느님의子이시로소이다하되예수言하시기를시몬바요나야福이있도다此는人

이汝의게知게하거시아니오天父씩서知게하신거시라고稱讚하신것도土器匠이

가陶器을善되게하는거시오

(五)然나主씩서예루살렘에上往서十字架에死하실거슬言하시니베드로가此事은

不可한줄노알고되지만기를願하거늘예수가深히責曰사단아退去하라하섯

스니此亦土器匠이意대로良好器을成美하는거시외다

(六)且예수가上山變化하실時에三徒中베드로가見靚欣悅이充溢하야熱心으로言

하기를此에三座帳幕을쳐서모세와엘니야와모사가各기居하게하면好흔줄노知고

請求할際天上노셔聲音이有서此는我的愛하는子이니爾等는彼의言을聽하라하

시는言을聞하미베드로가乃에自非하거슬覺고死者와如히俯伏하엿스니此亦主

씩서베드로의性質을變更식히는土器匠이시라

信徒들의土器匠人

主의 分付대로 故로 生鮮을 多得하야 船이 盈되 又 요한의 船々지 盈滿하게 하고 베

드로 가 輒然히 自己의 罪를 覺悟고 主前에 伏地하여 自服하여 曰 주님이여 余를 離쇼

서 余는 罪人이 로 소이다 하엿스니 是로 見건디 漸漸器局이 成가는 거시 외다

(二) 幾日後에 또 예수가 갈닐니 海東便으로 往다가 五千衆을 餽하신 후 弟子는 船로 送

시고 自己는 山에 上섰더니 夜半에 弟子들이 航海하노라고 無限히 苦生하는 中에 主

의셔 水上으로 走來샤 呼喚신디 船中人이 皆驚더니 獨베드로가 예수신 줄 知고 主의

求하야 水上에 步進다가 畏怯하는 心이 生으로 漸漸沉沒하디 更시 主의 哀乞함으로

예수가 拯救며 曰샤 디 小信者여 何以 疑心하느나 하섯스니 此事도 土器匠이 가 陶器

을 成라 가는 것 如히 베드로를 稱讚도 하시고 勸勉도 하섯느니라

(四) 少焉後에 예수가 弟子를 携率고 猶大國北界에 잇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往섯는

디 行路間에 弟子들의 問시기를 人들이 我를 誰라 하더니 하신디 弟子들의 言이 或

은 洗禮요한이라고도 하고 或은 先知者中에 一이라고도 하디 이다하니 예수 又 言하

吾儕를 貴호 恩惠受을 만호 器皿을 造成호 시 되 各支派民族과 國家로 皆關係가 有

시 되 特別히 個人으로 相關이 有스니 無益호 吾儕가 그리스도 內에서 鍊鍛을 受고 天

堂福을 享器가 되는 거시 마 치泥土가 土器匠人 手中에서 鍛鍊을 受고 適用器가 되는

것과 一般인즉 예수는 大土器匠人이라 할 만호 의다 今에 베드로의 歷事을 次例로 見

면 土器匠人 되신 주석서 何如호 此事役호 신거슬 妍究함으로 知수 잇스 의다

(一) 其本文을 見즉 其日에 예수가 베드로를 初面호 듯호 의다 베드로라 호는 泥土一塊

를 土器機에서 器을 撲造기 始作호 貌樣이 의다 其日에 先新名을 賜섯스니 舊形質은

變호고 新機關이 成樣되는 줄 知거시 의다

(二) 눅五〇一一十一、을 見며 예수씨서 土塊와 如호 베드로를 感動식히 始作호 사其

驕慢호고 自是호 줄노 知는 心性을 變케 호 시기를 泥土을 調和서 土器機上에 摩廻호

듯호 신거시 의다 예수씨서 베드로의 船에 上호 사 民衆의 傳道호 시다가 베드로를

信徒들의 土器匠人



예수의 平安과 사단의 平安이 大히 異證據가 確實하외다

結末 예수 親히 言하샤 曰 平安함을 余가 爾等의 遺與노니 我의 平安함을 爾等의

賜는 거슨 此世上이 賜는 것 如치 余가 爾等 賜는 것이 아니라 爾等은 憂도 勿고 畏도 勿나 하섯스니 吾儕는 此言을 思하고 主의 眞平安함을 受음세다

信徒들의 土器匠人 (신도들의 도기장인)

本文 요한 一章 四十二 四十三 節

문제 土器匠人 되신 예수시라

問題 朝鮮 土器店이 往往有서 其製造하는 法을 觀覽하건디 其理致를 善覺수잇

스니 盖 一塊泥土을 水에 調和하야 多數히 撲고 踏고 磨고 迴削고 摩져 陶本에 精密히

妙하게 造成後 火窟에 堅灸어 適用한 陶器을 產出스니 是와 如히 예수씨서 土木과 如

(四) 第四比較

사단이有時乎平安을賜수有스나財產이皆失敗되는日에知舊가皆

跡遠호여지고心身이皆苦痛을受을時에는必竟安慰를賜지못호고還히戲弄만

호고往코마는니但예수씨서만始終이如一호게安慰를恒賜실수有는니라詩篇

二十三篇四節에言호시기를陰沈호谷이로行지라도畏懼호지아니호은主역서

吾儕와同在호심이라幾年前에京城서某執事夫人이眞實히信호는病勢沉重호

야運命이臨迫호지라本敎會牧師가慰問호러往서醫師의言을傳호고問기를卒

逝가當頭호였스니畏懼호닛가호니其夫人이答호기를何을畏懼호닛는나言이

오닛가否을세다速離호야主에수와同居기를願호넌다호였고幾日後에其牧師

가他病들이死호게된女人을往見즉信다가落心된人이라此夫人이死을줄知고

大聲疾呼호야父여救活쇼서容恕호쇼호되聽納시지아니호니地獄에往수外

에無다고晝夜二日을呼訴호다가必竟赦宥함을受지못호고마랏다호니嘗此夫

人이魔鬼의平安을盡受앗스나死時에는沓沓호心으로救援을得못호거슬見니

記述的講道 平安호

(三) 第三比較

사단은 吾儕擔當負를 脫却케 함으로 平安會를 賜고 예수는 其負을 擔

當할 力을 賜심으로 平安을 得하심니다

(一) 傳道하는 者의 게는 사단이 誘惑하기를 爾가 牧師나 長老 職分도 業고 別能力도 無

스 卽 敎役者의 責任을 別노 務할 것 無다 그러나 예수 씨서는 言하사 디 道를 傳播하는

事은 汝의 宜當한 本分이니 務行하기 만하면 能力을 充足히 賜마하시니 예수 의 平

安은 事役을 勤務함에 平安이 오

(二) 救濟하는 事에 對하야 사단이 挽留하기를 爾亦 貧寒한 人을 助給지 아니하여 도

關係 처 아니하니 姑置자 하고 主에 수의 言은 不然하다 爾도 助給어 야 할 거시오 實

行하기 만하면 余가 常同之하고 亦助與마하시니 此는 卽眞平安이 을 세다

病者를 尋訪하는 事에 對하야 도사단이 第一小旨처럼 誘惑하고 예수 가 亦할 수 有

는 대로 하라고 勸告하시니 然故로 예수 의 平安과 사단의 平安은 顯然히 不同하

의 다

예수의 平安함을 得은 後에는 如許한 것 盡無시 安樂을 享할 거시라

뜻지아니하는 세상 학식 공부

(三) 不信之世에 學識을 工夫하는 對야사단의 指導로 平安을 得을 수有다하나예

수를 知지 못하고 學識만 瞻富거슨 還히 危險하게 되기 易니 沓沓할 것뿐이라 有名

한다르인 博士가 老來에 何許 傳道者의 게 主를 信仰하고 勸勉함을 듯고 對答

기를 余가 幼時에 信仰할 思이 少有섯스나 當時에 物理學을 工夫하는 愈尤 奔走

하야 斷行하지 못하고 停止하였더니 至今來는 信는 거시 良好 知하여 道 信仰

에 對하야는 余가 死者와 如다하더라 然則 예수의 平安은 到底히 此와 如지아니할

거시외다

(四) 權力에 對하야사단이 助與함으로 平安함을 得수잇스나 必竟其結局은 幾皆 後悔

함과 無味한 것뿐이니 大槪世上에 有名한 帝王과 將相들이 老境에 皆自己 事業에

對하야 後悔한 言이 有는 되나 볼네온 大將의 言이 余는 權勢로 人을 壓制하고 殃禍

를 受하나 예수는 愛으로 人을 克하고 至今서 榮華를 受다하더라

나타냄 주 영원 평안  
顯露함으로 賜시는 永遠한 平安이니 마치 何許病者가 속병을 因하야 醫師의 診

찰 엇년의 원 병 엇년의 원 병 잇  
察하미 何醫員은 病이 업다 하고 何醫員은 病이 有다 하야 治療하라 할 것 又흐면 어

느거슬 良醫라 하겠는 뇨 예수의 言은 病이 잇스니 治療하라는 良醫와 如하니라

둘지 비교 주 평안 결국 양화가 다대 담담  
(二) 第二比較 사단이 賜는 平安의 結局은 殃禍아니면 多大한 咎咎뿐이오 예수가

주 평안 화평 추줄거음  
賜시는 平安은 和平과 眞樂이라

저산 모호 도아줌 부요 평안 잇  
(一) 財産을 貯聚는 디사단이 助與으로 富饒케하는 平安을 受는 다하나 其終末은 幾皆

남 압박 숙여세앗 린석 적악 인 흥상한 업는 肉심 무한 마음  
人을 押迫함 과 欺取는 것 과 畜畜과 積惡으로 因하야 恒常無限한 欲으로 無限한 心

고통 밧 불측 지양 밧  
에 苦痛을 受거나 不測한 災殃을 受는 거시오

평안 후회 리웃 만족 조곰도 업 내 그 평안 다 밧  
예수의 平安은 後悔할 것 과 害될 거시 少無는 니라 余가 其平安을 盡受을 지라도 人

히 또흔 업 리웃 만족 又치 밧 잇  
의 害될 거시 亦無고 隣도 滿足하케 同受을 수 有는 니라

이 세상 조미 디 인 도 평안 밧 잇  
(二) 此世上 滋味에 對하야 사단이 引導함으로 平安함을 受을 수 有스나 諸般酒色雜技

아편 유희 침후 펠경 제가 망신 참후 양화 말 업 밧  
의 鴉片遊戲에 沈惑되여 必竟敗家亡身의 慘酷한 殃禍를 言할 수 無시 受는 거시오



(二) 救主에 對하야 사단이 理致를 掩우는 거시외다

救主라 하는 것도 無고 罪有는 거슨 若何호 道理가 업슨 즉 救贖한다 言은 無用호

言이라고 百方으로 誘惑케 하는 거슬 愚信호면 平安함을 欺아 得다 하려니와 理想

이 有는 者이면 其言을 遵信호 理가 無고 代贖하는 理致를 朝鮮서 傳來하는 風俗으로

로 見도 信을 만호 證據가 有스니 假令陰曆正月十四日夜에 草人을 作러 厄障이로

代命하야 街路에 拋棄는 거시니 此는 卽救主를 指稱義이라

사단이 救主理致를 掩匿으로 落心도 식히고 所望도 奪고 死亡에 平安함을 賜고 호

나 예수 씨서 其理致를 顯露함으로 眞平安을 賜시는 거시외다 言호시기를 誰某던

지 彼를 信으면 滅亡치 안코 永生을 得리라고 丁寧호 約束이 有는 거시 아니 오닛가

(三) 罪와 救主가 無다 고 人을 欺지 못호면 眞神하는 님이 아니 리시 다 고 人을 誘惑하야

平安함을 賜다 하느니 無神論을 主倡하는 것과 律法과 誠命을 事實上 無는 거스로

知도 록 하려는 것과 凡事에 主宰하는 것이 無슨 즉 關係호 거시 都지 無다 하야 罪惡

시외다

(一) 사단은眞理를欺함으로平安을賜고예수는眞理를明히顯함으로平安함을賜시  
는거시외다 假言言함자면

(二) 罪에對하야사단이理致를掩함는거시心에스스로勸誘受기를心대로함여도關  
係가無다罪가무어시나念慮말나고함고섭흔대로함不 謊說이나竊盜질이나殺  
人害物을忌憚無시犯罪케함는니誰某던지世上에理致가無시生活할줄노信함  
면모르거니와적이精神이呑有는人은到底히信고平安함을得는다할수無는거  
시아니오닛가

예수가明白함게敎訓함시기를罪라함는거시敗亡케할뿐이오少도利益이無고  
地獄刑罰노往는事이니慎行함라함시고罪에서救贖함을受함라고도함시고洗  
슬道理도有다함시고勸諭함섯손즉此言을信고平安함을受함는거슨사단이眞  
理를掩匿으로平安을賜는것과大게긋지아니함예수의平安이외다



(六) 요한은 사람이 오(눅 10:31) 예수는 하나님(요 10:1)

결말 요한과 如히 주를 尊고 自卑야 自己本分에 正當호 證人의 責任을 盡할 거시

의다

○記述的講道 (괴슬덕강도)

평안 平安 hymn

본문 本文 요한十四章二十七節

문제 問題 예수의 平安과 사단이 平安을 비교 hymn

인도 引導 예수와 此世上 主 管하는 사단이 (요 14:30) 皆同一호 勢力이 있다 할 수

잇손 즉 자 기 평안 有호 則 各其 平安 hymn을 遺與 만 할 힘이 잇스나 其 平安이 엇지 懸殊지 다 言할 수 업는 거

시 외 다 然나 簡短히 數條로 比較할 것 如호면 可히 分揀하여 大綱은 知게 할 수 잇는 거

○講道圖型 (강도도형)

安東縣車亭駿牧師

본문 요한三章三十節

인도 나보다 나은 자 술취  
引導 勝己者를厭하는 거슨人皆有는常情이지 마는洗禮요한은不然하야예수가

自己보다勝하여야할 거슬分明히證據할 거시오

제목 그외  
其衰할 만할理由라

(一) 요한은証人이오(요一〇八) 예수는證據受는者라

(二) 요한은聲요(요一〇廿三) 예수는言이라(요一〇二)

(三) 요한은治道者요(시四十〇三) 예수는人君이라(마二〇六)

(四) 요한은新郎의友요예수는新郎이라(요三〇二十九)

(五) 요한은燈火이오(요五〇三十五) 예수는眞光(요一〇九)

將亡城에서 出來者가 四條形 便이 잇슴

(一) 不信者니 (世上 富貴榮華에 醉者라)

(二) 信다가 背敎者 (사단의 誘惑으로 更其機械가 되어 其奴隸가 된者라)

(三) 信者中에도 一足은 教會內에 置고 一足은 世上에 置고 兩間에서 躊躇하는者라

(북十七〇卅二)

四眷屬中에 獨信는者

兵火中에 避亂하는 人을 見라 父母를 扶고 妻子를 携고 往는 人을 見지 못함은 五洪

水時 노아와 소돔 롯을 思고 惡호는 罪世上에 서 離나 避亂處되는 主에 수역로 入時

에 全食口를 皆扶 携고 出往 入할 人이라

제목 將亡城을離할것

(一)天上에서聲音가잇서

此聲音은即救援을廣告하는聲音이라하는님씩서自己百姓을救援할時마다每

此聲音이잇섯스니

(一)노아時에此聲音이잇섯고 (창六〇十八一十九)

(二)롯時에도此聲音이잇섯스며 (창十九〇十二)

(三)에루살렘亡할時에此聲音이잇섯스니 (마二十四〇十六一十八)

(一)吾民等아 凡世上에잇는人類가皆하는님의百姓이지마는特別이其擇할신者

들이라

(一)고린도城과如할處에도擇할신者가잇섯고 (행十八〇十)

(二)나느웨城과如할處에도悔改함으로救援을受할거시라 (요나三〇十三)

(三)其中에서出來하라



(一) 事役者의 氣運이 衰盡함

(二) 同族中에 軟弱호는 者는 役事를 停止하길 勸勉함

(三) 胆大호 理由

(一) 尊호신하느니 由로 覺悟함

(二) 畏우신하느니 由로 知함

(三) 助佑하시는하느니 由로 信음

(二) 事役의 負이 困苦하나 其 負을 同擔함 (十五—二十三)

(一) 事役에 困苦호 理由

(一) 一 手으로 兵器를 執고 一 手으로 事役함

(二) 期限前에 役事를 畢하라고 하니

(三) 仇讐를 防備하라고 守直하느니라

(二) 其 擔을 同 負 注意

(一) 微弱미약을 猶大人유대인이라고 (名數명수가 不多만치아니故고로)

(二) 하는 前앞에 責望책망을 受받은 百姓백성이라

(祭祀제사가 所用소용無없다함)

(三) 貧困빈곤을 百姓백성이라 (狐여호가 上올나 去가여 도 城郭성곽이 扞방지지리라)

(二) 猶太人유대인이 羞愧부끄러워아니함 理由이유

(一) 無所不知무소부지함을 신하는 神신이라 (聞듣지 못함 심이 業업은 知알함)

(二) 公義공의가 在계신하는 神신이시라 (行爲행위대 로 報갑하 賜주심)

(三) 賞善罰惡상선벌악을 主주掌장함시 는 知알

(報應보응을 實현세 權勢권세가 在상스나 主주시라)

(二) 猶太人유대인이 軟弱연약을 地境디경에 入드러스나 胆大담대함 (七一十四)

(一) 軟弱연약을 理由이유

(一) 仇讐원수가 集來모려하야 城성을 攻擊치라고 함

스며그리스도를從從서 苦生과 死음을 同伴又此後也함면 吾儕도 그리스도와 同又此後也히 權勢를 受호지  
라 然故로 예수를 從從는 者는 此와 如호 三條路이 잇스니 同苦又此後也호고 同樂又此後也호고 同治又此後也호리라

○ 講道圖型 (강도도형)

鳳 山 梁 錫 鎮 牧 師

本文 본문 느헤미야四章一二十三節

引導 인도 自古로 義를 守스고히고 天國을 爲의호야 事役천국호는 者의 心志는 苦難을 不顧호고 主

意를 不의變불호음

題目 제목 聖國을 爲호야 獻身호 事役者라

(一) 猶太人이 誹謗을 當호였스나 羞愧호지 아니함 (一一六)

(二) 誹謗호는 理由



神學指南

예수의력으로만罪를克할수 있는디 예수를爲하야苦生하지아니호人은예수와同在

다하나此는信할수업고疑心이잇는言이라若吾儕中에誰던지自心대로行하며死後

에天堂去하기를望할면盲人이前路을見지못하는것과如도다吾儕는吾大王이셔來

거슬預備하야하갓는디吾儕心門을開고大門을大開고全家을淨潔하게預備하고

왕의座定할실房도淨潔케預備하고企待하되情欲을離하야一切惡호거슬殺去하

야홀지라에베소片紙에잇는言과如히그리스도이셔吾儕內在갓다하엿스니萬一在

면그리스도이셔自己의權勢로吾儕裏에在리니許諾하신言과如히吾儕가主의不成

호신事을다하갓고其보다尤大事々지다하갓다하섯는니라그리스도이셔吾儕內에

在면平安호心과愛하는心이잇고疑心과畏懼心이업시眞理를善覺하고聖神의權能

을多受을거시니吾儕가예수를善事라하던지信지아니하는者를引導하야信케하라

홀진디不可不權力이잇서야홀지라然則此權勢는예수이셔吾儕內에在셔主掌하시

는外에는他法으로는都得수업는거시라吾儕가예수를知대로全히從는人이될수잇





참예 參預호는 거스로樂위호라然호면其榮光을顯出실時에爾等이樂위호고喜호리라호  
즐거 그리 그 영광 나타내 때 너희가 즐겨 것비

우리 마음으 엇스니吾儕心으로靈魂의問見言이有스니吾儕가예수를爲호야苦生을受호는노  
영혼 우리볼말 잇 우리 고생 받

어려운 길 도나 예수씨서難호路에行호섯스니吾儕도血流足이有호는노예수씨서棘冕冠을戴호섯  
가시 면류관 쓰

우리 머리 피가흔 스니吾儕頭에도血流호엇는노吾儕들도갓세마네園과如호處이此世上에잇서야호  
피가흔 벗 우리 피흐로받 잇 못 이 세상

어려운 단 받 티인디예수씨서受기難호杯을受으신것如히吾儕도當호기難호事을當호므로吾儕  
어려운 단 받 또치 우리 당 어려운 일 당 우리

성명 생명의 生命으로難中에祭物을삼아하는님씨貢쳐야호지니萬一吾儕가甘味잇는예수와  
어려운 단 받 단 받

관 받으 親切호愛스려은杯을受호라면受호기難호苦味잇는杯씨지라도예수와同受호여  
어려운 단 받 받

우리 마음으 또호심조가 못 야호지라吾儕心대로는都지호지아니호고吾儕의願치아니호는事이라도行호므로  
우리 마음으 또호심조가 못 주 그 심조가 뜻을 상 원치

어려운일이 당 솜些少호難事라도當호後에는我가十字架를負다고들호니此는固不善解釋호기를무  
어려운일이 당 후 내 심조가 것 이 아조잘 못히 석

죽 십조가원 뜻 죽 십조가原旨은死는거슬指호미오些少호苦難을指호미아니라吾儕信者中에姑씨지  
죽 마르침 조고마 고난 마르침 우리 신자 중 아적

죽은 일 만치안 코 십조가 十字架에釘박혀死호事이不多호고此前에잇던惡호心이都지死지아니호其前人的  
죽은 일 만치안 코 이 전 악 마음 도모 죽 그 전 사람

故元杜尤牧師의遺書와如호講說



神 學 指 南

뒤後에 累年間 都思<sup>여러히 동안 도모지성</sup>하<sup>후</sup>지 도 못하<sup>세</sup>고 覺悔<sup>뜻</sup>하<sup>세</sup>지 도 못하<sup>근</sup>였다가 近者에 來<sup>와서</sup>하<sup>근</sup>야 始覺<sup>비로소</sup>랐<sup>느</sup>슴으

로 此를 稱新福音이라 하<sup>이</sup>였<sup>일카리시복음</sup>느니라

예수 씨서 罪를 覆與<sup>덮어주</sup>하<sup>구주</sup>시는 救主시 오 罪를 克<sup>이</sup>하<sup>구주</sup>시는 救主시 오 此世上에서 復活<sup>부활</sup>하<sup>구</sup>신 救

主로 今日吾儕와 同히 在<sup>교회우</sup>하<sup>교회안</sup>신 救主시라 救主 예수 그리스도 씨서는 教會前에 標準<sup>표준</sup>만 되

실 辨아니라 教會上에 權勢<sup>권세</sup>시며 教會內에 在<sup>교회안</sup>하<sup>제</sup>신 生命<sup>생명</sup>이시 오 此福音은 權勢多與<sup>이복음 권세 만히 주</sup>하<sup>부활</sup>는

福音이니라 死은 예수는 吾儕의 益이 되 지 못하<sup>하늘</sup>고 復活<sup>부활</sup>하<sup>하늘</sup>섯스되 天上에 昇往<sup>올나가게시</sup>在<sup>하</sup>하

기만하<sup>우</sup>시면 吾儕의 益無用<sup>쓸데업는</sup>하<sup>구주</sup>는 救主가 될터이나 然<sup>그러</sup>나 예수 씨서는 此世上에 生命을 賜

하<sup>구주</sup>시는 救主로 當身이 信者中에 同<sup>홍의</sup>在<sup>제</sup>하<sup>구주</sup>신 救主시니 卽吾儕의 生命이시 오 吾儕의 所望

이시라 然<sup>그런</sup>하<sup>즉</sup>는 則此所望은 世上에 無二<sup>둘이업</sup>하<sup>다만하</sup>고 但獨一만 되<sup>완전</sup>시는 完全<sup>소망</sup>하<sup>유대</sup>는 所望이라 猶大<sup>유대</sup> 벼<sup>대</sup>을

네 衽에 單降臨<sup>장림</sup>하<sup>구주</sup>섯던 救主만 아나시 오 今日이라 도 降臨<sup>장림</sup>하<sup>세상사람앞에</sup>샤 世上人前에 在<sup>제</sup>하<sup>제</sup>신 이라

其降生<sup>그강성</sup>하<sup>우</sup>심을 吾儕信者들이 吾儕의 行爲로 此難<sup>이어렵</sup>하<sup>고</sup>고 苦生<sup>고생</sup>스려 온 世上에서 顯出<sup>나타내</sup>하<sup>여</sup>여

야 홀지니 此福音을 吾儕의 行爲로 此世上에 發表<sup>발표</sup>하<sup>이</sup>면 此거시 卽此福音의 權勢有<sup>복음 권세 잇는</sup>하<sup>거</sup>거

故元杜尤牧師의 遺書와 如<sup>이</sup>하<sup>이</sup>講說

故元杜尤牧師의 遺書와 如한 講道

본문  
본문  
빌립보三章八-十節

제목  
諸般거슬 害로 녀이 는 거시라

데살로니가前書에 그리스도께서 吾儕의 標準되신 거슬 言하섯고 亦 그리스도께서 吾

儕 위에 在한 거슬 言하섯스니 事爲 權勢를 裕足히 賜시는 意旨라 그리스도께서 吾儕의

衣와 如히 되심을 顯出하섯고 吾儕가 그리스도 內에 잇고 그리스도께서 吾儕 內에 在

하갓다 하섯스니 此는 그리스도와 信者間에 奧妙하게 聯合되는 法을 現하심이라

하느님께서 其無限하심으로 吾儕有限한 人生中에 在하든 言이니 初에는 그리스도

께서 吾儕前에 標로 在하신 거시 오 吾儕 內에 生命으로 在하는 거시니 此와 如히 예수와

信者間에 聯合하든 奧妙하 意旨를 聖經으로 分明히 教授하섯스니 初으로 教會가 成立

천하 반항렬교파  
天下反抗列教派

천하 반항렬교파 신도  
天下에反抗教會信徒들은二億名이라호니其中에各教派의敎人數는如左호니라

루터教派는

七〇五〇萬名이오

메도디스트教派는

三二四一萬名이오

長老, 改革教派는

三〇八〇萬八千名이오

英國監督教派는

二六七五萬八千名이오

浸禮教派는

二一〇〇萬名이오

독립(조합)교파  
獨立(組合)教派는

四三五萬名이오



# 教會統計

(교회 통계)

## 美國列教派

종교 통계 학자 박승, 보고 본 미국 작년 교회 정교회 열나교  
 宗敎統計學者 카를博士의 報告를 見 國美에는 昨年 에 로마敎會와 正敎會 (希臘敎)  
 反對敎會 (各種耶穌敎) 內信徒들은 四千萬餘名 이 더라 過去 二十六年 間에 國民名  
 數가 每百名에 六十一名으로만 增加 하였스나 敎人名數는 九十四名으로 增加 하였고  
 一千九百十六年에 宗敎에 七十四萬六千六百六十九名이 入敎 하였는디 反對敎會에  
 入名數는 五十萬名이 되더라 右記 四千萬名中에 로마敎會에는 一千四百萬餘名  
 이 有스며 長老와 改革敎會에는 二百六十八萬六千名이 有스며 聖도리슴 (監理敎) 敎  
 會에는 七百六十萬八千名이 有스며 浸禮敎會에는 六百五十三萬四千名이 有스며 그  
 리스도의 弟子들은 (新敎派의 名稱) 一百三十三萬七千名이 有스니라

神 學 指 南

에 다른學者의著述학자 저술冊도無數무수하였으나至今이제까지번연의손冊처럼만히보는冊은當世學者의著述세 학자 저술中에도없더라

여러冊을著述저술中에第一有名매일 유명한거슨天路歷程이오其次에는自述言行錄자술언행록(罪人의

魁首의事蹟)이오其次에는靈魂의聖戰이라하는冊이니이는하느님과魔鬼가人的

靈魂을엇기爲하야싸혼다하는譬諭라天路歷程은거의世界各國方言으로翻譯되었

스니예수教會에서其冊을貴히녀일뿐더러로마教會에서도或보는지라西國教會中

에서잇는사람이兒時부터其冊을小說冊貌樣으로잘보고닉히알며밋지아니하는사

람까지거의다보니譬諭로말할거시며聖經理致를넓히알게되니라

其文義가明白하야男女老少와有無識을勿論하고보는者는다其義를복히知할수잇

느니라

神 學 指 南

또自己의才와일흔거슬도모지自矜하지아니하고오히려謙遜하야님의게順服하

는模樣으로지나고他人의分爭함을和睦식히는心이잇고他人으로더브러親押하

려하는性稟이만코眼精이복아聰明이게보며人을보고갈分揀하는天才와事에對하

야果斷性이잇고사람의말에合當하게對答하는智慧도잇는지라또크고骨格이

굵고몸은肥鈍치아니하며顔은붉고眼精氣는甚히光明하고머리는조곰붉더니老年

에는희엿스며鬚髯은上唇에만잇고입은좁크고額은높고넓으며衣服은儉素하게하

고其婚姻흔일을言하건대獄에갓치기前에喪妻하고再娶하였는디前妻의兒는여러

시나번연이죽기前에몇치죽고넷만生存하였시며獄에가치기前에소경된것을나하

는디甚히사랑하야養育하나가첫슬동안에其兒가죽으니미우슬퍼흔지라번연은學

校에서學問을工夫하人은아니나宗教書類를만히보고聖神의權能을밧음으로福音

의理致를만히아는사람이되엿스매其傳道하는言이나記錄言이皆要緊함을

이오여러冊을著述함으로當時에有名하게百姓을마르치는先生이되엇는지라當世

조괴, 저조, 조량, 겸손, 순부

모양, 다른사람, 분경, 화목, 다른사람, 친압

성품, 안정, 총명, 사람, 본진, 천제, 일

과단성, 합당, 더답, 지혜, 분간, 연제, 대

비둔, 얼굴, 눈경과, 심, 광명, 골격

수염, 상순, 니마는, 의복, 겸소, 로년

그혼인, 말, 옥, 전, 상처, 지취, 전처, 오희

전, 생존, 그오희, 옥, 전

교, 학문, 공부, 사람, 종교서류, 성신, 전능, 복음

리치, 그전도, 말습, 기록, 말습, 다요건

척, 저술, 당시, 유명, 비성, 전성

당세

南 指 學 神

은 본<sup>본래</sup>來<sup>유명</sup>有<sup>장도</sup>名<sup>장도</sup>호고 講<sup>장도</sup>道<sup>장도</sup>를 잘<sup>장도</sup>호는 牧<sup>목</sup>師<sup>사</sup>나 對<sup>대</sup>答<sup>답</sup>호야 글<sup>글</sup>으<sup>으</sup>디 陛<sup>계</sup>下<sup>하</sup>의 서 제 말을 드러 보옵쇼

서 제가 萬<sup>만</sup>一<sup>일</sup>번 연의 講<sup>장도</sup>道<sup>장도</sup>호는 지 조만 엿을 수 잇스오 면 찰 하 리 제 모든 學<sup>학</sup>文<sup>문</sup>을 다 보 릴 지

언 寧<sup>장도</sup>법 연의 講<sup>장도</sup>道<sup>장도</sup>호는 神<sup>신</sup>靈<sup>령</sup>호 지 조 엿기를 願<sup>원</sup>호는 이 다 호 디 라 이 로 보 건 디 번 연이 神<sup>신</sup>靈<sup>령</sup>

호 게 講<sup>장도</sup>道<sup>장도</sup>를 잘 호라 口<sup>구</sup>才<sup>재</sup>잇는 거 슬 分<sup>분</sup>明<sup>명</sup>히 알 수 잇고 또 호 오 원 牧<sup>목</sup>師<sup>사</sup>의 心<sup>심</sup>이 謙<sup>겸</sup>遜<sup>遜</sup>호고 너

그러 온 거 슬 가 히 알 겠 디 라 번 연이 十<sup>여</sup>餘<sup>년</sup>年 間 에 하 는 님 의 일 호는 가 온 디 受<sup>수</sup>苦<sup>고</sup>를 만 히 호

디 니 一<sup>년</sup>六<sup>당</sup>八<sup>당</sup>年 을 當<sup>순</sup>호야 巡<sup>순</sup>行<sup>행</sup>호는 中<sup>중</sup>에 엿 던 教<sup>교</sup>會<sup>회</sup>에 서 父<sup>부</sup>子<sup>자</sup>間 에 不<sup>불</sup>和<sup>화</sup>호는 人<sup>사</sup>이 잇 거

늘 力<sup>힘</sup>을 다 호야 和<sup>화</sup>睦<sup>무</sup>케 호고 聞<sup>문</sup>돈 으 로 도 라 오 다 가 中<sup>중</sup>路<sup>로</sup>에 서 雨<sup>비</sup>를 마 자 病<sup>병</sup>드 리 熱<sup>열</sup>氣<sup>기</sup>가 過<sup>과</sup>

度<sup>도</sup>호야 醫<sup>의</sup>藥<sup>약</sup>이 無<sup>무</sup>効<sup>효</sup>호 지 라 十<sup>십</sup>日 後 即<sup>후</sup>八<sup>월</sup>月 十<sup>일</sup>二<sup>일</sup>日 에 聞<sup>문</sup>돈 에 서 別<sup>별</sup>世<sup>세</sup>호니 나 히 六<sup>세</sup>十<sup>세</sup>一<sup>세</sup>歲

라 至<sup>지</sup>今<sup>금</sup>시 지 其<sup>그</sup>墓<sup>묘</sup>가 聞<sup>문</sup>돈 教<sup>교</sup>會<sup>회</sup>有<sup>유</sup>名<sup>명</sup>호 墓<sup>묘</sup>地<sup>지</sup>에 잇는 디 그 의 別<sup>별</sup>世<sup>세</sup>호 後<sup>후</sup>에 教<sup>교</sup>人<sup>인</sup>들 이 合<sup>합</sup>力<sup>력</sup>호

야 크 고 妙<sup>묘</sup>호 들 노 집 을 지 여 墓<sup>묘</sup>를 頂<sup>정</sup>헛 디 라

번 연의 性<sup>성</sup>稟<sup>품</sup>을 議<sup>의</sup>論<sup>론</sup>컨 디 其<sup>그</sup>外<sup>외</sup>樣<sup>양</sup>은 嚴<sup>엄</sup>格<sup>격</sup>호고 粗<sup>조</sup>厲<sup>려</sup>호 듯 호 디 言<sup>말</sup>에 는 溫<sup>온</sup>順<sup>순</sup>호고 懇<sup>온</sup>懇<sup>곤</sup>호야

스 스 로 온 席<sup>자</sup>에 서 는 別<sup>별</sup>노 言<sup>말</sup>호 지 아 니 호고 有<sup>유</sup>益<sup>익</sup>호 機<sup>기</sup>會<sup>회</sup>가 잇 슬 時<sup>때</sup>에 言<sup>말</sup>호는 사 름 이 오

요한 번 연 傳

神學指南

을나가서主日에講道하시비록外處에人이稀疎호禮拜堂이라도사람이三千名이나

모혔고또主日이아니라도새벽講道할때에一千二百名이모혔더라其後에數十年

間本處베포트禮拜堂에서講道하시며이리더리各處로든나디受苦야傳道하시교人

이有益을만히받을뿐아니라새로히잇는사람이만히나려나教會가旺盛하시라或教

會가업는處에든닐식會堂이업슬지라도사람이모힐수만잇는곳에는모히는대로傳

道하시스니或수풀나무그늘아리에서도一千名이나모혀講道를드른셔도잇섯고잇

던때에는술만드는집마당에서라도主人의許諾을얻어여러사람을모호고傳道할때

悔改하고잇는사람이만터라或逼迫을만히받는境遇에는隱密히밤에든나고或逼迫

을因야巡邏軍의服色을하고中夜에城을넘어서敎人의隱密히모히는處에간일도

잇섯고또每年一次式론돈에올나가서講道하시라돈에有名호神學博士오원牧師

가번연의講道하는말을드릿스나第二자를스왕이그일을듯고오원의게웃기를엇지

그티와코치有名호선비가야조無識호섬장의셔드는소리를드를수잇는노호나오원

그티와코치有名호선비가야조無識호섬장의셔드는소리를드를수잇는노호나오원

神 學 指 南

一六七二年에 변번연을 노흐니 獄獄에서 나와서 熱心열심으로 傳道傳道를 했스되 다시는 가도지아

니 思思<sub>싱가</sub>하건디 當初當初에 裁判長裁判長과 王왕<sub>왕</sub>이 지지<sub>지</sub>번연의 曖昧曖昧<sub>의</sub>를 分分<sub>분명</sub>히 알고 노하주기를

許諾許諾<sub>허락</sub>하였슴이라 번연번연이 獄獄에서 나와서 許久許久<sub>오리동안</sub>간만히 傳道傳道<sub>전도</sub>하며 教會教會<sub>교회</sub>事務<sub>사무</sub>를 단히 하였

스니 이는 하느님의 恩惠恩惠<sub>은혜</sub>니라 번연번연이 獄獄에서 나오음을 因因<sub>인</sub>하여 本教會本教會<sub>본교회</sub>教友<sub>교우</sub>들이 一一<sub>호날</sub>일을 感感<sub>감</sub>

謝謝<sub>사</sub>히 직<sub>직</sub>후에 各處各處<sub>각처</sub>에 있는 親舊親舊<sub>친구</sub>들이 合合<sub>합</sub>하여 捐補捐補<sub>연보</sub>하여서 該處該處<sub>그곳</sub>에 새로히 禮拜堂禮拜堂<sub>예비당</sub>을 建建<sub>건</sub>

築築<sub>축</sub>하였는디 其後其後<sub>그후</sub>부터는 講道講道<sub>강도</sub>하는 거슬거슬<sub>사</sub>막는 일이 업업<sub>업</sub>스매 人人<sub>사람</sub>이 多多<sub>만</sub>數<sub>수</sub>히 모혀 講道講道<sub>강도</sub>를 듯는

지라 번연번연이 平生平生<sub>평생</sub>도록 此禮拜堂此禮拜堂<sub>이예비당</sub>에 牧師牧師<sub>목사</sub>로 事事<sub>사무</sub>役<sub>역</sub>하니라

번연번연이 大學校大學校<sub>대학교</sub>에서 工夫工夫<sub>공부</sub>하지 못하였스매 번연번연을 아지 못하는 사람사람<sub>사람</sub>들은 無識無識<sub>무식</sub>한 農夫農夫<sub>농부</sub>로

알고 或學校或學校<sub>혹학교</sub>에서 오는 선비선비<sub>선</sub>던지 自高自高<sub>자고</sub>한 國教人國教人<sub>국교인</sub>이던지 만만<sub>만</sub>히 와서 辨論辨論<sub>변론</sub>하려 하되 번연번연의

말을 드른 後後<sub>후</sub>에는 思思<sub>싱가</sub>하야 智慧智慧<sub>지혜</sub>있는 사람사람<sub>사람</sub>으로 알고 가는지라 英國英國<sub>영국</sub>都城<sub>도성</sub>은 돈돈<sub>돈</sub>이 又又<sub>아</sub>흔 곳곳<sub>곳</sub>이라

도 번연번연의 名聲名聲<sub>명성</sub>으로 震動震動<sub>전동</sub>하여 該處該處<sub>그곳</sub>에 가서 講道講道<sub>강도</sub>하겠다고 미미<sub>미</sub>리 廣告廣告<sub>광고</sub>하면 講道講道<sub>강도</sub>를 듯고져

하야 오는 사람사람<sub>사람</sub>이 너너<sub>너</sub>무만 흥흥<sub>흥</sub>으로 禮拜堂禮拜堂<sub>예비당</sub>이 좁좁<sub>좁</sub>아서 半半<sub>반</sub>도 容納容納<sub>용납</sub>지 못하더라 호호<sub>호</sub>번은 론론<sub>론</sub>돈에

호거시오(自己의言行錄)第四는以信得義理致를證據함이오第五는天路歷程

이니라

此天路歷程은全板譬諭로말호니冊인디譬諭호니冊中에는世上에第一有名호니冊이라聖

經다음에는第一만히보는冊인디翻譯호기는各國方言으로다호였고著述호기는一

六七七年에獄中에서記述되거시라처음出版호년數는아지못호거니와두번재出版

호기는一六七八年이라其後에는此冊을보는사람이미우만호매팔니는대로자조자

조出版호야一六八二年에第八次로出版호고第九版은一六八四年에호고第十版은

一六八五年에호고其後에는니여만히出版호니라一六八四年에또天路歷程第二卷

을著述호였는디이는基督徒의妻와四子이基督徒를본밧아信者가되여天堂길을돈

닌事蹟이더라

번연이獄에갓첫슬때라도宗教書類를出版호기를始作호거슨敎人의게其說이要緊

호중녀였슴이라

神學指南南

神 學 指 南

히獄에가도지아니하면汝職分을보지못하리라하니라一六六一年부터一六六八年

까지지는미우嚴하게가도니라其間에獄에서前에호던生業을할수업스니새로히編物

하는거슬비화其妻子를保存하여가더라(其子女中에瞽女나히잇는디其女을爲

하야사랑하는모임으로受苦만히하니라)一六六八年에政府에서새로히法을定하

므로獄에서暫間나와서福音을傳하다가오리지아니하야다시國教會牧師의게逼迫

을받아獄에갓쳤스나前과又치嚴하지는아니할지라獄司匠의게許諾을받고累次

나와서敎友等이會集時에흥석參預하니라一六七一年에獄에갓쳤슬지라도本教會

會錄을본즉베포로트教會의同事牧師로擇함을받았다하노言이잇는지라一六七二年

에獄에서아조나왔스니다른罪는조곰도업스나但福音을傳할일노因하야十二年間

에獄에갓쳤느니라요한, 변연이十二年갓치잇슬동안에겨를이만흐매書冊을여러

권著述하였는디其中에有名하게記述할척은이러하니第一은聖神을힘납어祈禱하

는거시오第二는거룩한城이復興할거시오第三는罪人의魁首의게恩惠가만함이라



神 學 指 南

잡힌後후에 裁判長지판장의 말이다 시 傳道전도하지 아니하고 마하고 면 그져 노하 주겠다 하고 되면 연이 그

거슬 許諾허락할 수 없다 하고 拒絕거절하니 卽時監獄즉시감옥에 가 돈 지라 數月後수개월후에 裁判長지판장 압혜 審問심문할

시 裁判長지판장이 말하기를 충된 國敎국교를 蔑視멸시하였다 하고 또 魔鬼마귀가 들녘다고 도하고 證據증거를

查實소실치 아니하고 그져 三箇月間서른 동안을 갖쳐 잇스라 하고 此後이후에는 國敎會국교회에 든니기를 許諾허락

지 아니하고 講道강도하는 거슬 廢폐하지 아니하면 鬼鄉귀향보내겠다 하고 또 許諾허락업시 家집에 도라

오면 處絞처교하겠다 하는 거슬 辨변연이 對答대답하기를 今日我오늘날 나를 노하 주면 하는 님의 도아 주심을

님어 來日리일이라 도 福音복음을 傳전하겠는이다 하고 갖친 지라 一六六一年년에 王왕의 卽位禮式즉위예식을

行행할시 大赦令대사령을 나려 他罪人다른 죄인들은 다 노하라 되고 辨변연은 노하 주지 아니하고 늘 其妻그 안희가

裁判長지판장 압혜 가셔 노하 달나 하고 되 노하 주지 아니하는 지라 그러나 獄司匠옥소장이는 人情인성이 만

흔 사름이라 間있다 或있 辨변연이 獄司匠옥소장이의 請청하야 晝낮에는 獄옥에서 서나 갖다가 夜밤에 드러 오게

하야 달나고 매 獄司匠옥소장이가 許諾허락함으로 나가셔 勞働者노동자의 衣服의복을 남고 路邊길가에서 人사람을 맞

나는 대로 傳道전도하니 裁判長지판장들이 此所聞이 소문을 듣고 獄司匠옥소장이를 불너 吩咐분부하되 辨변연은 듣든



라 魔鬼가 번연을 오리 동안 이 러게 몹시 試驗하시니 번연이 聖經을 더욱 勸勉히 보고 聖經

中에 하는 님의 言約하신 거시 그 뜻이 무어 신지 알고 저야 크게 이 쓴고로 畢竟氣力이

衰盡야 거 의 咳嗽病이 되더니 其後에 次次하는 님의 말씀을 完全한 心으로 밝으니 心

이 漸漸和平하여 지고 氣力이 如前하더라

一六五三年에 其年二十六歲라 베프로트 教會에 入教하엿더라 其前부터 多年間을 禮拜

堂에 잘든니 며 聖經을 잘 보고 만히 祈禱하엿스니 此所聞이 퍼진지라 其時入教後에

잇던 敎友가 又처가서 傳道하자하거늘 이에 갓가온 洞里에 가서 傳道하고 또 敎友들이

隱密히 모히는 디도가서 勸勉하니 次次禮拜堂에서 도와서 마르쳐 달나하거늘 아모리

辭讓하여 도 免처 못하야 謙遜하고 두려 온 마음 이 잇슬지라도 각 金禮拜堂에서 傳道하

게 된지라 一六五五年에 該會堂을 主管하던 그 牧師가 죽잇는디 該牧師죽기 前에 번

연이 禮拜堂에서 數次講道하고 其後에는 次次勸勉을 밝아 禮拜堂에서 講道하니 듯는

사람들이 有益함을 만히 밝앗다하니라 其後에 祈禱하고 禁食하는 禮式으로 將立함을

神 學 指 南

의恩惠만依<sup>은혜</sup>고<sup>의지</sup>였는지라그러나平安<sup>평안</sup>함을엇기前<sup>전</sup>에오리동안무셔온<sup>당</sup>것정을當<sup>당</sup>하야一

年<sup>년</sup>이過<sup>지나</sup>호도록魔鬼<sup>마귀</sup>의試驗<sup>시험</sup>과自己<sup>자기</sup>의無識<sup>무식</sup>호思想<sup>이상</sup>으로因<sup>인</sup>하야心<sup>심</sup>을完定<sup>완정</sup>치못호지라其<sup>그</sup>

間<sup>동안</sup>에는聖經<sup>성경</sup>을보아도疑心<sup>의심</sup>이나셔서<sup>동음</sup>듯지못호며心<sup>심</sup>에서나<sup>수상</sup>는<sup>마귀</sup>헛된思想<sup>시험</sup>과魔鬼<sup>마귀</sup>의試驗<sup>시험</sup>

을오리동안에當<sup>당</sup>호시其洞里<sup>그동리</sup>에잇는牧師<sup>목사</sup>의게무러보아도<sup>수상</sup>음을<sup>마귀</sup>받지못호고오리동

안에큰試驗<sup>시험</sup>을當<sup>당</sup>하야天堂<sup>천당</sup>으로가는<sup>수상</sup>거슬아름답게<sup>마귀</sup>녀이나自己<sup>자기</sup>는<sup>수상</sup>가지<sup>마귀</sup>못호줄노思<sup>생각</sup>호

고地獄<sup>지옥</sup>은아조무섭게<sup>수상</sup>녀이나그리로갈수<sup>마귀</sup>받과업는<sup>수상</sup>줄안자<sup>마귀</sup>라오리후에此形<sup>이형</sup>便<sup>편</sup>을免<sup>면</sup>호

기를始<sup>시작</sup>作<sup>작</sup>호<sup>말</sup>때에마<sup>지술</sup>딘, 루터가著述<sup>저술</sup>호<sup>수상</sup>갈너<sup>수상</sup>디아書註釋<sup>서주석</sup>一<sup>한</sup>卷<sup>권</sup>을보니自己<sup>자기</sup>의<sup>수상</sup>잇는形<sup>형</sup>便<sup>편</sup>

을<sup>말</sup>입<sup>수상</sup>히<sup>수상</sup>言<sup>수상</sup>호<sup>말</sup>였는지라<sup>수상</sup>싱<sup>수상</sup>각<sup>수상</sup>건<sup>수상</sup>디其冊<sup>그책</sup>은自己<sup>자기</sup>의<sup>수상</sup>心形<sup>심형</sup>便<sup>편</sup>을<sup>수상</sup>그러<sup>수상</sup>낸<sup>수상</sup>거스<sup>수상</sup>로<sup>수상</sup>녀이<sup>수상</sup>매<sup>수상</sup>有<sup>유익</sup>益<sup>익</sup>을

만<sup>수상</sup>히<sup>수상</sup>밧<sup>수상</sup>고其後<sup>그후</sup>브<sup>수상</sup>터其冊<sup>그책</sup>은恒常<sup>항상</sup>聖經<sup>성경</sup>다음<sup>수상</sup>가는冊<sup>책</sup>으로<sup>수상</sup>녀이<sup>수상</sup>더<sup>수상</sup>라其後<sup>그후</sup>에<sup>수상</sup>또<sup>수상</sup>一<sup>한</sup>年<sup>년</sup>間<sup>동안</sup>을黑<sup>검</sup>

暗<sup>검</sup>호고무셔온試驗<sup>시험</sup>을當<sup>당</sup>하니每<sup>날마다</sup>日<sup>마귀</sup>魔鬼<sup>마귀</sup>가예수를<sup>수상</sup>팔아<sup>수상</sup>라호고또世<sup>세상</sup>上<sup>상</sup>의모든<sup>수상</sup>도<sup>수상</sup>흔<sup>수상</sup>거스

로예수와<sup>수상</sup>밧고<sup>수상</sup>자<sup>수상</sup>하야<sup>수상</sup>밤<sup>수상</sup>낮으로<sup>수상</sup>詰難<sup>질난</sup>호<sup>수상</sup>죽<sup>수상</sup>길<sup>수상</sup>을<sup>수상</sup>가<sup>수상</sup>나寢床<sup>침상</sup>에<sup>수상</sup>누<sup>수상</sup>엇서<sup>수상</sup>나食床<sup>밥상</sup>을<sup>수상</sup>對<sup>대</sup>하<sup>수상</sup>나<sup>수상</sup>이

런<sup>수상</sup>試驗<sup>시험</sup>을當<sup>당</sup>하야<sup>수상</sup>열<sup>수상</sup>고對敵<sup>대적</sup>하야<sup>수상</sup>맞<sup>수상</sup>치<sup>수상</sup>天路<sup>천로</sup>歷程<sup>력정</sup>에<sup>수상</sup>基督<sup>기독교</sup>徒<sup>도</sup>가<sup>수상</sup>아<sup>수상</sup>과<sup>수상</sup>륜<sup>수상</sup>과<sup>수상</sup>싸<sup>수상</sup>호<sup>수상</sup>는<sup>수상</sup>것<sup>수상</sup>又<sup>수상</sup>흔<sup>수상</sup>지

히恭敬<sup>공경</sup>할 줄은 아나 오히려忘<sup>망</sup>悞<sup>오</sup>된言<sup>말</sup>과辱<sup>욕</sup>하는 거슨 브리지아니 하더니 하로는路<sup>길</sup>邊<sup>가</sup>에

서無<sup>무</sup>禮<sup>례</sup>한言<sup>말</sup>을 할 즉 거괴안즌女<sup>녀</sup>人<sup>인</sup>은 비록無<sup>무</sup>理<sup>리</sup>한人<sup>사람</sup>이나責<sup>책</sup>하야 글으되 더런말만聞<sup>듣</sup>하

여도我<sup>내</sup>身<sup>몸</sup>이 썰닌다 하고 또 온洞<sup>동</sup>里<sup>리</sup>에 잇는靑<sup>청</sup>年<sup>년</sup>사지 다 브리갯다 하거늘 변연이此<sup>이</sup>言<sup>말</sup>을

듯고 붓그러워다시忘<sup>망</sup>悞<sup>오</sup>된말을 하지 아니 하니라其<sup>그</sup>後<sup>후</sup>에聖<sup>성</sup>經<sup>경</sup>을 잘 보는艱<sup>간</sup>難<sup>난</sup>한사<sup>사람</sup>을

맛나勸<sup>권</sup>勉<sup>면</sup>함을 받아聖<sup>성</sup>經<sup>경</sup>보기를始<sup>시</sup>작<sup>작</sup>하고外<sup>외</sup>貌<sup>모</sup>로行<sup>행</sup>實<sup>실</sup>곳<sup>곳</sup>천<sup>천</sup>것도만<sup>만</sup>함으로 보는사<sup>사람</sup>들

이다異<sup>이</sup>常<sup>상</sup>히 녀여 잘 잇는사<sup>사람</sup>들이라 하니自己<sup>자기</sup>도 스스로思<sup>생</sup>하<sup>하</sup>기를 하는<sup>것</sup>을恭<sup>공</sup>敬<sup>경</sup>하<sup>하</sup>는<sup>것</sup>이

나보다나 할사<sup>사람</sup>들이英國<sup>영국</sup>全<sup>전</sup>國<sup>국</sup>에 엮다 할지라

이러케 스스로迷<sup>미</sup>惑<sup>혹</sup>한中<sup>중</sup>에 잇더니미양 잇는艱<sup>간</sup>難<sup>난</sup>한女<sup>녀</sup>人<sup>인</sup>들이 잇는事<sup>일</sup>에對<sup>대</sup>하야 더히세

리니야기 하는거슬드른즉自己<sup>자기</sup>는 잇는理<sup>리</sup>致<sup>치</sup>를 도모지 모른거시라幾<sup>몇</sup>日<sup>날</sup>後<sup>후</sup>에該<sup>그</sup>教<sup>교</sup>會<sup>회</sup>牧<sup>목</sup>

師<sup>사</sup>요한, 괴<sup>괴</sup> 뜻을맛나宗<sup>종</sup>教<sup>교</sup>니야기를드른즉미우要<sup>요</sup>緊<sup>긴</sup>하고아름다운지라오리지아니

하야自己<sup>자기</sup>의形<sup>형</sup>便<sup>편</sup>을살피보아救<sup>구</sup>援<sup>원</sup>을得<sup>얻</sup>지 못<sup>못</sup>할 줄알고크게근심하야하는<sup>것</sup>을新<sup>신</sup>心<sup>심</sup>을

주옵쇼셔懇<sup>공</sup>求<sup>구</sup>하고또新<sup>신</sup>眼<sup>안</sup>으로聖<sup>성</sup>經<sup>경</sup>을보고次<sup>차</sup>次<sup>차</sup>外<sup>외</sup>飾<sup>식</sup>하는<sup>것</sup>을<sup>온</sup>전<sup>전</sup>이<sup>하</sup>는<sup>것</sup>을

南 指 學 神

지라도 큰罪<sup>죄</sup>에는 빠지지 아니하였스니 飲酒<sup>음주</sup>하는 것과 姦淫<sup>간음</sup>하는 것과 남을 사리는 것은  
업섯스니 冥은 後<sup>후</sup>에 크게 悔改<sup>회개</sup>하고 自服<sup>자복</sup>한 것 중에 그런 큰罪<sup>죄</sup>를 自服<sup>자복</sup>한 것은 업섯스니  
밋지 아니할 때에도 무슴 잘 못 할 일도 因<sup>인</sup>하여 官員<sup>관원</sup> 압혀서 罪人<sup>죄인</sup>이라고 고인의 訟事<sup>송사</sup>를 當<sup>당</sup>할  
거시 업는 줄 알거시라

十八歲<sup>세</sup> 되엿을 때에 兵丁<sup>병정</sup>이 되어 호로는 어나 城<sup>성</sup>을 치러 가고져 할시 他兵丁<sup>다른병정</sup>이 代身<sup>대신</sup>으로  
其處<sup>그곳</sup>에 가기를 願<sup>원</sup>하거늘 許諾<sup>허락</sup>하였더니 其兵丁<sup>그병정</sup>이 其處<sup>그곳</sup>에 가서 派守<sup>파수</sup>보다가 銃<sup>총</sup>에 마자 죽

은지라 變<sup>변</sup>연이 其後<sup>그후</sup>에 이거시 하는 님의 크신 恩惠<sup>은혜</sup>인 줄 아랏스니 萬一<sup>만일</sup> 其時<sup>그때</sup>에 죽었스  
면 예수를 밋지 못하였스리라 흠이라 十九歲<sup>세</sup>에 兵丁<sup>병정</sup>을 辭免<sup>수면</sup>하고 오리지 아니하야 婚姻<sup>혼인</sup>

하엿는디 其妻<sup>그안희</sup>는 밋는 사람의 딸인디 其丈人<sup>그장인</sup>은 말서 죽고 업는지라 그럼으로 其丈人<sup>그장인</sup>의  
財産<sup>재산</sup>은 업고 但<sup>다만</sup> 잇는 것은 宗教書類<sup>종교서류</sup> 二卷<sup>두권</sup> 뿐이 오또 집이 艱難<sup>간난</sup>하야 家産<sup>가산</sup>이라고는

접시하나 와수가 락하나 도 업는지라 其時<sup>그때</sup>에 變<sup>변</sup>연이 該宗教書類<sup>그종교서류</sup> 二卷<sup>두권</sup>을 妻<sup>안희</sup>로 더브러 보  
아 有益<sup>유익</sup>함을 조곰 밋은지라 勤勉<sup>부지런</sup>히 禮拜堂<sup>예비당</sup>에 든니며 禮拜堂<sup>예비당</sup> 物件<sup>물건</sup>과 牧師<sup>목사</sup>의 禮服<sup>예복</sup>을 極盡<sup>극진</sup>

요한 변연傳

요한 번연傳

神學及哲學博士 裴緯良 著述

天路歷程을著述<sup>저술</sup>한 요한, 번연은主後一六二八年<sup>년</sup>에英國<sup>영국</sup>벤틀<sup>성</sup>城가온디엘스도라

하는마에서生<sup>생</sup>한것이니其父親은本來<sup>본래</sup>微賤<sup>미천</sup>하고艱難<sup>간난</sup>하며無識<sup>무식</sup>한야셈장이로生業<sup>생업</sup>

하는人이라그러나힘써其子<sup>그아들</sup>요한을洞里<sup>동리</sup>書堂에보내어屬文<sup>속문</sup>하리만콤마르쳤더니오

리지아니한야그비흔거슬거의다니져브리교父親의<sup>부친</sup>하던生業<sup>생업</sup>을비호하며無知<sup>무지</sup>한匪類<sup>비류</sup>

들을싸한야든니나다른惡<sup>악</sup>한兒孩<sup>어회</sup>들과긋치거짓말과敬虔<sup>경건</sup>치아니한일을만히할뿐더

러其中<sup>그중</sup>에魁首<sup>괴수</sup>가되니라그러나兒孩<sup>어회</sup>적에는오히러罪<sup>죄</sup>를因<sup>인</sup>한야良心<sup>양심</sup>의責<sup>책임</sup>을<sup>책임</sup>받음이

있스매地獄<sup>지옥</sup>에빠질가한야크게落心<sup>락심</sup>도하고걱정도하더니長成<sup>장성</sup>후에는良心<sup>양심</sup>이<sup>양심</sup>긋어

저忌憚<sup>괴란</sup>함이업시든니며靑年<sup>청년</sup>中<sup>중</sup>에여러사름을誘惑<sup>유혹</sup>하였다고밧은後<sup>후</sup>에自服<sup>자복</sup>하였다스니

此<sup>이</sup>는他人<sup>타인</sup>이<sup>타인</sup>보기는過度<sup>과도</sup>히惡<sup>악</sup>한人<sup>사람</sup>으로<sup>사람</sup>녀이지아니하니自己<sup>자기</sup>는良心<sup>양심</sup>의責<sup>책임</sup>을<sup>책임</sup>받아<sup>양심</sup>甚

히自服<sup>자복</sup>한줄을우리가알거시라靑年<sup>청년</sup>時<sup>때</sup>에는참으로無禮<sup>무례</sup>하고無法<sup>무법</sup>하게함부로든<sup>무법</sup>냈을

六、

폴겐디 오가루스베 감독<sup>감독</sup>인 디 공교회<sup>공교회</sup>의 교리<sup>교리</sup>를 위<sup>위</sup>하야 열심<sup>열심</sup> 많<sup>만</sup>호<sup>호</sup>고 로 아 리 오 문<sup>문</sup>徒<sup>도</sup>

되 완<sup>완</sup>달 민족<sup>민족</sup>의 왕<sup>왕</sup> 트라시문의 계<sup>계</sup>定<sup>정</sup> 배<sup>배</sup>보<sup>보</sup>님<sup>님</sup>을 당<sup>당</sup>호<sup>호</sup>고 왕<sup>왕</sup>이 五二三年<sup>년</sup>에 別世<sup>별세</sup> 후<sup>후</sup>에

還來<sup>도라</sup>호<sup>호</sup>엿<sup>엇</sup>는 니 라 이 구스디노의 교<sup>교</sup>리<sup>리</sup>를 견고<sup>견고</sup>히 보<sup>보</sup>호<sup>호</sup>고 特別<sup>특별</sup>히 아 리 오 문<sup>문</sup>徒<sup>도</sup>와 校<sup>교</sup>

正<sup>정</sup>학<sup>학</sup> 벨나 기 오 문<sup>문</sup>徒<sup>도</sup>들을 對敵<sup>대적</sup>호<sup>호</sup>엿<sup>엇</sup>는 니 라 (五五五年<sup>년</sup>에 別世<sup>별세</sup>)

七、

가르타고 執事<sup>집수</sup> 폴겐디 오, 페란도는 루스베 폴겐디 오 弟子<sup>메자</sup>인 디 그 來歷<sup>리력</sup>을 記錄<sup>기록</sup>호<sup>호</sup>

엿<sup>엇</sup>는 니 라 (近五四七年<sup>년</sup>)

八、

헤르미아네 감독<sup>감독</sup>과 군도와

九、

가르타고 執事<sup>집수장</sup> 리베라 도러라

十、

更<sup>정</sup>正<sup>정</sup> 教<sup>교</sup>會<sup>회</sup> 에 루터 先生<sup>선생</sup> 과 갈빈 先生<sup>선생</sup> 이 이 구스디노 教<sup>교</sup>理<sup>리</sup>를 多<sup>만</sup>依<sup>히</sup>호<sup>호</sup>엿<sup>엇</sup>는 니 라



三、마리오, 메르가도르가教會職員은 아니로되선비러라 본래서편사공 本來西便人인디 로년 老年에

곤스단의노불니城에居호者러라 동편 東便에라도벨나기오門을勝호라 힘을쓰 且勉力호며

特別히안디 학파자 學派者들네스도리오와몹웨스디아데오도로를對敵호야 기서 記書를

記出호엿느니라

四、브로스버, 아귀다니고가갈니아教會內平信徒인디 문둔 論文과 시문 詩文으로 말미아마즈 由호야自

己同族된校正호벨나기오門徒들을對敵호엿느니라 근 (近四六〇年別世)

五、가이사리오는갈니아, 아렐나데(口今아를너) 감독 監督인디 본래 本來레리노 수도원 修道院에留

居호 수도스 修道士요 그때사공중 其時人中에有名호고 권세만코 權勢多호고 교회안 教會內에아조有 유익자 益호者러라갈

니아에서五二九年에어구스의노門이校正호벨나기오門에對호야 승리 勝利를得호

거슨가이사리오는因호이라그의恩惠와意志之自由란記書는 실물 失物이라도自己

가作文호 작문 修道士規則과 녀 女修道士規則과 만흔 多호 講道書 講道書는有호니라 년 (五四三年에

別世)

어구스띠노의弟子 데노

一、바을나노가밀나노城內執事인디어구스띠노의請願을依야암브로시오의來

歴과行跡을記錄호고四一年에벨나기오異端에對호야爭論을起케호고四一

七年에조시오教皇의대콜네스티오를對敵호는小書를獻호였는니라

二、바을노, 오로시오가스바니아長老인디四一年에아프리가로가서어구스띠

노를尋訪호며其로호여금보리스길니아노門을敵論케感動호고또벨나기오門

을對敵호였는니라그의記書는1, 브리스길니아노門徒와오리게네門徒들의

誤解에代書를어구스띠노의게드리고2, 벨나기오를對敵호야意志의自由를

辯證호는記書를記錄호고3, 어구스띠노의請願을依호야異邦不信者들을對

敵호으로七卷되는史記를記出호였는디어구스띠노의上帝之國이란書와又호

題目을史記方法으로記錄호였는니라

교회 모든 변증론 문종 데인종대 기사 에국 야인 들의게 (特別히 고

교회의 諸辯證論 文中에 第一重大한 記書니라 로마帝國이 野人들의게 (特別히 고

도와 완달民族) 壓制를 受한 거슨 異邦人들의 생각과 言대로 教會의 百姓을 軟弱하

고 衰亡케 過失이라 함을 어 구 스 의 노 가 첫 四卷에 對敵하야 로마國內 貪慾과 敬虔

치 아니 함과 道德上에 不足함과 腐敗함의 前進함을 因하야 滅亡之種이 本來부터 有

함을 敎示하야 其 譴責을 拒絶하니라 其次 五卷에 異方宗敎들의 腐敗함과 異方哲學

의 不足함을 敎示하고 其餘 幾卷에는 上帝之國과 世上之國間에 起源과 目的과 發達

과 末日之審判에 當할 決定에 對하야 相違를 指示하였느니라

七、 解釋記書

其中에 完全하고 要緊한 書는 創世記 첫 三章을 十三卷에 解釋하고 또 詩篇 解釋 六卷

과 요한 福音 解釋 二卷과 四福音 合書와 山上 講道 解釋 合一卷과 요한 福音과 요한 一

書 講道 二卷과 講道 書 四百書가 有하고 또 片紙 二七〇張이 有느니라

五、爭論文 정론문

一、마니키오門문을對敵덕덕하는十一論文中에 파오스도를對敵덕덕하는記書기서란三十三卷

이重大중대한거신디마니키오의敎理교리를保護보호하는者자파오스도의議論의론을引用인용하야

論破론파하고

二、도나도門문을對敵덕덕하는論文론문은十書십서를記錄기록하고

三、벨나기오門문과校正교정한벨나기오門문을對敵덕덕하는論文론문은十四記書십사기서를記錄기록하고

四、아리오門徒문도와브리스길니아노門徒문도와오리게네門徒문도와마르기온門徒문도를特論특론

文문으로論駁론박하고

五、異端이단이란記書기서에各種異端각종이단을大綱대강에敎示교시하고論破론파하였는니라

변중론문

六、辯證論文

유티人인과異邦人이방인들을對敵덕덕하는여러記書기서중上帝상대의나라이십이권잇스古

도법 설교법  
道法(說教法)

三、

撥回書란 二卷을平生末에記錄하야 첫記書들을論駁하며其中에多論을改革  
철회서 이권 평생말 기록서  
하거나撥回하거나校正하였느니라 교경

四、

도덕상기서  
道德上記書

一、

嫁娶之有益이란記書에不嫁娶함이無功하다는요위니아노의敎說을對答하  
가취의유익 기사 불가취 무공  
매그리스도인들의嫁娶함의大貴함을許諾하나不嫁娶함을其實히擇호는  
잇 방법 사용 고 신자 생명 더 높은 총계 도착  
거룩함을得호는方法을使用호는故로信者生命의尤高層階에到着함을論  
說하고 설

二、

奸淫과又혼嫁娶란記書에는再娶호는거늘倍娶(有妻娶妻)호는거스로不可  
간음 가취 기사 재취 비취 유취취쳐 불가  
히녀여棄却하고 귀자

三、

謊言에對호는記書와곤센디오의게送호는謊言을對敵호는記書에兩義之言을使  
황언 더 기사 보년 황언 더 더 기사 양의의말  
用호는거늘許諾함을無條件히拒絕호는니라 허락 무조건 거절

一、아가데미고(學士)敵書二卷에는어구스티노가堅固한知識을得할수가얼다  
역서 삼권 전고 지식 있음 무

논說을辯證하고  
본설 변증

二、福된生命이란記書에는하느님을知는거세眞福이有함을敎示하고  
복 생명 의서 초복 있음 교시

三、秩序란記書二卷에는宇宙에하느님의設立한신秩序에善惡의相關을論說  
질서 의서 우주 설립 질서 선악 상관 본설

하고

四、獨話란二卷에는宇宙以上에眞理를認知하는方法과條件을示하고附錄에靈  
독화 이권 우주 이상 진리 인지 방법 조건 의서 부록 령

魂의不滅함을敎示하니라  
혼 불멸 교시

三、敎理上論文中에第一緊要한거슨如左하니  
교리 상론 중 제일 진요 여좌

一、三位一體란十五卷에其敎理를作式하야論說한故로敎理의進化함의史記에  
삼위일체 십오권 그교리 작식 논설 고 교리 진화 서기

아조重大한記書니라  
중대 의서

二、그리스도敎會의敎理란四卷中첫에三卷에信의類似로由하야聖書를註釋하  
교회 교리 소권 중 삼권 믿음 류소 말미암아 성서 주석

고第四卷에는如此히得한眞理를얻더케使用할는지敎示하고(註解學과講  
대소권 이와저저은진리 소용 교시 주해학 강

論會에서 (도나도教會監督은 一七九名이 오公教會監督은 一八六名이 叅席함) 호노

리오大皇帝의 仲裁官前에 베딜니아노와 브리미아노二人이 도나도門을 保護함고 이

구스티노와 어렐니아노가 公教會를 保護함라고 討論함매 어구스티노 便이 勝利를 得

함였스나 卽時 벨나기오의 異端을 因함야 新辯論이 起함야 어구스티노가 終身도록

人學과 敎學에 對함야 크게 辯證함였느니라 完달 民族들이 赫本城을 包圍함는 동안에

어구스티노가 熱病으로 四三〇年 八月二十八日에 別世함였느니라

어구스티노의 記書

不복서 괴서

一、自服書란 記書는 어구스티노의 來歷인디 無所不知함신하는 向함야 아조

謙遜함고 至極히 懇切함 祈禱함는 言으로 自己의 罪過를 推諉함시 言함고 하는 님

의 恩惠를 引導함심과 保護함심을 稱讚함니라

二、哲學上 論文은 創立받기 前에 著述함거 니라

神 學 指 南

준비 후 準備 후 後에 三八年 復活 主日에 自己의 私生子 德오다 도와 흥의 암브로시오의 洗禮를 受하엿는 니라

그 후 其後에 어구스의 노가 아프리 가로 도라 가기로 作定하고 가는 길에 로마 城에 近하오스

그 모친 병 城에서 其母親이 病드러 卽年 未에 別世 하엿는 디어 구스의 노가 一年間 이나 로마

성류 城에 留할 時에 마니키오 門徒 들을 對敵 하야 其 僞敎理 를 辯論 하다가 다 가 슈데로三八

年에 도라 가서 自己의 基業 된 農家 에 留하며 哲學 과 聖經 理 致를 더 工夫 하엿더라

어구스의 노가 三九一年에 貞간 槓本 레기오 (후 그 저 槓本) 에 留하러 갈식 그곳 監督 알

네리오 가 어구스의 노의 許諾 업서 抑志 로 그를 長老 로 擇하게 하며 將立 하고 또 三九五

年에 그 監督 이 年老 하고 向身 이 軟弱 하고 同 事 監督 으로 將立 하고 翌年 에 別世 하故

로 三九六年 브터는 어구스의 노가 單獨 監督 이 되야 그 時 브터는 記書 가 繁盛 할 時節

이 始作 하엿는 디 敎會 의 柱가 되고 全 西方 敎會 와 神學 의 中央 이 되엿는 니라

四〇〇年에 도나도 敎派 를 對敵 하기를 始作 하고 四一年에 도나도 門에 對하야 大辯

聖 어구스의 노



권말을하는規模가있는지암만김히思하여도그권말을前에聞았는지記憶할수가

無<sup>업슴</sup>함으로<sup>눈물을뚫치</sup>淚를止하고起<sup>나리나</sup>야如<sup>이런말</sup>此言은天에서<sup>하늘</sup>下來<sup>나려온</sup>하<sup>명령</sup>니命<sup>성자</sup>수인줄을思하고聖書를<sup>성서</sup>펴

에<sup>눈</sup>眼에<sup>보이</sup>觸하는<sup>강</sup>첫章을朗讀하여야<sup>강</sup>될거슨안도니오<sup>중</sup>가福音을朗讀하는<sup>우연</sup>中에偶然히<sup>본</sup>見

훈말씀이自己의<sup>자</sup>게直接<sup>직접</sup>으르關係되는<sup>관계</sup>勸勉으로思<sup>권면</sup>하였다는<sup>성자</sup>니야기를聞<sup>드</sup>함이<sup>들</sup>러라내

가크게騷動하는<sup>소</sup>中에<sup>중</sup>알<sup>노</sup>비오<sup>가</sup>있는<sup>곳</sup>으로도라가<sup>가</sup>서거<sup>거</sup>노<sup>노</sup>하<sup>하</sup>둔<sup>둔</sup>使徒의<sup>사</sup>記書를<sup>기서</sup>가

지고<sup>무</sup>퍼서<sup>성</sup>無聲으로<sup>눈</sup>眼에<sup>보</sup>觸<sup>되</sup>한<sup>진</sup>첫章을<sup>장</sup>閱覽<sup>열람</sup>할<sup>운</sup>때云<sup>운</sup>하였<sup>스</sup>티<sup>담</sup>貪食과<sup>취</sup>醉酒<sup>취</sup>를<sup>유</sup>지<sup>유</sup>말<sup>유</sup>며<sup>유</sup>滌<sup>유</sup>亂

과<sup>방</sup>放蕩<sup>탕</sup>을<sup>정</sup>지<sup>정</sup>말<sup>정</sup>며<sup>투</sup>爭鬪<sup>투</sup>와<sup>시</sup>猜忌<sup>괴</sup>를<sup>지</sup>말<sup>말</sup>고<sup>오</sup>직<sup>주</sup>主<sup>주</sup>예<sup>수</sup>그<sup>리</sup>스<sup>도</sup>를<sup>옷</sup>着<sup>입</sup>衣<sup>입</sup>을<sup>육</sup>듯<sup>신</sup>하고<sup>육</sup>肉<sup>신</sup>身<sup>신</sup>의

事<sup>일</sup>를<sup>을</sup>豫<sup>에</sup>備<sup>비</sup>함으로<sup>정</sup>情<sup>욕</sup>慾<sup>행</sup>을<sup>행</sup>行<sup>행</sup>치<sup>행</sup>말<sup>행</sup>지<sup>행</sup>니<sup>행</sup>라<sup>행</sup>하<sup>행</sup>말<sup>행</sup>씀<sup>행</sup>을<sup>본</sup>見<sup>본</sup>하<sup>본</sup>는<sup>본</sup>즉<sup>본</sup>더<sup>본</sup>볼<sup>본</sup>무<sup>본</sup>음<sup>본</sup>도<sup>본</sup>업<sup>본</sup>고<sup>본</sup>더<sup>본</sup>불<sup>본</sup>必<sup>본</sup>要<sup>본</sup>도

無<sup>업</sup>하였<sup>섯</sup>는<sup>섯</sup>니<sup>섯</sup>라<sup>섯</sup>大<sup>대</sup>概<sup>개</sup>其<sup>그</sup>言<sup>언</sup>末<sup>말</sup>을<sup>말</sup>見<sup>볼</sup>할<sup>볼</sup>時<sup>때</sup>에<sup>때</sup>光<sup>빛</sup>과<sup>안</sup>安<sup>위</sup>慰<sup>위</sup>함<sup>나</sup>이<sup>나</sup>我<sup>나</sup>의<sup>나</sup>靈<sup>영</sup>魂<sup>혼</sup>에<sup>물</sup>注<sup>물</sup>水<sup>물</sup>를<sup>부</sup>듯<sup>부</sup>하<sup>부</sup>니<sup>부</sup>모<sup>부</sup>든

暗<sup>암</sup>昧<sup>미</sup>함<sup>의</sup>과<sup>단</sup>疑<sup>의</sup>團<sup>단</sup>이<sup>의</sup>無<sup>업</sup>하<sup>서</sup>여<sup>서</sup>졌<sup>서</sup>는<sup>서</sup>이<sup>서</sup>다<sup>서</sup>하<sup>서</sup>디<sup>서</sup>라<sup>서</sup>洗<sup>세</sup>禮<sup>례</sup>受<sup>받</sup>함<sup>을</sup>時<sup>때</sup>시<sup>때</sup>準<sup>준</sup>備<sup>비</sup>할<sup>의</sup>意<sup>향</sup>向<sup>향</sup>으로<sup>향</sup>어<sup>향</sup>구<sup>향</sup>스

의<sup>친</sup>노<sup>구</sup>가<sup>친</sup>其<sup>친</sup>母<sup>친</sup>親<sup>친</sup>과<sup>친</sup>여<sup>친</sup>리<sup>친</sup>親<sup>친</sup>舊<sup>친</sup>와<sup>친</sup>함<sup>친</sup>이<sup>친</sup>엇<sup>친</sup>던<sup>친</sup>親<sup>친</sup>舊<sup>친</sup>의<sup>친</sup>農<sup>농</sup>家<sup>가</sup>로<sup>가</sup>가<sup>가</sup>서<sup>가</sup>留<sup>류</sup>할<sup>의</sup>時<sup>향</sup>에<sup>향</sup>哲<sup>철</sup>學<sup>학</sup>도<sup>학</sup>工<sup>공</sup>夫<sup>부</sup>호<sup>부</sup>고

親<sup>친</sup>舊<sup>구</sup>들과<sup>친</sup>함<sup>친</sup>이<sup>친</sup>哲<sup>철</sup>學<sup>학</sup>과<sup>학</sup>聖<sup>성</sup>經<sup>경</sup>理<sup>리</sup>致<sup>치</sup>가<sup>화</sup>和<sup>화</sup>合<sup>합</sup>호<sup>화</sup>거<sup>화</sup>세<sup>화</sup>對<sup>대</sup>하<sup>대</sup>야<sup>대</sup>論<sup>론</sup>說<sup>설</sup>도<sup>설</sup>호<sup>설</sup>고<sup>설</sup>祈<sup>기</sup>禱<sup>도</sup>도<sup>도</sup>만<sup>도</sup>히<sup>도</sup>함<sup>도</sup>으로<sup>도</sup>

神 學 指 南

그림으로親舊가目前에잇서我를막지안케하라고내가아조閑寂處로갓는지라  
 그런形便中에내가在흐줄을自己가斟酌하고(大概容恕하라는데로내가무어슬말  
 하엿는디무슬言인지이제내가不知하거니와痛哭함으로내音聲이목매여내가무어  
 슬머무하고니라<sup>나</sup> (자귀 대경 중) 自己는大驚中에잇던곳에留하되나는無花果樹下地  
 에엿디여져며淚를流出케하니目에서물결이나서當身의게드린깃브시게흐祭祀가  
 되엿는니라 또내가當身의게여러가지말슴을드려대강如此흐말슴흐듯하니曰主  
 여언제시지主여언제시지怒하시겟삼는잇가我의前에지는罪惡을記憶하저마시옵  
 쇼셔하고大概나의罪에結縛함을내가分明히알고大聲痛哭하엿는니라언제시지언  
 제시지來日이라또來日이란對答이나는지무슬緣故로나의罔測호羞恥가即時停止  
 치못하엿는지(알고져하엿는니라)如此히내가言하며我心의至極히痛悔하는中에  
 痛哭하매忽然隣家에서엿던호男童이나女童이나말하기를가지고넘어라가지고  
 넘어라하는言을聞하즉我의顔이卽變하고또내가思하기는兒孩들이作亂할때에이

聖 어 구 스 의 노

不知<sup>아지못</sup> 修道院<sup>수도원</sup>이 沙漠<sup>사막</sup> 中<sup>중</sup>에 沃地<sup>옥터</sup>를 言<sup>말</sup>하<sup>여</sup>느니라 彌<sup>형의</sup>나노 城外<sup>형외</sup>에 도암브로시오의 保護<sup>보호</sup> 下<sup>아래</sup>

에 修<sup>수</sup>도院<sup>도원</sup>이 有<sup>있</sup>는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其<sup>그</sup>內<sup>안</sup>에 道<sup>형</sup>훈 兄<sup>형</sup>弟<sup>제</sup>가 漫<sup>만</sup>히 在<sup>있</sup>서 道<sup>도</sup>우리가 不知<sup>아지</sup> 知<sup>지</sup>라 本<sup>본</sup>의

의 아노가 또 談話<sup>담화</sup>하<sup>는</sup> 中<sup>중</sup>에 드레웨리 城<sup>성</sup>에 在<sup>있</sup>던 處<sup>곳</sup>를 言<sup>말</sup>하<sup>는</sup> 日<sup>일</sup> 午<sup>후</sup> 后<sup>후</sup>에 가이

사 圓形<sup>원형</sup> 演劇<sup>연극</sup> 場<sup>장</sup>에 具<sup>구</sup>경하<sup>는</sup> 中<sup>중</sup>에 그 同<sup>동</sup>伴<sup>모</sup> 三<sup>삼</sup>人<sup>인</sup>과 喜<sup>성</sup>씨 城<sup>성</sup>에 近<sup>가</sup>한 處<sup>곳</sup>에 散步<sup>산보</sup>하<sup>는</sup>

中<sup>중</sup>에 突<sup>중</sup>업시서 路<sup>로</sup>갈 處<sup>곳</sup>에 自<sup>자</sup>己<sup>기</sup>와 其<sup>그</sup> 同<sup>동</sup>伴<sup>모</sup> 二<sup>이</sup>人<sup>인</sup>이 一<sup>일</sup>路<sup>로</sup>로 行<sup>행</sup>하<sup>고</sup> 他<sup>다른</sup> 二<sup>두</sup>人<sup>인</sup>은 他<sup>다른</sup> 路<sup>로</sup>로 行<sup>행</sup>하<sup>는</sup>

던 處<sup>곳</sup>에 至<sup>나</sup>르려 其<sup>그</sup> 家<sup>집</sup> 人<sup>사람</sup>들이 當<sup>당</sup>身<sup>신</sup>의 中<sup>중</sup>들인 處<sup>곳</sup>에 艱<sup>간</sup>難<sup>난</sup>하<sup>는</sup> 事<sup>사</sup>로 基<sup>기</sup>業<sup>업</sup>으로 得<sup>얻</sup>을

人<sup>사람</sup>들이 如<sup>하</sup>나 一<sup>한</sup>名<sup>명</sup>이 안도니 傳<sup>전</sup>記<sup>기</sup>를 得<sup>얻</sup>어 處<sup>곳</sup>에 閱<sup>열</sup>覽<sup>람</sup>하<sup>는</sup> 놀니 奇<sup>기</sup>

異<sup>이</sup>히 感<sup>감</sup>動<sup>동</sup>을 受<sup>받</sup>음으로 遲<sup>지</sup>滯<sup>체</sup>업시 情<sup>정</sup>誠<sup>성</sup>을 示<sup>시</sup>하<sup>고</sup> 世<sup>세</sup>上<sup>상</sup> 中<sup>중</sup> 生<sup>생</sup>業<sup>업</sup>을 棄<sup>바</sup>하<sup>고</sup> (그 二<sup>두</sup>人<sup>인</sup>이

政<sup>정</sup>府<sup>부</sup> 下<sup>아</sup> 官<sup>관</sup>員<sup>원</sup>들이 如<sup>하</sup>나) 當<sup>당</sup>身<sup>신</sup> 安<sup>안</sup>심 具<sup>구</sup>를 作<sup>작</sup>定<sup>명</sup>하<sup>는</sup>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此<sup>이</sup> 言<sup>말</sup>을 聞<sup>드</sup>음으로 내가 深<sup>깊</sup>은

靈<sup>령</sup>魂<sup>혼</sup>에 其<sup>그</sup> 事<sup>사</sup>를 默<sup>묵</sup>想<sup>상</sup>하<sup>는</sup>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心<sup>심</sup>眼<sup>안</sup> 前<sup>전</sup>에 在<sup>있</sup>는 下<sup>하</sup> 賤<sup>천</sup>하<sup>는</sup>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顯<sup>나</sup>出<sup>라</sup>하<sup>는</sup>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我<sup>나</sup>의 心<sup>심</sup> 中<sup>중</sup>이 크

我<sup>내</sup>가 起<sup>기</sup>하<sup>는</sup> 야 알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離<sup>리</sup>혼은 閑<sup>한</sup> 寂<sup>적</sup>하<sup>는</sup>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流<sup>류</sup>淚<sup>출</sup>하<sup>는</sup> 기에 當<sup>당</sup>하<sup>는</sup>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思<sup>생</sup>하<sup>는</sup> 이 如<sup>하</sup>나

我<sup>내</sup>가 起<sup>기</sup>하<sup>는</sup> 야 알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離<sup>리</sup>혼은 閑<sup>한</sup> 寂<sup>적</sup>하<sup>는</sup>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流<sup>류</sup>淚<sup>출</sup>하<sup>는</sup> 기에 當<sup>당</sup>하<sup>는</sup> 處<sup>곳</sup>에 在<sup>있</sup>는 思<sup>생</sup>하<sup>는</sup> 이 如<sup>하</sup>나

神 學 指 南

스도 由<sup>말미암아</sup>야 當身<sup>당신</sup>의 格<sup>격</sup>로 나아가는 路<sup>구</sup>를 求<sup>구</sup>호지 아니호엿드면 完全<sup>완전</sup>호 知<sup>지</sup>識<sup>식</sup>을 得<sup>얻</sup>호者<sup>자</sup>

가 못되며야 조滅<sup>멸</sup>亡<sup>망</sup>호者<sup>자</sup>가 되엿스리라

當身<sup>당신</sup>의 聖神<sup>성신</sup>의 尊書<sup>존서</sup>와 其中<sup>그중</sup>에 特別<sup>특별</sup>히 바울노 使徒<sup>사도</sup>의 書<sup>서</sup>를 내가 大希望<sup>큰희망</sup>으로 取<sup>취</sup>호매 (내

가 閱覽<sup>열람</sup>호) 모든 거시내 믿음에 異常<sup>이상</sup>호 敬畏<sup>경외</sup>함이 充滿<sup>충만</sup>케 호엿는니라 내가 當身<sup>당신</sup>의 造物<sup>조물</sup>

들을 見<sup>본</sup>호 戰慄<sup>전물</sup>호엿는니라

一日<sup>일</sup>은 우리 同族<sup>동족</sup>되논 아 프리 가 人<sup>사람</sup>본 디 디 아 노 란 人<sup>사람</sup>이 무 슝 일 이 잇서 내 親舊<sup>친구</sup>알 누 비 오

와 我<sup>나</sup>를 尋訪<sup>심방</sup>호러 왔스니 우리가 談話<sup>담화</sup>호서 그가 내 冊床<sup>책상</sup>에 冊<sup>책</sup>호나를 見<sup>보</sup>호고 가지며 바울

노 使徒<sup>사도</sup>의 書籍<sup>서적</sup>인 줄 아 라 우 스 면 서 나 를 對面<sup>대면</sup>호야 慶賀<sup>경하</sup>호며 말호티 이런 書<sup>책</sup>를 그 디 의 閱<sup>열</sup>

覽<sup>람</sup>호는 記書<sup>기서</sup>中<sup>중</sup>에서 得<sup>얻</sup>호 書<sup>책</sup>를 思<sup>생</sup>지 못호엿노라 호고 奇異<sup>기이</sup>히 녀여 놀 님 으 로 말호거늘 내

가 答<sup>답</sup>호야 디 이런 記書<sup>기서</sup>를 내가 今時<sup>금시</sup>에 만히 閱覽<sup>열람</sup>호노라 호매 그 가 談話<sup>담화</sup>호야 當身<sup>당신</sup>의 書<sup>책</sup>들

中<sup>중</sup>에 有<sup>유</sup>名<sup>명</sup>호者<sup>자</sup>에 補修<sup>수도</sup>道<sup>도</sup>士<sup>사</sup>안도니 오의 事跡<sup>사적</sup>을 우리 의 格<sup>격</sup>에 論談<sup>론담</sup>호엿는티 우리가 처음드

릿는니라 드티여 修道院<sup>수도원</sup>들의 多數<sup>만수</sup>와 其中<sup>그중</sup>에 하는 님을 悅<sup>기쁘</sup>호시게 호는 行爲<sup>행위</sup>와 우리가

聖어구스디노

고로내가 깃버하엿고또암브로시오가特別특별熱心열심으로規則규칙을立립하야曰文字말글는죽이

는거시오聖神성신은살니는거시라함으로내가자조즐거워하야그의演說연설을聞드하엿는니

라大概대개字글대로解釋해석함으로由말미암아하야翻覆번복되는뜻스로顯나타顯낸言말을그가이처럼解釋해석하야奧

妙묘하듯슬幃帳휘장과긋치드러내여神靈신령하듯스로서듯게하엿스니我나로其演說그연설에對대하야

異論이론하지안케하엿는니라

하느님씩서驕慢교만者자들을對敵대적하시고謙遜겸손者자들의게恩惠은혜를賜주하시는거슬示외이시라

고我나로블나든新門신문徒도들의라디노方言방언에翻譯번역된여러記書기서를得얻게하하시거늘내가더

記書기서中중에서비화五官오관의遊行유형區구外외에在있는眞理진리를추지라는勸勉권면을受받하야當身당신의不見보지못

存존在재하심을造物조물노由말미암아하야眞見진전하엿스매當身당신의게신것과無窮무궁하심을堅固견고히아랏

느니라또當身당신씩서恒常항상如前여전如一일하신者자이심과變法변법에屬속하지아니하심을내가信믿하

고他體타체는當身당신의게로서出출함을信믿하거슨그것들이在재함이있다는아조分明분명證據증거를

依의지하이러라또知識지식을完全완전히得얻하데로내가此事情이사항을辯論변론하엿스나내가吾救主우리구주그리

의 밀나노로移住한거슬監營의心에도케녀엿는니라我가더를愛하기를始作하였스

나眞理의先生으로愛한거시아니오大概그런사름을當身의敎會內에서得하기를我

가絶望하였더니나를對하야仁慈한人으로만알고愛하였는니라 암브로시오가百

姓들압해演說하는거슬熱心으로듯기논드렸스나我가맛당히할意向으로할것아니

오但그의口辯을試驗할意向으로聞하였는니라암브로시오가靈魂의病을아조治療

하는方法으로救援敎理를分明히敎授하였는니라然이나救援이罪人들의게遠하니

내가그時에그러罪人인디救援을不得하나그러나我가不知中에漸漸救援의게더갓

가히進하였는니라

암브로시오의心中所發을聞할期會가업섯스나그의每日曜日에敎會前에眞理를明

白히宣言하는거슬聞하였스니我를迷惑식히던者들이詭心으로聖書에對하야疑團

을나게하라고말하던여러難問을다풀수가있는줄漸々써드라는니라律法과先知者

들의古書을前에聞하였던解釋대로아조愚蠢한거스로思할必要가今時에다시無할

聖어구스되노



神 學 指 南

오教에서眞理를不得하였는디後에말하기를더히가恒常眞理라言하고또眞理라言

하되眞理는마니께오教徒中에업섯는니라又曰내가九年동안에(二〇一二十九歲)迷

惑者도되고迷惑식힌者도되고내 마음이騷動하는中에마니께오門徒들의演說을

多聞하고其中에有名者과오스도의到着함을待하였는디大概其門徒들이나의

難問을答할수가업서恒常말하기를과오스도란人的到着함을待하라고또曰其

가答할수가있다고하더니其人이來後에는나의목마른거세對하야나를무어슬주

엇는나하더라

眞理를認知할수가잇는지어구스디노가얼마동안에疑心이만히잇고或時思하기를

哲學士(아가데미고)中에人이眞理를認知할수가업서모든거슬懷疑할수밧기업다

者들이可하다고하더라

此時에(二八三年)로마로移住하였는디其城에도마니께오門徒들의演說을多聞

하고公教會內에眞理를得할수업는줄노알아疑心이尤多호지라其時에死亡과後審



는者<sup>자</sup>로되知<sup>지</sup>識<sup>식</sup>이不<sup>부</sup>足<sup>족</sup>하야其<sup>그</sup>世<sup>세</sup>代<sup>대</sup>의迷<sup>미</sup>信<sup>신</sup>에일<sup>일</sup>마屬<sup>속</sup>하여도本<sup>본</sup>性<sup>성</sup>이正<sup>정</sup>하야其<sup>그</sup>子<sup>아</sup>을感<sup>감</sup>動<sup>동</sup>

식할수가잇섯는니라

其<sup>그</sup>父<sup>부</sup>母<sup>모</sup>가富<sup>부</sup>饒<sup>요</sup>하<sup>하</sup>지아니故<sup>고</sup>로잇던親<sup>친</sup>舊<sup>구</sup>가어구스디노를助<sup>조</sup>與<sup>어</sup>하야文<sup>문</sup>學<sup>학</sup>과修<sup>수</sup>辭<sup>사</sup>學<sup>학</sup>을

가르타고城<sup>성</sup>에서工<sup>공</sup>夫<sup>부</sup>하<sup>하</sup>게하매어구스디노가其<sup>그</sup>惡<sup>악</sup>한城<sup>성</sup>에서同<sup>동</sup>伴<sup>모</sup>의게迷<sup>미</sup>惑<sup>혹</sup>하야放<sup>방</sup>蕩<sup>탕</sup>

할뿐아니라젊은女<sup>녀</sup>人<sup>인</sup>과婚<sup>혼</sup>禮<sup>례</sup>업시多<sup>다</sup>年<sup>년</sup>間<sup>간</sup>살<sup>살</sup>님하<sup>하</sup>며生<sup>성</sup>子<sup>자</sup>하<sup>하</sup>매名<sup>명</sup>은아데오다도라하<sup>하</sup>니

翻譯<sup>번역</sup>하<sup>하</sup>면하<sup>하</sup>는<sup>는</sup>님<sup>은</sup>이<sup>가</sup>주<sup>신</sup>者<sup>자</sup>라

이<sup>이</sup>러케治<sup>살</sup>産<sup>남</sup>호<sup>호</sup>거슨其<sup>그</sup>時<sup>시</sup>代<sup>대</sup>의不<sup>불</sup>信<sup>신</sup>者<sup>자</sup>들이不<sup>불</sup>義<sup>의</sup>行<sup>행</sup>事<sup>사</sup>로녀이지아니하<sup>하</sup>더라其<sup>그</sup>後<sup>후</sup>에其<sup>그</sup>母<sup>모</sup>

親<sup>친</sup>이어구스디노를其<sup>그</sup>女<sup>녀</sup>人<sup>인</sup>의게서分<sup>분</sup>離<sup>리</sup>하<sup>하</sup>게하<sup>하</sup>고他<sup>타</sup>處<sup>처</sup>에장<sup>장</sup>가<sup>가</sup>게하<sup>하</sup>였는니라

어구스디노의心<sup>심</sup>이大<sup>대</sup>端<sup>단</sup>히不<sup>불</sup>平<sup>평</sup>하<sup>하</sup>였스나慰<sup>위</sup>勞<sup>로</sup>를不<sup>불</sup>得<sup>득</sup>하<sup>하</sup>다가十<sup>십</sup>九<sup>구</sup>歲<sup>세</sup>에기<sup>기</sup>게<sup>게</sup>로의호르

덴시오란記<sup>기</sup>書<sup>서</sup>를閱<sup>열</sup>覽<sup>람</sup>할時<sup>때</sup>브더智<sup>지</sup>慧<sup>혜</sup>를多<sup>다</sup>得<sup>득</sup>함으로不<sup>불</sup>滅<sup>멸</sup>함을懇<sup>곤</sup>切<sup>결</sup>히思<sup>스</sup>慕<sup>모</sup>하<sup>하</sup>였는니라

眞<sup>진</sup>理<sup>리</sup>를尋<sup>찾</sup>하<sup>하</sup>는中<sup>중</sup>에三<sup>삼</sup>七<sup>칠</sup>四<sup>년</sup>年<sup>년</sup>에마니개오教<sup>교</sup>에學<sup>학</sup>習<sup>습</sup>人<sup>인</sup>이되<sup>되</sup>고其<sup>그</sup>教<sup>교</sup>徒<sup>도</sup>들과又<sup>성경</sup>치聖<sup>경</sup>經<sup>을</sup>을

輕<sup>경</sup>히녀이며기게로의文<sup>문</sup>理<sup>리</sup>와比<sup>비</sup>較<sup>교</sup>하<sup>하</sup>야其<sup>그</sup>만<sup>만</sup>못<sup>못</sup>하<sup>하</sup>줄노알고그聖<sup>성</sup>經<sup>을</sup>을不<sup>보</sup>見<sup>지</sup>하<sup>하</sup>고마니개

五그때 세상인민이鍊鍛식히는火에入去서衆人이拘碍를當하야滅亡하려니와  
 其時에世上人民들이鍊鍛식히는火에入去서衆人이拘碍를當하야滅亡하려니와  
 信고忍耐하는者들은詛呪함에서救援함을得으리라其時에眞理의徵兆들이現리니  
 第一는天에引上는徵兆와第二는喇叭聲의徵兆와第三는死者들의復活인디諸人의  
 復活아니오다만云은바와又치主씩서其諸聖徒들과함씩降臨하시리니其時에世上  
 이主씩서天의雲을乘하심을見리라

聖어구스디노

王 吉 志 著 述

來 歷

어구스디노가三五四年十一月十三日에北아프리카누미디아道다가스데城에서生  
 하니라其父親마드리기오는年老하고性稟은急하고行動은亂雜하고心情은好世心  
 이多하니其婦人의게傳道를聞하고도長久히不信하다가別世할期限이不遠하야學  
 習人이되엿는니라 其母親모니가는二十二歲에어구스디노를生하고篤實히信하

聖어구스디노

知者지자와敎師교사들의職務직무를보느니라그림으로彼等타희를輕경히녀이지말거슨爾等너희중中에先知선지

者자와敎師교사들보다尊貴존귀한者가됨이라

互相勸勉삼서로권면하되福音복음에言말하대로忿怒분노하는中중에하지言말며和平화평한中중에하라又鄰또의웃을對대하

야犯罪범죄한者의悔改회개하기까지爾等너희중中에誰某아모나아모言말도하지말지니라爾等너희중祈禱기도와

救濟구제와諸行實모든행실을吾主의福音복음에訓言말씀대로行행하라

十六章爾等의生命생명을醒守세여서지하되爾等의燈火등불을滅꺼지지안케하며爾等의腰허리를不부동動동하지

안케하고但吾主의臨림하실時間시간을知아지못하니準備준비하야잇스라頻數빈수히會集회집하며爾

等의靈魂영혼의必要필요할것得잇기를힘쓰라大概爾等가末時에完全완전치아니호者자로顯露현로할

것又호면前전에信믿던全時온때는爾等의無益무익함이되리라末時에는僞先知者와滅亡멸망식히

는者가多다크羊은狼이되며愛이變변하야惡이되리라何故인고하면不法불법한事이增加증가하

야人사람들이惡악하며互相逼追서로핍박하며互相捉界서로잡아주리니世上의迷惑者가하느님의子아들처럼顯出현출

하야徵兆징조와異蹟이적을行행하고地를그의衣服從복종케하고永遠영원브터잇지못한惡事악한일을行행하리

神 學 指 南

如此二이와又眞참敎교師소도 匠장人인이 其그賃사을 宜의當당히 受받는 事의를 依의倣방하야 其량糧식食이을 得얻는 事의宜의當당하

니 라 初三초生성호 諸모든穀곡과 葡포萄도汁즙과 牛우羊양을 先선知지者자들의 卽즉 줄 事의 彼어等회는 爾너等회의 大대祭제司소長장이

됨 이 니 라 萬만一일 先선知지者자가 卽즉 거 든 艱간難난호 者자의 卽즉 주 라 餅반을 炙구은 後후에 初처擘음片편을 律률法법대 로

先선知지者자의 卽즉 주 며 葡포萄도酒주缸아리나 油기름缸항를 開열時때에 初처傾음은 盞잔을 先선知지者자의 卽즉 주 며 銀은錢전과 衣의

服복과 各각財재産산에 서 料료量량하야 幾얼許마를 分분하야 規규則칙대 로 주 어 라

十장四一章너 爾주等일가 主모日현에 聚모集집時제에 餅떡을 擘쪼며 祝축謝사하 되 爾너等회의 祭제祀소가 聖성潔결케 되 기 爲위하

야 爾너等회의 犯범罪죄호 諸것件들을 告고하 라 삼 가 爾너等회의 祭제祀소가 不불潔결케 되 지 아 니 하 기 爲위하야 其그同동

俸모와 紛분爭쟁하 는 者자마 다 和화睦목하 기 사 지 爾너等회의 會회에 參참預예치 말 게 하 지 니 라 大三概대主개의 言말이

如이是와하 니 글 으 사 디 諸모든處곳과 諸모든時때에 聖성潔결호 祭제祀소를 드 릴 지 어 다 惟오我직는 大대王왕이 니 我내名일이

列릴邦방中중에 서 奇기異이호 바 가 되 었 는 니 라

十一五너章회 又위 爾감等독를 爲감하야 監감독督들과 執정事사들 을 擇택하 디 主주를 向향하야 合합當당하 며 溫온柔유하

充충滿만하 며 錢전財재를 貪탐하 이 업 스 며 眞전實실하 며 鍊련達달호 者자를 擇택하 라 彼어等회는 爾너等회를 爲위하야 先선

대로 行<sup>행</sup>하<sup>하</sup>지 아니하<sup>하</sup>는 先知者<sup>선지자</sup>는 僞先知者<sup>거짓선지자</sup>니라 試驗<sup>十一시험</sup>겨 各眞先知者<sup>각참선지자</sup>는 地에 有<sup>있</sup>는 敎會<sup>교회</sup>

의 秘訣<sup>비결</sup>을 論說<sup>론설</sup>하<sup>하</sup>여 도 自己<sup>자기</sup>가 行<sup>행</sup>하<sup>하</sup>는 대로 行<sup>행</sup>하<sup>하</sup>지 말<sup>말</sup>기를 訓誨<sup>훈련</sup>거<sup>거</sup>든 爾等<sup>너희</sup>가 其<sup>그</sup>를 判斷<sup>판단</sup>하<sup>하</sup>

지 말<sup>말</sup>지니 하<sup>하</sup>는 神<sup>신</sup>의 判斷<sup>판단</sup>하<sup>하</sup>시리라 大概<sup>대개</sup>如此<sup>이와</sup>히 古時<sup>옛</sup>先知者<sup>선지자</sup>들 도 行<sup>행</sup>하<sup>하</sup>엿<sup>었</sup>는 니라 聖神<sup>十二성신</sup>

으로 쓰<sup>말</sup>言<sup>다</sup>하<sup>하</sup>야 金<sup>돈</sup>이나 그와 又<sup>다</sup>흔 事<sup>사</sup>를 달<sup>달</sup>나 하<sup>하</sup>는 者<sup>자</sup>여 聽<sup>듣</sup>지 말<sup>말</sup>거<sup>거</sup>시 勿<sup>아</sup>되 患難<sup>환난</sup>을 當<sup>당</sup>하<sup>하</sup> 他<sup>다른</sup>

人<sup>사람</sup>들의 賜<sup>주</sup>라 식<sup>식</sup>히 거<sup>거</sup>든 誰<sup>아</sup>某<sup>모</sup>나 判斷<sup>판단</sup>하<sup>하</sup>지 말<sup>말</sup>지니라

十二章<sup>장</sup> 主<sup>주</sup>의 名<sup>이름</sup>으로 來<sup>오</sup>하<sup>하</sup>는 者<sup>자</sup>는 勿<sup>물</sup>論<sup>론</sup>誰<sup>누구</sup>던지 交<sup>교</sup>接<sup>접</sup>하<sup>하</sup>지라 試驗<sup>시험</sup>하<sup>하</sup>야 識<sup>알</sup>見<sup>아</sup>지니 大概<sup>대개</sup>爾<sup>너</sup>

等<sup>회</sup>가 左<sup>좌</sup>右<sup>우</sup>로 周<sup>주</sup>察<sup>찰</sup>하<sup>하</sup>는 거<sup>거</sup>시 宜<sup>맞</sup>當<sup>당</sup>하<sup>하</sup>니라 來<sup>來</sup>到<sup>도</sup>하<sup>하</sup>는 者<sup>자</sup>가 過<sup>과</sup>客<sup>객</sup>이 어<sup>어</sup>든 勿<sup>아</sup>수 有<sup>있</sup>는 대로 助<sup>도</sup>으<sup>으</sup>라

必要<sup>필요</sup>하<sup>하</sup>면 二三日<sup>일</sup>間<sup>간</sup>만 爾等<sup>너희</sup>와 又<sup>다</sup>치 留<sup>류</sup>하<sup>하</sup>지라 도 或<sup>혹</sup>匠人<sup>장인</sup>로 爾等<sup>너희</sup>中<sup>중</sup>에 居<sup>거</sup>住<sup>주</sup>하<sup>하</sup>려 거<sup>거</sup>든

勞<sup>로</sup>働<sup>동</sup>하<sup>하</sup>고 食<sup>먹</sup>는 거<sup>거</sup>시 宜<sup>맞</sup>當<sup>당</sup>하<sup>하</sup>니라 그 何<sup>무</sup>工<sup>수</sup>業<sup>공</sup>도 勿<sup>아</sup>知<sup>지</sup>하<sup>하</sup>거<sup>거</sup>든 그리스도人<sup>인</sup>이 閒<sup>한</sup>散<sup>산</sup>客<sup>객</sup>

으로 爾等<sup>너희</sup>中<sup>중</sup>에 居<sup>거</sup>生<sup>살</sup>지 勿<sup>아</sup>홀 深<sup>깊</sup>思<sup>생</sup>하<sup>하</sup>라 그 彼<sup>너</sup>等<sup>희</sup>의 決<sup>결</sup>定<sup>정</sup>하<sup>하</sup>는 대로 行<sup>행</sup>하<sup>하</sup>심 勿<sup>아</sup>면 勿<sup>아</sup>이<sup>이</sup>는

그리스도人<sup>인</sup>의 名<sup>이름</sup>으로 行<sup>행</sup>商<sup>상</sup>하<sup>하</sup>는 者<sup>자</sup>니라 如<sup>이</sup>是<sup>리</sup>하<sup>하</sup>는 者<sup>자</sup>를 삼<sup>삼</sup>가<sup>가</sup>라

十三章<sup>장</sup> 爾等<sup>너희</sup>中<sup>중</sup>에 居<sup>거</sup>住<sup>주</sup>하<sup>하</sup>려 하<sup>하</sup>는 各<sup>각</sup>眞<sup>참</sup>先<sup>선</sup>知<sup>지</sup>者<sup>자</sup>는 自<sup>자</sup>己<sup>기</sup>의 糧<sup>량</sup>食<sup>식</sup>을 得<sup>얻</sup>는 거<sup>거</sup>시 宜<sup>맞</sup>當<sup>당</sup>하<sup>하</sup>니라

神學指南

先知者들이願하는대로感謝하기를許諾하라

十一章 誰가來서右에言할바로써全히敎訓하기를 그를交接하라 萬一其敎師가如

右言에反對하여解弛케하는敎訓으로訓誨거든聽지말며萬一義와主의知識을增

加하여訓誨거든其를主와又ち交接하라

使徒와先知者에對하여는福音의決定을依하여行할지니爾等の來는各使徒를主

와又ち交接할지니라그러나其가一日나或必要하면二日を留할만흔者로되萬一三

日を留하면僞先知者니라使徒가離去時에宿所站에至기까지吃을餅外에何物이라

도得지말지니其가金錢을求하면僞先知者니라聖神으로써言하는各先知者를試驗

하지말며批評하지말나大概諸罪를人의게赦하시려니와此罪는赦하지아니할

거시라그러나聖神으로써言하는者마다先知者아니오다만主의行動이있는者뿐이

니라그럼으로其行動으로써僞先知者와眞先知者를識見지니聖神으로써言하여飲

食一床을求하는先知者마다主의行動이없는僞先知者니라眞理를訓誨하여도敎訓

十二使徒의敎訓

니라此事에對하야는主의셔謂샤디聖物을狗의게畀지말나하섯는니라

十章 爾等가足하게吃은後에如是케祝謝할지니

聖父의聖名을因하야感謝하오니其名은吾心에居하게하섯는니라또僕에수로由

아吾의게나타내신知識과信仰과不死함을因하야感謝하옵는이다父의榮華가永

遠히잇기를願하옵는이다全能하신主의셔主의名을因하와萬物을創造하섯스며

人種의게飲食을主의祝謝하기爲하야賜섯는이다吾儕의게는主의僕으로由아神

靈의飲食과永主을賜섯는이다諸般事에感謝할을거슨主의셔全能하심이니이다

主의榮華가永遠히잇기를願하옵는이다主의敎會를着念하샤諸惡에서救하시며

主의愛內에完全케하시며聖하게하신敎會를四方에서主의預備하신國로引導하

시옵쇼셔大槪權勢와榮光이主의잇스옵는이다恩惠는來고此世上은滅亡할지어

다。다위의하는님의호산나。醒한者는來지어다。不聖한者는悔改할지어다。마라

나타。아멘

儕의 죄 지은者를赦하야 준것又치吾儕의罪를赦하여 주옵시고吾儕를試驗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但惡에서救하옵쇼셔 大槪權勢와榮光이父의永遠히잇스옵는이다  
等가一日三次式如是케祈禱할지니라

九章 聖餐에對하여는如是케祝謝할지니第一盞에對하여는

吾父의僕예수그리스도로由아吾儕의게나타내신僕다윗의聖한葡萄樹를因하

야感謝하옵는이다父의榮華가永遠히잇기를願하옵는이다

擘餅에對하여는

吾父의僕예수도로由아吾儕의게나타내신生命과知識을因하야感謝하옵는이다

父의榮華가永遠히잇기를願하옵는이다此擘餅은山上에散在던物件으로合同하

야一體가된것又치主의敎會를地極해서모화主의國으로引導하옵쇼셔 大槪榮光

과權勢가예수그리스도로말리암아父의永遠히잇스옵는이다

主의名으로洗禮를受은者外에는何人이나爾等の聖餐에서吃지도말고飲지도말지



神 學 指 南

지라도 邪神祭祀에 參預치 말나 此는 死神을 崇拜하는 거시니라

七章 洗禮에 對하야는 如此히 施티이니 右에 誦한 敎訓으로 卞 敎訓을 後에 父와 子과

聖神의 名으로 流水에 施거시 勿되 萬一 流水이 竭거든 他水에 施하라 冷水에 흘수 竭거

은 溫水에 施하라 (6) 冷水나 溫水가 竭거든 父와 子과 聖神의 名으로 三次水을 首에 부으

라 洗禮受을 者가 禮式前에 禁食할 거시 오 卞 흘수 잇거든 他數人도 흘씩 할 거시 勿되 何

如하던지 洗禮受을 者는 禮式前에 一 二日間 禁食할 거시니라

八章 禁食하는 거슨 爾等가 外飾하는 者들의 하는 時와 同一하게 하지 말지니 彼等는

一週間에 第二日(月)과 第五日(木)에 禁食하는 니라 爾等는 第四日(水)과 預備하는

日에 禁食하라 卞 外飾者들과 又 祈禱하지 말고 但 主의 自己의 福音에 命令한 신 것

又 祈禱할 지니 曰 天에 在신 吾父의 名을 聖하게 하옵시며 國이 臨하옵시며 意이 天에

서 成것 又 地에 서도 일우어 지이다 今日 吾儕의 日 用할 糧食을 賜옵시고 吾儕가 吾

(1) 이리케 흠은 江水나 池水를 마르침이라

과自矜자공함이니라彼等은善호는者를逼迫호는者며眞理를惡호고僞事를愛호는者며義

의賞을不知호는者며善을隨지아니호며公義로운判斷을依行치아니호는者며善호

디에는眼을開지아니호고惡호디에만眼을開는者며溫柔함과忍耐함을멀니호는者

며虛誑함을도화호는者며報復호고저호는者며貧寒호는者와同情이엄는者며困苦호

者를爲호야勞力호지아니호는者며더히들創造호신主를承認치아니호는者며幼兒

를죽이호는者며하느님의形像을毀滅호는者며窮乏호는者前해서外面호는者며壓制下

에잇는者를虐待호는者며富者들의辯護士되호는者며貧寒호는者에對호야不義호게判

斷호는者며完全호罪人이니라我의小子들이此諸者의게對호야保存호심을밧을지

이다

六章 장 一 아모사삼가何人이나爾로호여此敎訓호는道에서나가게호지말도록보아라如彼

人은爾로호여곰하느님을멀니떠나게호는니라大概爾가主의金鞭를擔면爾도完全

하려니와萬一擔수업거든할수잇는대로호라食物에對호야는할수잇는대로擔當호

하며 또 나 我的 본 本財產이 말 而言하지 말나 爾等이 영 永世不滅 불멸 함이니 況滅亡 물 物

件에 참 參預하지 안겠는나 爾의 아들 子이나 딸 女이나 다만 勿말고 교 但幼時 교 但敎訓 하 야 하는

님을 경 敬畏하게 하라 爾와 너 又 의지 치하는 남 男僕과 녀 女婢의 가 苛酷 기 酷氣色으로 명 命令

하지 말며 삼가 爾와 彼等 주 主를 경 敬畏하는 일 事를 대 大 概 주 主의

서 人의 의 外貌를 의지 依하여 청 請招하지 마라 다 但 聖神 의 神의 준 準備 하 신者를 청 請招

시는 나 十一 奴婢들 아 아하는 형 形狀 있는 있는 爾의 주 主人을 공 恭敬 하 야 十二 諸外飾과 주 主의 의 不

悅하지는 면 勿 十三 免하라 주 主의 제 誠命을 경 輕히 녀 이지 말며 다 但 바 빛은 바 바를 가 加減 하 지 고 守 하

라 十四 會中에서 범 犯罪 을 을 고 告하며 어 그러 진 良心이 잇 잇거든 祈 禱會에 來 來 參 參 하 지 말 나

五章 장 生命의 길 道는 우 右와 如 如 고 死亡의 길 道는 좌 左와 如 如 하 니라

至極히 악 惡하고 저 咀況 가 充滿 한 道이니 살 殺人 하는 一일과 간 姦淫 하는 一일과 음 淫慾과 음 淫亂과 도 盜賊

질과 우 偶像 섬 섬기는 일 一일과 요 妖術과 독 毒藥을 먹 먹이는 일 一일과 강 強奪 하는 一일과 기 忌證 들 外飾과

二心과 교 詭譎과 교 驕慢과 악 惡意와 무 無廉 함과 吝嗇과 陋 醜 한 辭說과 妬 妬忌와 방 放恣 함과 倨慢 함

두마음 교 詭譎과 교 驕慢과 악 惡意와 무 無廉 함과 吝嗇과 陋 醜 한 辭說과 妬 妬忌와 방 放恣 함과 倨慢 함

하라溫柔<sup>온유</sup>한<sup>자</sup>는地<sup>땅</sup>를遺業<sup>유업</sup>으로잇으리라忍耐<sup>인내</sup>한<sup>자</sup>며慈悲<sup>자비</sup>한<sup>자</sup>며奸詐<sup>간사</sup>한<sup>자</sup>心<sup>마음</sup>을懷<sup>머</sup>지말며從<sup>종</sup>

容<sup>용</sup>한<sup>자</sup>며善<sup>착</sup>한<sup>자</sup>며聞言<sup>듣는말</sup>을思<sup>생각</sup>한<sup>자</sup>야戰慄<sup>전율</sup>한<sup>자</sup>自<sup>九스스로</sup>尊<sup>높은데</sup>한<sup>자</sup>데말며爾<sup>너</sup>의心<sup>마음</sup>으로한<sup>자</sup>여公驕<sup>공교단</sup>慢<sup>만</sup>

게하라爾<sup>너</sup>의心<sup>마음</sup>이尊貴<sup>존귀</sup>한<sup>자</sup>와關係<sup>관계</sup>한<sup>자</sup>기를願<sup>원</sup>치말고但<sup>다만</sup>正直<sup>정직</sup>한<sup>자</sup>와謙遜<sup>겸손</sup>한<sup>자</sup>와交通<sup>교통</sup>한<sup>자</sup>

치말라爾<sup>너</sup>가當<sup>당</sup>한<sup>모든</sup>일을도흔거스로알고밧으라大概<sup>대개</sup>한<sup>의</sup>님外<sup>외</sup>에는何事<sup>아무일</sup>이라도生<sup>성</sup>

할수업는줄爾<sup>너</sup>가아는나라

四章<sup>장</sup> 一<sup>나</sup> 我<sup>소자</sup>의小子<sup>네</sup>야爾<sup>너</sup>게하는님의言<sup>말씀</sup>을傳<sup>전</sup>한<sup>자</sup>者<sup>자</sup>를晝夜<sup>주야</sup>로記念<sup>기념</sup>한<sup>자</sup>며主<sup>주</sup>와又<sup>또</sup>치尊崇<sup>존송</sup>한<sup>자</sup>

라主<sup>주</sup>의榮光<sup>영광</sup>을傳<sup>전</sup>한<sup>곳</sup>는處<sup>곳</sup>에는主<sup>주</sup>씨셔계시는나라聖徒<sup>성도</sup>들의言<sup>말씀</sup>으로快活<sup>쾌활</sup>함을밧기爲<sup>위</sup>한<sup>자</sup>

야每日<sup>매일</sup>더히를尋訪<sup>심방</sup>한<sup>곳</sup>라黨<sup>당</sup>을짓지말며오히려紛爭<sup>분쟁</sup>한<sup>자</sup>者<sup>자</sup>들노한<sup>자</sup>여公和<sup>화목</sup>睦<sup>목</sup>케하라公<sup>공</sup>

義<sup>의</sup>로써判斷<sup>판단</sup>한<sup>과실</sup>라過失<sup>과실</sup>을懲罰<sup>징벌</sup>할터이면人<sup>사람</sup>의外貌<sup>외모</sup>를視<sup>보</sup>지말며可<sup>四</sup>否<sup>가</sup>間<sup>부</sup>欸<sup>간</sup>心<sup>의</sup>치말나밧을<sup>五</sup>

터이면手<sup>손</sup>을伸<sup>펴</sup>지말고줄터이면伸<sup>펴</sup>라할수잇거든爾<sup>너</sup>의手<sup>손</sup>으로爾<sup>너</sup>罪<sup>죄</sup>를因<sup>인</sup>한<sup>네</sup>야賠償<sup>배상</sup>金<sup>금</sup>을

주며줄가아니줄가蹣跚<sup>미뭇미뭇</sup>한<sup>자</sup>지말며給時<sup>줄때</sup>에怨<sup>원망</sup>한<sup>자</sup>지말나大概<sup>대개</sup>貴<sup>귀</sup>한<sup>자</sup>게償還<sup>상환</sup>한<sup>자</sup>시는이가誰<sup>누구</sup>

신지爾<sup>너</sup>가알나라窮乏<sup>가공핍</sup>한<sup>자</sup>者<sup>자</sup>前<sup>전</sup>에서外面<sup>외면</sup>한<sup>자</sup>지말며爾<sup>너</sup>의財產<sup>재산</sup>中<sup>중</sup>에서爾<sup>너</sup>의兄弟<sup>형제</sup>의份<sup>분</sup>分<sup>급</sup>給<sup>급</sup>

악도 惡徒나驕慢교만者되지말며爾의鄰을害해하라고惡악호計較계교하지말며某人이나惡악하지말

고但다만或者엇던를勸勉권면하며或者엇던를爲위하야祈禱기도하며또或者엇던를爾의靈魂령혼보다尤더욱愛사랑하라

三章 我의小子야諸般惡毒과그와彷彿방불한일을避피하며삼가憤내지말나大槪대개憤怒는

殺人살인함을일우니라憤激분격하지말며紛爭분쟁하지말며火내지말지니此諸事로因인하야殺

人인기쉬는니라我의小子야淫慾을抱지말나淫慾은淫亂을일우는니라陋醜루추한言

을하지말며無廉히注視지말나此事의結果는곳姦淫이니라我의小子야禽鳥들의飛

는거슬注目하여보지말나如是케하는거시偶像을섬길始初니라巫이나陰陽客이나

妖術者되지말며彼等의하는일을翫하지도말나此諸事은偶像을섬기게하는니라謊

言者되지말지니如是케하면盜賊질하기쉬우니라錢財을貪하지말며名譽를要求치

말나如是한事노써盜賊질하기쉬우니라我의小子야怨하지말나그리하면僭濫한言

을하지쉬우니라放恣히하지말며惡意를懷지말나그리하면僭濫하기쉬우니라溫柔



생명의道은此니 一은爾를創造하신하는님을愛하라 二는爾의鄰을愛하기를爾身과  
 又치라 爾가當히기실허는某事이라 도他人의게行하지말나  
 三이말 이又 敎훈고  
 此言에如是호 敎訓이잇스니 爾等를爲하야 災殃을비는者等을爲하야 福을빌며 仇讎  
 를爲하야 祈禱하며 또 爾等를逼迫하는者를爲하야 禁食하라 大概 爾等이 爾等를愛  
 하는者를愛하면 如何호 恩惠나 異邦人들이 如此치아니하는나 爾等를惡하는者를愛  
 하면 仇讎가 업스리라 肉身의 情慾을免하라 誰던지 爾의 左頰을批거든 左頰까지 轉向  
 하라 그리하면 完全하라 誰던지 爾로 五里를가게하려거든 其人과 十里를同行하  
 라 人이 爾의 裏衣를取코저거든 外服까지 주어라 또 誰던지 爾의 財産을取거든  
 도로혀 求하지말나 大概 求할수업스리라  
 求하는者의게다 주며 還求하지말지니 父씩셔 自己의 恩賜中에서 諸人의게주는거슬  
 願하시느니라 誠命을싸라 주는者는 福이잇느니라 刑罰을不受할者니라 取하는者는 禍  
 가잇느니라 窮乏호中에 取하는者의게는 無罰하여도 必要함이업시 取하는者는 如何호

然그런初첫六章은或혹은先먼저用사용件만되고後후에他問題로增加더하엿스며漸漸점점滿足만족하엿는敎訓으로使스

用용하듯하니라原來此敎訓은主의敎訓이라고도하고使徒들의敎訓이라고도하고初첫

六章은或時二道이라고도하事이잇섯는니라敎會가新約正經을酌定하기前에는福복

音書나使徒들의書信이或何敎會에잇기는잇섯스나吾儕의手에잇는新約全書가第첫

一世紀에는업섯스나此敎訓을多히使用하줄알거시라)의一〇九,二一〇九,에言하바

敎訓은吾儕目前에잇는敎訓에對하야言하거신줄酌적하거쉬우니라또新約에서引인

用용하言이잇는듯하나正經이잇기前에는福音이나片紙를依하야引用하法이업고引인

用文은但口傳하言뿐이니라

譯 文

주석서 十二使徒로 말미암아 異邦人들의게 하신 敎訓

一章 二道이잇스니 一은 生命의道이요 一은 死亡의道이니 此二道의 分擘이크니라



八年팔년전前전 곧스단디노볼니城성에잇는예루살렘이란修道院수도원에서發見발견호출冊출판을出版출판호잇는

니라該書그책은原稿원고가아니오一〇五六年년에自稱칭代書대서와罪人죄인이란래오가騰書등서호寫本사본이

오原文원문은헬나文인디文字문자의數수는같나디아人書인서와同一또호書책이니라原稿원고는수리아地

애니의窟地과에서最初처음에使用사용호듯호고또바나바의書信편지에敎訓교훈의引用인용文이잇스니或

바나바가口傳구전호言을依호야引用인용호거시면바나바의時때에라도此敎訓이교훈은口傳구전的으로

잇던거신줄알수가잇고萬一某神學士만일잇던신학사의研究연구호야辨論변론호言이可올호것호면바나바

의書信서신은主後七十一주후年년에나記錄기록호게된거시오吾儕우리의目前눈앞에잇는敎訓교훈이란書籍책은

主後百年前주후백년(或八〇年)으로九〇年년間에誰某누구가記述기술호듯호고또萬一他神學士만일다른신학사의言

이미호를것호호면主後一〇〇年주후으로一六〇年년間에初처음으로記述기술된듯호다호나要緊요건호

거슨이거시나古時教會옛때교회에서學習학습人을爲호야使用사용호書籍서적이된거시오또冊책으로記述기술

되기前전에大綱대강同一또호敎訓교훈을口傳구전호事이잇섯고信徒신도들은此敎訓이교훈을主의十二使徒주 열두사도로

말리암아受은줄안거시니라

할거시라, 十五〇五十一—五十三,

六、終末에復活함이死亡을勝함이니라, 十五〇五十四—五十八,

若是히舊約과新約에復活理致를마르치는言이多할거슬보니此는貴重하고要緊호

理致인디使徒時代に信徒들이大所望을因하야無限히喜悅호것又此時代의諸信

者들도此理致를例事로히녀이지말고何如케要緊호거슬써드라널니傳播호고하느

님前에感謝함을드려야할거시니라

# 十二使徒의教訓

(십이사도의교훈)

王吉志

## 總論

第二世紀에記錄호書籍中에何言을見호즉古教會에教訓이나主의教訓이나使徒들

의教訓이라고口傳호言이나書籍이잇던줄某神學士가知앗스나主後一八八三年前

에는仔細히알수가업섯는디當年(一八八三)에헬나神學士필노레오, 브리엔너오가

스 예수께서再臨<sup>재림</sup>할 때에 生者<sup>사도자</sup>들이 空中<sup>공중</sup>에 先升<sup>먼저올라</sup>갈가已往<sup>이왕</sup>死者<sup>죽은자</sup>들이 其時<sup>그때</sup>에 엿지될가

起出<sup>나리날</sup>할가未起<sup>나리나지못</sup>출출<sup>나리나지못</sup>할가念慮<sup>념려</sup>하고로 諸敎友<sup>모든교우</sup>들이 노하여 吾復活理致<sup>부활리치</sup>를 覺悟<sup>깨우</sup>하게 하라

을이 고전十五〇과 살전四〇十三一五〇十一、살후二〇一一十一、과 또 此外<sup>이외</sup>에 數多<sup>어려서</sup>書信

中<sup>중</sup>에 此理<sup>이리치</sup>致對<sup>대</sup>하여 細細<sup>세세</sup>한 言<sup>말</sup>을 記述<sup>말씀</sup>하였는니라

바울使徒<sup>사도</sup>가 復活理致<sup>부활리치</sup>를 取<sup>취</sup>하여 第一<sup>메일</sup>分明<sup>분명</sup>히 敎訓<sup>마르친</sup>하시고 前十五〇말씀인디 主<sup>주</sup>께서

降臨<sup>강림</sup>할 時<sup>때</sup>에 最初<sup>첫</sup> 復活<sup>부활</sup>은 곳 生命<sup>생명</sup>으로 指<sup>지</sup>導<sup>도</sup>하는 復活<sup>부활</sup>이 오 此言<sup>이말씀</sup>을 六部分<sup>여섯부분</sup>으로 分<sup>분</sup>하

니 如<sup>어</sup>左<sup>좌</sup>함

一、 그리스도의 復活<sup>부활</sup>하신 是<sup>확실</sup> 確實<sup>증거</sup>한 證據<sup>가</sup> 있음、 前十五〇一一十一、

二、 그리스도의 復活<sup>부활</sup>하신 心<sup>우려</sup>이 憂<sup>걱정</sup>스면 吾儕<sup>우려</sup>의 信<sup>믿음</sup>과 傳道<sup>전도</sup>가 허됨、 十五〇十二一十九、

三、 節次<sup>절차</sup>를 隨<sup>따라</sup>서 復活<sup>부활</sup>할 事<sup>사</sup>라、 十五〇二十一三十四、

四、 復活<sup>부활</sup>하게 할 方策<sup>방책</sup>、 十五〇三十五一五十、

五、 主<sup>주</sup>께서 降臨<sup>강림</sup>할 時<sup>때</sup>에 信<sup>믿</sup>고 生<sup>사</sup>하는 者<sup>자</sup>는 忽然<sup>홀연</sup>히 變<sup>변</sup>化<sup>화</sup>하여 神靈<sup>신령</sup>한 身<sup>몸</sup>體<sup>체</sup>으로 升<sup>올라</sup>가

神 學 指 南

도遺失지아니하고末日에다시살닐터이니此거시我를遺호신이의意라子을見호고  
 信호는者는皆永生을得호터이니此거시我父의意라又末日에我가다시살니리라호시

더라(요六〇三十九-四十) 또요十一〇二十五, 절에예수씨셔마르다의게호신말숨을

보니末時에諸信者들노호여곰復活호게호실거시오또호예수씨셔幾次其弟子들의

귀自己는困難을當호야死은後三日만에復活호실거슬預言호신言이곳이거시라

(마十二〇三十八-四十, 十六〇二十一, 十七〇二十二, 二十三, 二十四〇十七-十九, 二〇十九

一二十二)

四福音中에復活에對호야마르천言대로하느님씨셔死者를다시살니실거슨奧妙호

方策이라主씨셔復活호시고升天호신後에使徒들과諸弟子들이傳播호時에特別호

能力으로예수의復活을證據호거슨復活이信者들의게大所望이되고또하느님씨셔

死亡을勝호신徵兆인줄知고熱心으로傳播호거시라

使徒時代에數多호교友들이예수씨셔速히再臨호실거슬信호고次次憂慮가성긴거

二、會堂長야이로란사람의小女을살녀주심、회당어른 적은데는○四十一五十六、

三、라사로를살녀주심、죽은사람 요十一〇四十一四十四、

예수씨셔死人을살녀주시고또弟子들을頒布하러보내실때에死人살닐權能々지주

신거슬보니復活할거슬預定하신方策인줄을覺悟할거시오死亡은罪價시되고하는

님의國는生命을베프는機關인디何方面으로思할지라도예수씨셔사단과死亡을이

괴실것又흐면하는님의國를創造하시는가온디死者를復活하게실거시오生命이

死亡을이길터이면死者가復活하여야될거시오그뿐아니라하는님씨셔永永히生存

하시고生命을주시는디예수씨셔사두기敎人들의問言에答하야글으샤티하는님씨

셔死者의하는님이아니시오生者의하는님이시라하야브라합과이삭과야곱의靈

魂은다살아서陰府에잇는디何時라도復活할거슬預訓하신거시라 (마二十二〇

二十九三十二)

예수씨셔末日에死者를復活하게실權能을對하야하신言이我賜신者는我가一

神學指南

陰府야爾滅亡이어 디잇는 後悔改가藏여서 我目에보이지아니 할리라 할言 (호十三)

○十四) 과바울이復活을對하야 할言 (고전十五〇五十四, 五十五) 을 읽혀보니 意義

如하나라 死亡이하는 님의 百姓을 永永히 勝지 못 할 거시 오또 할 하는 님씩서 死者의 身

을 贖良하시는 權能을 顯出하는 言이 오또 이 스라 엘國는 彼時에 死은 國와 又호나 復活

하야 回復할 거슬 마르치고 箇人으로 도 復活할 거슬 마르쳐 預言이라

舊約言을 詳考호 것 과 又치 또 新約言을 詳考하여 보면 諸理致中에 復活理致는 크게 要

緊호 理致인 줄 알 거신 디 곳 吾儕信仰의 基礎가 된 거슨 「萬一死者가 復生호는 것 업스

면 그리스도씩서 復生호심 이 업섯슬 터이 오 그리스도씩서 다시 사심이 업스면 爾等의

信仰도 헛되고 爾等가 如前히 罪中에 잇슬 거시 라고 전十五〇十六, 十七」

예수 그리스도씩서 復活하게 하시는 自己의 大權能을 顯出시라고 하시며 또 自己가 復

活하실 거슬 預訓하시라고 三次異蹟을 行하야 死者를 살려 주섯스니

一、나인이란 城에 사는 寡婦의 獨子를 살려 주심, 눅七〇三十一十五、

라셔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호세아가다 부활復活함을 예언預言하였고 이사야二十六〇  
 十九, 을보니 유대百姓回復할거슬 예언預言한거시오 되 죽은 사람死人도 부활復活할거슬 분명分明히 마르  
 차는거시오 단十二〇一一三, 을보니 다니엘이 죽은 사람終末困難을 대對하야 예언預言하되 두가지 부활二種復活  
 을 마르치니

一、생명 부활生命의 부활復活이라

생명 부활 당生命의 부활復活을 당當할자는 생명책生命冊에 일흔이름名錄한거시오 영성永生을 얻으며 별복은 별星과 별又 별차  
 영원 영원永遠도 영원영 빛 영원칠거시오

二、심판 부활審判의 부활復活이라

심판 부활 당審判의 부활復活을 당當할자는 차羞耻와 영원永遠호 영凌辱을 심판날審判日에 받으受할거시오

전세호세아가 나라회복이스라엘國回復할 때時에 받으受할 예언福을 중預言한 말中에 내言하기를 내회我가 내회彼等을 음부陰府의  
권세權勢에서 속광贖良하되 내회我가 내회彼等을 소망死亡에서 구속救贖하리로다 소망死亡아 내회爾災殃이 어디잇스며





고에던園에잇던福된것과人이思지못흐恩惠만잇고(哥二十二〇一五、十五〇三、  
 四)그리스도가其國에王이되실거시라(哥十一〇十五、시七十二〇十七、)其國이臨  
 할기를밧는사름이다懇求할거시니라

# 復活理致

(부활리치)

大邱 孟義窩 牧師

今年主日工課고린도前後書들取하야解釋하여서訓誨는디多般研究할理致中에一  
 種貴重할理致는곳復活理致라

舊約聖經에復活理致가잇스나유대人들이分明히覺悟지못하엿스나新約聖經에디

우要緊한理致가되고福音에大所望이됨으로使徒時代브러諸信徒들이心에大感

動을밧아特別한權能으로此理致를證據하야傳播하엿는니라外邦百姓들은一次도

復活할거슬思하지아니하고哲學博士라도訓誨中에別世魂靈은肉體를다시取

神 學 指 南

이잇는니라(사九〇六,七)

此諸般許諾과 類範와 預言이 皆에 수 教會로 應하엿다 고 하기에 어려오니 預定하신나라

는 아 직 顯하 아니 하 고 吾儕에 수 教會라 도 天國이라 고 할 수 업는 니라 此世紀를 當할 吾

等이 特別한 責任을 맞하스니 萬國의 卮 福音을 傳하는 職分이 니라

雖 反對하는 人이 言하기를 예수 道가 第一 道 能力이 만하 萬物을 새롭게 하는 道가 되

고 또 天國이 萬民을 主管하는 機關이라 하면 何如하 여 戰爭으로 全世上이 擾亂하 노

호면 聖經理致를 아는 사람이 對答하 기 쉬운 거스 此世界에 예수 道의 大主意는 萬民中

에서 人을 簡人으로 불너 서 예수 教會를 만드 는 뜻시 라 도 예수 道에 드러 나 는 救贖者가

再臨하야 天國을 組織하 실터 이니 其時에 는 亂離가 업슬 뿐더 러 萬民이 吾儕主에 수 그

리스도의 權下에 잇슴으로 預言하 救贖함과 天國榮光에 參預할 거시 라 고 할 지 니 라 萬

物이다 如是하 結局을 苦待하 는 中이 니 (로八〇十九-二十一, 林三〇二十, 二十一) 畢竟

其國이 組織하 게 되면 世上 創造하 기 前브 터 預定하 신國이 될터 이니 何罪나 咀呪가 업

聖經의 主意

六十七、고전十〇十一、구약舊約에 있는 모든諸그림자가 구속救贖하는 일이나 연국건설天國建設할 일을 마

르치는 그림자類範가 만흐니라 가령假令아담이 둘째第二아담의 그림자類範이 되는니 (로五〇十四) 此는 아

담은 육체종류肉體種類의 머리首가 되었스나 둘째第二아담 되신 그리스도는 신령종류神靈種類의 머리首가 되시는

니라

하는 자님되서 자自己의 뜻슬 나타내시라고 셋째第三默示하는 법法은 예언預言이니 첫째第一記錄할 예預

言은 예언예노의 예언預言이니 (文十四十五) 그가 멀니 보아서 구속救贖者가 왕王으로 심판審判하러

오실 것과 나라를 조組織하실 것을 예언預言하엿는니라 (학二〇二十一、二十二、比較) 其時後

에 영聖經言中에 예언預言할 말씀만흐나 희미엇던 말씀은 명稀微하고 가엇던 말씀은 명明白하니 가假令노

아가 예언預言하기를 독수선민의 족속族屬이 만흔 사람의 큰大福의 근원根源될 것을 말하고 (창九〇二十六

二十七) 또 나할 남이 나終末에 지유다 왕支派가 온디서 왕너날 예언王을 예언預言하고 (민二十四〇十

七) 그와 선지又 선지先知者이사야 때時々 예언지 예언預言할 말씀이 만히 드러나니 특별特別히 이사야의 기記

錄특하되 구속로 대救贖者가 대大王되며 모든諸般政治를 가맞으실 것과 가참하는 예님되신 것을 예預言할 말씀

神 學 指 南

(창二十六〇一五) 第四許諾은야곰의게하시코 (창二十八〇 十二十四) 第五許

諾은유다支派의게하시코 (창四十九〇 十) 第六許諾은다윗의게하시코 (삼후七〇

十二十六) 맛츨내童貞女마리아의게하시니라

如是케함으로救贖者오실許諾이代代로야브라함의族屬中에貴호基業으로遺傳호

거시니라

舊約말슴中에類範된人과類範事이過히만호니다말할수업스나假令으로二件만

思호전되前에記錄호창三〇十五, 말슴중에二箇種類가드러나니곳全聖經에잇는二

種後孫이라호나는女人의後孫이오호나는蛇의後孫이니女人의後孫으로終末에오

실이가救贖者가될거시나 (눅二〇三十一三十二) 蛇의後孫은그리스도를對敵호는者

가될거시라 (눅三〇七, 요八〇四十四, 哥十三〇二) 그림자란거슨舊約時代에살던

사람이나其時에된일이나禮式이나或物件이나무어시던지神靈的으로救贖理致를

爲先에마르치는者이나마르치는일이그림자라고호할수잇느니라 (히十〇一, 골二〇十

神學指南

을 수 있는 가 하고十九〇二十五, 말씀은 내가 알거니와我的救主가 생존하시니後日에  
 地上에서 시리로다我的此皮기腐後에 내가此肉體를 썬나하는님을 보리로다하는말  
 숨을 보니 음記가 또 한救贖하는理致를分明히證據하는冊이니라舊約에 잇는諸冊이  
 救贖理致와相關된거시드러나니舊約을詳考하면하는님께서古昔人으로하여곰救  
 贖者와大王되실대시야가來실所望을銘念하시라고三種法의默示로마르치  
 시니곳許諾과그림자와預言이라  
 元始祖時로브터童貞女마리아時까지七條大許諾이잇스니第一許諾은해와의밧은  
 許諾이니此는畢竟後孫이와서蛇을이꿈으로失하였던樂園과喜樂을다시세우고諸  
 般惡毒흔거슬업사할실許諾이라(창三〇十五)此許諾은아담의直接으로한선말  
 숨이아니오蛇側으로한것스니古人이該稀微한許諾을밧어서救贖者를待望하는무  
 리가되었느니라

둘째 허락  
 第二許諾은아브라함의게하시며 (창十二〇一三) 셋째 허락  
 第三許諾은이삭의게하시고

고무러블진되다름아니라異邦人의 期約이 滿間에 (눅二十一〇二十四) 여호와께셔  
面을 그리워셔이스라엘노自己를보지못하게하며自己의名을또흔드리내지아나하  
시느니라

舊約冊中에 傳道라는冊을보매 救贖하는理致가업스니或이思하기를此冊은全聖經

과 合同함이업거늘何如하야 聖經冊中에 두것느냐고하여도 實狀은全聖經理致와相

關이 大端히잇는니라 假令傳道에잇는問題를思하즉 人生의言行心思가 다헛되다하

거시오十二〇十三, 말씀은此는 結局의 말씀이라 吾儕가 다드러스니하느님을 敬畏하

고 其命을 지히라 大概이 거슨 諸人의 本分이니라 하신말씀을보니 其言이 올도다그

러나 理致를그만 沈覺知하인하느님의 誠命에對하야 自己의 不足함을 滿으로써 救

贖하는 道理를 尋見하心이 곳니라 날러이니 此冊은人을 引導하야 福音을思하게하는

冊이라 救贖理致와 相關이있다 고할수 밧기업는니라

을記를 두고 말하여도 是書의 大問題는人이엇더케함으로하느님의義를다하심을엇

新舊約言을詳考하야보면다만피로救贖할거시라하엿스되우헤말씀은하느님씨

셔피와權能으로救援하신다고하나救贖하시는能力이언제날거신고하면後에될일

이라救援하시는能力의그림즈가權能으로이스라엘百姓을애굽에서나오게하신일

노드러나고主씨서行하신異蹟으로드러나고當身이復活하심으로드러나며畢竟

儕가復活함으로드러나고또한末世에이스라엘百姓을仇敵의手에서救援하실씨에

드러나며萬物을새롭게하실씨에드리날지라萬國中에權能으로救援함을브랄만하

百姓은이스라엘百姓밖기업는니라假令舊約에스더記를研究하진디하느님의名을

記錄지아니하冊이나權能으로救援함을밧는理致를特別히마르치는冊이라至今이

라도眞實한유대人의게무러보기를聖經中에어나冊을第一滋味있게보느냐하면모

세五經外에는에스더記를第一도화한다고答하진니라이거슨유대人들이冊의裏意

를써드름이니곳하느님의百姓이異邦人中에散在間에하느님씨서自己擇하신百姓

을能히保護하시는거슬마르치는冊이라萬一何如하야하느님의名이此書에엿느냐

마르쳤느니 옛적 성도 古昔聖徒어 구스되노 가글이디 우리 세상 吾儕世上이 이전 以前에는 평복 平服을 남고 지냈스  
나 이후 以後에는 례복 禮服을 남을 때 時가 오리라 말씀 眞言이라 이조고마 此小은 지구상 地球上은 예수 그리스도  
의 피 血로 말미암아 거룩 聖하게 되어 이후 以後에 하는 풍성 聖함이 은혜 恩惠를 베푸실 디경 地境이 될지나  
라

하는 여리가 지일름 諸種名이 있는 면국 天國이라고 하고 하는 아말의 나라 子之國이라고 하고 다윗

의 자손 子孫의 나라 國이라고 하고 인자 人子의 나라 國이라고 하고 이모든인름 此諸名은 하는 기 세상 世上에서

設立한 나라 諸般形便과 상관 相關된 마르침 馬爾침이니 우리 吾儕가 당 當은 이 세계 此世界는 주 主이 복 福

音을 전파 傳播함으로 만국중 萬國中에서 잇는자 信者를 부르샤 한 몸 一體를 문드려 당신 當身과 왕 王노릇을 할 왕 王

王媣를 예비 預備하시느니 중 中이니 교회 教會에 대 對하야 모든 목적 諸目的을 일우선 後에 허락 許諾하나 조직 組織하

며 그림시 其臨時의 지나간 후 去後에 영원 永遠한 나라 國의 세계 世界가 시작 始作할 터이니 그 때 其時에 고전 十五〇二

十四、에 잇는 이상 말씀과 면국리치 又치하는 대주지 大主宰가 되실 거시니라 구속리치 救贖理致를 말하겠스니



二十七, 마十九〇二十八, 딤후二(十二) 其時에 此世上과 萬民이 하는 本是 預定하

신되 天國이 되여 하는 榮華를 賜게 하시오 (히二〇十七, 고전十五〇二十四, 二十

八, 엡一〇十) 此諸言은 맞치 山이 보이는 것 又 吾儕가 此世界를 지나서 後世

界에 하는 님의 뜻시 드러난 거슬 보는 지라 吾儕는 所望과 信仰으로 살지니라

天國理致를 言하면 聖經言中에 其理致가 업는 지가 別로 업스나 다 舊王時와 솔노몬王

時를 思하니 天國의 그림자니라 現出하는 거슨 다 舊王이 諸仇讎를 이긴 後에 平安하

國을 솔노몬의 게준 것 又 치고 전十五〇二十四, 말씀을 보니 主의 再臨하실 時부터 王

노릇하실 터이니 諸仇讎를 自己의 衣服從케 하시지 하며 畢竟 平安하나라를 하는

님의 光射하시는 萬物가 온디 大主宰가 되시게 하실 거시라 此言은 엇던 信者가 비

라는 千年世界라도 臨時世界만 되고 寶座에 안드신이가 글의 사되 불지어 다내가 萬物

을 새롭게 하신단 말슴은 아직 遠世界를 마르 천말슴이라 卍二十一장에 「予가 新天과

新地를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땅이 업서지고 海도 다시 잇지안터라」 할말슴은 其時를

본시 예정

영화

산

우키

별

왕

주

맞추니

이말슴

신자

내

그때

그때

이 세상

만민

우키

소망

모든 원수

재림

평안

이말슴

신자

새하늘

그때

이라고 하나 實狀은 福된冊이라 할 말이 잇슬 外에 (목 一〇三) 사단이人을 막아冊

을 못보게 할 서둑이 잇는 거슨 自己가 畢竟 女人의 後孫의 게 밧을 害를 能히 알고 사름들

노 其事를 思하 지 말게 하라 고 하 는 事이라 魔鬼가 實狀은 하는 님 의 서 此 世 上 에 서 天 國

을 세 우 시 려 하 시 는 本 意 를 沮 戲 하 라 고 吾 儕 의 元 始 祖 를 犯 罪 케 함 으 로 하 는 님 의 國 될

만 할 此 世 上 으 로 魔 鬼 의 國 이 되 게 함 이 라 (요 十 二 〇 三 十 一 , 十 四 〇 三 十 , 十 六 〇 十 一 ,

고 후 四 〇 四 ) 默 示 錄 말 숨 을 다 시 思 하 건 디 寶 座 란 말 숨 이 잇 는 거 스 天 國 을 마 르 침 인

디 全 書 에 寶 座 의 나 라 와 相 關 된 말 숨 만 하 니 假 命 十 一 〇 十 五 , 言 은 天 에 大 聲 들 이 잇

서 글 으 디 世 上 國 이 吾 主 와 그 그 리 스 도 의 國 이 되 여 世 世 에 王 노 릇 하 시 리 로 다 하 심 은

하 는 님 의 原 意 를 全 히 일 우 는 거 슬 讚 頌 하 는 말 숨 이 라 또 默 示 錄 가 온 디 하 는 님 의 寶

座 가 世 上 에 잇 는 거 슬 볼 수 잇 고 (목 二 十 二 〇 三 ) 罪 의 結 果 업 으 眞 實 하 百 姓 이 王 을

奉 事 하 는 거 슬 보 고 (二 十 二 〇 五 , 六 ) 救 贖 함 을 밧 은 자 가 政 治 에 參 預 하 는 거 슬 보 는 니

라 (三 〇 二 十 一 , 五 〇 十 , 二 十 〇 六 ) 또 此 외 類 似 하 는 님 슬 마 르 치 는 他 聖 經 은 (단 七 〇

三 )

님역서敎會에對하야定意함심은意中에裏意이니舊約言을보면대시야의나라는此

地球<sup>디구상</sup>上과相關된國이니即天國이라萬國에救贖함을받은諸者들이會集하야一國이

될거시니하늘노셔下降하는新에루살렘이其國의都城이되며(무二十一〇五)이

스라엘百姓이曠野에들너든닐새에十一支派가祭司長職分맞흔레위支派와聖慕을

들너서營을친것과又처救贖함을받은萬國이므즈막都城에게신하는닐을擁衛할

거시라此問題를더욱分明히쳐듯게하기위하야니하아는말二條를思할저니即창二

〇十五、号二十一〇五、이라創世記에잇는言은我が爾로하여곰女人과仇讎가되고

爾의後孫이女人의後孫과또호仇讎가되게하리니女人의後孫은爾頭를傷할거시오

爾는그말금치를傷하리라하시더라하엿스니此奧妙하고稀微한言詞中에하는님의

預定하신뜻사드러나느니라또호 무二十一〇五、말씀은寶座에안즈신이가골의샤

디볼지어다내가萬物을새롭게하노라하섯단말씀이잇스니此二條言은全聖經의眞

理를支撐하는柱石이라코호말하도다人이默示錄을어렵게思하고서드를수업는冊

南 指 學 神

救贖하는 뜻과 天國의 뜻은 如斯하니 此二種 뜻을 創世記부터 默示錄까지 全聖經에 차

질수 있는니라 하는 님께서 天國을 設立하시라고 救贖하는 뜻을 드러내셨다 하는 말을

記憶하여 聖經을 研究하시니라 하는 님께서 天地創造하시기 前부터 無形한 天國을

세우시기로 預定하시니 (마二十五〇 三十四 절 말씀은 無形한 사람의게 하시니 아

니 오이에 有形한 사람의게 하시니) 世上을 創造하신 뜻은 永遠부터 永遠까지 無形한

天國을 臨時로 나타내기 爲하여 有形한 天國百姓을 내시라고 元始祖를 創造하시니 世上

을 繁盛케 하는 資格을 주심이라 始祖가 맞은 責任은 自己種類대로 天國의 無形한 百姓

을 生育할 本分이나 그러나 罪를 犯함으로 其責任을 失敗한 것은 罪人과 罪人の 後孫이

罪人으로 天國百姓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하는 님께서 此地球上에서 天國을

設立하시니 預定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罪와 其罪의 結果를 얻시니 間에 天國을 延期하시니

이러이러케 말하시는 것은 教會에 對하여 말함이 아니니 教會는 우흐로 부르심을 받아 神

靈은 基業을 얻으되 말하시는 바 天國은 此地球上과 相關된 하는 님의 有形的制度라 하는

聖經의 主意

는 자가 救贖理致나 天國理致가 明白하고 仔細히 研究하면 此二種理致가 明白히 드

러 나느니라

이 재우리의 說는 問題는 天國을 設立하시라고 救贖하는 主意라 하시니 第一 무려 볼 만

흔 거슨 救贖이란 거시 如何할 거시뇨 大概 救贖이란 救字의 뜻은 卹진 가온 디셔 건져 내

는 뜻시오 贖字의 뜻은 卹슬 내고 도쳐는 뜻시라 할 지니 卽 罪에 卹진 사를을 救拔하고

罪의 奴隸된 人을 노하 卹이라 救贖하는 目的을 說할 진디 或은 簡人的 相關으로 알고 或

은 教會의 相關으로도 하는 이가 있스나 吾儕가 諸般 理論을 내여 노코하는 님의 말씀만

依는 면하는 님으로써 此世上에서 自己의 나라를 設立하시라고 救贖의 理致를 나타내신

거슬 알기 쉬우니라 第二로 무려 볼 만 할 거슨 하는 님의 나라나 天國이란 뜻시 무어시뇨

하 면하는 님으로써 萬民을 主管하시는 制度가 有形的으로 드러나는 거시라 天國은 本是

永遠브터 永遠까지 無形的으로 있는 거시나 吾儕가 至今言하는 바 天國은 此地球上萬

民과 相關되어 臨時로 드러나는 國이니라

神學指南

# 聖經의主意

(성경의 주의)

神學博士

월니암, 제, 에르만

著述

文學文士

魚塗萬牧師

翻譯

吾儕의 聖經은 六十六卷合하여 一冊이 되니 合同됨은 여러冊이다 할 主意가 있음이

라 誰某던 지 吾儕의 冊을 讀는 事를 讀는 事의 보는 聖經의 主意가 如何하여 하면 敎贖하는

뜻시라고 답하 기쉬우나 其書의 뜻을 愈益 分明히 思할 것 又 何면 하는 冊에서 國을 設立

하시라고 救贖하시는 主意라 何問題를 조곰 더 分明히 하고 넓게 하면 하는 冊에서 自己

榮光을 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由하여 此世上에서 天國을 設立하시라고 萬民과 萬

物을 恩惠로써 血과 權能으로 救贖하는 主意라 吾儕의 모든 冊이 皆此 主意와 相關되

니니 何冊은 救贖하는 理致와 特別호 相關이 있고 何冊은 天國理致와 特別호 相關이 있

스나 何冊은 天國救贖兩理致와 相關이 되니니라 何호 幾箇冊을 두고 말하면 쉽게 思하

신학수 책임  
神學士의 責任이라

講道人 이道를 經驗하는 範圍 안에서서 마르칠거시오 門外 傍聽人 으로서서 講道할 것

아니라 傍聽人 의 傳道는 世上 사람이 거둔 거스로 알고 슬허 브리는 니라 神學士 의 큰 目

的은 眞히 研究하는 것과 사름을 交際하는 거슬 兼야 할지니 一便으로는 하는 님의 奧

妙理 致를 通達할 거시오 一便으로는 行人의 親舊 노릇할 거시오 예수 씨서 니고 데

모의 게는 重生의 奧妙 理致를 마르치시고 사마리아 女人의 게는 罪를 씨듯 게 마르치

신 것 처우리가 傳道할 때에 사름의 形便을 따라 마르칠 거시오 此 敎派가 彼 敎派를 對

敵하고 此 信經이 彼 信經보다 낫다 하는 分爭 中에 暗黑한 世上을 빛치시는 主의 面目을

우리가 바라보고 有無 識者들의 게나를 비호라 하시도 의 音聲을 親密히 드를 거

시라 이러호 責任을 다하라 면 힘을 다하고 聖神을 힘입어 正성 實되 終末에는 예수의

식히신 말슴과 처우리가 無益한 종이 라 할 수 밧고 업고 有名한 畫工이 自己가 그린 圖

畫를 보고 하는 님이 여더도 케 못 할 거슬 容恕하시옵쇼서 할과 처할 거시오 니라

神 學 指 南

는말이 참固執者의信經이라敎會에信經은잇는經驗的으로된거시니假令니개아信

經을지은者는임의하는님의恩惠를經驗함으로예수씨서하는님이신줄밋고헬나哲

學에屬하말노예수와하는님이同等됨을確認함이라엇더훈敎會와엇더훈사름이或

信經이所用업다하나良心에法이잇스니信經이所用업다하면無法하밋음이오信經

만依하고良心의經歷이업스면죽은信經이라이런故로信經과經歷은서로쌍이되었

스니가처는호지못할지라聖經말슴에行함이업는밋음은죽은밋음이라함고又처

經歷이업는信經은죽은信經이라사름이世上에處하야날마다經驗하는事申에生活

上과良心에適當하信經이라야永久하信經이될거시라人生이全能하신造物主를두

려위하즉化身하신中保를要求할거시오罪人이審判을두려하즉代人贖罪하신救

主를要求할거시오사름이世上과로온짐을젓슨즉平安히쉬게하는福音을要求할거

시오죽음을두려하함으로종이된者는죽음을이과고永生을주시는그리스도를즐거

위할지니이여러가지所願을滿足하게하는信經이라야참堅固하信經이될지니라



生의 소망 취하는 소원이니라

경험 성경  
經驗과 聖經이라

反對하는 자가 성경 저술자 때 시비 신자 더답 성경 결과  
反對하는 자가 성경의 著述者와 時를是非하면 信者의 對答은 聖經의 結果가 었더호것

과 말슴의 能力이 었더함을 經驗的으로 證據할거시라 聖經이 하는님의 말슴이 된 證據

는 推理的에 잇는 것이니 오事實的으로 아는 거시니 天下萬民의 神靈은 能力을 나라

냄이라 聖經은自古以來로 여러 나라 逼迫에 燒火도 當호고 여러 反對書로 攻擊도 當호

엇스되 衰호지 아니호고 漸々發明되어 萬國에 聖經과 又치 만히 翻譯된 書冊이 업는

나라 英國有 名호 詩人 콜드리저 (Colridge) 氏曰 聖經 말슴이 내게 適當호다 함과 又치 聖

경은 모든 사람의 形便과 行爲의 經驗에 適當호 글이 나라

신경 성경  
信經과 經驗이라

世人中에 信經이 업슬수 업스니 無道호者라도 信經을 밋지 아니호는 줄 내가 밋노라호

神 學 指 南

예수의 말씀에 果實과실을 보면 나무를 안다 하심과 또 하니라 또 反對者반대자의말이曰너희가 믿는 것은  
 참말되기를 願원하는 마음이 잇슴으로 믿는 거시라 하니 우리의 對答대답이 었더 願원 酌定작명이던  
 지 所願소원 업시 酌定작명 하는 거시 업는 니 내가 믿으라 하는 理致리치를 擇定리명 할 수 박괴 업는 니라 믿  
 는 사람이 믿고져 함으로 믿는 다 할 것 또 흐면 믿지 안는 사람도 믿기 슬허 함으로 믿지 아  
 니 允다 할 수 잇는 니라 英國영국 哲學士철학사 밀(MILL) 씨가 其아 들 幼한을 教育교육 할 때에 그 아 들이  
 밋을 무음이 잇서 밋을 가 두려워 하야 宗教종교의 眞理진리를 혼 번도가 르쳐 주지 아니 하고 哲學철학  
 만가 르쳤더니 그 아 들이 長成장성 하야 장가가 디 其妻가 번 번하 지 못하 나 其妻를 恭敬공경 하 기  
 를 하는 님 또 치하 며 數千年수천년이來로 自己妻가 第一貴重제일귀중 한 사람이 라 하니 이는 無他다름 나  
 라 敬拜경배 하는 무음이 其本性그본성에 박 혀 스 디 敬拜경배 할 이 를 아 지 못함으로 하는 님 代身대신 其妻를  
 恭敬공경 하 거시라 信者는 心中심중에 所願이 잇서 宗教의 眞理를 밋으 나 아 모 理致리치라 도 眞理인  
 줄만 서 드 르면 밋는 넓은 무음이 잇는 지라 그러나 信者의 所願은 紊亂문란 함을 슬허 하 고 整정  
 頓돈 함을 도 화 하 며 虛謊허황을 슬허 하 고 眞實진실 하 신 그리스 도 를 도 화 하 며 落望락망을 슬허 하 고 永영

진리의 증거  
眞理를 얻은證據라

理致를 구하다가眞理를 얻은證據여러가지가 있스되第一滋味잇는證據는自己心中

經驗이니곳밋음으로식사름이되여諸般行事가서로위짐이라信者가自己밋는眞理

를確的히說明할口辯이업스나善行爲로自己밋는眞理를證據하느니라或反對者

가曰箇人の經驗이스스로속는다하나우리의對答은그렇치아니하다一人뿐아니라

全世界數百萬人이同一經驗으로밋음을證據하느니라數百萬人의證據들밋을만하

니라또反對者가曰狂者一人이狂치나數萬人이밋치나밋쳤스면밋천거시라하

니우리對答할말은돌이니 一은宗教上뿐아니라物理上과哲學上에엇던理致던지

如此처反對하라면할수잇슴이오 二는世上에그릇된것과여러異端은分別할標

가잇스니精神차린人은그그릇된것을分明히써드를수잇느니라信者의經驗이如此

호異端에니르지아니하고오직此惡호世上에잇셔敬虔하고거룩호人格을이루느니

神 學 指 南

소정 인도자  
盲人된引導者라

년전 유명 화학박사  
 年前에有名한化學博士 오스왈드 (Oswald) 씨가 하와 대학교에 와서 영생이라는問題  
 를가지고講演하였는데그말이다만欸心이만코어둡고沉沉한것뿐이니自己가쳐들  
 지못한問題를說明함이오밋음으로永生의權能을받지못한것들이니有名한博士라  
 신령계 소정  
 도神靈界에는참盲人이로다또여러電氣器械를發明한에디손 (Edison) 씨는二十年동  
 안에晝夜로物體를研究하니神靈的에屬한復活을論述하였으나自己思想經驗外  
 에일인故로盲人이盲人을引導한模樣이라바울使徒의말씀에神靈한事은神靈한者  
 라야알것다하고또예수말씀이사람이내아바지의意대로行하라면此敎訓을알니라  
 하였느니라우리가眞理를實驗하여眞理를얻을거시오思想은生活의經驗으로鍊  
 단  
 鍛하여야씻거기가떠러진後淨金又흔밋음이날거시니라

경향라면門內에 드러서야 할지니라俗談에云기를水은渡보야야深淺을알고肉는喫  
 맛야味을안다흥과又치道德과神靈的事實은自己가實驗하야알거시오他人으로同  
 고동락苦同樂하야보야他人의事情을아는것又치밋음의眞理를實驗하야眞理가人의  
 형편形便에엇더케適當할을알거시라修道院에서는修道士와深山에處하는僧들은世人  
 교제交際가稀少世俗經驗이不足함으로世間內意을알지못하니라

敬拜하야야主를알거시라

米國<sup>미국</sup> 빗스<sup>비트스</sup> 벽<sup>벽</sup>가<sup>가</sup>녀<sup>녀</sup>이<sup>이</sup>圖<sup>도</sup>畫<sup>화</sup>觀<sup>관</sup>覽<sup>람</sup>院<sup>원</sup>에<sup>에</sup>一<sup>한</sup>幅<sup>폭</sup>奇<sup>기</sup>妙<sup>묘</sup>호<sup>호</sup>圖<sup>도</sup>畫<sup>화</sup>가<sup>가</sup>잇<sup>스</sup>니<sup>니</sup>復<sup>부</sup>活<sup>활</sup>하<sup>하</sup>신<sup>신</sup>主<sup>주</sup>씨<sup>씨</sup>애<sup>애</sup>마  
 오<sup>오</sup>旅<sup>려</sup>館<sup>관</sup>에서<sup>서</sup>二<sup>두</sup>弟<sup>메</sup>子<sup>자</sup>의<sup>의</sup>게<sup>게</sup>餅<sup>떡</sup>을<sup>을</sup>써<sup>어</sup>어<sup>어</sup>쥬<sup>쥬</sup>신<sup>신</sup>圖<sup>도</sup>畫<sup>화</sup>인<sup>디</sup>二<sup>두</sup>弟<sup>메</sup>子<sup>자</sup>의<sup>의</sup>顔<sup>안</sup>色<sup>색</sup>은<sup>은</sup>恭<sup>공</sup>敬<sup>경</sup>하<sup>하</sup>는<sup>는</sup>模<sup>모</sup>樣<sup>양</sup>이<sup>나</sup>  
 타<sup>타</sup>나<sup>고</sup>其<sup>그</sup>前<sup>앞</sup>에<sup>에</sup>畫<sup>화</sup>工<sup>공</sup>의<sup>의</sup>妻<sup>처</sup>子<sup>자</sup>를<sup>를</sup>그<sup>그</sup>렸<sup>는</sup>디<sup>디</sup>밋<sup>는</sup>디<sup>디</sup>및<sup>는</sup>模<sup>모</sup>樣<sup>양</sup>으로<sup>로</sup>跪<sup>꿇</sup>坐<sup>앉</sup>고<sup>고</sup>또<sup>또</sup>畫<sup>화</sup>工<sup>공</sup>의<sup>의</sup>形<sup>형</sup>像<sup>상</sup>도<sup>도</sup>그<sup>그</sup>一<sup>한</sup>便  
 에<sup>에</sup>그<sup>그</sup>렸<sup>는</sup>디<sup>디</sup>跪<sup>꿇</sup>坐<sup>앉</sup>지<sup>아</sup>나<sup>나</sup>고<sup>고</sup>서<sup>서</sup>々<sup>々</sup>보<sup>보</sup>며<sup>며</sup>其<sup>그</sup>顔<sup>안</sup>色<sup>색</sup>에<sup>에</sup>疑<sup>의</sup>心<sup>심</sup>과<sup>과</sup>밋<sup>는</sup>지<sup>아</sup>나<sup>나</sup>고<sup>고</sup>는<sup>는</sup>模<sup>모</sup>樣<sup>양</sup>이<sup>나</sup>타<sup>나</sup>  
 니<sup>니</sup>自己<sup>자</sup>도<sup>도</sup>그<sup>그</sup>妻<sup>처</sup>子<sup>자</sup>로<sup>로</sup>더<sup>더</sup>브<sup>르</sup>러<sup>러</sup>主<sup>주</sup>前<sup>앞</sup>에<sup>에</sup>나<sup>나</sup>와<sup>와</sup>膝<sup>무릎</sup>을<sup>을</sup>跪<sup>꿇</sup>야<sup>야</sup>欸<sup>의</sup>心<sup>심</sup>이<sup>이</sup>풀<sup>니</sup>고<sup>고</sup>救<sup>구</sup>主<sup>주</sup>를<sup>를</sup>覺<sup>세</sup>知<sup>지</sup>하<sup>하</sup>니라

神 學 指 南

을 것뿐이니 數法도 밋음에 屬한 거시오 또 電氣를 使用하는 것은 나 그 原理는 알수 업스  
 니 電氣를 使用하는 것도 밋음에 屬한 거시라 是故로 吾儕가 新學文을 研究할 때에 自己  
 智慧와 聰明을 밋어 야 하는 것 又 神靈을 理致도 自己心中에 經驗을 事實대로 밋을 거  
 시라 法國有名한 學士 伯遜 (Bergson) 씨가 胆大히 말하기를 眞理를 엿고져 할면 知力과  
 直覺力을 合하여야 엿는다 하더라 米國 心理學 博士 詹스 (James) 씨曰 人이 確證할 수 업는  
 理致라도 밋기로 酌定하는 거시 可하 다 하엿스며 바은 (Bowne) 씨曰 五官의 證據를 밋어  
 도 良心과 宗教性의 要求함을 不服하는 者는 知其一고 不知其二는 愚昧한 者라 하엿스  
 니 由此觀之 則 神靈한 眞理를 證明할 方針은 다 만人의 神魂에 經驗한 일노 證明할 거시  
 라

문의 방향자 속뜻을 알지 못  
 門外傍聽者는 裏意不知함이라

眞理를 研究하는 者는 經驗하는 範圍內에 드러서야 理由를 알지니 眞理의 聖殿을 측구

靈魂이肉體를使用한다하느니라 靈魂 육체 사용  
 靈魂이肉體를使用한다하느니라 靈魂 육체 사용  
 靈魂이肉體를使用한다하느니라 靈魂 육체 사용

우리研究事實은神魂을合하여議論하시라 연구 사실神魂 합 의론

已上에論述을進步하는研究法의結局은엇더할지모르되丁寧히알것잇스니人의 이상 토론진보 연구법 결국  
 已上에論述을進步하는研究法의結局은엇더할지모르되丁寧히알것잇스니人의 이상 토론진보 연구법 결국  
 已上에論述을進步하는研究法의結局은엇더할지모르되丁寧히알것잇스니人의 이상 토론진보 연구법 결국

奧妙한理致에對하여確的히證明할수업슴 오묘 리치 대하여 확덕 증명

以前人이智慧를자랑하여말하기를엇던理致던지確的히證明할수업스면밋을수업 이전사람 지혜  
 以前人이智慧를자랑하여말하기를엇던理致던지確的히證明할수업스면밋을수업 이전사람 지혜  
 以前人이智慧를자랑하여말하기를엇던理致던지確的히證明할수업스면밋을수업 이전사람 지혜

근세 사상 광역  
近世思想이廣大하여짐이라

과거세대의 유물론적 사상 결과  
過去世紀에唯物論的思想의結果는들이니  
一은唯物論者말의過음을反對함으로  
별교 사람 병  
別敎가니러나人이病을업다고만思하고祈禱하고病이差다하며죽은사람의魂을불  
너말할수있다하고 二은唯物論者가深究하는中에그過한말을自改게됨이라數十  
년전 물에 근본 원조  
年前에는物體의根本은原子라하더니近來에는陰電氣原子(電子)라하니電氣原子  
가우어신지研究하여보면神靈의境에갓가온지라그런고로有名한化學博士의말이  
연의원조 연조 신령덕  
電氣原子(電子)가神靈的에屬할줄노思한다하느니라二十五年前에物理學博士들  
신자 부활 리치와말  
이信者의復活한다말이理致外言이라하더니近來에는말하기를죽은사람의魂은  
담화  
로더브러談話할수있다하니우리가如此말을밋지아니하니物理學者의意思가廣  
대거진證據니라近來에電氣車와電氣燈과無線電과飛行機와潛水艇又호묘  
중거 근리 연의차 연의등 무선연 비행기 잠수명  
기계 수십년전 심리학 박사 이전 뇌두 신경 육  
器械는數十年前에夢도못꾸엿던거시라또心理學博士들이以前에는腦와神經이肉



스니其動物을 연구하는 지식은稱讚할수있시되神靈的으로推理하는知識은업는人  
 이라其時에英國政府에서物理學에關한職分을委任코자하니其老父의言이吾子은  
 研究力이不足한人이니職分받는거시不可하다호지라

詩人과教會의意思가廣大함이라

此時에덴니손(Tennyson)씨와워트스워트(Wordsworth)씨와브라운은잉(Browning)씨  
 又혼詩人

은힘써말하기를物體的經驗하는事實뿐아니라神靈은事實도相關하여야할거시라

하고教會에서힘써말하기를靈魂과良心의經驗을相關하여야할거시오禽獸昆蟲만

研究할것아니라호니彼不信하는物理學博士들이詩人을비웃고教會를蔑視호였스

나詩人과教會는風波를이기고近世까지堅固호였스며다르윈(Darwin)씨의힘써著

述호는近世에죽은것又호야五年前에다르윈씨百年紀念禮式을行호는뒤有名호

物理學士말이다르윈씨推理文葬禮式을行호다호였느니라

廣大의 뜻과 狹少의 뜻

米國하와 大學校內有名한 心理學敎師 詹士(James) 씨의 言이 生活을 廣大케 보는 거시

狹少케 보는 것보다 勝하다 하얏스니 此廣大의 意恩라 하는 거슨 算學과 化學에 屬한 事

實辨아니라 人生의 道德性과 神靈性에 根이 박힌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거슨 世上에 屬한 것

사지보고 推想하는 거시오 狹少의 意恩라 하는 거슨 肉體와 物體에 屬한 事實만가지고 辯

論하는 意恩니라

유물론의 철학의 뜻 좁음  
唯物論的哲學의 意恩가 狹少함이라

過去의 世紀에 다르인 (Darwin) 씨와 헉슬레 (Huxley) 씨와 밀 (Mill) 씨와 스펜서 (Spencer)

又한 여러 哲學의 失誤는 狹少한 經驗方으로 推論한 거시니 譬컨디 金字塔을 倒로 立함

과 又한 니라 假令다르인 (Darwin) 씨의 作文에 支離한 禽獸와 昆蟲과 野蠻을 論述한

되 禽獸가 漸々變하여 人이 되엿다 하고 하는 님과 人의 死後事는 不可恩議論이라 하얏

완전 경험  
完全한經驗이라

凡眞理를 얻으라 면 모든事實을 잡아가지고 推理하는 거시 緊要하니 德國哲學士

칸트(Kant) 씨의 言이 知識에 屬한 事實뿐 아니라 道德에 屬한 事實까지 知야 할 거시

가 假令 五官 經驗 方으로는 하는 님을 아라 볼 수 업스나 人이 良心을 研究 함으로 하는 님

이 계신 것과 엇더하 신 거슬 알고 믿을 수 잇스니 良心의 善行이라 하는 命令(無上命法)

을 가지고 推理 할 즉 하는 님의 主掌 심과 人의 自由와 靈魂 不滅 함을 必然히 알 거시니

라(로 一〇十九, 二十, 二〇十四, 十五) 人이 良心 잇스니 善惡間에 自由로 酌定하되 心中

에 公히 박힌 뜻이 잇서 賞罰 間受 할 줄 知 함으로 第一 惡者라 도 心中에 勸戒를 아나 밧

을 수 업고 第一 善者라 도 心中에 勸戒를 滿足히 順從 할 수 업는 니는 故로 良心에 關한

靈驗을 가지고 推理 하야 道德과 神靈을 理致를 分明히 覺할 수 잇다 하니 칸트(Kant)

씨의 如此 論述 함이 哲學과 神學에 公德이 不少라 휴움(Hume) 씨는 一便만 가지고 推理

함으로 空에 너르고 칸트(Kant) 씨는 全便을 가지고 推理 함으로 無窮에 너른 지라

는理致는使用하지아니호지라이러케辯論하는法은經驗方이니近世思想進步에  
가되는니라

경험방 그릇함  
經驗方을誤用이라

此方法을誤用호哲學士가잇스니都知壹未知其二호는것又치호야誤用함이不少호

지라엇던哲學士는知識에屬호經驗만依호고本性과七情과先知者의默示와古詩에

感動호는心이事實의에適當치안타고必리며尤以道德上과宗教上原理를虛謊호다

辯論호니其結局은道德上에紊亂함이오思想에自取滅亡이라英國哲學士버르클네

(Berkeley) 씨가辨明호기를物體의이업고萬物이神靈의뿐이니五官經驗이헛거시라

호고휴움(Hume) 씨는辨明호기를神靈의이업고萬物이物體의뿐이니五官經驗外에

는업다호야二人의思想이反對가되엿스니可笑호일이라휴움(Hume) 씨의말과又치

神靈的이업스면自己思想도업서질거시오버르클네(Berkeley) 씨의말과又치物體的

이업스면自己肉體도업고萬物도空虛호影子만될것뿐이라

神學辯證論

(신학변증론)

神學博士 李 訥 瑞 翻譯

米國지카고城長老會의 신학교교수 신학교교수 신학박사 신학생의 講演말씀  
을大概翻譯하여記載함

第一講演 信仰과 經驗이라

思想에 經驗方이라

古哲學士는 推理的으로 辯論하여서 事實을 相關치 아니하였더니 近世哲學士는 事實을 仔細히 아라보고 其事實에 適當한 理致만 使用하게 되었스니 크게 進就한 事니라

나 哲學士 아리스도틀(Aristotle) 브터 英國 哲學士 베컨(Bacon) 의 地理致를 第一로 알고

其理致에 依된 事實을 相關치 아니하여 相合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事實을 버리고 理致를 使用하더니 近來 哲學士들은 事實을 잡아가지고 推論하되 其事實에 合치 아니함

神 學 指 南

何일가。鐵樹에春色일가、銅山에雲影일가。非也며、非也로다。道假人弘하고、人由道高하느니。編於世界하야는唯宗教一最崇이오、著於宗教하야는我基督이極尊이시라。黑門에서發源하야靑邱에傳流하기까지二千殘年이오、赤血을循環하야丹心을傾潤하기까지三十餘載니라。因하야恩想을鼓吹하고、更히塵夢을鍾醒하느니。於此인燈々焰々이互絲이라不假五弦之彈이오、於彼인頭々物々이共露이라頓破半島之昏이라홀지나。若海萬里에惑霧는橫生이라智針을可用하느니氣會神學指南之上이오、暗室一座에禱聲이縱聞터니文兒가忽生하느니眼通衆星拱北之間이로다。時는枯木에回陽할時이며、際는旱苗가得霈할際이로다。迷夜衢閉에豈有見燭而不欲隨者乎며、沍陰蟄封에詎有聞雷而不欲振者乎아。於是에否林暮雨에晦迹하든者도得意雀躍할거시며、於是에沙門寒江에韜名하든者도有情魚抃하리니。壽劃霄壤에、貴弄金玉하라。爾之德音을猫耳待之하며、爾之健筆을犬足祈之하노라。

吾敎會의 牧師들이 每主日과 每水曜日에 禮拜堂에서 講說할 時局이 잇스니 此期報는  
 講道問題나 祈禱會題目에 對하야 幫助하려는 目的으로 此第一號에는 折半을 講道部  
 에 屬하게 하엿노라

且其部에는 故元杜尤牧師의 別世후라도 今에 吾儕의 講道하는 事를 思할 時에 使  
 徒들이 新約片紙로 由하야 近世敎會의 言하는 事와 如하니라 更히 感祝할 事는 吾

卒業生中에 三人이 講道圖型을 보님이니라

又神學의 問題에 或新文字를 使用할 事이 잇고 或奇文이 無한 事를 容納하사기를

要望함

祝 詞

益山 竹齊 許 巡 軾

明月은 照古今而不變하느니 有形而無形은 鏡에 照하며, 淸風은 歷東西而不斷하리  
 니 有涯而無涯는 海에 觀할 事라。 天地에 彌綸할 者는 何이며, 宇宙에 普霑할 者는

社說

編輯人

神學指南

神學의眞指南은聖經이어늘엇지야此期報의名稱은神學指南이라호는此雜誌  
 는聖經과호으나決斷코아니라此期報는聖經으로眞南을삼아依호야每期에特別히  
 吾長老敎會의牧師와神學生들의게神學의廣海에向方을指南호려는目的이잇는니  
 라

吾神學校는學生들의게神學의諸課程을敎授호여도時期가不足함으로滿足호게敎  
 授호지못호는故로吾卒業生들이神學에屬호問題를더工夫호라면或每年에平壤으  
 로가서卒業後別科를工夫할수가잇기는잇스나萬一敎會의事務나私事形便이나遠  
 相距나旅行호기를禁호는境遇에는他方法으로用호야神學知識을增加호必要多호  
 나라

此期報는特別히如此호時局中에吾卒業生들을幫助호려는目的이잇는니라

社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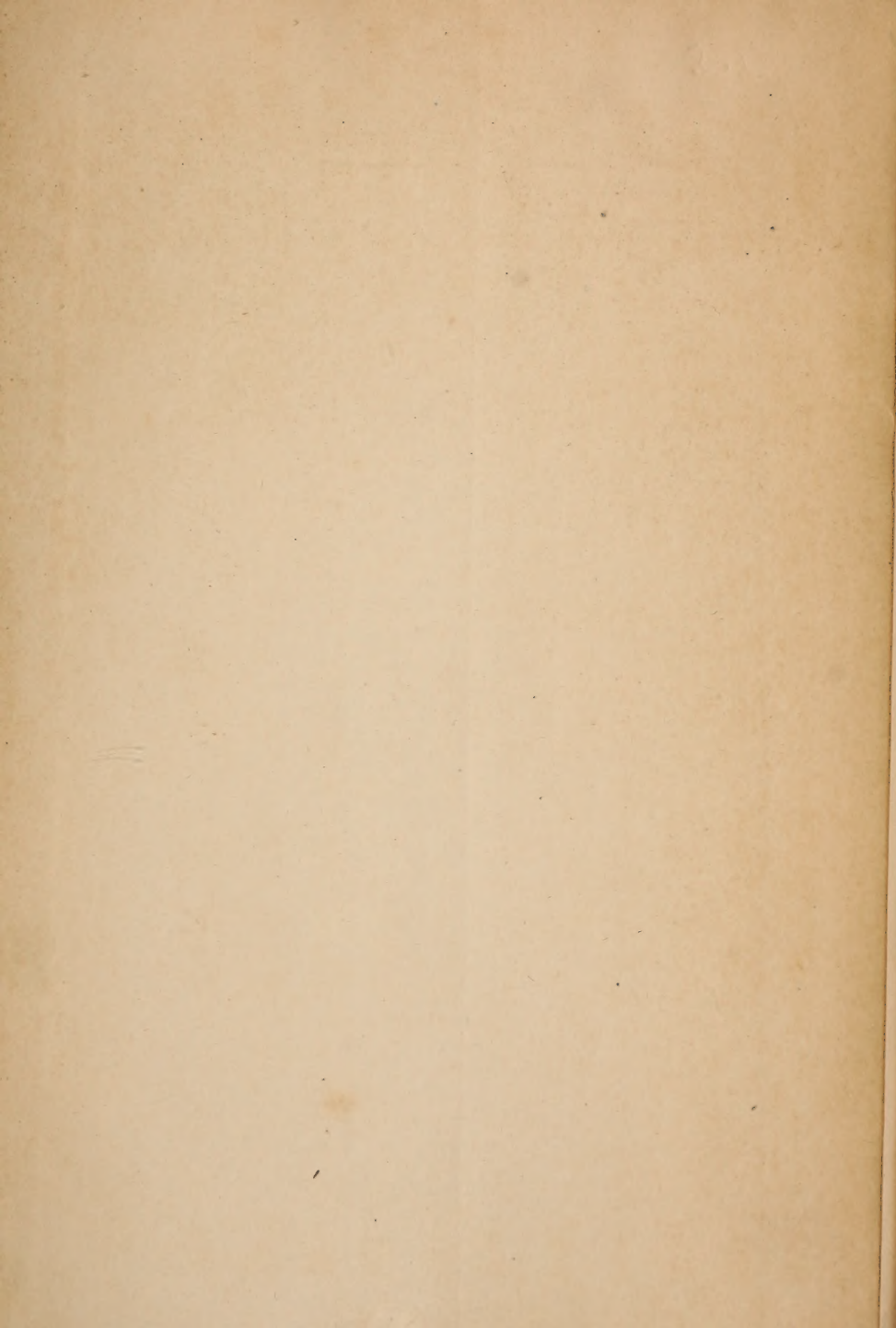




# 神學指南第一卷第一號

## 目次

社說	：	：	：	：	：	編輯人	：	：	一
祝詞	：	：	：	：	：	許 廵 軾	：	：	二
神學辯證論	：	：	：	：	：	神學博士 李訥瑞牧師	：	：	四
聖經의主意	：	：	：	：	：	文學文士 魚涂萬牧師	：	：	一九
復活理致	：	：	：	：	：	文學學士 孟義窩牧師	：	：	三二
十二使徒의教訓	：	：	：	：	：	王 吉 志	：	：	三九
聖이구스디노	：	：	：	：	：	王 吉 志	：	：	五五
요한 변연	：	：	：	：	：	神、哲學博士 裴緯良牧師	：	：	七四
教會統計	：	：	：	：	：	編輯人	：	：	八八
講道	：	：	：	：	：	神、法學博士 故元杜尤牧師	：	：	九〇
講道圖型	：	：	：	：	：	梁錫鎮牧師	：	：	九七



135



